GOVP 19513066

R
315.1
E363t
94-95

행정간행물등록번호
05400-02540-26-35

통계분석자료모음
(1994.12 ~1995.11)

1995.12

통 계 청

머 리 말

급속히 변화하는 정보화시대를 맞이하여 통계정보에 대한 중요성이 크게 강조되고 있으며 통계수요의 형태 및 내용도 점차 전문화, 다양화, 세분화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러한 변화추세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통계청에서는 그동안 경제·사회·문화등 각 분야별 기본 통계를 더욱 개선발전시킴과 아울러 신규통계의 개발, 통계분석자료의 확충 및 통계정보의 보급확산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번에 발간하는 「통계분석자료모음」집은 통계청에서 '94년 12월 이후 현재까지 통계책자 및 언론기관을 통하여 발표하였던 통계분석자료들을 모아서 재편집한 것입니다.

이 책자가 통계이용자들에게 유용한 자료로 활용되어지기를 기대합니다.

1995. 12.

통계청장 이 강 우

이용자를 위하여

이 책자는 '94년 12월 이후 현재까지 통계청 각 과에서 책자 및 언론기관을 통하여 발표하였던 통계분석자료들을 모아서 재편집한 것입니다.

이용시에는 다음 사항에 특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 인용된 수치는 자료작성시에는 가장 최근의 것이지만, 그 이후의 정정·보완 등으로 인하여 현재의 수치와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2. 해설이나 통계표상에 나타나는 순위매김 역시 자료작성 당시에 따른 것으로 현재시점에서 보면 달리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3. 재편집시 매 자료 사이에 간지를 넣어 통계도표를 새로 첨가하였으나, 여기에 인용된 수치도 재구성한 것이 아니라 본문의 수치를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목 차

1. 지난 30년간 고용사정의 추이 ('94. 12) 1

2. 1994년도 한국의 사회지표('95. 2) 41

3. 통계로 본 「OECD 국가와 한국」 ('95. 5) 81

4. 광복이후 50년간의 경제일지('95. 6) 131

5. 통계로 본 「한국의 발자취」 ('95. 8) 143

6. 통계로 본 「세계와 한국」 ('95. 8) 227

7. 통계로 본 「광복이후 한국인의 문화생활 변천」 ('95. 8) 297

8. 통계에 나타난 「한·중간 경제교류 실태」 ('95. 8) 343

9. 통계로 본 「중국의 경제사회상」 ('95. 8) 35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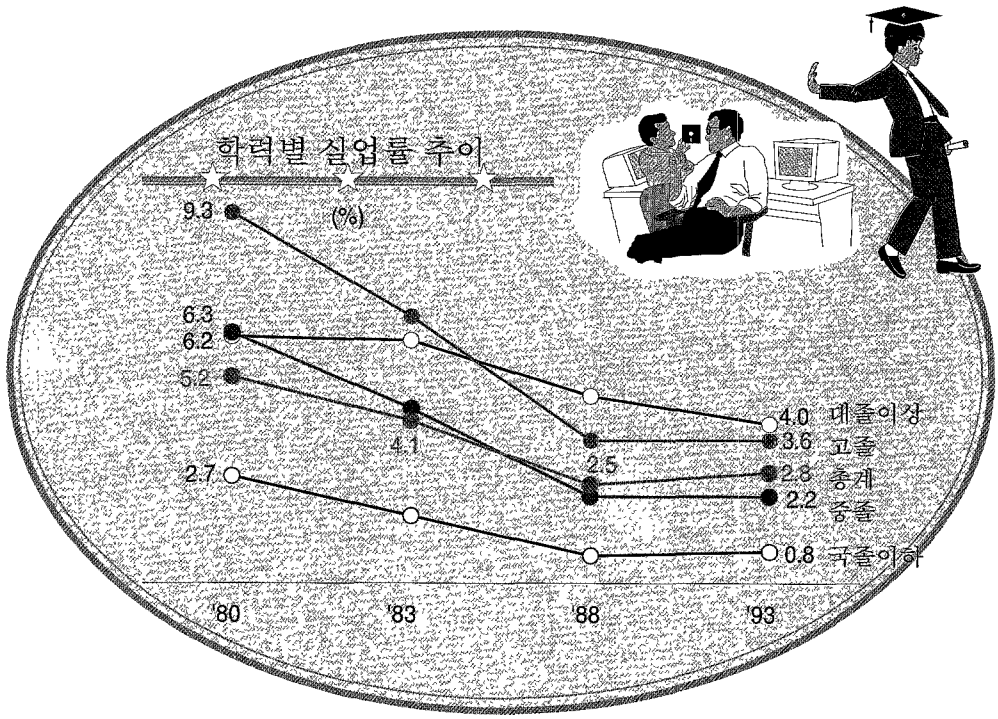
10. 계간 국제통계 창간 및 통계로 본 국제경제동향 ('95. 9) 391

11. 통계로 다시보는 「광복이전의 경제·사회상」 ('95. 9) 419

12. 여성의 사회활동실태 국제비교 ('95. 9) 473

13. 남북한 경제사회상 비교 ('95. 11) 523

1963~1993
지난 30년간 고용사정의 추이



『지난 30년동안 전반적으로 전체 실업자와 저학력 실업자는
줄고 있는 가운데 대졸이상 실업자는 '93년 140천명으로
'80년에 비해 2배이상 늘어났으며 실업률도 4.0%로
여전히 높아 학력이 높을 수록 실업이 문제가
되고 있음을 알수있다.』

- 본문중에서 -

지난 30년간 고용사정의 추이

1994. 12

통계조사국 사회통계과

< 요 약 >

1. 고용여건의 변화

○ 우리나라의 지난 30년간 고용을 둘러싼 인구·경제·사회적 여건은 크게 변모하였음.

< 인구 여건 >

○ 인구규모는 '63년 27,262천명에서 '93년 44,056천명으로 1.6배 증가

○ 가족계획사업의 수행으로 인구증가율은 '63년 2.8%에서 '93년 0.9%로 대폭 감소

○ 6·25직후 출생한 베이비붐세대가 '70년대이후 생산가능한 인구로 대폭 진입

○ 출산력의 감소와 평균수명의 지속적인 상승으로 우리나라 인구의 연령구조 역시 크게 변모

○ 농촌으로부터 도시로의 대규모 인구이동이 발생하여 노동력이 도시에 집중

< 경제적 여건 >

○ 한국경제는 '63년부터 '93년까지 30년동안 연평균 8.6%의 고도성장을 보임.

○ 산업구조는 농림어업 중심에서 제조업과 서비스업이 중심이 되는 선진국형 산업구조로 개편

- 농림어업 비중 : '63년 46.3%→'93년 7.8%
- 제조업의 비중 : '63년 15.8%→'93년 30.0%
- 사회간접자본 및 기타서비스산업의 비중 : '63년 36.0%→'93년 61.8%

○ 제조업내에서도 중화학공업의 비율이 크게 증가('63년 29.7%→'93년 71.5%)

< 사회적 여건 >

○ 여성이 노동력공급에 중요한 원천으로 등장

- 경제활동인구중 여성이 차지하는 비중 : '63년 34.4%→'93년 40.0%

○ '80년이후에는 대학졸업정원제를 도입하면서 입학정원을 확충함에 따라 고학력자가 양산되는 결과를 초래

○ '80년대후반이후 노사관계의 전환점을 맞아 제조업부문의 고용흡수력저하 등 고용여건에 커다란 변화를 초래

○ 아울러 '80년대말이후 3D직종의 기피현상과 같은 노동공급행태가 나타나 고용 및 임금구조의 변화요인으로 작용

2. 주요고용지표의 변화

○ 15세이상인구는 30년간 연평균 2.7% 증가한 반면 경제활동인구는 연평균 3.0% 증가하여 경제활동참가율은 '63년 56.6%에서 '93년 61.1%로 증가하였음.

○ 취업자의 30년간 연평균증가율 3.2%는 경제활동인구 연평균증가율 3.0%를 상회함으로써 실업률은 '63년 8.1%에서 2.8%로 지속적으로 하락

< 주요 고용지표 >

(단위:천명,%)

	15세이상 인 구	경제활동 인 구	취업자	실업자	경제활동 참 가 율	실업률	
							비농가
'63	14,551	8,230	7,563	667	56.6	8.1	16.3
'93	32,400	19,803	19,253	550	61.1	2.8	3.1
'63 -'93	(2.7)	(3.0)	(3.2)	-	-	-	-

( )는 기간중 연평균증가율

< 15세이상인구 >

○ 15세이상인구중 청소년층(15~24세)의 연평균증가율은 베이비붐의 영향으로 '70년대에 4%대로 높아졌으나 '80년대부터는 1% 이하로 증가율이 크게 둔화되어 '90년부터는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청소년계층의 인구규모가 감소하기 시작

○ 55세이상의 고령자인구비중은 '63년 13.1%에서 '93년 16.6%로 증가

< 경제활동인구 >

○ 경제활동인구중 여성의 비중은 '63년 34.4%에서 '93년 40.0%로 증가하여 여성의 경제활동참여가 남자에 비해 더 두드러졌음.

○ 경제활동인구의 비중을 연령계층별로 보면

- 청소년계층(15~24세)은 '63년 26.0%에서 '93년 13.6%로 줄어든 반면
- 주력노동계층(25~54세)은 65.4%에서 72.3%로, 55세이상의 고령자층은 8.6%에서 14.1%로 증가

< 경제활동참가율 >

○ 성별로는 남자의 경제활동참가율이 진학률상승으로 '63년 78.4%에서 '93년 76.0%로 감소한 반면, 여자는 고용여건의 개선으로 37.0%에서 47.2%로 대폭증가하였음.

○ 연령계층별로는 25~54세 주력노동계층의 경제활동참가율이 전반적으로 상승

- 저연령노동력인 15~19세 연령계층의 경제활동참가율은 진학률상승 등으로 '63년 44.1%에서 13.5%로 급속하게 감소
- 청년층의 20~24세 경제활동참가율은 58.9%에서 61.3%로 소폭증가

○ 성별·연령계층별 경제활동참가율을 보면

- 남자의 경우 경제활동참가율이 가장 높은 연령계층은 30대로 30년간 거의 불변
  · 여자의 경우 30년동안 경제활동참가율이 가장 높은 연령계층은 '63년에는 40대, '93년에는 20대초반으로 변화하였음.
- 여자의 경제활동참가율은 20대초반에는 높다가 20대후반부터 30대초반까지는 결혼·출산·육아로 감소하나 30대후반부터 다시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음.

○ 주요선진국과의 경제활동참가율을 비교하면

- 우리나라의 경제활동참가율은 아직 낮으며 특히 여자의 경제활동참가율은 미국과 비교할 경우 10% 정도 낮은 수준임.
- 연령계층별로 보면 특히 우리나라의 15~19세 경제활동참가율은 10%대의 저조한 수준으로 미국 등의 20~30%대와 현격한 격차를 보이고 있음.

< 비경제활동인구 >

○ 비경제활동인구는 30년동안 남자가 2.5배, 여자가 1.8배로 남자의 증가속도가 더 빨랐음.

○ 유형별 비경제활동인구의 비중은 가사가 '63년 62.3%에서 '93년 51.7%로 줄어든 반면, 통학은 11.8%에서 32.4%로 대폭 늘었음.

○ 비농가의 여자비경제활동인구중 25~54세 연령계층은 '80년 2,974천명(비경제활동인구에 대한 구성비 29.6%)에서 '93년 4,154천명(구성비 33.0%)으로 1,180천명이 증가하였음.

- 이러한 비농가 25~54세 여자의 비경제활동인구는 유휴노동력으로서 향후 이용가능한 노동력원천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음.

3. 취업구조의 변화

< 산업별 취업자 증가율 추이 >

○ 전체취업자는 30년동안 연평균 3.2%의 증가율을 보였으며 산업별로는 농림수산업에서만 1.7%의 취업자감소를 보였고 나머지 모든 부문에 증가세를 보였음.

- 특히 건설업은 8.1%, 제조업은 7.3%의 높은 증가세를 나타냈음.

○ 제조업취업자 증가율은 제조업내에서 노동집약적인 경공업의 비중이 주종을 이루었던 '63~'75년기간중 11.5% 정도의 증가율을 보였으며

- '70년후반 제2차 석유파동과 중화학공업중심의 산업구조개편추진, 그리고 '80년대 초반의 경제안정화시책에 따라 제조업취업자 증가율은 '75~'80년기간중 6.7%, '80~'85년기간중 3.5%로 대폭 둔화되었음.
- 경기호황으로 '85~'90년기간중 제조업취업자증가율은 7.1%로 높아졌음.

- '80년대말이후 임금이 급격히 상승하고 근로자가 제조업의 3D업종을 기피함으로써 제조업이 노동절약적인 생산방법으로 전환함에 따라 제조업취업자는 '92년부터 감소추세로 전환하였음.

< 취업자 기간중 연평균증가율 >

(단위:%)

기간구분	전산업	농림어업	광공업		SOC및 기 타			
				제조업		건설업	도소매 음식숙박	기 타
63 - 70	3.5	0.3	11.4	11.5	9.1	7.0	-	-
70 - 75	4.0	2.0	10.4	11.6	4.0	13.1	-	-
75 - 80	3.2	-2.7	6.9	6.7	7.7	11.2	-	-
80 - 85	1.8	-4.2	3.6	3.5	5.0	1.7	5.3	5.8
85 - 90	3.9	-2.8	6.5	7.1	5.4	8.4	3.1	6.8
90 - 93	2.1	-4.4	-1.9	-1.8	5.9	7.9	7.2	4.3
63 - 93	3.2	-1.7	7.0	7.3	6.4	8.1	2.1	2.5

1) '80~'93년 기간중임.

< 산업별 취업구조 >

○ 산업별 생산구조는 '63년에 농림어업 46.3%, 광공업 17.7%, 사회간접자본 및 기타서비스산업 36.0%에서 '93년에 각각 7.8%, 30.4%, 61.8%로 변화

- 30년동안 농업중심의 산업구조가 제조업과 서비스부문중심의 산업구조로 전환

○ 이러한 산업별 생산구조의 변화는 산업별 취업구조의 변화를 가져와

- 산업별 취업자 구성비가 '63년 농림어업 63.0%, 광공업 8.7%, 사회간접자본 및 기타서비스산업 28.3%가 '93년에 각각 14.7%, 24.4%, 60.9%로 변화하였음.

○ 산업별 취업자 구성비를 주요선진국과 비교하면,

- 농림어업취업자 구성비는 15%대로 5% 전후의 선진국에 비해 훨씬 높은 편이며

  · 제조업취업자 구성비는 '92년에 25.5%로 일본과 유사한 수준이나 독일·대만에 비해 훨씬 낮은 수준임.

- 20여년간의 시계열자료를 통해 우리나라의 제조업구성비를 선진국과 비교하면

  · 일본의 제조업취업자 비중은 '70년에 27%로 높은 수준을 보였으며, '75년이래 약 15년간 25% 전후의 안정된 수준을 보이고 있음.

  · 독일의 경우에는 '85년이후 30% 수준에서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 우리나라 제조업취업자 구성비는 '76년에 21.3%로 20%를 돌파한 후 계속 증가추세를 보여오다가 '89년에 27.8%의 정점에 도달한 후 '90년이후 감소추세로 반전하여 '93년 24.2%에 도달

< 직업별 구조 >

○ 취업자의 직업분포변화는 우리가 경험한 산업화과정을 반영하여 농림어업직종사자는 크게 감소(구성비 62.9%→14.6%)하였고 생산직, 판매서비스직, 전문·사무직이 크게 증가하였음.

- 생산직은 구성비가 '63년 15.0%에서 '93년 31.9%로 증가, 판매서비스직은 15.3%에서 28.2%로 증가

- 전문·사무직은 구성비가 '63년 6.8%에서 '93년 25.3%로 증가하였으며 특히 여자의 구성비증가(3.1%→25.0%)가 두드러짐

< 고용형태별 취업구조 >

○ 상시근로자 비중이 '63년 18.8%에서 '93년에는 52.1%로 늘어나 취업구조가 점차 선진국형으로 전환하고 있음.

- 반면 일용근로자, 무급가족종사자, 자영업자의 비중은 '63년 각각 12.7%, 31.2% 37.2%에서 '93년 각각 8.9%, 10.8%, 28.2%로 줄었음.

○ 고용형태별로 취업자비중을 국제비교하면

- 우리나라의 임금근로자비중은 '93년 61.0%로서 주요선진국의 80%내외 수준에 훨씬 못미침.

- 반면 자영업주와 무급가족종사자의 비중은 매우 높은 수준임.

< 취업시간대별 취업자 >

○ '80년대후반 취업시간의 추세를 보면 전산업은 '88년 55.8시간, 제조업은 '87년 57.2시간을 기록한후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음.

○ 취업시간대별 취업자를 보면 36~53시간 취업자는 '80년대 초반의 감소추세에서 '80년대후반이후 증가추세로 전환되고 있는 반면

- 54시간이상 취업자는 대체적으로 비중이 증가하다가 '89년이후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고

- 18~35시간 취업자의 비중도 약간씩 감소하고 있음.

4. 실업구조의 변화

○ 지속적인 경제발전으로 인해 실업률이 '63년 8.1%에서 '69년 4%대로 하락하였고, '76년에는 마침내 3%대까지 하락하였음.

- 제2차 석유파동의 여파와 정치·사회·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실업률이 '80년 5.2%까지 상승한후 다시 노동수요의 증가율이 노동공급을 상회함에 따라 실업률이 장기적으로 하락추세에 있음.

  · '86~'88년의 호황기간사이에는 12~13% 수준의 경제성장률의 결과로 실업률은 '88년 2%대로 진입하여 마찰적 실업을 제외하면 거의 완전고용수준에 진입하였음.

< 성별 및 농가·비농가별 실업구조 >

○ 남자의 실업률이 전기간에 걸쳐 여자의 실업률에 비해 높은 수준을 시현함.

○ 농가실업률은 '63년 2.9%에서 '93년 0.9%로 감소하였고, 비농가실업률은 '63년 16.3%에서 '93년 3.1%로 크게 감소하였음.

< 연령계층별 실업구조 >

○ 청소년계층(15~24세)의 실업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현상을 보여주고 있음.

- 이러한 현상은 청소년계층이 신규노동력으로서 노동시장에 처음으로 진입함으로써 생기는 마찰적 요인이 작용한 것으로 판단됨.

- 아울러 인구의 고학력화가 지속되고 특히 인문사회계 고학력자에 대한 노동수요가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임. 또한 청소년계층에 대한 직업훈련기회의 부족과 대학비진학 고등학교졸업자들이 직업훈련을 기피하는 현상등에도 일부 기인

< 성별·교육정도별 실업구조 >

○ 고학력자의 실업률이 저학력자의 실업률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 '80년의 실업률을 교육정도별로 보면, 국졸이하가 '80년 2.7%, 대졸이상이 6.2%이었으며, '93년의 경우에는 각각 0.8%, 4.0% 였음.

○ 성별로 구분해 보면, 전반적으로 남자의 실업률이 여자의 실업률보다 높으나,

- 교육정도별로 보면, 고학력자의 경우 여자의 실업률이 남자보다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음.

  · 이는 고학력 실업문제가 여자에게서 매우 심각함을 보여주는 것임.

5. 최근 고용구조의 특징

< 생산노무직의 인력감소 >

○ 제조업의 생산·노무직에 종사하는 취업자는 '87년까지 두자리 숫자로 증가하다가 '88년이후 증가율이 급격히 둔화되었으며

- '92년부터는 감소추세로 전환하여 '92년 245천명, '93년에 204천명이 제조업 분야에서 퇴장하여 인력난을 가중시키고 있음.

○ 건설업의 생산·노무직의 경우에는 높은 건설노임등의 영향으로 '91년까지 취업자가 계속 높은 증가추세를 보이다가

- '92년에 증가세가 급격히 둔화되고 '93년에는 마침내 감소추세로 전환하였음.

- 제조업과 약간 시차는 있지만 건설업의 경우에도 단순노무직취업자는 감소하고 있음.

<제조업·건설업의 생산직·기능공 및 단순노무직 추이>

(단위 : 천명, %)

	'86	'87	'88	'89	'90	'91	'92	'93
제 조 업	3,039	3,534	3,712	3,860	3,867	3,877	3,632	3,428
(전년대비증감)	290	495	178	148	7	10	-245	-204
(전년대비증가율)	10.5	16.3	5.0	4.0	0.2	0.3	-6.3	-5.6
건 설 업	738	764	856	955	1,121	1,275	1,350	1,328
(전년대비증감)	-19	26	92	99	166	154	75	-22
(전년대비증가율)	-2.5	3.5	12.0	11.6	17.4	13.7	5.9	-1.6

< 고학력 실업문제 >

○ 지난 30년동안 전반적으로 전체 실업자와 저학력 실업자는 줄고 있는 가운데

- 대졸이상 실업자는 '93년 140천명으로 '80년에 비해 2배이상 늘어났으며 실업률도 4.0%로 여전히 높아 학력이 높을수록 실업이 문제가 되고 있음을 알수 있음.

○ 특히 20~24세 대졸이상 고학력자는 실업률이 '89년 13.0%에서 '92년 10.5%로 감소해 왔으나, 전반적인 경기부진의 여파로 '93년에는 13.0%로 다시 높아졌음.

- 특히 남자 대졸이상 고학력자의 실업률이 '93년 21.5%로 높게 나타났음.

< 20~24세 대졸이상 고학력자의 실업률 >

(단위:%)

구 분	'89	'90	'91	'92	'93
계	13.0	11.7	10.9	10.5	13.0
남 자	19.2	16.9	18.7	14.6	21.5
여 자	10.8	9.7	8.7	9.3	11.0

< 취업구조의 서비스화 >

○ 사회간접자본 및 기타서비스산업의 구성비는 '85년에 50.6%로 50%를 상회한 후 '93년에 60.9%로 60%를 넘어서 빠른 속도로 비중이 커져가고 있음.

- 특히 도소매·음식숙박업은 '82년에 22.1%로 20%를 넘었으며 최근에는 25% 수준을 보이고 있음.

○ 도소매·음식숙박업 취업자의 구성비를 외국과 비교하면 우리나라가 높은 수준임.

○ 도소매·음식숙박업에 종사하는 취업자를 고용형태별로 보면, '93년 무급가족종사자 15.6%, 일용근로자 4.1%, 영세한 규모가 대부분인 자영업주 43.0%로서 이들 세가지 형태가 62.7%로서 대부분을 차지하여 취업구조가 비교적 불안정함을 보여줌.

- 이들 세가지 형태의 취업자수는 '89년의 2,463천명에서 '93년의 3,032천명으로 569천명이 늘어났으며, 특히 경기가 부진하였던 시기인 '92~'93년사이에 274천명이 늘어났음.

○ 도소매·음식숙박업으로 인력이 이동함으로써 제조업 생산직부문의 취업자 감소('92년 △245천명, '93년 △204천명)의 요인이 되고있음.

지난 30년간 고용사정의 추이

1. 고용여건의 변화

○ 우리나라의 지난 30년간 고용을 둘러싼 인구·경제·사회적인 여건은 크게 변모하였음.

○ 인구측면의 여건변화

- 인구규모는 '63년 27,262천명에서 '93년 44,056천명으로 1.6배 증가
- 가족계획사업의 성공적인 수행으로 인구증가율은 '63년 2.83%에서 '93년 0.90%로 대폭 감소
- 6·25직후 출생한 베이비붐세대가 '70년대이후 생산가능한 인구로 대폭 진입
- 출산력의 감소와 평균수명의 지속적인 상승으로 우리나라 인구의 연령구조 역시 크게 변모하였음.
  - 15세미만의 연소층은 '63년 43.5%에서 '93년 24.3%로 감소한 반면, 생산가능 인구인 15~64세 계층은 동기간중 53.5%에서 70.3%로, 65세이상의 노년층은 3.0%에서 5.4%로 증가하였음.
- 농촌으로부터 도시로의 대규모 인구이동이 발생하여 노동력이 도시에 집중함으로써 산업인력의 원천이 되고 있음.
  - '60년 우리나라의 도시인구 비율은 28.0%에 불과하였으나, '70년 41.1%, '80년 57.3%, '90년 74.4%까지 증가되었음.

○ 경제측면의 여건변화

- 한국경제는 '63년부터 '93년까지 30년동안 연평균 8.6%의 고도성장을 보임.
  - 1인당 GNP는 '63년 100달러에서 '93년 7,466달러로 증가
- 산업구조는 농림어업 중심에서 제조업과 서비스업이 중심이 되는 선진국형 산업구조로 개편되고 있음.
  - 농림어업 비중은 '63년 46.3%에서 '93년 7.8%로 감소
  - 광공업의 비중은 '63년 17.7%에서, '83년 34.3%, '93년 30.4%로 급격히 변화 ('88년 36.3%를 정점으로 '89년이후 감소추세)
  - 사회간접자본 및 기타서비스산업의 비중은 '63년 36.0%에서 '93년에는 61.8%로 급격히 증가
- 제조업내에서도 중화학공업의 비율이 크게 증가하였으며, '63년 29.7%에서 '93년 71.5%로 대폭 증가

대한민국국회도서관장서

○ 사회측면의 변화

- 출산력저하, 핵가족화, 여성의 고학력화, 여성활동에 대한 사회인식의 개선등으로 여성이 노동력공급에 중요한 원천으로 등장
  - 경제활동인구중 여성이 차지하는 비중은 '63년 34.4%에서 '93년 40.0%로 증가
- '80년이후에는 대학졸업정원제를 도입하면서 입학정원을 확충함에 따라 고학력자가 양산되는 결과를 초래
  - 학령인구대비 대학진학률은 '65년 12.1%에서 '93년 37.7%로 대폭 증가
- '80년대후반이후 노사관계의 전환점을 맞아 제조업부문의 고용흡수력저하 등 고용여건에 커다란 변화를 초래
- 아울러 '80년대말이후 3D직종의 기피현상과 같은 노동공급행태가 나타나 고용 및 임금구조의 변화요인으로 작용

< 주 요 여 건 변 화 >

분 야	구 분	단위	'63	'73	'83	'93
인 구	인 구 규 모	천명	27,262	34,103	39,910	44,056
	· 남	천명	13,708	17,235	20,129	22,177
	· 여	천명	13,554	16,868	19,781	21,879
	인구증가율	%	2.83	1.78	1.49	0.90
	연 령 구 조	%	100.0	100.0	100.0	100.0
	· 0 ~ 14	%	43.5	40.6	32.1	24.3
	· 15 ~ 64	%	53.5	56.2	63.9	70.3
	· 65세이상	%	3.0	3.2	4.0	5.4
	평균수명[1]	세	55.3	63.2	65.8	71.3
	도시인구비율[1]	%	28.0	41.1	57.3	74.4
경 제	GNP('90년불변)	10억원	18,211	44,690	92,503	215,614
	기간중연평균 성 장 율	%		(9.4)	(7.6)	(8.9)
	1인당 GNP	$	100	396	2,002	7,466
	산 업 구 조	%	100.0	100.0	100.0	100.0
	· 농림어업	%	46.3	27.0	15.1	7.8
	· 광 공 업	%	17.7	28.2	34.3	30.4
	· 서 비 스	%	36.0	44.8	50.7	61.8
	중공업비중[2]	%	29.7	39.9	55.1	71.5
사 회	여성노동력비중	%	34.4	36.9	38.5	40.0
	진 학 률					
	· 중 학 교	%	54.3[3]	70.7	98.6	99.9
	· 고 교	%	69.1[3]	68.1	89.4	98.2
	· 대 학	%	32.3[3]	28.1	38.3	38.4
	학령인구대비 대학 진학률[4]	%	12.1[3]	13.5	33.8	37.7

1) '60년, '70년, '80년, '90년 자료임. 2) 제조업에 대한 비중임.
3) '65년 자료임.
4) 학령인구대비 대학진학률은 편의상 중학교진학률, 고교진학률, 대학진학률을 곱하여 구하였음.

2. 주요 고용지표의 변화

가. 개관

○ 생산가능인구인 15세이상인구는 '63년 14,551천명에서 '93년에는 32,400천명으로, 지난 30년간 2.2배(기간중 연평균증가율 2.7%)가 증가한 반면,

- 실제 노동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경제활동인구는 '63년 8,230천명에서 '93년 19,803천명으로 동기간중 2.4배(기간중 연평균증가율 3.0%)가 증가하여 15세이상인구의 증가배율을 상회하고 있음.

  · 이에 따라 경제활동참가율은 56.6%에서 61.1%로 증가하였음.

○ 취업자는 '63년 7,563천명에서 '93년 19,253천명으로 지난 30년간 2.5배(기간중 연평균 증가율 3.2%) 증가하여, 경제활동인구 증가세(기간중 연평균 증가율 3.0%)를 초과하였음.

- 이에 따라 실업률은 '63년 8.1%에서 '93년 2.8%로 지속적으로 하락

  · 특히 비농가 실업률은 동기간중 16.3%에서 3.1%로 큰폭으로 하락

- 다만 '78~'83년기간중에는 경기침체 등을 반영하여 고용창출이 부진함에 따라 경제활동인구증가율이 취업자증가율을 상회하였고 실업률도 다소증가

< 주요 고용지표 >

(단위:천명,%)

	15세이상인구	경제활동인구	취업자	실업자	경제활동참가율	실업률	비농가
'63	14,551	8,230	7,563	667	56.6	8.1	16.3
'68	16,456	9,541	9,061	480	58.0	5.0	8.8
'73	19,490	11,389	10,942	447	58.4	3.9	6.8
'78	23,130	13,849	13,412	437	59.9	3.2	4.7
'83	26,212	15,118	14,505	613	57.7	4.1	5.5
'88	29,602	17,305	16,869	435	58.6	2.5	3.0
'93	32,400	19,803	19,253	550	61.1	2.8	3.1
93/63비율	2.2배	2.4배	2.5배	0.8배	4.5%P	△5.3%P	△13.2%P

<기간중연평균증가율>

(단 위 : %)

	15세이상인구	경제활동인구	취 업 자	실 업 자
63 - 68	2.5	3.0	3.7	-6.2
68 - 73	3.4	3.6	3.8	-1.3
73 - 78	3.5	4.0	4.2	-0.2
78 - 83	2.5	1.8	1.6	8.6
83 - 88	2.5	2.8	3.1	-6.2
88 - 93	1.8	2.7	2.7	5.1
63 - 93	2.7	3.0	3.2	0.0

나. 15세이상인구

○ 15세이상인구의 변동추이를 청소년층(15~24세), 주력노동력계층(25~54세), 고령층(55세이상)으로 구분하여 보면,

- 청소년층(15~24세)의 연평균 증가율은 전후베이비붐세대가 생산가능연령에 도달한 '70년대에 4%대로 매우 높아졌으나, '80년대부터는 증가율이 크게 둔화되어, '90년이후에는 부(負)의 증가율을 보였음.

  · 이에 따라 '90년부터는 노동시장에 새로 진입하는 청소년계층의 인구규모자체가 감소하는 현상이 나타났음.

※ 전후베이비붐세대란 '55년부터 '64년까지 출생한 세대로서 15년후인 '70년부터 노동력시장에 진입하게됨.

- 주력노동계층인 25~54세 연령계층의 인구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 55세이상의 고령자의 인구규모는 '63년 2,019천명에서 '93년 5,542천명으로 3%전후의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음.

  · 고령자의 비중역시 '63년 13.1%에서 '93년 16.6%로 증가하였음.

< 15세이상인구의 추이 >

(단위:천명,%)

연 령	'63	'68	'73	'78	'83	'88	'91	'93
계	15,411	17,379	20,254	23,853	27,109	30,524	32,321	33,328
15-24	4,872	5,300	6,740	8,348	8,698	8,840	8,711	8,553
25-54	8,520	9,738	10,862	12,308	14,680	17,255	18,499	19,235
55+	2,019	2,340	2,651	3,197	3,732	4,430	5,111	5,542
구성비								
계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5-24	31.6	30.5	33.3	35.0	32.1	29.0	27.0	25.7
25-54	55.3	56.0	53.6	51.6	54.2	56.5	57.2	57.7
55+	13.1	13.5	13.1	13.4	13.8	14.5	15.8	16.6
연평균 증가율		'63~'68	'68~'73	'73~'78	'78~'83	'83~'88	'88~'91	'91~'93
계	-	2.4	3.1	3.3	2.6	2.4	1.9	1.6
15-24	-	1.7	4.9	4.4	0.8	0.3	-0.5	-0.9
25-54	-	2.7	2.2	2.5	3.6	3.3	2.4	2.0
55+	-	3.0	2.5	3.8	3.1	3.5	4.9	4.1

다. 경제활동인구

○ 경제활동에 참가하고 있는 인구의 비중을 성별로 구분해 보면,

- 경제활동인구중 남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63년 65.6%에서 30년후인 '93년에는 60.0%로 줄어든 반면,

- 여자의 비중은 동기간동안 34.4%에서 40.0%로 5.6%포인트 증가하였음.

○ 경제활동인구의 비중을 연령계층별로 보면,

- 청소년 계층(15~24세)은 '63년의 26.0%에서 '93년에는 13.6%로 그 비중이 감소하였음.

  · 청소년계층의 비중이 감소한 것은 15세이상인구중 청소년계층의 비중감소와 아울러 그동안 소득의 증대로 상급학교로의 진학률이 크게 높아졌기 때문으로 판단됨.

- 주력노동계층인 25~ 54세 연령계층의 비중이 '63년 65.4%에서 '93년 72.3%로 늘어났음.

- 평균수명과 정년의 연장으로 고령자의 노동시장참여도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경향임.

  · 우리나라의 55세이상의 경제활동인구는 '63년 705천명으로 비중이 8.6%에 불과하였으나, '93년에는 2,784천명으로 늘어나 비중은 14.1%로 증가

< 성별 연령계층별 경제활동인구 >

(단 위:천명,%)

	'63년		'73년		'83년		'93년	
	인구	구성비	인구	구성비	인구	구성비	인구	구성비
경제활동인구	8,230	100.0	11,389	100.0	15,118	100.0	19,803	100.0
남 자	5,395	65.6	7,189	63.1	9,305	61.5	11,890	60.0
여 자	2,835	34.4	4,200	36.9	5,814	38.5	7,913	40.0
15-24세	2,142	26.0	2,801	24.6	2,814	18.6	2,690	13.6
25-54세	5,383	65.4	7,441	65.3	10,672	70.5	14,328	72.3
55세이상	705	8.6	1,147	10.1	1,632	10.8	2,784	14.1

라. 경제활동참가율

○ 경제활동인구의 15세이상인구에 대한 비율인 경제활동참가율을 보면,

- '63년의 56.6%에서 '93년에는 61.1%로 지난 30년간 4.5%포인트가 늘어났음.

(1) 성별 경제활동참가율

○ 성별로 경제활동참가율을 보면, 남자는 진학률 상승으로 '63년 78.4%에서 '93년에는 76.0%로 2.4%포인트 감소한 반면,

- 여자는 동기간동안 37.0%에서 47.2%로 10.2%포인트 증가하여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가 크게 확대되었음을 알수있음.

  · 이처럼 여성의 사회참여가 증가한 요인은 출산율의 저하로 인한 육아부담의 경감, 내구소비재의 보급으로 가사부담의 경감, 여성인력의 고학력화와 산업구조의 변화에 의한 취업기회의 확대, 여성의 사회참여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개선등임.

< 성별 경제활동참가율 >

(단위 : %, %P)

	'63년 (A)	'73년	'83년	'93년 (B)	증감 (B - A)
경제활동인구 참가율	56.6	58.4	57.7	61.1	4.5
남 자	78.4	76.8	73.7	76.0	-2.4
여 자	37.0	41.5	42.8	47.2	10.2

(2) 30년간 성별·연령계층별 경제활동참가율의 추이

○ 15~19세, 20~24세, 25~54세, 55세이상 계층으로 나누어 보면,

- 진학률상승등으로 저연령노동력인 15~19세 연령계층의 참가율이 급속하게 줄어들고 있음.

  · 남자는 '63년 50.9%에서 '93년 10.5%로, 여자는 동기간중 37.2%에서 16.7%로 감소하였음.

- 청년층인 20~24세 연령계층의 경제활동참가율은 '63년의 58.9%에서 '93년 61.3%로 소폭 증가

  · 남자의 경우는 동기간중 22.4%포인트나 감소한 반면, 여자는 21.1%포인트가 증가하여 동연령계층에서의 여자노동력 공급확대추세가 두드러졌음.

- 주력노동력이라 할 수 있는 25~54세 연령층의 경우 경제활동참가율이 상승하였음.

  · 특히 여자에 있어서 35세이상 연령층의 경제활동참가율의 증가가 두드러짐.

- 55세이상 고령층의 경제활동참가율은 지속적인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어, 노동력의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음을 나타냄.

  · 성별로 보면 여성의 경우가 좀더 두드러짐.

< 성별 · 연령계층별 경제활동참가율 >

(단위:%, %P)

	'63년 (A)	'73년	'83년	'93년 (B)	증 감(%P) (B-A)
전 체	56.6	58.4	57.7	61.1	4.5
15~19	44.1	44.1	21.8	13.5	-30.6
20~24	58.9	59.1	59.9	61.3	2.4
25~29	62.9	60.6	61.9	67.9	5.0
30~34	64.8	68.1	71.5	72.9	8.1
35~39	67.2	71.2	75.2	78.7	11.5
40~44	70.8	70.9	78.5	80.1	9.3
45~49	68.1	70.9	76.9	78.2	10.1
50~54	62.2	69.6	71.1	74.3	12.1
55~59	54.8	59.8	61.7	68.7	13.9
60+	22.6	29.0	28.3	36.8	14.2
남 자	78.4	76.8	73.7	76.0	-2.4
15~19	50.9	44.0	18.2	10.5	-40.4
20~24	78.9	77.7	68.2	56.5	-22.4
25~29	91.8	92.4	92.2	90.7	-1.1
30~34	94.6	96.0	96.9	97.2	2.6
35~39	94.1	95.2	96.6	97.0	2.9
40~44	93.4	93.9	95.1	96.6	3.2
45~49	92.0	91.2	93.7	94.8	2.8
50~54	86.8	87.7	89.8	91.4	4.6
55~59	78.4	78.3	78.4	84.8	6.4
60+	40.6	44.0	43.0	52.3	11.7
여 자	37.0	41.5	42.8	47.2	10.2
15~19	37.2	44.3	26.2	16.7	-20.5
20~24	43.4	46.1	54.1	64.5	21.1
25~29	36.2	31.0	32.5	44.5	8.3
30~34	39.2	40.6	44.4	47.4	8.2
35~39	41.6	47.6	52.8	59.3	17.7
40~44	48.4	49.8	60.8	62.8	14.4
45~49	44.9	52.5	60.3	60.9	16.0
50~54	38.5	50.9	55.5	57.6	19.1
55~59	32.5	41.4	48.1	53.4	20.9
60+	10.7	18.7	18.1	26.7	16.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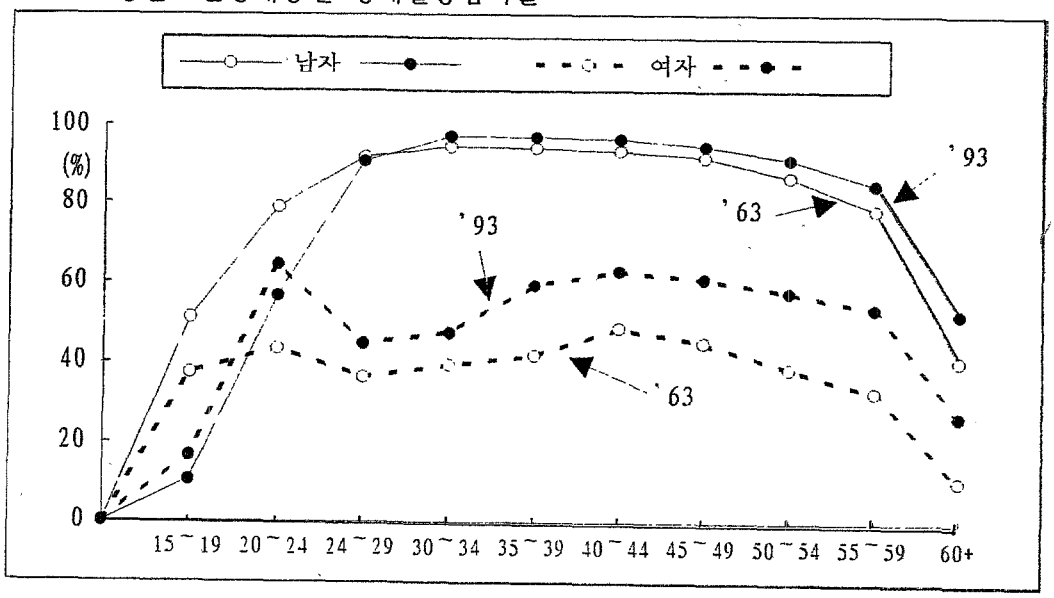
(3) 성별·연령계층별 경제활동참가율의 구조변화

○ 경제활동참가율이 가장 높은 연령계층은 남자의 경우 30대('63년 94%대, '93년 97%대)로 單峯型을 띄고 있으며, 지난 30년간 형태가 거의 변화없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음.

○ 여자의 경우에는 雙峯型(M자형)으로 20대초반에는 경제활동참가율이 높다가 20대후반부터 30대초반까지는 결혼·출산·육아로 인해 참가율이 감소하나 30대 후반부터 참가율이 다시 증가하는 양상을 보여줌.

- 30년동안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연령계층별로 정점에 변화가 있었음.
  - '63년에는 40대, 20대초반, 30대후반의 순으로 높았으며,
  - '73년에는 40대에서 50대초반, 30대후반, 20대초반의 순으로 높았고,
  - '83년에는 40대에서 50대초반, 20대초반, 30대후반의 순이며,
  - '93년에는 20대초반, 40대, 30대후반의 순인데, 이는 초혼연령의 상승과 함께 미혼여성의 취업증가로 20대초반의 참가율이 높아졌기 때문임.
- 이에 따라 여자는 15~19세를 제외한 전연령에서 경제활동참가율이 높아짐으로써 雙峯型이 상향이동하였음.

성별·연령계층별 경제활동참가율



(4) 주요선진국과의 경제활동참가율 비교

○ 우리나라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주요선진국과 비교시 아직은 낮으며 특히 여자의 경제활동참가율은 크게 낮은 수준임.

- 미국의 경제활동참가율은 남녀모두 증가추세가 지속되고 있으며 최근 미국의 여자 경제활동참가율을 우리나라의 여성참가율과 비교해 보면 약 10% 정도 차이가 남.

  · 미국의 여성경제활동참가율은 '60년대이후 탁아시설의 확충, 여성차별의 완화등의 여건개선으로 계속 증가하여 '92년 56.0%까지 증가하였음.

  · 따라서 우리나라 여자의 경제활동참가율도 향후 여건변화에 따라서는 상승할 수 있는 여지는 상당히 있는 것으로 판단됨.

< 경제활동참가율 국제비교('92년) >

(단위:%)

	한 국		미 국	일 본	싱가폴	영 국
	'92	'93	'92	'92	'92	'92
참 가 율	60.9	61.1	63.8	64.0	65.3	61.7
남 자	75.5	76.0	72.2	77.9	79.9	72.5
여 자	47.3	47.2	56.0	50.7	51.3	51.7

○ 연령계층별 경제활동참가율을 주요선진국과 비교해 보면, 청소년계층에 있어서 훨씬 낮은 참가율을 보이고 있는데 특히 15~19세에 있어서는 10%대의 저조한 참가율을 보임으로써 주요선진국의 20~30%대와 커다란 차이를 보여주고 있음.

- 특히 이러한 경향은 여자보다도 남자청소년계층에서 두드러짐.

  · 이러한 현상은 우리나라 청소년계층의 취학률이 높을 뿐 아니라 외국의 경우 청소년의 시간제 취업이 많은데 반해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청소년계층의 시간제 취업이 적기 때문인것으로 판단됨.

< 청소년계층의 경제활동참가율의 국제비교('92년) >

(단위:%)

구 분		한 국		미 국	일 본	싱가폴	영 국
		'92	'93				
전체	15~19	14.4	13.5	39.5	18.5	29.3	58.4
	20~24	62.3	61.3	71.9	75.1	81.2	79.0
남자	15~19	11.5	10.5	40.5	19.4	30.0	59.5
	20~24	57.7	56.5	74.6	74.5	82.3	85.4
여자	15~19	17.4	16.7	38.5	17.6	28.6	57.2
	20~24	65.3	64.5	69.1	75.6	80.2	72.5

마. 비경제활동인구

○ 노동시장에 참여하고 있지 않는 비경제활동인구는 '63년 6,321천명에서 '93년 12,597천명으로 2배가 증가하였음.

- 남자가 2.5배, 여자가 1.8배 늘어나 남자의 증가폭이 컸음.

○ 유형별 비경제활동인구의 비중을 보면, 가사는 '63년 62.3%에서 '93년 51.7%로 줄어든 반면,

- 통학은 '63년 11.8%에서 '93년 32.4%로 대폭 늘어났음.

○ 유형별 비경제활동인구의 비중을 남녀별로 보면 통학에 있어서 남자가 '63년 36.3%에서 '93년 60.0%로 23.7%포인트가 증가하였고 여자는 동기간중 4.3%에서 20.7%로 16.4%포인트 증가하였음.

- 또한 가사에 있어서는 여자가 78.4%에서 68.7%로 9.7%포인트 감소한 반면, 남자는 10.0%에서 11.8%로 소폭 증가하였음.

< 성별 및 유형별 비경제활동인구 >

(단위:천명,%,배,%P)

	'63		'73		'83		'93		'63~'93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배율	증감 %P
계	6,321	100.0	8,101	100.0	11,094	100.0	12,597	100.0	2.0	-
가사	3,938	62.3	4,916	60.7	5,926	53.4	6,513	51.7	1.7	-10.6
통학	746	11.8	1,599	19.7	3,267	29.4	4,082	32.4	5.5	20.6
연소.연로	949	15.0	1,149	14.2	1,431	12.9	1,254	10.0	1.3	-5.1
심신장애	135	2.1	119	1.5	190	1.7	194	1.5	1.4	-0.6
기타	552	8.7	320	4.0	281	2.5	555	4.4	1.0	-4.3
남자	1,486	100.0	2,176	100.0	3,328	100.0	3,757	100.0	2.5	-
가사	149	10.0	448	20.6	377	11.3	444	11.8	3.0	1.8
통학	539	36.3	1,014	46.6	1,979	59.5	2,254	60.0	4.2	23.7
연소.연로	323	21.7	405	18.6	605	18.2	507	13.5	1.6	-8.2
심신장애	91	6.1	91	4.2	152	4.6	133	3.5	1.5	-2.6
기타	383	25.8	219	10.1	216	6.5	419	11.2	1.1	-14.6
여자	4,835	100.0	5,925	100.0	7,766	100.0	8,840	100.0	1.8	-
가사	3,789	78.4	4,468	75.4	5,549	71.5	6,069	68.7	1.6	-9.7
통학	207	4.3	585	9.9	1,288	16.6	1,828	20.7	8.8	16.4
연소.연로	626	12.9	744	12.6	826	10.6	747	8.5	1.2	-4.5
심신장애	44	0.9	28	0.5	38	0.5	61	0.7	1.4	-0.2
기타	169	3.5	101	1.7	65	0.8	136	1.5	0.8	-2.0

○ 비농가의 비경제활동인구를 연령계층별로 보면,

- 취학연령계층인 15~24세 계층은 남녀모두 인구규모와 구성비가 증가하고 있음.

- 여자의 25~54세 연령계층은 인구규모와 구성비가 대폭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 즉, 비농가여자 25~54세 연령계층은 '80년 2,974천명(비경제활동인구에 대한 구성비 29.6%)에서 '93년 4,154천명(구성비 33.0%)으로 1,180천명(3.4%포인트) 증가하였음.

  · 이러한 비농가 25~54세 여자의 비경제활동인구는 유휴노동력으로서 향후 이용가능한 노동력 원천(Pool)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음.

< 성별, 농가·비농가별, 연령계층별 비경제활동인구 >

(단위:천명,%)

	'80	구성비	'83	구성비	'88	구성비	'93	구성비
계	10,032	100.0	11,094	100.0	12,298	100.0	12,597	100.0
15~24	3,860	38.5	4,249	38.3	4,863	39.5	4,639	36.8
25~54	3,877	38.6	4,249	38.3	4 645	37.8	4,823	38.3
55+	2,295	22.9	2,597	23.4	2,789	22.7	3,136	24.9
농가남자	924	9.2	985	8.9	718	5.8	462	3.7
15~24	500	5.0	535	4.8	422	3.4	246	2.0
25~54	129	1.3	139	1.3	94	0.8	56	0.4
55+	296	2.9	312	2.8	203	1.6	160	1.3
농가여자	1,804	18.0	1,714	15.4	1,180	9.6	750	6.0
15~24	528	5.3	537	4.8	370	3.0	237	1.9
25~54	601	6.0	538	4.8	329	2.7	160	1.3
55+	675	6.7	639	5.8	482	3.9	353	2.8
비농가남자	1,860	18.5	2,343	21.1	3,162	25.7	3,294	26.1
15~24	1,299	12.9	1,556	14.0	2,071	16.8	2,102	16.7
25~54	177	1.8	290	2.6	474	3.9	451	3.6
55+	384	3.8	497	4.5	616	5.0	741	5.9
비농가여자	5,443	54.3	6,052	54.6	7,238	58.9	8,091	64.2
15~24	1,533	15.3	1,622	14.6	2,000	16.3	2,054	16.3
25~54	2,974	29.6	3,285	29.6	3,752	30.5	4,154	33.0
55+	938	9.4	1,146	10.3	1,487	12.1	1,881	14.9

3. 취업구조의 변화

가. 산업별 취업구조와 증가율 추이

(1) 산업별 생산구조

○ 우리나라의 경제구조는 '60년대만 하더라도 농업중심적인 산업구조였으나 최근에 와서는 제조업과 사회간접자본 및 기타서비스산업의 비중이 큰 산업구조의 고도화를 보이고 있음.

- 30년동안 제조업 및 서비스부문이 경제발전의 중심이 됨으로써 경제의 공업화와 서비스화가 이루어지고 있음.

○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에서 농림어업, 제조업, 사회간접자본 및 기타서비스산업이 차지하고 있는 구성비를 보면,

- 농림어업의 구성비가 '63년 46.3%로 매우 높았으나 그간의 산업화 과정을 통해 '93년 7.8%로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왔음.

- 제조업의 비중은 꾸준히 증가하여 '63년 15.8%에서 '88년 35.4%로 가장 높은 수준을 보인 이후 감소추세를 보여 '93년에는 30.0%를 보임

- 사회간접자본 및 기타서비스산업의 구성비는 '63년 36.0%에서 '93년에는 61.8%로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음.

< 산업별 경상 GDP 구성비 >

(단위:%)

	'63	'68	'73	'78	'83	'88	'93
전 산 업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농림어업	46.3	30.9	27.0	22.7	15.1	11.3	7.8
광공업	17.7	23.5	28.2	32.2	34.3	36.3	30.4
제조업	15.8	21.9	26.9	30.6	32.9	35.4	30.0
SOC및기타	36.0	45.6	44.8	35.1	50.7	52.4	61.8

(2) 산업별 취업자 증가율 추이

○ 전체취업자는 30년동안 연평균 3.2%의 증가율을 보였으며 산업별로는 농림수산업에서만 1.7%의 취업자감소를 보였고 나머지 모든 부문에 증가세를 보였음.

- 특히 건설업은 8.1%, 제조업은 7.3%의 높은 증가세를 나타냈음.

○ 제조업취업자 증가율은 제조업내에서 노동집약적인 경공업의 비중이 주종을 이루었던 '63~'75년기간중 11.5% 정도의 증가율을 보였으며

- '70년후반 제2차 석유파동과 중화학공업중심의 산업구조개편추진, 그리고 '80년대 초반의 경제안정화시책에 따라 제조업취업자 증가율은 '75~'80년기간중 6.7%, '80~'85년기간중 3.5%로 대폭 둔화되었음.

- '86~'88년기간중 경기호황기를 맞이하면서 '85~'90년기간중 제조업취업자 증가율은 7.1%로 높아졌음.

- '80년대말이후 임금이 급격히 상승하고 근로자가 제조업의 3D업종을 기피함으로써 제조업이 노동절약적인 생산방법으로 전환함에 따라 제조업취업자는 '92년부터 감소추세로 전환하였음.

○ 건설업취업자 증가율은 '70년대에 새마을운동, 사회간접자본 투자확대, 중동건설 등에 따른 건설경기의 호황으로 높게 나타났음.

- '70년대말의 제2차 석유파동의 영향과 '80년대초반의 경제안정화시책으로 '80~'85년기간중 연평균증가율이 1.7% 수준으로 하락
- 신도시건설등의 영향으로 '80년대후반부터는 증가율이 8%대를 보이고 있음.

○ 도소매·음식숙박업은 '80~'93년기간중 연평균 4.6%의 비교적 낮은 증가율을 보였으나, '90~'93년기간에는 5.7%의 매우 높은 증가세를 보였음.

< 취업자 기간중 연평균증가율 >

(단위:%)

기간구분	전산업	농림어업	광공업		SOC및 기 타			
				제조업		건설업	도소매 음식숙박	기 타
63 - 70	3.5	0.3	11.4	11.5	6.8	7.0	-	-
70 - 75	4.0	2.0	10.4	11.6	4.0	13.1	-	-
75 - 80	3.2	-2.7	6.9	6.7	7.7	11.2	-	-
80 - 85	1.8	-4.2	3.6	3.5	5.0	1.7	5.3	5.8
85 - 90	3.9	-2.8	6.5	7.1	5.4	8.4	3.1	6.8
90 - 93	2.1	-4.4	-1.9	-1.8	5.9	7.9	5.7	4.3
63 - 75	3.7	1.0	11.0	11.5	5.7	9.5	-	-
75 - 85	2.5	-3.4	5.2	5.1	6.3	6.5	5.3	5.8
85 - 93	3.2	-3.4	3.4	3.8	5.6	8.2	4.6	5.9
63 - 93	3.2	-1.7	7.0	7.3	5.9	8.1	4.6[1]	5.1[1]

1) '80~'93년기간중임.

(3) 산업별 취업구조

○ 이러한 산업별 취업자 증가추세에 따라 취업구조의 고도화가 이루어짐.

- 농림어업취업자의 구성비는 '63년 63.0%에서 '93년에는 14.7%로 크게 줄어든 반면
  - 산업화 정도의 척도라고 할 수 있는 제조업 취업자 구성비는 '63년 7.9%에서 계속 증가하여 '89년 27.8%의 정점에 도달한 이후 감소추세로 전환하여 '93년에는 24.2%를 기록
  - 사회간접자본 및 기타서비스산업은 '63년 28.3%에서 '93년에는 60.9%로 비중이 증가 하였음.

< 취업자의 산업별 구성비 >

(단위:%)

	'63	'68	'73	'78	'83	'88	'93
전 산 업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농림어업	63.0	52.4	49.8	38.4	29.7	20.6	14.7
광공업	8.7	13.9	16.3	23.1	23.3	28.5	24.4
제조업	7.9	12.7	15.8	22.3	22.5	27.7	24.2
SOC및기타	28.3	33.7	34.0	38.5	47.0	50.9	60.9

(4) 산업별 취업자 구성비의 국제비교

○ 산업별 취업자의 구성비를 국제비교('92년)하면,

- 우리나라의 농림어업취업자의 구성비는 15.8%로 미국(2.9%), 일본(6.4%), 대만(12.8%)에 비해 훨씬 높은 수준이며,
- 제조업취업자의 구성비는 일본과 유사한 수준이나 독일, 대만에 비해서는 훨씬 낮은 수준임.
- 또한, 사회간접자본 및 기타서비스산업 취업자의 구성비는 미국, 일본 등 주요 선진국에 비해서는 낮은 수준임.

< 산업별 취업자 구성비의 국제비교('92년) >

(단위 : %)

	한 국		미 국	일 본	대 만	독 일
	'92	'93	('92)	('92)	('92)	('92)
전 산 업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농림어업	15.8	14.7	2.9	6.4	12.8	3.0
광공업	25.8	24.4	17.6	24.6	31.3	28.8
제조업	25.5	24.2	17.0	24.5	31.1	28.2
SOC 및 기타	58.4	60.9	79.5	69.0	55.9	68.2
건설업	8.7	8.8	6.4	9.7	9.3	5.9

○ 20여년간의 시계열자료를 통해 제조업취업자 구성비를 국제비교하면,

- 일본의 제조업취업자 비중은 '70년에 27%로 높은 수준을 보였으며, '75년이래 약 15년간 25% 전후의 안정된 수준을 보이고 있음.
- 독일의 경우에는 '85년이후 30% 수준에서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 우리나라의 제조업취업자 구성비는 계속 증가추세를 보여 '76년에 21.3%로 20%를 돌파한후 계속 증가추세를 보여오다가 '89년에 27.8%의 정점에 도달하였고 '90년이후 감소추세로 반전하여 '93년 24.2%를 기록

< 제조업 취업자 구성비의 국제비교 >

(단위 : %)

	한 국	미 국	일 본	영 국	대 만	독 일
'70	13.2	26.4	27.0	34.7	20.9	38.2
'75	18.6	22.7	25.8	31.0	27.5	34.8
'80	21.6	22.1	24.7	28.3	32.9	33.3
'85	23.4	19.5	25.0	23.0	33.7	30.2
'86	24.7	19.1	24.7	22.4	34.1	31.3
'87	27.0	18.6	24.1	21.8	35.2	31.0
'88	27.7	18.5	24.2	na	34.6	30.7
'89	27.8	18.5	24.2	na	33.9	30.7
'90	27.2	18.0	24.1	20.7	32.0	30.7
'91	26.8	17.5	24.3	20.1	30.8	30.4
'92	25.5	-	-	-	30.0	29.7
'93	24.2	-	-	-	-	-

나. 직업별 취업구조

○ 직업별 취업자를 전문직·사무직(화이트칼라), 생산직(블루칼라), 판매·서비스직(그레이칼라), 농림어업직으로 나누어 30년간의 변화양상을 보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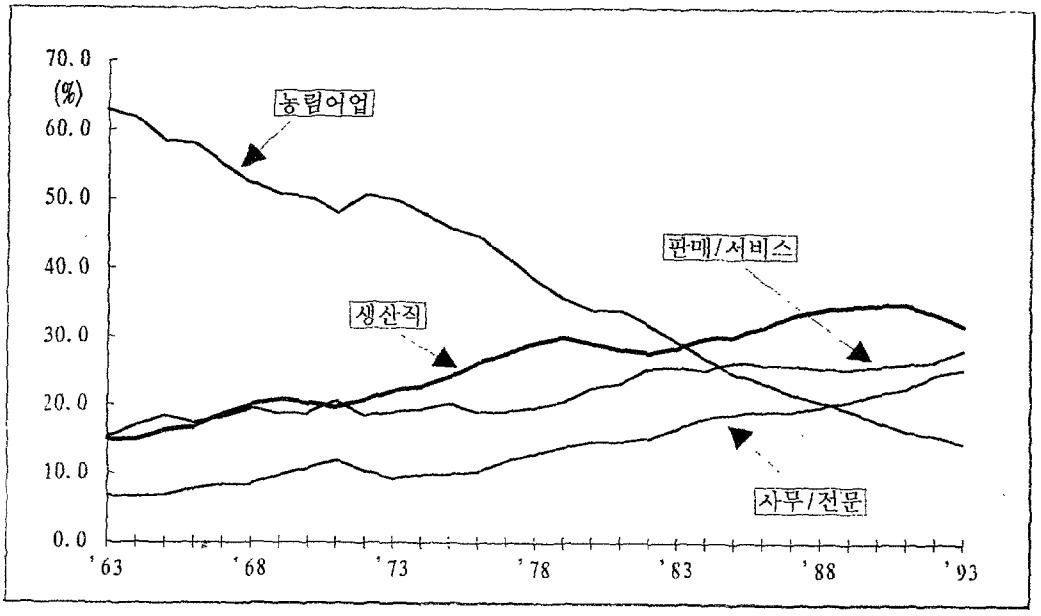
- 화이트칼라인 전문직·사무직종사자는 '63년 513천명에서, '93년 4,871천명으로 9.5배 증가하여 구성비가 6.8%에서 25.3%가 되었음.
  - 남자는 '63년 430천명에서 '93년 2,937천명으로 6.8배 증가한 반면, 여자는 동기간중 83천명에서 1,933천명으로 23.3배 증가하여 여자 화이트칼라의 증가세가 압도적이었음.

- 블루칼라인 생산직종사자는 '63년 1,131천명에서 '93년 6,145천명으로 5.4배 증가하여 구성비가 15.0%에서 31.9%가 되었음.
  - 다만, 블루칼라 구성비는 '91년 35.0%로 가장 높은 수준을 보인 이후 감소 추세로 전환
  - 남자는 동기간중 909천명에서 4,564천명으로 5.0배 증가한 반면, 여자는 222천명에서 1,581천명으로 7.1배 증가하여 여자가 남자보다 높게 증가하였음

- 그레이칼라인 판매서비스직종사자는 '63년 1,158천명에서 '93년 5,435천명으로 4.7배 증가하여 구성비가 15.3%에서 28.2%가 되었음.
  - 남자는 동기간중 645천명에서 2,539천명으로 3.9배 증가한 반면, 여자는 '63년 512천명에서 '93년 2,896천명으로 5.7배 증가하였음.

- 농림어업종사자의 비중은 '63년 62.9%에서 '93년 14.6%로 감소

직업별 취업자 구성비



< 직업별 취업구조의 변화 >

(단위:천명,%,배)

	'63년		'73년		'83년		'93년		'63~'93	
	취업자	구성비	취업자	구성비	취업자	구성비	취업자	구성비	배율	증감%P
전 체	7,563	100.0	10,942	100.0	14,505	100.0	19,253	100.0	2.5	-
화이트칼라	513	6.8	1,010	9.3	2,407	16.6	4,871	25.3	9.5	18.5
전문.기술직	247	3.3	337	3.1	882	6.1	1,979	10.3	8.0	7.0
사무관련직	266	3.5	673	6.2	1,525	10.5	2,892	15.0	10.9	11.5
그레이칼라	1,158	15.3	2,069	18.9	3,702	25.6	5,435	28.2	4.7	12.9
판매종사직	765	10.1	1,336	12.2	2,243	15.5	3,061	15.9	4.0	5.8
서비스직	393	5.2	733	6.7	1,459	10.1	2,374	12.3	6.0	7.1
농림수산업	4,760	62.9	5,463	49.9	4,273	29.5	2,803	14.6	0.6	-48.3
생산노무직	1,131	15.0	2,401	21.9	4,122	28.4	6,145	31.9	5.4	16.9
남 자	4,930	100.0	6,832	100.0	8,819	100.0	11,515	100.0	2.3	-
화이트칼라	430	8.7	817	12.0	1,651	18.7	2,937	25.5	6.8	16.8
전문,기술직	194	3.9	264	3.9	647	7.3	1,234	10.7	6.4	6.8
사무관련직	236	4.8	553	8.1	1,004	11.4	1,703	14.8	7.2	10.0
그레이칼라	645	13.1	1,096	16.0	1,767	20.0	2,539	22.1	3.9	9.0
판매종사직	422	8.6	775	11.3	1,182	13.4	1,618	14.1	3.8	5.5
서비스직	223	4.5	321	4.7	585	6.6	921	8.0	4.1	3.5
농림수산업	2,946	59.8	3,172	46.4	2,422	27.5	1,474	12.8	0.5	-47.0
생산노무직	909	18.4	1,748	25.6	2,979	33.8	4,564	39.6	5.0	21.2
여 자	2,633	100.0	4,110	100.0	5,686	100.0	7,738	100.0	2.9	-
화이트칼라	83	3.1	193	4.7	756	13.3	1,933	25.0	23.3	21.9
전문,기술직	53	2.0	73	1.8	235	4.1	745	9.6	14.1	7.6
사무관련직	30	1.1	120	2.9	521	9.2	1,188	15.4	39.6	14.3
그레이칼라	512	19.4	973	23.6	1,936	34.1	2,896	30.4	5.7	11.0
판매종사직	343	13.0	561	13.6	1,061	18.7	1,443	18.6	4.2	5.6
서비스직	169	6.4	412	10.0	875	15.4	1,453	18.8	8.6	12.4
농림수산업	1,814	68.9	2,292	55.8	1,851	32.6	1,328	17.2	0.7	-51.7
생산노무직	222	8.4	653	15.9	1,143	20.1	1,581	20.4	7.1	12.0

○ 이러한 취업자의 직업분포의 변모는 우리나라가 경험한 산업화의 과정을 반영하고 있음.

- 즉, 종래에 비중이 가장 높았던 농림어업직 종사자의 구성비는 크게 감소하고 대신에 생산노무직근로자, 판매서비스직종사자, 전문·사무직종사자가 순서대로 높은 비중을 보이고 있음.

○ 세부직업별로 성별 구성비 변화를 보면,

- 전체적으로 여성취업의 확대로 취업자중 여성의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 서비스직의 경우 여자종사자의 구성비가 '63년 43.0%로 남자보다 낮았으나 '69년에 50%를 초과하였고 '93년에는 61.2%로 남자보다 비중이 높아졌음.

- 30년동안 여성진출이 두드러진 직업을 순서대로 보면,
  - 첫번째 사무직으로서 '63년 11.3%에서 41.1%로 29.8%포인트 증가하였고,
  - 두번째 서비스직은 43.0%에서 61.2%로 18.2%포인트 증가하였으며,
  - 세번째 전문·기술직은 '63년 21.5%에서 '93년 37.6%로 16.1%포인트 증가하였음.

- 생산노무직은 30년동안 여성구성비가 가장 낮은 직업인데 그 구성비는 '63년 19.6%에서 '93년 25.7%로 소폭 증가하였음.

<직업별 취업자에 대한 성별 구성비>

(단 위: %, %P)

	남 자				여 자				
	'63	'73	'83	'93	'63	'73	'83	'93	'93-'63 증 감
전 체	65.2	62.4	60.8	59.8	34.8	37.6	39.2	40.2	5.4
전문,기술직	78.5	78.3	73.4	62.4	21.5	21.7	26.6	37.6	16.1
사무관련직	88.7	82.2	65.8	58.9	11.3	17.8	34.2	41.1	29.8
판매종사직	55.2	58.0	52.7	52.9	44.8	42.0	47.3	47.1	2.3
서비스직	56.7	43.8	40.1	38.8	43.0	56.2	60.0	61.2	18.2
농림수산업	61.9	58.1	56.7	52.6	38.1	42.0	43.3	47.4	9.3
생산노무직	80.4	72.8	72.3	74.3	19.6	27.2	27.7	25.7	6.1

다. 고용 형태별 취업구조

○ 우리나라 취업자의 고용형태 역시 지난 30년간 크게 변모해 왔음.

- 임금근로자의 비중이 '63년 31.5%에서 '93년에는 61.0%로 늘어나 취업구조가 점차 선진국형으로 전환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임금근로자중 상시근로자의 비중이 '63년 18.8%에서 '93년에는 52.1%로 크게 늘어났음.

  · 일반적으로 불안정한 취업상태에 있는 일용노동자의 구성비는 '63년 12.7%에서 '93년 8.9%로 감소하였음.

- 비임금근로자의 비중은 '63년 68.5%에서 '93년 39.0%로 감소하였음.

  · 무급가족종사자의 비중은 '63년 31.2%에서 '93년 10.8%로 감소하였고,

  · 자영업자의 비중은 '63년 37.2%에서 '93년 28.2%로 감소하였음.

< 고용형태별 취업구조의 변화 >

(단위:천명,%,배)

	'63년		'73년		'83년		'93년		'63~'93	
	취업자	구성비	취업자	구성비	취업자	구성비	취업자	구성비	배율	증감%P
전 체	7,563	100.0	10,942	100.0	14,505	100.0	19,253	100.0	2.5	-
임금근로자	2,383	31.5	4,153	38.0	7,170	49.4	11,751	61.0	4.9	29.5
상용및임시	1,420	18.8	2,993	27.4	6,008	41.4	10,033	52.1	7.1	33.3
일 용	963	12.7	1,160	10.6	1,162	8.0	1,718	8.9	1.8	-3.8
비임금근로자	5,178	68.5	6,789	62.0	7,335	50.6	7,502	39.0	1.4	-29.5
자영업주	2,817	37.2	3,780	34.5	4,897	33.8	5,432	28.2	1.9	-9.0
무급가족	2,361	31.2	3,009	27.5	2,438	16.8	2,070	10.8	0.9	-20.4
남 자	4,930	100.0	6,832	100.0	8,819	100.0	11,515	100.0	2.3	-
임금근로자	1,810	36.7	3,008	44.0	4,749	53.8	7,308	63.5	4.0	26.8
상용및임시	1,120	22.7	2,159	31.6	4,042	45.8	6,384	55.4	5.7	32.7
일 용	690	14.0	849	12.4	707	8.0	924	8.0	1.3	-6.0
비임금근로자	3,120	63.3	3,823	56.0	4,070	46.2	4,207	36.5	1.3	-26.8
자영업주	2,233	45.3	2,852	41.7	3,558	40.3	3,974	34.5	1.8	-10.8
무급가족	887	18.0	971	14.2	512	5.8	233	2.0	0.3	-16.0
여 자	2,633	100.0	4,110	100.0	5,686	100.0	7,738	100.0	2.9	-
임금근로자	574	21.8	1,145	27.9	2,421	42.6	4,443	57.4	7.7	35.6
상용및임시	300	11.4	834	20.3	1,966	34.6	3,649	47.2	12.2	35.8
일 용	274	10.4	311	7.6	455	8.0	794	10.3	2.9	-0.1
비임금근로자	2,059	78.2	2,966	72.2	3,265	57.4	3,295	42.6	1.6	-35.6
자영업주	584	22.2	928	22.6	1,339	23.5	1,458	18.8	2.5	-3.4
무급가족	1,475	56.0	2,038	49.6	1,926	33.9	1,837	23.7	1.2	-32..3

○ 성별로 보면, 남녀 모두 상시근로자의 비중이 크게 늘어났고, 무급가족종사자의 비중은 감소하였음.

- 상시근로자는 남자의 경우 '63년 22.7%에서 '93년 55.4%로 늘어났고, 여자의 경우 동기간중 11.4%에서 47.2%로 크게 늘어 났음.
  - 동 기간중 상시근로자는 여자가 12.2배, 남자가 5.7배 증가하여 여자 상시근로자의 증가속도가 빨랐음을 알수 있음.
- 무급가족종사자는 남자의 경우 '63년 887천명에서 '93년 233천명으로 ⅓수준으로 감소됨으로써, 구성비는 동기간중 18.0%에서 2.0%로 급격히 감소
  - 여자의 경우 '63년 1,475천명에서 '93년 1,837천명으로 1.2배 늘었으나, 고용형태별 구성비에 있어서는 동기간중 56.0%에서 23.7%로 32.3%포인트 감소되었음.

○ 고용형태별로 취업자의 비중을 국제비교하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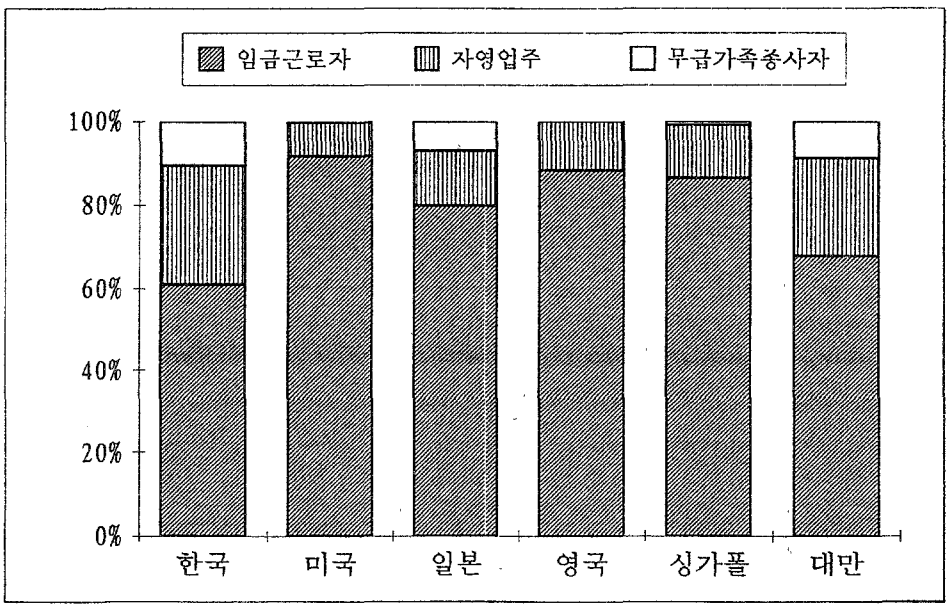
- 우리나라의 임금근로자 비중은 주요선진국의 80%내외 수준에 훨씬 못미치며, 대만의 67.8% 수준에도 미달
- 반면, 자영업주와 무급가족종사자의 비중은 매우 높은 수준임.

< 고용형태별 취업자 구성비의 국제비교('92) >

(단위 : %)

	한 국	미 국	일 본	영 국	싱가폴	대 만
전 산 업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임금근로자	61.0	91.7	79.8	88.3	86.5	67.8
자 영 업 주	28.5	8.0	13.1	11.7	12.6	23.3
무급가족종사자	10.5	0.3	7.1	-	0.9	8.9

고용형태별 취업자 구성비의 국제비교



라. 취업시간대별 취업구조

○ 취업시간을 조사한 이래 주당평균취업시간은 '82년이 정점으로 나타나고 있음.

○ '80년대후반 취업시간의 추세를 보면 전산업은 '88년 55.8시간, 제조업은 '87년에 57.2시간을 기록한 이후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음.

- 특히 최근 이러한 취업시간의 감소 추세는 소득수준의 향상, 법정근로시간의 단축, 토요휴무제의 확산 등에 기인하고 있음.

- 제조업의 취업시간이 '93년에 처음으로 전업종 평균취업시간보다 낮아지는 현상이 발생하였음.

< 주당 평균 취업시간 >

(단위:시간)

연 도	전 산 업	제 조 업	연 도	전 산 업	제 조 업
'80	53.9	56.9	'87	55.4	57.2
'81	53.6	55.7	'88	55.8	57.0
'82	55.9	58.8	'89	54.5	55.1
'83	55.4	58.4	'90	53.8	54.4
'84	55.1	57.7	'91	53.2	53.6
'85	55.1	57.5	'92	52.4	52.5
'86	53.9	55.7	'93	52.6	52.5

○ '80년이후 취업자비중을 취업시간대별로 보면, 54시간이상 취업자는 대체적으로 그 비중이 증가하다가 '88년 56.7%의 가장 높은 수준을 보인이후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음.

- 그 반면 36~53시간 취업자는 전반적으로 '80년대 초반의 감소추세에서 '80년대 후반이후 증가추세로 전환되고 있어 상시근로자의 증가추세와 초과근무시간의 감소를 반영하고 있음.

- 18~35시간 취업자의 비중은 상시근로자의 비중증가와 무급가족종사자의 비중감소로 줄어들고 있음.

- 기업의 신축적인 고용관리와 여성 및 고령자의 노동공급확대로 18시간미만 시간제 취업자의 비중은 '80년대 후반부터 약간씩 늘어나고 있음.

< 주당 취업시간대별 취업자비중 >

(단위:%)

	'80	'81	'82	'83	'84	'85	'86	'87	'88	'89	'90	'91	'92	'93
전산업계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8시간미만	0.6	0.4	0.4	0.6	0.6	0.7	0.9	1.2	1.0	1.2	1.1	1.2	1.4	1.2
18~35시간	9.7	9.3	8.1	8.5	8.0	6.6	9.9	7.5	6.4	6.6	5.7	5.7	5.7	5.4
36~53시간	39.1	41.0	35.8	36.6	36.3	38.4	37.9	35.4	35.3	37.8	40.7	41 5	44.0	44.6
54시간이상	50.4	49.0	55.7	54.1	54.6	53.8	50.8	55.3	56.7	53.7	51.9	50.9	48.1	48.0

4. 실업구조의 변화

가. 개관

○ 지속적인 경제발전으로 인해 실업률이 '63년 8.1%에서 '69년 4%대로 하락하였고, '76년에는 마침내 3%대까지 하락함으로써 농업부문에서 유휴노동력의 무한노동 공급시대가 종결되었음을 보여줌.

- 즉, 이때부터 우리경제의 잠재성장능력이 노동공급수준에 영향을 받게 되었음을 의미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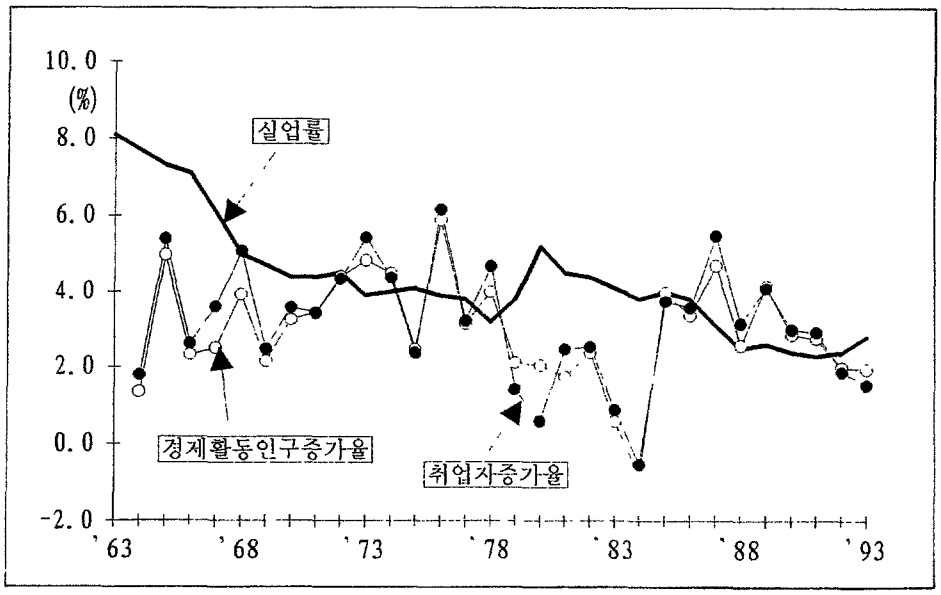
○ 제2차 석유파동의 여파와 정치·사회·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실업률이 '80년 5.2%까지 상승한후 다시 노동수요의 증가율이 노동공급을 상회함에 따라 실업률이 장기적으로 하락추세에 있음.

○ '86~'88년의 호황기간사이에는 12~13% 수준의 경제성장률의 결과로 실업률은 '88년 2%대로 진입하여 마찰적 실업을 제외하면 거의 완전고용수준에 진입하였음.

< 실업률 추이 >

(단위:천명,%)

년 도	실업자	실업률	년 도	실업자	실업률	년 도	실업자	실업률
'63	667	8.1	'73	447	3.9	'83	613	4.1
'64	643	7.7	'74	479	4.0	'84	568	3.8
'65	642	7.3	'75	501	4.1	'85	622	4.0
'66	632	7.1	'76	499	3.9	'86	611	3.8
'67	556	6.1	'77	504	3.8	'87	519	3.1
'68	480	5.0	'78	437	3.2	'88	435	2.5
'69	462	4.7	'79	540	3.8	'89	463	2.6
'70	445	4.4	'80	748	5.2	'90	454	2.4
'71	461	4.4	'81	660	4.5	'91	436	2.3
'72	486	4.5	'82	654	4.4	'92	465	2.4
						'93	550	2.8



나. 성별 및 농가·비농가별 실업구조

○ 남자의 실업률이 전기간에 걸쳐 여자의 실업률에 비해 높은 수준을 시현함.

- 이는 남자의 경우 주력노동력으로 경기변동에 관계없이 경제활동을 하는 반면
- 여자의 경우 경기침체기에는 일부가 비경제활동인구로 퇴장하는 경향이 많아 실업률이 낮아지기 때문임.

○ 농가실업률은 '63년 2.9%에서 '93년 0.9%로 감소하였고, 비농가실업률은 '63년 16.3%에서 '93년 3.1%로 크게 감소하였음.

- 농가실업자의 구성비는 '63년에 21.4% 이었으나, '93년에는 4.7%로 크게 하락한 반면, 비농가의 실업자 구성비는 동기간중 78.6%에서 95.3%로 증가하였음.

< 성별 및 농가·비농가별 실업자 및 실업률 >

(단위 : 천명, %)

	'63	'68	'73	'78	'83	'88	'93
실업자계	667	480	447	437	613	435	550
남자	465	341	357	321	486	315	375
여자	202	139	90	116	128	120	175
농가	143	96	49	46	37	20	26
비농가	524	383	398	391	579	415	524
구성비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남자	69.7	71.0	79.9	73.5	79.3	72.4	68.2
여자	30.3	29.0	20.1	26.5	20.9	27.6	31.8
농가	21.4	20.0	11.0	10.5	6.0	4.6	4.7
비농가	78.6	79.8	89.0	89.5	94.1	95.4	95.3
실업률	8.1	5.0	3.9	3.2	4.1	2.5	2.8
남자	8.6	5.5	5.0	3.7	5.2	3.0	3.2
여자	7.1	4.1	2.1	2.2	2.2	1.7	2.2
농가	2.9	1.8	0.9	0.8	0.8	0.5	0.9
비농가	16.3	8.8	6.8	4.7	5.5	3.0	3.1

다. 연령계층별 실업구조

○ 청소년계층(15~24세)의 실업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현상을 보여주고 있음.

- 이러한 현상은 청소년계층이 신규노동력으로서 노동시장에 처음으로 진입함으로써 생기는 마찰적 요인이 작용한 것으로 판단됨.

- 아울러 인구의 고학력화가 지속되고 특히 인문사회계 고학력자에 대한 노동수요가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임. 또한 청소년계층에 대한 직업훈련기회의 부족과 대학비진학 고등학교졸업자들이 직업훈련을 기피하는 현상등에도 일부 기인

○ 전체 실업자중 청소년계층의 구성비는 '80년에 48.3%에서, '93년에 44.0%로 약간 감소하였고, 주력노동계층인 25~54세의 구성비는 '80년에 49.1%에서 '93년에 53.5%로 증가하였음.

- 15~19세의 청소년층에서는 큰폭으로, 30~54세의 중년층에서는 소폭으로 실업자구성비가 감소추세를 보인 반면

- 20~29세 청년계층에서는 실업자구성비가 상당한 폭으로 증가하였음.

< 연령별 실업구조 >

(단위:천명,%)

	'80		'83		'88		'93	
	실업자	실업률	실업자	실업률	실업자	실업률	실업자	실업률
계	748	5.2	613	4.1	435	2.5	550	2.8
15~19세	159	13.3	90	11.1	54	8.3	57	11.2
20~24세	203	10.3	169	8.4	125	6.8	185	8.5
25~29세	107	5.8	119	5.2	104	3.9	122	4.5
30~54세	260	3.3	221	2.6	142	1.4	172	1.5
55세이상	20	1.3	15	0.9	10	0.5	14	0.5
구 성 비								
계	100.0		100.0		100.0		100.0	
15~19세	21.2		14.7		12.4		10.4	
20~24세	27.1		27.6		28.7		33.6	
25~29세	14.3		19.4		23.9		22.2	
30~54세	34.8		36.1		32.6		31.3	
55세이상	2.7		2.4		2.3		2.5	

라. 성별·교육정도별 실업구조

○ 고학력자의 실업률이 저학력자의 실업률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 '80년의 실업률을 교육정도별로 보면, 국졸이하가 '80년 2.7%, 대졸이상이 6.2%이었으며, '93년의 경우에는 각각 0.8%, 4.0% 였음.

○ 성별로 구분해 보면, 전반적으로 남자의 실업률이 여자의 실업률보다 높으나,

- 교육정도별로 보면, 고학력자의 경우 여자의 실업률이 남자보다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음.

  · 이는 고학력 실업문제가 여자에게서 매우 심각함을 보여주는 것임.

< 성별·교육정도별 실업구조 >

(단위:천명,%)

	'80			'83			'88			'93		
	실업자	구성비	실업률	실업자	구성비	실업률	실업자	구성비	실업률	실업자	구성비	실업률
계	748	100.0	5.2	613	100.0	4.1	435	100.0	2.5	550	100.0	2.8
국졸이하	195	26.1	2.7	110	17.9	1.7	37	8.5	0.7	35	6.4	0.8
중 졸	187	25.0	6.3	145	23.7	4.4	77	17.7	2.2	73	13.3	2.2
고 졸	307	41.0	9.3	281	45.8	6.7	220	50.6	3.6	302	54.9	3.6
대졸이상	60	8.0	6.2	77	12.6	6.1	101	23.2	4.7	140	25.5	4.0
남 자	558	75.6	6.2	486	79.3	5.2	315	72.4	3.0	375	68.2	3.2
국졸이하	147	19.7	3.9	90	14.7	2.9	29	6.7	1.2	25	4.5	1.3
중 졸	149	19.9	7.4	124	20.2	5.8	59	13.6	2.7	52	9.5	2.7
고 졸	215	28.7	8.8	209	34.1	6.9	160	36.8	3.8	202	36.7	3.7
대졸이상	47	6.3	5.6	63	10.3	5.9	68	15.6	4.0	96	17.5	3.7
여 자	190	25.4	3.5	128	20.9	2.2	120	27.6	1.7	175	31.8	2.2
국졸이하	48	6.4	1.4	21	3.4	0.6	9	2.1	0.3	11	2.0	0.4
중 졸	39	5.2	4.2	21	3.4	1.8	18	4.1	1.3	21	3.8	1.5
고 졸	91	12.2	10.7	72	11.7	6.1	60	13.8	3.0	99	18.0	3.3
대졸이상	13	1.7	9.2	14	2.3	7.0	33	7.6	6.9	43	7.8	4.7

마. 실업률의 국제비교

○ 지난 20년간 선진각국의 실업률 장기추세를 살펴보면, 대체적으로 '79년 2차 석유파동의 영향으로 영국·미국·카나다·프랑스 등 선진각국은 실업률이 크게 높아졌음.

- 일본의 실업률은 1차 석유파동이후에도 2%대 수준에서 안정되어있음.
- 스웨덴의 경우 '70~'80년대 2~3%의 낮은 실업률을 유지하였지만 '92년 4.7%로 크게 상승
- 독일은 통독후 실업률이 크게 상승하였지만 구서독지역의 실업률은 통독이후에도 4%의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음.
- 영국과 프랑스의 경우는 2차 석유파동이후 10%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
- 호주 및 캐나다는 최근 10% 이상으로 실업률이 크게 높아지고 있음.
- 미국의 실업률은 꾸준히 6~7%를 유지하고 있음.

○ 이와같이 실업률의 장기추세가 국가마다 다르게 나타나는 이유는 지속적인 경제성장여부, 각국의 노동시장여건, 노사관계 및 기업의 고용관행, 실업보험제도 등이 각국의 실업률 및 실업구조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임.

○ 특히 우리나라의 실업률은 선진국에 비해 상당히 낮은 수준에 있는 것은

-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의 경제활동이 활발하여 경제성장률이 선진국에 비해 높아 전반적으로 취업자 증가율이 경제활동인구증가율을 상회하고 있기 때문임.
  - 또한, 농업의 노동력 비중이 '93년 14.7%로 선진국에 비해 높고,
  - 임금근로자의 비중이 '93년 61.0%로 상대적으로 낮은 반면, 영세한 자영업주, 무급가족종사자 등 비임금근로자의 비중이 높기 때문임.

< 선진각국의 실업률[1] >

(단위:%)

	한국	미국	캐나다	호주	일본	프랑스	서독	이태리	스웨덴	영국
1972	4.5	5.6	6.2	2.6	1.4	2.9	0.7	3.8	2.7	4.2
1973	3.9	4.9	5.5	2.3	1.3	2.8	0.7	3.7	2.5	3.2
1974	4.0	5.6	5.3	2.7	1.4	2.9	1.6	3.1	2.0	3.1
1975	4.1	8.7	6.9	4.9	1.9	4.1	3.4	3.4	1.6	4.6
1976	3.9	7.7	7.1	4.8	2.0	4.5	3.4	3.9	1.6	5.9
1977	3.8	7.1	8.1	5.6	2.0	5.1	3.4	4.1	1.8	6.4
1978	3.2	6.1	8.3	6.3	2.3	5.3	3.3	4.1	2.2	6.3
1979	3.8	5.8	7.4	6.3	2.1	6.0	2.9	4.4	2.1	5.4
1980	5.2	7.1	7.5	6.1	2.0	6.4	2.8	4.4	2.0	7.0
1981	4.5	7.6	7.5	5.8	2.2	7.6	4.0	4.9	2.5	10.5
1982	4.4	9.7	11.0	7.2	2.4	8.3	5.6	5.4	3.1	11.3
1983	4.1	9.6	11.8	10.0	2.7	8.5	6.9[2]	5.9	3.5	11.8
1984	3.8	7.5	11.2	9.0	2.8	10.0	7.1	5.9	3.1	11.8
1985	4.0	7.2	10.5	8.3	2.6	10.4	7.2	6.0	2.8	11.2
1986	3.8	7.0	9.5	8.1	2.8	10.6	6.6	7.5[2]	2.6	11.2
1987	3.1	6.2	8.8	8.1	2.9	10.7	6.3	7.9	1.9[2]	10.3
1988	2.5	5.5	7.8	7.2	2.5	10.2	6.3	7.9	1.6	8.6
1989	2.6	5.3	7.5	6.2	2.3	9.6	5.7	7.8	1.3	7.1
1990	2.4	5.5	8.1	6.9	2.1	9.1	5.0	7.0	1.5	6.9
1991	2.3	6.7	10.3	9.6	2.1	9.6	4.4	6.9[2]	2.6	8.8
1992	2.4	7.4	11.3	10.8	2.2	10.2	4.7	7.3	4.7	10.0

주 : 1) 영국, 서독, 프랑스의 실업률은 직업안정기관 등록기준이고 그외의 국가는 ILO가 채택하고 있는 노동력 접근법에 의한 가계조사 기준임.
한국노동연구원, 「해외노동통계」, 1992 참조.

2) 실업률 정의의 변경이나 조사방법의 변경으로 연속된 시계열이 아님.

자료 : Bureau of Labor Statistics, U.S.Department of Labor, 1993.

5. 최근 고용구조의 특징

가. 개관

○ 지난 30년동안 연평균취업자증가율(3.2%)은 경제활동인구증가율(3.0%)을 상회함으로써 실업률은 '63년 8.1%에서 '93년 2.8%로 감소하였고

- '94년 3/4분기에는 2.2%까지 하락함으로써 마찰적실업을 제외하면 완전고용수준에 도달하였음.

○ '80년대말이후 최근 고용구조에 있어서 두드러진 몇가지 특징을 보면,

- 3D업종의 기피현상으로 제조업과 건설업에 있어서 생산노무직 인력난의 발생
- 신규노동력이라 할수있는 청소년연령계층에 있어서 고학력실업문제의 대두
- 도소매·음식숙박업을 중심으로한 사회간접자본 및 기타서비스산업의 취업자증가세가 두드러져 취업구조의 서비스화가 가속화되고 있는 현상등을 들수있음.

나. 생산노무직의 인력감소

○ 제조업과 건설업에 있어서 이른바 3D업종이라고 불리우는 생산·노무직의 인력감소추세를 보면

- 제조업의 생산·노무직에 종사하는 취업자는 '87년까지 두자리 숫자로 증가하다가 '88년이후 증가율이 급격히 둔화되었으며
  - '92년부터는 감소추세로 전환하여 '92년 245천명, '93년에 204천명이 제조업분야에서 퇴장하여 인력난을 가중시키고 있음.
- 건설업의 생산·노무직의 경우에는 높은 건설노임등의 영향으로 '91년까지 취업자가 계속 높은 증가추세를 보이다가

  '92년에 증가세가 급격히 둔화되고 '93년에는 마침내 감소추세로 전환하였음.

  제조업과 약간 시차는 있지만 건설업의 경우에도 단순노무직취업자는 감소하고 있음.

<제조업·건설업의 생산직·기능공 및 단순노무직 추이>

(단위 : 천명, %)

	'86	'87	'88	'89	'90	'91	'92	'93
제 조 업	3,039	3,534	3,712	3,860	3,867	3,877	3,632	3,428
(전년대비증감)	290	495	178	148	7	10	-245	-204
(전년대비증가율)	10.5	16.3	5.0	4.0	0.2	0.3	-6.3	-5.6
건 설 업	738	764	856	955	1,121	1,275	1,350	1,328
(전년대비증감)	-19	26	92	99	166	154	75	-22
(전년대비증가율)	-2.5	3.5	12.0	11.6	17.4	13.7	5.9	-1.6

다. 고학력 실업문제

○ 지난 30년동안 전반적으로 전체 실업자와 저학력 실업자는 줄고 있는 가운데

- 대졸이상 실업자는 '93년 140천명으로 '80년에 비해 2배이상 늘어났으며 실업률도 4.0%로 여전히 높아 학력이 높을수록 실업이 문제가 되고 있음을 알수 있음.

<학력별 실업자 추이>

(단위 : 천명, %)

	'80	'83	'88	'93
총 실 업 자 수	748	613	435	550
(실 업 률)	(5.2)	(4.1)	(2.5)	(2.8)
국 졸 이 하	195	110	37	35
(실 업 률)	(2.7)	(1.7)	(0.7)	(0.8)
중 졸	187	145	77	73
(실 업 률)	(6.3)	(4.4)	(2.2)	(2.2)
고 졸	307	281	220	302
(실 업 률)	(9.3)	(6.7)	(3.6)	(3.6)
대 졸 이 상	60	77	101	140
(실 업 률)	(6.2)	(6.1)	(4.7)	(4.0)

○ 특히 20~24세 대졸이상 고학력자는 실업률이 '89년 13.0%에서 '92년 10.5%로 감소해 왔으나, 전반적인 경기부진의 여파로 '93년에는 13.0%로 다시 높아졌음.

- 특히 남자고학력자의 실업률이 '93년 21.5%로 높게 나타났음.

  · 이처럼 고학력자의 실업률이 높은 것은 산업계에서는 전문기술인력의 수요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인문사회계 대졸자가 많이 배출되는 등 학교교육과 산업인력수요가 연계되지않는 인력수급구조의 불균형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임.

< 20~24세 대졸이상 고학력자의 실업률 >

(단위:%)

구 분	'89	'90	'91	'92	'93
계	13.0	11.7	10.9	10.5	13.0
남 자	19.2	16.9	18.7	14.6	21.5
여 자	10.8	9.7	8.7	9.3	11.0

라. 취업구조의 서비스화

○ 사회간접자본 및 기타서비스산업의 구성비는 '85년에 50.6%로 50%를 상회한 후 '93년에 60.9%로 60%를 넘어서 빠른 속도로 비중이 커져가고 있음.

- 특히 도소매·음식숙박업은 '82년에 22.1%로 20%를 넘었으며 최근에는 25% 수준을 보이고 있음.

○ 한편 이와같은 서비스부문의 취업자비중 확대는 도소매·음식숙박업 등 최종소비형 서비스산업 뿐 아니라 금융·운수·통신('89년 16.7%→'93년 18.1%)등과 같은 제조업지원형 서비스부문에서도 일어나고있음.

< 최근 사회간접자본 및 기타서비스산업의 취업구조 >

(단위 : 천명, %)

	'89	'90	'91	'92	'93
○ 총 취 업 자	17,560	18,085	18,612	18,961	19,253
< 구 성 비 >	100.0	100.0	100.0	100.0	100.0
- 사회간접자본및기타	52.1	54.5	56.3	58.4	60.9
· 건 설 업	6.5	7.4	8.3	8.7	8.8
· 도소매 음식숙박업	21.3	21.8	22.0	23.3	25.1
· 공공및 개인서비스	7.6	8.0	8.1	8.6	8.9
· 금융·운수·통신	16.7	17.4	17.9	17.7	18.1

○ 산업별 취업구조를 외국과 비교하면 사회간접자본 및 기타서비스산업의 비중은 아직 낮은 수준이나, 우리나라가 농림어업의 비중이 월등히 높은 점을 감안하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라고 할수 있음.

- 특히 도소매·음식숙박업 취업자의 구성비를 외국과 비교하면 우리나라가 높은 수준임.

< 산업별 취업구조의 국제비교('92년) >

(단위 : %)

	한 국	미 국	일 본	대 만	독 일
총 취 업 자	100.0	100.0	100.0	100.0	100.0
○ 농림어업	15.8	2.9	6.4	12.8	3.0
○ 광 공 업	25.8	17.6	24.6	31.3	28.8
· 제조업	25.5	17.0	24.5	31.1	28.2
○ 사회간접자본 및 기타	58.4	79.5	69.0	55.9	68.2
· 건설업	8.7	6.4	9.7	9.3	5.9
· 도소매·음식숙박업	23.3	20.7	22.4	21.3	15.6
· 기타	26.4	52.5	36.9	25.3	46.7

○ 도소매·음식숙박업에 종사하는 취업자를 고용형태별로 보면, '93년 무급가족종사자 15.6%, 일용근로자 4.1%, 영세한 규모가 대부분인 자영업주 43.0%로서 이들 세가지 형태가 62.7%로서 대부분을 차지함.

- 이를 통해 도소매·음식숙박업의 취업구조가 비교적 불안정함을 알수있음.

- 이들 세가지 형태의 취업자수는 '89년의 2,463천명에서 '93년의 3,032천명으로 569천명이 늘어났으며, 특히 경기가 부진하였던 시기인 '92~'93년사이에 274천명이 늘어났음.

○ 이와같이 도소매·음식숙박업으로 인력이 이동함으로써 제조업 생산직부문의 취업자 감소('92년 △245천명, '93년 △204천명)의 요인이 되고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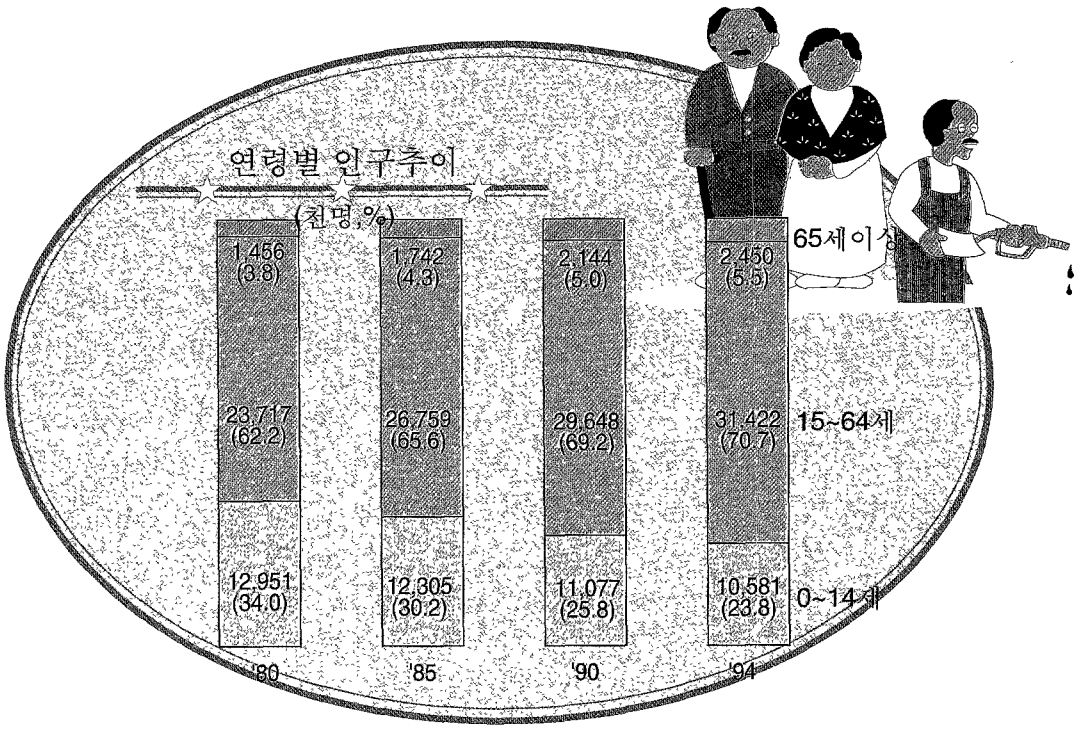
< 최근 도소매·음식숙박업 취업자의 고용형태 >

(단위:천명,%)

	'89		'90		'91		'92		'93	
	취업자	구성비	취업자	구성비	취업자	구성비	취업자	구성비	취업자	구성비
도소매·음식숙박업	3,743	100.0	3,935	100.0	4,086	100.0	4,419	100.0	4,837	100.0
- 임금근로자	1,434	38.3	1,563	39.7	1,645	40.3	1,842	41.7	2,003	41.4
· 상시	1,280	34.2	1,390	35.3	1,479	36.2	1,661	37.6	1,806	37.3
· 일용	154	4.1	173	4.4	166	4.1	181	4.1	197	4.1
- 비임금근로자	2,309	61.7	2,372	60.3	2,441	59.7	2,578	58.3	2,835	58.6
· 자영업주	1,713	45.8	1,742	44.3	1,804	44.1	1,932	43.7	2,079	43.0
· 무급가족종사자	596	15.9	630	16.0	638	15.6	645	14.6	756	15.6

여 백

1994년도 한국의 사회지표



『노령(65세이상) 인구의 비중은
'80년 3.8%에서
'94년 5.5%로 1.7%포인트
증가하였다.』

- 본문중에서 -

1994년도 한국의 사회지표

1995. 2

통계조사국 사회통계과

Ⅰ. 한국의 사회지표 개요

1. 작성목적

○ 국민생활 및 의식수준에 대한 객관적·주관적 평가를 주기적으로 측정

○ 사회구조 변화나 관심분야를 파악하여 각종 사회개발 정책의 계획수립이나 정책결정 및 효과측정에 유용한 기초자료제공

2. 연혁

○ 1978년 : 1975년부터 한국개발연구원과 공동으로 사회지표에 관한 연구조사 사업을 수행하여 8개부문 350개 지표를 최초로 체계화

○ 1979년 : 최초로 128개지표 작성공표

○ 1987년 : 사회지표 체계를 9개부문 468개지표로 확대개편

○ 1988년 : 243개지표 작성공표

○ 1994년 : 291개지표 작성공표

3. 지표체계

한국의 사회지표는 인구, 소득·소비, 고용·노사, 교육, 보건, 주택·환경, 사회, 문화·여가, 공안의 9개부문으로 구성되어있음.

< '94년 한국의 사회지표 수록현황 >

	계	인구	소득 소비	고용 노사	교육	보건	주택 환경	사회	문화 여가	공안	국제 비교
작성지표수	291	23	14	49	40	29	53	27	28	28	25

4. 작성방법

24개 통계기관에서 작성한 41종의 기존 통계자료를 재분류하거나 가공하여 지표작성

Ⅱ. '94 한국의 사회지표 요약

인 구

○ 낮은 출생률의 지속과 평균수명의 상승으로 노년부양비는 '80년 6.1%에서 '94년 7.8%로소폭 증가한 반면, 유년부양비는 '80년 54.6%에서 '94년 33.7%로 크게 감소하였음.

- 이에따라 총부양비는 '80년 60.7%에서 '94년 41.5%로 크게 감소하였음.

- 우리나라의 총부양비는 미국, 프랑스등 선진국에 비해서 낮음. 이는 우리나라의 유년부양비가 이들국가에 비해 별로 높지 않은 반면 노년부양비는 10%포인트 이상 낮기때문임.

○ 우리나라의 국민 평균연령은 '92년에 30대로 들어선 이후 '94. 7. 1 현재 30.9세를 기록하였는데 이는 유년인구의 비중은 감소하고 노령인구의 비중이 증가한데 따른것임.

○ '93년도 내외국인 출입국자는 12,288천명으로 '80년 3,311천명보다 무려 3.7배 늘었는데, 이는 특히 '80년대 후반 이후 국제적으로 인적교류가 급격히 증가한데 기인함.

- 최근에는 내국인 출국자의 증가폭이 외국인 입국자의 증가폭을 상회하여 외국인 입국자에 대한 내국인 출국자의 비율은 '85년 61.3%에서 '93년 99.4%로 증가하였음.

소득·소비

○ '93년 국민총생산은 264조원(경상가격)으로 '80년 37조에 비해 약 7배 증가

- 우리나라의 1인당 GNP는 '93년 7,466달러로 '80년 1,597달러에 비해 4.7배 성장하였고, IBRD자료에 수록된 106개 국가중 '93년에 32위에 이르렀음.

○ 국내총생산의 가계 최종소비지출 중 식료품비중을 외국과 비교해 보면

- 한국의 식료품 비중은 '91년 31.0%에서 '93년 29.5%로 감소하는 추세에 있으나 미국('91년 12.3%), 일본('92년 20.1%) 등 선진국에 비하면 여전히 높은 수준에 있음.

고용·노사

○ 출산률 저하로 인한 육아 부담의 경감, 내구소비재의 보급에 의한 가사부담의 경감, 여성인력의 고학력화와 산업구조의 변화에 의한 취업기회의 확대 등으로 인하여 총 취업자중에서의 여성취업자 비율이 증가하여 '93년 40.2%를 기록.

- 특히 전문직과 사무직 종사자에 있어서 여성취업자 비율의 증가세가 두드러짐.

○ 소득수준의 향상, 법정근로시간의 단축, 토요휴무제의 확산 등으로 평균 근로시간이 '80년 51.6시간에서 '93년 47.5시간으로 감소함.

- 우리나라의 근로시간은 점차 줄어드는 추세이나 외국과 비교해 볼때 싱가포르와 함께 근로시간이 많은 국가에 해당함.

교 육

○ 초·중·고등학교 학령기 인구의 감소로 총인구중 학생이 차지하는 비율은 '80년 27.7% 에서 '94년 23.6%로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음.

- 교육여건의 개선 등으로 교사 1인당학생수와 학급당 학생수는 감소하는 추세임

  · 교사 1인당 학생수 : 국민학교('80년 47.5명 → '94년 29.5명), 중학교('80년 45.1명 → '94년 25.1명), 고등학교('80년 33.3명 → '94년 21.1명)

  · 학급당 학생수 : 국민학교('80년 51.5명 → '94년 37.7명), 중학교('80년 65.5명 → '94년 48.9명), 인문고등학교('80년 59.9명 → '94년 47.4명), 실업고등학교('80년 59.6명 → '94년 46.8명)

○ '80년 ~ '94년기간중 학력별 취업률은 고등학교 졸업생이 37.7%에서 62.9%로 25.2%포인트, 전문대학 졸업생이 40.8%에서 61.4%로 20.6%포인트 증가한 반면, 대학졸업생은 65.0%에서 54.7%로 오히려 10.3%포인트 감소하였음.

- 동기간중 학력별 취업률을 비교해 보면 '80년대 상반기 중에는 고학력일수록 취업률이 높아 대학교 졸업생의 취업률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나, '80년대 하반기 부터는 오히려 전문대학 또는 고등학교 졸업생의 취업률이 높게 나타나는 경향을 보이고 있음.

보 건

○ 우리나라의 평균수명은 WHO통계연감에 수록된 51개국 중에서 남자는 37위, 여자는 32위를 기록하고 있음.

- 수명이 증가하는 추세이지만 보건·의료, 사회보장제도등이 발달된 일본, 미국, 영국 등에 비해서는 아직 낮은 수준임

○ 국민의 식생활수준의 향상으로 국민1인당 1일 평균열량은 '80년 2,485Kcal에서 '92년 2,909Kcal로 증가하였으며, 특히 단백질 섭취량이 크게 증가

- 특히 동물성 단백질이 단백질 총섭취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80년 27.3%에서 '92년 37.3%로 10% 포인트 증가하였음.

- 평균열량 및 단백질 섭취량은 미국, 영국등에 비해서는 낮은 수준이나 일본과는 비슷한 수준임.

○ 고급단백질등 영양섭취 증가로 청소년의 신장, 체중 등 체격은 향상되고 있으며 특히 15세 남자의 경우 개선 폭이 매우 현저함.

- '80년 ~ '93년 기간 중 10세의 경우 신장은 남자가 134.4cm에서 139.8cm로 5.4cm, 여자는 134.8cm에서 140.7cm로 5.9cm 늘어났으며, 체중은 남자가 29.3kg에서 34.7kg으로 5.4kg, 여자는 29.4kg에서 34.6kg으로 5.2kg이 늘어났음.

· 동기간중 15세는 신장이 남자 6.2cm, 여자 2.6cm가 커졌고, 체중은 남자 6.6kg, 여자 3.3kg 증가하여 남여간의 체격 향상폭이 상당한 차이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음.

주택·환경

○ '90. 12월을 기준으로한 도시주택 매매가격 지수는 '91년에 103.3으로 정점을 기록한 이후 '92년부터 하락하고 있는 추세인데 이는 신도시건설에 의한 원활한 주택공급 확대, 부동산투기 억제정책 등에 기인한 것임.

- 반면 도시주택 전세가격지수는 계속 증가추세를 보여 '93년에 112.1을 기록

○ 도로포장률은 '80년의 33.2% 에서 '93년에는 84.7% 로 51.5%포인트 증가하여 도로상태는 크게 개선되었으며, 특히 지방도는 23.5%에서 80.8%로 57.3%포인트 증가하여 개선정도가 현저함.

- 그러나 승용차수가 급격히 증가하여 '88~'93년 기간중 도로는 55,778Km 에서 61,296Km로 1.1배로 소폭 증가한 반면, 승용차대수는 1,118천대에서 4,271천대로 3.8배로 대폭 증가함으로써 교통체증의 유발요인이 되고 있음.

○ 상수도 보급률은 '80년에 54.6% 에서 '93년에 83.0%로 28.4%포인트 높아졌고 또한 1일 1인당 급수량도 '83년의 256ℓ에서 '93년에는 394ℓ로 1.5배 증가

- 한편 수세식 화장실 보급률도 '85년의 37.8% 에서 '93년에는 64.8%로 27.0% 포인트 높아짐에 따라 점차 주거생활의 질도 크게 개선되었음을 알수 있음.

○ 활발한 산업활동, 자동차의 급증 등으로 최종에너지의 총소비량은 '80년 37,597천톤에서 '93년 104,048천톤으로 2.8 배 증가하였으며, 1인당에너지 소비량(TOE)은 '80년 1.01에서 '93년 2.36으로 2.3배 증가.

- 1인당 전력소비량은 '80년의 858KWH에서 '93년에 2,899KWH로 3.4배 증가하여 동기간중 1인당 전력소비량 증가율이 최종에너지소비량 증가율을 상회

정 보 화

○ 이동전화가입자수는 '85년의 4,686명에서 '93년에 471,784명으로, 무선호출 가입자수는 동기간중 19천명에서 2,649천명으로 급속한 증가를 보였음.

- 또한 인구천명당 가입자수를 보면 이동전화는 '85년 0.1명에서 '93년에 10.7명으로, 무선호출은 동기간중 0.5명에서 60.1명으로 높은 증가를 보임

- 특히, 이동전화는 '90년이후 가입자수가 매년 배정도로 증가하고 있음.

○ PC 통신가입자수는 '87년의 226명에서 '92년 323천명으로 급증하는 추세를 보였으며 '93년에는 435천명으로 가입자 증가세가 약간 둔화되었음.

- 이에따라 인구10만명당 가입자수는 '87년 0.5명 에서 '93년 987.8명으로 증가 하였음.

사회 복지

○ 저소득층으로 생활능력이 미약한 생활보호 대상자는 '80년대 후반부터 조금씩 감소하여 '93년에 200만명 수준을 보이고 있음.

- 이는 주로 근로능력이 있는 자활보호대상자의 감소에 기인함.

- 한편 노령, 불구, 질병등으로 근로능력이 없고 부양자도 없는 거택보호 및 시설보호 대상자수는 '90년대에 각각 33만여명, 8만여명으로 거의 비슷한 수준을 보이고 있음.

○ 양로시설, 장애인시설등 사회복지시설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문화·여가

○ 도서발행서적종수의 구성비는 '80~'93년 기간중 전체를 통해 문학, 아동 또는 학습참고서, 사회과학, 기술과학 분야 서적등의 순위로 높게 나타났음.

- 도서발행서적부수의 구성비는 자녀에 대한 교육열을 반영하여 학습참고서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아 '93년에 60.6%이었음.

- 도서종수 비중을 외국과 비교하면 우리나라는 선진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문학, 종교, 어학 등 부문의 서적 비중이 높은 반면, 사회과학이나 순수과학등 과학부문의 비중이 낮은 경향을 보이고 있음.

○ 도시공원의 수는 특히 어린이공원과 근린공원이 많이 늘어나, '85년 2,558개소에서 '93년 5,891개소로 2.3배 증가하였음.

· 반면 1인당 도시공원 면적은 자연공원의 1인당 면적의 감소('85년 15.6㎡ → '93년 11.3㎡)로 '85년 21.4㎡에서 '93년 18.6㎡로 2.8㎡ 감소

공 안

○ 총범죄발생건수는 '80년 595천건에서 '93년에 1,357천건으로 2.3배 증가하였으며 경찰관수는 56천명에서 89천명으로 1.6배 증가하였음.

- 경찰관 1인당 담당 범죄건수는 '80년 10.6건에서 '93년 15.1건으로 1.4배 증가

○ 고속도로에서의 자동차사고가 전체 자동차사고건수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낮은편이나 치사율이 높아 전체 사망자 및 부상자 중 차지하는 비율은 높음.

· 전체 자동차사고발생건수중 비율('85년 1.4% → '93년 2.8%)
· 전체 사망자중 비율('85년 4.9% → '93년 9.4%), 전체 부상자중 비율('85년 2.4% → '93년 4.4%)

○ WHO 통계연감의 사망원인통계에 의한 10만명당 자동차사고 사망자수는 '90년 37.6명, '91년 36.3명, '92년 32.7명, '93년 31.3명으로 감소추세에 있음.

- '93년의 경우 WHO 통계연감에 수록된 51개 국가중 2위이었음.

Ⅲ. '94 한국의 사회지표 세부내용

1. 인구

< 인구규모 및 증가율 >

○ 1994년 7월 1일 기준으로 우리나라 총인구는 44,453천명임.

-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인구가 25번째로 많은 나라임. (붙임1 참조)

  · 남북한인구를 합할 경우 15번째(67백만명)임.

○ 출생률은 가족계획사업등 인구증가억제 정책과 사회경제적 변화의 영향으로 인구천명당 '80년 23.4에서 '94년 15.2로 감소하였으며, 사망률은 평균수명의 연장으로 인구천명당 '80년 6.7에서 '94년 5.8로 감소.

(단위 : 천명당)

	총 인 구 (천명)	출 생 률	사 망 률	자연증가율
1980	38,124	23.4	6.7	16.7
1985	40,806	16.4	6.3	10.1
1990	42,869	15.5	6.0	9.5
1992	43,663	15.4	5.8	9.6
1994	44,453	15.2	5.8	9.4

산식 : 출생률 = (년간 출생아수/총인구)×1,000
사망률 = (년간 사망자수/총인구)×1,000

자료 : 통계청, 『추계인구』

○ 우리나라의 1985~1992년 동안 연평균 인구증가율은 1.0%임.

- 인구밀도는 ㎢당 440명으로 인구가 백만명미만인 소국가와 도시국가를 제외하면 세계에서 제 3위임. (붙임2 참조)

	연앙추계인구(100만명) 1992	연평균인구증가율(%) 1985~1992	인구밀도(㎢당명) 1992
한 국	43.66	1.0	440
방글라데시	119.29	2.6	828
대 만	20.75	1.1	577
일 본	124.34	0.4	329
필 리 핀	64.26	2.3	214
프 랑 스	57.37	0.6	104
미 국	255.02	1.0	27

자료 : UN, 『인구통계연감』

< 인구구조 >

○ 낮은 출생률의 지속과 평균수명의 상승으로

- 유년(0～14세) 인구의 비중은 '80년 34.0%에서 '94년 23.8%로 10.2%포인트 감소한 반면
- 노령(65세이상) 인구의 비중은 '80년 3.8%에서 '94년 5.5%로 1.7%포인트 증가
- 생산연령(15 ～ 64세) 인구의 비중은 '80년 62.2%에서 '94년 70.7%로 8.5%포인트 증가

○ 노년부양비는 '80년 6.1%에서 '94년 7.8%로 소폭 증가한 반면, 유년부양비는 '80년 54.6%에서 '94년 33.7%로 크게 감소하였음.

- 이에따라 총부양비는 '80년 60.7%에서 '94년 41.5%로 크게 감소하였음.

(단위 : 천명)

연도	총인구	0～14세 인구	(%)	15～64세 인구	(%)	65세이상 인구	(%)	부양비		
								계	유년	노년
1980	38,124	12,951	34.0	23,717	62.2	1,456	3.8	60.7	54.6	6.1
1985	40,806	12,305	30.2	26,759	65.6	1,742	4.3	52.5	46.0	6.5
1990	42,869	11,077	25.8	29,648	69.2	2,144	5.0	44.6	37.4	7.2
1994	44,453	10,581	23.8	31,422	70.7	2,450	5.5	41.5	33.7	7.8

산식 : 유년부양비 = (0～14세인구/15～64세인구) ×100
노년부양비 = (65세이상인구/15～64세인구) ×100
총부양비 = 유년부양비 + 노년부양비

자료 : 통계청, 『추계인구』

- 우리나라의 총부양비는 미국, 프랑스등 선진국에 비해서 낮음. 이는 우리나라의 유년부양비가 선진국에 비하여 별로 높지 않은 반면, 노년부양비는 10%포인트이상 낮기때문임.

(단위 : %)

	연 도	총부양비	유년부양비	노년부양비
한 국	1990	44.6	37.4	7.2
	1994	41.5	33.7	7.8
인 도	1991	66.9	60.1	6.8
태 국	1991	56.1	49.9	12.4
프 랑 스	1991	52.1	30.4	21.6
미 국	1990	51.9	32.9	19.0
일 본	1990	43.4	26.1	17.3
싱가포르	1990	41.4	32.9	8.5

자료 : UN, 『인구통계연감』, 『통계월보각호』

○ 우리나라의 국민 평균연령은 '92년에 30대로 들어선 이후 '94. 7. 1 현재 30.9세를 기록하였는데 이는 유년인구의 비중은 감소하고 노령인구의 비중이 증가한데 따른것임.

- 우리나라의 평균연령을 다른 나라와 비교하여 보면 일본, 미국등 선진국보다는 낮으나 인도나 중국보다는 높음.

- 남녀 평균연령의 차이는 우리나라의 경우는 2세, 프랑스 3.1세, 미국 2.9세 일본 2.5세인 반면 인도는 0.2세로 큰 차이가 없음.

(단위 : 세)

	연 도	평균연령	남 자	여 자	남녀차이
한 국	1980	26.1	25.2	27.1	1.9
	1990	29.5	28.5	30.5	2.0
	1992	30.2	29.1	31.2	2.1
	1994	30.9	29.8	31.9	2.1
일 본	1991	38.1	36.8	39.3	2.5
프 랑 스	1993	37.4	35.8	38.9	3.1
미 국	1991	35.4	33.9	36.8	2.9
싱가포르	1992	31.8	31.2	32.4	1.2
중 국	1990	28.8	28.5	29.1	0.6
인 도	1991	25.9	25.8	26.0	0.2

자료 :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추계인구』
UN, 『인구통계연감』

< 내외국인 출입국 현황 >

○ '93년도 내외국인 출입국자는 12,288천명으로 '80년 3,311천명보다 무려 3.7배 늘었는데, 이는 특히 '80년대 후반 이후 국제적으로 인적교류가 급격히 증가한데 기인함.

- 외국인 입국자는 올림픽 개최등으로 인해 '88년에 인구천명당 50명을 넘어선 후 '93년 현재는 70.2명으로 나타났음.

- 내국인 출국자는 해외여행의 자율화 조치등으로 '90년에 인구천명당 50명을 초과한 이후 급격히 증가하여 '93년에 69.8명으로 급증.

- 최근에 내국인 출국자의 증가폭이 외국인 입국자 증가폭을 상회함에 따라 외국인 입국자에 대한 내국인 출국자의 비율은 '85년 61.3%에서 '93년 99.4%로 증가하였음.

(단위 : 천명, 명 , %)

	출입국자 총 수	출국자			입국자			(A/B) ×100
			내국인 (A)	인 구 1000명당		외국인 (B)	인 구 1000명당	
1980	3,311	1,695	726	19.0	1,616	969	25.4	74.9
1985	4,641	2,328	886	21.7	2,313	1,446	35.4	61.3
1988	7,122	3,583	1,414	33.6	3,539	2,172	51.7	65.1
1990	10,059	5,052	2,333	54.4	5,007	2,720	63.4	85.8
1993	12,288	6,163	3,074	69.8	6,125	3,092	70.2	99.4

자료 : 법무부, 『출입국관리통계연보』

2. 소득·소비

< 국민총생산, 조세부담률 및 국민저축률 >

○ '93년 국민총생산은 264조원(경상가격)으로 '80년 37조에 비해 약 7배 증가

- 1인당 GNP는 7,466달러로 '80년 1,597달러에 비해 4.7배 성장하였고
- 조세부담률은 동기간중 17.8% 에서 18.6%, 저축률은 23.2% 에서 34.9% 로 증가

	G N P		1인당 G N P		조세부담률	국민저축률
	(10억원)	10억 $	천 원	$	(%)	(%)
1980	36,857	61	971	1,597	17.8	23.2
1985	79,301	91	1,952	2,242	17.1	29.8
1990	178,262	252	4,165	5,883	18.6	35.9
1993	263,861	329	5,993	7,466	18.6	34.9

산식 : 조세부담률 = (조세부담액/GNP)×100
국민저축률 = (국민저축/국민총가처분소득)×100

자료 : 재 무 부, 『재정금융통계』
한국은행, 『국민계정』

< 1인당 국민총생산 >

○ 우리나라의 1인당 GNP는 '93년 7,466달러로 IBRD 자료에 수록된106개 국가중 '93년에 32위에 이르렀음.

(단위 : $)

	1990	순위	1991	순위	1992	순위	1993	순위
한 국	5,883	40	6,757	38	7,007	38	7,466	32
스 위 스	35,144	1	35,473	1	36,299	1	36,410	1
룩셈부르크	23,656	8	24,186	6	27,053	5	35,850	2
일 본	23,884	5	27,199	2	29,699	2	31,450	3
미 국	22,105	10	22,750	10	23,629	9	24,750	7
영 국	17,183	18	17,616	18	18,229	18	17,970	20
홍 콩[1)]	12,578	22	14,377	22	16,568	22	17,860	21
싱가포르	13,579	21	15,508	21	17,514	20	19,310	18
태 국	1,415	77	1,570	73	1,840	70	2,040	68

1) 1인당 GDP

자료 : '92년 까지는 국제통화기금, (『IFS통계월보 각호』), '93년은 세계은행 (The World Bank ATLAS)자료임

< 도시근로자 가구의 연간 소비지출 구성비 >

○ 도시근로자 가구의 소비지출구성비를 보면

- 소득증가와 소비행태의 변화를 반영하여 식료품, 주거, 광열·수도, 피복·신발 등의 기본적 소비지출 비목은 감소추세인데 반해, 교육·교양, 교통·통신 등 선택적 지출 비목은 증가 추세

  o 특히 식료품 비중은 '85년 37.5%에서 '93년 29.2%로 8.3%포인트가 하락하여 '93년에 처음으로 30%이하를 기록하였고

  o 한편 교육·교양, 교통·통신은 '85년 각각 11.1%, 6.4%에서 '93년 14.2%, 10.0%로 증가

(단위 : 천원, %)

	소비지출	식료품	주거	광열·수도	가구·가사	피복·신발	보건·의료	교육·교양	교통·통신	기타소비
1985	3,804	1,427	190	286	183	292	209	423	245	549
	100.0	37.5	5.0	7.5	4.8	7.7	5.5	11.1	6.4	14.4
1990	8,228	2,634	383	370	469	686	431	1,056	691	1,508
	100.0	32.0	4.7	4.5	5.7	8.3	5.2	12.8	8.4	18.3
1993	12,251	3,581	546	532	635	930	646	1,736	1,226	2,421
	100.0	29.2	4.5	4.3	5.2	7.6	5.3	14.2	10.0	19.8

자료 : 통계청, 『도시가계조사』

< 식료품 비중 비교 >

○ 국내총생산의 가계 최종소비지출 중 식료품비중을 외국과 비교해 보면

- 한국의 식료품 비중은 '91년 31.0%에서 '93년 29.5%로 감소하는 추세에 있으나 미·일등 선진국에 비하면 여전히 높은 수준에 있음.

(단위 : %)

한국			미국	일본	영국	태국	멕시코
'91	'92	'93	'91	'92	'91	'91	'91
31.0	30.0	29.5	12.3	20.1	21.9	31.0	34.8

자료 : UN, 『통계연감』
한국은행, 『국민계정』

3. 고용·노사

< 노동력 수급 및 실업률 >

○ 생산가능인구인 15세이상 인구는 '80년 24,463천명에서 '93년 32,400천명으로 32.4% 증가하였으며

- 경제활동인구는 '80년 14,431천명에서 '93년 19,803천명으로 37.2% 증가하였음.

· 실업률은 '80년의 5.2%에서 '93년 2.8%로 낮아졌음.

(단위 : 천명, %)

	15세이상 인구	경제활동 인구	취업자	실업자	실업률	비경제활동 인구
1980	24,463	14,431	13,683	748	5.2	10,032
1985	27,553	15,592	14,970	622	4.0	11,961
1990	30,887	18,539	18,085	454	2.4	12,348
1993	32,400	19,803	19,253	550	2.8	12,597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 경제활동 참가율 >

○ 출산율 감소와 여성의 사회활동 기회확대로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가 증대됨

(단위 : %)

	경제활동 참 가 율	남(A)	여(B)	성별경제활동 참가율비(B/A)
1980	59.0	76.4	42.8	56.0
1985	56.6	72.3	41.9	57.9
1990	60.0	74.0	47.0	63.5
1993	61.1	76.0	47.2	62.2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 주요국의 경제활동 참가율 >

○ 우리나라 경제활동참가율은 타국과 비교하여 아직 낮은 수준이며 이는 주로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낮은데 기인함.

(단위 : %)

	연 도	경제활동 참가율		
		계	남	여
한 국	1992	60.9	75.3	47.3
	1993	61.1	76.0	47.2
미 국	1992	63.8	72.2	56.0
일 본	1992	64.0	78.0	50.7
필 리 핀	1992	65.0	82.6	47.8

자료 : ILO, 『노동통계연감』

< 산업별 취업구조 >

○ 산업구조의 고도화를 반영하여 농림어업 취업자 비중은 '80년의 34.0%에서 '93년에는 14.7%로 계속 낮아지는 추세에 있으며, 제조업은 21.6%에서 24.2%로 높아졌고, 사회간접자본 및 기타서비스업분야 종사자도 43.5%에서 60.9%로 증가하였음.

- 다만 제조업 취업자의 비중은 '89년 27.8%의 정점에 도달한 이후 경제의 서비스회, 산업구조 조정등에 따라 감소추세로 전환, '93년 24.2%를 기록

< 산업별 취업자 구성비 >

(단위 : %)

	계	농림어업	광공업		사회간접자본 및 기타
				제조업	
1980	100.0	34.0	22.5	21.6	43.5
1985	100.0	24.9	24.4	23.4	50.6
1989	100.0	19.6	28.3	27.8	52.1
1990	100.0	17.9	27.6	27.2	54.5
1993	100.0	14.7	24.4	24.2	60.9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 주요국의 취업구조 >

○ 우리나라의 취업구조는 주요 선진국과 비교해 볼때 농림어업의 비중이 높은 편이며 제조업 취업자의 구성비는 일본과 유사한 수준이나 독일에 비해서는 훨씬 낮은 수준임.

(단위 : %)

	연 도	농림어업	광공업		SOC 및 기타
				제조업	
한 국	1992	15.8	25.8	25.5	58.4
	1993	14.7	24.4	24.2	60.9
미 국	1992	2.9	17.5	17.0	79.6
독 일 (구서독)	1991	3.5	32.4	31.6	64.1
일 본	1992	6.4	24.5	24.4	69.2
포르투칼	1992	11.5	24.1	23.6	64.4

자료 : ILO, 『노동통계연감』

< 직업별 여성취업자 비율 >

○ 출산률 저하로 인한 육아 부담의 경감, 내구소비재의 보급에 의한 가사 부담의 경감, 여성인력의 고학력화와 산업구조의 변화에 의한 취업기회의 확대등으로 인하여 총 취업자중에서의 여성취업자 비율이 증가하여 '93년 40.2%를 기록.

- 특히 전문직과 사무직 종사자에 있어서 여성취업자 비율의 증가세가 두드러짐.

(단위 : %)

	전직종	전문, 기술, 행정, 관리직 종사자	사 무 관련직 종사자	판 매 종사자	서비스직 종 사 자	농 림 수산업 종사자	생산, 운수, 장비 운전자 단순 노무자
1980	38.2	25.4	32.7	43.7	58.1	43.8	27.6
1985	39.0	29.1	34.5	46.3	61.2	43.7	27.5
1990	40.8	35.9	39.9	47.5	61.0	46.3	30.2
1993	40.2	37.6	41.1	47.1	61.2	47.4	25.7

산식 : 여성취업자 비율 = (여성취업자/총취업자)×100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 고령 취업자 비율 >

○ 평균 수명의 연장에 따라 55세이상의 고령취업자 비중이 증가하는 추세임.

(단위 : 천명, %)

	총취업자수	55세 이상 취업자 비율		
			남	여
1980	13,683	10.8	6.7	4.1
1985	14,970	11.3	6.6	4.7
1990	18,085	13.6	7.7	5.8
1993	19,253	14.4	8.3	6.1

산식 : 고령근로자 비율 = (55세이상 취업자/총취업자)×100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연보』

< 주요국의 고령취업자 비율 >

○ 고령취업자 비중을 외국과 비교하면 필리핀, 스페인과 비슷한 수준이고 영·미 보다는 약간 높으며 일본에 비해서는 훨씬 낮은 편임.

(단위 : 천명, %)

	연 도	총취업자수	55세 이상 취업자 비율		
				남	여
한 국	1991	18,612	14.0	8.1	5.9
	1993	19,253	14.4	8.3	6.1
영 국	1991	26,530	12.6	7.7	4.8
미 국	1992	117,597	12.5	7.1	5.4
필리핀	1990	22,530	14.2	9.1	5.1
스페인	1991	12,609	14.4	10.6	3.8
일 본	1991	63,670	21.0	12.9	8.1

자료 : ILO 『노동통계연감』

< 근로시간 >

○ 소득수준의 향상, 법정근로시간의 단축, 토요휴무제의 확산 등으로 평균 근로시간이 '80년 51.6시간에서 '93년 47.5시간으로 감소함.

- 제조업에 있어서 주당 평균근로시간은 '80년 53.1시간에서 '93년 48.9시간으로 감소하였음.

< 주당 평균 근로시간 >

(단위 : 시간)

	평 균	제조업	전기·가스·수도사업	건설업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	사회및 개인서비스업
1980	51.6	53.1	48.6	50.4	50.5	47.2
1985	51.9	53.8	50.0	49.0	50.0	46.6
1990	48.2	49.8	47.8	45.8	47.5	44.5
1993	47.5	48.9	48.0	46.6	46.5	44.7

자료 : 노동부, 『매월노동통계조사』

○ 우리나라의 근로시간은 점차 줄어드는 추세이나 외국과 비교해 볼때 싱가포르와 함께 근로시간이 많은 국가에 해당함.

< 제조업의 주당근로시간 국제비교 >

(단위 : 시간)

	1988	1989	1990	1991	1992	순 위
한 국	52.6	50.7	49.8	49.3	48.7	1
싱가포르	47.4	48.6	48.5	48.7	48.7	1
멕 시 코	44.9	45.1	45.4	45.6	45.7	3
필 리 핀	44.7	44.9	45.3	45.2	44.5	4
칠 레	44.0	43.2	44.9	45.3	44.4	5
홍 콩	45.9	44.8	44.0	45.2	43.0	7
미 국	41.1	41.0	40.8	40.7	41.0	10
독 일 (구서독)	40.0	39.9	39.5	39.2	38.9	14
일 본	41.8	41.4	40.8	40.0	38.8	15

자료 : ILO 『노동통계연감』- 45개국중

4. 교 육

< 학생현황 >

○ 초·중·고등학교 학령기 인구의 감소로 총인구중 학생이 차지하는 비율은 '80년 27.7% 에서 '94년 23.6%로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음.

- 이에따라 인구만명당 학생수는 국민학교가 '80년 1,484명에서 '94년 922명으로, 중학교가 '80년 648명에서 564명으로 감소하였고, 고등학교의 경우 '90년에 들어 감소추세를 보여 '90년 533명에서 '94년 464명으로 감소하였음.

- 반면 인구만명당 대학생수는 '80년이후 대학졸업 정원제의 도입으로 입학정원이 확대됨에 따라 '80년의 157명에서 '94년 398명으로 크게 증가하였음.

(단위 : 명, %)

	총학생수		인구만명당 학생수			
		학생비율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1980	10,568,247	27.7	1,484	648	445	157
1985	11,151,871	27.2	1,190	682	528	309
1990	11,007,043	25.7	1,136	531	533	342
1994	10,500,541	23.6	922	564	464	398

산식 : 학생비율 = (총학생수/총인구) × 100

자료 : 교육부, 『교육통계연보』

< 교사 1인당 학생수 >

○ 교사수는 늘어나고 학생수는 감소함으로써, 교사 1인당학생수는 크게 감소하는 추세임.

- 중학교의 경우 '80년에 45.1명에서 '94년 25.1명으로 20명이나 크게 감소하였고

- 국민학교는 동기간중 47.5명에서 29.5명, 고등학교는 33.3명에서 21.2명으로 각각 18명, 12.1명이 감소.

(단위 : 명)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수	교사수	교사 1인당 학생수	학생수	교사수	교사 1인당 학생수	학생수	교사수	교사 1인당 학생수
1980	5,658,002	119,064	47.5	2,471,997	54,858	45.1	1,696,792	50,948	33.3
1985	4,856,752	126,785	38.3	2,782,173	69,553	40.0	2,152,802	69,546	31.0
1990	4,868,520	136,800	35.6	2,275,751	89,719	25.4	2,283,806	92,683	24.6
1993	4,336,252	139,159	31.2	2,410,874	97,131	24.8	2,069,210	96,698	21.4
1994	4,099,395	139,096	29.5	2,508,657	99,775	25.1	2,060,825	97,064	21.2

자료 : 교육부, 『교육통계연보』

○ 우리나라의 교사 1인당 학생수는 꾸준히 감소추세에 있으나, 외국과 비교하면 일본, 미국 등 선진국에 비하여 여전히 많은 편임.

< 주요국의 교사1인당 학생수 >

(단위 : 명)

	연 도	초 등	중 등	고 등
한 국	1993	32	23	22[1]
프 랑 스	1992	16	12	25[2]
일 본	1992	20	16[2]	10[2]
영 국	1990	20	13	16
말레이시아	1992	20	18	12[3]
싱가포르	1990	26	21	...

1) 1992 2) 1991 3) 1990

자료 : 유네스코, 『통계연감』
주 : 초등은 국민학교, 중등은 중·고등학교, 고등은 전문대학이상을 의미함

< 학급당 학생수 >

○ 학급당 학생수는 교육여건의 개선으로 감소추세에 있음.

- 국민학교는 학급당 학생수가 '94년에 37.7명으로 '80년의 51.5명에 비해 13.8명이 감소

· 중학교는 동기간중 16.6명, 고등학교는 13명정도가 감소되었음.

(단위 : 명)

	국민학교	중학교	인문고	실업고
1980	51.5	65.5	59.9	59.6
1985	44.7	61.7	58.0	55.5
1990	41.4	50.2	53.6	51.5
1994	37.7	48.9	47.4	46.8
(94-80)	△13.8	△16.6	△12.5	△12.8

자료 : 교육부, 『교육통계연보』

< 여교사 비율 >

○ 교사중 여교사의 비율은 높아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국민학교 여교사비율은 '94년도에 54.5%로 반이상을 차지하고 있음.

(단위 : %)

	국민학교	중학교	인문고	실업고	대학교
1980	36.8	32.8	17.2	17.0	15.7
1985	43.1	38.5	19.6	21.4	16.5
1990	50.1	46.5	22.1	24.3	17.6
1994	54.5	49.0	21.8	25.3	20.2

자료 : 교육부, 『교육통계연보』

< 각국의 여교사비율 >

(단위 : %)

	연 도	초 등	중 등	고 등
한 국	1993	54	36	24[1]
일 본	1992	60	31[2]	16[2]
싱가포르	1989	71	63	21[2]
홍 콩	1987	74	49	25[1]
프 랑 스	1992	77	58	28
영 국	1990	78	53	21

1) 1992 2) 1991

자료 : 유네스코, 『통계연감』

< 유치원 취원율 >

○ '80～'94년 기간중 유치원수는 9.9배, 유치원 아동수 및 교원수는 각각 7.7배, 7.3배 증가하였음.

- 이에따라 유치원 취원율은 '80년 4.1%에서 '94년 38.7%로 높아져 우리나라 4～5세 인구의 3명중 1명이상이 유치원에 다니고 있으며

- 교사 1인당 아동수는 '80년에 19.9명에서 '85년에 33.9 명으로 증가한 후 '80년대 후반부터 감소추세로 전환하여 '94년에는 21.0명을 기록하였음.

	유치원수 (개소)	유치원아동수 (명)	유치원취원율 (%)	교원수 (명)	1인당 아동수 (명)
1980	901	66,433	4.1	3,339	19.9
1985	6,242	314,692	18.9	9,281	33.9
1990	8,354	414,532	31.4	18,511	22.4
1994	8,910	510,100	38.7	24,288	21.0
(94/80) 배율	9.9	7.7	-	7.3	-

산식 : 유치원 취원율 = (유치원아동수/4～5세인구)
자료 : 교육부, 『교육통계연보』

< 졸업생의 진학률 >

○ 소득수준의 향상과 높은 교육열을 반영하여 중학교 진학률은 99.9% 고등학교 진학률은 98.8%로 매우 높아 거의 대부분이 중·고등학교에 진학하고 있으며 전문대이상의 대학진학률도 45.3%로 고등학교 졸업생중 절반가량이 전문대학 이상에 진학하고 있음.

(단위 : %)

	국민학생의 중학 진학률	중학생의 고교 진학률	고등학생의 전문대 및 대학 진학률
1980	95.8	84.5	27.2 (43.3)
1985	99.2	90.7	36.4 (49.6)
1990	99.8	95.7	33.2 (44.9)
1994	99.9	98.8	45.3 (63.1)

주 : ( )은 재수생을 포함한 입학률을 의미
산식 : 진학률 = (당해년도 상급학교 진학자수/당해년도 졸업자수)×100
입학률 = (당해년도 전문대 및 대학 입학자수
/당해년도 고등학교 졸업자수)×100
자료 : 교육부, 『교육통계연보』

< 취업률 >

○ '80년~'94년기간중 학력별 취업률은 고등학교 졸업생이 37.7%에서 62.9%로 25.2%포인트, 전문대학 졸업생이 40.8%에서 61.4%로 20.6%포인트 증가한 반면 대학 졸업생은 65.0%에서 54.7%로 오히려 10.3%포인트 감소하였음.

- 동기간중 학력별 취업률을 비교해 보면

· '80년대 상반기 중에는 고학력일수록 취업률이 높아 대학교 졸업생의 취업률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나 '80년대 하반기부터는 오히려 전문대학 또는 고등학교 졸업생의 취업률이 높게 나타나는 경향을 보이고 있음.

(단위 : %)

	고등학교	전문대학	대 학 교
1980	37.7	40.8	65.0
1985	41.7	44.2	45.7
1986	43.8	44.3	40.8
1987	47.5	44.4	43.8
1988	50.5	49.2	47.1
1989	52.0	52.0	49.7
1990	50.7	58.6	52.2
1991	53.0	66.1	55.7
1992	55.3	65.1	55.6
1993	57.5	63.5	52.1
1994	62.9	61.4	54.7

주 : 당해년도 4월1일 기준임.
산식 : 취업률 = [취업자수/(졸업생수-진학자수-군입대자)]×100
자료 : 교육부, 『교육통계연보』

5. 보 건

< 기대여명 >

○ 평균수명은 '91년 남자 67.7세, 여자 75.7세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임

< 기 대 여 명 >

(단위 : 년)

	남		여	
	0세	65세	0세	65세
1970	59.8	9.6	66.7	13.8
1979	62.7	9.9	69.1	14.1
1989	66.7	11.9	74.9	16.0
1991	67.7	12.3	75.7	16.1

자료 : 통계청

○ 우리나라의 평균수명은 WHO통계연감에 수록된 51개국 중에서 남자는 37위, 여자는 32위를 기록하고 있음.

- 수명이 증가하는 추세이지만 보건·의료, 사회보장제도등이 발달된 일본, 미국, 영국 등에 비해서는 아직 낮은 수준임

< 평균수명 국가별 순위 >

(단위 : 년)

순위	연도	남 자		여 자	
		국 가 명	평균수명	국 가 명	평균수명
	1991	한 국	67.7 (37위)	한 국	75.7 (32위)
1	1992	일 본	76.3	일 본	83.0
2	1990	이스라엘	75.1	프 랑 스	82.0
3	1990	스 웨 덴	74.9	스 위 스	81.7
4	1992	호 주	74.8	캐 나 다	81.0
5	1991	그리이스	74.7	호 주	80.8
6	1992	스 위 스	74.6	스 웨 덴	80.6
7	1991	캐 나 다	74.4	이탈리아	80.5
8	1991	네덜란드	74.1	스 페 인	80.5
9	1991	노르웨이	74.1	네덜란드	80.4
10	1992	영 국	73.7	노르웨이	80.3

자료 : WHO, 통계연감 - 51개국중

< 영양섭취 >

○ 국민의 식생활수준의 향상으로 국민1인당 1일 평균열량은 '80년 2,485Kcal에서 '92년 2,909Kcal로 증가하였으며, 특히 단백질 섭취량이 크게 증가하였음.

- 특히 동물성 단백질이 단백질 총섭취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80년 27.3%에서 '92년 37.3%로 10% 포인트 증가하였음.

< 영양공급(1일 1인당) >

(단위 : ( )는 %)

	평균열량 (Kcal)	단백질 (g)		
			식물성(g)	동물성(g)
1980	2,485	73.6 (100.0)	53.5 (72.7)	20.1 (27.3)
1985	2,687	86.6 (100.0)	58.1 (67.1)	28.5 (32.9)
1990	2,853	89.3 (100.0)	56.1 (62.8)	33.2 (37.2)
1992	2,909	90.2 (100.0)	56.6 (62.7)	33.6 (37.3)

자료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식품수급표』

○ 평균열량 및 단백질 섭취량은 미국, 영국등에 비해서는 낮은 수준이나 일본과는 비슷한 수준임.

< 외국의 평균열량 및 단백질 공급량 (1일 1인당) >

	연 도	평균열량 (Kcal)	단 백 질 (g)
한 국	1990 1992	2,853 2,909	89.3 90.2
일 본	1989	2,926	95.6
미 국	1990	3,680	111.1
영 국	1991	3,282	93.7
포르투칼	1992	3,420	97.9
태 국	1992	2,271	47.5
말레이지아	1991	2,697	53.6
아르헨티나	1992	3,075	98.3

자료 : UN, 『통계연감』

○ 우리나라의 주식인 쌀의 소비량이 계속 줄어드는 반면, 쇠고기, 돼지고기등의 육류소비량은 계속 늘어나 동물성 단백질의 주요한 공급원천이 되고 있음.

< 쌀 및 육류소비량 (1일 1인당) >

(단위 : g)

	쌀 소비량		쇠고기 소비량	돼지고기 소 비 량	달 걀 소비량
	농 가	비농가			
1980	412.5	343.7	7.1	17.3	17.9
1985	449.8	323.3	7.9	23.0	19.7
1990	439.3	307.1	11.3	32.3	25.2
1993	417.0	285.0	14.5	38.2	27.7
(93/80) 배율	(1.0)	(0.8)	(2.0)	(2.2)	(1.5)

자료 : 농림수산부, 『양곡소비량조사』
축협중앙회, 『축산물가격 및 수급자료』

○ 고급단백질등 영양섭취 증가로 청소년의 신장, 체중 등 체격은 향상되고 있으며 특히 15세 남자의 경우 개선 폭이 매우 현저함.

- '80년~'93년 기간 중 10세의 경우 신장은 남자가 134.4cm에서 139.8cm로 5.4cm, 여자는 134.8cm에서 140.7cm로 5.9cm 늘어났으며, 체중은 남자가 29.3kg에서 34.7kg으로 5.4kg 늘어났고, 여자는 29.4kg에서 34.6kg으로 5.2kg이 늘어났음.

· 동기간중 15세는 신장이 남자 6.2cm, 여자 2.6cm가 커졌고, 체중은 남자 6.6kg, 여자 3.3kg 증가하여 남여간의 체격 향상폭이 상당한 차이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음.

< 청소년의 신장, 체중 >

(단위 : cm, kg)

	신 장				체 중			
	10세		15세		10세		15세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1980	134.4	134.8	162.2	155.7	29.3	29.4	51.9	49.4
1985	136.6	136.8	164.8	156.7	30.8	30.5	53.9	50.2
1990	138.6	139.3	166.8	157.6	33.7	33.2	56.3	51.5
1993	139.8	140.7	168.4	158.3	34.7	34.6	58.5	52.7
(93-80)	(5.4)	(5.9)	(6.2)	(2.6)	(5.4)	(5.2)	(6.6)	(3.3)

자료 : 교육부, 『교육통계연보』

< 의 료 >

○ 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환자수는 '93년 109,679천명으로 '80년의 30,296천명에 비해 3.6배 증가함.

- 특히 소득향상에 따라 의료수혜 수준이 올라가고 특히 '88년 전국민 의료보험이 시행됨으로써 입원환자 비율은 '90년에 크게 늘었으며 '93년에 31.5%를 기록.

< 입원환자 비율 >

(단위 : 천명)

	총환자수	입원환자 연 인 원	외래환자 연 인 원	입원환자 비율 (%)
1980	30,296	8,446	21,850	27.9
1985	60,188	16,358	43,830	27.2
1990	91,161	29,387	61,774	32.2
1993	109,679	34,578	75,101	31.5
(93/80) 배율	3.6	4.1	3.4	3.6%p

산식 : 입원환자비율 = (입원환자 연인원수/총환자수)×100
자료 : 보건사회부, 『보건사회통계연보』

○ 의료인력 및 병상수의 증가로 인하여 의사 1인당인구는 '80년 1,690명에서 '93년 855명으로, 병상당 인구수는 '80년 1,001명에서 '93년 349명으로 감소하였음.

< 보건의료인구 >

(단위 : 명)

	의 사 1인당 인구	한 의 사 1인당 인구	치과 의사 1인당 인구	약 사 1인당 인구	병 상 당[1] 인 구
1980	1,690	12,645	10,531	1,565	1,001
1985	1,379	10,770	7,507	1,366	549
1990	1,007	7,401	4,457	1,155	429
1993	855	5,821	3,617	1,080	349

주 : 1)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및 한방병원에 한함
자료 : 보건사회부, 『보건사회통계연보』

○ 우리나라의 의사 1인당 인구수 및 치과의사 1인당 인구수는 말레이시아 등 후진국에 비해서는 높은 편이나 일본, 캐나다, 프랑스등 선진국에 비하여는 낮은 수준으로 나타남.

- 그러나 약사 1인당인구수는 일본, 캐나다, 프랑스 등의 선진국과는 비슷한 수준임.

< 주요국의 의료인구 >

(단위 : 명)

	연 도	의 사 1인당 인구	치과의사 1인당 인구	약 사 1인당 인구
한 국	1993	855	3,617	1,080
	1990	1,007	4,457	1,155
일 본	1990	583	1,669	820
말레이시아	1990	2,533	13,154[1]	15,629[1]
캐 나 다	1991	446	1,849	1,202[2]
프 랑 스	1989	332	1,481	1,093

1) 1988 2) 1990

자료 : WHO, 『통계연감』

6. 주택 · 환경

< 주택건설 및 투자 >

○ 신도시 건설 등에 의한 주택공급 확대로 주택건설은 '90년 750천호, '93년 695천호의 공급실적을 보였으며, GNP 대비 주택투자율은 '80년대에는 4~5% 수준에서 '90년 이후는 8%대로 증가하였음.

(단위 : 천호)

	주 택 건설수	공 공	민 간	건축물건축허가 연면적 (1,000㎡)	주거용 비율(%)	GNP대비 주택투자율 (%)
1980	212	106	105	25,727	57.3	5.9
1985	227	132	95	38,217	53.9	4.4
1990	750	269	481	116,419	60.9	8.2
1993	695	227	468	117,790	58.8	8.4

산식 : 주택투자율 = (주거용건물투자액/GNP) × 100

자료 : 건설부, 『건설통계편람』
한국은행, 『국민계정』

< 도시주택 매매 및 전세가격지수 >

○ '90. 12월을 기준으로한 도시주택 매매가격 지수는 '91년에 103.3으로 정점을 기록한 이후 '92년부터 하락하고 있는 추세인데 이는 신도시건설에 의한 원활한 주택공급 확대, 부동산투기 억제정책 등에 기인한 것임.

- 반면 도시주택 전세가격지수는 계속 증가추세를 보여 '93년에 112.1을 기록하였음. 이는 핵가족화등에 의한 전세 신규수요의 꾸준한 증가, 주택가격 안정세의 전망에 따른 전세선호 등에 기인함.

1990. 12 = 100

	매 매 가 격 지 수				전 세 가 격 지 수			
	계	단 독	연 립	아파트	계	단 독	연 립	아파트
1990	93.5	95.6	93.4	89.7	99.8	101.1	98.1	98.2
1991	103.3	102.5	103.6	104.3	103.8	102.3	104.7	105.7
1992	96.5	97.6	96.3	95.0	108.3	105.4	112.6	111.6
1993	93.2	93.9	92.9	92.3	112.1	108.7	116.6	115.9

자료 : 한국주택은행, 『도시주택가격동향조사』

< 도로와 승용차와의 관계 >

○ 도로포장률은 '80년의 33.2% 에서 '93년에는 84.7% 로 51.5%포인트 증가하여 도로상태는 크게 개선되었으며, 특히 지방도는 23.5%에서 80.8%로 57.3%포인트 증가하여 개선정도가 현저함.

○ 승용차수가 급격히 증가하여 100만대를 돌파한 '88년을 기준으로 도로와 승용차의 관계를 보면

- '88~'93년 기간중 도로는 55,778Km에서 61,296Km로 1.1배로 소폭 증가한 반면, 승용차대수는 1,118천대에서 4,271천대로 3.8배로 대폭 증가함으로써 교통체증의 유발요인이 되고 있음

○ 승용차 1대당 인구수는 '80년대에 153.0명에서 '93년에는 10.3명으로 대폭 감소하였음.

	도로 포장률 (%)	국도	지방도	총도로연장 (Km)	승용차수 (천대)	승용차 1대당 인구수
1980	33.2	71.6	23.5	46,951	249	153.0
1985	49.9	76.4	40.5	52,264	557	73.3
1988	61.4	84.4	53.8	55,778	1,118	37.6
1990	71.5	90.4	65.5	56,715	2,075	20.7
1993	84.7	98.1	80.8	61,296	4,271	10.3

산식 : 도로포장률 = (총포장도로/총도로) × 100
자료 : 건 설 부, 『건설통계편람』, 『도로현황조서』
교 통 부, 『교통통계연보』

< 승용차 1대당 인구수 국제비교 >

○ 우리나라의 승용차 1대당 인구수는 '91년에는 16.2명으로 세계에서 45위를 기록하고 있으며 말레이시아, 대만등과 비슷한 수준임.

국 명	년 도	승용차 보급대수(천대)	승용차 1대당 인구수(명)	순위
한 국	1991	2,728	16.2	45
	1993	4,271	10.3	-
미 국	1991	142,956	1.8	1
서 독 (구 서 독)	1991	31,309	2.0	2
이 탈 리 아	1991	28,200	2.1	3
스 위 스	1991	3,216	2.1	4
일 본	1991	37,076	3.4	21
싱 가 포 르	1991	305	9.2	35
말 레 이 시 아	1991	1,819	10.1	37
대 만	1991	2,077	10.1	38
사우디아라비아	1991	1,534	11.1	40
브 리 질	1991	12,128	13.0	43
멕 시 코	1991	6,819	13.5	44
루 마 니 아	1991	1,245	18.6	48

자료 : 한국자동차공업협동조합, 『세계자동차산업 연관통계』

< 상·하수도 보급률 >

○ 상수도 보급률은 '80년에 54.6% 에서 '93년에 83.0%로 28.4%포인트 높아졌고 또한 1일 1인당 급수량도 '83년의 256ℓ에서 '93년에는 394ℓ로 1.5배 늘어났음.

- 한편 수세식 화장실 보급률도 '85년의 37.8% 에서 '93년에는 64.8%로 27.0% 포인트 높아짐에 따라 점차 주거생활의 질도 크게 개선되었음을 알수 있음.

	상수도 보급률 (%)	1일 1 인당 급수량(ℓ)	수세식 화장실 보급률(%)
1980	54.6	256	-
1985	66.6	282	37.8
1990	78.5	369	54.8
1993	83.0	394	64.8

산식 : 상수도 보급률 = (상수도 급수인구/총인구)× 100
자료 : 건설부, 『건설통계편람』

< 최종에너지 및 전력소비량 >

○ 활발한 산업활동, 승용차의 급증등 으로 최종에너지의 총소비량은 '80년 37,597천톤에서 '93년 104,048천톤으로 2.8 배 증가하였으며, 1인당에너지 소비량(TOE)은 '80년 1.01에서 '93년 2.36으로 2.3배 증가.

○ 1인당 전력소비량은 '80년의 858KWH에서 '93년에 2,899KWH로 3.4배 증가하여 같은 기간중 1인당 전력소비량 증가율이 최종에너지소비량 증가율 보다 더 높게 나타났음.

	최종에너지 소 비 량 (1,000 TOE)	1인당 에너지 소비량 (TOE)	전력소비량 (GWH)	1인당 전력 소비량(KWH)
1980	37,597	1.01	32,724	858
1985	46,998	1.15	50,732	1,243
1988	61,033	1.45	74,318	1,771
1990	75,107	1.75	94,383	2,202
1993	104,048	2.36	127,734	2,899
(93/80) 배율	(2.8)	(2.3)	(3.9)	(3.4)

주 : 1TOE = 10^7 Kcal, 1GWH = 10^6KWH
※ TOE(Tonnage of Oil Equivalent) : 석유로 환산한 Ton 단위임.
※ 최종에너지란 1차에너지에 대칭되는 개념으로 일정한 전환과정을 거쳐 최종부문에서 사용되는 에너지를 말함.
자료 : 동력자원부, 『에너지통계연보』

< 전화, 이동전화 및 무선호출>

○ 인구 100명당 전화가입자는 '85년 16.0명에서 '93년 37.8명, 특히 가정용 전화는 동기간중 12.5명에서 30.5명으로 증가하여 거의 한 가구당 1대 이상의 전화를 보유하고 있음을 보여줌.

○ 이동전화가입자수는 '85년의 4,686명에서 '93년에 471,784명으로, 무선호출 가입자수는 동기간중 19천명에서 2,649천명으로 급속한 증가를 보였음.

- 또한 인구천명당 가입자수를 보면 이동전화는 '85년 0.1명에서 '93년에 10.7명으로, 무선호출은 동기간중 0.5명에서 60.1명으로 높은 증가를 보였음.

- 특히, 이동전화는 '90년이후 가입자수가 매년 배정도로 증가하고 있음.

< 통신관련 지표 >

(단위 : 명)

	인구100명당 전화가입자수	이 동 전 화 1)		무 선 호 출	
		가정용	가입자수	인 구 1000명당	가입자수	인 구 1000명당
1985	16.0	12.5	4,686	0.1	18,782	0.5
1990	31.0	25.2	80,005	1.9	417,650	9.7
1991	33.7	27.1	166,198	3.8	850,516	19.7
1992	35.7	29.4	271,868	6.2	1,451,710	33.2
1993	37.8	30.5	471,784	10.7	2,648,603	60.1

자료 : 체신부, 『체신통계연보』
주 : 1) 이동전화는 '88.7월 부터 기존의 차량전화 이외에 휴대전화도 포함

< PC통신 가입자수 >

○ PC 통신가입자수는 '87년의 226명에서 '93년에는 435천명으로 크게 증가하였음.

- 이에따라 인구10만명당 가입자수는 '87년 0.5명 에서 '93년 987.8명으로 증가 하였음.

(단위 : 명)

	기입자수	전년대비 증가배율	인구10만명당 가입자수		가입자수	전년대비 증가배율	인구10만명당 가입자수
1987	226	-	0.5	1991	159,343	2.9	368.3
1988	1,185	5.2	2.8	1992	323,248	2.0	740.3
1989	16,016	13.5	37.7	1993	435,191	1.3	987.8
1990	54,357	3.4	126.8				

자료 : 체신부, 『체신통계연보』

7. 사회

< 공적부조인구 >

○ 저소득층으로 생활능력이 미약한 생활보호 대상자는 '85년에 2,273천명이었으며 '80년대 후반부터 조금씩 감소하여 '93년에 200만명을 기록하였음.

- 이는 주로 근로능력이 있는 자활보호대상자의 감소에 기인함.

- 한편 노령, 불구, 질병등으로 근로능력이 없고 부양자도 없는 거택보호 및 시설보호 대상자수는 '93년에 각각 338천명, 83천명으로 '90년대에 들어 거의 비슷한 수준을 보이고 있음.

○ 저소득층중에서 의료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 국가재정으로 의료혜택을 받는 의료보호 수혜자는 '90년에 3,930천명을 기록한 후 감소하고 있음

- 이에따라 의료보호 수혜율은 '90년에 9.2%를 기록한후 '93년에 5.4%로 하락하였음.

(단위 : 천명)

	생활보호 대상자				의료보호수혜자	
	계	자활보호	거택보호	시설보호		수혜율(%)
1980	1,829	1,500	282	47	2,142	5.6
1985	2,273	1,928	282	63	3,259	7.9
1990	2,255	1,835	339	81	3,930	9.2
1993	2,001	1,580	338	83	2,366	5.4

산식 : 의료보호수혜율 = (의료보호수혜자/총인구)×100
자료 : 보건사회부, 『보건사회통계연보』

< 사회복지시설 및 수용자수 >

○ 양로시설, 장애인시설등 사회복지시설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 양로시설은 '80년에 48개에서 '93년에 135개로 증가하였고, 수용자수는 동기간중 3,158명에서 7,525명으로 2.4배 증가하였음.

- 장애인 수용시설은 '88년 장애인 올림픽 개최 이후 사회적 관심이 높아졌고 장애인을 위한 정부시책이 꾸준히 추진됨에 따라 '85년 92개에서 '93년 201개로 증가하였으며 수용자도 '93년에 13천여명으로 증가

- 모자보호시설, 가출여성 및 윤락여성등을 위한 부녀직업보도시설, 아동복지시설등은 종전과 비슷하거나 감소하였음.

(단위 : 개소, 명)

	양로시설	수용자	장애인 수용시설	수용자	모자보호	부녀직업보도	아동복지시설
1980	48	3,158	90	11,281	33	24	314
1985	67	5,059	92	9,326	34	23	290
1990	89	6,409	150	12,759	37	22	287
1993	135	7,525	201	13,533	40	23	287

자료 : 보건사회부, 『보건사회통계연보』

8. 문화·여가

< 도서 발행 실적 >

○ '93년에 발행된 도서는 종수로 26,304종, 부수로 139,212천권으로 '80년에 비해 각각 2.0배, 2.8배씩 증가하였음. 이는 소득증가, 사회구조의 다원화 및 전문화, 여가활용을 위한 독서인구의 증가 등으로 인해 서적수요가 증가한데 따른 것임.

(단위 : 종, 천권)

	1980		1985		1990		1993	
	종 수	부 수	종 수	부 수	종 수	부 수	종 수	부 수
계	13,062	50,407	19,756	78,469	20,903	129,611	26,304	139,212
총류	288	469	295	465	197	400	350	1,916
철학	327	572	337	837	621	3,080	680	1,913
종교	1,014	2,317	1,438	2,902	1,563	3,860	2,040	5,901
사회과학	1,466	1,968	2,962	3,996	3,142	5,289	3,106	5,298
순수과학	202	310	352	625	328	502	420	760
기술과학	1,272	1,272	1,607	1,512	1,761	1,999	2,986	3,717
예술	798	1,682	1,275	3,175	983	3,006	1,173	3,504
어학	566	1,480	997	2,933	882	3,185	1,143	3,954
문학	2,389	4,149	4,478	7,441	3,646	7,278	5,336	13,746
역사	314	506	878	1,048	657	1,206	924	2,397
아동	2,353	4,629	2,246	5,799	2,344	8,387	4,061	11,729
학습참고서	2,073	31,054	2,891	47,736	4,779	91,420	4,085	84,377

○ 서적종수의 구성비는 '80~'93년 기간중 전체를 통해 문학, 아동 또는 학습참고서, 사회과학, 기술과학 분야 서적등의 순위로 높게 나타났음.

- 부수의 구성비는 자녀에 대한 교육열을 반영하여 학습참고서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아 '93년에 60.6%이었음.

- '85년~'93년 기간중 서적종수의 비중변화를 보면 특히 사회과학 서적의 비중은 감소(15.0% → 11.8%)한 반면, 기술과학서적의 비중이 증대(8.1% → 11.4%)한 것이 두드러진 현상임.

(단위 : %)

	1980		1985		1990		1993	
	종 수	부 수	종 수	부 수	종 수	부 수	종 수	부 수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총류	2.2	0.9	1.5	0.6	0.9	0.3	1.3	1.4
철학	2.5	1.1	1.7	1.1	3.0	2.4	2.6	1.4
종교	7.8	4.6	7.3	3.7	7.5	3.0	7.8	4.2
사회과학	11.2	3.9	15.0	5.1	15.0	4.1	11.8	3.8
순수과학	1.5	0.6	1.8	0.8	1.6	0.4	1.6	0.5
기술과학	9.7	2.5	8.1	1.9	8.4	1.5	11.4	2.7
예술	6.1	3.3	6.5	4.0	4.7	2.3	4.5	2.5
어학	4.3	2.9	5.0	3.7	4.2	2.5	4.3	2.8
문학	18.3	8.2	22.7	9.5	17.4	5.6	20.3	9.9
역사	2.4	1.0	4.4	1.3	3.1	0.9	3.5	1.7
아동	18.0	9.2	11.4	7.4	11.2	6.5	15.4	8.4
학습참고서	15.9	61.6	14.6	60.8	22.9	70.5	15.5	60.6

자료: 대한출판문화협회, 『한국출판연감』

< 도서발행 현황 >

○ 도서종수 비중을 외국과 비교하면 우리나라는 선진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문학, 종교, 어학 등 부문의 서적 비중이 높은 반면, 사회과학이나 순수과학 등 과학 부문의 비중이 낮은 경향을 보이고 있음.

(단위 : 종, %)

	연 도	계	총류	철학	종교	사회과학	어학	순수과학	기술과학	예술	문학	역사지리
한 국[1]	1993	18,158	1.9	3.7	11.2	17.1	6.3	2.3	16.4	6.5	29.4	5.1
미 국	1992	49,276	4.9	4.1	5.8	23.0	1.4	6.2	18.5	6.5	20.0	9.8
프 랑 스	1992	45,379	1.7	3.6	3.1	28.8	2.3	4.5	11.2	7.8	25.7	11.4
이탈리아	1992	29,351	3.0	5.7	6.0	21.2	2.1	3.6	12.3	12.3	24.3	9.5
스 위 스	1992	14,663	2.0	3.7	6.1	23.1	1.7	9.7	23.8	10.2	13.3	6.3

자료 : 유네스코, 『통계연감』
대한출판문화협회, 『한국출판연감』

주 : 1) 아동 및 학습참고서를 제외한 구성비임

< 공공도서관 보급률 >

○ 공공도서관수는 '80년의 227개에서 '93년 688개로 3배 늘어났으며, 좌석수는 39,146개에서 182,730개로 4.7배 증가하였고, 장서수도 4,265천권에서 18,216천권으로 4.3배 증가하였음.

- 반면 이용자수는 10,836천명에서 36,795천명으로 3.4배 증가하였음.

· 이에따라 인구만명당 수치를 보면 좌석수는 10.3개에서 41.5개로 4.0배, 장서수는 1,119권에서 4,135권으로 3.7배, 이용자수는 2,842명에서 8,352명으로 2.9배 증가하였음.

(단위 : 개)

	도서관수	좌석수	인구만명당	장서수(천권)	인구만명당(권)	이용자수(천명)	인구만명당(명)
1980	227	39,146	10.3	4,265	1,119	10,836	2,842
1985	388	83,782	20.5	9,040	2,215	15,981	3,916
1990	591	150,615	35.2	13,773	3,219	31,824	7,437
1993	688	182,730	41.5	18,216	4,135	36,795	8,352
(93/80) 배율	3.0	4.7	4.0	4.3	3.7	3.4	2.9

자료 : 도서관협회, 『한국도서관통계』

< 도시공원 현황 >

○ 도시공원의 수는 '85년 2,558개소에서 '93년 5,891개소로 2.3배 증가하였으며 공원 유형별로 보면 특히 어린이공원과 근린공원이 2배이상 늘어났고, 자연공원은 동기간중 거의 비슷한 수준을 보임.

○ 반면 1인당 도시공원 면적은 '85년 21.4㎡에서 '93년 18.6㎡로 2.8㎡ 감소하였음.

- 이는 근린공원 면적이 '85년 5.1㎡에서 '93년 6.3㎡로 약간 증가한 반면, 자연공원의 1인당 면적은 '85년 15.6㎡에서 '93년 11.3㎡로 4.3㎡의 큰 감소를 보였기 때문임.

(단위 : ㎡)

	계		자연공원수	1인당 면적	근린공원수	1인당 면적	어린이공원수	1인당 면적	묘지공원수	1인당 면적
1985	2,558	21.4	173	15.6	547	5.1	1,816	0.1	22	0.6
1990	4,305	22.1	181	15.2	990	6.0	3,105	0.2	29	0.7
1992	5,486	17.9	178	10.8	1,165	6.2	4,117	0.2	26	0.7
1993	5,891	18.6	180	11.3	1,237	6.3	4,446	0.3	28	0.7
93/85	2.3	0.9	1.0	0.7	2.3	1.2	2.4	3.0	1.3	1.2

자료 : 건설부, 『건설통계편람』

9. 공안

< 주요범죄 발생건수 >

○ 절도, 살인, 강도, 강간, 폭행·상해 등 5가지 주요범죄 발생건수에서 재산범인 절도는 감소하였고 살인, 강간, 폭행·상해등 흉악범은 증가하였음.

(단위 : 건)

	주요범죄	절 도	살 인	강 도	강 간	폭 행·상 해
1980	125,732	97,007	536	2,374	3,977	21,838
1985	138,102	103,179	600	3,135	5,453	25,735
1990	130,935	95,031	666	4,195	5,519	25,524
1991	121,322	87,124	630	2,766	5,175	25,627
1992	110,522	77,094	615	2,549	5,465	24,799
1993	99,142	60,492	806	2,876	7,051	27,917
(93/80) 배율	(0.8)	(0.6)	(1.5)	(1.2)	(1.8)	(1.3)

자료 : 대검찰청, 『범죄분석』

< 소년범죄 비율 >

○ 주요범죄의 전체 범죄자중 소년(19세이하의 미성년자)범죄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80년 33.1%에서 '93년 29.9%로 감소하였음.

- 소년 주요범죄 비율은 대체적으로 '80년대 후반부터 줄어드는 추세임.
  · 살인·강도는 '88년, 절도는 '92년을 고비로 감소추세.
- 다만 '93년 강도, 강간의 소년범죄 비율은 '92년에 비해 각각 1.8%P, 3.3%P 증가하였음.

(단위 : %)

	주요범죄 비 율	절 도	살 인	강 도	강 간	폭 행·상 해
1980	33.1	42.5	15.1	53.3	40.1	7.3
1985	35.7	45.2	13.0	49.5	42.3	11.2
1988	31.5	43.7	18.9	53.5	34.9	5.4
1990	31.9	47.4	18.2	51.9	35.9	4.5
1992	31.1	50.1	11.8	46.2	19.8	3.5
1993	29.9	47.9	11.9	48.0	23.1	3.3

주) 소년범죄라 함은 12세이상 19세이하의 미성년자에 의한 범죄를 말함.

산식 : 소년 주요범죄비율 = (소년 주요범죄자수/전체 주요범죄자수)×100

자료 : 대검찰청, 『범죄분석』

< 주요범죄자의 평균연령 >

○ '80년~'93년 기간중 주요범죄자의 평균연령은 전반적으로 높아졌음.

- 특히 동기간중 강간은 4.5세, 폭행·상해는 4.4세, 살인은 3.0세가 증가하였음.
- 다만 '93년 강도, 강간의 평균 연령은 소년범죄율 증가로 인해 0.2세, 0.5세 낮아졌음.

(단위 : 세)

	절 도	살 인	강 도	강 간	폭행·상해
1980	24.1	29.6	21.1	24.5	33.8
1985	24.1	31.2	21.6	24.4	34.8
1990	24.2	30.8	21.8	26.2	36.5
1992	23.9	31.6	22.5	29.5	37.6
1993	24.5	32.6	22.3	29.0	38.2

자료 : 대검찰청, 『범죄분석』

< 주요범죄 재범률 >

○ 주요범죄의 재범률은 '92년까지는 전반적으로 증가추세를 보였으나, '93년에는 감소하였음.

(단위 : %)

	절 도	살 인	강 도	강 간	폭행·상해
1980	21.3	21.9	23.3	20.5	30.5
1985	32.4	41.1	40.2	35.0	42.6
1990	34.0	44.8	41.2	41.6	49.8
1992	35.1	53.9	46.5	53.0	54.1
1993	32.9	50.9	42.3	46.4	45.3

자료 : 대검찰청, 『범죄분석』

< 범죄발생건수와 경찰관수 >

○ 총범죄발생건수는 '80년 595천건에서 '93년에 1,357천건으로 2.3배 증가하였으며 경찰관수는 56천명에서 89천명으로 1.6배 증가하였음.

- 이에따라 경찰관 1인당 담당 범죄건수는 '80년 10.6건에서 '93년 15.1건으로 1.4배 증가하였음.

(단위 : 건, 명)

	총범죄 발생건수	경찰관수	1인당 담당 범죄건수
1980	595,277	56,003	10.6
1985	810,416	59,907	13.5
1990	1,171,380	76,559	15.3
1993	1,356,914	89,686	15.1
(93/80) 배율	(2.3)	(1.6)	(1.4)

자료 : 경찰청, 법무부

< 자동차 사고 >

○ 급속한 자동차의 증가에 따라 자동차 사고의 발생건수는 '93년에 260,921건, 사망자수는 10,402명으로 '80년에 비해 각각 3.1배, 1.9배의 증가를 보였으며 인구 10만명당 사망자수는 14.7명에서 23.1명으로 증가하였음.

- 그러나 '91년 인구 10만명당 사망자수는 31.1을 기록한 후 감소추세를 보여 '93년에 23.1을 기록함.

○ 한편 자동차 만대당 사망자수는 '80년 106명에서 '93년 17명으로 감소.

(단위 : 건, 명)

	발생건수	사망자수			부상자수
			인구 10만명당 사망자수	자동차만대당 사망자수	
1980	83,711	5,608	14.7	106	111,641
1985	146,836	7,522	18.4	67	184,420
1990	255,303	12,325	28.8	36	324,229
1991	265,964	13,429	31.3	32	331,610
1992	257,194	11,640	26.7	22	325,943
1993	260,921	10,402	23.1	17	337,679
(93/80) 배율	(3.1)	(1.9)	(1.6)	(0.2)	(3.0)

자료 : 경찰청, 『교통사고통계』

< 고속도로에서의 자동차 사고 >

○ 고속도로에서의 자동차사고 발생건수가 전체 자동차사고 발생건수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85년 1.4%에서 '93년 2.8%로 늘어남.

○ 고속도로에서의 자동차사고는 치사율이 높기 때문에 사고발생건수비율은 낮은 편이나 전체 사망자 및 부상자 중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매우 높음.

- 전체 사망자중 비율은 '85년 4.9%에서 '93년 9.4%로 증가하였고, 전체 부상자중 비율은 동기간중 2.4%에서 4.4%로 증가

(단위 : 건, 명, %)

	발생건수	전체발생에 대한 비율	사망자	전체사망자에 대한 비율	부상자	전체부상자에 대한 비율
1985	2,022	1.4	369	4.9	4,444	2.4
1990	5,882	2.3	931	7.6	12,753	3.9
1993	7,401	2.8	979	9.4	14,944	4.4

자료 : 경찰청, 『교통사고통계』

< 인구 10만명당 자동차사고 사망자수 >

○ 우리나라의 사망원인통계에 의하면 10만명당 자동차사고 사망자수는 '90년 37.6명, '91년 36.3명, '92년 32.7명, '93년 31.3명으로 감소추세에 있음.

- 그러나 외국과 비교하면 '93년 WHO 통계연감에 수록된 51개 국가중 2위로 나타났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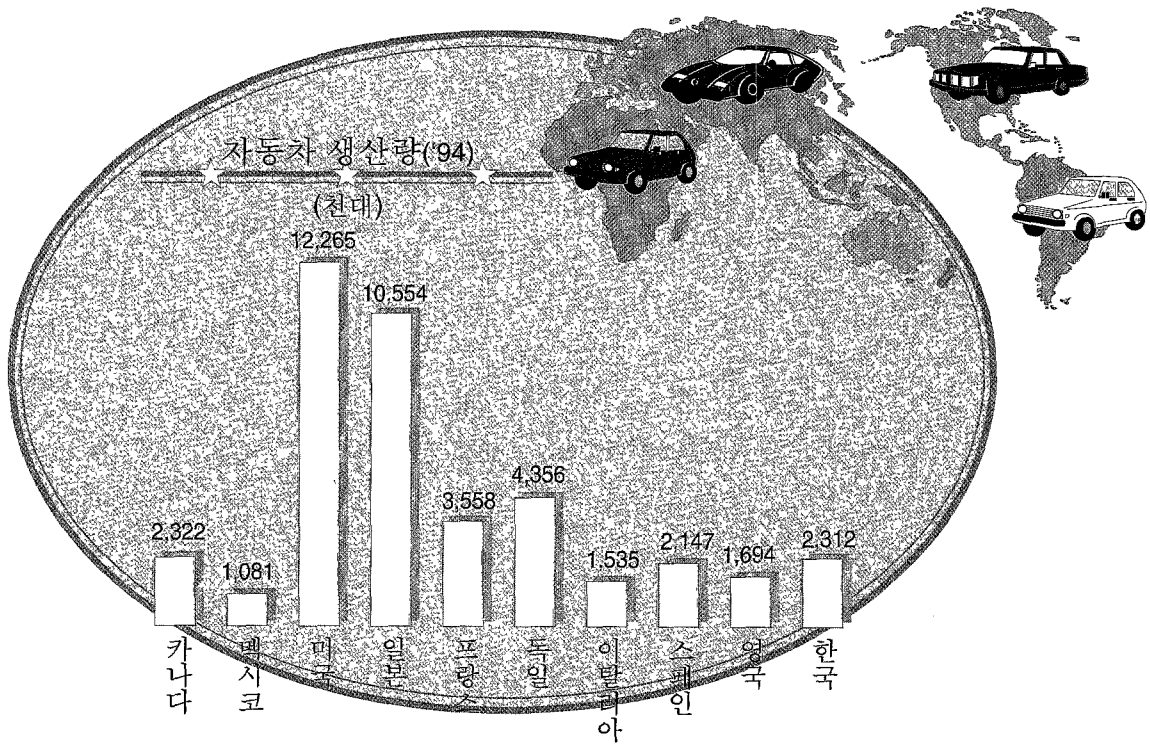
(단위 : 명)

순위	1990		1991		1992		1993	
1	한 국	37.6	한 국	36.3	한 국	32.7	라트비아	39.1
2	포르투칼	27.1	포르투칼	28.2	포르투칼	29.4	한 국	31.3
3	뉴질랜드	24.6	헝 가 리	25.2	뉴질랜드	22.9	리투아니아	30.9
4	베네주엘라	23.9	소 련	22.9	소 련	22.9	포르투칼	28.1
5	헝 가 리	21.6	오스트리아	18.2	폴 란 드	22.6	러 시 아	26.0
6	폴 란 드	19.6	프 랑 스	18.2	헝 가 리	22.4	키르키즈	23.1
7	미 국	19.5	스 페 인	17.3	그 리 스	22.3	헝 가 리	22.7
8	오스트리아	19.2	불가리아	15.7	룩셈부르크	21.2	그 리 스	22.0
9	호 주	18.6	유 고	15.6	스 페 인	21.1	카자흐스탄	21.8
10	소 련	18.0	핀 란 드	14.5	루마니아	16.4	폴 란 드	19.2
수록국가수	36개국		32개국		44개국		51개국	

자료: WHO, 『통계연감』
주) 사망원인통계에 의한 자동차사고 사망자는 선행사인(자동차사고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을 의미)을 기준으로 작성되기 때문에 자동차사고로 직접 사망(72시간 이내 사망)한 것을 집계한 경찰청 자료와는 다름.

여 백

통계로 본 OECD국가와 한국



『우리나라 자동차 생산량은
231만대로 여섯번째이나,
OECD 국가 전체 생산량의
5.6%에 해당하여
그 비중은 미약하다.』

- 본문중에서 -

통계로 본

「OECD 국가와 한국」

1995. 5

자료관리국 국제통계과

Ⅰ. 국토면적 및 인구

인구밀도는 OECD국가와 비교하여 가장 높아

○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국가에서 국토면적이 가장 넓은 국가는 카나다(997만㎢)이며, 이어 미국(936만㎢), 오스트레일리아(771만㎢)순임

- 우리나라의 국토면적은 9만 9천㎢로 OECD국가와 비교하여 18번째이지만 카나다의 1/100, 미국의 1/94에 불과

○ UN의 『세계인구전망』에 따르면 95년 미국의 인구는 2억 6천만명으로 인구규모에서 단연 1위를 기록

- 우리나라의 인구규모는 4,485만명으로 이탈리아(5,791만명), 프랑스(5,777만명)에 이어 9번째임

○ 인구밀도는 우리나라가 92년에 1㎢당 440명(95년 452)으로 가장 높으며, 가장 낮은 인구밀도를 보인 국가는 오스트레일리아로 2명을 시현

〈표〉 국토면적, 인구규모 및 인구밀도

순위	국토면적(92년, ㎢)		연앙추계인구(95년, 천명)		인구밀도(92년, 명/1㎢당)	
1	카 나 다	9,970,610	미 국	263,138	한 국[2]	440
2	미 국	9,363,520	일 본	125,879	네덜란드	372
3	오스트레일리아	7,713,364	멕 시 코	93,670	일 본	329
4	멕 시 코	1,958,201	독 일	81,264	벨 기 에	328
5	터 키	774,815	터 키	62,032	영 국	237
6	프 랑 스	551,500	영 국	58,093	독 일	226
7	스 페 인	504,782	이탈리아	57,910	이탈리아	188
8	스 웨 덴	449,964	프 랑 스	57,769	스 위 스	167
9	일 본	377,801	한 국	44,851	룩셈부르크	151
12	노르웨이	323,895	오스트레일리아	18,338	프 랑 스	104
15	영 국	244,100	벨 기 에	10,031	스 페 인	77
18	한 국[1]	99,314	오스트리아	7,861	미 국	27
21	아일랜드	70,284	핀 란 드	5,046	뉴질랜드	13
24	네덜란드	40,844	아일랜드	3,469	아이슬란드	3
26	룩셈부르크	2,586	아이슬란드	268	오스트레일리아	2

주 : 1) 1993년 99,392㎢ 2) 1995년 452명

자료 : 내무부 『지적통계』 1992,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1991
UN 『인구통계연감』 1992, UN 『세계인구전망』 199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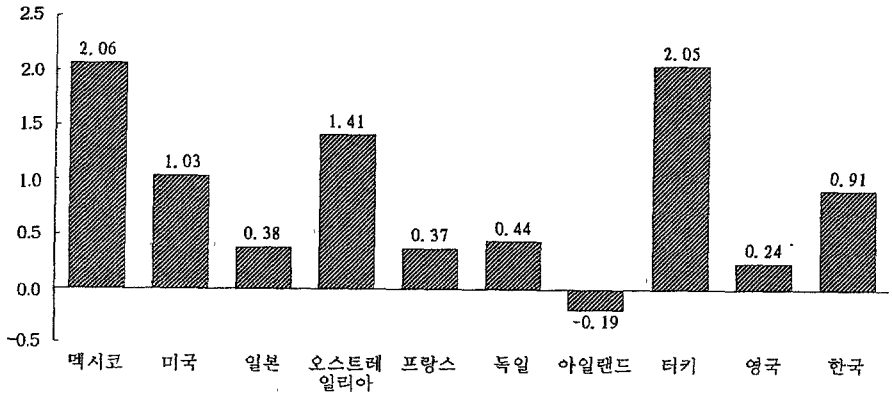
우리나라 인구증가율 유럽국가에 비해 높은 편

○ 우리나라 인구증가율은 61년 3.0%에 달하였으나, 71년 2.0%, 81년 1.6%수준을 거쳐 최근에는 0.9%수준으로 계속 낮아지는 추세

○ 91~95년 평균 인구증가율을 비교하면 우리나라는 0.91%로 멕시코(2.06%), 터키(2.05%) 보다는 낮으나, 0.2~0.4% 수준인 유럽국가보다는 높아 8번째 수준에 있음

- 인구증가율이 1%를 넘는 국가는 멕시코(2.06%), 오스트레일리아(1.41%), 미국(1.03%) 등 6개국이며,
- 아일랜드는 유일하게 감소(-0.19%) 하였음

인구증가율 ('91~'95년 평균, %)



〈표〉 91~95년 평균 인구증가율

(단위 : %)

멕 시 코	미 국	일 본	오스트레일리아	프 랑 스
2.06	1.03	0.38	1.41	0.37
독 일	아일랜드	터 키	영 국	한 국
0.44	-0.19	2.05	0.24	0.91

자료 :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1991, UN 『세계인구전망』 1992

조출생률 OECD 국가와 비교하여 가장 높아

○ 인구 천명당 출생자수를 의미하는 조출생률을 보면 우리나라는 15.2명으로 미국의 8.9명, 일본의 7.5명, 독일의 11.4명보다 훨씬 높아 아직 선진국과는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음

〈표〉 조출생률 (91~95년 평균)

(단위 : 인구천명당)

미 국	일 본	독 일	프랑스	네덜란드
8.9	7.5	11.4	9.8	8.7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영 국	한 국[1]
9.2	11.5	9.9	11.5	15.2

주: 1) 1995년

자료: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1991 , UN 『UN 세계인구전망』 1992

영아 사망률 선진국 수준에 접근

○ 우리나라의 영아사망률(출생아 천명중 1세 미만에 사망한 영아수)은 약 10명(91년기준 남자 9.89, 여자 9.39)으로 미국의 8명, 일본의 5명, 영국의 7명, 독일의 7명 보다는 높으나 선진국 수준에 크게 접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우리나라의 영아사망률은 70년에 53명에서 최근 10명 수준으로 크게 떨어졌음

〈표〉 영아사망률 (91~95년 평균)

(단위 : 출생천명당)

미 국	일 본	독 일	프랑스	포르투갈
8	5	7	7	12
스페인	스웨덴	터 키	영 국	한 국[1]
6	6	56	7	약10명

주 : 1) 91년 기준 남자 9.89, 여자 9.39명

2) 한국은 70년 53.0명, 81년 17.3명, 90년 12.8명

자료 : 통계청 『생명표』 1993, 『 통계로 본 한국의 발자취』 1992, UN 『세계인구전망』 1992

조사망률은 선진국에 비해 낮은 수준

○ 우리나라의 조사망률(1995)은 인구 천명당 5.9명으로 멕시코의 5.5명보다는 높으나, 기타 OECD 국가보다는 낮은 수준

- 조사망률이 가장 높은 국가는 덴마크로 11.6명이며, 다른 선진국은 우리나라보다 다소 높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선진국에 노령인구가 많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됨

〈표〉 조사망률 (91~95년 평균) (단위 : 인구천명당)

멕시코	미 국	일 본	독 일	프랑스
5.5	8.9	7.5	11.4	9.8
노르웨이	**덴마크**	**스위스**	**영 국**	**한 국[1]**
10.8	11.6	9.9	11.5	5.9

주 : 1) 1995년

자료 :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1991, UN 『세계인구전망』 1992

도시인구비 선진국 수준에 육박

○ 도시화의 정도를 나타내는 도시인구비를 보면 우리나라는 1995년 78.2%(광역시 및 통합시 이전 자료를 토대로 작성)로 미국 76.2% , 일본 77.9% , 독일 86.4% 등 OECD 주요 선진국과 비슷한 수준 시현

- 도시인구비가 가장 높은 국가는 소국가인 벨기에로 96.7%였으며, 가장 낮은 국가는 포르투갈로 36.4%였음

〈표〉 도시인구비 (1995년) (단위 : %)

멕시코	미 국	일 본	오스트레일리아	영 국
75.3	76.2	77.9	85.2	89.5
독 일	**포르투갈**	**벨기에**	**스웨덴**	**한 국[1]**
86.4	36.4	96.7	84.7	78.2

주 : 1) 광역시 및 통합시 이전의 자료를 토대로 작성

자료 : UN 『세계도시전망』 199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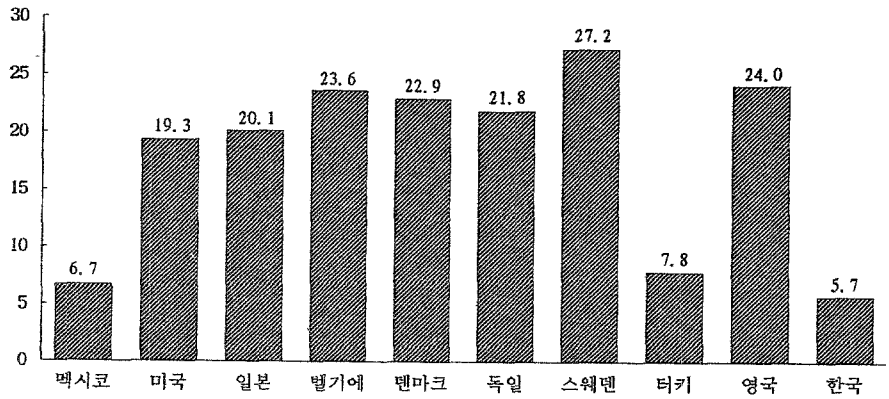
65세 이상 인구비중 - 선진국수준에 크게 못미쳐

○ 우리나라는 사망률의 저하 및 평균수명의 증가로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계속 증가하는 추세(70년 3.4% → 95년 5.7%)에 있으나,

- OECD국가와 비교해 보면 가장 낮은 수준
- OECD국가의 대부분은 65세 이상 노인인구비가 20%를 상회하고 있으며, 스웨덴은 27.2%로 가장 노령화된 국가인 것으로 나타났음

○ 우리나라도 소득수준 향상에 따른 국민보건의식 향상, 의료기술의 발달, 의료보험제도의 도입에 따른 의료혜택 증가 등으로 향후 노인인구가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

65세이상인구비율 (1995, %)



〈표〉 65세 이상 노령인구 비중 (1995년)

(단위 : %)

멕시코	미국	일본	프랑스	독일
6.7	19.3	20.1	22.8	21.8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	터키	한국
22.9	24.7	27.2	7.8	5.7

자료 :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1991, UN 『세계인구전망』 1992

평균수명은 일본인이 가장 길고, 남녀간 수명차는 우리나라가 제일 커

○ 91~95년을 평균하여 각 국민의 평균수명을 비교한 UN통계자료를 보면, 일본이 남자 75.9세, 여자 81.6세, 평균 78.7세로 가장 장수하는 국민이며, 다음으로 스웨덴이 남자 75.2세, 여자 80.8세, 평균 77.9세로 두번째를 시현

- 우리나라의 평균수명은 50년대 말 52.4세에서 91년 71.6세로 19.2세나 증가하였으나
- OECD국가와 비교하면, 아직 낮은 수준으로 멕시코(70.3세), 터키(67.3세)와 함께 최하위권

○ 우리나라의 남녀간 평균수명 차이는 8년으로 OECD국가중에서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음

- 남녀수명차가 7년 이상인 국가로는 핀란드(7.9년), 프랑스(7.8년), 룩셈부르크(7.3년) 등이며,
- 아이슬란드(5.0년), 영국(5.0년), 터키(5.2년)는 가장 차이가 적은 국가임

〈표〉 평균수명(91~95년 평균)

(단위 : 세)

	멕시코	미 국	일 본	프랑스	독 일	스웨덴	터 키	영 국	한 국[1]
평 균	70.3	75.9	78.7	76.9	76.0	77.9	67.3	76.2	71.6
남 자	67.1	72.6	75.9	73.0	72.7	75.2	64.8	73.7	67.7
여 자	73.6	79.3	81.6	80.8	79.0	80.8	70.0	78.7	75.7
차이(여-남)	6.5	6.7	5.7	7.8	6.3	5.6	5.2	5.0	8.0

주 : 1) 1991년

자료 : 통계청 『생명표』 1993, UN 『세계인구전망』 1992

우리나라의 성비 - OECD 국가보다 훨씬 높아

○ 여자인구 100명당 남자인구를 나타내는 성비는 우리나라가 95년 현재 101.4명으로 OECD 국가들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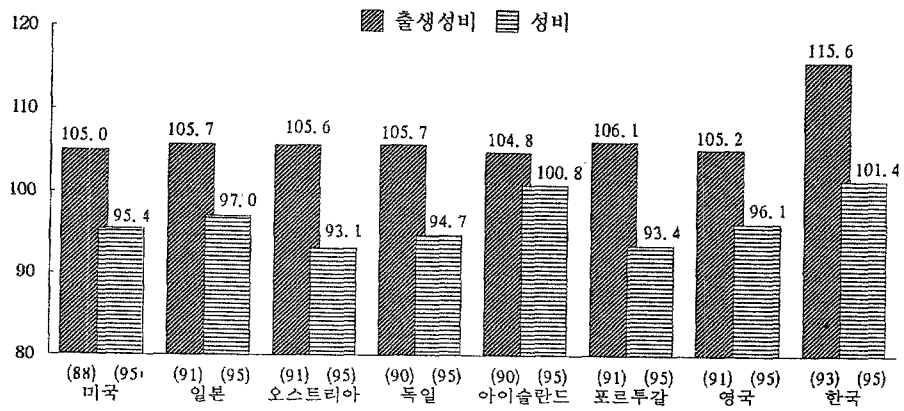
○ OECD 국가의 성비를 주요국별로 살펴보면

- 오스트레일리아는 남녀성비가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남자가 여자보다 많은 나라는 터키 (104.1명), 한국(101.4명), 아이슬란드 (100.8명)이고,
- 아일랜드 등 나머지 국가는 99.7~93.1으로 여자가 남자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음
- 남녀 성비가 가장 불균형적인 나라는 오스트리아로 93.1이며, 일본 97.0, 미국은 95.4임

○ 출생아를 기준으로 한 출생성비는 우리나라의 경우 82년에 106.9(자연적 출생성비 105.0임)에서 93년에 115.6으로 높아져 최근 남아선호 사상이 더욱 강해진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 최근들어 출생성비가 증가하고 있어 우리나라 전체의 성비는 계속 높아질 것으로 전망됨
- OECD 국가와 비교해 보면 대부분의 나라가 자연적 출생성비인 105.0내외 수준을 보이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115.6으로 출생성비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남녀 성비 및 출생성비 (여자 100명당 남자수)



〈표〉 남녀 성비 및 출생성비

(단위 : 여자 100명당 남자수)

	성 비 (95)	출 생	
		년 도	성 비
카 나 다	96.9	89	105.0
멕 시 코	99.4	90	101.6
미 국	95.4	88	105.0
일 본	97.0	91	105.7
오스트레일리아	100.0	91	105.3
뉴 질 랜 드	97.9	90	104.3
오 스 트 리 아	93.1	91	105.6
벨 기 에	96.1	87	106.0
덴 마 크	97.6	91	105.3
핀 란 드	94.8	90	104.8
프 랑 스	95.2	90	105.4
독 일	94.7	90	105.7
그 리 스	97.0	90	105.3
아 이 슬 란 드	100.8	90	104.8
아 일 랜 드	99.7	91	106.3
이 탈 리 아	94.6	88	106.4
룩 셈 부 르 크	96.7	89	103.7
네 덜 란 드	98.1	91	104.6
노 르 웨 이	98.0	91	106.1
포 르 투 갈	93.4	91	106.1
스 페 인	96.9	83	107.6
스 웨 덴	98.1	91	106.2
스 위 스	96.4	90	104.6
터 키	104.1		
영 국	96.1	91	105.2
한 국[1]	101.4	93	115.6

주 : 1) 출생성비 추이 : 82년 106.8, 85년 109.5, 89년 112.0, 91년 112.7, 93년 115.6

자료 : 통계청『인구동태통계연보』1994, UN『인구연감』1992, UN『세계인구전망』1992

Ⅱ. 노동 · 임금

남자의 경제활동 참가 선진국 수준, 여자의 경제활동 참가 아직 선진국 수준에 못미쳐

○ 우리나라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70년 57.6%에서 93년 61.1%로 3.5% 증가

- 남자의 경우 70년 77.9%에서 93년 76.0%로 1.9%포인트 감소한 반면, 여자는 39.3%에서 47.2%로 7.9%포인트 증가하여 여성의 사회참여가 23년간 크게 확대되었음을 보여줌

○ 남 · 여 전체 경제활동 참가율을 OECD 국가와 비교하여 보면, 우리나라는 93년 61.1%로 카나다(65.2%), 일본(63.8%), 미국(63.3%) 등 보다는 낮으나 프랑스(55.0%), 스페인(49.0%) 등 일부 국가보다는 높은 것으로 나타남

- 남자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76.0%로 멕시코(85.0%), 일본(78.0%)과 함께 높은 수준
- 여자의 경우는 47.2%로 카나다(57.5%), 미국(55.7%), 일본(50.3%) 등 OECD 선진국보다는 낮지만, 우리나라의 취업구조가 점차 선진화됨에 따라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됨

< 표 > 경제활동 참가율 (1993)

(단위 : %)

	카나다	멕시코	미 국	일 본	독 일[2]
계	65.2	59.4	63.3	63.8	64.8
남	73.3	85.0	71.5	78.0	71.4
여	57.5	35.8	55.7	50.3	58.9
	스페인[3]	스위스	터 키	프랑스	한 국[1]
계	49.0	50.8	54.1	55.0	61.1
남	64.3	64.0	75.9	63.1	76.0
여	34.8	38.2	32.7	47.5	47.2

주 : 1) 94년 기준 계 61.7%, 남 76.4%, 여47.9%, 2) 1992년, 3) 16세 이상 기준
자료 : 통계청 『한국의 사회지표』 1994, ILO 『노동통계연감』 1994

취업구조 - S.O.C. 및 기타부문의 비중이 아직 낮아

○ 우리나라는 경제개발에 따른 공업화의 급진전으로 농림어업 취업자 비중이 80년의 34.0%에서 93년 14.7%로 계속 낮아지는 추세

- 제조업은 같은 기간중 21.6%에서 24.2%로, 사회간접자본 및 기타종사자는 43.5%에서 60.9%로 각각 증가

○ OECD국가와 비교하여 보면, 우리나라의 제조업 취업자 구성비는 24.2%로, 미국(16.4%), 일본(23.7%), 독일(22.8%) 등 주요 OECD 국가보다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 농업부문은 14.7%로 미국, 일본, 독일 등 OECD주요국의 2~6% 수준보다 높으며
- 사회간접자본(S.O.C.) 및 기타부문의 취업자도 60.9%로 미국, 일본, 독일, 프랑스, 영국 등 OECD국가에 비해 10%정도의 차이를 시현

○ 우리나라의 취업구조가 선진화됨에 따라 사회간접자본 및 기타 부문으로의 취업이 더욱 늘어날 전망

〈표〉 산업별 취업자 구성(1993년)

(단위 :%)

국 가	농림어업	광공업	제조업	사회간접자본 및 기타
미 국	2.7	16.9	16.4	80.4
카 나 다	3.5	16.9	14.8	79.6
스 웨 덴	3.4	18.6	18.3	78.0
영 국	2.1	21.6	21.0	76.3
프 랑 스	5.0	19.7	19.4	75.3
독 일[1]	4.9	24.6	22.8	70.5
일 본	5.9	23.8	23.7	70.2
스 페 인	9.6	20.3	19.9	70.0
그 리 스[2]	21.4	20.0	19.4	58.6
멕 시 코	26.3	15.6	15.1	57.4
터 키	43.6	15.8	15.0	40.6
한 국[3]	14.7	24.4	24.2	60.9

주 : 1) 1992년, 서독지역대상 2) 1991년

3) 1994년 농림어업 13.6%, 광공업 47.6%, 제조업 23.7%, S.O.C. 및 기타 62.5%

자료 : 통계청『지난 30년간 고용사정의 변화』 1994, ILO『노동통계연감』 1994

전문,기술,행정,관리직 종사자 비율 아직 선진국 수준에 못미쳐

○ 우리나라의 전문·기술·행정·관리직 종사자는 73년 3.1%에서 93년 10.3%로 크게 증가하고, 농림·수산업 종사자는 49.9%에서 14.6%로 크게 감소

○ OECD국가와 비교해보면 고급직종인 전문·기술·행정·관리직 종사자의 경우 영국 34.6%, 미국 30.4%, 독일 20.3% 등 OECD주요국이 20%를 상회한 반면 우리나라는 10.3%로 상당히 낮은 수준

- 우리나라의 경우 판매직과 농림수산업 종사자가 상대적로 높은 것으로 나타남

< 표 > 직업별 취업구조

(단위 : %)

	연도	계	전문 기술 행정 관리	사무직	판매직	농림수산업	생 산 관 리 직	서비스직 및 기 타
영 국[1]	93	100.0	34.6	15.4	7.9	8.8	22.6	10.7
스 웨 덴[2]	92	100.0	33.3	16.5	9.7	3.4	27.0	10.2
카 나 다	93	100.0	32.5	15.7	9.8	4.5	23.8	13.8
노르웨이[3]	93	100.0	32.4	10.3	10.6	5.5	25.3	15.8
핀 란 드[4]	93	100.0	31.3	14.6	9.5	8.4	23.6	12.6
미 국[1]	93	100.0	30.4	15.6	11.9	2.8	25.5	13.8
네덜란드	93	100.0	29.9	17.9	9.9	4.2	23.7	14.3
덴 마 크	91	100.0	28.8	18.1	7.1	4.6	29.8	11.6
벨 기 에[2]	92	100.0	26.3	19.2	9.1	3.1	31.9	10.3
뉴질랜드	93	100.0	25.5	11.2	13.9	10.4	25.7	13.2
오스트레일리아	93	100.0	24.9	6.0	14.8	15.6	21.7	17.0
포르투갈[6]	92	100.0	24.0	13.7	7.1	8.5	32.5	14.3
오스트리아	93	100.0	21.4	16.7	9.1	6.8	33.6	12.4
아일랜드	91	100.0	20.7	15.1	10.3	14.0	27.4	12.5
독 일[7]	91	100.0	20.3	20.9	9.1	3.6	31.9	14.2
일 본	93	100.0	15.7	19.0	14.7	5.9	35.2	9.5
그 리 스[8]	92	100.0	14.9	11.3	12.2	22.0	28.9	10.6
스 페 인[1]	93	100.0	14.4	13.7	11.6	9.9	35.1	15.3
멕 시 코	93	100.0	10.9	8.1	15.2	27.1	23.5	15.3
터 키[6]	93	100.0	8.3	5.1	9.1	43.4	25.3	8.8
한 국	93	100.0	10.3	15.0	15.9	14.6	31.9	12.3

주 : 1) 16세 이상 2) 16~64세 3) 16~74세 4) 15~74세
5) 15 ~ 64세 6) 12세 이상 7) 서독 자료 8) 14세 이상
※ 기타국가는 15세이상 인구 기준

자료 : 통계청『지난 30년간 고용사정의 변화』 1994, ILO『노동통계연감』 199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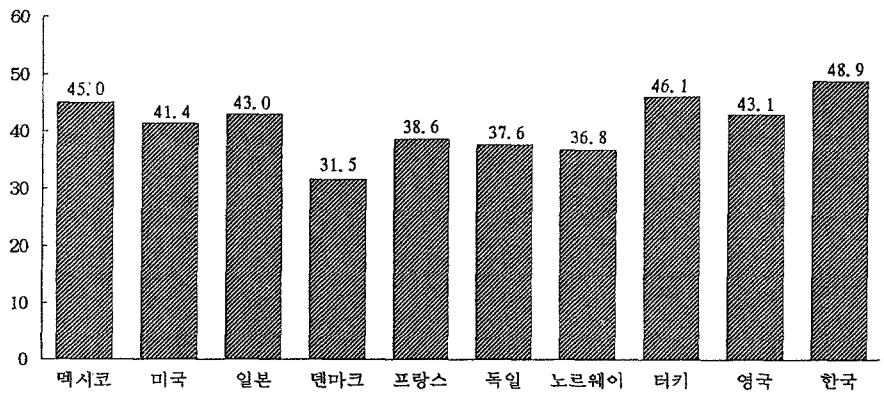
우리나라 근로자의 근로시간 가장 높아

○ 우리나라 제조업근로자의 주당 평균근로시간은 소득수준의 향상과 노사분규의 영향 등으로 83년 54.4시간에서 93년 48.9시간으로 감소

○ 근로시간이 줄어들고 있으나 제조업의 주당 평균근로시간을 OECD 국가와 비교하여 보면 우리나라의 근로시간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음

- 한국, 터키, 멕시코가 주당 평균 45시간을 넘어 근로시간이 긴 편이며,
- 덴마크는 주당 평균 31.5시간으로 가장 짧은 것으로 나타났음

제조업의 주당평균 근로시간 (1993)



〈표〉 제조업의 주당 평균근로시간(1993년)

일 본	멕 시 코	미 국	독 일	프 랑 스
43.3	45.0	41.4	37.6	38.6
덴 마 크	노르웨이	터 키	영 국	한 국
31.5	36.8	46.1	43.1	48.9

자료 : 노동부 『노동통계연감』 1994, ILO 『노동통계연감』 1994

우리나라의 임금격차 일본에 이어 두번째

○ 여자임금의 남자임금에 대한 비율을 이용하여 남녀간 임금격차를 살펴보면, 우리나라의 경우 75년에 여자임금이 남자임금의 42% 수준이었고 93년에도 52% 수준이어서 아직 상당한 격차를 나타내고 있음

○ 국제노동기구(ILO) 발표자료를 이용하여 OECD국가의 임금격차를 보면, 대부분의 국가가 70~80% 수준으로 우리나라와는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음

- 일본은 여자임금이 남자임금의 43.6%밖에 안되는 것으로 나타나 OECD 국가에서 임금격차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우리나라는 일본에 이어 두번째임

○ 최근 남녀간 동등한 조건에 의한 직장 취업 및 근로조건 개선 등으로 남녀간 임금격차는 급속히 감소할 것으로 보임

< 표 > 임금격차 비교

	단 위	연도	임 금			
				남	여	임금격차 (여/남, %)
일 본	월평균 엔	92	372594.0	454482.0	198058.0	43.6
한 국	월평균 천원	93	885.0	1056.0	551.0	52.2
룩셈부르크	시간당 프랑	91	408.0	429.0	261.0	60.8
스 위 스	〃 〃	92		26.2	17.8	67.9
영 국	〃 파운드	93	6.2	6.6	4.5	68.2
아 일 랜 드	〃 〃	92	5.9	6.6	4.7	71.2
벨 기 에	〃 프랑	92	379.6	403.8	300.2	74.3
네 덜 란 드	〃 길더	92	22.7	23.9	18.3	76.6
뉴 질 랜 드	〃 달라	93	14.2	15.1	11.6	76.8
핀 란 드	〃 마르카	92	52.3	55.4	43.4	78.3
프 랑 스	〃 프랑	93	50.6	53.7	42.5	79.1
그 리 스	〃 드라크마	93	970.8	1063.6	851.4	80.0
포 르 투 칼	〃 에스꾸드	93	436.0	486.0	390.0	80.2
독 일	〃 마르크	93	13.9	14.4	11.9	82.6
오스트레일리아	〃 달러	93	14.0	14.6	12.4	84.9
덴 마 크	〃 크로네	92	108.3	112.2	95.4	85.0
노 르 웨 이	〃 〃	93	103.2	105.4	91.8	87.1
터 키	일당 리라	93	135.2	138.7	122.7	88.5
스 웨 덴	시간당 크로나	92	98.3	100.7	90.1	89.5

자료 : 노동부 『임금구조기본통계 조사보고서』 1994, ILO 『노동통계연감』 1994

Ⅲ. 산업

한국, 일본 - 선박산업을 주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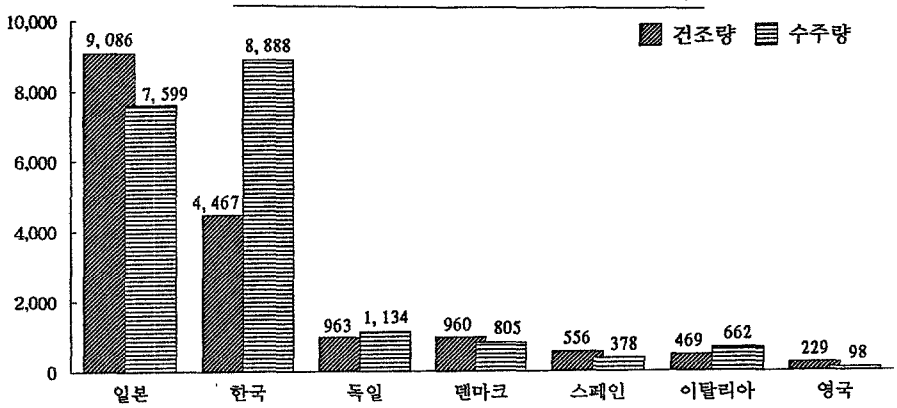
○ 「세계신조선통계」에 따르면 93년 일본의 선박건조량은 909만 G/T로 OECD국가 총건조량의 70.4%를 차지하여 선박산업을 주도

- 우리나라 선박건조량은 같은 기간 447만G/T로 일본의 절반 수준

○ 향후 선박건조량의 예측지표인 선박수주량은 우리나라가 93년도 건조량의 2배에 달하는 규모로 선두

- 우리나라의 선박수주량은 일본보다 129만G/T가 많은 889만G/T로 OECD국가 전체수주량(한국제외)의 74.0%에 해당

선박 건조 및 수주량 (1993, 1,000G/T)



〈표〉 선박건조 및 수주량(1993년)

(단위 : 천G/T, %)

순위	선박건조량		구성비	선박수주량	구성비
1	일본	9,086	70.4	7,599	63.3
2	한국	4,467	(34.6)	8,888	(74.0)
3	독일	963	7.5	1,134	9.4
4	덴마크	960	7.4	805	6.7
5	스페인	556	4.3	378	3.1
6	이탈리아	469	3.6	662	5.5
7	영국	229	1.8	98	0.8
OECD총계(한국제외)		12,915	100.0	12,013	100.0

자료 : 한국조선협회『조선자료집』 1993
Llody's Register 『World Shipbuilding Statistics』 1994. 4/4

주요국의 조강생산 감소추세, 우리나라는 계속 늘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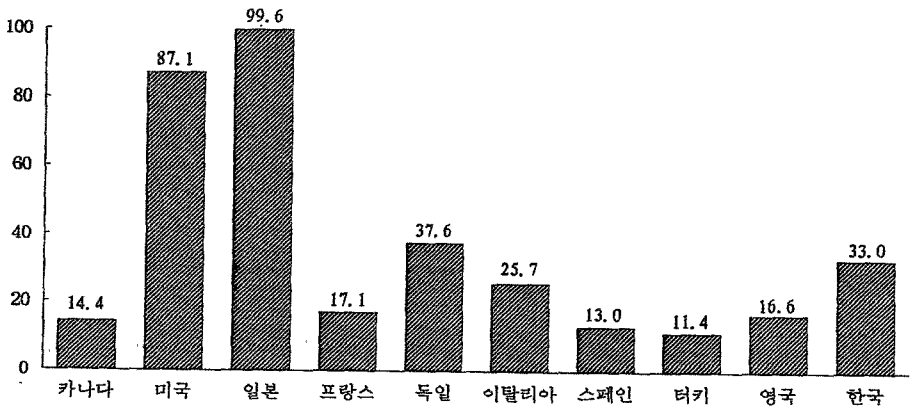
○ 「철강통계연감(국제철강협회)」에 따르면 OECD국가의 전체 조강생산은 93년도에 총 3억 7,634만M/T로 90년에 비해 2.9% 감소

- 일본과 미국이 각각 9,962만M/T, 8,714만M/T로 수위를 지키고 있으며 OECD국가 전체 생산량의 절반을 차지
- 일본, 미국, 독일 등 주요 조강생산국은 90년 대비 93년 생산량이 2%이상 감소

○ 우리나라의 조강생산량은 일본의 33%수준인 3,303만M/T로 네번째이며 지속적인 증가 추세

- OECD 전체생산량의 8.8%수준으로 지난 90년에 비해 42.8%의 높은 증가율 시현

조강생산량 (1993, 100만MT)



<표> 조강생산량

(단위 : 천M/T, %)

	87	90	93	3년간 증감률	
				90/87	93/90
일 본	98,513	110,339	99,623	12.0	- 9.7
미 국	80,877	89,723	87,142	10.9	- 2.9
독 일	36,248	38,434	37,625	6.0	- 2.1
이탈리아	22,859	25,467	25,689	11.4	0.9
프 랑 스	17,693	19,015	17,106	7.5	-10.0
영 국	17,414	17,841	16,625	2.5	- 3.8
카 나 다	14,737	12,281	14,387	-16.7	17.1
한 국[1]	16,782	23,125	33,026	37.8	42.8
OECD국가계[2]	355,141	387,645	376,338	9.2	- 2.9

주 : 1) 1994년은 33,745천M/T　　2) 한국제외

자료 : 한국철강협회『철강통계』1995. 3, IISI『Steel Statistical Yearbook』각 년도

자동차생산은 중위권, 인구 천명당 보유대수는 하위권

○ 「세계자동차산업 관련통계」에 따르면 OECD국가중 미국의 자동차 산업은 94년도에 총 1,227만대를 생산하여 선두를 지키고 있으며, 일본이 1,055만대로 바짝 추격

- 미국과 일본의 생산량 합계는 2,282만대로 OECD국가 생산량의 절반이 넘는 55.7%를 차지
- 우리나라 자동차생산량은 231만대로 여섯번째이나, OECD국가 전체생산량의 5.6%에 해당하여 그 비중은 미약

○ 우리나라의 자동차보유대수는 92년말 현재 523만대로 미국(1억 9,036만대), 일본(6,166만대), 독일(4,201만대)등에 이어 12위

- 우리나라의 인구천명당 자동차보유대수는 92년말 현재 120대로 선두인 미국의 1/6, 중하위권인 일본의 1/4수준으로 최하위권인 24위

〈표〉 자동차생산 및 보유

자동차생산량			자동차보유대수			인구천명당자동차보유대수		
순위	(94년, 천대)		순위	(92년, 천대)		순위	(92년, 대)	
1	미 국	12,265	1	미 국	190,362	1	미 국	748
2	일 본	10,554	2	일 본	61,658	2	독 일	674
3	독 일	4,356	3	독 일	42,009	4	오스트레일리아	566
4	프 랑 스	3,558	4	이탈리아	32,260	6	이탈리아	557
5	카 나 다	2,322	6	영 국	26,839	8	프 랑 스	506
6	한 국	2,312	8	스 페 인	15,876	11	일 본	495
7	스 페 인	2,147	10	오스트레		15	노르웨이	453
8	영 국	1,694		일리아	9,955	20	아일랜드	310
			12	한 국	5,231[1]	23	한 국[2]	120
총계	(한국제외)	40,935	-	-	-	-	-	

주 : 1) 1995년 2월 현재 7,576천대 2) 1994년은 167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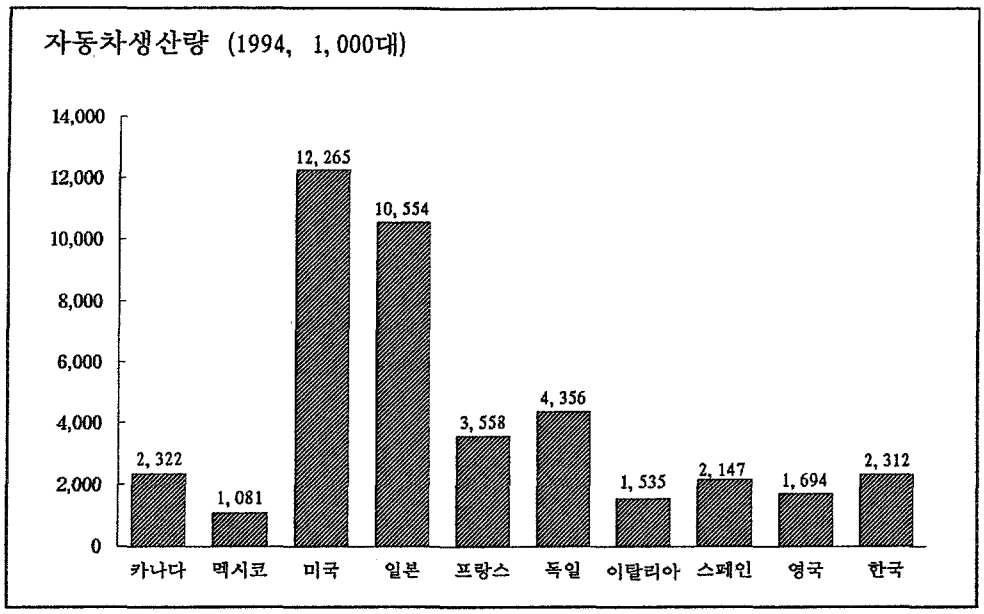
자료 : 한국자동차공업협동조합『세계자동차산업관련통계』 199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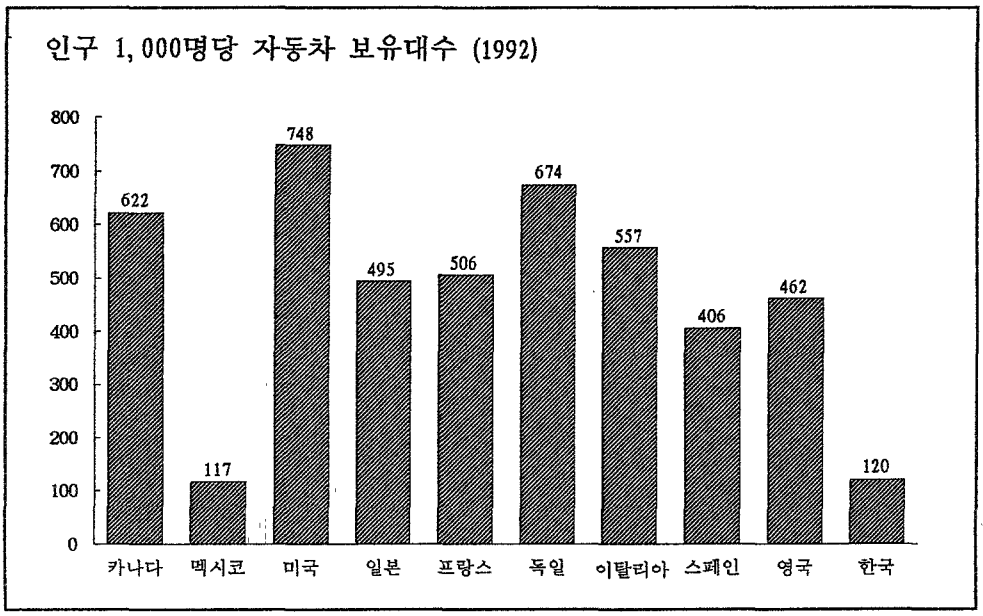
〈표〉 연도별 주요국의 자동차 생산량

(단위 :천대)

미 국			일 본			한 국		
85년	90년	94년	85년	90년	94년	85년	90년	94년
11,653	9,783	12,265	12,271	13,487	10,554	378	1,321	2,312

자료 : 한국자동차공업협동조합『세계자동차산업관련통계』 199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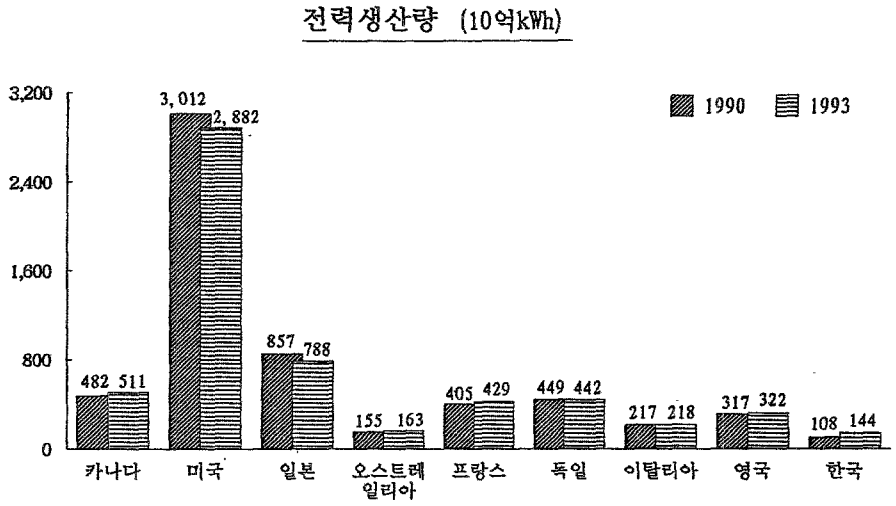

자동차생산량 (1994, 1,000대)
14,000
12,000
10,000
8,000
6,000
4,000
2,000
0
2,322
1,081
12,265
10,554
3,558
4,356
1,535
2,147
1,694
2,312
카나다
멕시코
미국
일본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
영국
한국


인구 1,000명당 자동차 보유대수 (1992)
800
700
600
500
400
300
200
100
0
622
117
748
495
506
674
557
406
462
120
카나다
멕시코
미국
일본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
영국
한국

전력생산량은 미국, 증가율은 한국이 가장 높아

○ UN「통계월보」에 나타난 93년도 미국의 전력생산량은 2조 8,822억kWh로 OECD국가 총발전량의 42.3%에 해당

- 우리나라(1,444억kWh)는 일본(7,878억kWh), 카나다(5,111억kWh) 등에 이어 아홉번째 차지
- 91년~ 93년까지의 3년간 증가율을 보면 34.1%로 다른 OECD국가에 비해 가장 높은 수준을 시현



〈표〉 주요국의 전력생산량

(단위 : 억kWh)

미 국		일 본		카 나 다		독 일		프 랑 스	
90년	93년	90년	93년	90년	93년	90년	93년	90년	93년
30,117	28,822	8,573	7,878	4,820	5,111	4,492	4,421	4,050	4,287
(-4.3%)		(-8.1%)		(6.0%)		(-1.6%)		(5.9%)	

영 국		이탈리아		오스트레일리아		한 국		OECD총생산량[1] (한국제외)	
90년	93년	90년	93년	90년	93년	90년	93년	90년	93년
3,174	3,220	2,169	2,182	1,551	1,631	1,077	1,444	69,135	68,157
(1.4%)		(0.6%)		(5.2%)		(34.1%)		(-1.4%)	

주 : 1) 노르웨이, 스페인은 1993년 자료가 없어 1990년 자료 사용
2) ( )안의 수치는 91~93년 3년 동안의 증감률

자료 : UN 『통계월보』 1994. 12

1인당 에너지소비 선진국 수준에 크게 못미쳐

○ UN에서 발간한 「에너지통계연감」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국민 1인이 92년도에 소비한 1차에너지량은 2,231kg으로 OECD국가중 하위권

- 이는 1인당 1차에너지 최대 소비국가인 룩셈부르크의 9,802kg, 두번째인 캐나다의 7,675kg, 세번째인 미국의 7,516kg과는 3~4배 이상의 많은 차이

〈표〉 1인당 1차에너지 소비량(1992년)

(단위 : kg)

순위	국 가 명	소 비 량	순위	국 가 명	소 비 량
1	룩셈부르크	9,802	10	아이슬란드	4,354
2	카 나 다	7,675	12	독 일	4,123
3	미 국	7,516	14	영 국	3,780
4	오스트레일리아	5,163	16	일 본	3,314
5	네덜란드	4,985	18	오스트리아	2,919
7	벨 기 에	4,810	20	아일랜드	2,798
8	노르웨이	4,699	22	한 국	2,231
9	핀 란 드	4,597	24	포르투갈	1,478
			26	터 키	731

자료 : UN 『에너지통계연감』 1992

○ 1차에너지의 총소비량은 미국이 19억 1,774TOE로 OECD국가 총소비량의 46.3%를 점유

- 두번째로 규모가 큰 일본은 4억 1,260만TOE로 미국과 5배 가량 차이가 나며 이어서 독일(3억 3,091만 TOE), 영국(2억 1,890만 TOE), 프랑스(2억 1,760만 TOE)순임

- 우리나라는 9,855만TOE로 9번째 규모이며 미국과는 19.5배, 일본과는 4.2배 차이, 한국을 제외한 OECD국가 총소비량의 2.4% 수준

〈표〉 1차에너지 총소비량(1992년)

(단위 : 천TOE[1])

미 국	일 본	독 일	영 국	프 랑 스
1,917,743	412,602	330,908	218,899	217,598
카 나 다	이탈리아	한 국	오스트레일리아	OECD 계[2]
210,051	162,628	98,547	90,853	4,144,099

주 : 1) TOE(Ton of Oil Equivalent)는 원유 1톤이 가지고 있는 열량으로 10^7Kcal
2) 한국제외

자료 : UN 『에너지통계연감』 1992

영농 기계화 최하위권에 머물러

○ 농업 생산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농기계 이용도를 유엔 식량농업기구 (FAO) 통계를 통하여 살펴보면

- 농가인구 천명당 트랙터 보유대수의 경우 92년 오스트리아 992.8대, 카나다 908.0대, 미국 776.8대 등 주요 OECD 선진국의 영농기계 수준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 우리나라의 경우 11.2대로 그 격차가 매우 큼

○ 농가인구 천명당 콤바인 보유대수도 카나다(190.4대), 일본(168.7대), 덴마크 (142.4대) 등 주요국과는 상당한 격차가 있는 10.7대 보유에 그쳐 영농의 후진성을 보여주고 있음

〈표〉 농기계 보유대수(1992년)

(단위 : 대)

순위	농가인구천명당 트랙터 보유대수		순위	농가인구천명당 콤바인 보유대수	
1	오스트리아	992.8	1	카나다	190.4
2	카나다	908.0	2	일본	168.7
3	미국	776.8	3	덴마크	142.4
4	아이슬란드	775.1	4	스웨덴	114.9
5	노르웨이	734.7	5	미국	106.9
6	덴마크	701.5	6	핀란드	101.6
7	벨기에[1]	656.0	7	오스트리아	76.4
8	핀란드	609.4	8	오스트레일리아	69.2
10	스위스	525.3	10	프랑스	60.3
15	오스트레일리아	386.0	15	이탈리아	15.2
20	스페인	206.3	20	한국	10.7
25	한국	11.2	26	터키	0.5
26	멕시코	6.8			

주 : 1) 룩셈부르크 포함

자료 : 농림수산부 『농림수산통계연보』 1994, FAO 『농업생산통계연감』 1992

Ⅳ. 국민계정

국내총생산 규모는 9위이나 1인당 총생산은 23위에 머물러

○ 한 나라의 경제활동의 종합적인 소득지표인 국내총생산(GDP) 규모는 94년도에 우리나라가 3,795억달러로 미국(6조 6,382억달러), 일본(4조 6,511억달러), 독일(2조 415억달러), 프랑스(1조 3,189억달러) 등에 이어 9번째

- OECD국가의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미국이 32.6%, 일본이 22.8%이며 우리나라는 1.9%에 불과

○ 우리나라의 1인당 국민총생산(GNP)은 93년도에 7,513달러로 23위를 기록, OECD국가의 2~3만달러 수준과는 현격한 차이 시현

- 1인당 국민총생산은 스위스가 36,410달러로 1위이며 룩셈부르크(35,850달러), 일본(31,450달러), 덴마크(26,510달러), 노르웨이(26,340달러) 등이 그 뒤를 잇고 있음

- 1인당 국민총생산이 가장 적은 국가는 터키로 2,120달러 수준

〈표〉 국내총생산 및 1인당 국민총생산

국내총생산(94년, 경상, 억달러)				1인당 국민총생산(93년, 달러)		
순위			구성비[1]	순위		
1	미국	66,382	32.6	1	스위스	36,410
2	일본	46,511	22.8	2	룩셈부르크	35,850
3	독일	20,415	10.0	3	일본	31,450
4	프랑스	13,189	6.5	4	덴마크	26,510
5	이탈리아	10,202	5.0	5	노르웨이	26,340
6	영국	10,136	5.0	6	스웨덴	24,830
7	카나다	5,415	2.6	7	미국	24,750
8	스페인	4,803	2.4	8	독일	23,650
9	한국	3,795	(1.9)	9	아이슬란드	23,620
10	멕시코	3,736	1.8	23	한국	7,513[2]

주 : 1) 한국제외 2)1994년 8,483 달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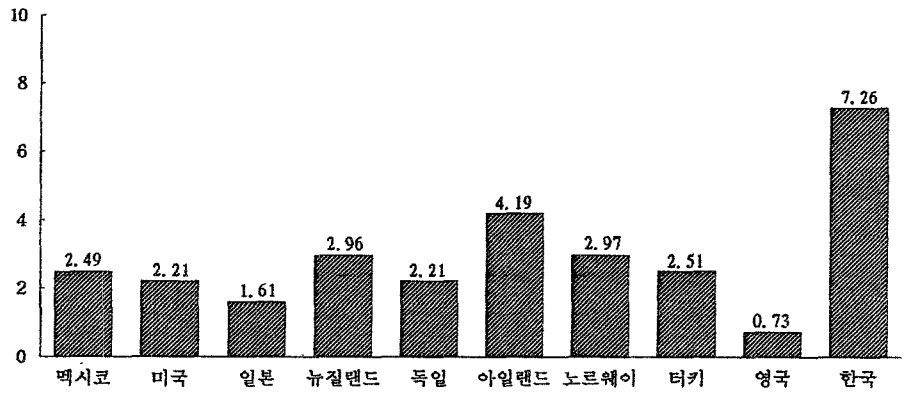
자료 : 한국은행 『1994년 국민계정』, OECD 『주요경제지표』 1995. 3

한국의 91~94년 평균 경제성장률 7.26%로 가장 높아

○ 91~94년까지의 4년간 평균 실질 GDP성장률을 비교하여 보면,

- 한국이 4년간 평균 7.26%성장한 것으로 나타나 2위인 아일랜드 4.19%성장과도 상당한 차이를 보이며 1위를 기록
- 노르웨이(2.97%), 뉴질랜드(2.96%), 터키(2.51%), 멕시코(2.49%) 등이 비교적 높은 성장률을 보인 반면, 핀란드(-2.36%), 스웨덴(-0.71%)은 마이너스 성장률을 나타냈음

실질GDP성장률 ('90~'94년평균,%)



〈표〉 실질 GDP성장률 (91~94년 평균)

(단위 : %)

영 국	멕 시 코	미 국	일 본	뉴질랜드
0.73	2.49	2.21	1.61	2.96
독 일	아일랜드	노르웨이	터 키	한 국
2.21	4.19	2.97	2.51	7.26

자료 : 한국은행 『조사통계월보』 1995. 2, OECD 『주요경제지표』 1995. 3

투자율과 저축률은 가장 높은 수준

○ 우리나라의 투자율은 92년에 36.8%(94년 36.1) 로서 OECD국가와 비교하여 볼 때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 OECD 국가중에서 투자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나라는 일본이 30.6%, 오스트리아 24.9%, 룩셈부르크 27.7%, 포르투갈 26.2% 등이며,
- 20%내외 수준에 불과한 국가는 미국 15.4%, 프랑스 20.0%, 독일 21.2%, 영국 15.6% 등임
- 선진국 투자율이 이처럼 상대적으로 낮은 것은 경제가 안정되어 신규투자가 저조한데 기인한 것으로 풀이됨

○ 저축률은 우리나라가 92년도에 34.9%(94년 35.2%)로서 OECD 국가에 비해 매우 높은 편임

- OECD 국가중에서 투자율이 높은 나라는 룩셈부르크 60.2%, 일본 33.6%, 스위스 29.4%, 포르투갈 25.3%, 오스트리아 24.1% 등이며
- 15%수준을 밑도는 국가는 미국 14.5%, 영국 12.8%, 카나다 13.3%, 스웨덴 14.1% 등인 것으로 나타났음

○ 가계저축률은 우리나라가 18.9%로 벨기에 22.9%, 포르투갈 18.3%, 이탈리아 16.8% 등과 유사한 수준을 보이고 있으나, 총저축에서 가계저축률이 차지하는 비중이 이들 국가 보다는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음

〈 표 〉 투자율 및 저축률

	투 자 율(92년) (대GDP 비율)	연도	저 축 률 (대GDP 비율)	가계저축률 (93년)
미 국	15.4	92	14.5	4.6
일 본	30.6	93	33.6	15.0
독 일	21.2	93	20.4	12.3
프 랑 스	20.0	93	18.7	14.1
이 탈 리 아	19.1	93	18.0	16.8
영 국	15.6	92	12.8	12.2
카 나 다	19.1	93	13.3	9.2
오스트리아	24.9	93	24.1	11.5
벨 기 에	19.4	93	22.3	22.9
덴 마 크	15.2	93	17.2	14.4
핀 란 드	18.4	93	13.4	6.6
그 리 스	18.0	92	15.5	-
아이슬랜드	17.0	93	15.9	-
아 일 랜 드	16.1	93	20.8	14.2
룩셈부르크	27.7	92	60.2	-
네 덜 란 드	20.4	93	23.2	1.3
노 르 웨 이	19.1	93	21.9	4.8
포 르 투 갈	26.2	92	25.3	18.3
스 페 인	22.0	92	19.1	12.5
스 웨 덴	17.0	92	14.1	7.2
스 위 스	23.7	93	29.4	13.0
터 어 키	22.7	92	23.8	-
오스트레일리아	19.4	93	16.5	5.0
뉴 질 랜 드	16.0	92	19.4	-
한 국(92)	36.8	92	34.9	18.9
(94)	36.1	94	35.2	-

자료 : OECD 『OECD outlook』 1994

V. 무역 및 국제수지

한국의 무역규모 10위

○ 한국의 수출액은 93년 현재 822억달러(94년 960억 달러)로 10위를 기록

- 1위는 4,651억달러를 수출한 미국, 2위는 3,800억달러인 독일, 3위는 3,616억달러인 일본이며, 수출액이 가장 작은 국가는 아이슬란드로 한국의 1/49에 불과한 17억달러

○ 한국의 수입액도 93년 현재 838억달러(94년 1,023억 달러)로 10위를 기록

- 1위는 미국으로 5,807억달러, 2위는 독일 3,426억달러, 3위는 일본 2,413억달러, 4위는 영국 2,038억달러

〈표〉 수출입액(1993년)

(단위 : 억 US$)

수 출(F.O.B.)			수 입(C.I.F.)		
순위			순위		
1	미 국	4,651	1	미 국[1]	5,807
2	독 일	3,800	2	독 일	3,426
3	일 본	3,616	3	일 본	2,413
4	프 랑 스	2,104	4	영 국	2,038
5	영 국	1,783	5	프 랑 스[1]	1,948
6	이탈리아	1,685	6	이탈리아	1,478
7	카 나 다	1,452	7	카 나 다	1,318
8	네덜란드	1,391	8	네덜란드	1,244
9	벨 기 에	1,205	9	벨 기 에[2]	1,098
10	한 국[3]	822	10	한 국[3]	838

주 : 1) F.O.B. 가격 2) 벨기에-룩셈부르크 경제연합(BLEU)의 수치
3) 94년 수출은 960억 달러, 수입은 1,023억 달러

자료 : 한국은행 『조사통계월보』 1995. 2, OECD 『주요경제지표』 1995. 3

경상수지 최대흑자국 일본, 최대적자국 미국

○ 93년 경상수지 최대 흑자국은 일본으로 1,315억달러의 흑자를 기록했으며, 스위스(167억달러), 벨기에(126억달러), 이탈리아(112억달러), 프랑스(102억달러) 이상 4개국이 100억달러 이상의 흑자를 기록하였음

- 우리나라는 93년에 3억 8천만달러의 경상수지 흑자를 기록하였으나
- 94년에는 수입의 상대적 급증과 무역외 수지 적자규모의 확대로 47억 8천만달러의 경상수지 적자로 반전

※ OECD국가중 대다수 국가의 94년 경상수지가 아직 미집계된 관계로 93년을 기준으로 비교

〈표〉 경상수지 흑·적자국(1993년)

(단위 : 백만 US$)

순위	경상수지 흑자국		순위	경상수지 적자국	
1	일본	131,510	1	미국	- 103,940
2	스위스	16,696	2	카나다	- 23,869
3	벨기에[1]	12,588	3	멕시코	- 23,391
4	이탈리아	11,176	4	독일	- 19,960
5	프랑스	10,201	5	영국	- 16,391
6	네덜란드	9,775	6	오스트레일리아	- 10,369
7	덴마크	4,711	7	터키	- 6,380
8	아일랜드	3,848	8	스페인	- 6,258
9	노르웨이	2,453	9	스웨덴	- 1,835
10	포르투갈	947	10	핀란드	- 980
11	한국	384	11	뉴질랜드	- 932
			12	오스트리아	- 875
			13	그리스	- 747
			14	아이슬란드	- 5

주 : 1) 벨기에-룩셈부르크경제연합(BLEU)의 수치

자료 : 한국은행 『경제통계연보』 1994, OECD 『주요경제지표』 1995. 3

무역의존도가 가장 높은 국가는 벨기에, 가장 낮은 국가는 일본

○ 일국의 국민경제가 어느정도 무역에 의존하고 있는가를 표시하는 무역의존도인 수출입액의 대GDP비율을 보면 93년도에 벨기에가 109.3%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일본은 14.3%로 가장 낮았음

- 한국은 49.9%로 일본(14.3%), 미국(16.7%), 독일(37.8%), 프랑스(32.4%) 등 주요 선진국보다는 높으나, 카나다(50.7%), 네덜란드(85.2%), 노르웨이(54.2%), 스웨덴(50.0%) 보다는 낮은 의존도 기록

〈표〉 무역의존도 [1] (1993년)

(단위 : %)

국 가	총 계	수 출	수 입
카나다	50.7	26.6	24.1
미 국	16.7	7.4	9.3
일 본	14.3	8.6	5.7
벨기에	109.3	57.2	52.1
프랑스	32.4	16.8	15.6
독 일	37.8	19.9	17.9
네덜란드	85.2	45.0	40.2
노르웨이	54.2	30.9	23.3
스웨덴	50.0	26.9	23.1
한 국	49.9 [2]	24.7	25.2

주 : 1) 무역의존도 = (무역액(수출액+수입액)/GDP)*100 2) 1994년 기준 52.3%

자료 : 한국은행 『조사통계월보』 1995. 2, OECD 『주요경제지표』 1995. 3

〈표〉 무역의존도 그룹별 국가

60% 이상	50 ~ 60% 미만	30 ~ 50% 미만	30% 미만
벨기에, 아일랜드, 네덜란드	카나다, 오스트리아, 덴마크, 핀란드, 아이슬란드, 스위스, 노르웨이, 스웨덴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그리스, 프랑스, 이탈리아, 독일, 포르투갈, 스페인, 영국	멕시코, 미국, 일본, 터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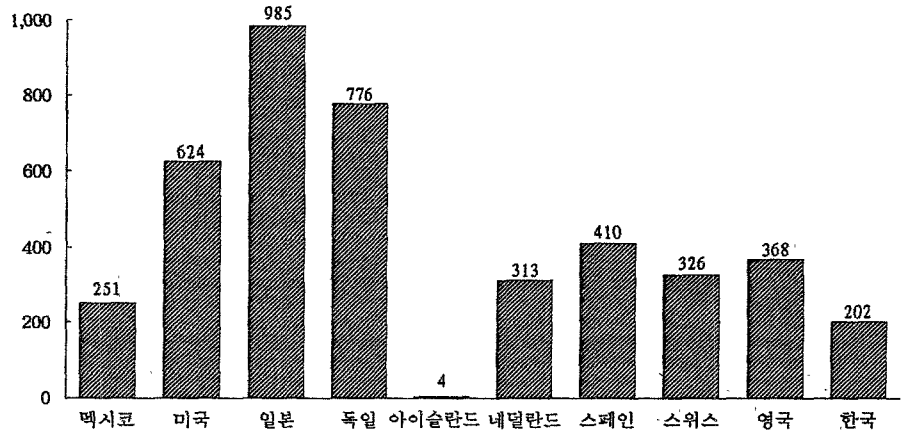
자료 : 한국은행 『조사통계월보』 1995. 2, OECD 『주요경제지표』 1995. 3

대외 지급 준비금을 가장 많이 보유한 국가는 일본

○ 외환, SDR, IMF포지션으로 구성된 대외지급준비금(금제외)을 비교해 보면 일본이 93년 현재 985억 달러를 보유하고 있어 대외지급 준비금으로 본 대외자산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음

- 2위는 독일로 776억 달러, 3위는 미국 624억 달러, 4위는 스페인으로 410억 달러를 보유
- 한국은 202억 달러를 보유하고 있어 11위를 기록했으며 가장 적게 보유한 국가는 아이슬란드로 4억 달러를 보유

대외지급준비금 (1993, 억US$)



〈표〉 금제외 대외지급 준비금(1993년)

(단위: 억 US$)

일 본	독 일	미 국	스페인	영 국
985(1)	776(2)	624(3)	410(4)	368(5)
스위스	네델란드	멕시코	한 국[1]	아이슬란드
326(6)	313(7)	251(9)	202(11)	4(26)

주 : ( )안은 순위, 1) 94년 말 256억 달러

자료 : 한국은행 『조사통계월보』 1995. 2, IMF 『국제금융통계』 1995.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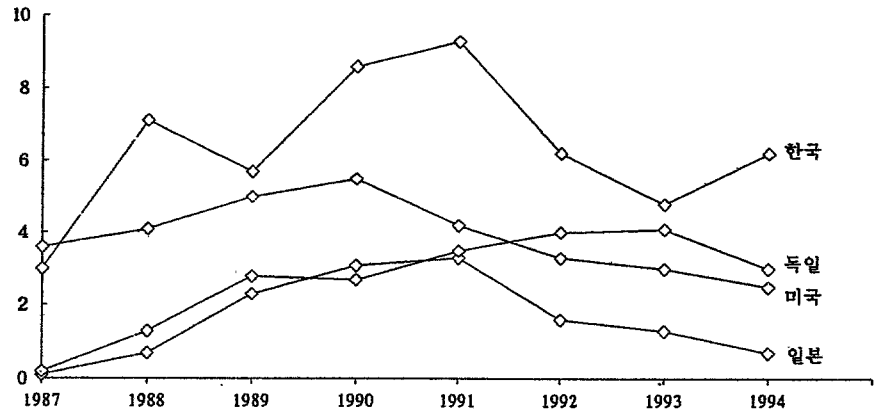
Ⅵ. 물가 및 통화

우리나라 소비자물가상승률 높은 수준

○ 우리나라의 94년 전년비 소비자물가상승률 6.2%(연말대비 5.6%)는 경제가 안정되어 있는 OECD주요국의 2~4%의 수준과 비교하면 높은 수준

- 미국(2.5%), 일본(0.7%), 독일(3.0%), 프랑스(1.7%)등 주요국의 물가상승률은 상당히 안정되어 있는 반면,
- 그리스(10.9%), 터키(106.2%)등 2개국은 높은 상승률을 보여 물가 불안정 시현

소비자물가 상승률 (%)



〈표〉 전년비 소비자물가상승률

(단위 : %)

	카나다	멕시코	미 국	일 본	프랑스	독 일	그리스	터 키	영 국	한 국
1992	1.5	15.4	3.3	1.6	2.4	4.0	15.8	69.8	3.7	6.2
1993	1.9	9.9	3.0	1.3	2.1	4.1	14.5	66.3	1.5	4.8
1994	0.2	6.4	2.5	0.7	1.7	3.0	10.9	106.2	2.5	6.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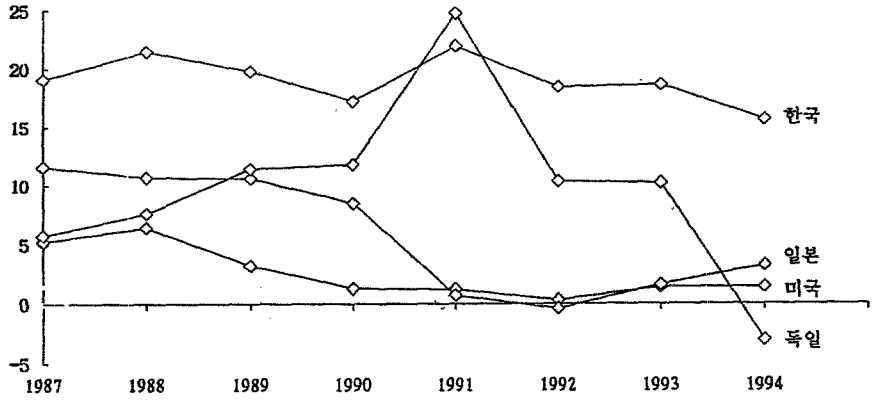
자료 : 통계청 『물가연보』 1994, OECD 『주요경제지표』 1995. 3

총통화증가율도 높은 수준

○ 총통화증가율을 보면, 우리나라의 경우 최근 3년간 말잔기준 15~18%수준을 유지한 반면,

- 미국, 일본, 프랑스 등 물가안정을 보인 OECD선진국은 5% 이내의 낮은 증가율을 보여 매우 대조적임
- 소비자물가상승률이 높았던 그리스, 터키는 총통화증가율도 역시 높았던 것으로 나타나 통화와 물가의 높은 관련성을 보임

M_2 증가율 (%)



<표> 총통화(M_2)증가율(말잔기준)

(단위 : %)

	카나다[1]	멕시코[2]	미 국[1]	일 본	프랑스[1]	독 일	그리스	터 키[1]	영 국[2]	한 국
1992	6.2	19.8	0.3	-0.4	4.9	10.3	9.4	65.1	11.1	18.4
1993	2.7	27.3	1.4	1.6	-3.1	10.2	9.0	49.1	5.0	18.6
1994	5.3	25.1	1.4	3.2	2.4	-3.0	22.1	128.1	4.2	15.6

주 : 각 국이 OECD에 제공한 총통화(M_2)와 가장 유사 또는 동일한 범위의 통화량을 기준
1) M_3 2) M_4

자료 : 한국은행 『조사통계월보』 1994. 2, OECD 『주요경제지표』 1995. 3

Ⅶ. 보 건 · 의 료

우리나라의 보건에 대한 지출 - 하위권

○ 「UN통계연감(1993년)」에 따르면, 한국의 보건에 대한 1인당 지출액은 90년 365달러로 1인당 지출액이 가장 많은 이탈리아(4,655달러)의 1/13수준에 불과

- 미국(2,765달러), 스웨덴(2,520달러), 스페인(2,343달러) 등 대부분의 OECD국가가 1인당 지출액 1,500달러 수준을 넘고 있으며

- 멕시코(89달러), 그리스(359달러), 터키(76달러), 한국(365달러) 등 4개국 만이 1인당 지출액 500달러 이하인 것으로 나타났음

○ 1인당 지출액의 구성을 공공 및 보조, 개인지출로 나누어보면 우리나라는 개인지출이 58.9%를 차지하고 있어, 터키(63.3%) 다음으로 개인지출비가 높은 국가로 나타났음

- 공공 및 보조의 구성비가 높은 국가는 노르웨이(95.7%), 룩셈부르크(91.4%), 스웨덴(89.3%), 아이슬란드(87.5%), 벨기에(82.5%) 등 대부분이 사회보장이 잘 되어 있는 북유럽 국가들 이었음

〈표〉 1인당 보건지출액 및 구성(1990년)

순위	국 가	1인당 지출액 (US$)	공공 및 보조(%)	개 인(%)
1	이탈리아	4,655	77.7	22.3
2	미 국	2,765	44.1	55.9
3	스 웨 덴	2,520	89.3	10.7
4	스 페 인	2,343	78.4	21.6
5	핀 란 드	2,046	83.3	16.7
6	카 나 다	1,945	74.1	25.9
7	아이슬란드	1,884	87.5	12.5
9	노르웨이	1,835	95.7	4.3
11	룩셈부르크	1,662	91.4	8.6
14	독 일	1,511	72.7	27.3
16	벨 기 에	1,449	82.5	17.5
23	한 국	365	41.1	58.9
24	그 리 스	359	76.0	24.0
25	멕 시 코	89	50.2	49.8
26	터 키	76	36.7	63.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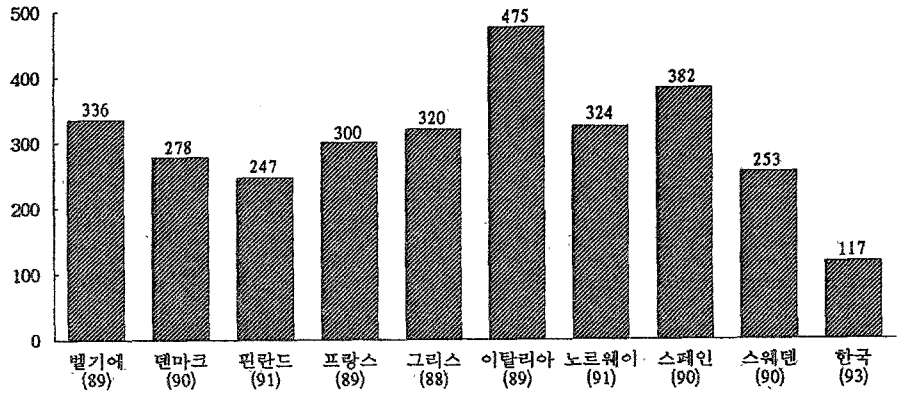
자료 : UN 『UN 통계연감』 1993

인구 10만명당 의사수 - OECD국가수준에 크게 못 미쳐

○ 우리나라는 의료보험제도의 확대실시에 따른 지속적인 의료인력의 양성으로 83년에 인구 10만명당 의사수가 66명에서 93년에 117명으로 1.8배 증가했으나

- 이탈리아의 475명(89년), 스페인의 382명(90년), 벨기에의 336명(89년)등 OECD 주요국의 수준에는 훨씬 못 미치는 수준임

인구 10만명당 의사수 (명)



〈표〉 인구 10만명당 의사수

(단위 : 명)

이탈리아(89)	스 페 인(90)	벨 기 에(89)	노르웨이(91)	그 리 스(88)
475	382	336	324	320
프 랑 스(89)	덴 마 크(90)	스 웨 덴(90)	핀 란 드(91)	한 국(93)
300	278	253	247	117

자료 : 보건복지부 『보건통계연감』 1994, 세계보건기구(WHO) 『WHO통계연감』 1993

사망원인에 있어 한국은 결핵, 간암, 고혈압성 질환, 교통사고, OECD국가는 폐암, 자살이 상대적으로 높아

○ 한국의 인구 십만명당 사망원인별 사망자수를 OECD국가와 비교하여 보면 후진국형 질병인 결핵은 우리나라의 경우 지난 81년 21.4명에서 93년 10.1명으로 크게 감소하였으나, OECD국가와 비교하여 보면 가장 높은 수준

- 미국, 독일 등 OECD국가들은 평균적으로 1명 내외인 것으로 나타났음

○ 위암, 간암에 의한 사망률은 동양권인 일본과 우리나라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 폐암에 의한 사망은 선진 OECD국가들이 높은 수준을 보였으며 특히 영국은 67.4명으로 우리나라의 4배 수준

○ 당뇨에 의한 사망은 우리나라의 경우 81년 5.7명에서 93년 16.6명으로 계속 증가 추세에 있으나 OECD국가에 비해서는 아직 낮은 편임

○ 고혈압성질환과 교통사고에 의한 사망은 우리나라가 모두 최고를 기록하였으나 자살의 경우는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나타났음

〈표〉 주요 사망원인별 사망률

(단위 : 인구십만명당,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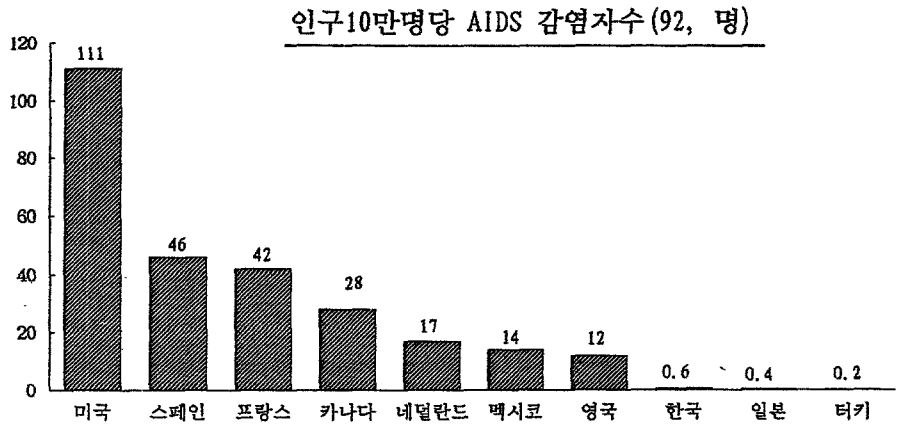
국 가	년도	결 핵	위 암	간 암	폐 암	당 뇨	고혈압성 질환	자 살	교 통 사 고
미 국	90	0.8	5.7	1.7	57.3	19.1	13.1	12.6	20.2
일 본	92	2.8	39.1	15.7	32.8	8.0	7.0	17.0	13.0
오스트리아	92	2.2	21.4	3.5	41.2	20.9	16.7	22.8	17.0
핀 란 드	92	1.9	14.2	4.8	40.1	11.4	8.4	29.3	15.4
프 랑 스	91	1.6	11.4	5.9	39.9	11.1	10.5	20.4	17.5
독 일	91	1.1	21.6	2.7	47.7	24.3	18.9	17.8	14.9
네 덜 란 드	91	0.3	14.1	1.2	56.3	22.9	5.3	10.8	8.9
노 르 웨 이	91	0.4	16.3	1.2	35.6	12.9	9.1	16.0	10.4
영 국	92	0.8	16.2	1.5	67.4	14.8	6.1	8.1	8.7
한 국	93	10.1	29.8	23.4	17.7	16.6	27.3	9.9	33.6

자료 : 통계청 『사망원인통계연보』 1993, WHO 『WHO 통계연감』 1993

AIDS 감염자수 미국이 최고

○ 「UN통계연감」의 자료를 토대로 산출한 인구 십만명당 AIDS감염자 수는 미국이 111명으로 최고

- 미국을 제외하고 기타 OECD국가의 인구 십만명당 AIDS감염자 수는 평균 20~30명인 반면,
- 일본, 터키, 한국은 1명도 채 되지 않아 동양권과 서구권 국가의 현저한 차이를 보임



〈표〉 인구 십만명당 AIDS감염자 수(1992년 12월까지 누계)

(단위 : 명)

미 국	스 페 인	스 위 스	프 랑 스	카 나 다	덴 마 크
111	46	44	42	28	22
네 덜 란 드	멕 시 코	영 국	한 국	일 본	터 키
17	14	12	0.6	0.4	0.2

주 : 1992년 12월까지의 AIDS감염자 누적총수를 각 국 인구로 나누어 산출
자료 : 보건복지부 『보건통계연감』 1994, UN『UN통계연감』 199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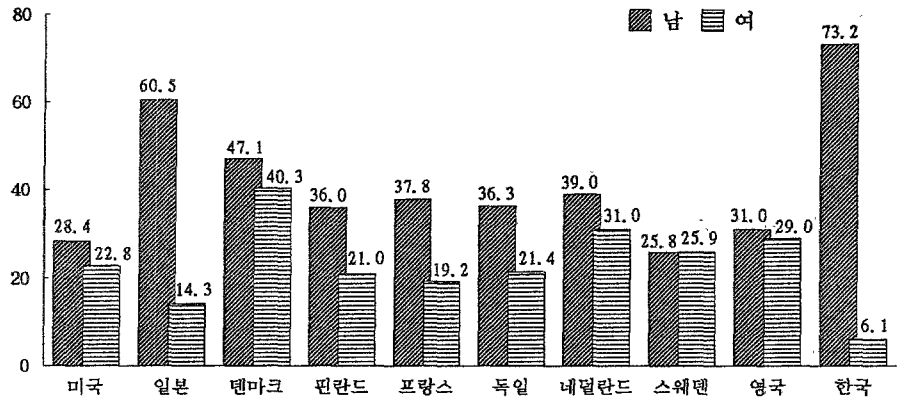
한국남자의 흡연비율은 월등히 높은 반면 여자는 매우 낮아

○ 흡연인구 조사대상이 OECD국가는 15세 이상, 우리나라는 20세 이상이기때문에 정확하지는 않으나, 우리나라 남자의 흡연비율이 가장 높은 반면, 여자는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음

○ 남녀간 흡연비율의 차이를 보면 OECD국가의 남자는 20~40%, 여자는 20~30%수준으로 성별 차이가 크지 않으나, 우리나라는 남자 73.2%, 여자 6.1%로 상당한 차이

- 동양권인 일본도 남자 60.5%, 여자 14.3%로 우리나라처럼 남녀 흡연비율의 차가 큰 편임

흡연인구비율 (1990, %)



〈표〉 흡연인구비율(1990년)

(단위 : %)

국 가	남 자	여 자
미 국	28.4	22.8
일 본	60.5	14.3
덴 마 크	47.1	40.3
프 랑 스	37.8	19.2
독 일[1]	36.3	21.4
네덜란드	39.0	31.0
영 국	31.0	29.0
한 국[2]	73.2	6.1

주 : 한국은 20세 이상 남녀대상이나, OECD국가는 15세 이상

1) 1989년 2) 1992년

자료 : 통계청 『한국의 사회지표』 1994, OECD 『OECD HEALTH SYSTEMS』 1960~1991

Ⅷ. 교육 및 연구개발투자

한국의 교육열 주요선진국보다도 높아

○ 전문대 이상의 교육을 의미하는 고등교육을 유엔교육과학문화기구(UNESCO)통계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카나다의 경우 92년 고등교육취학률이 98.8%로 가장 높았음

- 한국은 49.3%의 고등교육취학률을 보여 미국, 핀란드, 뉴질랜드에 이어 5번째로 프랑스(45.6%), 독일(33.3%), 일본(31.5%) 등 주요 선진국의 취학률보다 높았음

○ 인구 10만명당 고등교육 학생수도 카나다가 7,197명으로 기타 OECD국가에 비해 월등히 높음

- 한국(4,008명)은 카나다(7,197명), 미국(5,653명), 뉴질랜드(4,232명) 다음으로 학생수가 많아 우리나라 국민의 높은 교육열을 반영하고 있음

〈표〉 고등교육취학률 및 인구 10만명당 고등교육학생수

(단위 : %, 명)

국 가	연도	고등교육취학률[1]	연도	인구 10만명당 고등교육 학생수
카 나 다	92	98.8	91	7,197
미 국	91	76.2	92	5,653
핀 란 드	92	57.0	92	3,757
뉴질랜드	92	49.7	92	4,232
프 랑 스	92	45.6	92	3,414
오스트레일리아	92	39.6	92	3,178
독 일	89	33.3	91	3,051
일 본	91	31.5	91	2,338
스 위 스	92	30.7	92	2,147
영 국	90	27.8	91	2,406
그 리 스	90	25.0	90	1,928
터 키	91	14.8	92	1,569
멕 시 코	92	14.0	92	1,478
한 국	94	49.3	94	4,008

주 : 1) 고등교육은 종합대학, 교육대학, 기술대학 등 전문대 이상의 교육기관 포함
자료 : 한국교육개발원 『한국의 교육지표』 1994, UNESCO 『통계연감』 1994

교원 1인당 학생수 선진국 수준에 비해 많아

○ 초등(국민학교과정), 중등(중·고등학교과정), 고등(전문대이상) 교육으로 나누어 교원 1인당 학생수를 비교해 보면 초등,중등, 고등교육 부문 모두에서 우리나라가 타OECD국가에 비해 교원 1인당 학생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남

- 『UNESCO통계연감』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초등 교육부문의 교원 1인당 학생수는 80년 48명에서 94년 30명으로 상당히 낮아졌으나, 아직 선진국 수준인 10~20명 수준에는 크게 못 미치고 있음

<표> 교원 1인당 학생수

(단위 : 명)

국 가	초등 교육[1]		중등 교육[2]		고등 교육[3]	
	년도	학생수	년도	학생수	년도	학생수
카나다	92	17	92	16	91	29
뉴질랜드	92	16	92	9	92	12
멕시코	92	30	92	16	90	10
미국	85	20	85	13	90	16
일본	92	20	91	16	91	10
오스트레일리아	85	17	92	12	92	20
페인	91	21	91	16	91	19
마크	85	12	-	-	-	-
스웨덴	92	16	92	12	-	-
프랑스	90	15	-	-	90	15
노르웨이	90	20	-	-	91	16
영국	80	48	80	39	80	42
한국	85	38	85	35	89	23
	90	36	90	25	90	23
	94	30	94	23	94	34

주 : 1) 초등교육은 우리나라의 국민학교 과정, 중등교육은 중·고등학교 과정, 고등교육은 전문대 이상 교육을 의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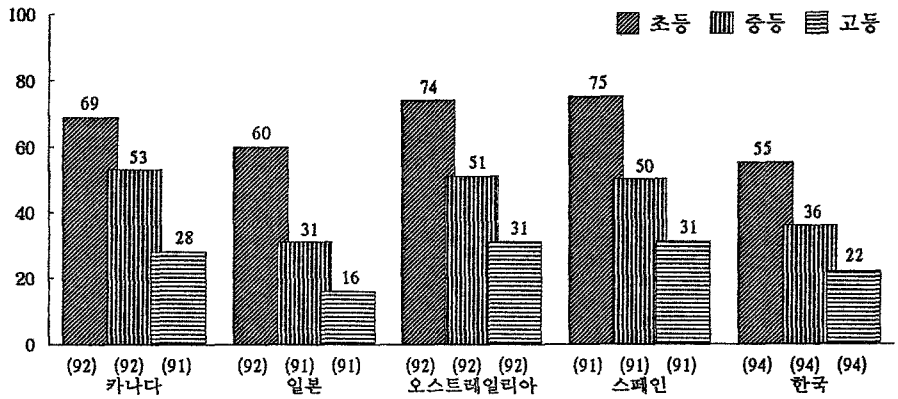
자료 : 한국교육개발원 『한국의 교육지표』 1994, UNESCO 『통계연감』 1994

여교사 비율은 계속 증가하나 OECD국가에 비해 아직 낮은 수준

○ 우리나라의 여교사 비율은 94년에 초등교육기관이 55%, 중등교육기관이 36%, 고등교육기관이 22%로 매년 점차 높아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주요 선진국에 비해서는 아직 낮은 수준임

- 초등교육기관의 경우 뉴질랜드가 92년에 80%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으며 중등교육기관의 경우에는 포르투갈이 90년에 66%로 가장 높게 나타났음
- 고등교육기관의 경우에는 92년에 뉴질랜드가 40%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여교사 비율 (%)



〈표〉 여교사 비율

(단위 : %)

국 가	초등 교육		중등 교육		고등 교육	
	년도	비 율	년도	비 율	년도	비 율
카 나 다	92	69	92	53	91	28
뉴 질 랜 드	92	80	92	56	92	40
일 본	92	60	91	31	91	16
오스트레일리아	92	74	92	51	92	31
독 일	89	90	89	54	80	27
이 탈 리 아	92	91	92	63	-	-
프 랑 스	92	77	92	58	-	-
포 르 투 갈	90	81	90	66	86	35
영 국	90	78	-	-	91	20
한 국	80	37	80	26	-	-
	85	43	85	30	89	22
	90	50	90	34	90	22
	94	55	94	36	94	22

자료 : 한국교육개발원 『한국의 교육지표』 1994, UNESCO 『통계연감』 1994

우리나라 연구개발비에 대한 정부 지원 낮아

○ UNESCO가 집계하여 발표한 연구개발비 총액을 보면, 미국은 91년 1,352억달러를 투자한 것으로 나타나 타 OECD 국가에 비해 월등히 높음

- 우리나라는 92년 640만 달러를 투자한 것으로 집계되어 극히 미약한 수준

○ 자금출처별로 연구개발비를 보면, 미국, 프랑스, 카나다 등 주요 OECD 국가들은 정부와 민간이 비슷한 수준으로 부담한 반면 우리나라와 일본은 민간부문이 80% 이상을 차지하여 정부 지원이 극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음

〈 표 〉 출처별 연구개발비 자금

국 가	연도	총 액 (백만US$)	자금출처별 연구개발비 비율(%)			
			정 부	민 간	해 외	기 타
미 국[1]	88	135,231.0	45.9	50.2	-	3.9
독 일[2]	89	33,973.9	34.1	63.3	2.1	0.5
프랑스	91	28,906.3	48.8	42.5	8.0	0.7
영 국	91	21,066.5	34.2	50.2	11.7	3.8
카나다[2]	92	8,512.5	35.5	41.1	9.9	13.4
스웨덴	91	6,837.9	35.7	60.6	1.5	2.2
스페인	90	4,177.7	45.1	47.4	6.8	0.7
덴마크	91	2,204.5	39.7	51.4	4.4	4.6
일 본[2]	91	102.2	18.2	81.7	0.1	-
이탈리아	90	14.2	51.5	43.7	4.8	-
터 키	91	0.8	70.1	28.5	0.2	1.3
한 국[3]	92	6.4	17.2	82.4	0.4	-

주 : 자국화폐 표시액을 국제금융통계(IFS)의 해당년도 평균환율로 나누어 산출
1) 경상지출비 기준, 법학, 인류학, 교육학, 분야 제외
2) 민간기업의 사회과학, 인류학 분야 제외
3) 군사방위 연구, 사회과학, 인류학 분야 제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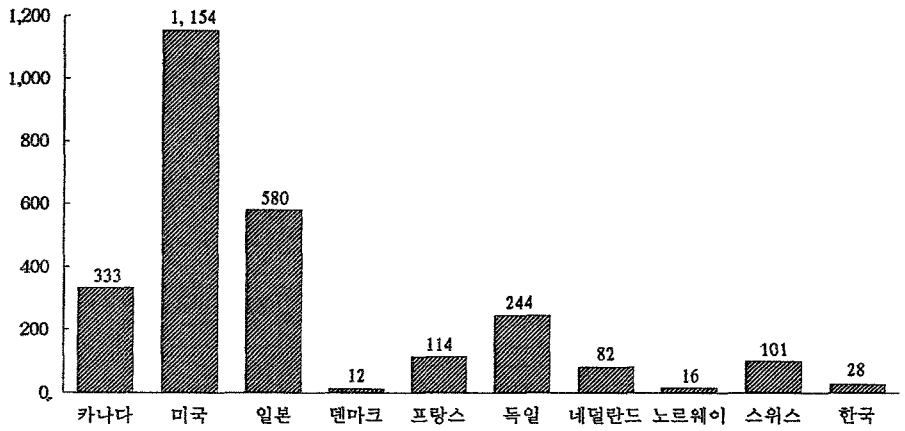
자료 : UNESCO 『통계연감』 1994

특허권 총보유건수는 미국이 단연 1위

○ 91년 현재 현존특허권 보유건수는 미국이 115만 4천건으로 우리나라(2만 8천건)의 41배, 2위인 일본(58만건)의 2배를 보유

- 우리나라는 2만 8천건을 보유하고 있어 카나다(33만 3천건), 독일(24만 4천건), 프랑스(11만 4천건)보다는 적으나,
- 오스트리아(2만 4천건), 덴마크(1만 2천건), 노르웨이(1만 6천건) 등 일부 선진국보다는 많은 것으로 나타남

특허권 보유건수 (1991, 1,000건)



<표> 특허권 보유건수(1991년)

(단위 : 천건)

미 국	일 본	카 나 다	독 일	프 랑 스
1,154	580	333	244	114
네덜란드	오스트리아	노르웨이	덴 마 크	한 국
82	24	16	12	28

자료 : 특허청 『특허청연보』 1994, UN 『UN 통계연감』 1993

Ⅸ. 사회·문화

전화 및 이동전화 가입자수는 아직 낮은 수준

○ OECD주요국의 100명당 전화가입자수는 91년말 현재 미국 55.3명, 카나다 58.6명, 일본 45.4명, 프랑스 51.1명, 독일 42.0명 등으로 40~50명 수준

- 우리나라는 91년에 33.7명에서 93년에는 37.8명으로 다소 늘었지만 여전히 OECD 국가와 비교하면 낮은 수준

<표> 100명당 전화가입자수(1991년)

(단위 : 명)

카나다	미국	일본	덴마크	프랑스	독일
58.6	55.3	45.4	57.7	51.1	42.0
포르투갈	스페인	스웨덴	터키	영국	한국[1]
27.3	34.0	68.7	14.3	44.5	33.7

주 · 1) 1993년 37.8명

자료 : 체신부『체신통계연감』1993, UN『UN통계연감』 1993

○ 천명당 이동전화 가입자수에서도 우리나라는 91년 현재 3.8명으로 노르웨이(53.4명), 스웨덴(66.0명), 핀란드(63.1명), 미국(29.9명) 등 OECD 주요국과는 많은 차이가 있으며,

- 룩셈부르크(2.7명), 스페인(2.8명) 등과는 비슷한 수준을 보임
- 우리나라는 93년 천명당 10.7명으로 3배 가까이 급격히 상승하였으나, 아직까지도 OECD주요국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음

〈표〉 이동전화 가입자수(1991)

(단위 : 천명당)

카나다[1]	미국	일본	덴마크	프랑스	독일
22.2[1]	29.9	11.1	34.2	5.1	6.7
핀란드	노르웨이	스웨덴	스위스	영국	한국[2]
63.1	53.4	66.0	25.9	21.4	3.8

주 : 1) 1990년 2) 1993년 10.7

자료 : 체신부『체신통계연감』1993, UN『UN통계연감』 1993

1인당 연간 영화관람회수 문화참여도 낮아

○ 1인당 연간 영화관람회수는 91년 1인당 5.2회를 관람한 것으로 나타난 아이슬란드를 제외하면 기타 OECD국가간에는 큰 차이가 없으며

- 한국은 1.1회로 문화적 참여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편임

〈표〉 1인당 연간 영화관람회수

(단위 : 회)

아이슬란드(91)	미국(91)	카나다(90)	노르웨이(91)	오지리(89)
5.2	3.9	3.0	2.5	(89) 2.4
스위스(91)	프랑스(91)	스페인(91)	덴마크(91)	스웨덴(91)
2.3	2.1	2.0	1.8	1.8
영국(91)	독일(91)	이탈리아(91)	오스트리아(91)	룩셈부르크(89)
1.8	1.5	1.5	1.4	1.4
일본(89)	핀란드(91)	포르투갈(91)	터키(91)	한국(93)
1.2	1.2	0.8	0.3	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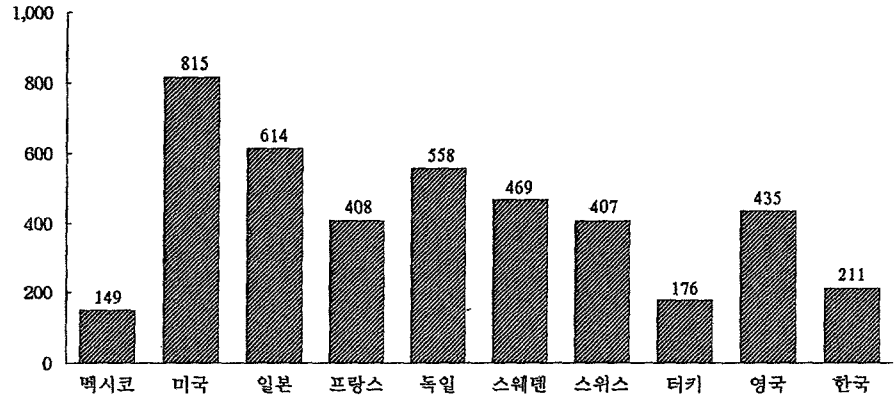
자료 : 영화진흥공사『한국영화연감』 1994, UNESCO『통계연감』 1994

TV보급률 선진국 수준에 크게 못미쳐

○ 인구 1,000명당 보유대수를 비교하여 보면 우리나라는 92년 211대로 OECD 주요국의 평균 수준인 400~500대 수준에 크게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음

- TV보급률이 가장 높은 국가는 미국으로 인구 1,000명당 815대를 보유

TV보유대수 (1992, 1,000명당)



<표> TV보유대수(1992년)

(단위 : 1,000명당 대수)

멕시코	미 국	일 본	독 일	프랑스
149	815	614	558	408
스웨덴	스위스	터 키	영 국	한 국
469	407	176	435	211

주 : 자료는 연말기준이며 케이블 방송, 자동차용 TV 등 모든 종류의 방송수신기기를 포함한 추계치임

자료 : UN『 UN통계연감』 1993

영국이 가장 많은 종류의 도서 발간

○ 영국은 92년 8만 7천종의 도서를 발간하여 6만 7천종을 발간한 독일, 4만 9천종을 발간한 미국보다도 훨씬 앞섰음

- 우리나라는 92년 현재 2만 5천종을 발간하여 1위인 영국의 1/4수준에 불과하나 순위에선 8번째를 기록하여 비교적 많은 종류의 서적을 발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발간도서 종류의 구성비를 보면, 우리나라는 종교관련 서적이 OECD국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한 반면, 사회과학, 자연과학, 지리·역사 부문의 도서발간은 미약한 것으로 나타났음

〈표〉 도서발간[1] (1992년)

(단위 : 종,%)

순위	국가	총계	총류	철학	종교	사회과학	어학	자연과학	응용과학	예술	문학	지리역사
1	영국	86,573	2.8	3.3	3.8	20.0	2.8	11.0	17.0	7.3	20.3	11.8
2	독일	67,277[2]	8.8	4.7	5.3	22.5	-	3.2	14.0	8.5	20.0	13.1
3	미국	49,276[3]	4.4	3.7	5.2	20.6	1.3	5.5	16.5	5.8	17.9	8.8
4	일본	45,595[4]	4.5	4.9	-	22.8	2.3	7.8	12.0	10.4	20.5	6.6
5	프랑스	45,379	1.7	3.6	3.1	28.8	2.3	4.5	11.2	7.8	25.7	11.4
6	스페인	41,816	3.2	3.5	4.2	18.3	3.9	6.0	14.0	7.5	28.9	10.5
7	이탈리아	29,351	3.0	5.7	6.0	21.2	2.1	3.6	12.3	12.3	24.3	9.5
8	한국	24,783	0.9	2.5	8.2	11.6	3.8	1.3	11.9	4.6	18.8	3.8
9	스위스	14,663[5]	1.9	3.5	5.8	21.7	1.6	9.2	22.4	9.6	12.5	6.0
10	벨기에	13,913	2.2	2.2	4.9	20.5	3.4	5.9	16.0	9.5	26.6	8.8

주 : 1) 국제십진분류법(UDC)기준에 의한 분류　　2) 어학은 문학에 포함
3) 팜플렛, 교과서, 정부간행물, 대학논문 제외, 아동도서(5,144) 포함
4) 아동도서, 학습참고서 제외　　5) 교과서(344), 아동도서(515)포함

자료 : 대한출판문화협회 『한국출판연감』 1993, 일본 총무청 『일본통계연감』 1994
UNESCO 『통계연감』 1994

관광객수는 프랑스가, 관광수입은 미국이 1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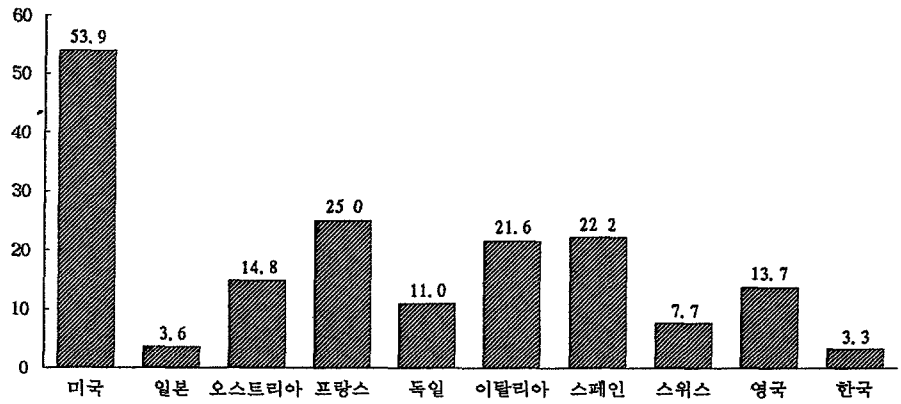
○ 프랑스는 92년 5천 959만명의 관광객을 맞아 들여 2위인 미국(4천 465만명), 3위인 스페인(3천 964만명)보다도 1천만명 이상 많은 것으로 나타남

- 한국은 92년 323만명이 방문한 것으로 나타나 OECD 국가중에서는 중하위권인 16위를 나타냈음

○ 관광수입면에서는 미국이 단연 앞서서 92년 539억 달러를 벌어들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2위는 프랑스로 250억 달러, 3위는 스페인으로 222억 달러를 벌어들임

- 한국은 92년 한해 동안 33억 달러를 관광수입으로 벌어들여 스웨덴(31억달러)보다는 앞서나 전체로 보면 18위에 그침

관광수입 (1992, 10억US$)



○ 관광객의 1인당 평균 지출액을 비교해보면, 스웨덴을 방문한 관광객은 1인당 4,748달러를 소비하여 가장 많이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어 덴마크는 2,452달러로 2위, 일본은 1,706달러로 3위를 기록

- 우리나라도 1,013달러로 8위를 기록하여 방문관광객의 1인당 평균 지출액은 높은 편임

< 표 > 관광객수 및 관광수입 (1992)

관 광 객 수 (천명)			관광수입(백만 US$)			1인당 평균 지출액(US$)		
순위	국 가		순위	국 가		순위	국 가	
1	프 랑 스	59,590	1	미 국	53,861	1	스 웨 덴	4,748
2	미 국	44,647	2	프 랑 스	25,000	2	덴 마 크	2,452
3	스 페 인	39,638	3	스 페 인	22,181	3	일 본	1,706
4	이탈 리 아	26,113	4	이탈 리 아	21,577	4	핀 란 드	1,665
5	오스트리아	19,098	5	오스트리아	14,832	5	오스트레일	1,534
6	영 국	18,535	6	영 국	13,683	6	벨 기 에	1,259
7	멕 시 코	17,271	7	독 일	10,982	7	미 국	1,206
8	독 일	15,147	8	스 위 스	7,650	8	한 국[1]	1,013
9	카 나 다	14,741	10	카 나 다	5,679	9	뉴 질랜 드	977
10	스 위 스	12,800	13	오스트레일 리 아	3,992	10	아이슬란드	902
11	그 리 스	9,331	14	덴 마 크	3,784	15	영 국	738
14	네델 란 드	6,049	16	일 본	3,588	16	독 일	725
16	한 국	3,231	18	한 국	3,272	18	스 페 인	560
18	오스트레일 리 아	2,603	21	노르 웨 이	1,975	21	프 랑 스	420
20	일 본	2,103	26	아이슬란드	129	23	카 나 다	385

주 : 우리나라 사람의 해외여행시 1인당 평균 소비액은 1992년 1,857달러, 1993년 1,696달러임

1) 1993년 1,054달러

자료 : 교통부·한국관광공사『한국관광통계』1993 , UN 『UN통계연감』 199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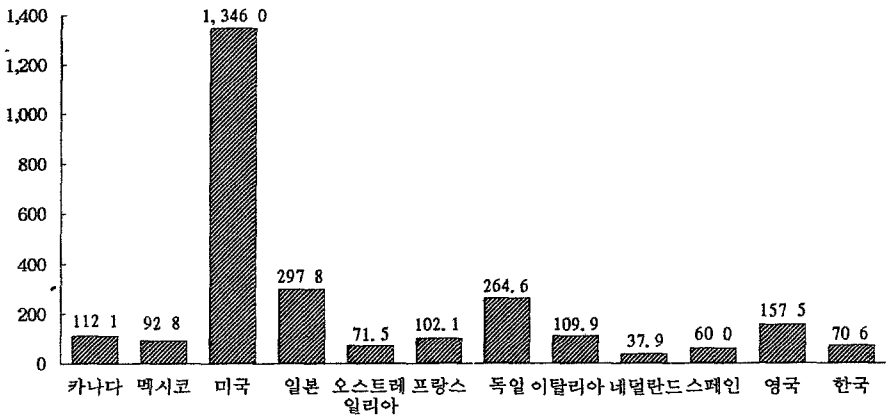
X. 환 경

미국은 CO_2 배출량이 가장 많으며, 우리나라도 높은 수준

○ 「UN통계연감」에 따르면 환경오염도의 지표로 사용되는 CO_2 배출량은 미국이 91년도에 13억 4,597 만톤을 배출한 것으로 나타나 2위인 일본(2억 9,780만톤)의 4.5배, 3위인 독일(2억 6,464 만톤)의 5.1배를 기록

- 영국(4위), 카나다(5위), 이탈리아(6위), 프랑스(7위) 등 주요 공업선진국은 모두 CO_2 배출량이 많은 국가들로 나타났음
- 우리나라도 7,061만톤을 배출하여 멕시코(9,276만톤), 오스트레일리아 (7,146만톤)에 이어 10번째로 CO_2 배출량이 많은 국가로 나타났음

CO_2 배출량 (1991, 100만탄소톤)



<표 > CO_2 배출량(1991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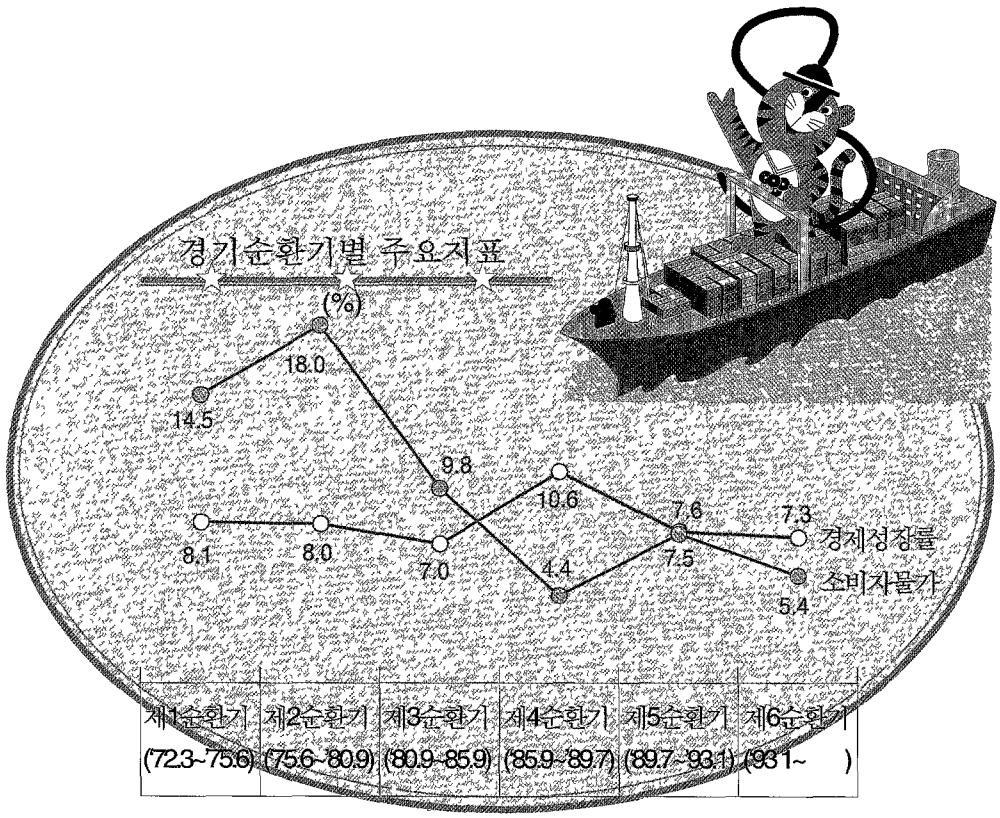
(단위 : 천탄소톤)

순위	국 가		순위	국 가	
1	미 국	1,345,969	7	프 랑 스	102,105
2	일 본	297,802	8	멕 시 코	92,760
3	독 일	264,637	9	오스트레일리아	71,457
4	영 국	157,521	10	한 국[1]	70,608
5	카 나 다	112,071	11	스 페 인	60,010
6	이탈리아	109,857	12	터 키	38,907

주 : 1) 시멘트 제조과정에서 배출되는 CO_2 미포함

자료 : 통상산업부 『기후변화 협약관련 국가보고서』 1995, UN 『UN통계연감』 1993

광복이후 50년간의 경제일지



『경기종합지수가 작성된 '70년 이후의
우리 경제는 모두 6회의 경기순환변동을 경험하였으며,
경기순환기간은 최단 39개월에서
최장 63개월로 나타났다.』

- 본문중에서 -

광복이후 50년간의 경제일지

1995. 5

통계조사국 통계분석과

1. 主要 經濟施策 收錄

○ '45년 8월부터 '95년 4월까지 시행된 약 1,200여개 주요 경제시책의 추진배경과 내용 등을 요약하여 시행날짜 순서대로 수록함.

— 光復이후 현재까지의 경제시책을 再照明함으로써 세계화를 향한 우리 경제의 나아갈 座標를 설정하는 데 기여하기 위함.

○ 이러한 경제시책을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별도로 경제시책 目錄을 시행날짜 순서대로 수록함.

— 아울러 同 목록을 조세·재정, 통화·금융, 자본시장 등 15개 부문으로 구분함.

< 年代別 部門別 經濟施策 收錄 件數 >

부 문	계	40년대	50년대	60년대	70년대	80년대	90년대
계	1,235	36	81	158	173	301	485
o 종합경제운용	49	-	7	12	13	11	6
o 조세·재정	105	3	15	17	17	18	35
o 통화·금융	277	8	22	34	31	74	108
o 자본시장	111	-	1	10	12	22	66
o 산업·유통	75	-	1	3	10	20	41
o 농수산업	47	1	6	6	7	6	21
o 무역·관세·무역금융	158	9	5	22	27	39	56
o 외환	90	9	13	8	6	30	24
o 대외경제협력	26	2	5	7	4	5	3
o 부동산·건설·교통	114	-	-	4	19	36	55
o 정보·통신	16	-	-	7	-	4	5
o 물가·노동·임금	67	2	2	15	16	13	19
o 공정거래	11	-	-	-	-	5	6
o 국민생활·환경·에너지	51	-	2	4	7	9	29
o 기타	38	2	2	10	4	9	11

2. 景氣 循環變動 狀況

가. 景氣循環期 및 局面 持續期間

○ 景氣綜合指數가 작성된 '70년 이후의 우리 경제는 모두 6回의 景氣循環變動을 경험하였음.

— 경기순환기간: 最短 39개월, 最長 63개월

○ 局面 지속기간은 제 5순환기를 제외하고는 확장국면이 수축국면보다 훨씬 긴 非對稱적임.

— 확장국면 지속기간: 最短 18개월, 最長 44개월

— 수축국면 지속기간: 最短 16개월, 最長 24개월

※ 일본의 헤이세이(平成) 확장국면: 53개월('86.11～'91.4)

미국의 '82년 확장국면: 93개월('82.11～'90.7)

○ 현재의 경기는 제 6순환기의 확장국면에 위치함.

— '95년 5월은 景氣底點('93.1) 이후 28개월이 경과한 시점에 있음

순환기	기준순환일			국면지속기간(개월수)		
	저점	정점	저점	확장	수축	전순환
제 1순환기	'72.3	'74.2	'75.6	23	16	39
제 2순환기	'75.6	'79.2	'80.9	44	19	63
제 3순환기	'80.9	'84.2	'85.9	41	19	60
제 4순환기	'85.9	'88.1	'89.7	28	18	46
제 5순환기	'89.7	'91.1	'93.1	18	24	42
제 6순환기	'93.1	-	-	-	-	-

나. 景氣循環期別 景氣動向 比較

(전년동기비 평균, %)

	제1순환기 ('72.3~ '75.6)	제2순환기 ('75.6~ '80.9)	제3순환기 ('80.9~ '85.9)	제4순환기 ('85.9~ '89.7)	제5순환기 ('89.7~ '93.1)	제6순환기[1] ('93.1~)
o 경제성장률(GNP)	8.1	8.0	7.0	10.6	7.6	7.3 (95.1/4, 9.9)
o 확장국면 경기상승주도부문						
- 생 산	제조업, 도소매 및 음식 숙박업	제조업, 서비스업	제조업, 서비스업	제조업, 서비스업	건설업, 서비스업	제조업, 서비스업
- 수 요	총투자 수출	설비투자 수출	- 수출	설비투자 수출	건설투자 -	설비투자 수출
o 물가(소비자물가)	14.5	18.0	9.8	4.4	7.5	5.4
o 경상수지 (억불, 기간누계)	△ 43	△106	△135	323	△137	△ 81
o 임 금	21.2	31.5	13.8	12.5	18.3	13.1
o 실업률(비농가)[2]	7.2	5.8	5.8	3.8	2.8	2.9
※ 대외경제여건	제1차 석유파동 ('73.10)	중동건설 특수 제2차 석유파동 ('79.7)	선진국 경기침체	3저현상 (저유가, 저금리, 저달러)	선진국 경기침체	엔화강세 (저달러)

주1: 제 6순환기는 '93.1/4~'95.1/4

주2: 실업률은 원지수를 사용, 자료: 「매월 노동통계 조사보고서」, 노동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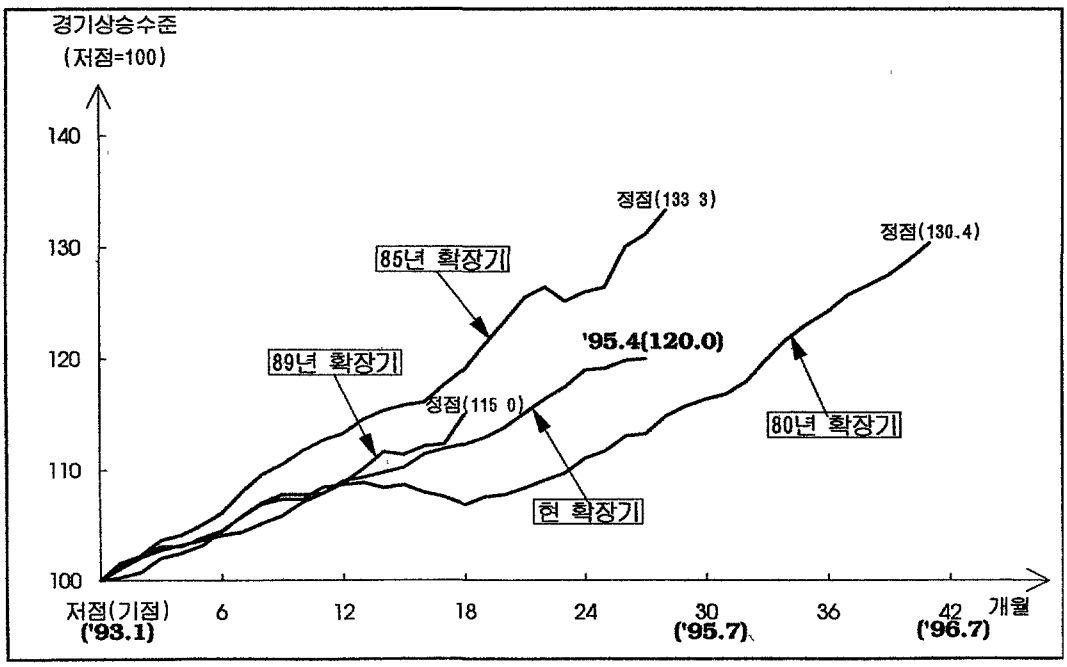
다. 現 擴張局面의 景氣 上昇 水準

○ 景氣綜合指數의(동행지수)로 현 확장국면의 경기 상승 수준을 가늠해 보면

— 경기 저점인 '93년 1월의 경기종합지수를 100이라고 할 때 저점후 27개월째인 '95년 4월은 120.0으로서 저점대비 20.0% 상승한 수준임.

○ 현 경기 상승 수준을 '80년 이후 순환기의 확장국면과 비교하여 보면

— 제 4순환기(85년 확장기)보다는 낮고 제 3순환기(80년 확장기) 보다는 높은 수준임.



제 1순환기('72.3~'75.6)

○ 높은 증가율의 수출이 경기확장을 주도하는 가운데 기업자금 수요에 부응하여 통화공급이 크게 증대함.

— 기업사채 동결 및 금리인하 등의 「8·3 조치」에 따라 경기확장이 가속화됨.

○ 중동전쟁(4차)에 따른 제 1차 석유파동('73.10월)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경기확장국면이 종료됨.

— 원유도입가격 상승에 따라 물가가 급등하고 수출이 둔화되면서 수축국면에 진입함.

(전년동기비 평균, %)

	순환기 평균	확장(72.3-74.2)	수축(74.2-75.6)
o 경제성장률(GNP)	8.1	9.3	7.2
o 민간소비	6.4	6.8	6.0
o 고정투자	17.2	16.9	19.4
- 건 설	17.4	19.5	21.5
- 설 비	19.4	14.7	21.9
o 경상수지(백만불)	△4,273	△1,071	△3,593
- 수 출	54.5	75.5	28.4
- 수 입	41.7	41.8	49.0
o 총통화(M2, 평잔)	29.0	31.5	25.8
o 소비자 물가	14.5	8.7	23.8

주: 경상수지는 기간누계

제 2순환기('75.6~'80.9)

○ 중동건설 특수와 수출호조에 힘입어 확장국면이 44개월간 지속함.

— 중화학공업 위주의 산업구조 조정 과정에서 설비투자가 급격히 증가함.

— 건설투자도 크게 신장하였으나 부동산 경기가 과열 현상을 보임.

○ 이란혁명으로 야기된 제 2차 석유파동('79.7월)으로 물가가 급등함.

— 「10·26 사건」 등 정치, 사회적 혼란으로 경기가 급속히 냉각되면서 경기확장이 종료됨.

(전년동기비 평균, %)

	순환기 평균	확장(75.6-79.2)	수축(79.2-80.9)
o 경제성장률(GNP)	8.0	10.0	3.8
o 민간소비	6.3	7.2	4.9
o 고정투자	16.7	23.4	2.6
- 건 설	13.9	18.7	4.2
- 설 비	25.3	34.9	3.9
o 경상수지(백만불)	△10,583	△3,375	△8,160
- 수 출	29.2	33.6	17.5
- 수 입	23.7	24.0	26.1
o 총통화(M2, 평잔)	31.4	33.5	26.5
o 소비자 물가	18.0	15.9	22.3

주· 경상수지는 기간누계

제 3순환기('80.9~'85.9)

○ 세계 경제의 침체로 수출 증가율이 비교적 낮았고 경기 확장도 완만하게 진행됨.

— 특히 '82년에는 수출 부진에 따른 일시적 경기 위축을 보임.

○ 물가 상승률이 과거에 비해 낮아지면서 안정성장기조가 가시화되고

— 주요국의 보호무역주의가 강화되어 수출이 크게 둔화되면서 경기가 수축됨.

(전년동기비 평균, %)

	순환기 평균	확장(80.9-84.2)	수축(84.2-85.9)
o 경제성장률(GNP)	7.0	7.0	8.0
o 민간소비	6.1	5.8	7.1
o 고정투자	6.0	5.8	7.6
- 건 설	7.8	9.0	6.0
- 설 비	3.8	1.7	10.6
o 경상수지(백만불)	△13,464	△11,997	△2,137
- 수 출	12.0	13.8	11.1
- 수 입	6.6	7.0	7.7
o 총통화(M2, 평잔)	20.5	24.5	10.9
o 소비자 물가	9.8	12.8	2.3

주: 경상수지는 기간누계

제 4순환기('85.9~'89.7)

○ 저유가, 저달러, 저금리 등 「3저·현상」의 유리한 대외경제 여건 속에서 경기가 크게 상승함.

— 수출 및 설비투자가 경기를 주도하고 물가도 비교적 안정됨.

○ '88년이후 극심한 노사분규로 인하여 임금, 부동산 가격 및 물가가 크게 오르면서 수축국면으로 연결됨.

— 다만 수축국면에서의 설비투자 및 건설투자가 활발하여 경기수축의 심도는 비교적 작게 나타남.

(전년동기비 평균, %)

	순환기 평균	확장(85.9-88.1)	수축(88.1-89.7)
o 경제성장률(GNP)	10.6	11.6	9.8
o 민간소비	8.7	8.0	9.9
o 고정투자	12.9	12.7	13.9
- 건 설	10.4	8.1	14.2
- 설 비	17.0	19.7	13.7
o 경상수지(백만불)	32,269	17,519	17,653
- 수 출	21.0	23.9	18.5
- 수 입	18.6	17.3	23.7
o 총통화(M2, 평잔)	17.6	17.1	18.7
o 소비자 물가	4.4	3.3	6.5

경상수지는 기간누계

제 5순환기('89.7~'93.1)

○ 주택 200만호 건설 계획에 의한 신도시 건설 등 건설경기가 확장국면을 주도함.

— 수출이 부진한 가운데 건설부문 중심으로 임금 및 부동산가격이 급등하였음.

○ 과열된 건설경기가 진정되고 소비가 둔화되면서 경기는 급격히 수축함

— 미국, 일본 등 선진국 경제의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수출부진이 계속되어 경기수축의 심도가 크게 나타났음.

(전년동기비 평균, %)

	순환기 평균	확장(89.7-91.1)	수축(91.1-93.1)
o 경제성장률(GNP)	7.6	8.8	6.8
o 민간소비	8.9	10.4	7.8
o 고정투자	12.6	23.0	5.1
- 건 설	15.2	27.5	6.2
- 설 비	9.4	17.4	3.8
o 경상수지(백만불)	△13,726	△3,421	△14,037
- 수 출	6.2	3.5	8.7
- 수 입	10.3	16.0	7.4
o 총통화(M2, 평잔)	19.0	19.9	18.3
o 소비자 물가	7.5	7.9	7.4

주: 경상수지는 기간누계

제 6순환기('93.1~)

○ 수출과 설비투자가 경기를 주도하는 확장국면이 지속되고 있음.

— 제조업 생산은 중화학공업 중심으로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 경공업은 후발 개도국과의 경쟁으로 구조조정과정에 있음.

○ 총통화 및 물가는 비교적 안정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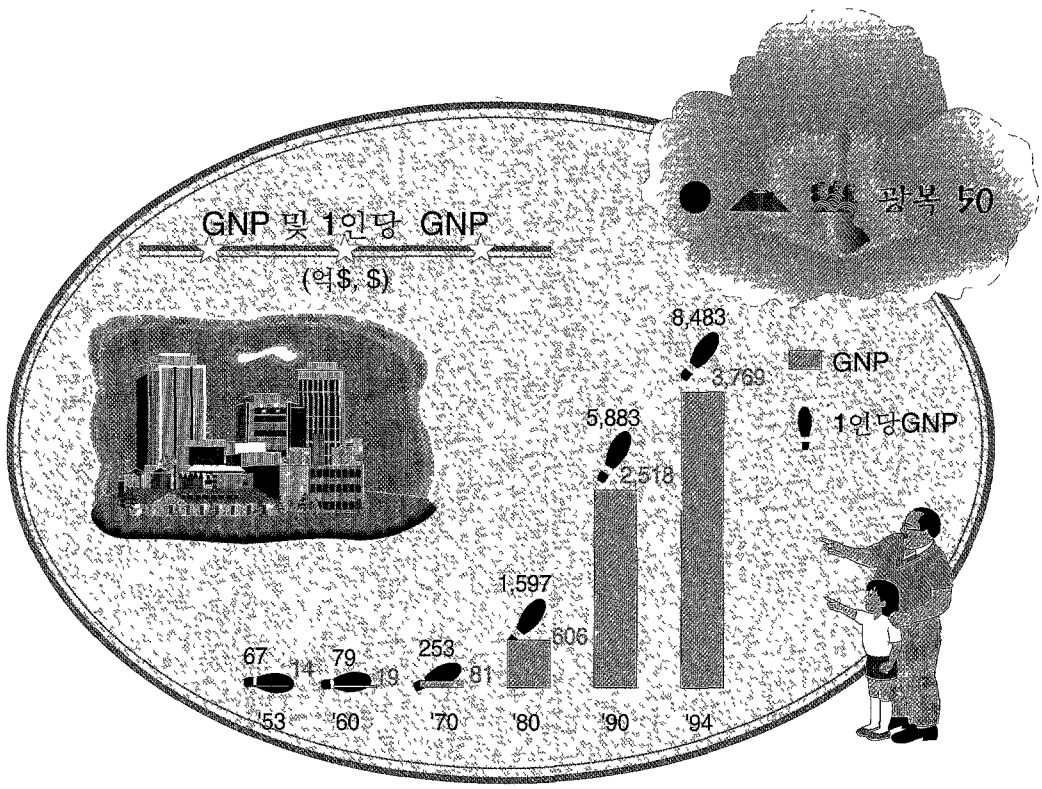
— 제 4순환기 확장국면과 비슷한 경기확장 양상을 보임.

(전년동기비 평균, %)

	순환기 평균	'93년	'94년	'95년(1분기)
o 경제성장률(GNP)	7.3	5.8	8.2	9.9
[GDP]	[7.3]	[5.8]	[8.4]	[9.9]
o 민간소비	6.5	5.7	7.4	8.7
o 고정투자	8.4	5.2	11.7	15.6
- 건 설	6.6	8.9	4.6	8.0
- 설 비	11.6	△ 0.1	23.3	25.2
o 경상수지(백만불)	△8,147	384	△4,778	△3,753
- 수 출	14.0	11.3	16.2	23.8
- 수 입	14.8	6.7	21.8	22.9
o 총통화(M2, 평잔)	17.2	18.6	15.6	17.7
o 소비자 물가	5.4	4.8	6.2	4.6

주: 경상수지는 기간누계

통계로 본 한국의 발자취



『'53년 당시 국민총생산액 (GNP: 경상금액)은 479억원(14억불)에 불과하였으나
'94년 현재로는 302조 8,670억원(3,769억불)에 달하여 무려 6,323배나 늘어났다
국민 1인당 GNP는 '53년 67불에서
'94년 현재 8,483불로 126.6배 늘어났다.』

- 본문중에서 -

통계로 본

「한국의 발자취」

1995. 8

자료관리국 자료관리과

1. 국토 · 인구

국토 총면적 6.2% 넓어지고, 공장용지 면적은 161배('76년 대비) 늘어나

○ **국토 총면적**은 '49년 당시 93,634㎢에서 '93년 현재 99,392㎢로 6.2% 늘어났다. **농경지 면적**은 국토 총면적의 21.9%('49년)에서 21.4%로 0.5%「포인트」 낮아졌다. **공장용지 면적**은 '76년에 비해 161배 늘어났고, **학교용지 면적**은 22.2배, **공원 · 체육용지 면적**은 30배(각각 '76년 기준) 늘어났다.

도시면적은 6.1% 늘어난데 비해, 도시인구는 4.6배 늘어나('60년 대비)

○ 시부면적은 '60년 당시 전국토의 2.8%에서 '90년 현재 8.9%로 6.1%「포인트」(실면적 기준으로는 3.2배) 늘어난데 비해 시부거주인구는 '60년 당시 총인구의 28.0%에서 '90년 현재 74.4%로 46.4%「포인트」(실제 인구수로는 4.6배) 늘어났으며, 군부면적은 '60년 당시 97.2%에서 '90년 현재 91.1%(실면적으로는 5.5%「포인트」감소)로, 군부인구는 72.0%에서 25.6%로(실제 인구수로는 38.3%「포인트」감소) 줄어들었다.

총인구 '48년 2천만, '67년 3천만, '84년 4천만 넘어서

○ **우리나라 인구**는 '45년 16,873천명(당시 미군정청 추계자료)에서 '95.7.1 현재 44,851천명으로 2.66배 늘어났다. 인구가 **2천만명**이 넘어선 해는 '48년, **3천만명**이 넘어선 해는 '67년, **4천만명**이 넘어선 해는 '84년으로 추계되고 있다. **남녀간 성비**는 '60년 당시 100.7에서 '95년 현재는 101.4명 수준으로 바뀌었고, **인구밀도**는 '60년 당시 254.1명/㎢에서 451.3명/㎢로 1.8배나 조밀해졌다. **한 가구당 평균가구원수**는 '60년 5.7명에서 '90년 3.8명으로 핵가족화와 더불어 1.9명이 낮아졌다.

0~14세 유년인구비율 크게 줄어 노동력인구의 부양 부담도 크게 낮아져

○ '47년 당시 0~14세의 유년인구 39.3%, 15~64세의 노동력인구 57.2%, 65세 이상 노년인구 3.5%로 구성되어 있던 **인구구조**는 '95년 현재 0~14세 23.2%, 15~64세 71.1%, 65세이상 5.7%로 유년인구 비율이 크게 줄어든 대신 노동력인구인 15~64세 인구가 크게 늘어났다.
이에 따라 15~64세 인구가 부양해야 하는 유년 및 노년인구 비율을 나타내는 **총부양비**는 '47년 당시 75.0%에서 '95년 현재 40.6%로 줄어들었다.

경제·사회·보건수준의 향상과 가족계획의 성공으로 유년인구 비중은 줄어든 대신 노인인구 비중은 늘어나, 연소층인구(0~14세)에 대한 노년층 인구(65세 이상)의 비율을 나타내는 **노령화지수**는 '47년 당시 9.0%에서 '95년 현재 24.5%로 크게 높아졌다.

조출생률 2.5배, 조사망률 2. 2배('60년 기준),
영아사망률 5.1배('70년 기준) 낮아져

○ 인구천명당 출생아수를 나타내는 **조출생률**은 '60년 당시 42.1명에서 '93년 현재 16.7명으로 2.5배나 떨어졌으며, 인구천명당 사망자수를 나타내는 **조사망률**도 '60년 12.1명에서 '93년 5.6명으로 2.2배나 낮아졌다. '70년 당시만해도 출생아 천명중 1년안에 사망하는 영아수(영아사망률)가 무려 49명을 넘었으나, '91년 현재는 9.6명선으로 크게 줄어들었다.
인구증가율은 '66년 당시 2.6%선에서 '93년 현재 0.9%로 낮아졌다.

국민평균수명 '60년에 비해 19.2세 늘고,
국민평균연령은 23세에서 31세로 높아져

○ **국민평균수명**은 '60년 52.4세(남자 51.1세, 여자 53.7세)에서 '91년 현재 71.6세(남자 67.8세, 여자 75.7세)로 19.2세(남자 16.7세, 여자 22.0세)나 높아졌다.
국민평균연령은 '60년 23.0세(남자 22.2세, 여자 23.7세)에서 '95년 현재 31.2세(남자 30.2세, 여자 32.2세)로 8.2세(남자 8.0세, 여자 8.5세) 높아졌다.

유배우, 사별 인구비율 줄고, 미혼 인구비율은 크게 늘어나

○ '47년 당시 15세 이상 인구 중 **유배우 인구비율**은 남자 70.1%, 여자 74.0%였고, **사별 인구비율**은 남자 4.5%, 여자 14.4%였으며 **이혼 인구비율**은 남자 1.0%, 여자1.0%, **미혼 인구비율**은 남자 24.3%, 여자 10.7%였다. 경제수준과 보건의료수준의 향상, 국민의식의 변화 등에 따라 '90년 현재 유배우 인구비율은 남녀 각각 59.3%, 58.8%로 낮아졌고, 사별 인구비율 역시 남녀 각각 1.8%, 12.5%로 낮아졌으며, 상대적으로 미혼 인구비율은 남녀 각각 38.2%, 27.8%로 높아졌다. 이혼 인구비율은 남녀 각각 0.7%, 0.9%로 예전과 거의 다름이 없는 수준이나, 인구 천명당 이혼 건수를 나타내는 **조이혼율**은 '70년 당시 0.39건이었던데 비해 '93년 현재 1.45건으로 3.7배 늘어난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55년 당시 국졸 이하가 92%, 현재는 고졸 이상이 48% 이상

○ **25세 이상 국민의 학력구성비**를 보면 '55년 당시 국졸이하 91.8%(남자 86.0%, 여자 97.1%), 중졸 5.3%(남자 8.9%, 여자2.0%), 고졸 1.7%(남자 2.7%, 여자 0.7%), 대졸이상 1.3%(남자 2.4%, 여자 0.3%)로 국졸이하가 대부분이었으나, '90년 현재 국졸이하는 33.4%(남자 23.3%, 여자 43.0%)로 비율상으로 따져서 2.7배(남자 3.7배, 여자 2.3배)나 낮아졌으며, 중졸 19.0%(남자 17.6%, 여자 20.3%), 고졸 33.5%(남자 38.9%, 여자 28.4%), 대졸이상 14.1%(남자 20.1%, 여자 8.3%)로 국민의 학력은 크게 높아졌다.

'60년 당시 가임여성의 평균출산자녀수는 6명, 현재는 1.8명 수준

○ 한 여성이 가임기간(15~49세)동안 평균 몇 명의 자녀를 출산하는가를 나타내는 **합계출산율**은 '60년 당시 6.0명이었으나 '93년 현재로는 1.8명에 그치고 있어 장기적으로 볼 때 인구가 감소할 소지를 안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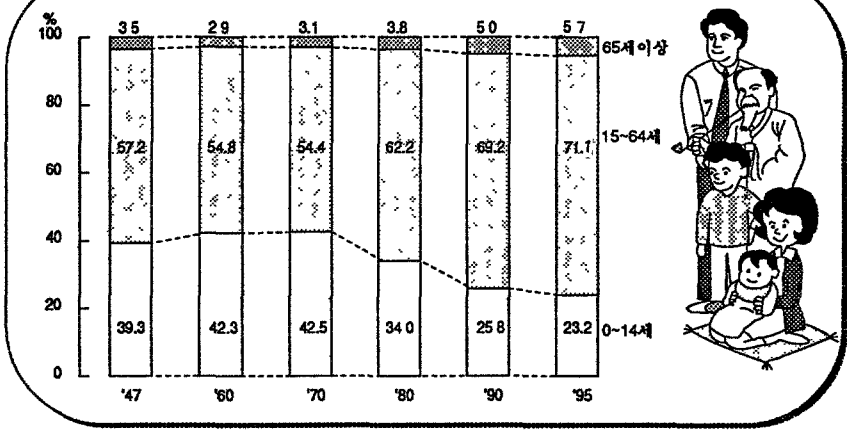
영·유아 천명당 사망수 13~14명에서 0.8~0.9명으로 낮아져

○ **성별·연령별 사망률**을 보면 '47년 당시 0~9세의 영·유아 사망률은 남녀 각각 천명당 남자 13.5명, 여자 14.1명이었으나 '93년 현재 남자 0.9명, 여자 0.8명 수준으로 낮아졌고, 10~19세 사망률은 남자 2.2명, 여자 2.6명에서 각각 0.7명, 0.3명으로 낮아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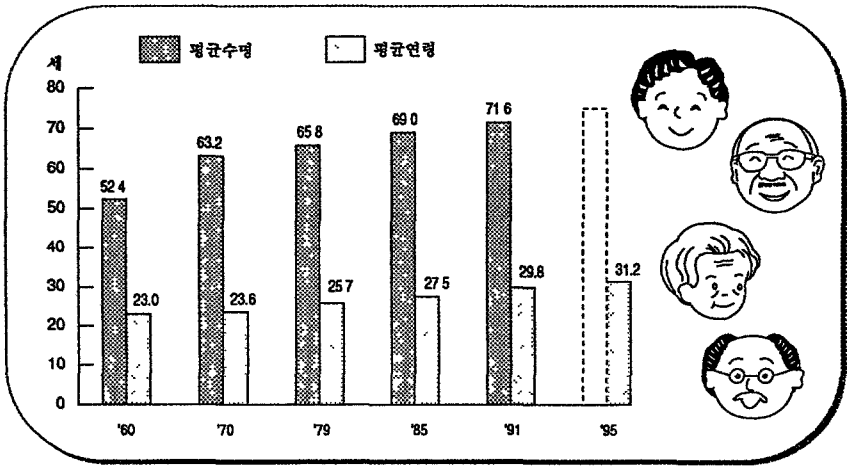
'75년 당시 인구 백명 중 26.4명이 이사, 현재는 19.8명 수준

○ '67년 당시 국민의 이사비율(**인구이동률**)은 인구 백명당 12.8명이었으나 경제개발이 본격화 되면서 점차 늘어나기 시작하여 '75년에는 26.4명 수준까지 늘어났다. 이후 다시 증가·축소를 지속하면서 '93년 현재로는 19.8명 수준에 이르고 있다.

연 령 구 조



국민 평균수명 및 평균연령



2. 농림어업

농가당 경지면적은 83아르에서 129아르로 늘어나

○ 경지면적은 '49년 당시 2,053천ha였던 것이 '72년에는 2,242천ha('49년 대비 9.2% 증가)까지 늘어났으나, 이후 점차 다시 줄어들기 시작하여 '93년 현재로는 2,055천ha를 나타내고 있다. 경지면적 중 논,·밭의 구성비는 '49년 당시 59.7%대 40.3%였으나, '93년 현재로는 63.2%대 36.8%로 그 차이가 늘어났다. 가구당 경지면적은 '49년 당시 83.3a(논 49.6a, 밭 33.7a)에서 '93년 현재 129.0a(논 81.5a, 밭 47.5a)로 54.9%(논 64.3%, 밭 40.9%) 늘어났다.

식량작물면적 비율 줄고, 채소·과실 재배면적 비율은 크게 늘어나

○ 경지이용면적 중 식량작물 면적은 '50년 당시 90.4%에 이르렀으나 '94년 현재 63.6%수준으로 떨어졌고, 채소재배면적은 '50년 당시에 비해 3.7배, 과실 재배면적은 8.1배 늘어났다.

농가인구 2.8배('49년 대비) 줄어

○ 농가수는 '49년 당시 2,474천호였으나, '94년 현재는 1,558천호로 37.0% 감소하였고, 농가인구도 14,416천명에서 5,167천명으로 2.8배나 줄어들었고, 총인구에 대한 농가인구비율도 71.4%에서 11.5%로 크게 낮아졌다.
농가1호당 인구수도 '49년 5.8명에서 '94년 현재 3.3명으로 낮아졌다.

○ '51년 당시만해도 전업농가수는 총농가수의 89.1%를 차지하였으나, '94년 현재로는 59.8%에 지나지 않는다.

○ '51년 당시만해도 전체농가의 절반에 가까운 42.7%가 불과 0.5ha미만의 경지를 경작하였고, 0.5~1.0ha미만 농가도 35.8%에 달하여 총농가의 78.5%가 1ha 미만의 경지면적규모를 보유하고 있었다. '94년 현재 0.5ha미만은 29.1%, 0.5~1.0ha미만은 28.8%로 대폭 줄어든 대신 1.0~2.0%ha미만 28.4%, 2.0~3.0ha 미만 8.0%, 3.0ha 이상 4.2%로 1.0ha 이상의 상위 경지규모별 농가비율이 '51년 당시에 비해 19.1%나 늘어났다.

50세 이상 농가인구 비율 크게 높아져

○ **연령계층별 농가인구구성**을 보면 '55년 당시 15세 미만 41.1%, 15~19세 12.9%, 20~49세 30.7%, 50~59세 10.6%, 60세 이상 4.7%였던 것이 '94년 현재로는 15세 미만과 15~19세 인구는 각각 16.2%, 9.2%로 크게 줄어들었고 20~49세 인구는 31.0%로 비슷한 구성비를 유지하고 있으나, 50~59세, 60세 이상 인구비율은 각각 18.3%, 25.2%로 크게 늘어났다.

농가 1호당 연평균 소득은 '65년 대비 명목소득기준 151배, 실질소득기준 8배 늘어

○ '93년 현재 **농가 1호당 연간 평균소득(명목)**은 16,928천원으로 '54년에 비하여는 1,128.5배, 소비자물가지수가 발표되기 시작한 '65년에 비하여는 151.1배가 늘어났다. 그러나 '65~'93년간 소비자물가지수도 6.8에서 121.7('90=100)로 17.9배 상승하였으므로 '65년 불변가격기준으로 재계산하면 '93년 소득은 945.7천원으로 '65년에 비해 약 8.4배 늘어난 셈이다.
농가 1호당 연간 평균소득(명목) 중 **농업소득**은 '54년 당시 86.7%로 거의 대부분이었으나 '93년 현재는 49.8%로 절반이하 수준으로 떨어진 대신, **농외소득**은 '54년 당시 6.7%에서 '93년 현재 30.0%로 확대되었으며, **이전수입** 역시 6.7%에서 20.4%로 확대되었다.
농가소득에서 농가지출을 뺀 **농가경제잉여**는 '54년 당시만해도 0이었으나, '93년 현재 4,276천원으로 농가소득의 25.3%에 이르고 있다.

○ **호당평균 연간 농업경영비(명목)**는 '54년에 비해 2,250배 늘어났으며 농업경영비 중 50.0%를 차지하였던 노임비는 농촌일손의 부족과 영농기계화로 인해 '93년 현재 9.1%로 낮아졌고, 대신 자재 및 동물비가 '54년 당시 50.0%에서 '93년 현재 63.5%로 높아졌고, 임차료 및 수리비도 '54년 당시 거의 0%에 가까웠던 것이 '93년 현재로는 19.8%로 높아졌다.

농가 1호당 자산총액은 '53년 대비 명목기준 4,593배 늘어

○ '93년 현재 **농가 1호당 자산총액**은 133,199천원(명목)으로 '53년에 비해 4,593.1배 늘어났다.

경운기 100호당 1대에서 2호당 1대꼴로 늘어나

○ **농업용 기계 중 경운기**는 '72년 당시만해도 농가 100호당 1대에 불과하였으나 '93년 현재로는 2호당 1대꼴인 50.2대가 되었다. **농업용 트랙터**는 '66년만해도 불과 20대 뿐이던 것이 '93년 현재 76.8천대로 늘어났고, **이앙기**는 '73년 당시 6대 뿐이었으나 '93년 현재 211.3천대로 늘어났다. 콤바인·바인더 등 **수확기**는 '78년 당시만해도 100가구당 0.2대에 불과하였던 것이 '93년 현재 8.3대로 늘어났다.

쌀 생산량은 '45년 대비 2.7배, 10a당 생산량도 2.6배 늘어나

○ **쌀 생산량**은 '45년 광복 당시 1,848.4천M/T이었던 것이 '88년 한때 6,053.5천M/T까지 늘어났으나 '94년 현재 5,059.8천M/T수준으로 '45년에 비해 2.7배 늘어난 수준이며, **10a당 생산량**도 '45년 175kg에서 '94년 현재 459kg으로 2.6배 늘어난 수준을 보이고 있다.

○ **국민 1인당 연간 양곡소비량**은 '84년 당시 농가 190.0kg, 비농가 135.3kg이던 것이 '93년 현재 각각 162.6kg, 116.2kg으로 줄어들었다. 특히 **1인당 연간 쌀 소비량**은 '84년 당시 농가 163.7kg, 비농가 119.9kg에서 '93년 현재로는 농가는 152.3kg으로, 비농가는 104.1kg수준으로 줄어들었다.

○ 주곡 및 잡곡 등을 포함한 **식량자급도**는 '65년 당시 93.9%였던 것이 '93년 현재 33.9%로 현저히 낮아졌으며, 주곡(쌀과 보리쌀)자급도는 '65년 당시 102.1%에서 '93년 현재 95.4%로 낮아졌다.

'45년 대비 수박은 69배, 양파는 601배 생산 늘어

○ **채소 생산량**을 보면 무우는 '94년 현재 1,593천M/T을 생산하여, 광복 당시인 '45년에 비해 8.2배, 배추는 2,689천M/T으로 16.6배, 양배추는 169천M/T으로 46.9배, 수박은 858천M/T으로 69.2배, 고추는 290천M/T으로 21.2배 늘어났으며, 양파는 541천M/T으로 무려 601.3배가 늘어났다.

○ **과실 생산량**을 보면 사과는 '94년 현재 616천M/T을 생산하여 '45년 대비 39.7배, 배는 164천M/T으로 12.9배, 포도는 212천M/T으로 96.1배, 복숭아는 115천M/T으로 17.8배 늘어났으며, 밀감의 경우 '94년 현재 549천M/T으로 '92년 이후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으나, '60년에 비해 2,889.3배 늘어난 수준

이다.

특용작물 중 참깨는 '94년 현재 28천M/T으로 '45년대비 18.4배, 들깨는 24천 M/T으로 16.1배, 땅콩은 17천M/T으로 162.9배 늘어난 수준이다.

헥타아르당 비료소비는 '49년 대비 약 5배 늘어나

○ ha당 비료소비량은 '49년 당시만해도 97.9kg에 불과하였으나 '93년 현재는 474.0kg으로 4.8배 가까이 늘어났다.

'45년 대비 한육우 4배, 젖소는 276배 늘어

○ 가축사육두수를 살펴보면 한육우는 '94년 현재 2,393천마리가 사육되고 있어 '45년에 비해 4.0배, 젖소는 552천마리로 276.0배, 돼지는 5,955천마리로 30.5배, 닭은 80,569천마리로 53.1배, 오리는 1,698천마리로 849.0배 늘어났다.

'55년 당시 산림면적의 절반이 붉은 산, 현재는 97%가 푸른 산림으로 변해

○ 산림면적은 '94년 현재 6,456천ha로 '50년당시에 비해 0.6%증가에 불과하지만 임목축적(임목이 위치한 가로,세로 높이의 입방체적)은 '94년 현재 295.8백만㎥로 '50년 당시에 비해 9.6배 더 늘어났다. '55년 당시만 하더라도 전국 산림면적의 절반이 못되는 48.8%만이 임목지(무임목지는 45.3%, 미조사지 등이 3.5%로 되어 있음)였던 것이 '94년 현재에는 97.2%가 임목지로 변하였다. 예전에 우리 곁에 흔히 보였던 붉은 산들이 이제는 푸른 산림으로 거의 변해 있다.

'70년 대비 농축산물 수출은 32배, 수입은 13배 이상 늘어나

○ '93년 현재 농축산물 수출은 810백만불, 임산물 수출은 454백만불로 '70년에 비해 각각 32.4배, 4.1배 늘어나긴 하였으나 수입액 규모에 비하여는 불과 18%, 17%수준에 지나지 않는다. 농축산물 수입은 '93년 현재 4,571백만불로 '70년에 비해 13.4배 늘어났고, 임산물 수입은 2,698백만불로 21.1배 늘어났다.

어가인구는 총인구 대비 2.1%('46년)에서 0.9%로 낮아져

○ '46년 당시 **어가수**는 158천호, **어가인구**는 408천명(총인구의 2.1%추정)이었고 '67년에는 242천호, 1,477천명(총인구의 4.9%)까지 늘어났으나 '93년 현재로는 114천호, 405천명(총인구의 0.9%)에 지나지 않는다. **실제 어업 종사자수**는 '46년 273천명에서 '67년에는 591천명까지 늘어났으나, 이후 계속 감소하여 '93년 현재 207천명으로 줄어들었다.

어가소득은 '80년 대비 명목 5.6배, 실질 2.5배 증가

○ **어가소득**은 '80년 당시 2,596천원, '93년 현재 14,432천원(명목)으로 명목상으로 5.6배 늘어났다(소비자물가 상승을 감안하여 '80년 불변으로 계산하면 '93년 현재 6,472천원으로 약 2.5배 증가). 어가지출을 제한 **어가경제잉여**는 '80년 456천원에서 '93년 4,456천원(명목)으로 명목상 9.8배 늘어났다('80년 기준 불변가격으로는 1,998천원으로 4.4배 증가).

총어획량 '45년 대비 15.3배 늘고, 양식업·원양어업 비중 높아져

○ '45년 당시 **총어획량**은 228천M/T, '94년 현재로는 3,477천M/T으로 15.3배 늘어났다. **총어획량 중 어류어획량**만으로는 '94년 현재 1,728천M/T으로 '45년에 비해 9.8배 늘어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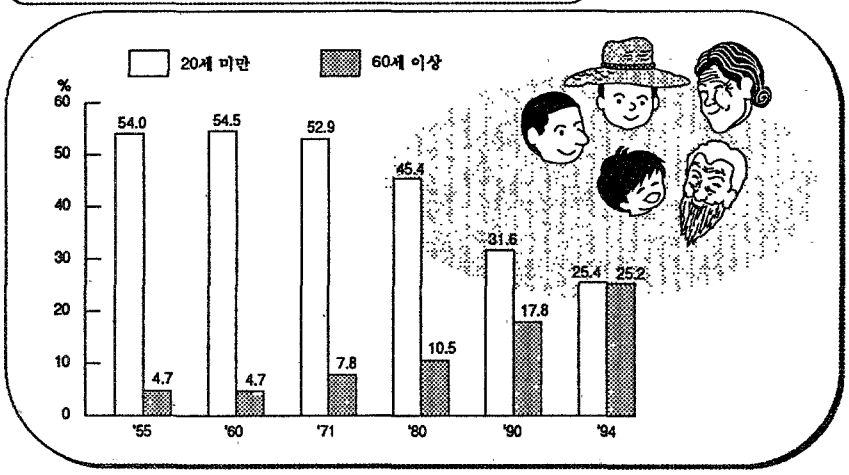
○ **어업부문별 어획량 구성비율**도 '62년 당시 일반해면어업 94.3%, 천해양식업 4.1%, 원양어업 0.4%, 내수면어업 0.2%였으나, '94년 현재 일반해면어업 비중은 42.7%로 크게 줄어든 대신 천해양식업과 원양어업 비중이 각각 30.8%와 25.5%로 늘어났다.

○ '58년 당시만해도 **총어선수**는 28천척, 톤수로는 83천톤, '93년 현재 87천척, 920천톤으로 척수로는 3.1배, 톤수로는 11.1배 늘어난 셈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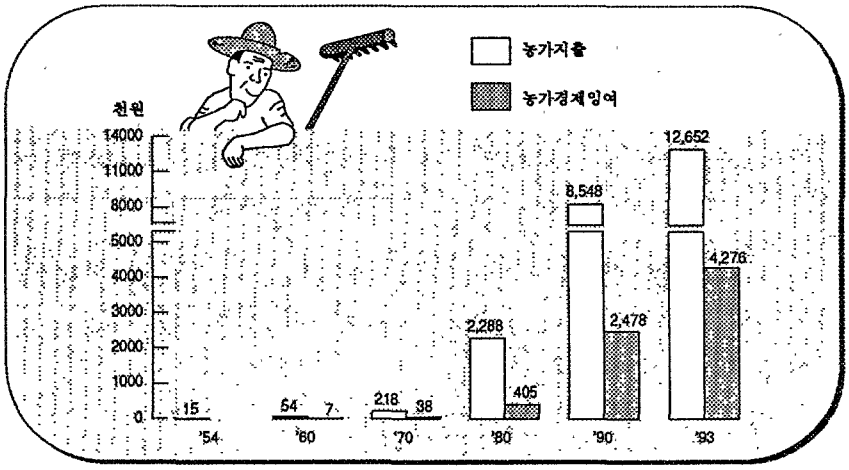
수산물 수출 '52년 대비 45.3배 늘어

○ **수산물 수출**은 '52년 당시 3.3백만불에 불과하였으나, '93년 현재 1,497백만불에 달하여 '52년에 비해 453.6배 늘어났으며 **수산물 수입**은 '70년 당시 0.4백만불에 지나지 않았으나, '93년 현재 542백만불로 1,355배 늘어났다.

연령 계층별 농가인구 비율



농가지출, 농가 경제잉여



3. 광공업

금속광업, 석탄광업 퇴조, 기타 광업만 명맥 유지

○ '55년 당시 전국 **광업체수**는 263개, **월평균 종사자수**는 29.7천명으로 금속광업체수 및 종사자수가 각각 55.1%, 47.7%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93년 현재 광업체수는 1,512개, 월평균 종사자수는 42.5천명으로 '55년에 비해서는 각각 5.7배와 43.1%로 늘어났으나, '86년 이후 점차 퇴조를 나타내고 있다. '93년 현재 기타광업사업체가 전체 광업체수의 94.4%를 차지하고 있고, 종사자수는 석탄광업 50.8%, 기타광업 46.8%, 금속광업 2.3%를 차지하고 있다.

○ **광업 생산액**은 '55년 11억원(명목)에서 '93년 현재 1조 4,995억원(명목)으로 1,363.2배 늘어났다.(생산자물가로 단순 환산하면 '93년 광업생산액은 '55년 불변 기준 359억원으로 32.6배 늘어난 셈이다)
업종별 광업생산액 구성도 '55년 당시 석탄광업 45.5%, 금속광업36.4%, 기타광업 9.1%였으나, '93년 현재로는 석탄광업 27.1%, 금속광업 2.5%, 기타광업 70.4%로 구조가 완전히 바뀌었다.

금 생산량 '45년 대비 63배 늘어나

○ **주요 광산물 생산량**을 보면 **무연탄**은 광복당시인 '45년에 150천M/T, '88년 한 때 24,295천M/T까지 채탄되었으나, '94년 현재는 7,438천M/T로 광복당시에 비해서는 49.6배 늘어난 셈이나, 사양화의 길을 걷고 있다.
철광석은 '45년 당시 13천M/T, '94년 현재 191천M/T으로 광복 당시에 비하여는 14.7배 늘어난 셈이나, 역시 사양화되고 있고 중석광석, 동광석은 현재 생산이 없는 상태로까지 변하였다.
금생산량은 '45년 당시 197kg에서 '94년 현재 12,332kg으로 62.6배 늘어 났으며, **은생산량**은 '45년 858kg에서 '94년 현재 257,498kg으로 300.1배 늘어났다.

종업원 5인 이상 제조업체수 '55년 대비 10배, 종사자는 13배 늘어

○ **종업원 5인이상의 제조업 사업체수**는 '55년 8,628개 공장에서 '93년 현재 88,994개 공장으로 약 40년간 10.3배 늘어났고, **종사자수**는 221천명에서 2,888천명으로 변하여 13.1배 늘어났다.

절대사업체수가 가장 많이 늘어난 업종은 조립금속제품 및 기계장비 제조업으로 '55년 당시 868업체에서 '93년 현재 32,639업체로 31,771개 업체가 늘어 났으며, 다음이 섬유·의복 및 가죽제품 제조업으로 17,594개 업체('55년 3,218개, '93년 20,812개)가 늘어났다. **사업체수 증가배수**로도 조립·금속 제품 및 기계장비 제조업은 '93년 현재 '55년의 37.6배 수준으로 늘어났고, 기타 제조업은 18.0배, 화학, 석유, 석탄,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은 16.3배 늘어났다.

제조업 중 주산업은 섬유·의복업에서 조립금속·기계장비업 으로 바뀌어

○ **사업체수 기준 업종별 구성비**를 보면 '55년 당시에는 섬유, 의복, 가죽산업 37.3%, 음식료품 및 담배 21.9%, 조립금속 및 기계장비 10.1%, 제재 및 나무제품 8.5%,비금속광물제품 6.8%, 화학·석유·석탄·고무 및 플라스틱 5.8%, 종이·인쇄출판 5.4%, 제1차 금속 2.3%, 기타 제조업 1.9%였다.
'93년 현재로는 조립금속 및 기계장비 제조업이 36.7%로 가장 많고, 다음이 섬유, 의복, 가죽산업 23.4%이며, 화학, 석유, 석탄, 고무 및 플라스틱 9.2%, 종이·인쇄출판 7.5%, 음식료품 및 담배 6.5%, 제재 및 나무제품 5.9%, 비금속광물제품 5.3%, 기타제조업 3.2%, 제1차 금속산업 2.3%가 차례를 잇고 있다.
종업원수가 가장 많기로는 '55년 당시에는 섬유, 의복, 가죽산업(42,1%), 음식료품 및 담배(16.0%), 화학, 석유, 석탄, 고무 및 플라스틱(10.6%), 조립금속제품 및 기계장비(8.6%) 등 순이었으나, '93년 현재로는 조립금속제품 및 기계장비(40.7%), 섬유·의복 및 가죽산업(22.0%), 화학, 석유, 석탄, 고무 및 플라스틱(10.5%), 음식료품 및 담배 제조업(7.1%) 등 순으로 변하였다.

제조업 생산액 '55년 대비 명목기준 10,130배 실질기준 243배 늘어

○ **제조업 생산액(명목)**은 '55년 당시 253억원이었으나, '93년 현재 256 조2,765억원으로 명목생산액은 무려 10,130배 늘어났다.(생산자 물가지수로 제한 '93년 현재의 '55년 기준 불변 생산액은 6조 1,355억원으로 이를 기준하면 약 243배 늘어난 셈이다)
명목생산액 크기 순으로는 '55년 당시는 섬유, 의복, 가죽(35.5%)이 1위였고, 2위는 음식료품 및 담배(26.5%)업종이었고, 그 다음으로는 화학, 석유, 석탄, 고무 및 플라스틱(10.6%), 조립금속 및 기계장비(7.5%), 제재 및 나무제품(6.7%), 종이 및 인쇄출판업(5.9%), 비금속 광물제품(3.1%), 제1차 금속산업(2.3%), 기타 제조업(2.0%) 순이었다. '93년 현재로는 조립금속 및 기계장비(39.9%)이 1위이고, 2위는 화학, 석유, 석탄, 고무 및 플라스틱(18.2%)이고, 그 다음

으로는 섬유, 의복 및 가죽(11.9%), 음식료품 및 담배(9.4%), 제1차금속(8.4%) 비금속광물(4.7%), 종이 및 인쇄출판(4.3%), 제재 및 나무(2.1%), 기타제조업(1.1%)순이다.

○ **월평균 종사자 규모별 제조업체 구성**을 보면 '55년 당시 종업원 100인 미만 업체가 97.2%, 100~199인 업체가 2.0%, 200인 이상 업체가 0.8%였다. '93년 현재로는 100인 미만 95.6%, 100인~299인 3.3%, 300인이상 1.1%이다.

'62년 대비 탁·약주 소비 17%줄고, 소주, 맥주는 각각 11배, 260배 늘어

○ '62년 당시 **탁·약주 출고량**은 386.5천㎘, '74년 당시만 해도 1,705.0천㎘까지 늘어났으나, '93년 현재로는 322.2천㎘로 '62년에 비하여 오히려 16.6% 줄어들었다. **소주 출고량**은 '62년 69.2천㎘(인구 1인당 2.6ℓ)였으나 '93년 현재 744.0천㎘(인구 1인당 16.9ℓ)로 '62년에 비해 10.8배 늘어났고(인구 1인당 기준으로는 6.5배), **맥주출고량**은 '62년 5.8천㎘(인구 1인당 0.2ℓ)에서 '93년 1,508.9천㎘(인구 1인당 34.2ℓ)로 260.2배 늘어났으며(인구 1인당 기준으로는 171.0배), '93년 현재 인구 1인당 소주는 360㎖들이로 46.9병, 맥주는 640㎖들이로 53.4병 소비수준(같은 기준으로 '62년 현재 소주는 7.2병, 맥주는 0.3병)이다.

담배판매량, 인구 1인당 기준으로 37갑(20개비, '55년)에서 109갑으로 늘어

○ '45년당시 **연간 담배판매량**은 123.8억 개피로 **인구 1인당** 734개피(추정 : '45년 인구를 미군정청 추계인구 16,873,277명을 이용)정도였으나, '94년 현재 판매량은 965.7억개피(외산담배포함), 인구 1인당은 2,172개피를 나타내고 있다. 총판매량으로는 7.8배, 인구 1인당 기준으로는 3.0배가 늘어난 셈이다.

순모사, 순모직물 수출액 '70년 대비 각각 16배, 10배 늘어난 수준

○ 소모방적제품 중 **순모사 수출액**은 '94년 현재 8,226천불로 '70년에 비해 15.7배 늘어난 수준이고, **순모직물 수출액**은 46,829천불로 10.5배 늘어났으나 모·화섬스웨터는 11,778천불로 '70년에 비해서도 오히려 41.3% 줄어들었다.

원목자급률은 '64년 47%에서 13%로 낮아져

○ **원목의 자급률**(국내생산/국내소비)은 '64년 당시만해도 당시의 산업 및 소비수준에 비추어 46.7% 정도는 되었었다. '94년 현재의 목재의 자급률은 불과 13.2%이고, 총 소비량(폐재목 이용량 제외)의 86.8%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 **합판 수출액**은 '62년 당시 2,973천불, '79년 한때 447,928천불까지 크게 증대되었으나, '94년 현재는 38,987천불 수준으로 내려앉았고, **합판 수입액**은 '76년까지만해도 거의 없는 상태였으나, '94년 현재로는 합판수출액의 13.7배 이상인 535,927천불에 이른다.

종이·판지 생산 117배 늘고('60년 대비), 수요도 84배 늘어

○ **종이·판지 생산량**은 '94년현재 6,434.7천M/T으로 '60년 당시에 비해 117.4배 늘어났으며, **종이·판지수요량**도 7,056.0천M/T으로 '60년에 비해 83.7배 늘어났다. 이에 따라 **종이·판지 국내소비자급률**(국내생산/국내소비)도 '60년 65.1%에서 '94년 현재 105.4%로 확대되었다.
종이·판지 1인당 소비량은 '60년 3.4kg에서 '94년 현재 137.3kg으로 40.4배 늘어 났으며, **폐지사용률**도 '60년 8.9%에서 '94년 현재에는 54.1%로 늘어났다.

○ '60년 당시만 해도 국내수요에 비해 **국산펄프의 사용량 비중**이 52.2%를 차지하고 있었으나, '94년 현재로는 24.0%에 지나지 않고 76.0%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폐지사용**의 경우 '60년 당시 국산폐지가 88.8%를 차지하고 있었으나, '94년 현재로는 70.3%로 떨어졌다. 폐지의 29.7%는 수입에 의존한다.

에틸렌 생산 39배, 프로필렌 36배, 벤젠 36배 늘어('75년 대비)

○ 석유화학산업의 기초제품인 **에틸렌 생산**은 '94년 현재 3,661천M/T으로 '75년에 비해 38.5배 늘어났다. **프로필렌 생산**은 '94년 현재 2,094천M/T으로 '75년에 비해 35.7배 늘어났으며, **벤젠 생산**은 '94년 현재 1,280천M/T으로 35.5배 늘어났다.
석유기초제품의 국내소비자급률은 '75년 당시 에틸렌, 벤젠은 100%, 프로필렌은 51.5%였으나, '94년 현재로는 에틸렌은 110.9%로 국내자급초과분을 수출하고 있고, 프로필렌은 102.3%, 벤젠은 90.4%를 나타내고 있다.

○ **비누·세제 생산량**은 '73년 119.9천톤에서 '94년 현재 402.1천톤으로 3.4배 늘어났다.

합섬원료 생산은 '72년 대비 575배 늘고, 자급률도 4%에서 70%로 늘어나

○ **합성섬유원료 생산량**은 '72년 3.7천톤에서 '94년 현재 2,127.7천톤에 달해 무려 575.1배 늘어났으며, '72년 당시 생산량에 비해 수입량이 무려 27.3배가 더 많았었으나, '94년 현재로는 수입량이 생산량의 46.9%에 지나지 않는다. 따라서 **국내소비자급률**이 '72년 3.5%에서 '94년에는 70.0%에 이르렀다.

합성수지 자급률 '72년 55%에서 159%로 오히려 초과

○ **합성수지 생산량**은 '72년 당시 83.2천톤으로 국내소비자급률도 54.6%에 지나지 않았으나, '94년 현재 5,855.4천톤을 생산하여, 국내소비자급률 159.2%, 생산량의 39.4%를 수출하고 있다.

의약품·화장품 등 수출은 '54년 대비 1,299배 늘어

○ **의약품 및 화장품 수출**은 6.25가 끝난 이듬해인 '54년 당시만 하더라도 427천불에 불과하였으나, '94년 현재로는 554,812천불로 무려 1,299배나 늘어났고, 의약품 수입액도 '94년 현재 1,661,438천불로 '54년 대비 470.7배에 이른다. '54년 당시만 하더라도 **의약품 및 화장품의 수입액 비중**은 수출액에 비해 8.3배에 달하였으나 '94년 현재로는 3.0배 정도를 나타내고 있다.

○ **신발생산업체**는 '94년 현재 284개소, 43천명의 종업원이 고용되어 있다. 통계자료가 나타나고 있는 '80년에 비해 사업체수는 3.9배 늘어난 상태이나, 최근의 수출감소 추세와 자동화 공정확대등으로 **종사자수**는 '80년에 비해 절반이하로 줄어들었다.
신발생산은 '80년 298백만켤레였던것이 '88년 한때 573백만켤레까지 늘어났으나, '94년 현재로는 '80년에도 못미치는 244백만켤레로 낮아졌다.
'88년 한때 451백만켤레까지 늘어났던 **수출물량**(금액기준으로는 '90년 4,307백만불이 최고치)은 '94년 현재 126백만켤레로 떨어졌고, **수출액**도 1,780백만불로 낮아졌다.

자동차 타이어 생산 '60년 대비 278배 늘어

○ '60년 당시 175천개에 불과하였던 자동차 타이어 생산은 '94년 현재 48,698천개로 '60년에 비해 278.3배 늘어났다.

시멘트 생산 '45년에 비해 5,637배 늘고, 1인당 소비도 2,224배 늘어나

○ '45년 당시 **시멘트 생산**은 9천M/T에 불과하였으나 '94년 현재로는 50,730천M/T으로 무려 5,636.7배나 늘어났다. 현재는 생산량의 8.5%가량을 수출하고 있으며, **1인당 국내소비량**은 0.5kg에서 1,111.9kg으로 2,223.8배 늘어났다. **레미콘 생산**은 '68년 당시 164천㎥, 1인당 소비량 0.01㎥였으나, '94년 현재 106,592천㎥, 1인당 소비량 2.40㎥로 각각 '68년에 비해 650.0배, 452.4배 늘어났다.

조강 생산량 '62년 대비 240배 늘고, 1인당 소비도 66배 늘어나

○ **조강 생산량**은 '62년 당시만 해도 141.6천M/T으로 **국내소비** 291.0천M/T의 48.7%에 불과하였고, **1인당 소비량**도 11.0kg에 지나지 않았다. '94년 현재 조강 생산은 33,744.9천M/T으로 '62년에 비해 240.0배 늘어났고, 국내소비도 32,187.8천M/T으로 110.6배 늘어났으며, **수출량**은 '62년 3.2천M/T에서 '94년 9,971.9천M/T으로 3,116.2배 늘어났다. 1인당 조강 소비량도 '94년 현재 724.1kg으로 65.8배 늘어났다.

전자공업 생산액 '62년 대비 9,148배 늘고,
총수출대비 비중은 1%에서 32%로 확대

○ **전자공업 생산액**은 '62년 당시 5백만불에 불과하였으나 '94년 현재 47,088백만불로 9,417.6배나 늘어났다. **수출액**도 '62년 불과 50만불에 불과하였던 것이 '94년 현재는 30,953백만불로 엄청나게 늘어났다. 우리나라 총수출액에서 차지하는 **전자부문 수출비중**은 '62년 0.9%에서 '94년 현재 32.2%까지 확대되었다.

산업용 전자기기 수출 '81년 대비 29배, 가전기기는 5.2배 늘어나

○ 개인용 컴퓨터(PC) 및 주변기기, 유선전화기 등 **산업용 전자기기 수출**은 '81년 당시 200백만불에서 '94년 현재 5,807백만불로 29.0배 늘어났으며 칼라

TV, VTR, 녹음기, 전자렌지 등 **가정용 전자기기 수출**도 '81년 1,398백만불에서 '94년 7,319백만불로 5.2배 늘어났다. 이 기간 중 특히 **VTR수출**은 493.3배 늘어났다.

'62년 대비 승용차 생산 1,062배, 상용차 생산 5,058배 늘어

○ '62년 당시 부품 조립된 국산 자동차는 승용차 1,700대, 상용차 100대 도합 1,800대 정도였으나, '94년 현재 **완전차 생산**은 2,311.7천대로 '62년에 비해 1,284.3배나 늘어났다. **승용차**의 경우는 '94년 현재 1,805.9천대로 1,062.3배, **상용차**의 경우는 505.8천대로 5,058.0배 늘어났다.

승용차 국내판매대수도 '81년에 비해 22배 늘어나

○ '81년 당시만 해도 **승용차(지프포함) 내수판매**는 51.6천대에 불과하였으나, '94년 현재로는 1,140.4천대로 22.1배 늘어난 셈이며, '81년 당시 소형 승용차 판매가 78.3%, 중·대형은 19.5%, 지프가 2.2%를 차지하고 있었으나, '94년 현재 경승용·소용차 판매 비중은 60.3%로 줄어들고, 중·대형은 31.9%, 지프는 7.8%로 비중이 늘어났다.

금속공작기계 수출은 '74년 대비 152배, 수입은 14배 늘어

○ 기계를 만드는 기계인 **금속공작기계 수출**은 '74년 당시 460천불에 불과하던 것이 '93년 현재 70,092천불로 152.4배 늘어났으며, '74년에는 전혀없던 **수치제어공작기계 수출**도 '94년 현재 금속공작기계 전체 수출액의 58.3%에 이른다. **금속가공기계 수출**도 '74년 232천불에서 '94년 40,438천불로 174.3배 늘어났다. 반면, **금속공작기계 수입**도 '94년 현재 수출액의 6.8배에 해당하는 476,197천불로 '74년 대비 13.9배 늘어났으며, **금속가공기계 수입**도 '94년 현재 232,502천불로 '74년 대비 19.4배 늘어났다.

수출선박 수주액 '73년 대비 25배 이상 늘어

○ **수출선박 수주액**은 '73년 당시 230백만불이었으나, '94년 5,794백만불로 '73년 대비 25.5배 늘어났으며, **수출선박 건조액**은 '73년 2백만불에서 '94년 현재 4,466백만불로 2,233.0배 늘어났다.

카메라 및 광학용 기기류 수출 '80년 대비 9배 늘고, 수입은 20배 늘어

○ **카메라 및 광학용 기기 등 수출액**은 '80년 당시 73.7백만불에서 '94년 현재 663.4백만불로 9.0배 늘어났으며, **시계 및 시계부품 수출액**은 '94년 현재 245.3백만불로 '80년 대비 31.7% 늘어났고, **계측 및 시험용 기구 수출액**은 '94년 현재 369.9백만불로 '80년 대비 6.5배 늘어났다. 반면 이 산업부문의 수입액은 수출 증가 규모를 훨씬 능가하고 있다. **카메라 및 광학용 기기류 수입액**은 '94년 현재 1,162.2백만불로 '80년 대비 19.9배 늘어났고, **시계 및 시계 부품 수입액**은 99.9% 늘어났으며, **계측 및 시험용 기구 수입액**은 15.4배 늘어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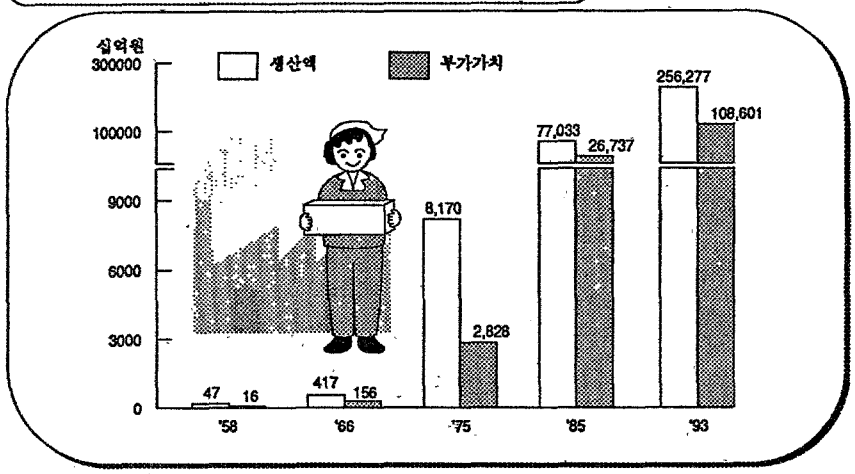
완구류 수입의존도 '85년 6%에서 42% 이상으로 높아져

○ **완구 생산 및 수출**은 '87년을 정점(생산 1,255.0백만불, 수출 1,078.8백만불)으로 하여 급격히 사양화하여 '94년 현재 생산 333.8백만불, 수출 202.9백만불 수준으로 떨어졌다. 반면 완구류 수입은 격증하여 '85년에 6.3%에 불과하던 수입의존도(수입/내수)는 '94년 현재 42.2%로 크게 높아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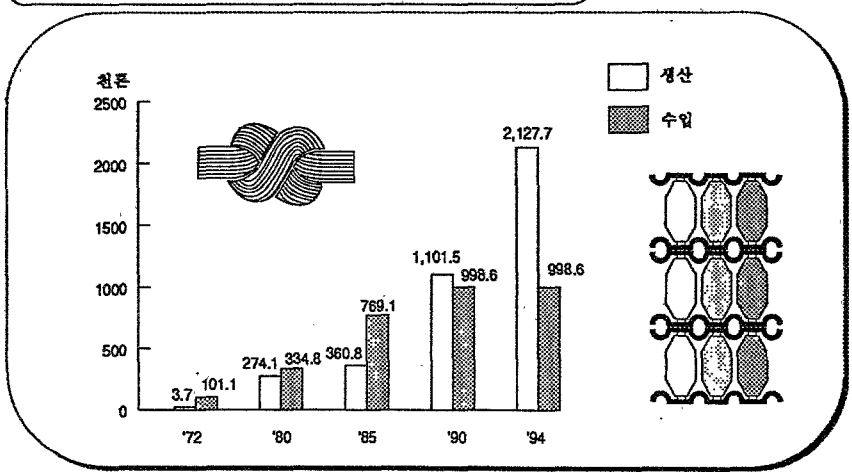
악기류 수출 '70년 대비 294배 이상 늘고, 피아노는 15,078배

○ **악기류 수출액**은 '70년 당시 1,022천불에 불과하였으나, '94년 현재로는 300,955천불로 294.5배 늘어났으며, 특히 피아노 수출은 '94년 현재 총악기류 수출액의 35.1%를 차지하고, '70년 당시에 비해 15,078배가 늘어나 있다. 한편 **악기류 수입액**도 '70년 당시 597천불에서 '94년 현재 85,442천불로 143.1배 늘어난 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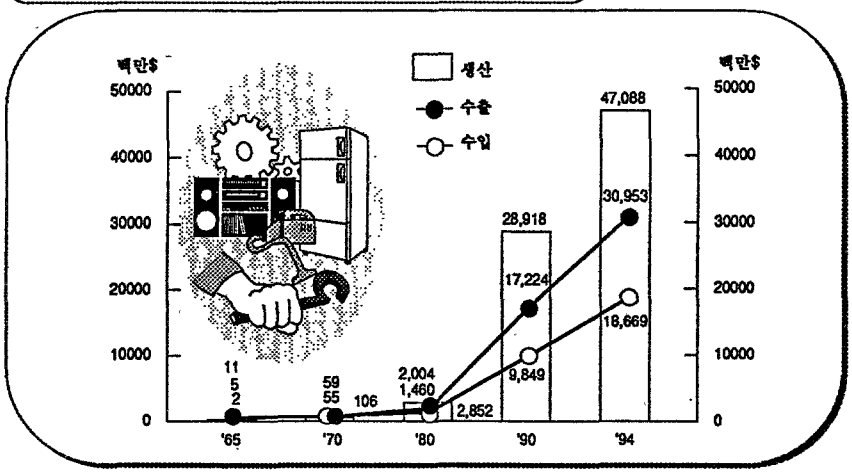
제조업 생산액 및 부가가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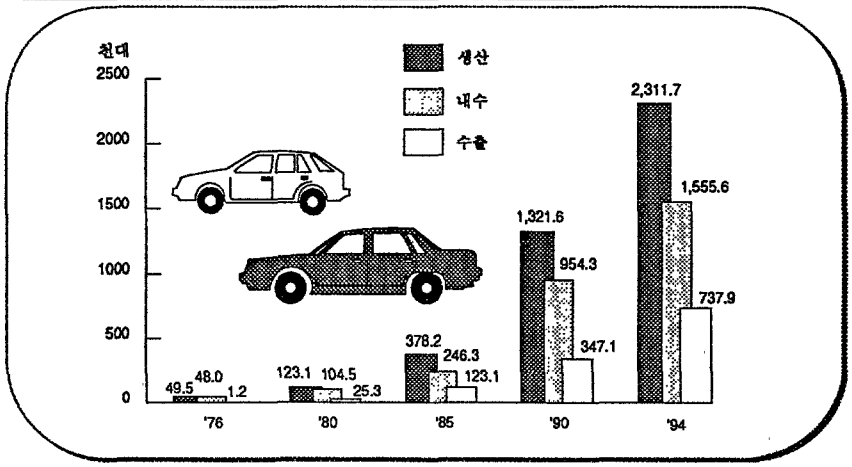
합성원료 생산 및 수입



전자공업 생산·수출·수입



자동차 생산·내수·수출(전차종)



4. 에너지

원유도입액 '64년 대비 743배 늘어나

○ **원유도입액**은 '64년 당시 12,507천불, **국민 1인당 부담액**은 0.45불이었으나, '93년 현재 9,291,465천불 도입에 국민 1인당 210.9불 수준으로 변모하였다. '64년에 비해 도입액으로는 742.9배, 국민 1인당으로는 468.7배 늘어난 셈이다. **산유국별 도입액 크기순**으로는 '65년 당시 쿠웨이트로부터의 도입 비중이 63.9%에 달하였으나 '93년 현재 쿠웨이트로부터의 도입은 5.2%에 불과하고, 사우디아라비아로부터의 도입액 비중은 30.8%에 이르게 되었다.

석유류제품 생산은 '67년 대비 32배, 수출은 841배 늘어나

○ **석유류제품 생산**(에너지류, LPG, 비에너지류)은 '67년 당시 17.1백만배럴이었으나 '93년 현재 540.0백만배럴로 31.6배 늘어났다.

○ **석유류제품 수출량**은 '67년 당시 123천배럴에 불과하였으나 '93년 현재 103.5백만배럴에 달하여 841.4배 늘어났다.

인구 1인당 에너지 소비량 '61년 0.4톤에서 3.1톤으로 늘어

○ **1차에너지 총소비량**은 '61년 9,748천톤(석유환산)이었으나, '94년 현재로는 137,276천톤(석유환산)으로 '61년 대비 14.1배 늘어났으며, **인구1인당 소비량**도 '61년 0.38톤에서 '94년 현재 3.09톤으로 8.1배 늘어났다.

총발전량은 광복 당시에 비해 232배 늘어

○ **총발전량**은 '45년 광복 당시 711GWh(1GWh=백만kWh)에 불과하였고, 수력발전 31.8%, 화력 7.5%, 발전선박 발전 60.7%였다.
'94년 현재 총발전량은 164,993GWh로 '45년에 비해 232.1배 늘어났으며, 수력은 2.5%, 화력은 62.0%, 원자력은 35.5%를 점유하고 있다.

평균전력 '65년 대비 51배 늘어

○ **전력공급능력**은 '94년 현재 27,431MW(1MW=1,000kW)로 '65년에 비해 39.6배 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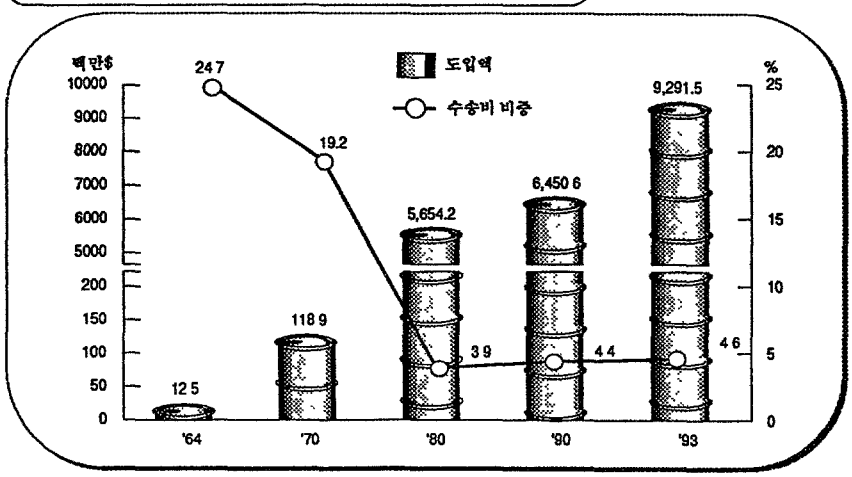
어났고, **평균전력**은 18,835MW로 '65년 대비 50.8배 늘어났다. **전력판매단가**는 '65년 당시 4.72원/kWh였으나, '94년 현재로는 60.22원/kWh로 명목상으로는 12.8배 늘어났다.

○ **부문별 전력소비 구성**을 보면 '65년 당시에는 주택용 10.2%, 공공용 11.1%, 생산부문용 62.3%, 서비스업용 16.4%였으나 '94년 현재로는 주택용 18.1%, 공공용 3.2%, 생산부문용 58.9%, 서비스업용 18.8%, 전철용 1.0%로 구성되어 있다.

도시가스 수요가수 '72년 약 7천호에서 2,840천호로 불어나

○ '72년 당시 **도시가스 수요가수**는 6.6천호였고, **총공급량**은 1.5백만㎥였으며, **수요호당 연간 공급량**은 233㎥였다. '93년 현재 도시가스 수요가수는 2,839.6천호로 '72년에 비해 430.2배가 늘어났고, 총공급량은 2,951.2백만㎥로 1,917.6배 늘어났으며, 수요호당 연간 공급량은 1,039㎥로 4.5배 늘어났다.

원유도입액 및 도입액 중 수송비 비중



5. 건설 · 운수 · 도소매

건설공사 시공액(명목) '73년 대비 182배 늘어나

○ '73년 당시 건설업 사업체수는 2,054개 업체로, 종사자수는 237.6천명이었으나, '93년 현재로는 사업체수는 '73년에 비해 15.0배가 늘어난 30,788개 업체이며, 종사자수는 5.8배가 늘어난 1,388.0천명이다. 당해연도 공사시공액(명목)은 '73년 3,170억원에서 '93년 현재 57조6,200억원으로 181.8배 늘어났다.

건축허가면적 '62년 대비 53배 늘어

○ '62년 당시 **건축허가 연면적**은 2,180천㎡로 주거용이 37.3%, 상업용이 28.0%, 공업용이 19.5%, 문교사회용 및 기타가 15.1%를 차지하였다.
'94년 현재 건축허가 연면적은 116,222천㎡로 '62년에 비해 53.3배 늘어났으며 주거용은 54.5%, 상업용은 23.7%, 공업용은 11.4%, 문교사회용 및 기타가 10.4%를 차지하고 있다.

연간 건설주택수 '62년 대비 14배 늘어

○ '62년 당시 **건설주택수**는 49.5천호였으며, '93년 현재로는 695.3천호로 '62년 당시에 비해 14.0배 늘어났다. '74년 당시만해도 총건설주택수의 81.3%가 단독주택이었으나(아파트 12.3%, 연립주택 6.4%), '93년 현재로 보면 단독주택은 7.5%에 불과하고 아파트가 77.7%를 차지하고 있으며, 연립주택과 다세대주택이 14.8%를 차지하고 있다.
GNP대비 주택투자율은 '62년 당시 1.63%에 불과하였으나 '93년 현재로는 8.36%에 이르고 있다.

○ 중동 건설특수가 있었던 '81년 당시만하더라도 **해외건설공사 수주액**은 136.8억불에 이르렀으나 이후 중동 열기가 식어가면서 점차 퇴조되기 시작하여 '93년 현재로는 51.2억불을 나타내고 있다. 지역비중도 '81년 당시만해도 중동지역이 92.6%를 점유하였으나, '93년 현재는 동남아지역이 50.5%를 차지하고 있고, 중동지역은 35.4%에 그치고 있다.

시외버스 운수수입(명목) '76년 대비 8배, 시내버스는 15배 이상 늘어

○ **시외버스 운송사업체수**(고속버스 운송업 포함)는 '76년 당시 125개 업체로

35,337명이 종사하고 있었다. '93년 현재 사업체수는 '76년에 비해 16.8% 늘어난 146개 업체, 종사자수는 13.6%가 줄어든 30,524명이 되었다. 운수장비 보유대수는 '93년 현재 12,975대로 '76년에 비해 50.5% 늘어났다. 운수수입은 1조1,013억원으로 명목금액 기준으로 '76년에 비해 8.0배 늘어났다.

○ **시내버스 운송사업체수**는 '76년 당시 171개 업체로 44,513명이 종사하고 있었다. '93년 현재 사업체수는 353개업체, 종사자수는 69,848명으로 '76년 대비 사업체수는 2.1배 가까이 늘어났고 종사자수는 56.9% 늘었다. 운수장비 보유대수는 '93년 현재 26,239대로 2.8배 늘어났으며, 운수수입(명목)은 1조 7,817억원으로 '76년에 비해 15.5배 늘어났다.

○ **택시 운송업** 종사자수는 '76년 52,895명에서 '93년 271,743명으로 개인택시 사업자 등의 증가로 5.1배 늘어났고, 운수장비도 '93년 현재 187,855대로 '76년 대비 6.3배 늘어났다. 운수수입(명목)은 '93년 현재 4조 908억원으로 '76년 대비 22.4배 늘어났다.

철도연장은 '56년 대비 45% 늘어

○ **철도 궤도연장㎞**는 '56년 당시 4,483.8㎞, 철도 영업㎞는 2,938.0㎞였다. '93년 현재 철도 궤도연장㎞는 '56년에 비해 45.3%가 늘어난 6,516.6㎞, 철도 영업㎞는 5.4%가 늘어난 3,097.9㎞이다.

'56년 대비 디젤기관차 124배 늘고, 전기기관차·전기동차 새로 등장

○ **철도차량** 중 디젤기관차는 '56년 당시 4대, 디젤동차는 12대였고, 증기기관차가 523대 있었다. '93년 현재 디젤기관차는 '56년 대비 123.8배가 늘어난 495대, 디젤동차는 47.7배가 늘어난 477대가 되었으며, 그 당시에는 전혀 없었던 전기기관차 94대, 전기동차 765대가 새로 나타났다. 서민의 애환과 낭만이 깃들었던 증기기관차는 '56년 당시만해도 523대로 철도의 주역이었으나 '82년을 끝으로 퇴역하였다.

국내여객 수송인원 '60년 대비 23배 늘어

○ '60년 당시 육지와 바다와 강 및 하늘을 통하여 수송된 **국내여객 수송인원**은 연간 총 617.8백만명으로 이 중 철도가 12.2%, 공로가 87.0%, 해운이 0.7%, 항공이 0.0%를 차지하고 있었다. '93년 현재 연간 총수송인원은 14,239.7백만명으로 인원수로는 '60년에 비해 23.0배가 늘어났으며, **국내여객**

수송분담률도 지하철이 새로이 등장하면서 철도 5.1%, 지하철 9.7%, 공로 85.1%, 해운 0.0%, 항공 0.1%로 변하였다.
수송인원에다 수송거리를 승한 인-km기준 국내여객 수송분담률로 따지면 '60년 당시에는 철도 52.2%, 공로 45.9%, 해운 1.7%, 항공 0.2%였으나 '93년에는 철도 25.7%, 지하철 10.0%, 공로 59.6%, 해운 0.5%, 항공 4.2%가 되었다.

○ 국내화물수송 분담률은 톤수기준으로 '63년 당시 철도 49.7%, 공로 45.3%, 해운 5.0%, 항공 0.0%였으나, '93년 현재로는 철도 13.5%, 공로 64.9%, 해운 21.6%, 항공 0.0%가 되었다.
톤-km기준으로는 '63년 당시 철도 87.5%, 공로 8.6%, 해운 3.9%, 항공 0.0%였으나 '93년 현재는 철도 22.1%, 공로 19.1%, 해운 58.6%, 항공 0.2%가 되었다.

국제여객 수송인원 '64년 대비 171배 늘고, 국제화물수송도 61배 늘어

○ 국제여객 수송인원수는 '64년 당시 70천명(해운 9천명, 항공 61천명)에 불과하였으나 '93년 현재 '64년 대비 170.7배가 늘어난 11,947천명(해운 296천명, 항공 11,651천명)으로 크게 늘어났다. '64년 당시 국제화물 수송톤수는 5,227천톤이었으나 '93년 현재 317,823천톤으로 60.8배가 늘어났다.

도로연장 '47년 대비 2.5배 늘고, 도로포장률도 4.3%에서 84.7%로 높아져

○ '47년 당시 도로 총길이는 24,433㎞, 1㎞당 자동차대수는 0.5대꼴에 불과하였다. '93년 현재 도로 총길이는 61,295㎞, 1㎞당 자동차대수는 102.4대꼴로 변하였다. 도로포장률은 '47년 당시 4.3%에서 '93년 현재는 84.7%에 이르고 있다.

광복 당시 자동차 6,337대, '95. 6월 현재 7,926천대로 1,251배 늘어

○ 광복 당시인 '45년의 자동차 등록대수는 6,337대, 그 중 승용차는 20.7%인 1,311대였으며 승용차 중 자가용은 34.1%인 447대였다. 그로부터 50년이 흐른 '94년말 현재 자동차 총등록대수는 7,404.3천대('95. 6월 현재 7,926.5천대) 그 중 승용차는 69.5%인 5,148.7천대('95. 6월 현재 5,553.9천대), 승용차중 자가용은 95.8%에 이르는 4,930.2천대('95. 6월 현재 5,330.5천대)로 자동차 총수는 광복당시에 비해 1,168.4배, 승용차수는 3,927.3배, 승용자가용수는 11,030배가 늘어났다. 한편 버스는 광복당시에 비해 503.5배, 화물차는 451!

배가 늘어났다.
운전면허소지자는 '62년 88,616명에서 '94년 현재 14,889.8천명에 달해 '62년 대비 168.0배 늘어났다.

자동차 정비공장 1개소당 자동차수 '67년 226대에서 3,521대꼴로 변모

○ **자동차 정비공장**은 '67년 263개소(1개소당 자동차 226대꼴)였으나 '93년 현재 1,782개소(1개소당 자동차 3,521대)로 6.8배 늘어났고 **자동차 검사장**은 '67년 38개소(1개소당 자동차 1,566대)에서 '93년 현재 56개소(1개소당 자동차 112,036대)로 불과 18개소가 늘어났다.

'63년 당시 민간여객기 불과 5대에서 117대로 늘어

○ '63년 당시만해도 여객기는 불과 5대, 경비행기, 훈련기를 모두 합해도 항공기수는 24대에 지나지 않았으나 '93년 현재 여객기 117대를 비롯 **총항공기대수**는 188대로 단순히 보유대수만으로 따져 '63년에 비해 7.8배 늘어났다.

주요항만 하역능력 '61년 대비 31배 늘어나

○ 부산, 인천, 묵호, 여수, 군산, 포항, 광양을 비롯한 **항만의 하역능력**은 '61년 당시만해도 총 9,020천톤(광양은 당시 없었음)에 지나지 않았으나, '93년 현재 276,198천톤으로 30.6배 늘어났다.

서울지하철 수송인원 '75년 대비 24배 이상 늘어

○ '74년 8월 15일 서울역~청량리역 구간 개통을 시발로 하여 등장한 **서울지하철**은 첫해의 후반기에 24,367천명을 수송하였고, 이듬해는 56,762천명을 수송하였다. '93년 현재 연간 수송인원은 1,388,037천명으로 '75년 대비 24.5배 늘어났다.

도매업체수 '68년 대비 9배, 소매업체수 3배 늘어

○ '68년 당시 **도매업체수**는 13,193개, 관련 종사자는 55천명, '93년 현재 도매업체수는 114,444개, 관련 종사자수는 559천명으로 사업체수는 8.7배, 종사자수는 10.2배 늘어났다. **소매업체수**는 '93년 현재 811,724개, 관련 종사자는 1,677천명으로 사업체수는 3.1배, 종사자수는 3.7배 늘어났다. **음식업체의 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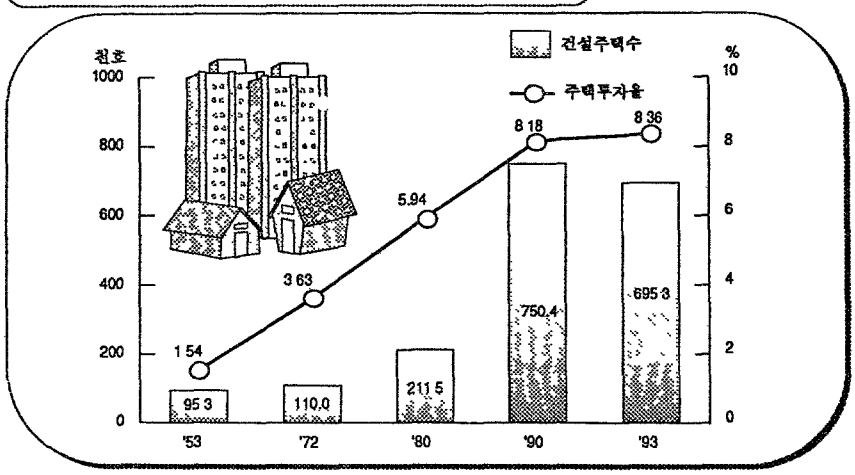
련 종사자는 '93년 현재 967천명으로 '68년에 비해 4.5배 늘어났다. **숙박업체수**는 '93년 현재 29,638개, 종사자수는 128천명으로 '68년에 비해 각각 2.5배, 3.8배 늘어난 수치다.

○ 교통의 발달과 유통시장의 근대화에 따라 **재래식 공설시장**은 '68년 당시 314개소에서 '93년 현재로는 197개로 줄어 들었다. 반면에 **사설시장**은 '93년 현재 1,301개소로 '68년 당시 117개소보다 11.1배 늘어났다. 한편 백화점·쇼핑센터 등 **대형 소매점**은 '78년 113개소에서 '93년 현재 167개소로 늘어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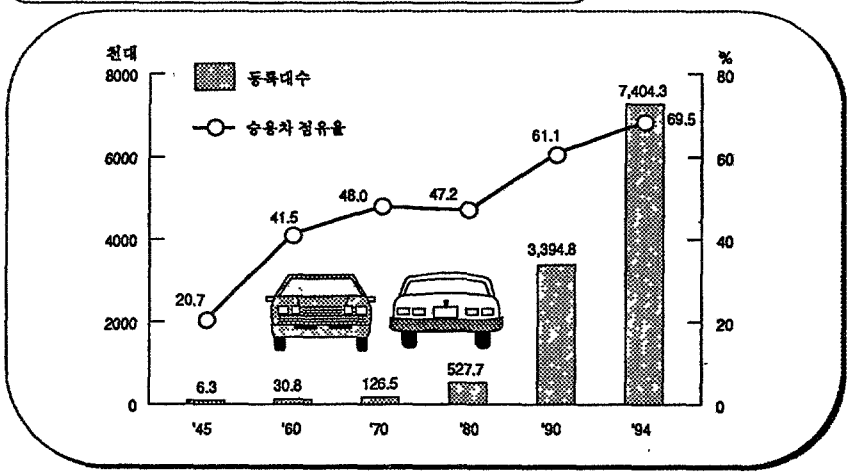
대중음식점 '60년 대비 16배, 과자점 18배, 다방은 13배 늘어

○ '93년 현재 전국의 **식품위생 접객업소수**는 442.0천개로 이 중 대중 음식점수가 77.3%인 341.8천개이다. '60년 당시에 비하여 식품위생 접객업소 총수는 16.8배, 대중 음식점수는 16.1배 늘어난 셈이다. 과자점 업소수는 '93년 현재 15.2천개소로 '60년 대비 18.0배 늘어났고, 다방업소는 '93년 현재 43.6천개소로 '60년 대비 13.2배 늘어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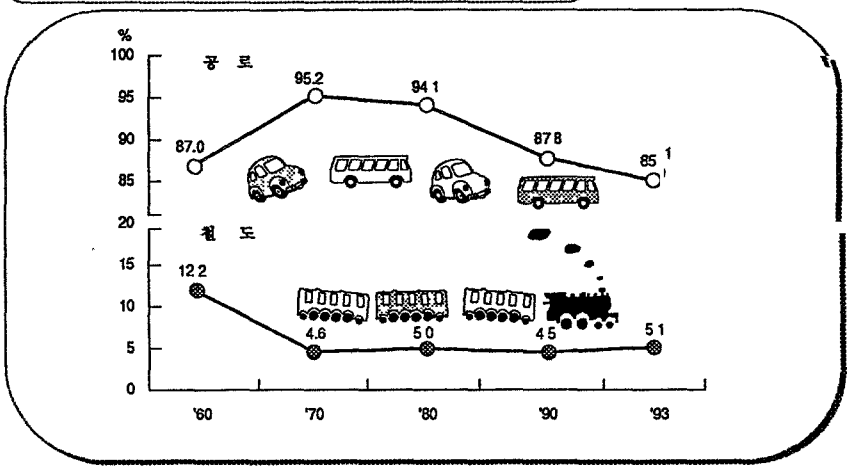
건설 주택수 및 GNP대비 주택 투자율



자동차 등록대수 및 승용차 점유율



철도, 공로 여객 수송 분담률 (인)



6. 우편 · 보험 · 통화 · 금융 · 재정 · 국민계정

인구 1인당 우편물 접수통수 '45년 8통에서 68통으로 늘어

○ '45년 당시 **우체국수**는 692개, **우체국 1개소당 관할인구**는 24,383명이었다. '93년 현재 우체국수는 3,310개로 광복 당시에 비해 4.8배 늘어났고, 우체국 1개소당 관할인구는 13,310명으로 45.4% 줄어들었다.
사서함수는 '45년 당시 3,319개에서 '93년 현재 34,199개로 10.3배 늘어났으며 **우편물 접수통수**는 57.5백만통에서 2,989백만통으로 52.0배 늘어났고, **인구 1인당 우편물 접수통수**는 '45년 8.2통에서 '93년 현재 67.8통으로 8.3배 늘어났다.

○ **우표류 판매량**은 '62년 당시 58백만매, 금액으로는 6.6억원이었으나, '93년 현재 1,235백만매, 금액으로는 1,814억원으로 수량기준 21.3배, 금액기준 274.9배 늘어났다.

'46년 대비 국제우편발송 159배, 도착 119배 늘어

○ '46년 당시만해도 **국제우편 발송량**은 181천통, 국제우편 도착량은 501천통이었다. '93년 현재 발송량은 28,790천통, 도착량은 59,585천통으로 각각 159.1배, 118.9배 늘어났다.

통신선로 길이 '62년 대비 114배 이상 늘어

○ '62년 당시 **통신선로 연장길이**는 1,480㎞에 불과하였으나, '94년 현재는 169,497㎞에 달하여 114.5배 늘어났다.

전화가입자 광복 당시에 비해 370배 늘어나

○ **전화 가입자수**는 '45년 당시 45천명에서 '93년 현재 16,633천명으로 369.6배 늘어났다.

이동전화가입자 '74년 대비 1,685배 늘고,
무선호출기는 '82년 대비 11,036배 늘어

○ **인구 십만명당 공중전화 보급률**은 '55년 당시 1대꼴이었으나, '93년 현재 647대로 늘어났으며, **이동전화 가입자수**는 '93년 현재 471.8천명으로 '74년 대비 1,685배 늘어났고, **무선호출기 가입자**는 '93년 2,648.6천명으로 '82년 대비 11,036배 늘어났다.

국제통신시설 회선수 '64년 대비 305배 늘어

○ **국제통신시설 총회선수**는 '64년 당시만해도 33회선에 불과하였으나, '93년 현재로는 10,079회선에 달하여 305.4배 늘어났다.

국민 1인당 수입보험료 '56년 대비 905배(명목) 늘어나

○ '56년 당시 **수입보험료**는 3.6억원이었으나, '94년 현재 36조 628억원으로 명목기준 무려 1,248배 늘어났으며, **국민 1인당 보험료**는 같은 기간 중 17원에서 811천원으로 명목기준 905.4배 늘어났다. GNP 대비 보험료 비율은 '56년 0.2%에서 '94년 현재 11.9%까지 늘어났다.

통화량 광복 당시에 비해 295만 5천배 이상 늘어나

○ '45년 당시 **통화량(M_1)**은 11백만원에 불과하였으나, '94년 현재로는 32조 5,110억원으로 295만 5천배 이상이나 확대되었다. '45년 당시만 해도 현금통화 대 예금통화의 비율은 73대27 수준이었으나 '94년 현재로는 예금통화의 비율이 크게 높아져 40대60 수준으로 변모하였다.

화폐발행액 누계 광복 당시에 비해 17만 1천배 이상 늘어

○ **화폐발행액 누계**는 '45년 당시 8.8백만원에 불과하였으나, '94년 현재로는 15조 890억원에 달하여 광복 당시에 비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늘어난 셈이다.

국민 1인당 예금은행 예금은 '52년 20원에서 3,041천원으로 늘어

○ '52년 당시 **예금은행의 연말예금잔액**은 5억원, 국민 1인당 20원 정도였으나, '94년 현재 예금총액은 135조 1,900억원, 국민 1인당 3,041천원으로 크게 늘어났다.

광복 당시 어음교환액 5백만원, 현재는 5,781조 7천억원

○ '45년 당시 **어음교환 장수**는 107천장, 금액으로는 5백만원 정도였고, **어음 1장당 평균액수**는 40원 정도였다. '94년 현재 어음교환 장수는 898.6백만장, 금액으로는 5,781조7,404억원, 어음 1장당 평균액수는 6,434천원으로 불어났다. '45년 당시 **어음부도율**은 장수 기준 0.38%, 금액 기준 0.30%였으나 '94년 현재로는 장수 기준 0.11%, 금액 기준 0.17%이다.

상장주식 시가총액은 '63년 대비 15,122배 늘어

○ '63년 현재 **주식 상장회사수**는 15개, **상장 종목수**는 17개, **주주수**는 14.8천명, **상장주식수**는 32백만주, **상장주식 시가총액**은 100억원이었다. '94년 현재 상장회사수는 699개로 46.6배, 상장종목수는 1,089개로 36.3배, 주주수는 1,576.9천명으로 106.5배, 상장주식수는 6,880.5백만주로 215.0배, 상장주식 시가총액은 151조 2,172억원으로 15,122배 늘어났다.

중앙정부 세출규모는 '53년 GNP대비 4.8%에서 21.3%로 확대

○ '53년 당시 **중앙정부 세출규모**(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는 119억원, **대 GNP비율**은 4.8%였으나, '94년 현재 세출규모총액은 64조 4,575억원('53년 대비 5,417배), 대 GNP비율 21.3%로 크게 늘어났다.

보건·사회보장 및 복지비 세출 비중 '72년 6.2%에서 10.2%로 확대

○ **중앙정부 기능별 세출구성**을 보면 '72년 당시 **국방비** 비중은 세출예산의 26.0%, GNP대비 4.6%를 차지하였고, '80년 한때 세출예산의 30.6%, GNP대비 6.4%까지를 차지하기도 하였으나, 이후 비중이 점차 축소되어 '94년 현재 세출의 17.2%, GNP대비 3.4%를 나타내고 있다. **보건·사회보장 및 복지비**는 '72년 세출의 6.2%에서 '94년 현재 10.2%로 비중이 높아졌고,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비**도 1.0%에서 6.1%로 확대되었다.

국민 1인당 총조세부담액 '60년에 비해 1,102배 늘어

○ 국세·지방세를 포함한 **총조세수입** 규모는 '60년 당시만 해도 295억원, **국민 1인당** 연간 1,200원 정도였으나, '94년 현재 총조세 규모는 58조 8,035억원, 국민 1인당 1,323천원에 달하여 '60년에 비해 각각 1,996배, 1,102배 늘어났다. **총조세 부담률**(총조세/경상GNP)은 '60년 12.0%에서 '94년 현재 19.6%로 불어났다.

국민 1인당 GNP '53년 대비 127배 늘어나

○ '53년 당시 **국민총생산액**(GNP:경상금액)은 479억원(14억불)에 불과하였으나, '94년 현재로는 302조 8,670억원(3,769억불)에 달하여 무려 6,323배나 늘어났다. **국민 1인당 GNP**는 '53년 67불에서 '94년 현재 8,483불로 126.6배 늘어났다. **국내총생산액(GDP)**은 '53년 당시 473억원(13억불)이었으나, '94년 현재 305조 77억원(3,795억불)으로 '53년 대비 6,448배(291.9배) 늘어났다.

○ **국내총생산의 요소소득** 중 피용자보수가 차지하는 비중은 '70년 당시 33.8%에서 '94년 현재 46.5%로 확대되었고, 영업잉여는 49.8%에서 31.5% 축소되었다.

GDP중 소비지출 비중 줄고, 고정자본형성 비중 늘어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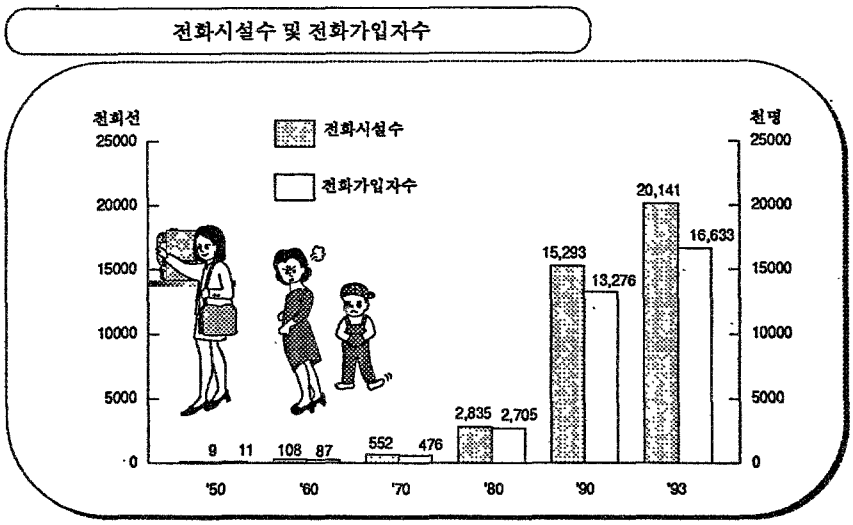
○ **국내총생산에 대한 지출(경상)구성**을 보면 '70년 당시에는 **최종소비지출** 84.1%(민간소비지출 74.7%), **총고정자본형성** 25.1%였으나, '94년 현재로는 최종소비지출 비중은 64.5%(민간소비지출 53.8%)로 줄어든 대신 총고정자본형성 비중은 35.9%로 늘어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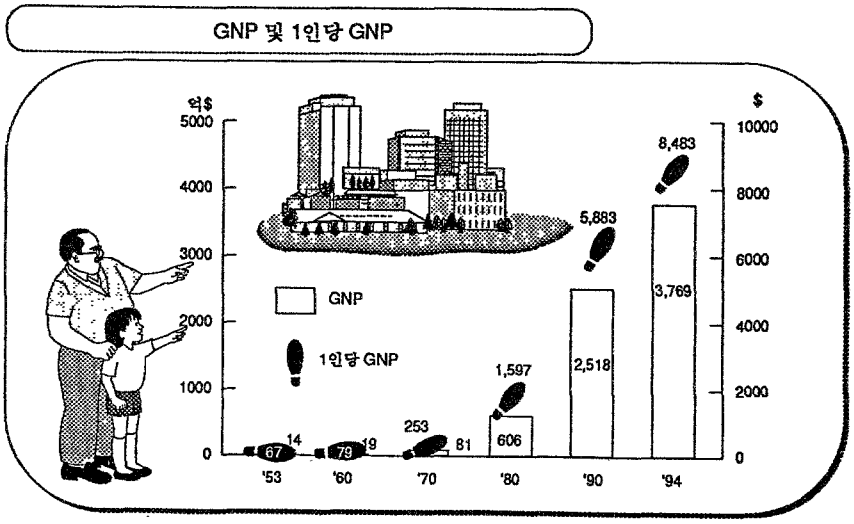
'70~'94년간 연평균 경제성장률 8.1%

○ '70~'94년간 **연평균 경제성장률(GDP기준)**은 8.1%를 나타내었고, 농림어업은 1.9%, 광공업은 12.2%(제조업 12.8%), 건설·전기가스·수도업은 10.7%, 서비스업은 9.9% 성장률을 보였다.

저축, 투자율 크게 높아지고,
수출액의 대GNP비율은 3.2%('53년)에서 30.5%로 확대

○ 국내 총저축률은 '53년 당시 13.1%에서 '94년 현재 35.2%로 크게 늘어났고, 국내 총투자율은 14.7%에서 36.1%로 확대되었다. 수출액이 GNP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53년 3.2%에서 '94년 현재 30.5%로 확대되었고, 수입액의 대GNP비율은 9.8%에서 32.0%로 확대되었다.





7. 국제수지

수출, 수입액 '48년 대비 각각 4,306배, 492배 늘어나

○ '48년 당시 **수출액**은 22.3백만불, **수입액**은 208.0백만불에 불과하였으나, '94년 현재 수출액은 960억 1,320만불, 수입액은 1,023억 4,820만불로 변하여 각각 '48년 대비 4,305.5배, 492.1배 늘어났다.
국민 1인당 수출액은 '48년 당시 불과 1.1불에서 '94년 현재 2,159.9불로 1,964배 늘어났고, **국민 1인당 수입액** 역시 '48년 10.4불에서 '94년 현재 2,302.4불로 221배 늘어났다.
'60년 당시만 해도 **보유외환에 의한 수입비중**은 총수입액의 28.3%에 지나지 않았고, 71.7%는 차관 및 원조액으로 충당하였었다.
'94년 현재 보유외환에 의한 수입비중은 92.9%에 이르고 있다.

수출 1위 상품류는 비식용원료에서 기계·운수장비로 바뀌어

○ '55년 당시 수출액(18백만불) 중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던 **수출상품류**는 비식용원료(연료제외)로 83.3%(15백만불)를 차지하고 있었다.
'94년 현재로는 기계 및 운수장비가 49.0%로 가장 크고, 재료별 제조제품이 23.9%로 두번째이며, '55년 당시 가장 비중이 높았던 비식용원료는 불과 1.5%를 차지하고 있을 뿐이다.

○ '55년 당시 수입액(341백만불) 중 비중이 높은 **수입 상품류**는 화학물 및 관련제품 17.6%, 기계 및 운수장비 16.8%, 재료별 제조제품 16.1% 등이었다.
'94년 현재로는 기계 및 운수장비 36.5%, 재료별 제조제품 15.6%, 화학물 및 관련제품 9.5% 등의 순으로 바뀌었다.

일본, 미국 수출비중 '55년 40%, 41%에서 14%, 21% 수준으로 변모

○ '55년 당시 우리나라 수출액의 40.4%는 **일본으로의 수출**이었고, 41.0%는 **미국으로의 수출**이었다. 일본으로의 수출 비중은 '59년 한때 64.0%까지 차지한 바도 있었으나 이후 점차 줄어들어 '94년 현재로는 14.1%로 낮아졌다. 한편 미국으로의 수출 비중도 '68년 52.0%까지 확대된 바도 있었으나 이후 점차 낮아져 '94년 현재 21.4%를 나타내고 있다.

○ '55년 당시 우리나라 수입액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 나라는 미국으로

22.8%에 이르렀고, 일본은 5.6%에 불과했다.
미국으로부터의 수입액 비중은 한때('58년) 55.3%까지 기록한 적도 있으나 '94년 현재는 21.1% 수준에 있으며, **일본으로부터의 수입액 비중**은 '67년 당시의 44.5%를 절정으로하여 이후 낮아지기 시작, '94년 현재는 24.8% 수준이다.

수출 1위 상품 '61년 철광석, 현재는 전기전자기계로 바뀌어

○ '61년 당시 우리나라의 **주요 수출상품**은 1위 철광석(13.0%), 2위 중석(2.6%), 3위 생사(6.7%), 4위 무연탄(5.8%), 5위 오징어(5.6%) 등이었다.
'94년 현재로는 1위 전자전기기계(32.8%), 2위 섬유류(18.0%), 3위 화공품류(6.2%), 4위 철강제품류(5.8%), 5위 자동차(5.6%)로 변모하였다.

수입 1위 상품 '61년 양모, 현재는 일반기계

○ 한편 '61년 당시 우리나라의 **주요 수입상품**은 1위 양모(13.3%), 2위 어패류(9.6%), 3위 원면(9.3%), 4위 광물성 연료(8.7%), 5위 곡물(7.6%) 등이었고, '94년 현재로는 1위 일반기계(13.2%), 2위 광물성 연료(10.4%), 3위 전자부품(9.4%), 4위 농산물(7.8%), 5위 철강제품(5.6%) 등의 순이다.

수출품목수 272개('63년)에서 7,648개로 확대,
수출상대국도 38개국에서 216개국으로 늘어

○ '63년 당시 우리나라의 **수출품목수**는 272개, **수출상대국가**는 38개국에 불과하였고 **세계 총수출액에 대한 우리나라 수출액 비중**은 0.06%에 지나지 못하였다. '94년 현재 수출품목수는 7,648개로 28.1배, 수출상대국가는 216개국으로 5.7배 늘어났으며, 세계 총수출액에 대한 점유비중도 2.20%로 높아졌다.
한편 **수입품목수**는 '63년 769개에서 '94년 9,093개로 11.8배 늘어났고, **수입상대국가수**는 '63년 39개국에서 '94년 190개국으로 4.9배 늘어났으며 **세계 총수입액에 대한 우리나라 수입액 점유비중**은 '63년 0.38%에서 '94년 2.41%로 높아졌다.

미국의 수출상대국 중 한국의 위치는 '80년 11위에서 6위국으로 부상

○ **미국의 무역 중 한국의 위치**를 보면 '80년 당시 미국의 수출액 중 한국은 2.1%를 차지하여 11위국이었고, 수입액 중에서는 한국으로부터의 수입액이 1.7%를 차지하여 15위국이었다. '94년 현재로는 수출에 있어서는 6위국(

3.6%), 수입에 있어서는 8위국(2.9%)으로 나타나고 있다.

일본의 수입상대국 중 한국의 위치는 '80년 8위에서 4위국으로 부상

○ **일본의 무역 중 한국의 위치**를 보면 '82년 당시 일본 총수출액의 3.5%를 한국이 차지하여 3위국이었고, 수입액중에서는 한국으로부터의 수입은 2.5%를 차지하여 8위국이었다. '94년 현재로는 수출은 3위국(6.2%), 수입은 4위국(4.9%)으로 나타나고 있다.

NAFTA지역수출 '60년 대비 6,453배 늘고,
EU지역수출은 '64년 대비 764배 늘어

○ **NAFTA권역(미국, 캐나다, 멕시코)으로의 수출액**은 '60년 당시 3.6백만불에서 '94년 현재 23,231.7백만불로 6,453.3배 늘어났고 수입액은 '60년 139.2백만불에서 '94년 23,812.2백만불로 171.1배 늘어났다.
EU로의 수출액은 '64년 당시 13.9백만불에서 '94년 현재 10,615.9백만불로 30년간 763.7배 늘어났으며 수입액은 '64년 37.3백만불에서 '94년 13,237.2백만불로 354.9배 늘어났다.
아시아 3용국(홍콩, 대만, 싱가포르)에 대한 수출액은 '60년 당시 3.5백만불에서 '94년 현재 14,898.5백만불로 4,256.7배 늘어났고, 수입액은 6.9백만불에서 4,119.4백만불로 597.0배 늘어났다. **아시아 4호로 불리는 태국, 필리핀, 인도네시아 및 말레이시아에 대한 수출액**은 '62년 당시 1.0백만불에서 '94년 현재 7,238.9백만불로 '62년 대비 7,238.9배 늘어났으며, 수입액은 20.2백만불에서 5,750.5백만불로 284.7배 늘어났다.

중국으로의 수출액 10년전 대비 366배, 러시아로의 수출액 284배 늘어

○ **중국으로의 수출**은 '94년 현재 6,203.0백만불로 10년전인 '84년 대비 366.1배 늘어났고, 수입은 '94년 5,462.8백만불로 26.6배 늘어났으며, **러시아로의 수출**은 '94년 현재 961.9백만불로 '84년 대비 284.0배 늘어났고, 수입은 '94년 1,229.7백만불로 '84년 대비 29.6배 늘어났다. 베트남에 대한 수출은 '94년 현재 1,027.4백만불로 '84년 대비 42.7배 늘어났고, 수입은 113.8백만불로 '84년 대비 14.6배 늘어났다.

여행수입 '60년 대비 8,349배, 여행지급 981배 늘어

○ '60년 당시 **무역외 수입액**은 84.0백만불, '94년 현재로는 22,551.2백만불로 '60

년 대비 268.5배 확대되었다. 반면 **무역외 지급액**도 '60년 73.8백만불에서 '94년 24,540.4백만불로 332.5배로 늘어났다.
무역외 수지 중 **여행수입**은 '60년 0.4백만불, '94년 3,339.6백만불로 '60년 대비 8,349.0배 늘어났으나 **여행지급**도 '60년 4.6백만불, '94년 4,512.5백만불로 981.0배 늘어났다.

'71년 대비 미달러와의 환율은 2.1배,
일본엔화와의 환율은 6.7배 절하된 수준

○ '71년 당시 **미 1달러당 환율**은 373.20원, '94년 현재로는 788.70원으로 '71년 대비 2.1배 수준이다. **일본 엔화와의 환율**은 '71년 당시 100엔당 118.55원, '94년 현재는 100엔당 790.68원으로 '71년 대비 6.7배 수준이다.

금·외환보유액 '50년 당시에 비해 958배 늘어나

○ 대외지급능력을 나타내는 **금·외환보유액**은 '50년 당시 26.8백만불이었으나, '94년 현재 25,672.7백만불로 957.9배 늘어났다. **국민 1인당 금·외환보유액**도 '55년 4.5불에서 '94년 현재 577.5불로 128.3배 늘어났다.

보유외화자산 '67년 대비 167배, 외화부채는 216배 늘어나

○ 우리나라가 보유한 **외화자산**(외국화폐, 예치금, 유가증권, 대출금, 외환 등)은 '67년 당시 452.8백만불이었으나 '94년 현재 75,611.7백만불로 '67년 대비 167.0배 늘어났다.
한편 외화부채도 '67년 당시 157.4백만불에서 '94년 현재 34,058.0백만불로 '67년 대비 216.4배 늘어났다.

연간 해외 총투자액 '72년 대비 460배 늘어

○ 우리나라의 **연간 해외 총투자액**은 '72년 당시만 해도 5.1백만불이었으나, '94년 현재 2,346.7백만불에 이르러 '72년 대비 460.1배 늘어났다. 회수액등을 차감한 **투자잔액**은 '72년 18.1백만불에서 '94년 현재 7,648.8백만불로 '72년 대비 422.6배 수준이다.

외국인 투자액 '77년 대비 16배 늘어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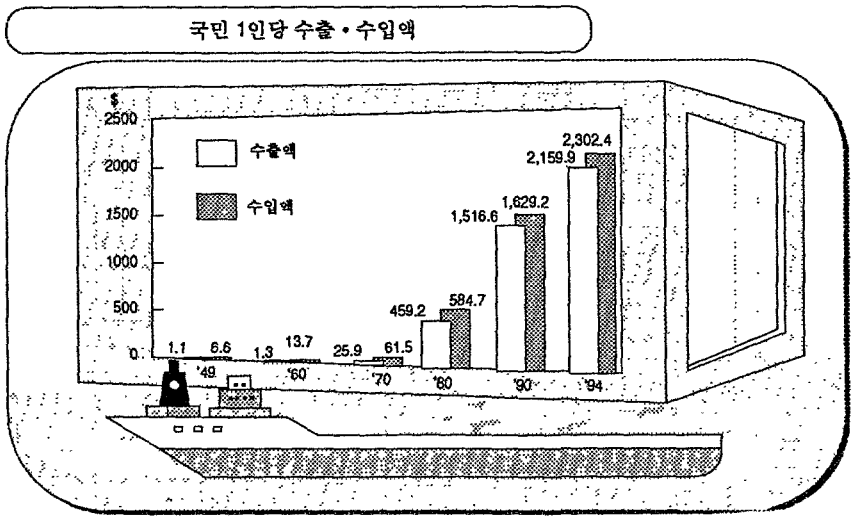
○ 한편 우리나라에 투자하는 **외국인투자액**(총인가기준)은 '77년 당시 83.6백만불 수준이었으나 '94년 현재는 1,316.5백만불 수준으로 15.7배 늘어났다. 일본인들의 투자가 '77년 당시 48.0%에서 '94년 현재 32.2% 비중으로 떨어지고, 미국은 '77년 23.4%에서 '94년 현재 23.6%로 거의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대신 독일, 네덜란드를 비롯한 기타 국가들의 투자비중이 높아져 있다.

차관도입에 따른 원금상환 '62년 대비 2,028배 늘어

○ '62년 당시 3백만불의 **차관**을 도입하였고, '80년 당시 한때 2,919백만불에 이르는 외국 차관(공공 및 상업차관)을 도입하기도 하였으나, '94년 현재 차관 도입액은 742백만불 수준에 그치고 있다. **원금상환액**은 '62년 당시 60만불 수준에서 경상수지 흑자 98억 5,390만불을 기록하였던 '87년에는 51억 1,700만불을 상환하였고, 최고의 경상수지 흑자(141억 6천만불)를 기록하였던 '88년에는 41억 8,100만불을 상환하기도 하였으나, '94년 현재로는 12억1,700만불을 상환하고 있다.

'60년 대비 총외채 689배 늘어

○ '60년 당시 우리의 **총외채**는 83백만불, 국민 1인당 3.3불 수준이었다. 한때 총외채 규모가 줄어들기도 하였으나, '94년 현재 571억 7천 7백만불을 기록하여 '60년 대비 688.9배를 나타내고 있다. 반면에 우리가 보유한 **대외자산**도 불어 나 '70년 당시 675백만불 수준에서 '94년 현재 46,477백만불로 크게 확대되어 **순외채** 규모는 현재 107억불 수준에 있다.



8. 노동 · 임금

실업률 '63년 당시 8.1%에서 2.4% 수준으로 낮아져

○ 노동가능인구(15세 이상)는 '63년 당시 14,551천명, 이 중 **경제활동인구**는 8,230천명으로 **경제활동 참가율**은 56.6%, 경제활동인구 중 **실업자수**는 667천명, **실업률**은 무려 8.1%에 이르렀다.
노동가능인구가 2천만명을 넘어선 해는 '74년(20,187천명), 경제활동인구가 1천만명을 넘어선 것은 '70년(10,062천명), 2천만명을 넘어선 것은 가장 최근 '94년(20,326천명)이다. 또한 **취업자수**가 1천만명을 넘어선 것은 '72년(10,379천명)이고, '94년 현재는 19,837천명에 이르러 '95년에는 2천만명을 넘어서게 된다.
실업률은 지속적으로 낮아져 '94년 현재 2.4%수준이고, 15세 이상 인구 비중은 '94년 현재 '63년 대비 2.3배, 경제활동인구는 2.5배, 취업자수는 2.6배 늘어났으며 실업자수는 '63년 대비 26.7% 줄어들었다.

15~19세 청소년 취업자 비율 '63년 12.1%에서 2.2%로 낮아져

○ '63년 당시만 해도 **15~19세의 청소년 취업자 비율**이 12.1%, '73년 한때 13.5%까지 높아졌다가 이후 점차 감소하여 '94년 현재는 2.2%에 불과하다.
반면, **60세 이상의 노년 취업자 비율**은 '63년 4.3%에서 '94년 현재 8.1%까지 높아졌다.

피고용자 비율 '63년 31.6%에서 62.0%로 높아져

○ '63년 당시 **남녀간 취업자 구성비**는 65.2% 대 34.8%, '94년 현재는 59.6% 대 40.4%로 여자의 취업률이 높아졌다. **종사상 지위별 취업자 구성**은 '63년 당시 자영업주 37.2%, 가족종사자 31.2%, 피고용자 31.6% 비율이었으나 '94년 현재로는 자영업주 27.8%, 가족종사자 10.2%, 피고용자 62.0%로 임금고용자가 2배 정도 비율로 높아졌다.

광공업 취업자 '63년 8.7%에서 23.9%로 높아져

○ '63년 당시 **산업별 취업자 구성비**를 보면 농림어업이 63.0%로 가장 높았고 광공업은 8.7%, 사회간접자본 및 기타서비스업은 28.3%였다.
'94년 현재 농림어업은 13.6%로 크게 낮아진 반면 광공업은 23.9%, 사회간접

자본 및 기타 서비스업은 62.5%로 높아졌다.
한편 **직업별 취업자 구성비**를 보면 '63년 당시 농림어업 종사자는 62.9%, 생산 종사자·운수장비 운전자 및 단순노무자는 15.0%였고, 전문직·기술직 관련 종사자는 3.3%에 불과하였다. '93년 현재로는 생산종사자·운수장비 운전자 및 단순노무자 비율이 31.9%로 높아지고 전문·기술관련직 종사자도 8.4% 수준으로 늘어난 대신 농림어업 종사자는 14.6%로 낮아졌다.

제조업 월평균 임금은 '70년 대비 명목기준 72배, 실질기준 7배 늘어난 셈

○ '70년 당시 **상시종사자의 전산업 월평균 임금**은 17.8천원, **제조업 월평균 임금**은 14.3천원이었다. '94년 현재 전산업 월평균 임금은 1,099.0천원, 제조업 월평균 임금은 1,022.5천원으로 명목임금기준으로 '70년 대비 각각 61.7배, 71.5배 불어났다.
그러나 이를 소비자물가상승률로 제하여 '70년 불변기준으로 환산해 보면 '94년 현재의 전산업 평균임금은 102.7천원, 제조업 평균임금은 95.6천원으로 되어 각각 5.8배, 6.7배 늘어난 셈이다.

여성임금 '72년 당시 남성의 46%에서 57%로 높아져

○ **남녀별 임금격차**는 '72년 당시 남자 월 28천원, 여자 월 13천원으로 여자임금은 남자임금의 46.4%에 해당하였다. '93년 현재로는 남자 868천원, 여자 491천원으로 여자임금은 남자임금의 56.6%로 10.2%「포인트」 높아졌다(정액급여, 초과급여만을 월평균임금으로 하였음).

고졸 학력자 임금 '71년 대졸 임금의 58%에서 65%로 높아져

○ **학력별 임금격차**는 '71년 당시 대졸이상 학력자의 월평균 임금은 47천원, 고졸 학력자는 27천원, 중졸 이하자는 18천원으로 대졸이상 학력자의 임금에 비해 고졸자는 57.5%, 중졸 이하자는 38.3% 수준이었다.
'93년 현재 대졸이상 학력자의 월평균 임금은 1,073천원, 초대졸 학력자는 764천원, 고졸 학력자는 701천원, 중졸이하 학력자는 644천원으로 대졸이상 학력자 임금수준에 비해 초대졸은 71.2%, 고졸은 65.3%, 중졸 이하는 60.0% 수준으로 다소 향상되었다(정액급여, 초과급여만을 월평균 임금으로 하였음).

○ **전산업 주당평균 근로시간**은 '70년 당시 51.6시간(제조업은 53.4시간)이었으나, '94년 현재로는 47.4시간(제조업 48.8시간)으로 '70년에 비해 4.2시간(제조업 4.6시간) 줄어들었다.

○ 7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구직자수**가 **구인수**보다 많았었다. '68년 당시 구직자수 128천명에 구인수는 116천명, 구직배율(구직자수/구인수)은 110.3%, '93년 현재로는 구직자수 1,218천명에 구인수는 1,324천명으로 구인수가 더많아 구직배율은 92.0%를 나타내고 있다.

'67년 대비 직업훈련기관 13배, 훈련인원 24배 늘어

○ **직업훈련기관**(공공, 사업내, 인정)은 '67년 당시 36개소, **직업훈련 인원**은 7,642명, '93년 현재로는 훈련기관 451개소, 훈련인원 184,386명으로 각각 '67년 대비 12.5배, 24.1배 늘어났다.

'70년 대비 산업재해 발생건수 2.5배, 사망자수 3.5배 증가

○ '70년 당시 **산업재해 발생건수**는 35,389건, 재해자수는 37,752명, **재해자 중 사망자수**는 639명이었고, **재해도수율**(백만 근로시간당 재해 발생건수)은 15.5건, **재해만인율**(상시근로자 만인당 재해자수)은 8.2명이었다.
'93년 현재 산업재해 발생건수는 88,817건으로 '70년 대비 2.5배, 재해자수는 90,288명으로 2.4배, 재해자 중 사망자수는 2,210명으로 3.5배 늘어났으나 재해도수율은 5.2건, 재해만인율은 3.2명으로 낮아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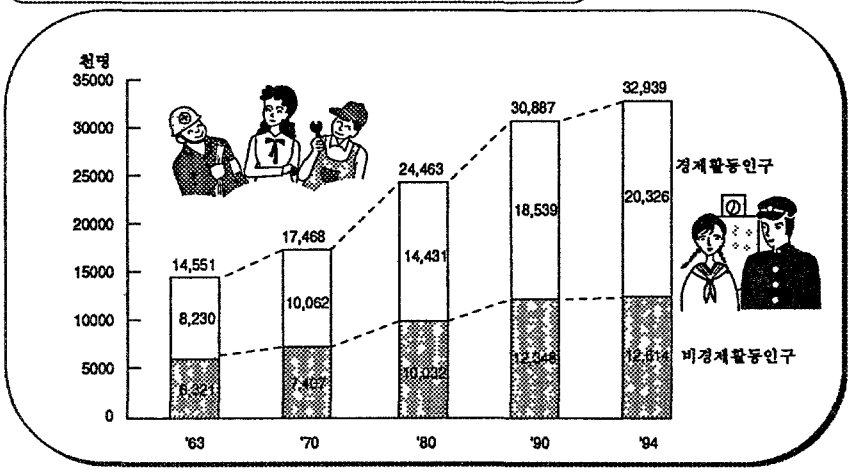
산재보험 급여지급액 '65년 대비 4,298배('93년) 늘어

○ **산재보험 급여지급**은 '65년 당시 22.2천건에 금액으로는 203백만원이 지급되었다. '93년 현재는 785천건에 872,531백만원이 지급되어 건수 기준 35.4배, 금액기준 4,298.2배 늘어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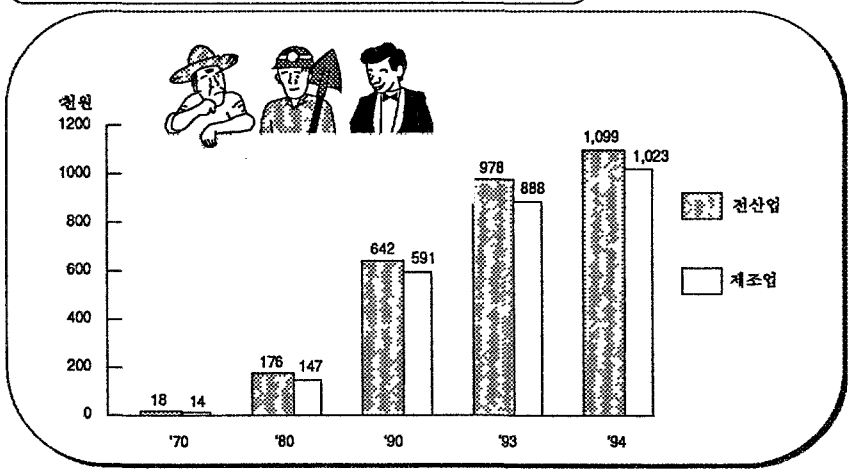
○ '63년 당시 **노조가입 조합원수**는 224천명, **노동조합 조직률**(노조원/조직대상 근로자)은 20.3%였던 것이 '93년 현재로는 조합원수는 1,667천명으로 7.4배 늘어났으나, 노조조직률은 17.2%로 오히려 낮아졌다.

○ **노사분규 발생건수**는 '67년 당시 105건, **참가인원**은 151천명, **분규로 인한 노동손실일수**는 1만일이었으며 '93년 현재 분규 발생건수는 144건, 참가인원은 109천명, 분규로 인한 노동손실일수는 1,308천일로 '87~'89년의 격심한 분규시기를 지나면서 노사분규 발생은 줄어들었다. 다만 참가자 1인당 노동손실일수는 12일로 여전히 높은 편이다.

경제활동 및 비경제활동인구



산업별 월평균임금



9. 가계 · 물가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 소득 '65년 대비 명목 201배, 실질 11배 증가한 셈

○ '65년 당시 **도시근로자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8,450원, **가계지출**은 8,630원으로 180원 적자상태였다. '94년 현재 월평균 소득은 1,701,304원으로 명목상으로는 '65년 대비 201.3배 늘어났다(다만 '94년 현재 소비자물가지수는 '65년 대비 19.0배 상승하였으므로 이를 제한 '65년 기준 실질임금은 89,495원이 되어 실질기준 10.6배 증가한 셈이다). 가계지출은 1,264,022원으로 명목기준 146.5배 늘어났고, 흑자액은 437,282원으로 나타나고 있다.

4인가족 가계지출은 '66년 대비 명목 144배, 불변 9배 늘어

○ **평균가족4인의 월평균 가계지출비용**은 '94년 현재 1,296천원으로 '66년에 비해 명목기준 144.0배 늘어났다('66년 불변기준으로는 8.5배).

엥겔계수 '65년 63.4%에서 29.7%로 낮아지고 외식비 비중은 늘어나

○ '65년 당시 도시가구의 월평균 소비지출 중 **식료품비**의 비중은 63.4%(엥겔계수)에 달하였다. '94년 현재로는 29.7%로 낮아졌다. **외식비**의 비중은 '65년 소비지출의 0.9%에 불과하였으나 '94년 현재 8.6%로 늘어났고, **가구집기 · 가구용품비** 지출은 '65년 1.1%에서 '94년 5.0%로, **보건의료비**는 1.3%에서 5.0%로, **교육 · 교양 · 오락비**는 6.5%에서 14.2%로, **교통 · 통신비**는 2.3%에서 11.3%로 각각 늘어났다.

'65년 당시 1만원의 화폐가치는
'94년 526원 정도가치로 낮아져(소비자물가 기준)

○ **생산자물가**는 '94년 현재 '65년 당시에 비하여 12.0배 올랐고, **소비자물가**는 19.0배 올랐다. '65년 당시 10,000원의 화폐가치는 '94년 현재 생산자물가로 따져 833원, 소비자물가로 따져 526원 가치로 하락하였다('94년 현재 10,000원의 가치를 '65년 당시로 역으로 계산해 올라가면 생산자물가로는 833원, 소비자물가로는 526원의 가치가 된다).

'65년 당시 1만원의 가치는
짜장면 286그릇값, 현재는 5그릇값에 불과

○ '94년 현재 1만원으로는 곰탕(3,500원 기준)은 2.8그릇, 짜장면(2,000원 기준)은 5그릇, 다방커피(1,000원 기준)는 10잔을 먹을수 있을 뿐이나, '65년 당시 1만원으로는 곰탕(60원 기준)은 166.6그릇, 우동(또는 짜장면: 35원 기준)은 285.7그릇, 다방커피(30원 기준)는 333.3잔을 먹거나 마실수 있다.

< 1만원의 연도별 가치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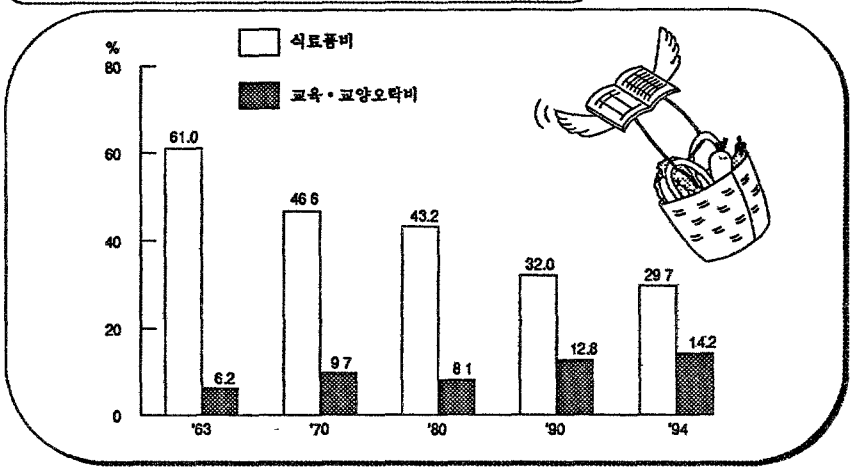
	규격단위	'65년		'94년	
		가격(원)	만원으로 살 수 있는 양	가격(원)	만원으로 살 수 있는 양
곰탕	1 그릇	60	166.6그릇	3,500	2.8그릇
짜장면	1 그릇	35	285.7그릇	2,000	5.0그릇
커피	1 잔	30	333.3잔	1,000	10.0잔
연탄[1]	19공탄, 공장도	8	1,250.0장	167	59.8장
이발료	대인 1회	110	90.9회	8,000	1.2회
목욕료	대중탕, 대인 1회	30	333.3회	2,200	4.5회

주: 1) '94년 현재 22공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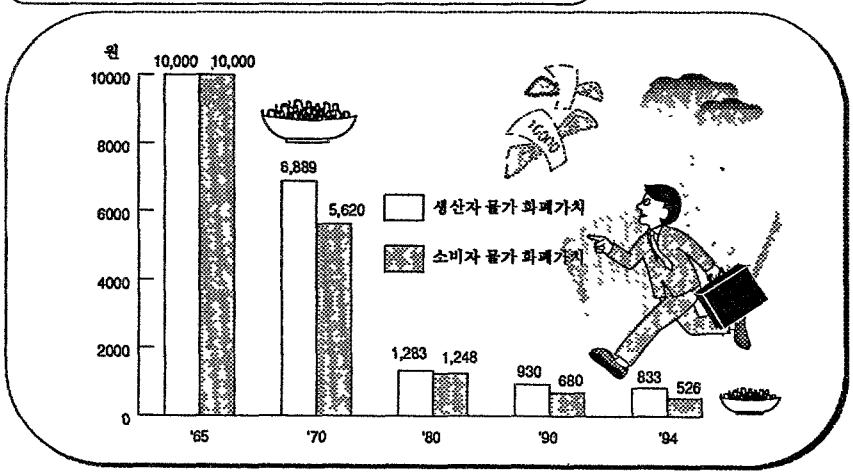
쇠고기값 '75년 대비 6.1배, 다방커피값은 14배 올라

○ 전도시의 **품목별 소비자가격변화**를 보면 일반미(재래미 중품 8kg)는 '75년 2,012원에서 '94년 현재 12,319원으로 6.1배 올랐고, 쇠고기(한우 중등육 500g)는 780원에서 7,483원으로 9.6배, 돼지고기(중등육 500g)는 531원에서 2,148원으로 4.0배 올랐으며 달걀(55g짜리 10개)은 265원에서 805원으로 3.0배, 소주(1병 360㎖, 25도)는 124원에서 589원으로 4.8배, 짜장면은 138원에서 1,734원으로 12.6배, 설렁탕은 257원에서 3,439원으로 13.4배, 다방커피는 81원에서 1,097원으로 13.5배, 양복세탁료(신사복 상하 1회 크리닝)는 610원에서 6,007원으로 9.8배, 신문구독료(일간지 1개월)는 '75년 600원에서 '94년 현재 6,000원으로 '75년 대비 10.0배 올랐다.

도시가구 소비중 식료품, 교육 • 교양비 지출



화폐가치의 변화



10. 교 육

유치원 취원율 '61년 0.8%에서 38.7%로 늘어나

○ '61년 당시 **유치원수**는 325개소, 원아수는 14,759명, 취원율은 0.8%에 불과하였었다. '94년 현재 유치원수는 8,910개소, 원아수는 510,100명으로 각각 '61년 대비 27.4배, 34.6배 늘어났다. 취원율은 '94년 현재 38.7%이다.

국민학교 학급당 학생수 '46년 65명에서 38명으로 낮아져

○ 광복되던 '45년 당시 **국민학교수**는 2,834개교, 학생수는 1,366천명이었고 교사 1인당 학생수는 69.2명, 학급당 학생수는 65.0명('46년)꼴이었다.
'94년 현재 학교수는 5,900개교로 2.1배 늘어났고, 학생수는 4,099천명으로 3.0배 늘어났다. 교사 1인당 학생수는 29.5명으로 '45년 당시에 비해 약 2.3배 가량 줄어들었고 학급당 학생수는 37.7명꼴로 줄어들었다.

○ '63년 당시만 하더라도 **국민학교 총학급수** 67,833학급 중에서 61~70명을 수용하고 있는 학급수가 28.0%, 71~80명을 수용하고 있는 학급수가 21.3%, 81~90명을 수용하고 있는 학급수가 11.7%, 90명 이상도 3.2%를 차지해 61명 이상 학생을 수용하고 있는 학급수가 총학급수의 64.2%에 달하였었다.
'94년 현재로는 61명 이상 수용학급수는 모두 191개 학급으로 총학급수 108,700학급의 0.2%에도 미치지 못한다.

중학교 취학률 '63년 해당연령 100명당 41명, 현재는 99명

○ '63년 당시 **중학교수**는 1,114개교로 **학생수**는 665.8천명, 취학률은 40.7%(남 52.5%, 여자 29.4%), **교사 1인당 학생수**는 39.9명, **학급당 학생수**는 60.6명이었다. '94년 현재로는 학교수는 2,645개교로 '63년 대비 2.4배, 학생수는 2,508.7천명으로 3.8배 늘어났고, 취학률은 99.0%(남 98.4%, 여 99.4%)이며, 교사 1인당 학생수는 25.1명, 학급당 학생수는 48.9명으로 낮아졌다.
중학교 교사 중 **여교사 비율**은 '63년 16.5%에서 '94년 현재 49.0%에 이르고 있다.

○ '63년 당시 **중학교 학생수별 학급수**는 40명 이하가 3.4%, 41~50명 6.4%, 51~60명 35.2%, 61명 이상 55.0%였다.
'94년 현재로는 40명 이하 12.3%, 41~50명 35.3%, 51~60명 52.1%, 61명 이

상 0.3%이다.

고등학교 취학률 '63년 해당연령 100명당 23명, 현재는 89명꼴

○ '63년 당시 **고등학교 학교수**는 660개교, 학생수는 364.3천명, **취학률**은 23.3%(남 31.6%, 여 15.0%), **교사 1인당 학생수**는 30.1명, **학급당 학생수**는 56.9명, **여교사 비율**은 8.2%였다.
'94년 현재 학교수는 1,784개교, 학생수는 2,060.8천명으로 각각 '63년 대비 2.7배, 5.7배 늘어났고, 취학률은 88.7%(남 89.4%, 여 88.0%)로 크게 늘어났으며, 교사 1인당 학생수는 21.1명, 학급당 학생수는 47.1명 수준으로 줄어들었다. 여교사 비율은 '94년 현재 23.1%에 이른다.

전문대학 학생수 '65년 대비 22배 늘어나

○ '65년 당시 **전문대학수**는 48개교, **학생수**는 23,159명, **여학생 비율**은 29.4%였다. '94년 현재 학교수는 135개교, 학생수는 506,806명으로 '65년 대비 각각 2.8배, 21.9배 늘어났고 여학생 비율은 36.8%로 늘어났다.

대학교 취학률 '65년 해당연령 100명당 6명에서 34명으로 늘어나

○ '65년 당시 **대학교수**는 83개교, **학생수**는 111.6천명(**여학생 비율** 23.6%)으로 **인구 천명당 대학생수**는 3.9명꼴이었고, **취학률**은 5.8%(남 8.5%, 여 2.9%)에 불과하였다. '94년 현재 학교수는 142개교로 '65년 대비 1.7배 늘어났고, 학생수는 1,150.7천명으로 10.3배 늘어났으며, 여학생 비율은 31.7%로 높아졌다. 인구 천명당 대학생수는 25.9명꼴로 6.6배 늘어났고, 취학률은 33.9%(남 44.9%, 여 22.2%)로 높아졌다.
여교수 비율은 '65년 11.1%에서 '94년 현재 20.1%로 높아졌다.

대학교 여학생졸업자 비율 '65년 18%에서 42%로 늘어나

○ '65년 당시 **국민학교 졸업자수**는 617.6천명(여학생 비율 43.3%), **중학교 졸업자수**는 189.7천명(여학생 35.1%), **고등학교 졸업자수**는 115.8천명(여학생 31.5%), **전문대학** 6.2천명(여학생 비율 37.1%), **대학교** 37.8천명(여학생 비율 18.0%)이었다. '94년 현재 국민학교 졸업자수는 848.3천명(여학생 비율 48.5%)으로 '65년 대비 37.3%(여학생 54.0%)가 늘어났고, 중학교 졸업자수는 735.7천명(여학생 48.4%)으로 3.9배(여학생 5.4배) 늘어났으며, 고등학교 졸업자수는 687.8천명(여학생 48.1%)으로 5.9배(여학생 비율은 9.1배) 늘어났고,

전문대학 졸업자수는 128.4천명(여학생 54.9%)으로 20.7배(여학생 비율은 30.7배) 늘어났으며, 대학교 졸업자수는 183.4천명(여학생 41.2%)으로 4.9배(여학생 비율은 11.1배) 늘어났다.

국민학교 졸업생의 중학 진학률은 '65년 54%에서 거의 100%로 변모

○ 당해연도 졸업생 중에서 **상급학교로 진학하는 진학비율**은 '65년 당시 국민학교 졸업생은 54.3%, 중학교 졸업생은 69.1%, 고등학교 졸업생은 32.3%로 각각 상급학교에 진학했던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94년 현재 국민학교 졸업생은 99.9%가 중학교로 진학하고 있으며, 중학교 졸업생은 98.8%가, 고등학교 졸업생은 45.3%가 상급학교로 진학하고 있다.

○ 국민학교 **도서관수**는 '66년 당시 1,321개소에서 '94년 현재 3,521개소로 약 30년 동안 2.7배 늘어났다. 중학교 도서관수는 326개소에서 2,128개소로 6.5배, 고등학교 도서관수는 537개소에서 1,930개소로 3.6배 늘어났고, 대학교 도서관은 110개소에서 332개소로 늘어났다.
그러나 학교 총수에 대한 도서관 비율은 '66년 당시 국민학교는 25.0%로 4개교당 1도서관 비율이었고, 중학교는 26.1%, 고등학교는 73.1%, 대학교는 132.5%였다. '94년 현재 국민학교 도서관수는 학교당 59.7%, 중학교의 경우는 80.5%, 고등학교는 108.2%, 대학교의 경우는 2.3배이다.

정부예산 대비 교육비예산은 '53년 3.3%에서 21.5%로 확대

○ 교육부 예산 중 **교육비**에 충당하는 예산은 '53년 당시 GNP대비 0.4%, 정부예산 대비로는 3.3%였다. '94년 현재 교육비 예산은 GNP의 3.4%, 정부예산의 21.5%에 이른다. 이 중 의무교육비(국민학교 교육)에 충당하는 예산은 전체교육비 중에서 '53년 현재 50.0%에서 '60년 당시 한때 83.9%까지 이르렀으나 이후 감소하기 시작하여 '94년 현재로는 53.9%에 머물러 있으나 아직도 의무교육에 많은 비중이 집중되어 있다.

지방교육비 특별회계 재원 '62년 대비 897배 늘어나

○ **지방교육비 특별회계 재원**은 '62년 당시 119억원, 이 중 국고부담이 78.9%, 지방부담이 21.1%였다. '94년 현재는 10조 6,752억원으로 '62년 대비 897.1배 늘어났다. 국고부담 비율은 83.0%로 확대되었고, 지방부담 비율은 17.0%로 줄어들었다.

공교육비 총액 '67년 대비 306배 늘어나

○ '67년 당시 **공교육비**(예산을 기초로 국공립 및 사립학교 교육비와 육성회비가 포함됨) 총액은 533억원, 이 중 국민학교 배정분은 47.9%, 중학교와 고등학교는 각각 16.3%, 전문대학 이상은 19.5%였다. '94년 현재 공교육비 총액은 16조 2,910억원으로 '67년 대비 305.6배 늘어났고, 국민학교분은 30.1%, 중학교는 18.3%, 고등학교는 19.9%, 전문대학 이상은 31.7%이다.

○ **학생 1인당 공교육비 지출**은 국민학교가 '67년 당시 4.7천원에서 '94년 현재 1,195.9천원으로 254.4배 늘어났고, 중학교는 9.5천원에서 1,186.2천원으로 124.9배, 고등학교는 19.7천원에서 1,571.6천원으로 79.8배, 대학교는 68.3천원에서 3,653.8천원으로 53.5배 늘어났다.

도시가구 교육비지출 비중은 '63년 5.6%에서 9.3%로 늘어나

○ **연평균 소비지출 중 교육비의 비중**을 보면 '63년 당시 도시가구의 경우 총소비지출 중 교육비로 5.6%를 쓰고 있었으며, 농가의 경우는 3.4%를 쓰고 있었다. '94년 현재 도시가구는 9.3%, 농가의 경우는 10.1%로 농가의 교육비 부담이 도시가구를 능가하고 있다.

박사학위자 '52년 10명 남짓, 현재는 3만 8천명 넘어

○ 국내에서 **박사학위**를 수여받은 사람은 '52년 당시 10명에 불과하였고, '70년 당시에도 2,646명에 지나지 않았다. '94년 현재는 36,065명, 외국에서 학위를 받은 사람까지 합치면 박사학위자 총수는 38,134명에 이르며, 인구 만명당 8.6명꼴이다.

사설학원수 '62년 대비 344배 늘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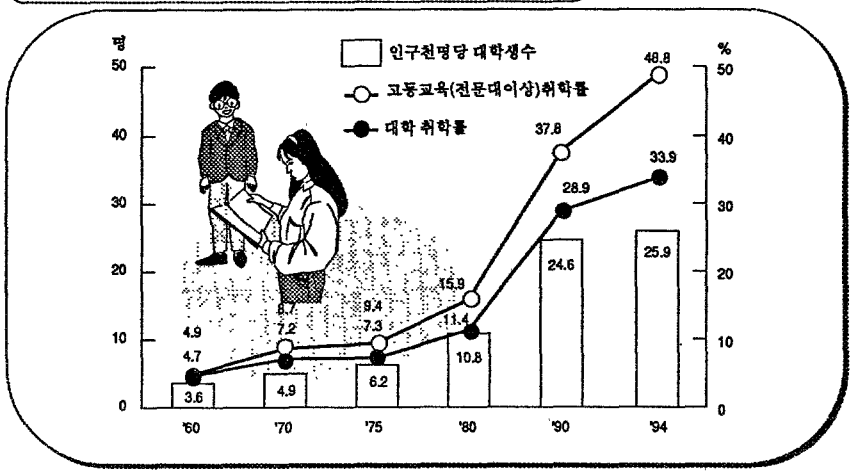
○ '62년 당시 **사설학원수**는 모두 141개, **수강자수**는 21,310명에 불과했다. '94년 현재로는 48,476개에 3,065.9천명이 수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고등교육기관 외국인교원 '70년 대비 2.8배 늘어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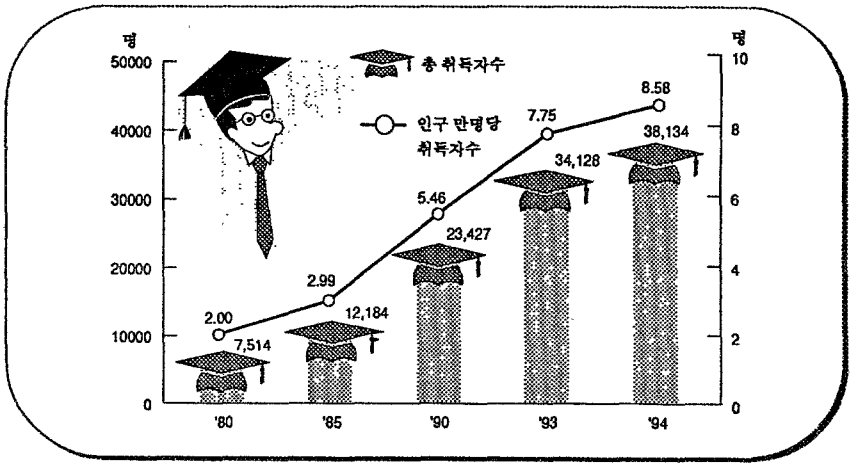
○ 고등교육기관(전문대 이상)에 있는 **외국인 교원수**는 '70년 당시 150명, '94년

현재는 418명으로 '70년 대비 2.8배 늘어났다. 미국인 교원(재미교포 포함)이 56.2%, 일본인 교원이 8.6%, 독일인 교원이 4.8%, 프랑스 교원이 4.5%, 캐나다 교원이 3.6%를 차지하고 있다.

인구천명당 대학생수 및 취학률



박사학위 취득자



11. 보 건

일반 병·의원수 '53년 대비 6배 늘고, 치과병·의원은 15배 늘어

○ '53년 당시 **일반 병·의원수**는 모두 2,588개소, **치과병·의원수**는 508개소, **한방병·의원수**는 863개소 등이 있었다. '94년 현재 일반 병·의원수는 14,279개소로 '53년 대비 5.5배 늘어났고, 치과병·의원은 7,726개소로 15.2배 한방병·의원수는 5,617개소로 6.5배 늘어났다.

의사 1인당 인구 '48년 5,651명에서 824명으로 낮아져

○ '48년 당시 **의사수**는 3,569명, **의사 1인당 인구수**는 5,651명꼴이었다. '94년 현재는 의사수가 54,406명에 이르고, 의사 1인당 인구수는 824명으로 낮아졌다. **전문의수**는 '61년 당시 1,717명에서 '94년 현재 29,595명으로 '61년 대비 17.2배 늘어났다.

○ '53년 당시 **보건소**(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제외)수는 불과 15개소, '94년 현재는 269개소로 3.4배 늘어났다.

1개 병상당 인구수 '65년 2,515명에서 317명으로 낮아져

○ '65년 당시 **병상수**는 11,413개, **1개 병상당 인구**는 2,515명, '94년 현재는 병상수 141,267개로 12.4배 늘어났고, 병상당 인구는 317명으로 낮아졌다. **병상이용률**은 '65년 당시 56.6%에서 '94년 현재는 75.8%로 변하였다.

○ '65년 당시 **결핵환자수**는 1,240천명으로 추정되고, **인구 천명당 유병률**은 5.1명꼴, '90년 현재 결핵환자수는 728천명으로 추정되어 있고, 유병률은 1.8명꼴이다.

이질환자 사망률 '46년 당시 52%, 현재는 사망자 없음

○ '46년 당시 **장티푸스 환자 발생수**는 11,278명, 그 중 17.0%가 사망했고, 세균성 이질은 2,389명 발생에 사망률 51.9%이었다. '94년 현재 장티푸스 환자는 267명, 세균성 이질 환자는 233명이나, 사망자는 거의 없다.

남자 10만명당 사망자수 '81년 660명에서 592명으로 줄어

○ '81년 당시만 해도 **남자 10만명당 사망자수**는 659.5명, 고혈압성 질환(9.7%), 뇌혈관 질환(8.7%), 만성 간질환 및 간경변(5.4%), 교통사고(4.5%), 위암(4.5%), 결핵(4.4%) 등이 **주요 사인**이었다.
'93년 현재 남자 10만명당 사망자수는 592.3명으로 줄어들었고, 뇌혈관 질환(13.3%), 교통사고(8.2%), 만성 간질환 및 간경변(7.8%), 위암(6.2%), 간암(5.9%), 폐암(4.4%) 등이 주요 사인으로 되었다.

○ **여자 10만명당 사망자수**는 '81년 당시 457.1명으로 고혈압성 질환(11.9%), 뇌혈관 질환(11.2%), 위암(4.6%), 만성 간질환 및 간경변(2.6%) 등이 **주요 사인**이었다. '93년 현재 여자 10만명당 사망자수는 '81년과 비슷한 454.4명 수준으로 뇌혈관 질환(19.6%), 고혈압성 질환(6.5%), 위암(5.0%), 당뇨(3.5%), 간암(2.5%), 만성 간질환 및 간경변(2.4%) 등이 주요 사인이 되고 있다.

○ '77년 당시 생활 무능력자, 저소득자 등을 대상으로 한 **의료보호사업 수혜대상자**는 2,095천명으로 총인구의 5.8%였다. '94년 현재는 2,136천명으로 총인구의 4.8%이다.

의료보험 수혜율 '77년 8.8%에서 97.3%로 높아져

○ '77년 당시 **의료보험 수혜자**는 3,202천명으로 총인구 대비 **수혜율**은 8.8%였다. '94년 현재는 총인구의 97.3%에 이르는 43,262천명이 수혜자이다.

목욕장 1개소당 인구수 '60년 3만2천명에서 5천명 수준으로 떨어져

○ '60년 당시 **목욕장업소수**는 770개소, 1개소당 인구는 32,483명꼴로 웬만한 읍인구 전체가 한 목욕탕에 메달린 셈이었다. **이용업소**는 13,684개소로 1개소당 남자인구 917명꼴, **미용업소수**는 6,721개로 1개 미장원당 여자인구 1,854명꼴이었다.
'93년 현재는 목욕탕 업소수 8,835개, 1개소당 인구는 4,987명 꼴이며, 이용업소수는 29,382개로 1개소당 남자인구 755명꼴, 미용업소수는 66,564개소로 1개소당 여자인구 329명 꼴이다.

1인 1일당 식품공급량 '62년 881g, 현재('93년)는 1,449g 수준

○ '62년 당시만 해도 **하루 한 사람당 식품공급량**은 881.3g이었고 식물성 식품

이 93.4%(그 중 곡류 61.9%, 과실류 2.1% 등)이고 동물성 식품은 6.6%에 불과했다. '93년 현재 1인 1일당 식품공급량은 1,448.9g으로 '62년 대비 64.4% 늘어났고 식물성 식품이 76.0%(그 중 곡류 32.3%, 과실류 6.6% 등)로 비중이 낮아진 대신 동물성 식품은 24.0%로 높아졌다.

1인 1일당 식품 에너지 공급량 '62년 1,943kcal에서 2,863kcal로 높아져

○ **1인 1일당 식품 에너지 공급량**은 '62년 당시 1,943㎉로 식물성 95.9%, 동물성 4.1%였다. '93년 현재 에너지 공급량은 2,863㎉로 '62년 대비 47.3% 늘어났고, 식물성 85.9%, 동물성 14.1%이다. **단백질 공급량**은 '62년 53.2g에서 '9 3년 현재 90.8g으로 70.7% 늘어났고, **지방 공급량**은 '62년 13.1g에서 '93년 현재 72.9g으로 무려 5.6배나 늘어났다.

'65년 당시 고교 3년생 키는 요즈음 중 3년생보다 더 작아

○ '65년 당시 **6세아**(국민학교 취학연령)의 **평균 키**는 남자 112.2㎝, 여자 110.8㎝였고, 중3학령인 **14세아의 평균키**는 남자 149.9㎝, 여자 147.6㎝였으며, 고3학령인 **17세의 평균 키**는 남자 163.7㎝, 여자 156.9㎝였다.
'93년 현재 6세아의 키는 남자 119.1㎝, 여자 117.9㎝로 각각 6.9㎝, 7.1㎝ 더 커졌고, 14세아의 키는 남자 164.4㎝,여자 157.4㎝로 각각 14.5㎝, 9.8㎝ 더 커졌으며, 17세의 키는 남자 170.9㎝, 여자 159.0㎝로 각각 7.2㎝, 2.1㎝ 더 커졌다. '65년 당시 고등학교 3학년생의 키가 요즈음의 중학교 3년생보다 더 작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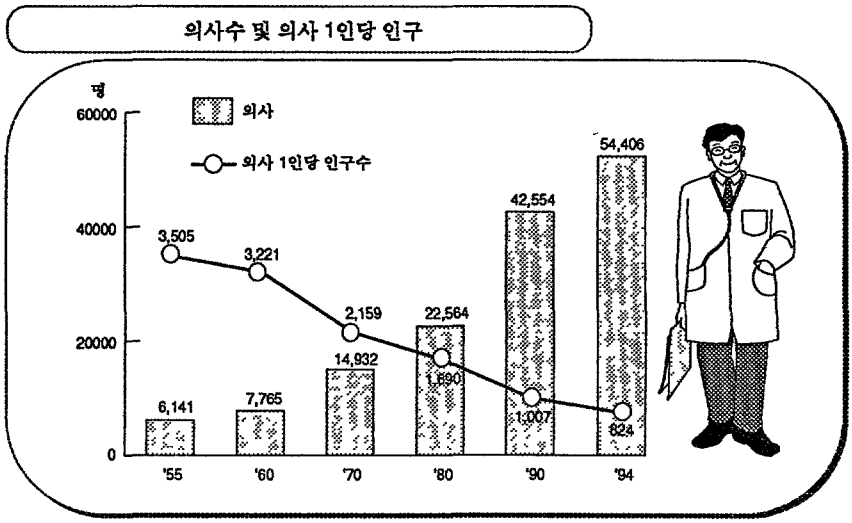
'65년 당시 고교 3년생 체중은 현재 중 3년생과 비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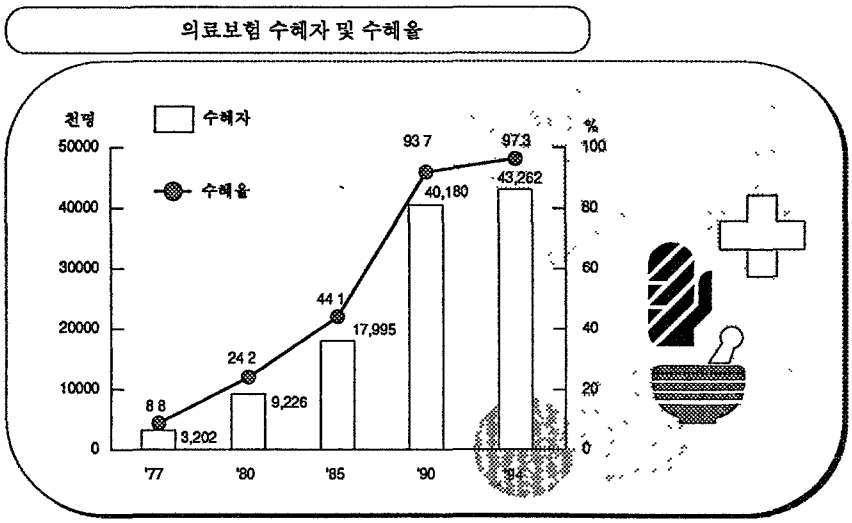
○ 한편 **6세아의 평균 체중**은 '65년 당시 남자 18.4㎏, 여자 18.3㎏에서 '93년 현재 남자 22.3㎏, 여자 21.5㎏으로 각각 3.9㎏, 3.2㎏ 더 늘어났고, **14세의 평균 체중**은 '65년 남자 41.1㎏, 여자 41.5㎏에서 '93년 현재 54.2㎏, 51.0㎏으로 각각 13.1㎏, 9.5㎏ 더 늘어났고, **17세의 경우**는 '65년 남자 54.3㎏, 여자 51.0㎏에서 '93년 현재 남자 62.6㎏, 여자 54.1㎏으로 각각 8.3㎏, 3.1㎏씩 늘어났다. '65년 당시 고등학교 3년생의 몸무게가 요즈음의 중학교 3년생 몸무게와 같았던 셈이다.

상수도 보급률 '55년 16%에서 81%로 높아져

○ '55년 당시 **상수도 보급률**은 16.1%, **1일 1인당 급수량**은 71ℓ 꼴이었다. '93

년 현재 상수도 보급률은 81.1%, 1일 1인당 급수량은 394ℓ로 5.5배 늘어났다.





12. 사회 · 환경

○ **아동복지시설**(영육아시설, 직업보도시설)은 '55년 419개소, 재소인원 45,260명에서 '94년 현재는 275개소, 재소인원 19,214명으로 줄어들었다.

입양아동수 '85년 한때 11.7천명에서 현재는 3.5천명으로 줄어

○ **입양아동수**는 '72년 3,690명(국내입양 5.4%, 해외입양 94.6%)에서 '85년 한때 11,692명까지 늘어났었으나, '94년 현재는 3,469명(국내입양 34.8%, 해외입양 65.2%)으로 줄어들었다. **해외입양 비율**이 아직도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노인복지시설은 '56년 대비 3.8배 늘어

○ **노인복지시설**은 '56년 당시 37개소, 재소인원 2,132명에서 '94년 현재 141개소, 재소인원 8,089명으로 각각 3.8배 늘어났다.

○ **모자보호시설**은 '55년 당시 62개소, 재소인원 6,831명에서 '94년 현재 37개소, 재소인원 '2,523명으로 줄어들었다.

○ **부녀상담자수**는 '62년 24.8천명에서 '94년 현재 299.4천명으로 12.1배 늘어났다. 상담자 조치결과 직업알선은 825명에서 22,142명으로 26.8배 늘어났다.

'61년 대비 장애인 복지시설수 4.2배, 시설내 인원은 2.4배 늘어

○ **장애인복지시설**은 '61년 20개소, 재소인원 2,611명에서 '94년 현재 160개소, 재소인원 13,936명으로 '61년 대비 각각 4.2배, 2.4배 늘어났다.

소년소녀 가장수 늘고, 생활보호대상자는 줄어

○ **소년소녀 가장수**는 '85년 4,901명(가구원수 6,224명)에서 '94년 현재 7,540명(가구원수 6,832명)으로 '85년 대비 53.8% 늘어났다.
생활보호 대상자는 '77년 당시 2,098천명으로 총인구의 5.8%에 이르렀으나 '94년 현재는 1,903천명으로 총인구의 4.3%로 줄어들었다.

○ **사회복지사업 관련기금조성 실적**은 '82년 당시 118.8억원에서 '94년 현재 399.3억원으로 '82년 대비 3.4배 늘어났고 **인구 1인당 기부금**은 '82년 당시 48.0원에서 '94년 현재 89.5원으로 86.7% 늘어났다.

형법범죄 발생건수 '71년 대비 52%, 강력범죄는 59% 늘어나

○ **형법범죄 발생건수**는 '71년 189.6천건에서 '93년 현재 287.5천건으로 51.6% 늘어났으며, 그 중 강력범죄 발생건수는 26.3천건에서 41.7천건으로 59.0% 늘어났다. 재산범죄는 102.5천건에서 185.9천건으로 늘어나 '71년 대비 81.4%나 늘어났다.
특별법범 발생건수는 '71년 160.5천건에서 '93년 현재 1,069.5천건으로 6.7배나 늘어났으며 도로교통법 위반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이 48.1%를 차지하고 있다.

범죄자수 '73년 대비 4.4배 늘어나

○ **범죄자수**도 크게 늘어나고 있다. '73년 당시 범죄자수는 391.2천명이었으나, '93년 현재 1,739.0천명으로 4.4배 늘어났다.

소년범죄도 '74년 대비 2.3배 늘어나

○ **소년범죄**도 크게 늘어나고 있다. '74년 당시만 해도 소년범죄자수는 47.9천명이었으나 '93년 현재는 110.5천명으로 2.3배 늘어났다. '74년 당시에는 유흥비 충당·허영·사치심 등 이욕으로 인한 범죄가 28.9%, 우연 또는 취중에 의한 범죄가 15.0%를 차지하고 있었으나, '93년 현재는 우연·취중에 의한 범죄가 30.0%를 차지하고 있어 성인들의 보다 많은 관심이 요구되고 있다.
마약·각성제 중독으로 인한 범죄도 '93년 현재 전체 소년범죄의 0.5%에 지나지 않지만,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음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 **마약류 사범**은 '57년 당시 104명 단속에 불과하였으나, '93년 6,773명, '94년 4,555명 단속으로 크게 늘어나고 있다.

외국인 폭력범죄 '66년 대비 6.4배 증가

○ **외국인 폭력범죄**(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가 늘어나고 있다. '66년 당시 85명에서 '93년 현재 543명으로 '66년 대비 6.4배 늘어났다.

교통사고 사망자 '53년 하루평균 5명, 현재는 28명 넘어

○ 자동차의 범람으로 **교통사고**가 크게 늘어났다. '56년 당시만 해도 **발생건수**는 4,934건, **교통사고자수**는 8,718명(인구 10만명당 42.1명, 하루평균 23.9명) **사망자수**는 1,847명(인구 10만명당 8.9명, 하루평균 5.1명 사망)이었으나, '93년 현재 발생건수는 260,921건으로 '56년 대비 52.9배 늘어났고 교통사고자수는 348,081명(인구 10만명당 790.1명, 하루평균 953.6명)으로 39.9배 늘어났으며, 사망자수는 10,402명(인구 10만명당 23.1명, 하루평균 28.5명 사망)으로 5.6배 늘어났다.

화재발생 건수 '48년 대비 약 10배 늘어나

○ **화재발생 건수**도 크게 늘어나고 있다. '48년 당시 1,924건이었던 화재발생 건수는 '93년 현재 18,747건으로 '48년에 비해 9.7배 늘어났으며, 화재발생의 82.0%가 실화에 의한 것이다.

대기오염물질인 아황산가스 배출량(서울)은 '80년에 비해 4배 가량 낮아져

○ 무연탄, 석유, 자동차 배기가스 등에서 배출되는 **아황산가스(SO_2) 배출량**은 '80년 당시 서울 0.094ppm, 부산 0.058ppm, 울산 0.053ppm 등으로 연간 평균치 대기환경 기준인 0.05ppm을 초과하였으나, '93년 현재는 서울 0.023ppm, 부산 0.028ppm, 울산 0.032ppm으로 허용기준치 이하로 떨어져 있다.

○ 한강의 노량진 수계의 **생화학적 산소요구량**(BOD)은 '80년 당시 3.9㎎/ℓ에서 '84년 한때 6.7㎎/ℓ까지 오염도가 높아지기도 하였으나, '93년 현재로는 3.1㎎/ℓ로 다소 호전되었다. 그러나 낙동강 삼랑진 수계의 BOD는 '80년 1.8㎎/ℓ에서 '93년 3.4㎎/ℓ로, 영산강 나주 수계는 3.8㎎/ℓ('81년)에서 '93년 4.5㎎/ℓ로 오염도가 높아져 있고, 금강의 부여 수계도 2.1㎎/ℓ에서 3.1㎎/ℓ로 높아져 있다.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업소수는 '80년 대비 3.1배 많아져

○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사업장수**는 '80년 당시 8,835개소에서 '93년 현재 27,452개소로 3.1배 많아졌고, 소음시설이 있는 사업장수는 12,671개소에서 '93년 현재 28,365개소로 2.2배 많아졌다.

폐수배출시설 업소수도 '80년 대비 5.7배 많아져

○ 수질오염물질을 공공수역에 배출하는 **폐수배출시설 사업장수**는 '80년 5,097개소에서 '93년 현재 28,834개소로 5.7배나 많아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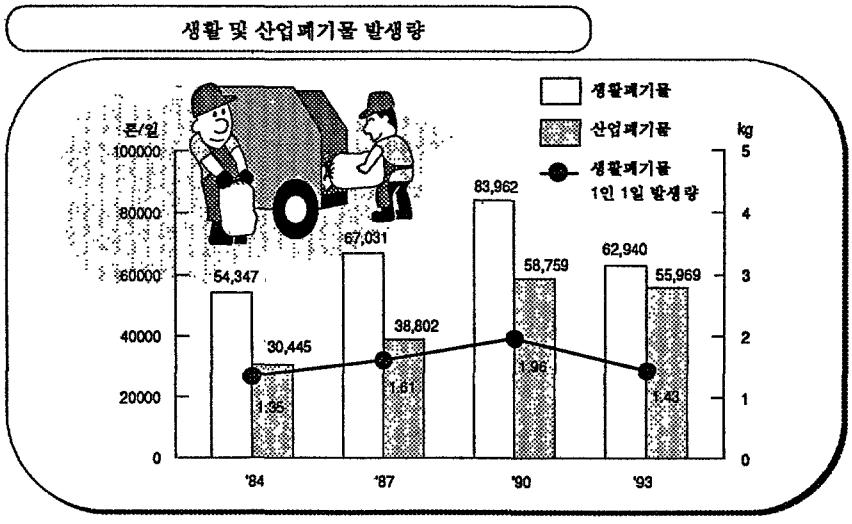
생활쓰레기 방출량 하루평균 8톤 트럭 7,868대분

○ **생활폐기물(쓰레기) 발생량**은 '84년 당시 하루평균 54,347톤(1인 1일당 1.35kg)에서 '93년 현재 62,940톤(1인 1일당 1.43kg)으로 15.8% 늘어났다. '93년도 생활쓰레기 방출량은 매일 8톤 트럭 기준으로 7,868대가 동원되어야 하는 분량이다. 한편 **산업폐기물**은 '84년 30,445톤(하루평균)에서 '93년 55,969톤으로 '84년 대비 83.8%가 늘어났다.

특정폐기물 발생량도 '84년 대비 25배 가량 늘어나

○ 폐산, 폐알카리, 폐석회, 오니(오염물질이 섞인 진흙) 등 **특정폐기물 발생량**은 84년 332천톤에서 '93년 현재 8,230천톤으로 무려 24.7배나 늘어났다.

생활 및 산업폐기물 발생량



13. 문화 · 관광 · 스포츠

도서발행종수(초판) '66년 대비 11배 가량 늘어

○ **도서발행종수**는 초판기준으로 '66년 당시 2,616종에서 '94년 현재 28,082종으로 '66년 대비 10.7배 늘어났으며 **발행부수(초판기준)**는 4,380천부('68년)에서 132,374천부로 30.2배 늘어났다.

'47년 대비 일간지 2배, 주간지 48배, 월간지 27배 이상 많아져

○ **국내 일간지**는 '47년 당시 56종에서 '94년 126종으로 '47년 대비 2.3배 늘어났고, **주간지**는 '53종에서 2,561종으로 무려 48.3배 늘어났으며, **월간지**는 123종에서 3,376종으로 27.4배 늘어났다.

번역도서 발행종수 '70년 대비 10배 늘어

○ **초판기준 번역도서 발행종수**는 '70년 당시 495종에서 '94년 5,064종으로 '70년 대비 10.2배 늘어났다. 문학서적이 '94년 현재 38.3%('70년은 43.2%)에 이른다. 순수과학, 기술과학 도서가 '94년 현재 685종으로 '70년 3종에 비해 228.3배 늘어났다.

○ **외국도서 수입**은 '80년 당시 1,352천부, 7,493천불에서 '93년 현재 4,695천부, 39,945천불로 '80년에 비해 부수기준 3.5배, 금액기준 5.3배 늘어났다.

인구 1인당 연간 영화 관람회수는 '61년 2.3회에서 1.1회로 떨어져

○ '61년 당시 우리나라 **일반 극장수**는 302개, **연간 관람객수**는 58,608천명, **인구 1인당 연간 관람회수**는 2.3회 정도였다. '94년 현재 일반 극장수는 650개, 소극장수는 379개로 늘어났으나, 연간 관람객수는 48,354천명, 인구 1인당 연간 관람회수는 1.1회로 줄어들었다.
'45년 당시 5편의 **극영화**가 제작되었고, '69년 한때 229편까지 제작되기도 하였으나 '93년 현재에는 63편이 제작되었다.

외국영화 수입액 '62년 대비 74배 가량 늘어

○ **한국영화 수출액**은 '62년 당시 8천불에서 '94년 현재 621천불로 77.6배 늘어났고, **외화 수입액**도 '62년 817천불에서 '93년 현재 60,228천불로 73.7배 늘어났다.

○ '59년 당시 **외화 수입편수** 중 미국영화가 차지하는 비중은 78.8%였고 독일영화가 7.4%, 프랑스영화 4.9%, 이탈리아영화 4.4% 등이었다.
'94년 현재 미국영화는 52.5%로 비중이 낮아진 대신 홍콩영화가 20.9%로 높아졌고, 이탈리아영화는 7.5%, 영국영화는 4.8%, 프랑스영화는 4.6% 등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 **방화** 중 가장 많은 관객을 동원한 작품은 '93년의 서편제로 1,035.7천명, 다음이 '94년의 투캅스로 860.4천명, **외화**로는 1위가 '90~'91년의 사랑과 영혼으로 1,683.3천명, 다음이 클리프행어 1,118.6천명이었다.

○ '80년 당시 **방송국수**는 300개소(지방계열사 등 포함)였으나 '93년 현재로는 1,612개소로 늘어났다. TV방송국수는 '80년 167개소에서 '93년 현재 1,355개소로 늘어났다.

'60년 대비 관광호텔수 44배, 객실수 180배 늘어나

○ '60년 당시 **관광호텔수**는 10개, 객실수는 245실이었으나 '94년 현재 호텔수는 438개로 '60년 대비 43.8배, 객실수는 44,066실로 179.9배 늘어났다.

내국인 1인당 여행경비는 '60년 당시 582불에서 1,407불로 2.4배 늘어

○ 외국인 여행에 따른 **여행수입**은 '60년 당시 0.4백만불로 외국인 입국자 1인당 46불꼴이었다. '94년 현재 여행수입은 3,263.7백만불로 '60년 대비 8,159.3배 늘어났고, 1인당 소비액도 1,176불로 25.6배 늘어났다.
한편 내국인 해외여행에 따른 **여행경비 지급**은 '60년 당시 4.6백만불, 내국인 출국자 1인당 582불 소비수준이었으나, '94년 현재 여행경비 지급액은 4,437.3백만불, 1인당 소비액은 1,407불로 각각 '60년 대비 964.6배, 2.4배 늘어났다.

국립공원 탐방객수 '80년 당시 국민 3.6명당 1명, 현재 1.2명당 1명꼴

○ **국립공원수**는 '80년 당시 13개소였고 **탐방객수**는 10,497천명으로 연간 국민

3.6명당 1명꼴로 국립공원을 탐방한 셈이었고, '94년 현재로는 공원수 20개소에 탐방객수는 36,398천명으로 국민 1.2명당 1명꼴로 탐방한 셈이 되고 있다.

국민 1만명당 해외출국자 '70년 23명에서 710명 수준으로 높아져

○ '70년 당시만 해도 **내국인 출국자**는 73.6천명으로 국민 만명당 22.8명이 출국한 셈이었으나 '94년 현재 내국인 출국자수는 3,154.3천명으로 **국민 만명당 출국자수**는 709.6명으로 나타나 각각 '70년 대비 42.9배, 31.1배 늘어났다.
방문시찰 및 관광목적 출국자수는 '70년 당시 19.7천명에서 '94년 현재 1,718.3천명으로 87.2배 늘어났다.
외국인 입국자수는 '70년 당시 116.1천명에서 '94년 현재 2,775.5천명으로 '70년 대비 23.9배 늘어났고, **관광목적 입국자수**는 53.9천명에서 1,915.5천명으로 35.5배 늘어났다.

하계 올림픽 참가선수 '48년 대비 5배 늘어나('92년)

○ 우리나라의 **아시안게임 참가 현황**을 보면 '54년 제2회 필리핀 마닐라대회에 6개 종목 선수 57명, 임원 24명이 참가하였고, '94년 제 12회 일본 히로시마 대회에는 25개 종목에 선수 558명, 임원 167명이 참가하였다.
하계올림픽에는 정부수립 해인 '48년 제14회 영국 런던대회에 7개 종목에 걸쳐 선수 50명, 임원 17명이 참가하였고 '92년 제25회 스페인 바로셀로나 대회에는 24개 종목에 선수 247명, 임원 97명이 참가하였다.
동계올림픽에는 '48년 제5회 스위스 생모리츠 대회에 선수 3명, 임원 2명이 참가한 것을 시발로 '94년 제17회 노르웨이 릴레함메르 대회에는 선수 24명, 임원 21명이 참가하였다.

전국체전 참가자 광복 당시의 3.2배

○ 광복되던 해의 제26회 **전국체전**(서울)에는 개최종목 10종에 4,100명이 참가하였고, '94년 제75회 전국체전(대전)에는 개최종목 35종에 22,075명이 참가하였다. 종목수는 '45년 대비 25개 종목이 늘어났고, 참가인원은 5.4배 늘어난 셈이다. '72년 제1회 소년체전(서울)에는 개최종목수 19종에 6,652명이 참가하였고, '94년 제23회 소년체전(광주)에는 개최종목 26종에 13,090명이 참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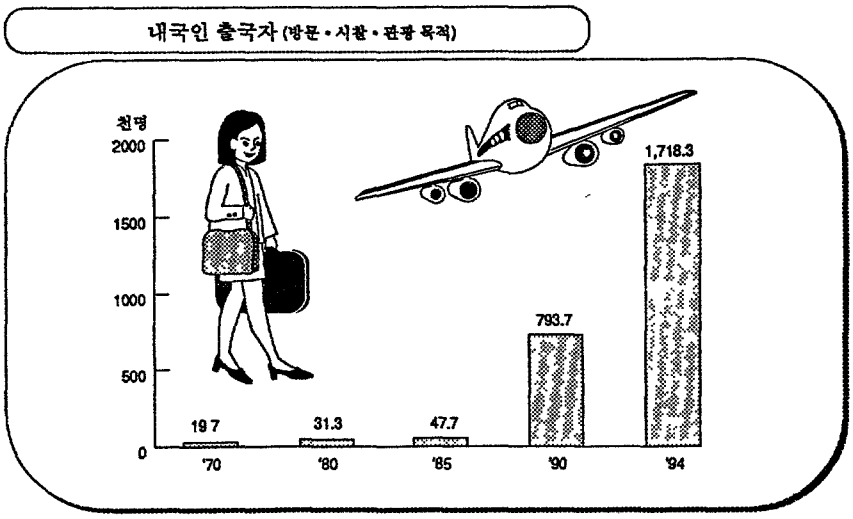
○ **프로야구팀수**는 '82년 당시 6개팀이었고 등록 선수수는 144명, '94년 현재로는 8개팀에 467명의 선수가 뛰고 있다. **프로축구팀수**는 '83년 당시 2개팀에

45명의 선수가 있었으나 '94년 현재는 7개팀에 230명의 선수가 있다.
프로 골프선수수는 '82년 당시 98명에서 '94년 현재 1,512명으로 '82년 비해 15.4배 늘어났다. 한때 인기를 누렸던 프로권투의 경우는 '82년 당시 선수수 1,365명에서 '94년 현재 326명으로 '82년 대비 4.2배 가량 줄어들었다.

○ 중·고등부의 씨름선수는 '94년 현재 중등부가 899명, 고등부가 618명으로 각각 '79년 대비 2.4배, 2.3배 늘어났다. 축구선수는 '94년 현재 중등부 3,289명, 고등부 2,478명으로 '79년 대비 중등부는 2.1배, 고등부는 38.4% 늘어났다. '84년까지 증가세를 보였던 테니스 선수수는 '94년 현재 중등부 314명, 고등부 274명으로 '79년에 비해 각각 2.4배 가량 줄어들었다.

인구 만명당 경마장 입장객 '45년 대비 5.3배 늘어

○ '45년 당시 경마장 입장인원은 72천명, 인구 만명당 234.3명이 입장한 셈이며 1인당 마권구매액은 0.8원꼴, '94년 현재 경마장 입장인원은 5,471.9천명으로, 인구 만명당 입장인원은 1,230.9명꼴이며, 1인당 마권구매액은 312.0천원으로 나타나고 있다.



14. 과학 · 기술

인구 만명당 R&D연구원수 '65년 인구 만명당 1명꼴에서 22명으로 늘어나

○ **연구개발(R&D)활동 수행기관수**는 '65년 당시만 해도 105개 기관에 불과하였고 **연구원수**도 2,765명으로 **인구 만명당 연구원수**는 1.0명이었다.
'93년 연구기관수는 3,318개 기관으로 '65년 대비 31.6배 늘어났고, 연구원수는 98,764명으로 35.7배 늘어났으며, 인구 만명당 연구원수도 22.4명으로 불어났다.

○ '76년 당시 **전공과목별 연구원수** 비율은 공학 40.9%, 이학 16.5%, 농학 23.5%, 의약 · 보건학 13.3%, 기타 5.7%였으나 '93년 현재는 공학 65.4%, 이학 14.6%, 의약 · 보건학 9.6%, 농학 7.5%, 기타 2.9%로 공학전공자 비율이 높아졌다.

연구개발투자총액 '63년 대비 5,128배 늘어

○ '63년도 **연구개발투자총액**은 12억원, '93년 현재로는 6조 1,530억원으로 '63년 대비 5,127.5배 늘어났다.

기업체의 연구개발투자액 '68년 대비 6,282배 늘어

○ **시험연구기관의 연구개발투자**는 '68년 56억원으로 당시 연구개발 투자액의 83.5%를 차지하고 있었다. '93년에는 1조 3,106억원을 투자하여 '68년 대비 234.0배 늘어났으나, 전체 연구개발 투자액에 대한 비중은 21.3%로 낮아졌다. **대학의 연구개발 투자**는 '68년 당시 4억원에서 '93년 현재 4,447억원으로 1,111.8배 늘어났으며, 총투자액 점유비중도 '68년 5.9%에서 '93년 7.2%로 높아졌다. **기업체의 연구개발투자**가 가장 활발해 '68년 당시 7억원 투자에서 '93년 현재 4조 3,977억원에 이르러 6,282.4배 늘어났으며 총투자액 점유비중도 '68년 10.4%에서 '93년 현재 71.5% 비중으로 높아졌다.

제조업 연구개발비 '83년 대비 10배 이상 늘어나

○ **제조업의 연구개발 수행 기관수**는 '83년 당시 671개 기관에서 '93년 현재 2,182개 기관으로 '83년 대비 3.3배 늘어났으며, **연구개발비**도 '83년 3,428억원에서 '93년 현재 3조 5,966억원으로 10.5배 늘어났다.

한편 **건설업의 연구개발 수행 기관수**는 '83년 19개 기관에서 '93년 88개 기관으로 4.6배 늘어났고, **연구개발비**도 120억원에서 3,074억원으로 25.6배 늘어 났다.

전기전자기기 제조업 연구개발비 '83년 대비 16배 이상 늘어나

○ 제조업 중 **화학제품 제조업의 연구개발 수행 기관수**는 '83년 당시 99개 기관에서 '93년 현재 633개 기관으로 6.4배 늘어났고, **연구개발비**도 '83년 470억원에서 '93년 5,861억원으로 12.5배 늘었다.
전기·전자기기 제조업의 연구개발 수행 기관수는 '83년 100개 기관에서 '93년 451개 기관으로 4.5배 늘어났고, **연구개발비**도 968억원에서 1조 5,716억원으로 16.2배 늘어났다.

기술도입 인가건수 '77년 대비 4.2배('93년)늘어나

○ '77년 당시 **기술도입 인가건수**는 168건으로 일본이 48.8%, 미국이 26.7%를 점하고 있었다. '93년 현재 기술도입 인가건수는 707건으로 '77년 대비 4.2배 늘어났고, 일본이 40.3%, 미국이 31.6%, 독일이 4.4%, 프랑스가 3.3%를 점하고 있다.

○ **업종별 기술도입 인가건수** 구성을 보면 '77년 당시 기계공업이 33.3%, 전기전자공업이 19.0%, 정유화학공업이 14.9%를 차지하고 있었고 '93년 현재로는 전기전자공업이 31.5%, 기계공업 28.3%, 정유화학 공업이 9.5%를 차지하고 있다.

산업기술도입 대가지급 '73년 대비 82배 이상('93년 대비)늘어

○ '73년 당시 **산업기술도입 대가지급액**은 11.5백만불로 그 중 일본으로의 지급액이 50.4%, 미국으로의 지급액이 31.3%를 차지하고 있었다.
'93년 현재 대가 지급액은 946.4백만불로 '73년 대비 82.3배 늘어났으며, 미국으로의 지급액이 44.2%이고, 일본으로의 지급액이 37.3%이며 독일은 5.6%, 프랑스는 3.4%이다.

○ 기술도입 대가 지급액이 가장 많은 업종은 전기전자공업으로 '74년 1.8백만불에서 '93년 현재 492.0백만불로 '74년 대비 273.3배 늘어났다.
기계공업은 '93년 현재 186.7백만불로 '74년 대비 81.2배, 정유화학공업은 '93년 현재 113.9백만불로 '74년 대비 25.9배 늘어났다.

대외 기술수출에 따른 대가수취액 '79년 2백만불, '93년 45백만불

○ 우리의 **대외 기술수출**은 '79년 당시 7건, **대가수취액**은 1.9백만불에 불과했다. '93년 현재는 건수 105건, 대가수취액은 45.1백만불로 늘어났다.

특허출원건수 '47년 대비 314배 늘어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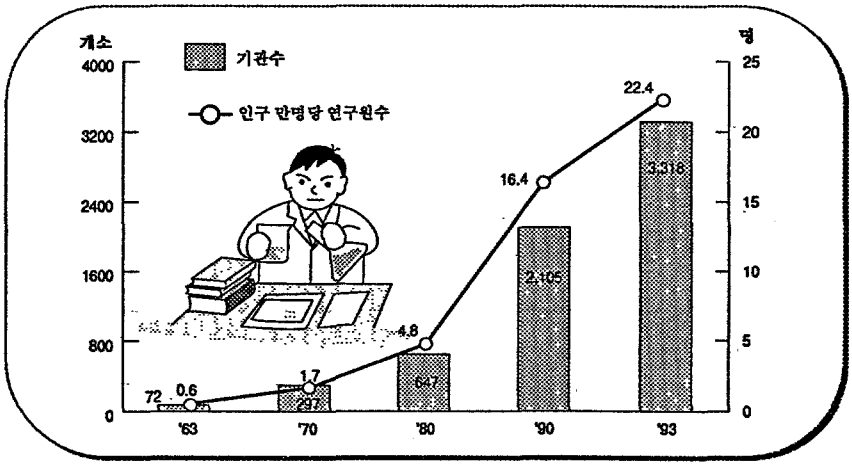
○ 특허, 실용신안, 의장, 상표 등 **산업재산권 총 출원건수**는 '47년 당시 496건, 그 중 **특허출원건수**는 236건이었다. '93년 현재 산업재산권 총 출원건수는 155,870건으로 '47년 대비 314.3배 늘어났고, 특허출원건수는 36,491건으로 154.6배 늘어났다.

한국인 특허등록은 '48년 100%에서 '93년 40% 정도에 불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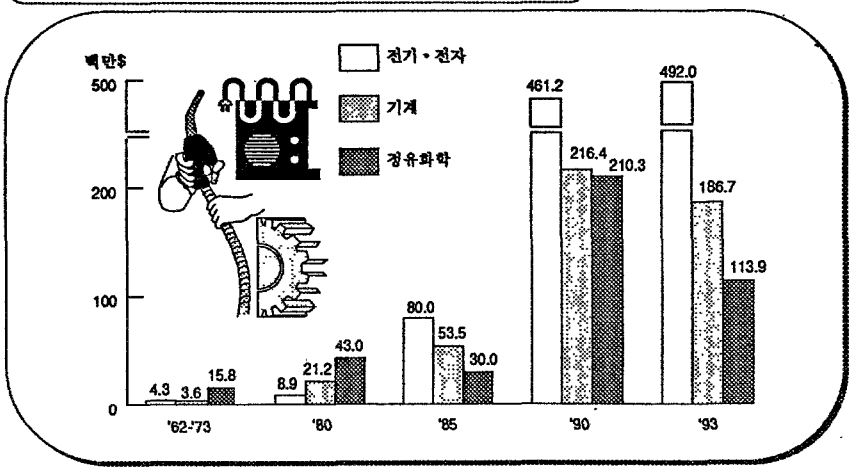
○ 국내 특허출원 중 '47년 당시는 **한국인 특허출원**이 100%였으나, '93년 현재는 한국인은 58.8%, 외국인은 41.1%를 차지하고 있다. **외국인 출원** 중 일본인은 총 출원건수의 16.4%, 미국인은 13.3%, 독일인은 3.7%를 차지하고 있다. 한편 **국별 특허등록** 현황을 보면 '48년 당시 특허등록 건수 4건 모두 한국인에 의한 것이었으나 '93년 특허등록 건수 11,446건('48년 대비 2,861.5배) 중 한국인 등록건수는 4,545건('48년 대비 1,136.3배)으로 39.7%에 지나지 않는다.

○ 최근에 특허출원이 가장 많은 업종은 전기·통신업종으로 '59년 당시 43건에서 '93년 현재 16,684건으로 '59년 대비 388.0배나 늘어났다. '59년 당시 출원이 가장 많았던 화학·석유 업종은 '59년 303건에서 '93년 7,603건으로 25.1배 늘어났다.

연구개발 수행기관 및 인구 만명당 연구원수



업종별 기술도입 대가 지급



15. 공공행정 · 기타

법령총수 '72년에 비해 약 40% 늘고, 산업 · 경제관련 법령이 26% 차지

○ '72년 당시 **법령총수**는 2,362개로 법률 607, 대통령령 1,068, 총리령 및 부령 687개로 구성되어 있었다.
'94년 현재 법령총수는 3,302개로 '72년 대비 39.8%가 늘어났고, 그 중 법률은 896개로 47.6%, 대통령령은 1,320개로 23.6%, 총리령 및 부령은 1,086개로 58.1% 늘어났다.
'81년 당시 법령(헌법제외)을 성질별로 보면 산업 · 경제관련 법령이 752개로 전체 법령의 24.6%, 행정 · 인사관련 법령이 593개로 19.4%, 재정 · 금융관련 법령이 355개로 11.6%, 법무관련 법령이 332개로 10.9% 등 순이었다. '94년 현재 산업 · 경제관련 법령은 843개로 25.5%, 행정 · 인사관련 법령은 460개로 13.9%, 재정 · 금융관련 법령은 11.9%, 보건 · 사회관련 법령은 378개로 11.4%, 법무관련 법령은 11.3%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보건 · 사회관련 법령이 '81년 대비 29.5% 늘어났고, 교육 · 문화관련 법령도 25.1% 늘어난데 비해 행정 · 인사관련 법령은 22.4%가 줄어들었다.

경찰 1인당 인구 '55년 456명, 현재는 491명 수준으로 오히려 높아져

○ **행정부 공무원수**는 '94년 현재 892.5천명으로 '53년 대비 3.9배 늘어났으며, **경찰공무원수**는 '94년 현재 90.6천명으로 '53년 대비 1.8배 늘어났고(경찰 1인당 인구수는 '55년 당시 456명에서 '94년 현재 491명 수준), **소방공무원수**는 '53년 691명에서 '94년 현재 17.6천명으로 25.5배 늘어났다.(소방공무원 1인당 인구수는 '55년 32,176명에서 '94년 현재 2,526명 수준으로 변모)

○ '49년 당시 **사법고시 응시자수**는 635명, 합격자수는 16명으로 경쟁률은 39대1수준, '94년 현재는 19,736명 응시에 290명 합격으로 경쟁률은 68대1 수준이다.
행정고시 응시자수는 '49년 502명에서 5명이 합격하여 경쟁률 100대1, '94년 현재로는 18,643명 응시에 250명 합격으로 경쟁률은 75대1 수준이다.

○ '75년 당시 정부, 기업, 단체 등을 망라한 **광고비**는 650억원, 그 중 TV는 41.3%, 라디오는 16.8%, 신문은 32.0%, 잡지는 2.7%를 점하고 있었다.
'94년 현재 광고비 총액은 4조 284억원으로 신문의 점유비율이 44.1%로 높아진 대신 TV는 25.8%, 라디오는 3.7%로 낮아졌고, 잡지는 3.9%로 높아졌다.

다수인 관련 민원 '83년 대비 6배 이상 늘고,
건축·도시계획 등 분야 비중 54%

○ 30인 이상의 **다수인이 관련된 민원발생건수**는 '83년 당시 1,812건에서 '94년 현재 11,648건으로 '83년 대비 6.4배 늘어났다. 민원사항별로는 건축·도시계획 등 건설분야가 53.8%('83년은 41.4%)로 가장 많고, 다음이 복지·보건·공해 등 분야가 9.6%('83년 9.6%)이며 교통·체신분야 9.2%('83년 12.0%), 농림수산 7.8%('83년 14.2%) 등이다.

○ **기아발견 신고건수**가 여전히 많다. '73년 당시 6,432건이었던 기아발견 신고건수는 '83년 한때 9,658건까지 늘어나기도 하였으나 '93년 현재는 3,011건으로 줄어들긴 하였으나 여전히 많은 기아들이 나타나고 있다.
실종신고 신청건수도 '73년 695건에서 '93년 1,953건으로 2.8배 늘어나 있다.

구속적부심사 청구건수 '81년 대비 59% 늘어나

○ 형사신청사건 접수현황을 보면 구속적부심의 부활로 **구속적부심사 청구건수**가 '93년 현재 11,417건으로 '81년 대비 58.5% 늘어났고, **보석 청구건수**는 '70년 당시 5,909건에서 '93년 현재 43,835건으로 '70년 대비 7.4배 늘어났다.
상소권회복 청구건수는 '70년 29건에서 '93년 275건으로 9.5배 늘어났으며,
형사보상 청구건수도 '70년 46건에서 '93년 109건으로 2.4배 늘어났다.

보석청구율 '70년 9%에서 37% 수준으로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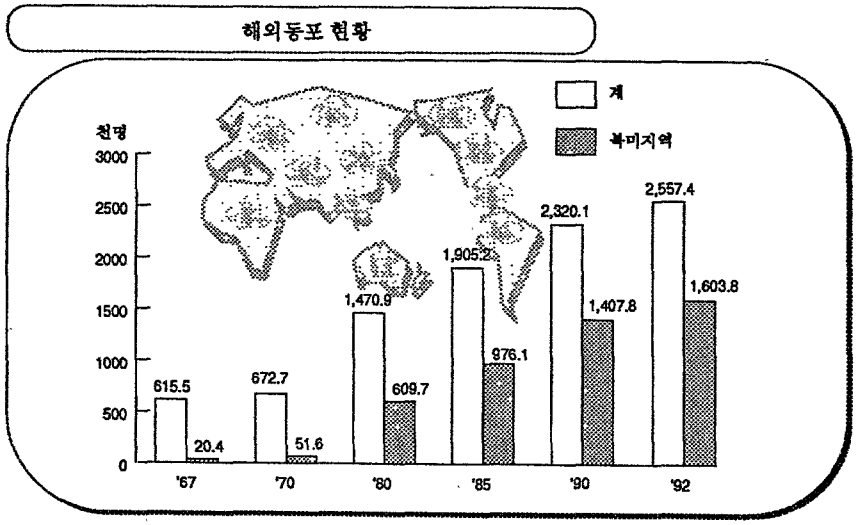
'70년 당시 구속기소 인원 중 **보석 청구율**은 8.5%, 보석 청구인원 중 **보석허가율**은 41.9%였고, 전체 구속자의 3.6%(**보석률**)가 보석으로 풀려나고 있다.
'93년 현재 보석청구율은 36.8%에 이르며, 보석허가율은 청구 인원의 과반수가 넘는 55.3%로 높아졌고, 보석률(보석허가인원/ 구속인원)은 19.8%로 높아졌다.

○ '81년 당시 **공정거래위반** 판정을 받아 **경고 이상의 처분**을 받은 건수는 142건 이었으나, '93년 현재는 826건으로 '81년 대비 5.8배 많아졌다.
공정거래위반에 대한 조치별로는 '81년 당시 고발 0.7%, 시정명령 11.7%, 시정권고 3.7%, 경고 및 기타 83.9%였고 '93년 현재로는 고발 1.0%, 시정명령 34.7%, 시정요청 0.4%, 시정권고 8.5%, 경고 및 기타 55.4%이다.

해외동포수(중·소 제외) '67년 대비 4.2배 많아져

○ 중국·구소련에 거주하는 교포를 제외한 **해외동포수**는 '67년 당시 615.5천명에서 '92년 현재 2,557.4천명으로 '67년 대비 4.2배 늘어났다.
일본지역 동포수는 같은 기간동안 571.3천명에서 712.5천명으로 24.7% 늘어났고, **북미지역 동포수**는 20.4천명에서 1,603.8천명으로 무려 78.5배 늘어났다. **유럽지역**은 5.7천명에서 60.2천명으로 10.5배, **중동지역**은 '67년 불과 11명에서 '92년 현재 11.6천명으로 1,056배 가량 늘어났고, 중국을 제외한 **아주지역**은 14.2천명에서 73.7천명으로 5.2배, **중남미지역**은 3.7천명에서 92.9천명으로 25.0배, **아프리카지역**은 '67년 당시 145명에서 '92년 현재 2.7천명으로 18.6배 늘어났다. **중국교포**는 '92년 현재 1,927.3천명, **구소련지역교포**는 458.9천명으로 보고 있다.

○ **변호사 자격자수**는 '55년 293명에서 '94년 현재 2,852명으로 '55년 대비 9.7배 늘어났으나, 변호사 1인당 인구수는 '55년 73,468명에서 '94년 현재 15,587명으로 변하였다. **공인회계사 자격자수**는 '54년 1,023명에서 '94년 현재 3,287명으로 3.2배 늘어났으며, 세무사는 '62년 156명에서 '94년 3,150명으로 '62년 대비 20.2배 늘어났고, 건축사는 '65년 422명에서 '94년 4,765명으로 '65년 대비 11.3배 늘어났다.



1. 국토 · 인구

	국토면적(㎢)					시부면적(㎢)		군부면적(㎢)		시 · 군부 인구(%)	
		농경지	구성비(%)	공장용지	공원 · 체육용지		구성비 (%)		구성비 (%)	시부[2]	군부[2]
1949	93,634	20,535	21.9	...	...	...	..	...	...	17.2	82 8
1960	98,431	20,248	20.6	...	...	2,710	2.8	95,721	97.2	28.0	72.0
1970	98,477	22,975	23.3	2[1]	3[1]	3,487	3.6	94,735	96.4	41.1	58 8
1980	98,992	22,099	22.3	102	6	4,743	4.8	94,249	95.2	57.3	42.7
1990	99,274	21,484	21.6	246	27	8,802	8.9	90,472	91.1	74.4	25.6
1993	99,392	21,484	21.4	322	90	...	...	...	...	...	...

주 : 1) '76년 자료 2) 총조사 인구 자료임.

	총인구 (천명)	성비 (명)	인구 밀도 (명/㎢)	인구구조(%)			총부양비(%)	유년 부양비 (%)	노년 부양비 (%)	노령화 지수 (%)	평균 수명 (세)	평균 연령 (세)
				0~14세	15~64세	65세이상						
1947	16,873[1]	...	...	39.3	57.2	3.5	75.0	68.8	6.2	9.0	...	...
1960	25,012	100.7	254.1	42.3	54.8	2.9	82.6	77.3	5.3	6.9	52.4	23.0
1970	32,241	102.4	328.2	42.5	54.4	3.1	83.8	78.2	5.7	7 2	63.2	23.6
1980	38,124	101.8	385.1	34.0	62.2	3.8	60.7	54.6	6 1	11.2	65.8[2]	25.9
1990	42,869	101.3	431.8	25.8	69.2	5.0	44.6	37.4	7 2	19.4	71.6[3]	29.4
1995	44,851	101.4	451.3	23.2	71.1	5.7	40.6	32.6	8..0	24.5	...	31.2

주 : 1) '45년 자료 2) '79년 자료 3) '91년자료

	조 출생률 (천명당)	조 사망률 (천명당)	영아 사망률 (천명당	인구 증가율 (%)	인구이동률(백명당)			출산율 (천명당)	0~9세 사망률		10~19세 사망률	
					총이동	시도내	시도간		남 (천명당)	여 (천명당)	남 (천명당)	여 (천명당)
1947	..	...	..	.	.	...	.	..	13.5	14.1	2.2	2 6
1960	42.1	12.1	...	2 6[3]	12.8[4]	9.6[4]	3.2[4]	6 0	2.8[3]	2.6[3]	1.8[3]	1.1[3]
1970	29.5	9.8	49.0	2.2	13.1	9.0	4.1	4.5	3.1	2.9	2.3	1 7
1980	23.4	6.7	36.2[1]	1.6	21.9	15 0	6.9	2.7	2.1	2.0	1.4	1 2
1990	15.5	6.0	...	1.0	22.0	14.5	7.5	1.6	1.1	0.9	0.9	0.5
1993	16.7	5.6	9.6[2]	0.9	19 8	13.4	6.4	1.8	0.9	0.8	0.7	0.3

주 : 1) '79년 자료 2) '91년 자료 3) '66년 자료 4) '67년 자료

	혼인상태별 인구구성(15세 이상 기준)(%)								학력구성비(%)			
	유배우		사별		이혼		미혼		국졸 이하	중졸	고졸	대졸 이상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1947	70.1	74 0	4.5	14.4	1.0	1.0	24.3	10.7	...	...	...	...
1955	63.6	63.2	3.9	16.7	1.0	1.5	31.5	18.5	91 8	5.3	1.7	1.3
1960	59.9	60.4	3 0	15.6	0 6	0.9	36.3	22.6	79.6[1]	11.1[1]	5.6[1]	3.7[1]
1970	59.8	59 1	2.4	15.2	0 4	0.9	37.4	24.9	73.4	11.5	10.2	4.9
1980	57.4	57.4	1.9	13.3	0 4	0.6	40.4	28.7	55.3	18.1	18.9	7.7
1990	59.3	58.8	1.8	12 5	0.7	0.9	38.2	27.8	33.4	19.0	33.5	14.1

주 : 1) '66년 자료

2. 농림어업

	경지면적(천ha)		경지이용면적(천 ha)				비료소비량		농가인구		
		농가당 (a)		식량작물 (%)	채소	과실	(천M/T)	ha당 소 비 (kg)		20~49세 (%)	50세이상 (%)
1949	2,053	83.3	2,747[1]	90 4[1]	83[1]	20[1]	201	97.9	13,300[3]	30.7[3]	15.4[3]
1960	2,025	86.2	2,924	92.4	117	22	137	67.7	14,559	30.8	14.8
1970	2,118	85.3	3,475	84.8	252	60	563	265.8	14,712[4]	30.7[4]	16.3[4]
1980	2,196	101.9	2,765	71.7	359	99	828	377.0	10,827	34 2	20.4
1990	2,109	119.3	2,409	69.3	277	132	1,104	523.5	6,661	33.9	34.5
1993	2,055	129.0	2,205[2]	63.6[2]	303[2]	162[2]	974	474.0	5,167[2]	31.0	43.6

주 : 1) '50년 자료 2) '94년 자료 3) '55년 자료 4) '71년 자료

	농가소득 (호당평균)		농가자산 (호당)	농업용기계 (백호당 대수)		쌀생산량 (천M/T)		채소생산량(천M/T)			산림면적(천ha)	
	(천원)	농가경제 잉여	(천원)	경운기	수확기		10a당	배추	수박	양파		임목지 (%)
1945	15[1]	0[1]	29[2]	-	-	1,848	175[7]	162.0	12.4	0 9	6,670[6]	48.8[6]
1960	56	7	182	-	-	3,047	272	333 1	29.6	38.2	6,701	58.4
1970	256	38	915	1.0[3]	-	3,939	327	796.8	119.4	83 4	6,611	86.9
1980	2,693	405	13,383	13.0	0.2[4]	3,550	272	3,039 6	334.6	274.9	6,568	95.9
1990	11,026	2,478	79,353	42.5	5.6	5,606	451	3,373.4	593.2	407.4	6,476	97 1
1993	16,928	4,276	133,199	50.2	8.3	5,060[5]	459[5]	2,689.2[5]	858.0[5]	541.2[5]	6,456[5]	97.2[5]

주 : 1) '54년 자료 2) '53년 자료 3) '72년 자료 4) '78년 자료 5) '94년 자료 6) '55년 자료 7) 반당 수확량

	가축사육두수(천마리)			농축산물수출입 (백만$)		어가인구 (천명)		어가소득 (호당평균) (천원)	총어획량 (천M/T)		수산물 수출입 (백만$)	
	한육우	젖소	돼지	수출	수입		총인구에 대한 구성비			원양어업 (%)	수출	수입
1945	597	2	195	...	...	408[2]	2.1[2]	...	228	_ ...	3.3[4]	..
1960	1,010	1	1,397	...	...	848	3.4	.	470[3]	0.4[3]	9.0	..
1970	1,284	24	1,126	25	341	1,165	3.6	...	935	9.7	83	0.4
1980	1,427	207	1,784	541	2,225	844	2.2	2,596	2,410	19 1	760	37
1990	1,622	504	4,528	795	3,754	496	1.2	10,023	3,275	28.2	1,513	370
1993	2,393[1]	552[1]	5,955[1]	810	4,571	405	0.9	14,432	3,477[1]	25.5[1]	1,497	542

수 · 1) '94년 자료 2) '46년 자료 3) '62년 자료 4) '52년 자료

3. 광공업

	광업사업체수 (개)			광업월평균종사자수			주 요 광 산 물 생 산 량				제조업 현황	
		석탄광업	금속광업		석탄광업 (%)	금속광업 (%)	무연탄 (천M/T)	철광석 (천M/T)	금 (kg)	은 (kg)	사업체수	종사자수
1955	263	61	145	29,717	42.8	47.7	150[2]	13[2]	197[2]	858[2]	8,628	221,200
1965	1,546[1]	147[1]	175[1]	64,514[1]	57.4[1]	23.9[1]	10,248	735	1,954	13,499	22,718[1]	566,665[1]
1975	1,442	126	81	83,076	59.8	12 3	17,593	644	415	46,780	22,787	1,420,144
1985	1,896	328	50	90,525	70.1	5.8	22,543	668	2,403	124,096	44,037	2,437,997
1993	1,512	74	10	42,513	50.8	2.4	7,438[3]	191[3]	12,332[3]	257,498[3]	88,994	2,888,382

주 : 1) '66년 자료 2) '45년 자료 3) '94년 자료

	주류 출고(천kℓ)					담배 판매량 (백만 개피)		소모방적제품 수 출		종이 · 판지(천M/T)		
		1인당 (ℓ)	탁 · 약 주	소 주	맥 주		1인당 (개피)	순모사	순 모 직 물	생산량	수요량	1인당 소비량 (kg)
1962	473.9	17.9	386.5	69.2	5.8	12,382[1]	734[1]	537[3]	4,258[3]	54.8[4]	84.3[4]	3.4[4]
1970	1,548.5	48.0	1,225 8	199.8	85.7	44,409	1,377	523	4,466	329.5	357 8	11.1
1980	2,568.5	67.4	1,433.1	494.9	579.6	69,759	1,830	7,885	24,609	1,680.0	1,695.0	40.4
1990	2,669 4	62.3	564 1	701.6	1,307.7	95,715	2,233	19,508	30,782	4,524.4	4,807.5	101.1
1993	2,657.1	60.3	322 2	744 0	1,508 9	96,570[2]	2,172[2]	8,226[2]	46,829[2]	6,434.7[2]	7,056.0[2]	137.3[2]

주 . 1) '45년 자료 2) '94년 자료 3) '66년 자료 4) '60년 자료

	원목생산(천㎥)		석유화학제품생산(천톤)			비누세제(천톤)		합섬원료생산		합성수지생산	
		자급률	에틸렌	프로필렌	벤 젠	생 산	수출(톤)	(천톤)	자급률	(천톤)	자급률
1964	494	46.7	...	...	...	119.9[1]	...	3.7[2]	3.5[2]	83.2[2]	54.6[2]
1975	896	14.9	95.0	58.6	36.1	133.3	2,928	61.9	19.8	206 4	83.3
1985	1,118	17.6	561.6	316.3	212.4	370.8	10,257	360.8	32.1	1,277.8	112 0
1990	1,138	12.1	1,065.0	613.6	413.8	472.1	36,094	1,101.5	53.6	2,689.0	106 7
1994	1,173	13.2	3,660.7	2,094.0	1,280.1	402.1	31,096	2,127.7	70.0	5,855.4	159 2

주 : 1) '73년 자료 2) '72년 자료

	의약·화장품(천$)		자동차타이어(천개)		시 멘 트		조강 생산량		전자공업(백만$)		전자기기수출(백만$)	
	수 출	수 입	생 산	수 출	생산(천MT)	1인당 소비량(kg)	(천MT)	1인당소비량(kg)	생 산	총수출액대비(%)	산업용	가정용
1960	427[1]	3,530[1]	175	...	9[2]	0.5[2]	141.6[3]	11.0[3]	5[3]	0.9[3]	..	..
1970	4,781	19,668	902	87	5,282	165.3	1,510.3	51.0	106	6 6	..	..
1980	75,792	138,654	11,707	8,111	15,573	345 5	10,372.6	159.5	2,852	11 4	200[4]	1,398[4]
1990	315,738	799,664	29,775	18,227	33,575	741.7	23,124 8	501.0	28,918	26.5	3,729	5 907
1994	554,812	1,661,438	48,698	30,054	50,730	1,111.9	33,744 9	724.1	47.088	32.2	5,807	7,319

주 : 1) '54년 자료 2) '45년 자료 3) '62년 자료 4) '81년 자료

	자동차 생산(천대)		승용차 국 내 판매대수(대)	금속공작기계(천$)		신조선 수주액(백만$)		악기류 수출(천$)		카메라및광학기기(백만$)	
		상용차		수 출	수 입		수출선박		피아노	수 출	수 입
1962	1.8	0.1	...	...	..	...	...	...	...	...	...
1970	28.8	14.3	...	460[2]	34,240[2]	274[4]	230[4]	1,022	7	...	..
1980	123.1	65.9	51,561[1]	20,901	91,507	1,772	1,538	38,506	13,676	73.7	58.4
1990	1,321.6	334.9	626,126	67,475	634,607	3,670	3,538	247,849	104,914	357 8	473.7
1994	2,311.7	505 8	1,140,399	70,092[3]	476,197[3]	5,881	5,794	300,955	105,545	663.4	1,162.2

주: 1) '81년 자료 2) '74년 자료 3) '93년 자료 4) '73년 자료

4.. 에너지

	원유 도입액(천$)		석유류 제품(천Bbl)		1차에너지소비량		총발전량 (GWh)	전력공급능력		도시가스	
		1인당 부담액 ($)	생 산	수 출	(천TOE)	1인당 (TOE)		(MW)	평균전력	수요가수 (천호)	총공급량 (천㎥)
1964	12,507	0.45	17,071[1]	123[1]	9,748[2]	0.38[2]	711[4]	692[5]	371[5]	...	.
1970	118,916	3.69	68,303	4,143	19,678	0 61	9,167	1,915	1,047	6.6[6]	1,539[6]
1980	5,654,191	148.31	176,226	66	43,911	1.15	37,239	7,645	4,239	99.8	21,443
1990	6,450,606	150.47	304,496	27,184	93,192	2.17	107,670	18,680	12,291	1,220.0	963,345
1993	9,291,465	210.90	539,986	103,493	137,276[3]	3.09[3]	164,993[3]	27,431[3]	18,835[3]	2,839.6	2,951,154

주 : 1) '67년 자료 2) '61년 자료 3) '94년 자료 4) '45년 자료 5) '65년 자료 6) '72년 자료

5. 건설 · 운수 · 도소매

	건 설 업			운수사업체 운수수입(십억원)			철도궤도 연 장 (㎞)	철 도 차 량 (대)		
	공사시공액 (십억원)	건축허가 면적(천㎡)	건설주택수	시외버스	시내버스	택 시		디 젤 기관차	전 기 기관차	전 기 동 차
1960	...	2,180[2]	49,492[2]	...	...	...	4,483.8[5]	4[5]	-	-
1970	317[1]	10,787	115,000	138 1[4]	115.2[4]	182.9[4]	5,499.5	277	13[6]	126[7]
1980	8,010	25,727	211,537	380.2	431.6	822.4	6,007.4	425	90	286
1990	27,592	116,419	750,378	791.7	1,067 5	2,859.2	6,434.6	491	94	540
1993	57,620	116,222[3]	695,319	1,101.3	1,781.7	4,090.8	6,516.6	495	94	765

주 : 1) '73년 자료 2) '62년 자료 3) '94년 자료 4) '76년 자료 5) '56년 자료 6) '72년 자료 7) '74년 자료

	여객수송(천명)		국내화물수송 분담률 (톤수 기준)			도 로 연 장		자 동 차 등록대수	운전면허 소 지 자	자동차 정비공장	
	국 내	국 제	철 도	공 로	해 운	(㎞)	도 로 포장률 (%)				1개소당 자동차 대 수
1960	617.829	70[1]	49.7[2]	45.3[2]	5 0[2]	24,433[3]	4.3[3]	6,337[4]	88,616[6]	263[7]	226[7]
1970	2,881,798	422	30 4	59.5	10.1	40,244	9 6	126,506	403,818	633	203
1980	8,544,916	2,963	28.4	60.5	11 1	46,951	33.2	527,729	1,860,654	800	660
1990	14,487,692	9,862	17 2	63.8	19 0	56,715	71.5	3,394,803	8,543,903	1,090	3,114
1993	14,239,692	11,947	13 5	64 9	21 6	61,295	84.7	7,404,347[5]	14,889,762[5]	1,782	3,521

주 : 1) '64년 자료 2) '63년 자료 3) '47년 자료 4) '45년 자료 5) '94년 자료 6) '62년 자료 7) '67년 자료

	항공기보유대수		항만하역능력(천톤)	서울지하철수송인원(천명)	도소매업체수(개소)		식품위생접객업소(개소)			
	(대)	여객기			도매업	소매업		대중음식품	과자점	다방
1960	24[1]	5[1]	9,020[2]	-	13.193[6]	264,100[6]	26,312	21,204	845	3,303
1970	75	22	18,781[3]	56,762[5]	16,429[3]	320,471[3]	58,701	48,064	2,747	6,515
1980	92	38	82,261	123,004	53,367[7]	524,667[7]	152,508	129,605	3,787	15,508
1990	179	88	224,323	1,010,642	90,621	709,888	304,632	232,528	11,388	40,874
1993	188	117	276,198[4]	1,388,037	114,444	811,724	442,001	341,756	15,214	43,634

주 : 1) '63년 자료 2) '61년 자료 3) '71년 자료 4) '94년 자료 5) '75년 자료 6) '68년 자료 7) '81년 자료

6. 우편 · 보험 · 통화 · 금융 · 재정 · 국민계정

	우체국수		우표류판매량(백만매)	국제우편(천통)		통신선로연장길이(km)	전화가입자수(천명)			국제전기통신시설회선수	수입보험료(억원)	
		인구1인당우편물접수통수		발송량	도착량			이동전화	무선호출기			1인당(원)
1945	692	8.2	…	181[2]	501[2]	…	45	-	-	…	3.58[7]	17
1960	691	6.7	58[1]	3,245	4,437	1,480[1]	87	-	-	33[6]	9 13	37
1970	1,842	18.1	526	14,827	33,083	6,963	476	0.28[4]	-	135	289	896
1980	2,085	28.7	1,025	19,877	54,652	49,881	2,705	0 31	0.24[5]	1,156	9 913	26,003
1990	3,246	55.1	1.069	34,142	58,588	127,102	13,276	80 0	417.7	4,559	196,331	457,980
1993	3,310	67.8	1,235	28,790	59,585	169,497[3]	16,633	471 8	2,648.6	10,079	360,628	811,257

주 : 1) '62년 자료 2) '46년 자료 3) '94년 자료 4) '74년 자료 5) '82년 자료 6) '64년 자료 7) '56년 자료

	통화량(M_1)(십억원)	화폐발행액(누계)(십억원)	예금은행예금(말잔)(십억원)	어음교환			상장주식시가총액(10억원)	중앙정부기능별세출구성비		
				장당평균(천원)	장수(천장)	교환액(십억원)		세출계(억원)	국방비(%)	보건·사회보장복지비(%)
1945	11[1]	8.8[1]	0.2[2]	0.04	107	0.005	-	...	..	…
1960	23	15	20.6	78	6,319	476.0	10.0[3]	...	...	..
1970	308	159	784	306	27,446	8,408.5	97.9	7,462[5]	26 0[5]	6.2[5]
1980	3,807	2,039	12,422	3,006	108,374	325,811.7	2,526.6	76,820	30.6	6.7
1990	15,905	8,228	84,054	5,424	779,369	4,227,123 0	79,019.7	332,961	20.0	9.8
1994	32,511	15,089	135,190	6,434	898,623	5,781,740.4	151,217.2	604,252[6]	17.2[6]	10.2[6]

주 : 1) 단위는 백만원 2) '51년 자료 3) '63년 자료 4) '53년 자료 5) '72년 자료 6) 예산자료

	조세수입(억원)		GNP(억원)		국내총생산에 대한 지출(십억원)			총저축률	국내총투자율	수출액의 대GNP 비중
		1인당 (천원)		1인당 GNP ($)		최종소비지출 (%)	총고정자본형성 (%)			
1960	295	1.2	479[1]	67[1]	...	..	...	13.1[1]	14.7[1]	3.2[1]
1970	3,981	12.3	27,884	253	2,771.3	74.7	25.1	18.1	24.3	14.9
1980	65,754	172.5	368,570	1,597	38,148.4	64.4	32.1	23.2	31.9	34 6
1990	332,148	774.8	1,782,621	5,883	179,539.0	53.7	37.1	35.9	37.1	30.3
1994	588,035	1,322.8	3,028,670P	8,483P	305,007.7P	53.8P	35.9P	35.2P	36.1P	30.5P

주 : 1) '53년 자료

7. 국제수지

	수출액[1] (백만$)	수입액[1] (백만$)	지역별 수출		지역별 수입		수출			무역상대국 중 한국의 점유비			
			미국 (%)	일본 (%)	미국 (%)	일본 (%)	품목수	상대국수	세계무역비중	미국 (%)		일본 (%)	
										수출	수입	수출	수입
1948	22.3	208.0	41.0[2]	40.4[2]	22.8[2]	5.6[2]	...	...	...	...	...	...	...
1960	32.8	343.5	11 1	61.5	38.9	20.5	272[3]	38[3]	0.06[3]	...	...	...	...
1970	835.2	1,984.0	47.3	28.1	29.5	41.0	1,504	122	0.29	...	...	...	...
1980	17,504.9	22,291.7	26.3	17.4	21.9	26.3	6,010	172	0.92	2.1(11)	1.7(15)	3.5(3)[4]	2.5(8)[4]
1990	65,015.7	69,843.7	29.8	19.4	24.3	26.6	7,062	193	1.90	3.7(6)	3.5(7)	6.1(3)	5.0(5)
1994	96,013.2	102,348.2	21.4	14.1	21.1	24.8	7,648	216	2.20	3.6(6)	2.9(8)	6.2(3)	4.9(4)

주 : 1) 통관기준(수출 FOB, 수입 CIF 가격) 2) '55년자료 3) '63년자료 4) '82년자료 5) ( )내는 순위

	NAFTA지역 수출입(백만$)		EU지역수출입 (백만$)		북방교역국과의 수출입(천$)				무역외수지(백만$)			
					중국		러시아		무역외수입		무역외지급	
	수출	수입	수출	수입	수출	수입	수출	수입		여행수입 (%)		여행지급 (%)
1960	3.6	139 2	13 9[1]	37.3[1]	-	-	-	-	84.0	0.5	73.8	6.2
1970	415.1	608 8	66 1	208.5	-	-	384[3]	475[3]	496.8	3 8	377.5	3.3
1980	4,994 8	5,332 9	2,710.0	1,614 1	15,421	25,578	2,405	9,649	5,363.3	6.9	6,749.2	5.2
1990	21,650.3	18,672 0	8,875.9	8,421 4	16,943[2]	205,160[2]	3,387[2]	41,489[2]	14,268.6	22.2	14,719.2	18.8
1994	23,231.7	23,812.2	10,615.9	13,237.2	6,202,986	5,462,849	961,911	1,229,652	22,551.2	14.8	24,540 4	18.4

주 : 1) '64년자료 2) '84년자료 3) '77년자료

	금·외환보유액 (백만$)	1인당($)	외화자산 (백만$)	외화부채 (백만$)	해외투자액 (백만$)	외국인투자액 (백만$)	차관도입 (백만$)	원금상환 (백만원)	총외채 (백만$)	대외자산 (백만$)
1960	26.8[1]	…	452.8[2]	157.4[2]	-	-	3[5]	0.6[5]	83	…
1970	609.7	18.9	1,011.4	424.6	5.1[3]	83.6[4]	482	96	2,245	675
1980	6,571.4	172.4	13,779.9	11,168.4	17.8	143.1	2,919	1,085	27,170	7,539
1990	14,822.4	345.8	49,712.3	19,182.1	959.3	802.5	448	2,024	31,699	25,329
1994	25,672.7	577.5	75,611.7	34,058.0	2,346.7	1,316.5	742	1,217	57,177	46,477

주 : 1) '50년 자료 2) '67년 자료 3) '72년 자료 4) '77년 자료 5) '62년 자료

8. 노동·임금

	경제활동인구 (천명)	취업자 (천명)	실업률 (%)	산업별 취업자 구성(%)			연령별 취업자 구성(%)				성별취업자구성 (%)	
				농림어업	광공업	S.O.C및기타	15~19세	20~49세	50~59세	60세이상	남	여
1963	8,230	7,563	8.1	63.0	8.7	28.3	12.1	71.6	12.0	4.3	65.2	34.8
1970	10,062	9,617	4.4	50.4	14.3	35.3	13.4	70.2	11.8	4.6	63.5	36.5
1980	14,431	13,683	5.2	34.0	22.5	43.5	7.6	74.3	12.9	5.2	61.8	38.2
1990	18,539	18,085	2.4	17.9	27.6	54.5	3.2	74.1	15.6	7.1	59.2	40.8
1994	20,326	19,837	2.4	13.6	23.9	62.5	2.2	74.8	14.9	8.1	59.6	40.4

	학력별 월평균임금(천원, %)				직업훈련(개소, 명)		산업재해			산재보험급여지급	
	중졸이하	고졸	대졸대비	초대졸	기관수	인원수	재해건수	재해자수	사망자수	건수 (천건)	금액 (백만원)
1970	18[1]	27[1]	57.5[1]	..	36[2]	7,642[2]	35,389	37,752	639	22.2[3]	203[3]
1980	113	156	46.2	227	590	104,480	112,111	113,375	1,273	271	62,505
1985	204	257	46.6	333	312	55,385	140,218	141,809	1,718	483	185,999
1990	408	465	57.3	543	310	67,702	126,966	132,893	2,236	803	539,351
1993	644	701	65.3	764	451	184,386	88,817	90,288	2,210	785	872,531

주 : 1) '71년 자료 2) '67년 자료 3) '65년 자료

9. 가계 · 물가

	도시근로자가구 소득 · 지출(원)				도시가구당 월평균 소비지출 구성(%)					소비자 물가지수 ('90=100)	1만원의 화폐가치 ('65년 당시)
	소득 (월평균)	가계지출	4인가족 (천원)	흑자	식료품	외식비	보건 의료	교육 교양 오락	교통 통신		
1965	8,450	8,630	9[1]	-180	63.4	0.9	1.3	6.5	2.3	6.8	10,000
1975	65,540	59,480	52	6,060	48.8	1.0	4.4	9.1	4.6	24.6	2,764
1985	423,788	328,761	316	95,027	37.5	2.8	5.5	11.1	6.4	76.8	885
1990	943,272	723,035	742	220,237	32.0	6.5	5.2	12.8	8.4	100.0	680
1994	1,701,304	1,264,022	1,296	437,282	29.7	8.6	5.0	14.2	11 3	129.3	526

주 : 1) '66년 자료

10. 교 육

	유 치 원 현 황			국 민 학 교 현 황			중 학 교 현 황			고등학교 현황	
	원 수	원 아 수	취원률 (%)	교 사 1인당 학생수	학급당 학생수	취학률 (%)	학교수	학급당 학생수	취학률 (%)	학급당 학생수	취학률 (%)
1945	-	-	-	69.2	65.0[2]	…	66	…	…	…	…
1960	325[1]	14,759[1]	0.8[1]	58.8	57.0	99.6	1,053	63.5[1]	33.8[1]	56.9[3]	23.3[3]
1970	484	22,271	1.3	56.9	62.1	100.7	1,608	61.9	51.2	56.2	28 1
1980	901	66,433	4.1	47.5	51.5	102.9	2,103	65.5	95 1	59.8	63.5
1990	8,354	414,532	31.4	35.6	41 4	100.7	2,474	50.2	98.7	52.9	86.9
1994	8,910	510,100	38 7	29.5	37.7	100.5	2,645	48 9	99.0	47.1	88.7

주 : 1) '61년 자료 2) '46년 자료 3) '63년 자료

	전문대학 현황		대 학 교 현 황				공교육비 총 액 (십억원)	교육부예산 중 교육비 (십억원)		연평균소비지출 중교육비비중(%)	
	학교수	학생수 (천명)	학교수	취학률 (%)	졸업자수 (천명)	여학생 (%)			정부예산 대비(%)	도 시 가 구	농 가
1965	48	23.2	83	5.8	37.8	18.0	53.3[1]	0.2[2]	3.3[2]	5.6[3]	3.4[3]
1975	101	62.9	88	7.3	39.5	32.7	394.8	220.0	13.9	7.3	6.6
1985	120	242.1	111	28.0	120.8	37 0	4,600.0	2,354.3	18.8	7.8	11.8
1990	117	323 8	108	28.9	170.9	37.6	8,523.8	4,802.3	21.2	8.4	10.5
1994	135	506 8	142	33 9	183.4	41.2	16,291.0	10,233.6	21.5	9.3	10.1

주 : 1) '67년 자료 2) '53년 자료 3) '63년 자료

	학교급별 도서관수 및 장서수				박사학위수여자		사 설 학 원		외국인 교원수 (고등교육기관)	
	국 민 학 교		대 학 교			국 내 수여자	학원수	수강자수 (천명)		미국(%)
	도서관	장 서 (천권)	도서관	장 서 (천권)						
1960	1,321[1]	1,477[1]	110[1]	4,177[1]	…	10[2]	141[3]	21.3[3]	…	…
1970	1,352	3,085	129	5,159	…	2,646	1,421	119.7	150	82.7
1980	1,380	2,748	249	10,433	7,514	7,489	5,023	411.2	299	71.2
1990	2,949	10,893	270	27,571	23,427	22,506	28,862	1,793.6	424	49.3
1994	3,521	13,052	332	38,212	38,134	36,065	48,476	3,065.9	418	56.2

주 : 1) '66년 자료 2) '52년 자료 3)'66년 자료

11. 보 건

	의 료 시 설				의 료 인 력		인구 10만명당 사 망 자 수		의 료 보 험		상수도 보급	
	병·의원 (수)	치과병·의원 (수)	한방병·의원 (수)	병상당 인구수	의사수	의사1인당 인구	남 자	여 자	수혜자 (천명)	수혜율 (%)	보급률 (%)	1인 1일 당 급수량 (ℓ)
1953	2,588	508	863	…	3,569[1]	5,651[1]	…	…	-	-	16.1[5]	71[5]
1965	5,208	1,079	2,247	2,515	10,854	2,645	…	…	-	-	20.9	106
1975	6,255	1,614	2,379	1,765	16,800	2,100	659.5[2]	457.1[2]	3,202[4]	8.8[4]	42.4	216
1985	8,569	2,998	2,791	549	29,596	1,379	655.4	472.1	17,995	44.1	67.0	282
1990	11,491	5,292	4,294	429	42,554	1,007	628.0	469.1	40,180	93.7	78.4	369
1994	14,279	7,726	5,617	317	54,406	824	592.3[3]	454.4[3]	43,262	97.3	81.1[3]	394[3]

수 : 1) '48년 자료 2) '81년 자료 3) '93년 자료 4) '77년 자료 5) '55년 자료

	환경위생관계업소 1개소당 인구수			1인 1일당 식품공급량		1인 1일당 에너지 공급		연령별 학생신장(㎝)				연령별 학생체중(kg)			
								중 3 학령		고 3 학령		중3학령		고3학령	
	목욕장	이용업소(남)	미용업소(여)	(g)	동물성 (%)	량 (kcal)	동물성 (%)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1960	32,483	917	1,854	881.3[1]	6.6[1]	1,943[1]	4 1[1]	149.9[2]	147.6[2]	163.7[2]	156.9[2]	41.1[2]	41.5[2]	54.3[2]	51.0[2]
1970	17,982	650	1,129	1,002.6	8.8	2,370	5.1	152.0	151.0	165.9	156.5	43.7	43.8	56.6	52.2
1980	10,385	729	819	1,166 0	14.7	2,485	9.1	156.8	153.8	167.4	157.2	45.9	46.3	58.5	52 4
1990	5,186	737	365	1,338.2	23.3	2,853	13.8	162.5	156.6	170.1	158.6	51.9	49.6	61.3	53.5
1993	4,987	755	329	1,448.9	24.0	2,863	14.1	164.4	157.4	170.9	159.0	54.2	51.0	62.6	54.1

주 : 1) '62년 자료 2) '65년 자료

12. 사회 · 환경

	아동입양		노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소년소녀가장 및 생활보호대상자			화재발생	
	아동수	해외입양(%)	시설수	재소인원	시설수	재소인원	가장수	가구원수	생활보호대상자(천명)	건수	실화(%)
1960	…	…	37[2]	2,132[2]	20[3]	2,611[3]	…	…	…	1,924[6]	…
1970	3,690[1]	94.6[1]	44	2,383	44	6,869	…	…	2,098[5]	4,969	92.1
1980	7,801	53.1	48	3,158	90	11,281	4,901[4]	6,224[4]	1,829	5,438	87.0
1990	4,609	64.3	89	6,409	118	12,759	6,696	7,082	2,256	14,249	81.6
1994	3,469	65.2	141	8,089	160	13,936	7,540	6,832	1,903	18,747	82.0

주 : 1) '72년 자료 2) '56년 자료 3) '61년 자료 4) '85년 자료 5) '77년 자료 6) '48년 자료

	범죄발생건수			범죄자수		교통사고			대기배출시설업소	폐수배출시설업소	생활폐기물	
	형법범죄(천건)	강력범죄(%)	특별법범(천건)	(천명)	소년범죄(%)	건수	사망자수	1일평균			발생량(톤/일)	1인1일발생량(kg)
1970	189.6[1]	13.8[1]	160.5[1]	391.2[2]	13.3[2]	4,934[4]	1,847[4]	5.1[4]	…	…	…	…
1980	305.2	10.2	290.1	752.2	11.6	120,182	5,608	15.3	8,835	5,097	…	…
1985	271.6	14.0	538.8	1,005.9	10.1	146,836	7,522	20.6	19,714	8,457	54,347[5]	1.35[5]
1990	240.1	16.3	931.2	1,420.4	7.4	255,303	12,325	33.8	25,943	17,375	83,962	1.96
1993	287.5	14.5	1,069.5	1,739.0	6.4	260,921	10,402	28.5	27,452	28,834	62,940	1.43

주 : 1) '71년 자료 2) '73년 자료 3) '74년 자료 4) '56년 자료 5) '84년 자료

13. 문화 · 관광 · 스포츠

	도서발행			국내정기간행물(연말기준)			영화				
	종수(초판)	번역도서	부수(초판)(천부)	일간지	주간지	월간지	극장수	관람객수(천명)	인구1인당 관람회수	방화수출(천$)	외화수입(천$)
1960	2,616[1]	…	4,380[2]	56[3]	53[3]	123[3]	302[4]	58,608[4]	2.3[4]	8[5]	817[5]
1970	2,181	495	4,027	44	101	405	690	166,350	5.3	728	1,947
1980	13,062	2,159	50,407	29	97	659	447	53,770	1.4	291	7,488
1990	20,903	3,366	129,611	85	1,028	2,460	789	53,459	1.2	1,579	27,101
1994	28,082	5,064	132,374	126	2,561	3,376	650	48,354	1.1	621	60,228[6]

주 : 1) '66년 자료 2) '68년 자료 3) '47년 자료 4) '61년 자료 5) '62년 자료 6) '93년 자료

	관광호텔		내외국인 여행경비($)		국립공원		내국인출국자 (천명)		하계 올림픽 참가원수	전국체전 참가자수	경마	
	호텔수	객실수	내국인 1인당	외국인 1인당	공원수	탐방객수		인구 1만명당			인구 1만명당 입장인원	인구 1인당 마권구입액 (천원)
1960	10	245	582	46	…	…	…	…	50[1]	4,100[5]	234.3[5]	0.8[6]
1970	62	4,766	168	161	…	…	73.6	22.8	46[2]	16,331	82.5	8.8
1980	123	18,547	1,032	446	13	10,497	338.8	88.9	-	13,047	134.5	50.3
1990	395	40,386	1,773	1,345	20	39,147	1,560.9	364.1	477[3]	21,293	607.9	228.0
1994	438	44,066	1,407	1,176	20	36,398	3,154.3	709.6	247[4]	22,075	1,230.9	312.0

주 : 1)'48년자료 2)'72년자료 3)'88년자료 4)'92년자료 5)'45년자료 6)'45년 자료(단위는 원임)

14. 과학 · 기술

	연구개발활동기관			연구개발투자		제조업 연구개발활동			산업재산권 출원건수	특허출원 및 등록		
	기관수	연구원수		투자총액(억원)		기관수	연구개발비(억원)			출원건수	등록건수	
			만명당		기업체 (%)			전기·전자 기기				한국인 (%)
1965	105	2,765	1.0	12[1]	10.4[2]	…	…	…	496[4]	236[4]	4[5]	100.0[5]
1975	533	10,275	2.9	427	28.8	…	…	…	26,387	2,914	422	47.9
1985	1,291	41,473	10.2	11,552	65.0	671[3]	3,428.4[3]	968.4[3]	74,153	10,587	2,268	15.4
1990	2,105	70,503	16.4	33,499	70.9	1,577	21,347.0	9,927.3	114,069	25,820	7,762	32.9
1993	3,318	98,764	22.4	61,530	71.5	2,182	35,966.1	15,716.0	155,870	36,491	11,446	39.7

수 : 1) '63년 자료 2) '68년 자료 3) '83년 자료 4) '47년 자료 5) '48년 자료

	기술도입									기술수출	
	인가건수						대가지급액(백만$)			건수	대가수취 (백만$)
		일본 (%)	미국 (%)	기계공업 (%)	전기전자 (%)	정유화학 공업(%)		일본 (%)	미국 (%)		
1965	…	…	…	…	…	…	11.5[2]	50.4[2]	31.3[2]	-	-
1975	168[1]	48.8[1]	26.7[1]	33.3[1]	19.0[1]	14.9[1]	26.5	63.0	15.1	7[3]	1.9[3]
1985	454	50.2	25.1	27 8	27.5	14.1	295.5	25.2	52.4	7	11.3
1990	738	45.1	29.9	23.6	28.7	16.8	1,087.0	31.4	47.3	50	21.8
1993	707	40 3	31.6	28.3	31.5	9.5	946.4	37.3	44.2	105	45.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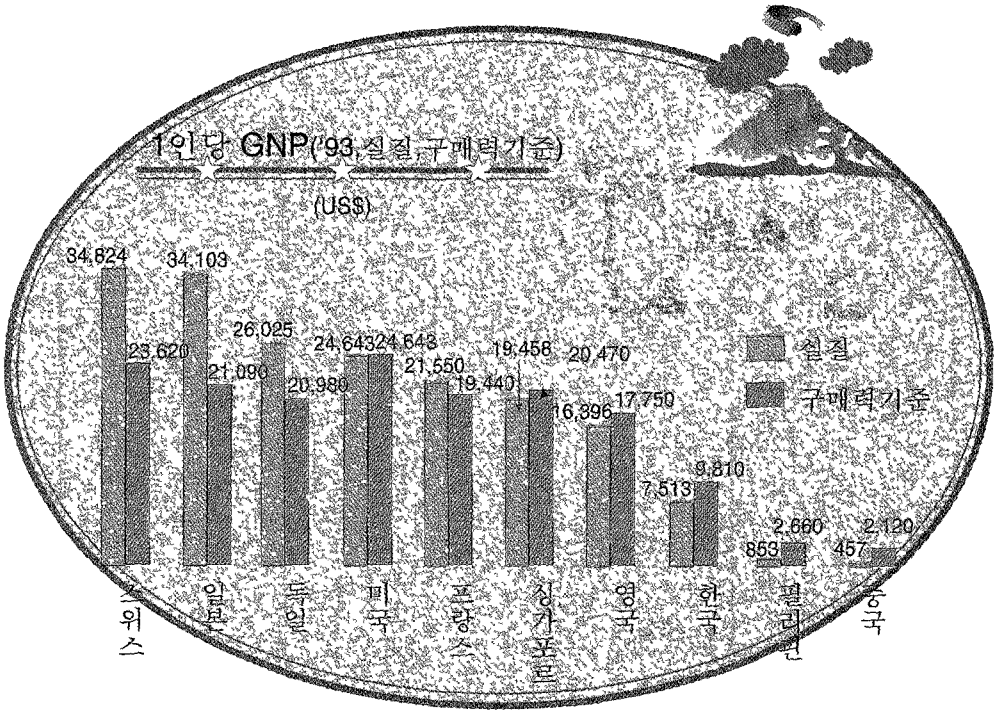
주 : 1) '77년 자료 2) '73년 자료 3) '79년 자료

15. 공공행정 및 기타

	법 령 총 수		공무원 1인당 대 국민수		다수인 관련 민원 발생건수		형사신청사건 접수건수		보 석 청 구 (제1심)		해외동포수(천명)	
		산업경제 관련(%)	경 찰	소 방		도시 · 건축(%)	(제1심)	구속적부 심사	보석 청구율	보석률		북미지역
1970	2,362[1]	...	456[3]	32,176[3]	...	...	10,931	-	8.5	3.6	615.5[6]	20.4[6]
1980	3,013	24.6[2]	681	6,081	1,812[4]	41.4[4]	39,015	7,202[2]	8.4	3.8	1,470.9	609.7
1985	2,943	25.1	681	4,827	3,647	41.3	43,687	2,969	12.2	5.6	1,905 2	976.1
1990	3,169	24.6	536	3,663	6,698	51.9	79,504	10,616	34.9	20.3	2,320.1	1,407.8
1994	3,302	25.5	491	2,526	11,648	53.8	89,277[5]	11,417[5]	36.8[5]	19.8[5]	2,557.4[7]	1,603.8[7]

수 : 1) '72년 자료 2) '81년 자료 3) '55년 자료 4) '83년 자료 5) '93년 자료 6) '67년 자료 7) '92년 자료

통계로 본「세계와 한국」



『'93년 현재 우리나라의 국민총생산 (GNP)규모는
3,308억불($) ('94년 3,769억불)로 세계 12위 수준이고,
국민 1인당 GNP는 7,513불 ('94년은 8,483불)로
세계 32위 수준이다.』

- 본문중에서 -

통계로 본

「세 계 와 한 국」

1995. 8

자료관리국 자료관리과

1. 국토 이용

농경지 면적비율 매우 높아

○ 우리나라 **국토면적**은 1992년 현재 세계 총면적의 0.07%, 아시아 면적의 0.36%에 불과하다.

○ **국토의 이용현황**을 보면 총면적 중 농경지 면적비율은 21.4%로서 세계 평균 10.8%, 아시아 평균 16.6%보다 높으며, 국가별로는 미국, 일본보다는 다소 높으나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등 서구 선진경제국들보다는 다소 낮은 편이다.
산림·목초지 면적비율은 일본과 비슷하나, 다른 선진경제국들보다는 높은 편이며, 주거, 도로, 철도, 공장용 등의 기타 면적비율은 8.2%로서 매우 낮은 편이다.

< 국토 면적 이용(1992) >

(백만ha, %)

	총면적	농경지	산림·목초지	기 타
세 계	13,422.4	10.8	54 4	32.5
아 시 아	2,758 1	16 6	48.4	32 1
대한민국	9.9	21.4	66 6	8.2
일 본	37.8	12.0	68 5	19.2
미 국	980.9	19.1	53 6	24.9
캐 나 다	997.6	4.6	39.0	48.9
영 국	24.5	26.9	55.3	16.5
프 랑 스	55 2	34.9	47.1	17.7
독 일	35 7	33 4	43.9	20.6
이탈리아	30 1	39 7	38 6	19 2

주 : 국토내의 수면 면적 비율은 제외됨

2. 인구

총인구수는 세계 25위, 아시아 13위, 인구밀도는 세계 3위로 과밀

○ 1995년 현재 우리나라 **인구(연앙추계)**는 44,851천명으로 세계 총인구의 0.78%, 아시아 인구의 1.32%를 점하여 세계 25위, 아시아 13위에 해당한다.

○ **인구밀도**는 1992년 현재 1㎢당 440명으로 도시국가 및 일부 소규모국가를 제외하면 세계 3위의 인구 과밀국가이다.

선진제국에 비해 출생률은 높고, 사망률은 낮아

○ **인구 천명당 출생률**은 1993년 현재 15.3명으로 선진 경제국 수준(일본 9.9명~노르웨이 14.0명)보다는 다소 높은 편이고, 미국(16.0명)과는 비슷한 수준을 보이고 있다.

○ **인구 천명당 사망률**은 5.8명으로 선진 제국(일본 6.7명~영국 11.2명)보다는 낮은 편이다. 이는 선진제국의 노령인구 비중이 우리보다 훨씬 높기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 1985~1992년 7년간 **연평균 인구증가율**은 1.0%로 선진제국(덴마크 0.2%~프랑스 0.6%)보다는 꽤 높은 편이다. 미국(1.0%)과는 비슷한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결혼율은 선진제국보다 높고, 이혼율은 낮아

○ 젊은 연령계층의 인구비중이 높아 **인구 천명당 결혼율**은 9.6명으로 선진경제국(프랑스 4.7명~영국 6.5명)들 보다는 높은 편이다.
미국(9.3명)과는 비슷한 수준이다. **인구 천명당 이혼율**은 1.3명으로 아시아에서는 일본(1.4명), 대만(1.5명), 싱가포르(1.3명) 등과 함께 높은 편이나, 서구 선진제국(미국 4.8명~독일 1.7명)들 보다는 낮은 편이다.

평균수명은 선진제국에 비해 매우 낮은 편

○ 우리나라 사람들의 **평균수명**은 남자 67.7세, 여자 75.7세로 평균수명이 가장 긴 일본의 75.9세, 81.6세보다 남자는 8.2세, 여자는 5.9세가 짧으며, 대부분의 선진제국들에 비해 매우 낮은 편이다.

< 인구 동태율 >

(인구 천명당)

	출생률	사망률	결혼율	이혼율	평균수명(세)
대한민국	15.3	5.8	9.6	1.3	남67.7 여75 7
일 본	9.9	6 7	6 0	1.4	75.9 81.6
미 국	16.0	8 5	9.3	4.8	72.6 79 3
캐 나 다	15 2	7 3	7.1	2.9	74.2 80 7
영 국	13.7	11.2	6.5	2.9	73.7 78 7
프 랑 스	12 9	9.1	4.7	1.9	73.0 80.8
독 일	10 0	10.9	5.7	1.7	72.7 79 0
이탈리아	9 9	9.7	5.5	0.5	73.9 80.3
네덜란드	13 0	8.6	6.4	1.8	74.3 80 5

주 : 비교연도가 다소 상이함(통계표 참조)

60세이상 노령인구 비율은 선진국 평균에 크게 못미쳐

○ 우리나라의 **연령계층별 인구구조**는 0~4세 7.4%, 5~14세 15.8%, 15~59세 67.8%, 60세이상 9.0%로 60세미만에 있어서는 선진국 평균 구조(0~4세 6.9%, 5~14세 14.0%, 15~59세 61.5%)보다는 비율이 다소 높은 편이고, 60세이상 연령은 선진국 평균(17.6%)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저개발국 평균(7.3%)에 가까운 편이다.

노동력 인구계층의 부양부담은 세계에서 가장 낮은 편

○ 이러한 연령구조로 인해 노동력 인구(15~64세)가 부양해야 하는 유년(0~14)과 노년(65세이상)층에 대한 **총부양비**는 40.6%로 세계에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인구의 절반이 속하는 연령계층(중위연령)은 29.2세로 매우 젊은 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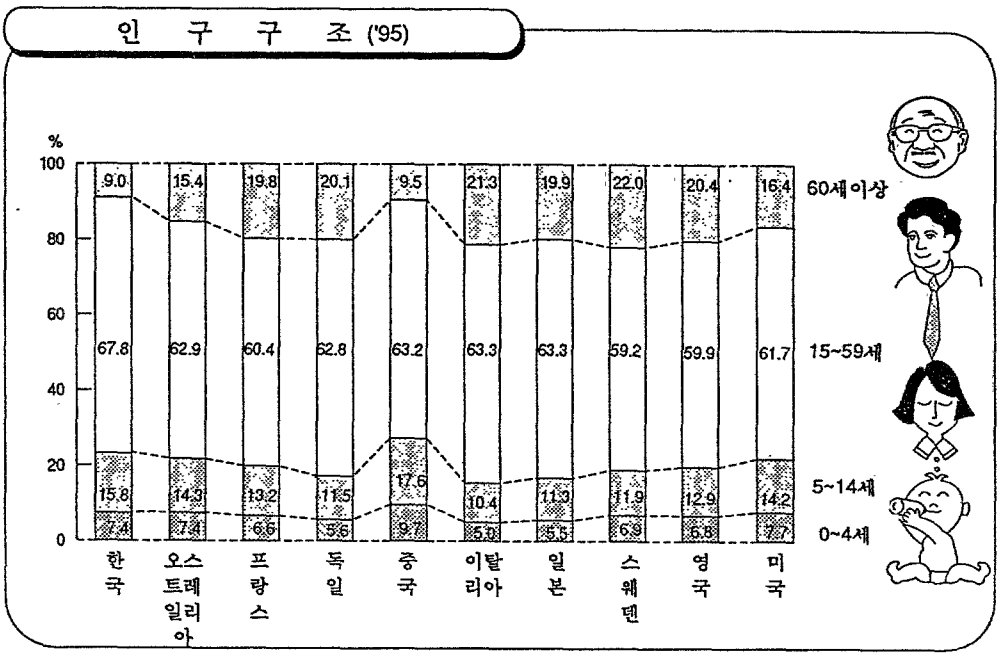
○ 우리나라 사람들을 연령별순으로 일렬로 세웠을 때 총인구의 절반이 되는 인구가 속한 **중위연령**은 29.2세로 선진국 평균 34.8세보다 5.6세나 젊은 편이다.

성비는 세계 평균 수준, 선진국 평균 수준보다는 높아

○ 여자 100명에 대한 남자의 비율인 **성비**는 101.4로 세계 평균과 일치하고 선진국 평균 94.6에 비해서는 높은 수준이다

< 연령구조 및 부양비(1995) >

	연 령 구 조 (%)				총부양비 (%)	중위연령 (세)
	0~4세	5~14세	15~59세	60세이상		
세 계	11.5	20.4	58.6	9.5	62.4	25.1
선진산업국	6.9	14.0	61.5	17.6	51.1	34.8
개발도상국	12.8	22.1	57.8	7.3	65.8	23.0
대한민국	7.4	15.8	67.8	9.0	40.6	29.2
일 본	5.5	11.3	63.3	19.9	44.4	39.0
미 국	7.7	14.2	61.7	16.4	52.7	34.2
영 국	6.8	12.9	59.9	20.4	54.5	36.2
프 랑 스	6.6	13.2	60.4	19.8	53.1	36.0
독 일	5.6	11.5	62.8	20.1	46.9	37.7
이탈리아	5.0	10.4	63.3	21.3	45.0	37.7



3. 노동

선진제국에 비해 15~34세의 여성 경제활동참가율이 매우 낮아

○ 15세이상 인구의 **경제활동참가율**은 61.1% (1993년), 남자는 76.0%, 여자는 47.2%로 남자의 경제활동참가율은 일본(78.0%), 홍콩(78.1%), 싱가포르(79.1%) 등 아시아 일부 경쟁 상대국들보다는 다소 낮은 편이나, 미국(71.5%), 캐나다(73.3%), 프랑스(63.1%), 독일(71.6%), 이탈리아(65.4%)보다는 높은 편이다. 여자의 경제활동참가율은 캐나다(57.5%), 미국(55.7%), 일본(50.3%), 싱가포르(50.6%), 덴마크(62.0%) 등에 비해 매우 낮으나, 독일(46.1%), 영국(42.3%), 이탈리아(35.8%)등에 비해서는 다소 높은 편이다.

< 경제활동참가율 >

(%)

	계	남	여	15~19세	20~24세	25~29세	30~34세
대한민국	61.1	76.0	47.2	13.5	61.3	67.9	72.9
일 본	63.8	78.0	50.3	18.1	74.8	80.6	75.5
대 만	58.8	72.7	44.9	19.4	63.7	77.9	77.1
미 국	63.3	71.5	55.7	39.1	73.1	82.6	83.0
캐 나 다	65.2	73.3	57.5	49.9	76.1	83.4	83.8
홍 콩	62.5	78.1	46.5	24.2	80.1	88.3	80.0
프 랑 스	55.0	63.1	47.5	8.3	56.1	87.7	87.3
독 일	58.3	71.6	46.1	37.0	75.2	79.9	81.9
호 주	62.6	73.7	51.8	54.6	81.7	79.5 (25~34세)	

주 : 조사연도는 국가별로 다소 상이함

○ 우리나라의 **연령별 경제활동참가율** 특징은 선진제국에 비해 15~34세 연령계층의 참가율이 매우 낮다는 점이다. 이는 높은 교육열(특히 15~24세)과 함께 여성들의 결혼 및 출산기(여성 경제활동참가율 25~29세 44.5%, 30~34세 47.4%로 20~24세 64.5%, 35~39세 59.3%에 비해 매우 낮음)가 이 연령계층에 해당하여 직장을 많이 이탈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전문·기술직 비율 낮고, 판매·서비스직 비율은 높아

○ **직업별 경제활동인구 비율(실업자 포함)**을 보면 전문·기술직(행정·관리직 포함)은 10.0%로서 일본(11.6%), 대만(24.6%), 미국(16.6%), 영국(17.1%) 등에 비해 낮은 편이고, 생산·노무직도 31.0%로서 일본(34.3%), 대만(38.1%), 싱가포르(36.1%) 등 경쟁대상국에 뒤쳐져 있고, 판매·서비스직은 27.4%로서 일본(23.2%), 대만(15.8%), 미국(25.5%), 영국(16.1%) 등 보다도 높은 편이다.

< 직업별 경제활동 인구비율 (1993) >

(%)

	전문·기술직	사 무 직	판매·서비스직	생산·노무직
대한민국	10.0 (6.2)	14.6 (8.6)	27.4 (12.8)	31.0 (23.0)
일 본	11.6 (6.7)	18.5 (7.3)	23.2 (12.9)	34.3 (24.4)
대 만	24.6 (…)	9.1 (…)	15.8 (…)	38.1 (…)
미 국	16.6 (7.9)	15.1 (3.2)	25.5 (11.6)	25.8 (21.2)
싱가포르	10.2 (8.5)	13.7 (8.1)	27.4 (11.4)	36.1 (22.6)
영 국	17.1 (9.6)	13.8 (3.3)	16.1 (5.6)	20.3 (17.2)

주 ·( )내는 남자비율
·한국, 대만은 전문·기술직에 행정·관리직도 포함됨

농림어업 취업자 비율 선진제국에 비해 매우 높아

○ **산업별 취업자 구성**을 보면 농림어업 종사자가 14.7%('93년)로 선진제국에 비해 월등히 높은 편이며, 광공업 종사자는 대만(28.6%), 싱가포르(27.0%), 독일(31.5%)보다는 낮으나, 일본(23.8%)을 비롯한 기타 선진국들에 비해서는 높은 편이다.

< 산업별 취업자 구성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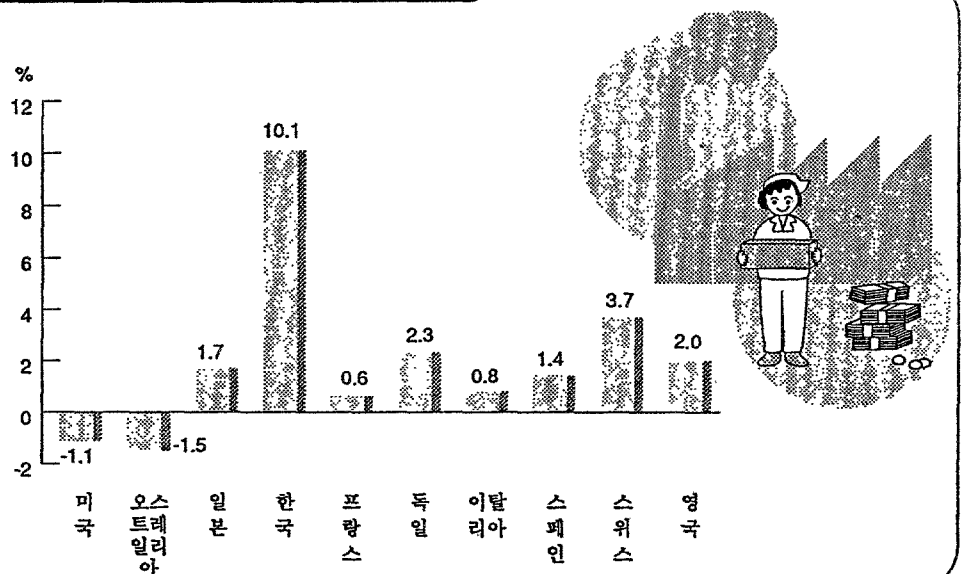
	농림어업	광공업	건설업	기 타
대한민국 ('93)	14.7	24.4	8.8	52.1
일 본 ('93)	5.9	23.8	9.9	60.3
대 만 ('93)	11.5	28.6	10.1	49.8
싱가포르 ('93)	3.9	27.0	6.4	66.4
미 국 ('93)	2.7	17.0	6.1	74.2
캐 나 다 ('93)	4.4	15.7	5.3	74.5
독 일 ('92)	3.5	31.5	6.8	58.2
프 랑 스 ('93)	5.0	19.9	6.8	68.3

'85~'92년간 제조업 임금 증가율은 대만 다음으로 높아

○ '85~'92년간 **제조업 평균 실질임금 증가율**은 10.1%로 대만(11.5%)과 함께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같은 기간 중 서구 선진제국들은 명목임금 증가율이 물가상승률보다 낮아 실질임금이 오히려 줄어 들었거나(미국, 캐나다), 0.6%(프랑스)~3.7%(스위스)의 소폭 증가에 그쳤다.

○ **제조업 주당 평균근로시간**은 49시간('92년)으로 대만(47시간)과 함께 세계에서 가장 근로시간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제조업임금 증가율 ('85~'92 연평균)



파업기간은 인도, 멕시코 다음으로 길어

○ 파업 및 직장폐쇄로 인한 **전산업 작업손실일수**는 152만8천일로 해마다 줄어들고는 있으나, 파업 참가노동자 1인당 작업손실일수가 14.5일('92년)로 인도(24.9일), 멕시코(17.5일) 등과 함께 가장 많은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다.

노동재해율도 크게 높은 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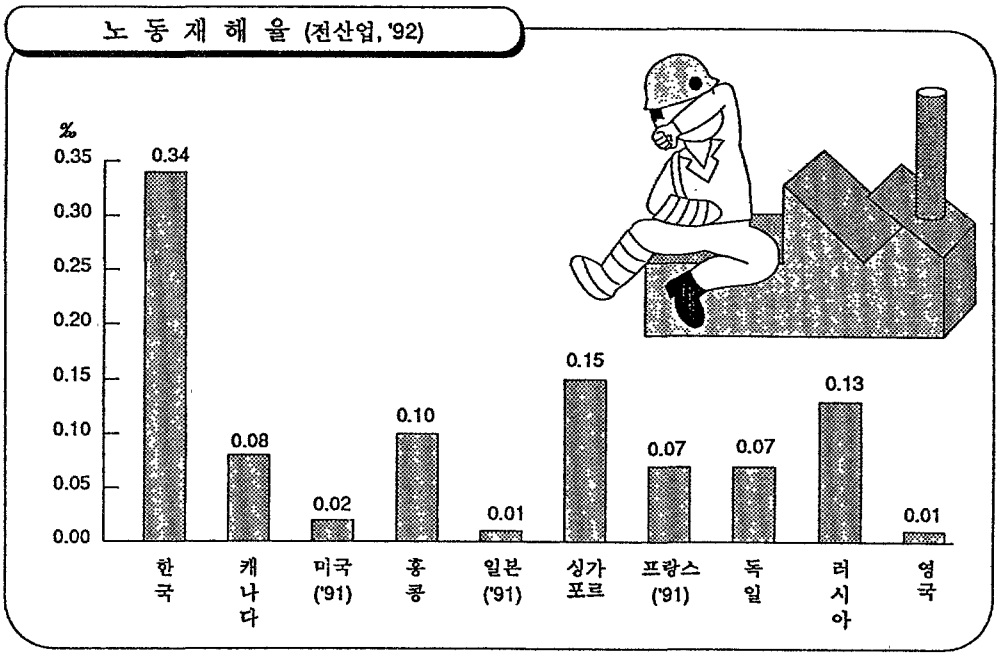
○ **제조업 노동재해율**도 근로자 십만명당 19명꼴로 각국마다 산출방식이 다소 다르긴하나 요르단(458.5명, 광업, 제조업, 전기가스·수도업포함), 체코(30.5명)와 함께 높은 수준이다.

< 임금, 근로시간, 파업, 노동재해율(1992) >

(%, 시간, 1,000일, ‰)

	제조업실질임금증가율 ('85~'92평균)	제조업 주당근로시간	파업으로인한작업손실일수 (전산업)	노동재해율 (제조업)
대한민국	10.1	49	1,528(14.5)	0.190
일 본	1.7	39	231(2.1)	0.010[1]
대 만	11.5	47	…(…)	…
홍 콩	3.8	43	3(1.8)	0.024
미 국	-1.1	40	3,989(11.0)	0.018[1]
캐 나 다	-0.4	38	2,116(14.1)	…
독 일	2.3	39	1,545(2.6)	0.070
프 랑 스	0.6	39	359(1.8)	0.053[1]
이탈리아	0.8	40	2,737(0.9)	…
스 위 스	3.7	41	1(3.5)	0.03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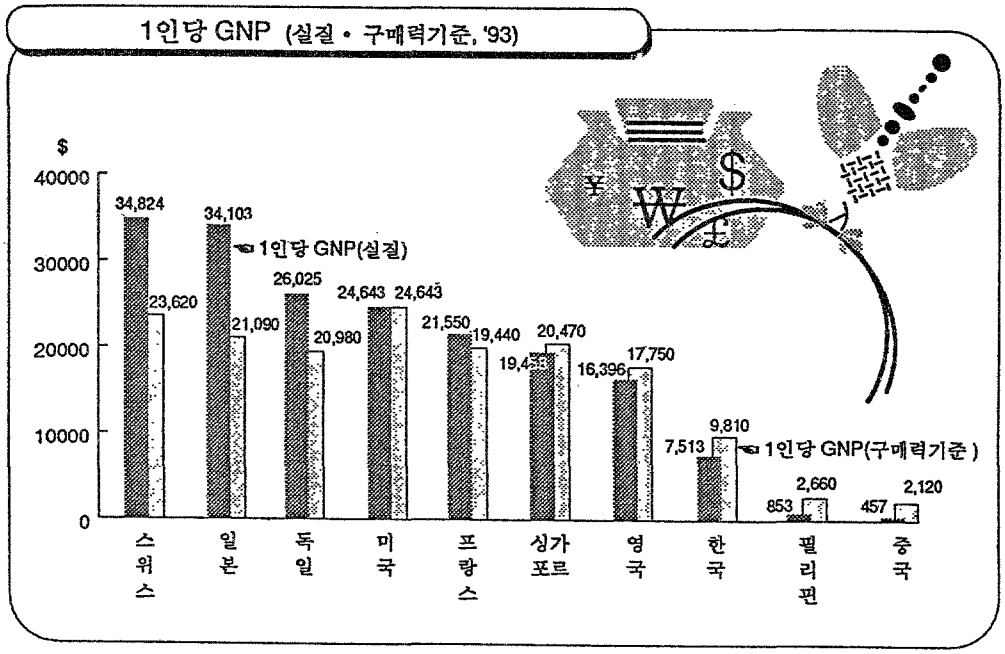
주 : · 1) 1991년 자료
· ( )내는 파업 참가 노동자 1인당 일수



4. 국민계정

GNP규모 세계 12위, 1인당 GNP는 32위,
물가를 감안한 구매력기준 1인당 GNP는 33위

○ '93년 현재 우리나라의 **국민총생산(GNP)**규모는 3,308억불($)('94년 3,769억불)로 세계 12위 수준이고 **국민1인당 GNP**는 7,513불('94년은 8,483불)로 세계 32위 수준이다. 미달러화 1단위로 구입할 수 있는 미국 내 재화와 용역수량 만큼을 비교국가에서 구입하는 데 필요한 화폐수치를 새로 산출하여 지수화한 구매력지수(Purchasing Power Parity)에 의한(World Bank자료) **구매력기준 1인당 GNP**는 '93년 현재 9,810불로 이에 의하면 세계 33위정도 수준이다.



종합인플레율은 선진제국은 물론 경쟁상대국보다 높아

○ **종합 인플레율**(GNP디플레이터 : 도매물가, 소비자물가, 환율, 수출입물가 등을 모두 포괄)은 '85~'93년간 평균 6.6%로 일본(1.4%), 미국(3.5%), 영국(5.7%), 프랑스(3.0%), 독일(3.2%)등 선진제국에 비해 높은 것은 물론, 경쟁상대국 또는 후발개도국인 대만(2.9%), 싱가포르(3.5%), 타이(5.1%), 말레이시아(3.1%)등 보

다도 높았다. 다만 홍콩(9.1%)보다는 다소 낮고 이탈리아(6.5%)와는 비슷한 인플레율을 나타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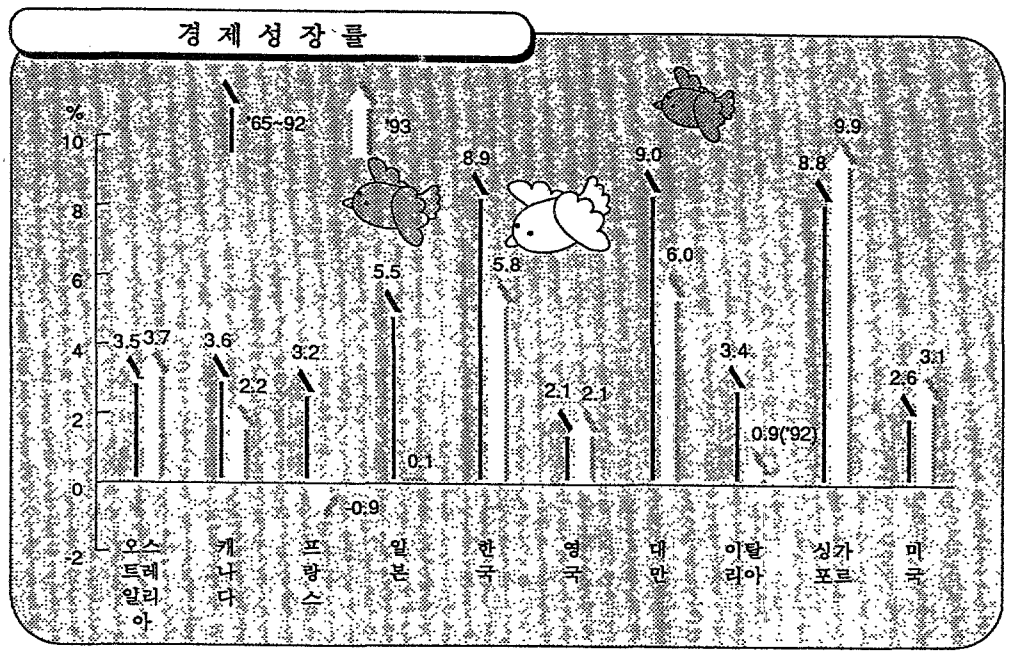
<GNP 및 1인당 GNP(1993)>

	GNP (10억불)	1인당GNP (불)	구매력기준 1인당GNP(불)	GNP디플레이터 ('85~'93, %)
대한민국	330.8(12)	7,513(32)	9,810	6.6
일 본	4,254.9(2)	34,103(2)	21,090	1.4
대 만	222.6(19)	10,677(28)	···	2.9
싱가포르	55.8(40)	19,458(15)	20,470	3.5
미 국	6,347.8(1)	24,643(6)	24,643	3.5
영 국	948.3(6)	16,396(21)	17,750	5.7
독 일	1,705.7(3)	26,025(4)	20,980	3.2
프 랑 스	1,242.6(4)	21,550(10)	19,440	3.0
타 이[1]	108.6(28)	1,880(64)	6,390	5.1
말레이시아	61.3(37)	3,183(46)	8,630	3.1
홍 콩	114.7(25)	19,385(16)	21,670	9.1

주 : 1) 1992년자료, 단 구매력기준은 1993년

지난 30년간 경제성장률은 홍콩, 대만과 함께 가장 높은 수준

○ '65~'92년간 우리나라의 **연평균 경제성장률**은 8.9%로 대만(9.0%), 싱가포르(8.8%), 타이(8.0% : '65~'91년), 홍콩(11.7% : '73~'93년)등과 함께 가장 높은 성장률을 보였다. 일본은 5.5%, 인도네시아는 6.6%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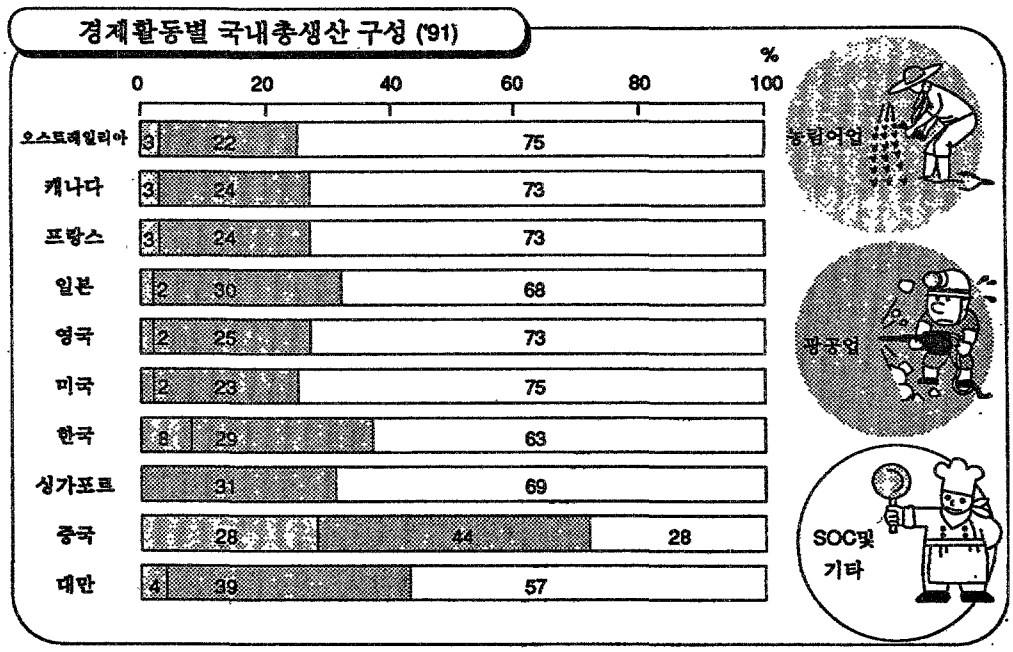
국내 총생산 중 농업비중은 선진제국에 비해 훨씬 높아

○ 경제활동별 국내 총생산(GDP)에 따른 산업구조를 보면 우리나라는 1993년 현재 농업 7%, 광공업 27%, 건설업 14%, 도소매업 12%, 운수·통신업 7%, 기타 서비스업 33%의 구성을 나타내고 있다.
일본, 미국,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등 대부분의 선진경제국들의 농업비중이 2~4%내외인 점을 감안하면 우리나라는 농업부문비중이 매우 높고, 건설업 비중 또한 높다. 광공업비중은 일본, 대만보다도 낮은 수준이다.

< 경제활동별 국내 총생산구조(1991) >

(%)

	농업	광공업	건설업	도소매업	운수통신업	기타서비스업
대한민국('91) ('93)	8 7	29 27	14 14	12 12	7 7	30 33
일 본	2	30	9	12	6	40
대 만	4	39	4	15	6	32
미 국	2	23	4	17	6	49
영 국	2	25	6	14	7	46
프 랑 스	3	24	5	16	6	45
이탈리아	3	21	6	19	6	45
독 일	1	30	5	9	5	5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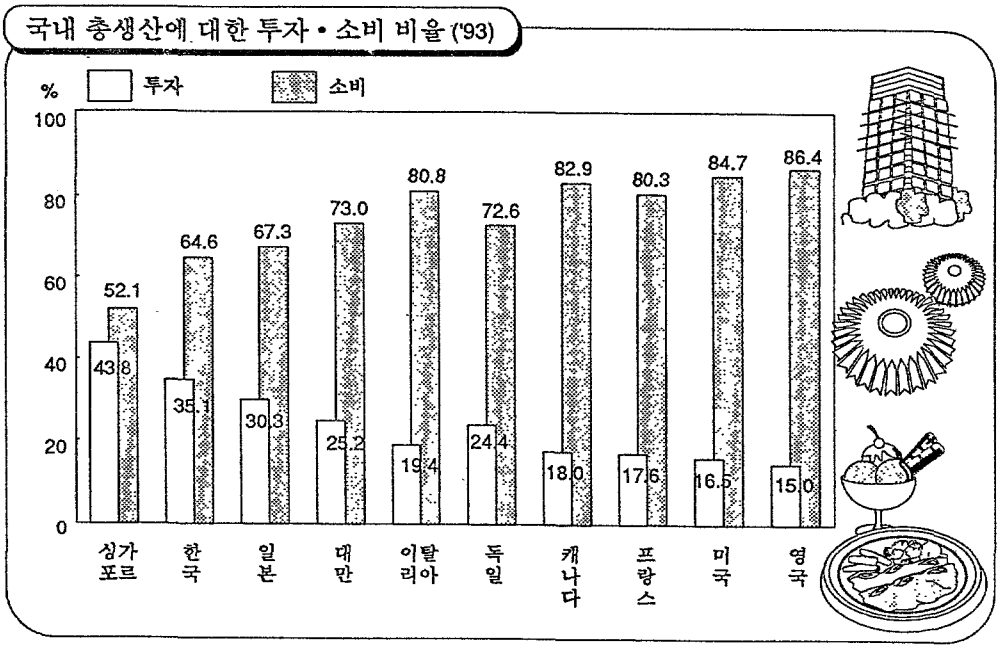
국내 총생산에 대한 지출 중 투자비율은 매우 높은 편

○ **국내 총생산에 대한 지출구조**를 보면 '93년 현재 소비지출비중이 64.6%(정부소비 10.8%, 민간소비 53.8%)로 선진제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대신 총자본형성 비중(투자)이 35.1%로 싱가포르(43.8%), 말레이시아(35.5%) 등과 함께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다.

<지출구조(1993)>

(%)

	소 비			투 자		
	계	정부	민간	계	총고정자본	재고증감
대한민국	64.6	10.8	53.8	35.1	36.0	-0.9
일 본	67.3	9.6	57.7	30.3	30.1	0.2
싱가포르	52.1	9.4	42.7	43.8	40.5	3.3
말레이시아	63.6	12.6	51.0	35.5	35.0	0.5
대 만	73.0	16.0	57.0	25.2	23.7	1.5
홍 콩	65.5	8.1	57.4	26.5	26.3	0.2
미 국	84.7	15.7	69.0	16.5	16.3	0.2
스 웨 덴	82.9	27.9	55.0	13.4	14.2	-0.8
독 일	72.6	17.8	54.8	24.4	19.9	4.5
프 랑 스	80.3	19.6	60.7	17.6	19.0	-1.4
영 국	86.4	22.0	64.4	15.0	15.0	0.0



5. 농림 · 어업

농업종사자수는 선진제국들에 비해 2~7배 높은 편

○ 우리나라 **농가인구**는 '93년 현재 총인구의 12.3%로 선진 경제국들의 2~5% 수준에 비해 매우 높으며, **농업종사자** 역시 경제활동인구의 14.3%로 선진경제국들의 2~6%에 비해 훨씬 높으며, 대만의 11.3%에 비해서도 높은 편이다.

< 농가인구 및 농업종사자(1993) >

(천명, %)

	농가인구	총인구대비	농업종사자	경제활동인구대비
대한민국	5,407	12.3	2,828	14.3
일 본	6,529	5.2	3,501	5.5
대 만	3,947	18.8	1,005	11.3
미 국	5,988	2.3	2,600	2.1
캐 나 다	787	2.8	389	2.8
프 랑 스	2,445	4.2	1,185	4.5
독 일	2,931	3.6	1,662	4.1
영 국	1,064	1.8	523	1 8
이탈리아	2,986	5.2	1,429	6 0

○ 농업중심의 저개발 국가를 제외한 대부분의 선진 경제국들에서의 **식량생산지수**는 '80년대 초반에 비해 점차 감소하거나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1인당 식량생산지수**는 점차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FAO 농업생산지수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식량생산지수는 '94년 현재 '79~'81년 평균에 비해 약1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1인당 식량생산지수는 '85년 103.9, '90년 102.6, '94년 101.8로 점차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일본의 경우 '94년 현재 식량생산지수는 '79~'81년에 비해 약 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1인당 식량생산지수도 8%가량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도 식량생산지수는 13%가량 증가하였으나, 1인당 식량생산지수는 1%가량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우리나라도 비료 다소비 국가

○ 농업생산에 있어 우리나라도 비료 다소비 국가에 속한다. **1헥타아르(ha)당 비료 총소비량**은 477kg으로 세계 7위 수준으로 덴마크 209kg, 프랑스 235kg, 독일 239kg, 미국 101kg, 일본 395kg 등 보다 매우 높다.

쌀 자급량은 96.8%, 호주는 782%, 미국은 172%

○ 쌀이 주식인 우리나라의 **1인당 쌀소비량**은 '93년 현재 연간 110kg으로 **자급률**은 96.8%이다. 일본의 1인당 쌀소비량은 71kg('88년)으로 자급률 94%이다.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등의 육류소비량은 1인당 연간 24.3kg('93년)으로 자급률 91%로 일본에 비해 1인당 소비량(일본 '88년 42.9kg)은 매우 낮은 편이다.
쌀의 자급률이 100%를 넘어 자급하고도 남아도는 선진국으로는 호주(자급률 782%), 이탈리아(223%), 미국(172%), 그리스(118%), 스페인(115%) 등이 있다.

1인당 수산물 소비량 세계 13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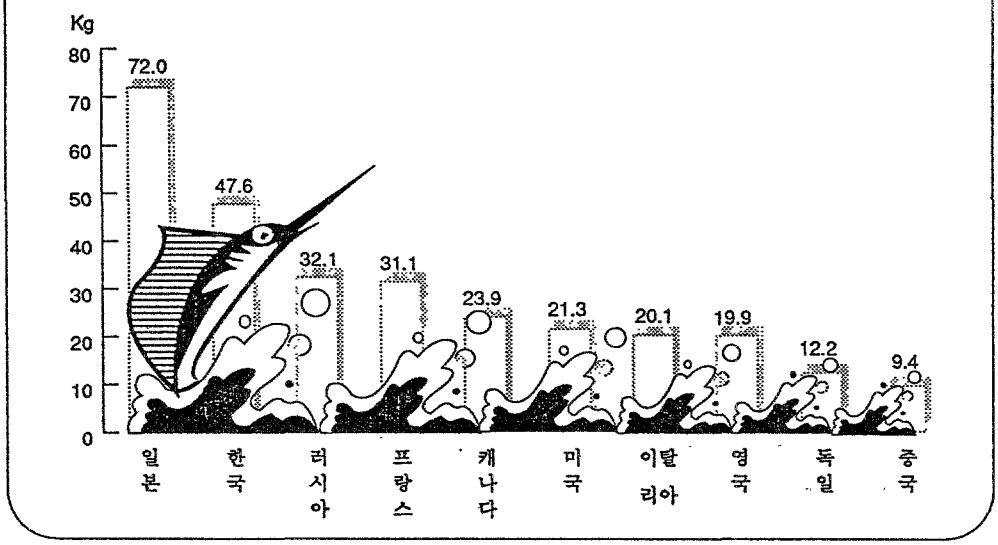
○ '93년 현재 우리나라의 **1인당 낙농품 생산량**은 우유가 41.8kg으로 세계 66위 수준이고, 달걀생산은 10.9kg으로 세계 30위 수준이다. 어개류등 수산물 소비량은 1인당 47.6kg('88~'93년 평균)으로 세계 13위 정도의 소비수준이다.
일본은 우유, 달걀생산량(1인당)이 각각 세계 47위, 6위 수준이고, 수산물 소비 수준은 세계 5위이다.

< 인구 1명당 우유·달걀생산 및 수산물 소비량(1993) >

	우유생산(kg)	달걀생산(kg)	수산물소비(kg '88~'90평균)
대한민국	41 8(66)	10.9(30)	47.6(13)
일 본	69.8(47)	20.8(6)	72.0(5)
미 국	266 4(20)	16 4(11)	21.3(60)
영 국	255 6(21)	10.8(31)	19.9(68)
프 랑 스	435.6(11)	16.2(12)	31.1(34)
독 일	349 8(18)	10 9(29)	12 2(100)
덴 마 크	910.5(3)	16 9(10)	21 2(61)
뉴질랜드	2,397.5(1)	14 1(16)	27 7(41)
캐 나 다	253.8(22)	11 4(27)	23.9(53)

주 ( )내는 국가별 순위

1인당 수산물 소비량 ('88~'90년 평균)



원목수입은 일본에 이어 세계 2위

○ 세계 최고의 **입목벌채 및 수출**국가 1위는 미국이고, 구소련, 중국이 벌채량에 있어 각각 2, 3위이며, 수출로는 말레이시아, 구소련이 각각 2, 3위이다.
우리나라의 입목벌채량은 세계 64위 수준으로, 극소수를 수출하긴 하나, 자급도가 극히 낮아 수입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원목수입량**은 일본에 이어 세계 2위 수준이다.

< 입목벌채 · 수출 · 수입량(1992) >

(1,000㎥)

	입목벌채량	수출량	수입량
대한민국	6,485(64)	6(62)	10,135(2)
일 본	28,063(22)	30(54)	47,909(1)
말레이시아	54,008(9)	18,106(2)	24(43)
중 국	296,557(3)	703(27)	6,442(5)
구 소 련	337,100(2)	11,874(3)	28(40)
미 국	495,800(1)	27,337(1)	1,641(15)
독 일	37,264(18)	8,834(4)	3,288(8)
프 랑 스	44,840(12)	5,624(6)	2,878(10)

주 : · 벌채량은 FAO 추정치
· ( )내는 국가별 순위

6. 광공업

○ 우리나라의 **제조업 종업원 1인당 생산액**은 '93년 현재 110.5천불, **제조업 종업원 1인당 부가가치액**은 46.9천불로 대만, 홍콩보다는 높으나, 일본을 비롯한 선진경제국들에 비해 절대액기준 노동생산성은 매우 낮은 편이다.

< 종업원 1인당 제조업 생산·부가가치(1990) >

(1,000불)

	생 산 액	부가가치
대한민국[1]	110 5	46 9
일 본	204 5	81 2
싱가포르	117.3	35 5
대 만	69.2	22 5
미 국	163.5	75.6
독 일[2]	153 9	75 2
프 랑 스	191 2	72.5
뉴질랜드	261.8	84.0
이탈리아	144 5	43.9
홍 콩	59 1	17 1

주 1) 1993년 자료
2) 서독지역

우리나라는 맥주 생산 세계16위, 담배 생산 9위국

○ **맥주생산량** 1위는 미국(237억 ℓ)이고 2, 3위는 독일, 중국이며, 우리나라는 세계 16위의 생산국이다. **담배생산량**은 중국이 1조 6,500억개비로 1위이고, 미국, 일본이 2, 3위이며, 우리나라는 세계 9위의 생산국이다.
1인당 설탕 소비량은 쿠바가 연간 88kg으로 1위이고, 우리나라는 연간 18kg으로 세계 58위 정도의 비교적 저소비국에 속한다. 일본은 22kg소비로 세계 52위 미국은 31kg 소비로 세계 39위 수준이다.

< 맥주, 담배 생산 및 정당 소비량(1992) >

맥 주(10만 ℓ)			담 배(100만개비)			1인당 정당소비(kg)		
1	미 국	237,029	1	중 국	1,650,000	1	쿠 바	88
2	독 일	114,089	2	미 국	703,134	2	피 지	60
3	중 국	102,064	3	일 본	279,000	3	헝 가 리	59
4	영 국	70,800[1]	4	독 일	222,561[2]	4	오스트리아	54
5	일 본	70,106	5	브 라 질	169,000	4	멕 시 코	54
6	브 라 질	47,107[2]	6	인도네시아	145,000	6	파 나 마	52
7	멕 시 코	42,262	7	러 시 아	144,000[2]	7	이스라엘	51
8	러 시 아	32,700[2]	8	영 국	126,538	7	구 체 코	51
9	스 페 인	26,482	9	대한민국	94,336	9	뉴질랜드	50
10	캐 나 다	23,547[3]	10	네덜란드	90,000	10	자메이카	48
16	대한민국	15,673	11	스 페 인	87,500	58	대한민국	18

주 : 1) 1990년 2) 1991년 3) 1986년

화학섬유 총 생산량은 세계 5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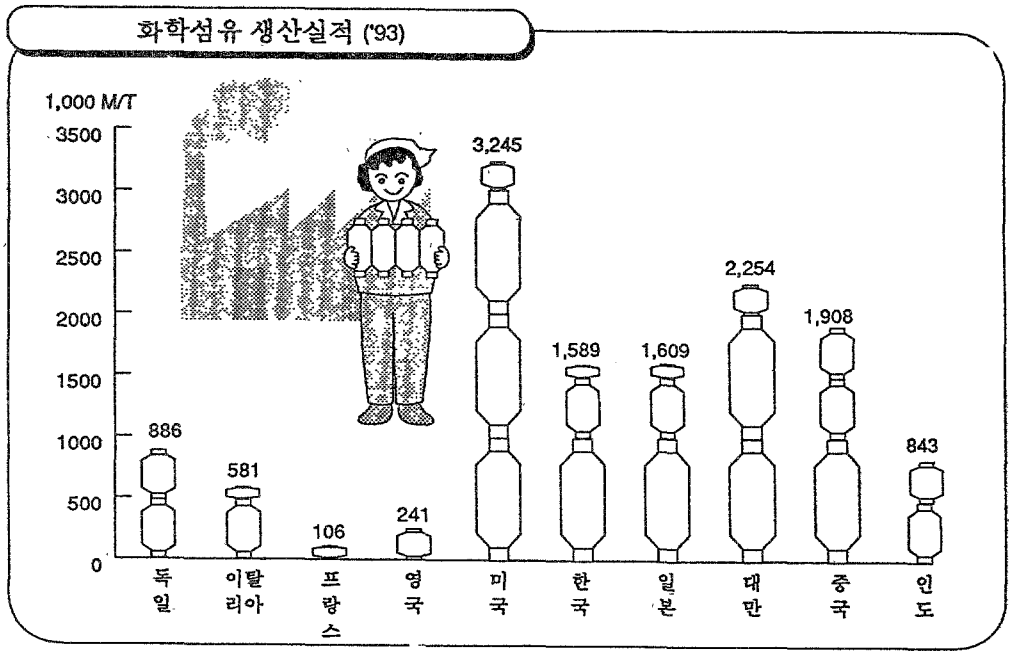
○ 우리나라는 '93년 현재 세계 **화학섬유 생산량**(18,428천톤)의 8.6%를 생산하고 있어 미국, 대만, 중국, 일본에 이어 세계 5위 생산국이다. 합성섬유 중 나일론은 세계 총생산량의 6.5%를 차지하여 세계 4위이고, 폴리에스터는 세계 총 생산량의 11.4%를 차지하여 역시 4위이며, 아크릴릭은 8.3%로 5위이다.

< 화학섬유 생산 >

(1,000톤)

	계			나일론			폴리에스터			아크릴릭		
	세 계	18,428(100.0)		세 계	3,621(100.0)		세 계	10,125(100.0)		세 계	2,294(100.0)
1	미 국	3,245 (17.6)	1	미 국	1,206 (33.3)	1	대 만	1,749 (17.3)	1	일 본	355(15.5)
2	대 만	2,254 (12.2)	2	대 만	243 (6.7)	2	미 국	1,614 (15.9)	2	이탈리아	235(10.2)
3	중 국	1,908 (10.4)	3	일 본	240 (6.6)	3	중 국	1,423 (14.1)	3	독 일	200(8.7)
4	일 본	1,609 (8.7)	4	대한민국	237 (6.5)	4	대한민국	1,153 (11.4)	4	미 국	196(8.5)
5	대한민국	1,589 (8.6)	5	독 일	204 (5.6)	5	일 본	716 (7.1)	5	대한민국	191(8.3)
6	독 일	886 (4.8)	6	중 국	174 (4.8)	6	인 도	460 (4.5)	6	멕 시 코	146(6.4)
7	인 도	843 (4.6)	7	이탈리아	140 (3.9)	6	인도네시아	460 (4.5)	7	터 키	144(6.3)
8	이탈리아	581 (3.2)	8	인 도	85 (2.3)	8	독 일	355 (3.5)	8	중 국	137(6.0)
9	인도네시아	542 (2.9)	9	브 라 질	65 (1.8)	9	타 이	273 (2.7)	9	대 만	131(5.7)
10	멕 시 코	431 (2.3)	10	캐 나 다	63 (1.7)	10	멕 시 코	215 (2.1)	10	영 국	89(3.9)

주 : · ( )내는 점유비
· 계에는 셀룰로우즈가 포함된 수치임



자동차용 타이어 생산은 세계 5~6위, 합성고무는 9위 수준

○ 우리나라의 **자동차용 타이어 생산량**은 '91년 현재 타이어 총 생산량의 3.9%를 차지하고 있어, 미국, 일본, 구소련, 프랑스, 구서독에 이어 세계 5~6위 수준이다. (중국 자료는 모든 종류의 타이어를 모두 포함하고 있어 자동차용 타이어 수치가 불확실함)

합성고무생산량은 세계 총 생산량의 3.2%를 차지하여 세계 9위 수준에 있다.

< 타이어 및 합성고무 생산량 (1991) >

타이어 (1,000본)			합성고무 (1,000톤)		
	세 계	856,230(100.0)		세 계	7,065.3(100.0)
1	미 국	202,391 (23.6)	1	미 국	2,050.0 (29.0)
2	일 본	153,677 (17.9)	2	일 본	1,377.3 (19 5)
3	프 랑 스	57,876 (6.8)	3	독 일	647.4[1] (9.2)
4	독 일	52,299[1] (6.1)	4	프 랑 스	470.7 (6.7)
5	중 국	38,723 (4.5)	5	중 국	334.7 (4.7)
6	대한민국	33,710 (3.9)	6	이탈리아	305.0 (4.3)
7	러 시 아	33,522 (3.9)	7	브 라 질	253.0 (3.6)
8	이탈리아	32,447 (3.8)	8	영 국	251.3 (3.6)
9	브 라 질	28,927 (3.4)	9	대한민국	224.2 (3.2)
I0	영 국	28,505 (3.3)	10	네덜란드	222.5 (3.1)

주 : · 1) 1991년
· 중국은 모든 종류의 타이어를 모두 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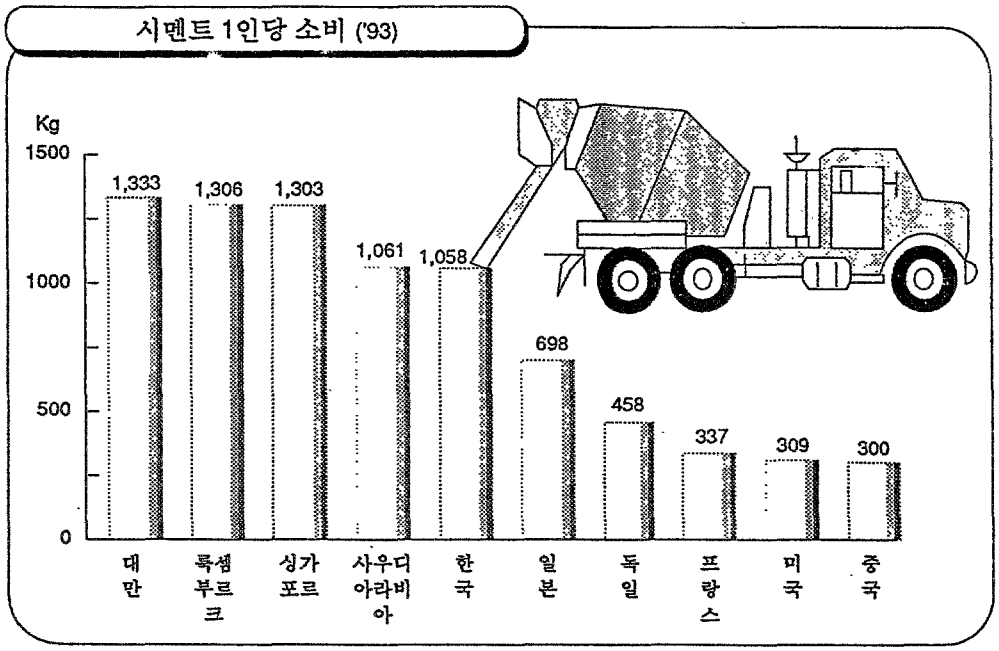
시멘트 생산은 세계 6위, 1인당 소비는 세계 9위 수준

○ **시멘트 생산량**은 '93년 현재 46.8백만톤으로 세계 총 생산량의 3.6%를 차지하여 세계 6위 생산국이며, **시멘트 수출**은 생산량의 9.3%를 수출하면서 세계 3위를 보이고 있고, **1인당 국내 시멘트 소비량**은 1,058kg으로 세계 9위 수준에 있다.

< 시멘트 생산 · 수출 · 소비(1993) >

(1,000톤)

생산량			수출량			1인당 소비량 (kg)		
	세 계	1,295,900(100.0)	1	일 본	13,131	1	아랍에미리트	2,727
1	중 국	360,000 (27 8)	2	그리스	6,918	2	키 프 러 스	1,359
2	일 본	88,676 (6 8)	3	대한민국	4,364	3	대 만	1,333
3	미 국	74,000 (5.7)	4	캐나다	3,900	4	룩셈부르크	1,306
4	러시아	65,000 (5.0)	5	스페인	3,736	5	싱 가 포 르	1,303
5	인 도	55,780 (4 3)	6	폴란드	3,277	6	카 타 르	1,250
6	대한민국	46,803 (3 6)	7	터 키	3,202	7	레 바 논	1,068
7	이탈리아	34,771 (2.7)	8	벨기에	2,902	8	사우디아라비아	1,062
8	터 키	32,679 (2.5)	9	중 국	2,445	9	대 한 민 국	1,058
9	독 일	32,481 (2.5)	10	루마니아	2,315	10	쿠 웨 이 트	1,031
10	타 이	27,811 (2 1)	11	프랑스	2,222	11	바 레 인	987



철강 생산량 및 1인당 소비량은 모두 세계 6위 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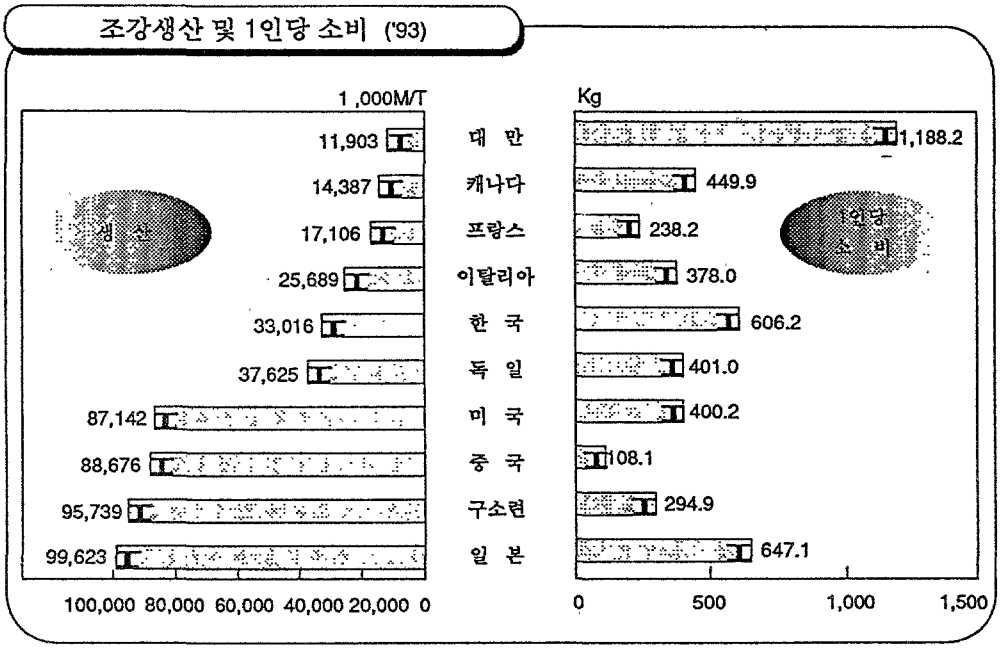
○ 우리나라 **조강생산량**은 '93년 현재 3천 3백만톤으로 세계 총 조강생산량의 4.5%를 차지해 세계 6위이며, **1인당 조강소비량**은 606kg으로 역시 세계 6위이다.

철강수출량은 1천1백만톤으로 세계 8위이면서, 동시에 **철강수입량**도 5.3백만톤에 이르러 세계 11위이다. 철강생산원료로 사용되는 **고철수입량**도 4.9백만톤에 달해 터키, 이탈리아에 이어 세계 3위이다.

< 철강생산·소비·수출입및 고철수입량(1993) >

	조강생산 (1,000톤)			1인당조강소비 (kg)		철강수출 (1,000톤)		철강수입 (1,000톤)		고철수입 (1,000톤)	
	세 계	725,835(100.0)	1	싱가포르	1,448	일 본	23,506	중 국	36,640	터 키	6,373
1	일 본	99,623 (13.7)	2	대 만	1,188	독 일	18,124	미 국	17,824	이탈리아	5,904
2	구 소 련	95,739 (13.2)	3	홍 콩	843	러 시 아	16,599	대 만	14,478	대한민국	4,903
3	중 국	88,676 (12.2)	4	키프러스	725	벨 기 에[2]	13,845	독 일	13,584	스 페 인	3,831
4	미 국	87,142 (12.0)	5	일 본	647	브 라 질	12,237	프 랑 스	8,533	네덜란드	3,522
5	독 일[1]	37,625 (5.2)	6	대한민국	606	이탈리아	11,890	러 시 아	8,345	중 국	3,130
6	대한민국	33,016 (4.5)	7	캐 나 다	450	프 랑 스	11,561	이탈리아	8,165	인 도	2,600
7	이탈리아	25,689 (3.5)	8	독 일	401	대한민국	11,152	타 이	6,673	벨기에[2]	2,430
8	브 라 질	25,155 (3.5)	9	오스트리아	401	우크라이나	10,000	일 본	6,111	대 만	1,736
9	인 도	18,531 (2.6)	10	미 국	400	영 국	8,203	우크라이나	5,310	캐 나 다	1,726
10	프 랑 스	17,106 (2.4)	11	스 웨 덴	381	터 키	6,309	대한민국	5,335	미 국	1,545

주 : 1) 서독 2) 룩셈부르크 포함



금속공작 및 기계 생산은 세계 9위, 반면 수출은 18위, 수입은 4위 수준

○ 기계를 만드는 기계라 일컫는 **금속공작 및 가공기계 생산**은 '93년 현재 623백만불로 세계 총 생산액의 2.2%를 차지하여 세계 9위 수준이다.
금속공작 및 가공기계 수출은 110백만불로 세계 총수출액의 0.7%에 불과하여 세계 18위 수준이고, 반대로 **금속공작 및 가공기계수입**은 700백만불로 세계 총 수입액의 5.9%에 달해 세계 4위의 수입국이다.
일본의 경우 생산, 수출액에서 모두 1위, 수입은 10위에 그치고 있고, 대만의 경우도 생산 7위, 수출 6위이고, 수입은 9위에 그쳐 우리나라에 비해 상당한 우위를 점하고 있다.

< 금속공작 및 가공기계 생산·수출입 >

(백만불)

생산			수출			수입		
	세 계	28,248(100.0)		세 계	14,532(100.0)		세 계	11,934(100.0)
1	일 본	7,154(25.3)	1	일 본	3,644(25.1)	1	미 국	2,500(20.9)
2	독 일	5,145(18.2)	2	독 일	3,329(22.9)	2	중 국	1,522(12.8)
3	미 국	3,275(11.6)	3	이탈리아	1,391(9.6)	3	독 일	1,150(9.6)
4	이탈리아	2,366(8.4)	4	스 위 스	1,185(8.2)	4	대한민국	700(5.9)
5	중 국	1,753(6.2)	5	미 국	1,010(7.0)	5	이탈리아	637(5.3)
6	스 위 스	1,354(4.8)	6	대 만	688(4.7)	6	프 랑 스	636(5.3)
7	대 만	1,074(3.8)	7	영 국	489(3.4)	7	영 국	543(4.5)
8	영 국	953(3.4)	8	벨 기 에	309(2.1)	8	캐 나 다	511(4.3)
9	대한민국	623(2.2)	9	프 랑 스	300(2.1)	9	대 만	441(3.7)
10	프 랑 스	618(2.2)	18	대한민국	110(0.7)	10	일 본	378(3.2)

전자부문 생산 세계 6위, 부품, 가전기기 비중이 74%

○ 우리나라의 **전자부문 생산액**은 '94년 현재 283.5억불로 세계 총생산액의 3.9%를 차지하면서 미국, 일본, 독일, 프랑스, 영국에 이어 세계 6위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총 생산액중 전자부품 생산액이 51.6%에 이르고, 가전기기 생산액도 22.1%나 차지해 이들 2개부문 생산액이 전체의 73.7%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고도의 핵심기술이 필요한 자료처리장치(13.8%), 제어기기(0.8%), 의료 및 산업용전자기기(0.7%), 통신및 레이다기기(3.8%)부문의 비중은 생산액 상위 그룹국가에 비해 비중이 매우 낮은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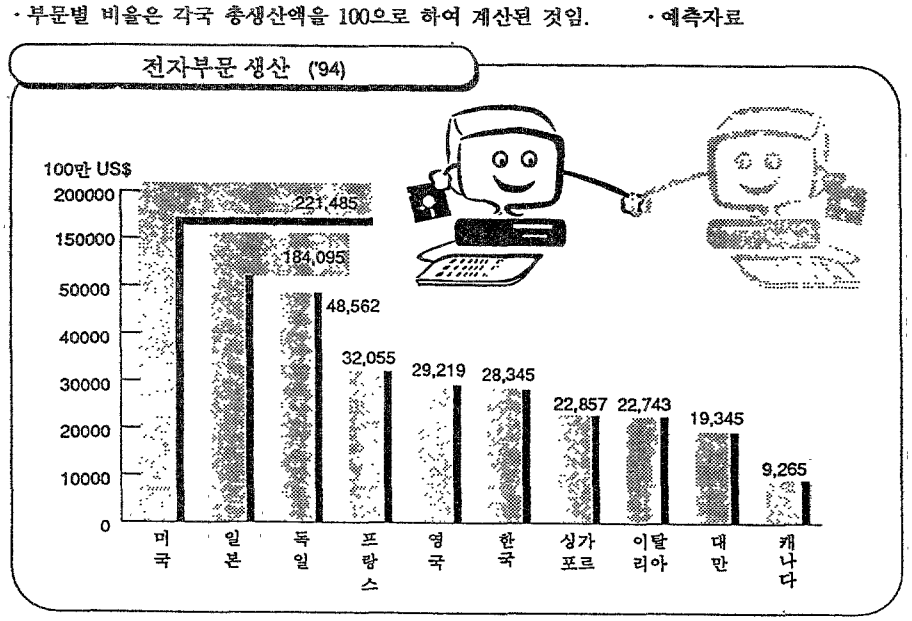
'94년 현재 부품생산액은 세계3위, 가전기기 역시 3위이고, 전신·전화기기는 8위, 통신 및 레이다는 9위, 사무용기기는 10위, 자료처리장치는 11위, 의료 및 산업용기기는 16위, 제어기기는 세계 22위 수준에 있다.

< 전자부문 생산 비중(1994) >

(백만불, %)

		총생산액	자료처리장치	사무용기기	제어기기	의료·산업용기기	통신및레이다	전신·전화기기	가전기기	부품
	세 계	734,363(100.0)	25.8	2.2	9.0	3.9	12.6	9.7	9.8	27.0
1	미 국	221,485(30.2)	23.4	2.4	12.7	5.0	21.6	8.5	3.0	23.4
2	일 본	184,095(25.1)	26.3	2.6	4.0	3.2	6.5	7.6	14.0	35.8
3	독 일	48,562(6.6)	17.2	2.5	20.1	6.1	7.6	16.6	7.1	22.8
4	프 랑 스	32,055(4.4)	23.8	1.7	9.0	2.9	25.0	15.6	5.8	16.2
5	영 국	29,219(4.0)	29.5	2.4	14.0	4.7	16.4	6.5	8.2	18.3
6	대한민국	28,345(3.9)	13.8	0.9	0.8	0.7	3.8	6.3	22.1	51.6
7	싱가포르	22,857(3.1)	52.6	1.5	1.4	0.4	2.5	1.2	10.8	29.6
8	이탈리아	22,743(3.1)	30.6	1.8	13.6	3.7	13.3	19.9	4.7	12.4
9	대 만	19,345(2.6)	45.3	0.9	0.5	1.3	4.1	6.8	5.6	35.5
10	말레이시아	16,035(2.2)	19.1	0.8	0.9	0.6	4.7	5.4	25.5	43.0

주 : ·부문별 비율은 각국 총생산액을 100으로 하여 계산된 것임. ·예측자료



전자부문 수출 세계 8위이나, 부품,가전기기이외에는 세계 10위권 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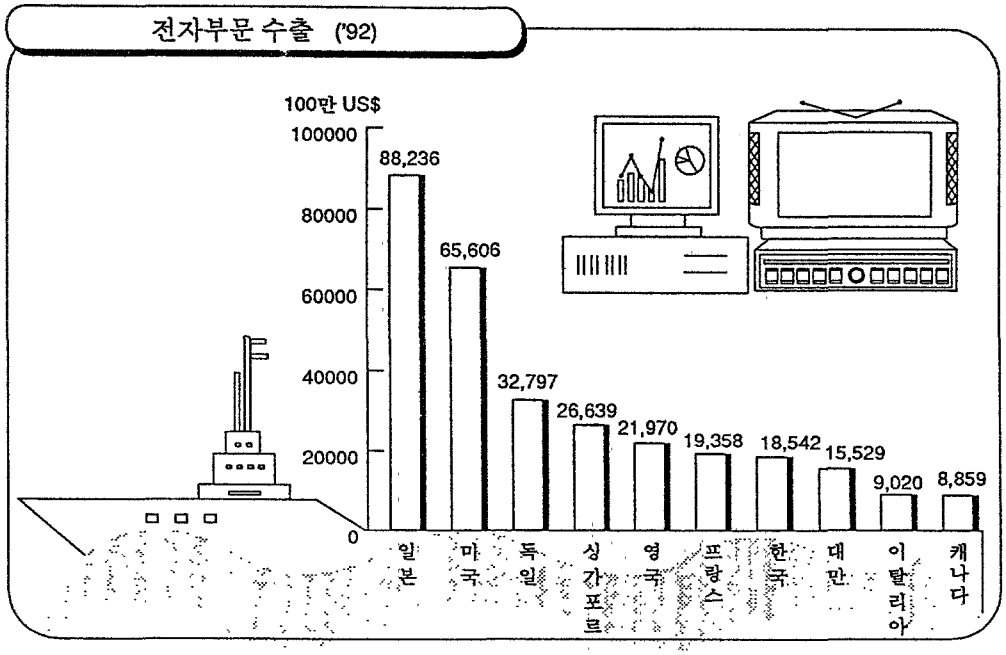
○ 우리나라의 **전자부문 수출액**은 '92년 현재 185.4억불로 세계 총 수출액의 4.6%를 차지하면서 세계 8위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전자부품 3위, 가전기기 3위를 제외한 고도의 핵심기술분야의 수출비중은 매우 낮다. 세계 30개 주요 전자부문 수출국가 중 부품부문과 가전기기부문 수출은 각각 세계 3위이며, 사무용기기, 통신 및 레이다, 전신·전화기기부문은 각각 12위이고, 그 밖에 자료처리장치는 13위, 제어기기는 18위, 의료 및 산업용기기는 세계 18위 수준 이다.

< 전자부문 수출 점유비(1992) >

(백만불, %)

		총수출액	자료처리장치	사무용기기	제어기기	의료·산업용기기	통신및레이다	전신·전화기기	가전기기	부품
	세 계	405,654(100.0)	32.5	2.5	7.4	3.2	5.1	5.7	14.9	28.7
1	일 본	88,236(21.8)	18.0	34.4	12.4	15.4	19.9	19.8	33.0	22.8
2	미 국	65,606(16.2)	21.5	5.3	25.7	30.0	17.1	15.4	3.6	13.9
3	독 일	32,797(8.1)	5.8	7.7	19.7	16.5	4.6	12.6	5.1	8.0
4	싱가포르	26,639(6.6)	9.4	3.7	1.6	0.5	2.7	1.7	6.9	7.0
5	홍 콩	25,813(6.4)	3.4	8.7	1.5	3.0	8.7	4.1	15.0	6.7
6	영 국	21,970(5.4)	7.6	4.8	7.3	4.3	7.8	3.1	2.9	4.0
7	프 랑 스	19,358(4.8)	4.3	5.2	5.4	4.7	14.6	6.1	3.1	4.0
8	대한민국	18,542(4.6)	2.1	1.1	0.8	0.5	2.2	2.4	7.2	8.6
9	대 만	15,529(3.8)	6.5	2.0	0.6	1.1	2.6	3.4	2.0	3.3
10	네덜란드	13,501(3.3)	4.1	18.9	3.1	6.1	1.2	2.4	1.8	2.2

주 : 부문별 비율은 전세계 부문별 수출액을 100으로 하여 국가별 점유비를 계산한 것임.



전자부문 수입액도 세계 13위, 부품과 핵심장치 수입 비율 높아

○ 우리나라의 **전자부문 수입액**은 '92년 현재 73.3억불로 세계 전체 수입액의 2.0%를 차지하고 있으며 수입액 순위는 세계 13위다. 부품수출이 많은만큼 부품수입도 많아 우리나라 총 수입액의 48.1%를 차지하고 있고, 제어기기(19.6%), 자료처리장치(19.2%), 통신 및 레이다(4.9%)부문 수입비중이 상대적으로 큰 편이다.

선진경제국들의 가전기기 수입비중이 10~19%인 점과 대조적으로 우리나라의 가전기기 수입 비중은 2.4%에 불과하다. 세계 주요 30개 전자공업국 중 부품수입은 12위, 자료처리장치는 20위, 제어기기는 7위, 통신 및 레이다는 11위, 의료 및 산업용기기는 15위, 전신·전화기기는 23위, 사무용기기는 20위의 수입국이다.

< 전자부문 수입 구성(1992) >

(백만불, %)

		총수출액	자료처리장치	사무용기기	제어기기	의료·산업용기기	통신및레이다	전신·전화기기	가전기기	부품
	세 계	375,445(100.0)	34.2	2.6	7.5	2.9	3.8	4.8	15.1	29.1
1	미 국	87,106(23.2)	35.1	2.5	4.3	3.8	3.1	5.9	18.9	26.5
2	독 일	41,449(11.0)	37.9	2.9	8.3	2.8	1.9	4.9	15.9	25.4
3	영 국	28,821(7.7)	44.9	2.0	6.5	2.0	5.2	3.9	10.9	24.7
4	프 랑 스	24,138(6.4)	36.0	3.2	9.1	3.5	4.5	2.6	14.1	27.0
5	홍 콩	23,996(6.4)	14.6	2.7	2.1	1.5	6.4	3.6	3.0	38.9
6	네덜란드	18,646(5.0)	47.6	7.4	5.5	3.1	2.6	3.7	12.7	17.4
7	일 본	17,764(4.7)	32.6	0.8	10.9	2.9	4.6	3.2	10.3	34.7
8	이탈리아	16,889(4.5)	31.3	3.2	11.9	2.6	2.1	5.3	16.8	26.7
9	싱가포르	16,464(4.4)	31.6	1.3	5.3	0.5	2.4	3.3	14.5	41.2
10	대한민국	7,331(2.0)	19.2	0.7	19.6	2.6	4.9	2.5	2.4	48.1

주 · 부문별 비율은 각국가별 수입액을 100으로 하여 계산된 것임

자동차 총 생산량 세계 6위, 승용차 6위, 상용차는 5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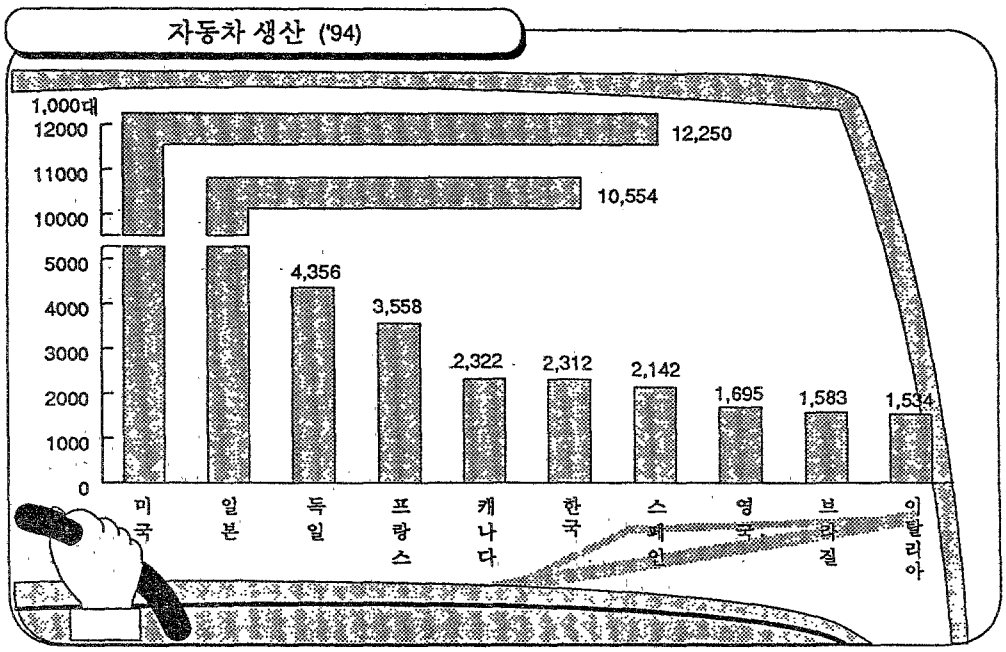
○ 우리나라 **자동차 생산량**은 '94년 현재 2,311.7천대로 세계 자동차 총 생산량(51,993.5천대)의 4.4%를 차지하고 있으며 세계 6위 생산국이다.

승용차 생산은 1,805.9천대로 세계 총 생산량의 4.9%로 세계 6위이며 버스, 트럭, 특장차등 **상용차 생산**은 505.8천대로 세계 총 생산량의 3.4%를 차지하여 세계 5위이다.

< 자동차 생산 실적(1994) >

(대)

	계		승용차		상용차	
	세 계	51,993,522(100.0)	세 계	37,085,114(100.0)	세 계	14,908,408(100.0)
1	미 국	12,249,990(23.6)	일 본	7,801,317(21.0)	미 국	5,648,767(37.9)
2	일 본	10,554,119(20.3)	미 국	6,601,223(17.8)	일 본	2,752,802(18.5)
3	독 일	4,356,138(8.4)	독 일	4,093,685(11.0)	캐 나 다	1,105,981(7.4)
4	프 랑 스	3,558,438(6.8)	프 랑 스	3,175,213(8.6)	중 국	1,090,900(7.3)
5	캐 나 다	2,321,811(4.5)	스 페 인	1,821,696(4.9)	대한민국	505,768(3.4)
6	대한민국	2,311,663(4.4)	대한민국	1,805,895(4.9)	프 랑 스	383,225(2.6)
7	스 페 인	2,142,262(4.1)	영 국	1,466,823(4.0)	브 라 질	333,654(2.2)
8	영 국	1,694,638(3.3)	이탈리아	1,340,878(3.6)	스 페 인	320,566(2.1)
9	브 라 질	1,582,919(3.0)	브 라 질	1,249,265(3.4)	인도네시아	283,122(1.9)
10	이탈리아	1,534,469(3.0)	캐 나 다	1,215,830(3.3)	타 이	263,537(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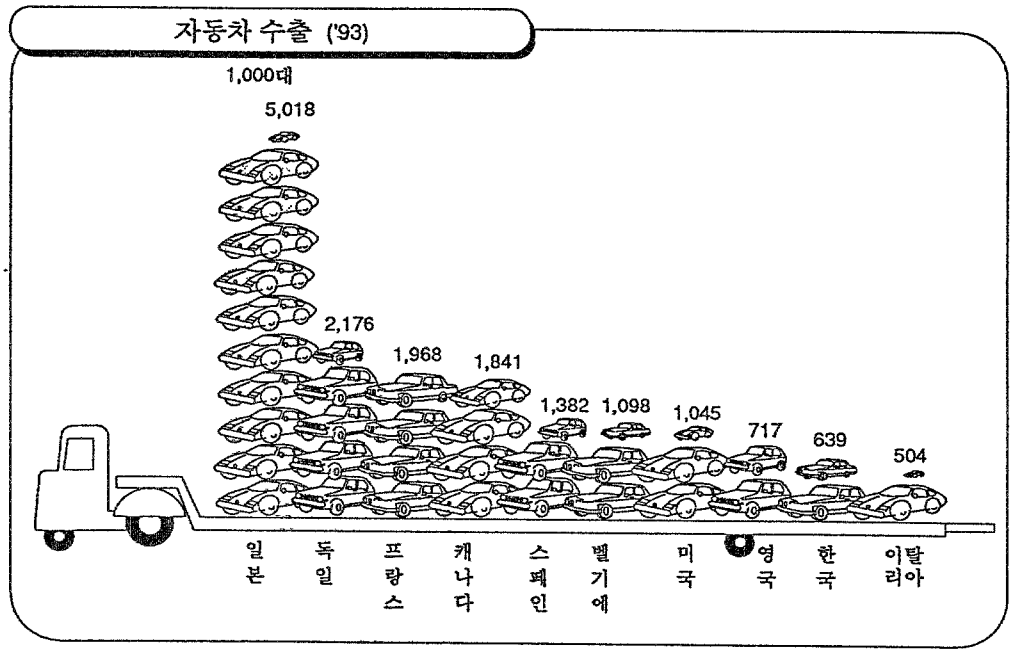
자동차 수출은 세계 9위, 승용차 8위, 상용차는 10위

○ 우리나라 <u>자동차 수출량</u>(신차기준)은 '93년 현재 638.6천대로 세계 9위 수준이며 그 중 승용차는 572.4천대로 세계 8위, 상용차는 66.2천대로 세계 10위이다. 그러나 일본과 비교할 때 자동차 총 수출은 일본의 12.7%, 승용차는 14.6%, 상용차는 6.0%수준에 불과하다.

< 자동차 수출 실적(1993) >

(대)

	계		승용차		상용차	
1	일 본	5,017,760	일 본	3,910,604	일 본	1,107,156
2	독 일	2,176,136	독 일	2,056,613	캐 나 다	619,054
3	프 랑 스	1,967,857	프 랑 스	1,815,668	스 페 인	194,539
4	캐 나 다	1,840,554	캐 나 다	1,221,500	미 국	181,111
5	스 페 인	1,381,993	스 페 인	1,187,454	프 랑 스	152,189
6	미 국	1,045,349	벨 기 에	1,033,547	독 일	119,523
7	벨 기 에	1,097,884	미 국	864,238	이탈리아	100,269
8	영 국	717,116	대한민국	572,402	브 라 질	81,915
9	대한민국	638,557	영 국	561,351	영 국	71,622
10	이탈리아	504,005	이탈리아	403,736	대한민국	66,155



선박 건조량 세계 2위, 그러나 일본의 절반이하 수준

○ '94년 현재 우리나라의 **선박 건조량**은 118척 4,086천G/T로 세계 선박건조실적 18,966G/T의 21.5%를 차지해 일본(597척, 8,604천G/T)에 이어 세계 2위를 차지하고 있으나 일본의 건조량에 비해 47.5%(G/T기준)에 지나지 않는다.
'94년도 **선박 수주량**도 144척 5,733천G/T로 세계 총 수주량의 21.9%를 차지해 세계 2위를 기록하고 있으나, 이 역시 일본(613척,11,940G/T)의 48.0%(G/T기준)에 지나지 않는다. '93년 한때 선박 수주실적이 일본을 능가(한국 8,317천G/T,

일본 7,534천G/T)한 때도 있었으나, '94년 들어 원래의 수준으로 되돌아가고 말았다.

< 선박 건조·수주 실적(1994) >

(천G/T)

건 조			수 주		
	세 계	18,966(100 0)		세 계	26,140(100.0)
1	일 본	8,604(45.4)	1	일 본	11,940(45.7)
2	대한민국	4,086(21.5)	2	대한민국	5,733(21.9)
3	독 일	1,003(5.3)	3	독 일	1,078(4.1)
4	중 국	700(3 7)	4	대 만	975(3 7)
5	덴 마 크	653(3 4)	5	폴 란 드	949(3.6)
6	대 만	612(3.2)	6	중 국	781(3.0)
7	폴 란 드	526(2 8)	7	스 페 인	539(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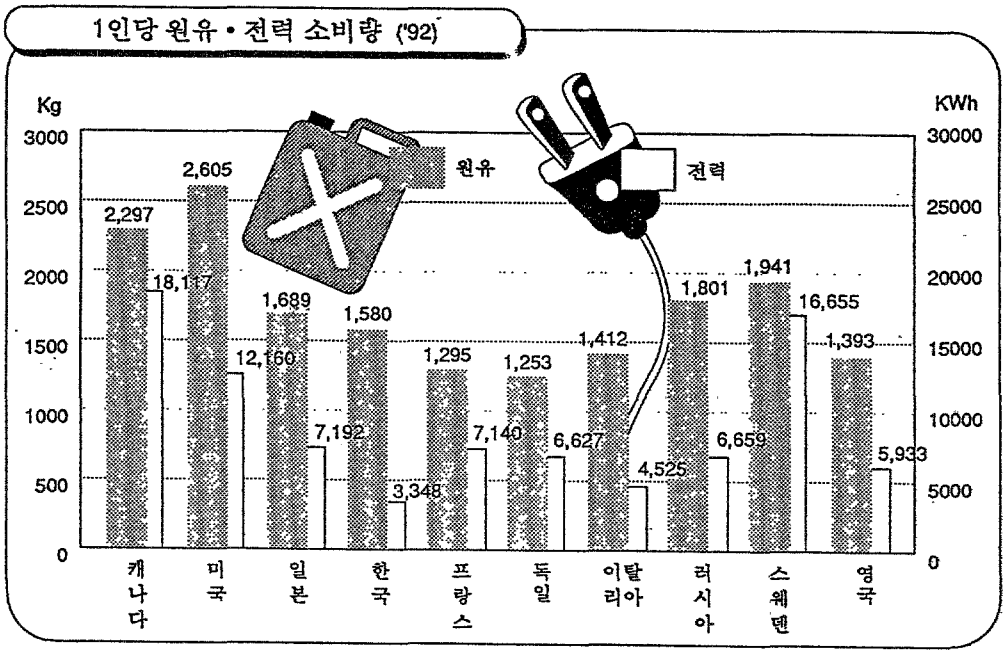
7. 에너지

1인당 에너지 소비량은 선진국 수준에 크게 못미쳐

○ '92년 현재 우리나라의 **1차에너지 생산량**은 21,457MTOE로 세계 에너지 총 생산량의 0.3%수준에 해당한다(미국은 세계 총 에너지 생산량의 20.0%, 일본은 0.9%수준). **1인당 에너지 소비량**은 '92년 현재 2,231kg으로 미국(7,516kg), 일본(3,314kg), 독일(4,123kg), 프랑스(3,803kg), 영국(3,780kg)등 선진경제국들의 소비수준과는 큰 격차가 있다.

1인당 원유소비는 많은 편, 그러나 가스 소비량은 선진제국에 크게 미달

○ 국가마다 에너지원별 소비형태의 특징이 달라 일률적으로 비교할 수는 없으나, 우리나라의 **1인당 원유소비량**은 '92년 현재 1,580kg으로 비교적 다소비 국가에 속한다. **1인당 전력소비량**은 3,348kWh, **1인당 천연가스 소비량**은 4,343백만주울(Joules:0.24cal)로 선진경제국들과는 상당한 거리가 있다.



< 에너지 소비량(1992) >

	1인당에너지소비 (kg)	1인당원유소비 (kg)	1인당석탄소비 (kg)	1인당전력소비 (kWh)	1인당천연가스소비 (백만Joules)
대한민국	2,231	1,580	912	3,348	4,343
일 본	3,314	1,689	938	7,192	17,667
싱가포르	5,952	17,448	0	6,336	-
미 국	7,516	2,605	2,850	12,160	84,865
영 국	3,780	1,393	1,734	5,933	40,344
프 랑 스	3,803	1,295	473	7,140	22,122
독 일	4,123	1,253	1,022	6,627	32,734
네덜란드	4,985	3,539	799	5,666	102,172

원유 정제능력 세계 11위, 원유 수입량은 세계 6위

○ 우리나라의 **원유 정제능력**은 '92년 현재 83.5백만톤으로 세계 총 정제능력 3,792.1백만톤의 2.2%에 해당하고 세계 11위의 능력을 갖고 있다.
원유 수입량은 '92년 현재 69.6백만톤으로 세계 6위의 원유도입국이다.
(각국원유도입량 : 미국 306.4, 일본 208.3, 독일 99.1, 이탈리아 78.0, 프랑스 71.0백만톤)

총 발전량은 세계 17위, 원자력 발전량은 세계 10위

○ '92년 현재 우리나라의 **발전량**은 1,309.6억kWh로 세계 총 발전량의 1.1%를 차지하여 세계 17위이다. 화력 발전량은 세계 총 화력 발전량의 0.9%, 수력 발전량은 세계 총 수력 발전량의 0.2%를 차지하고 있고, 원자력 발전량은 세계 총 원자력 발전량의 2.7%를 차지하여 세계 10위이다.

< 발전량 >

(백만kWh)

		계	화력	수력	원자력	지열
	세 계	12,026,747	7,698,455	2,202,983	2,083,211	42,098
1	미 국	3,074,504	2,187,068(1)	248,912	618,339(1)	19,685
2	러 시 아	1,008,450	716,201(2)	172,594	119,626(5)	29
3	일 본	895,336	580,656(4)	89,616	223,259(3)	1,805
4	중 국	753,940	621,470(3)	132,470	-	-
5	독 일	537,134	357,176(5)	21,115	158,804(4)	39
6	캐 나 다	520,857	123,760(12)	316,484	80,580(6)	33
7	프 랑 스	462,263	51,296(20)	72,522	338,445(2)	-
8	인 도	327,913	251,285(6)	69,848	6,748(22)	32
9	영 국	326,879	240,168(7)	7,217	78,468(7)	1,026
18	대한민국	130,963	69,570(17)	4,863	56,530(10)	-

8. 운수 · 통신 · 관광

해운화물 선복량 세계 15위, 국제항공노선 여객수송인원은 세계 12위

○ '92년 현재 우리나라 등록상선의 총톤수를 나타내는 **해운화물 선복량**은 7,407천GRT(Gross Registered Tonnage)로 세계 화물선복량(445,169천GRT)의 1.7%를 차지하여 세계 15위 수준이다.

○ '92년 현재 국내노선을 제외한 **국제항공노선 여객수송인원**은 5,121천명으로 세계 총 승객수(298,986천명)의 1.7%를 차지하여 승객수만으로는 세계 12위 수준이고, 승객수에 여행거리를 승한 **인-km기준**으로는 세계의 1.9% 수준으로 11위의 위치에 있다.

< 해운화물 선복량 및 국제항공 여객수송(1992)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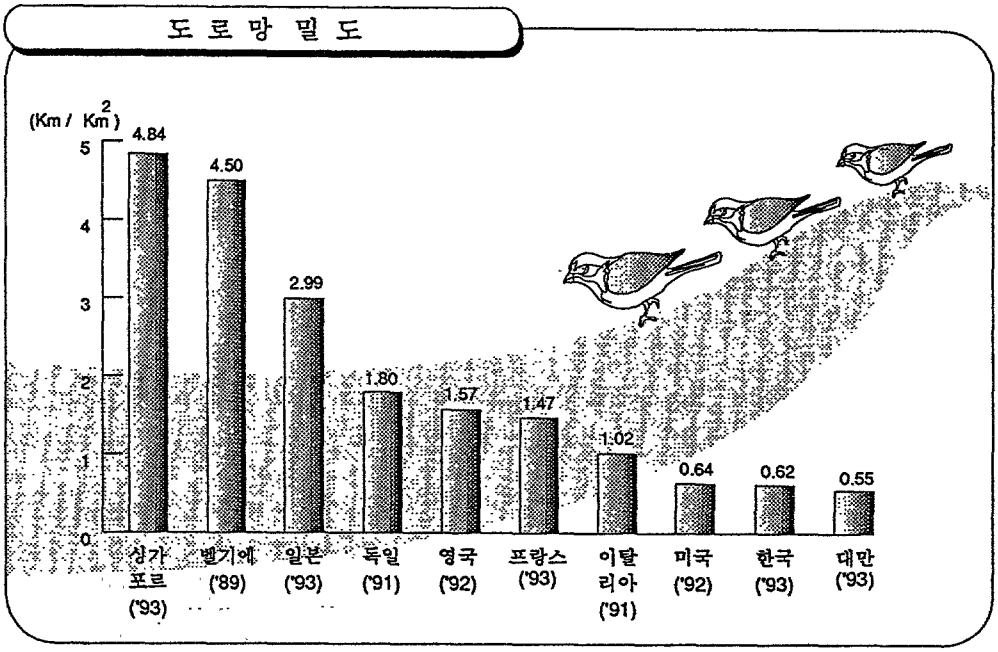
해운화물 선복량(천GRT)			국제항공여객수송(승객수:천명)			국제항공 여객수송(인-km:천명/백만km)		
	세 계	445,169(100.0)		세 계	298,986(100.0)		세 계	981,439(100.0)
1	라이베리아	55,918(12 6)	1	미 국	49,180(16.4)	1	미 국	214,628(21.9)
2	파 나 마	52,486(11.8)	2	영 국	35,836(12.0)	2	영 국	110,462(11.3)
3	그 리 스	25,739(5.8)	3	독 일	16,053(5.4)	3	일 본	55,324(5.6)
4	일 본	25,102(5.6)	4	프 랑 스	12,602(4.2)	4	독 일	48,033(4.9)
5	노르웨이	22,231(5.0)	5	대 만	12,117(4.1)	5	프 랑 스	37,265(3.8)
6	바 하 마	20,616(4.6)	6	일 본	11,589(3.9)	6	네덜란드	32,562(3.3)
7	키프로스	20,487(4.6)	7	네덜란드	9,689(3 2)	7	대 만	31,675(3 2)
8	러 시 아	16,302(3 7)	8	이탈리아	8,906(3 0)	8	호 주	30,568(3.1)
9	미 국	14,448(3 2)	9	스 페 인	6,657(2 2)	9	캐 나 다	24,160(2.5)
15	대한민국	7,407(1.7)	12	대한민국	5,121(1.7)	11	대한민국	18,874(1.9)

도로포장률 세계 24위, 도로망밀도는 29위 수준

○ '93년 현재 우리나라 **도로포장률**은 84.7%에 이르러 세계 24위 수준이고 ㎢당 도로길이(km)를 나타내는 **도로망밀도**는 0.62km로 세계 29위 수준이다.

< 도로포장률 및 도로망 밀도 >

포 장 률(%)			도 로 망 밀 도(km/㎢)		
1	영 국	100 0	1	과테말라	11.60
1	덴 마 크	100.0	2	케 냐	10.70
1	이탈리아	100.0	3	싱가포르	4.84
1	프 랑 스	100 0	4	벨 기 에	4.50
43	미 국	58.8	5	바 레 인	4 40
34	일 본	72 1	6	일 본	2 99
22	대 만	87 4	7	네덜란드	2.80
55	호 주	35 0	8	룩셈부르크	1.98
24	대한민국	84 7	29	대한민국	0 62



선진경제국에 비해 우편물 이용은 매우 낮은 수준

○ <u>1개 우체국당 관할면적</u>은 '93년 현재 30.0㎢로 관할면적이 좁은 순서로 쳐서 세계 45위수준이다. 일본은 15.5㎢로 세계 25위, 홍콩은 8.7㎢로 16위, 싱가포르 0.6㎢로 2위, 미국은 187.2㎢로 96위 수준이다.
<u>1개 우체국당 관할인구</u>는 '93년 현재 13,310명으로 관할인구가 적은 순서로 쳐서 세계 111위 수준으로 열악하다. 일본은 5,130명(69위), 미국은 5,146명(70위), 프랑스는 3,416명(49위), 영국은 2.923명(38위). 이탈리아는 3,970명(57위) 수준이다.
<u>인구 1인당 우편물이용통수</u>는 연간 67.8통으로 많은 순으로 따져 세계 47위 수준이며, 일본은 192.6통으로 26위, 미국은 659.2통으로 3위, 프랑스는 436.6통으로 7위, 영국은 287.9통으로 17위, 덴마크는 342.6통으로 14위이다.
선진경제국일수록 또 유럽지역일수록 우편이용도가 높고, 저개발국이나 아시아 지역에서는 상대적으로 낮다.

인구 100명당 전화회선수 세계 34위, 100가구당 회선수로는 21위

○ **인구 100명당 전화회선수**는 '92년 현재 35.7회선으로 세계 34위 수준이다. 일본은 46.7회선(20위), 미국은 56.5회선(8위), 프랑스 52.1회선(14위), 영국은 45.3회선(21위), 스위스는 61.3회선(5위), 독일은 44.0회선(24위) 등으로 전화 보급률이 높다.

100가구당 전화회선수는 98.1회선으로 세계 21위 수준이며(일본은 88.0회선, 홍콩 97.7회선, 싱가포르 114.9회선, 스웨덴 120.2회선, 미국 102.2회선, 영국 104.0회선, 대만 100.7회선), **인구 천명당 공중전화회선수**는 6.2회선으로 세계 9위 수준(일본 6.7회선, 이탈리아 7.0회선, 캐나다 6.3회선, 싱가포르 10.1회선, 미국 7.2회선, 스위스 8.0회선, 대만 5.4회선)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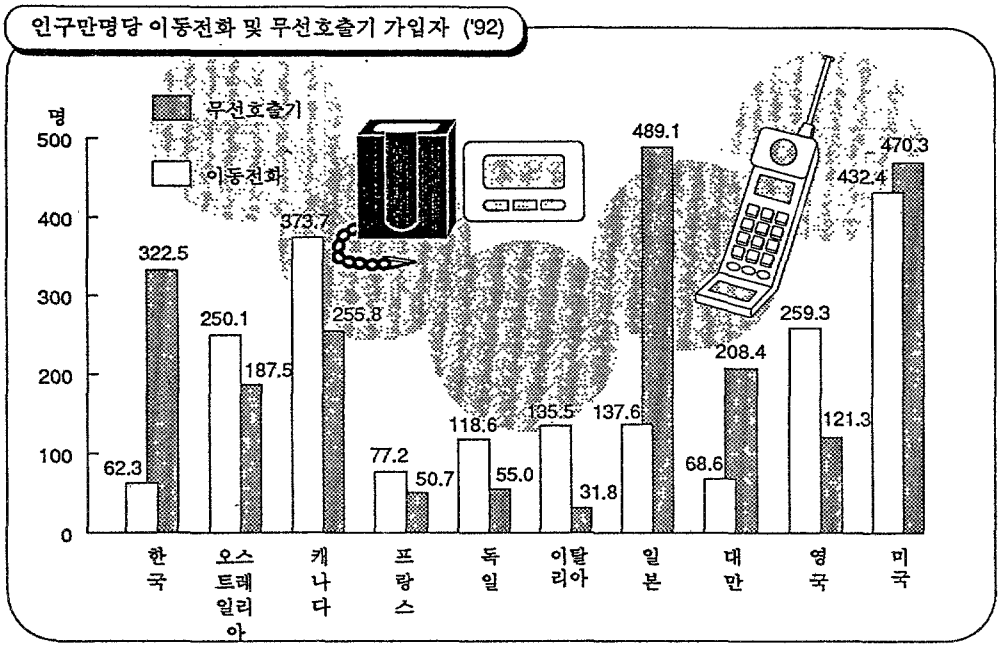
인구 만명당 이동전화가입자수는 세계 38위, 무선호출기는 11위

○ **인구만명당 이동전화 가입자수**는 '92년 현재 62.3명으로 세계 38위 수준이고, **인구만명당 무선호출기 가입자수**는 '92년 현재 332.5명으로 세계 11위 수준이며, **인구1인당 국제통화발신량**은 '92년 현재 7.0분으로 세계 82위 수준이다

< 우편·전화이용(1992) >

	인구1인당 우편물이용 (통)	인구100명당 전화회선 (회선)	인구만명당 이동전화가입자 (명)	인구만명당 무선호출기가입자 (명)	인구1인당 국제통화발신 (분)
대한민국	67.8(47)	35 7(34)	62 3	332.5	7.0
일 본	192.6(26)	46.7(20)	137.6	489.1	10 5
싱가포르	178 2(27)	41 6(29)	433.4	1,894.9	142 3
홍 콩	160.8(29)	48.6(17)	402.2	1,804.1	196.0
미 국	659.2(3)	56.5(8)	432 4	470 3	39.6
영 국	287 9(17)	45.3(21)	259 3	121.3	49.4
프 랑 스	436.6(7)	52.1(14)	77 2	50.7	40.4
독 일	229.2(23)	44.0(24)	118.6	55.0	50.7
이탈리아	118.5(35)	41.0(30)	135.5	31.8	25.5
스 위 스	590.6(4)	61.3(5)	323.8	65.6	223.2
대 만	…	35.8(33)	68.6	208.4	17.7

주 : 우편물 이용자료는 1993년 자료임



○ **전기통신운영에서 얻는 소득**은 '92년 현재 6,660백만불로 GDP의 2.2% 수준으로서 절대액의 크기는 다르나 GDP에 대한 비율로서는 뉴질랜드 3.5%, 싱가포르 3.3%, 영국 2.3%, 미국 2.1%, 스위스 2.2%, 스웨덴 2.2%, 홍콩 2.9%등과 함께 비교적 높은 그룹에 속한다. 일본은 1.5%, 이탈리아는 1.4%, 대만은 2.0%, 독일은 1.8%를 나타내고 있다.

한편 **전기통신에 투자하는 투자비율**은 '92년 현재 국내 총고정자본 형성액의 2.9%를 차지해 뉴질랜드(5.5%), 스페인(4.7%), 독일(4.3%), 이탈리아(3.8%), 호주(3.8%), 스위스(3.8%) 등에 비해서는 낮으나, 영국(2.7%), 미국(2.4%), 싱가포르(2.0%), 일본(1.7%), 홍콩(1.2%) 등에 비해서는 높은 편이다.

인터넷 가입 통신망수는 대만에도 못따라

○ '94년 8월 현재 국제적 컴퓨터 통신망인 **「인터넷」에 가입한 우리나라 통신망수**는 117개이며, 이는 미국(12,900), 캐나다(1,028), 독일(822), 프랑스(780), 영국(748), 일본(696), 호주(482) 등 선진제국은 물론이고, 대만(171)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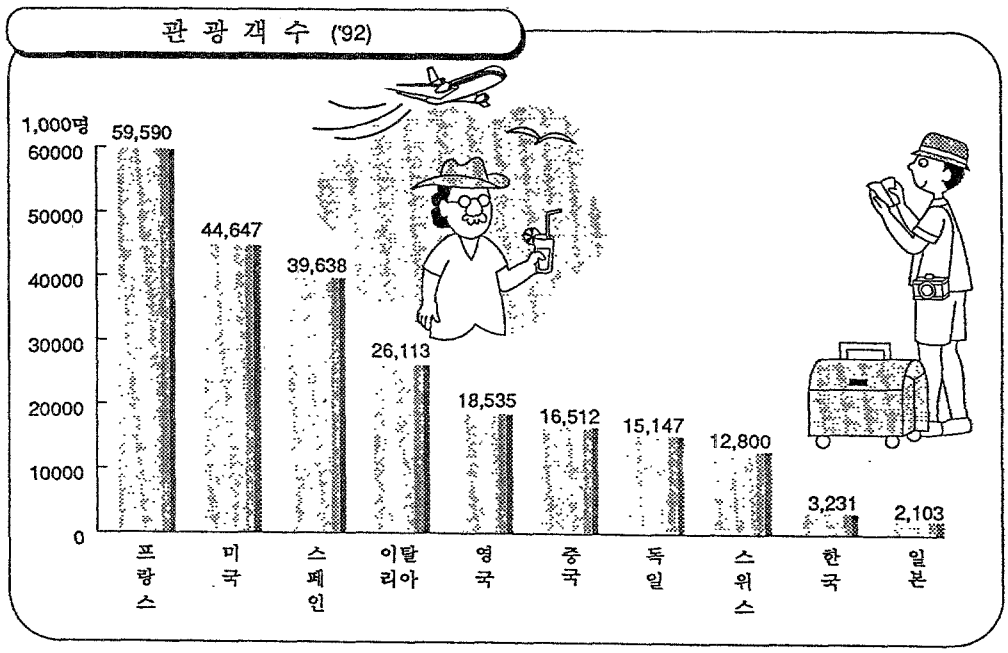
미국 NSF 네트워크(National Science Foundation Backbone Network)로의 착신트래픽(접속량)은 '94년 8월의 경우 21.6「기가 바이트(Giga bite:10^9bite)」로 세계 14위수준이고, NSF Net에서 발신트래픽은 62.3「기가 바이트」로 세계 12위 수준이다.

관광수입액 규모 세계 22위,
국민 1인당 해외관광 경비지출은 세계 31위 수준

○ 우리나라에 오는 **외국여행객수**는 '92년 현재 3,231천명으로 그 중 동아시아·동남아시아 및 오세아니아로부터 오는 여행객이 66.8%, 아메리카에서 오는 여행객이 11.6%, 유럽에서 오는 여행객이 8.7% 등 순이다. 이웃 일본의 경우 총 3,582천명 중 동아시아·동남아시아 및 오세아니아로부터 62.7%, 아메리카 20.0%, 유럽 15.2% 등으로 지역적인 관계로 인해 아시아 등지의 여행객이 절대 다수이긴 하지만 우리나라보다는 좀 더 다양화된 양상을 보이고 있다. 중국의 경우는 총 4,006천명중 동아시아·동남아시아 및 오세아니아로 부터 46.5%, 아메리카 12.4%, 유럽 37.9%의 분포를 나타내고 있다.

○ 우리나라의 **관광수입액**은 '92년 현재 3,272백만불로 수입액규모로는 세계 22위 수준이고, **여행객 1인당 수입액**은 1,013불이다. 일본의 경우 관광수입은 3,588백만불로 세계 21위이며 여행객 1인당 수입액은 1,706불이다. 세계 최대의 관광수입을 올리고 있는 미국의 경우는 관광객수의 많기 순으로는 프랑스에 이어 세계 2위지만, 관광수입면에서는 '92년 현재 53,861백만불, 여행객 1인당으로는 1,206불의 수입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 한편 우리나라의 관광지출액은 '92년 현재 3,794백만불로 국민 1인당 연간 168불을 지출한 셈이 되어 세계 31위(국민 1인당지출규모)이다. 일본의 경우는 총 26,837백만불 지출에 국민 1인당 216불 규모로 세계 28위 수준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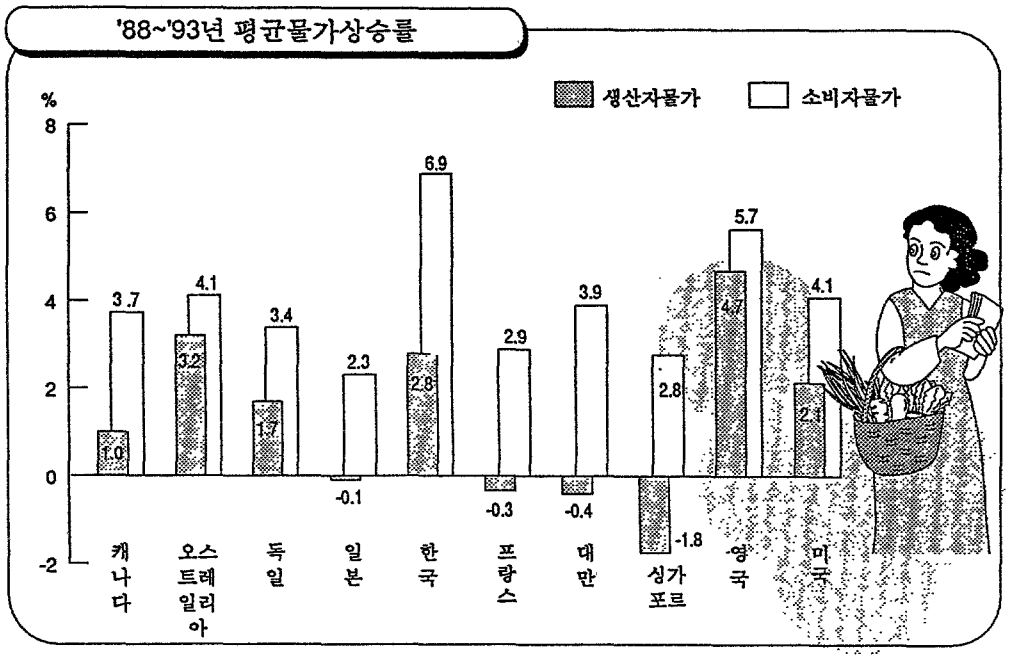


9. 물가 · 가계

소비자물가 상승률, 선진국은 물론, 아시아 경쟁국들에 비해서도 높아

○ '88~'93년 5년간 **생산자물가 연평균 상승률**은 2.79%로 영국(4.70%), 스웨덴(4.03%) 등을 제외한 다른 선진경제국들이 0.62%(벨기에)~2.53%(핀란드)를 보이고 있는데 비해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아시아의 경쟁상대국들인 일본(-0.10%), 싱가포르(-1.75%), 대만(-0.41%)이 마이너스 상승을 보인 것과는 대조적이다.

○ 역시 '88~'93년중 **소비자물가 연평균 상승률**은 6.90%로 선진경제국들의 2.31%(일본)~5.72%(이탈리아)보다 매우 높은 편이다. 대만(3.91%), 싱가포르(2.78%), 말레이시아(3.61%), 타이(4.93%) 등에 비해서도 상승률이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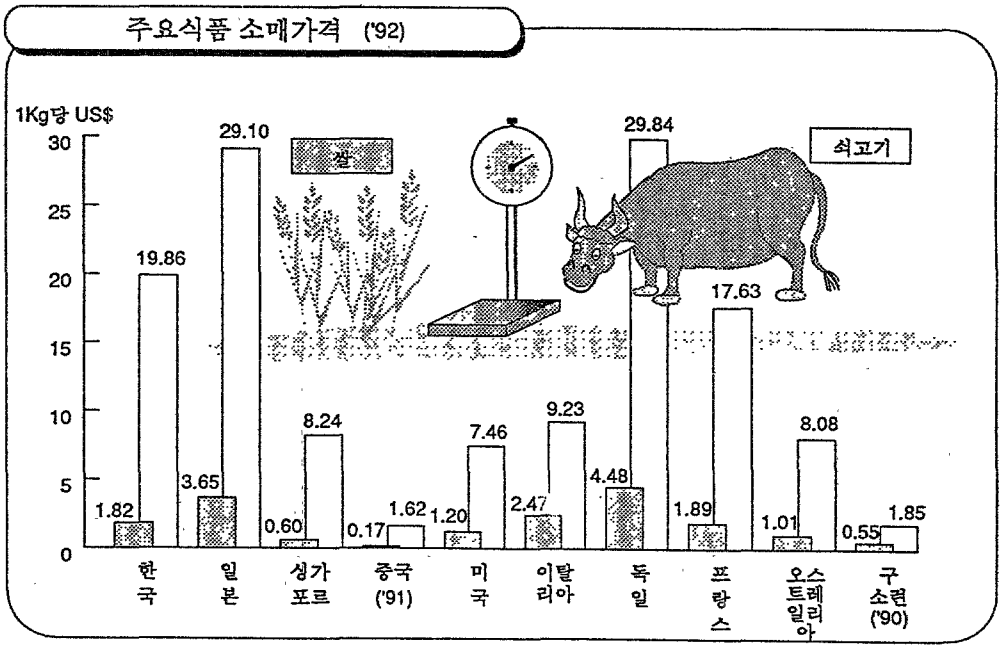
쌀값은 중국, 인도네시아, 타이 등보다 4~10배, 쇠고기값은 중국보다 12배 높은 편

○ '92년 현재 우리나라 **쌀 1kg의 소매가격**은 U.S$로 환산하여 1.82불로 일본(3.65불)에 비해서는 낮으나, 아시아의 주요 쌀 생산국인 중국(0.17불), 인도네시아(0.30불), 타이(0.40불), 필리핀(0.42불), 말레이시아(0.42불) 등보다는 4배~10배가량 높으며, 미국(1.20불), 멕시코(1.55불), 아르헨티나(1.60불), 호주(1.01불), 뉴질랜드(0.90불)보다도 상당히 높은 편이다.

쇠고기 1kg의 소매가격은 19.86불정도로 역시 일본(29.10불)에 비해서는 낮으나, 중국(1.62불), 인도네시아(3.85불), 싱가포르(8.24불), 말레이시아(5.13불) 등 아시아 국가들보다는 2배~12배 높은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미국(7.46불), 아르헨티나(3.66불), 호주(8.08불), 뉴질랜드(7.19불) 등 보다도 2배~5배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우리나라보다도 비싼 나라로는 일본, 이란, 독일, 노르웨이, 핀란드 등에 불과하다.

양파 1kg의 소매가격은 0.50불로 중국(0.25불)보다는 높으나, 일본(1.63불), 미국(0.88불), 영국(0.90불), 이탈리아(1.42불), 독일(1.08불), 프랑스(1.05불)보다는 매우 싼 편이다.

맥주 0.33ℓ의 소매가격은 0.73불로 일본(1.24불), 싱가포르(1.44불), 타이(1.79불), 말레이시아(1.23불) 등 보다는 낮으나, 독일(0.45불), 프랑스(0.53불), 이탈리아(0.56불), 벨기에(0.68불) 등 보다는 높은 편이다.



< 물 가 >

	생산자물가상승 ('88~'93, %)	소비자물가상승 ('88~'93, %)	쌀(1kg) 소매가($)	쇠고기(1kg) 소매가($)	양파(1kg) 소매가($)
대한민국	279	690	1.82	1986	0.50
일 본	-010	231	3.65	2910	163
싱가포르	-1.75	278	0.60	8.24	054
중 국	·	950	0.17	1.62	025
미 국	214	409	1.20	746	088
영 국	470	565	·	763	090
독 일	170	3.39	4.48	29.84	108
이탈리아	525	5.72	2.47	9.23	1.42
호 주	321	4.12	1.01	808	068

엥겔계수 29.5%로 선진제국은 물론, 아시아 경쟁국들보다 높아

○ '93년 현재 우리나라의 가계 최종소비지출 구성(국내총생산기준)을 보면 **식료품지출비중**(엥겔계수)은 29.5%로 선진제국(일본 20.1%, 독일 21.4%, 영국 21.9%, 프랑스 19.0%, 미국 12.3%)보다 훨씬 높고, 인접 대만(28.7%), 싱가포르(18.7%), 홍콩(17.7%)보다도 높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의류와 임차료 및 수도·광열비 지출은 선진제국에 비해 대체적으로 낮은 수준이고, 가계시설·운영비는 비슷한 수준이다. 의료비지출도 아시아에서는 비교적 높은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다.

교통·통신비지출은 13.0%로 일본(9.8%), 홍콩(9.6%)보다는 높으나, 이웃 대만(13.3%), 싱가포르(13.8%)를 비롯해 독일(18.0%), 영국(17.2%),프랑스(15.9%), 미국(13.6%) 등 선진제국에 비하여는 대체적으로 낮은 수준이다.

교육·문화·오락 등의 지출은 12.4%로 대만(17.1%), 싱가포르(16.0%)보다는 낮으나, 일본(10.3%), 독일(10.1%), 영국(9.9%), 프랑스(7.5%), 미국(10.0%) 등 선진국에 비하여는 높은 수준이다.

< 가계 최종소비지출 구성(1992)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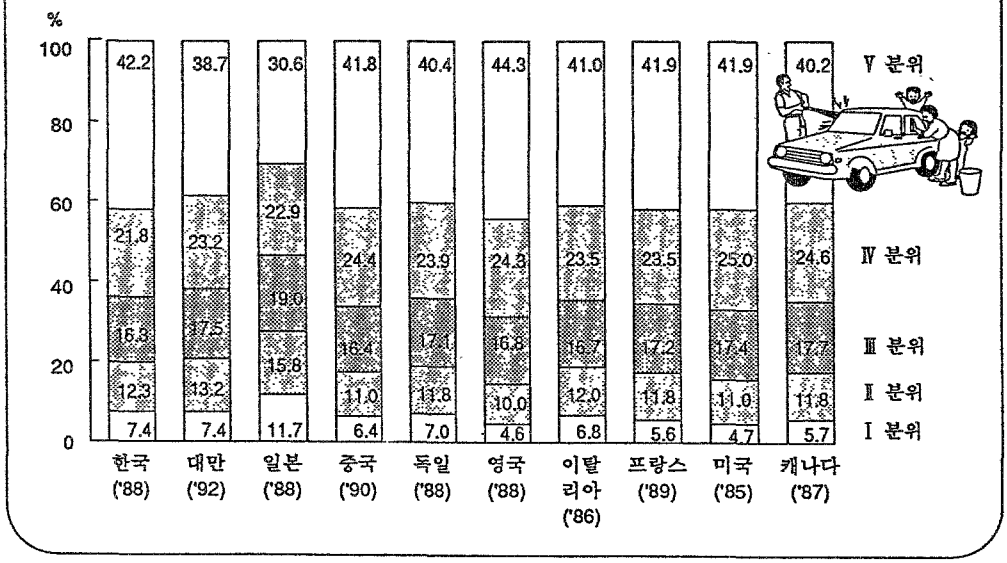
	식료품	의 료	교통·통신	교육·문화·오락
대한민국('93)	295	6.5	130	124
일 본	201	110	98	103
대 만	287	53	133	17.1
싱가포르	18.7	4.5	138	160
홍 콩	17.7	59	96	85
미 국	123	173	136	100
영 국	21.9	1.6	172	99
독 일	21.4	34	18.0	101
프 랑 스	190	97	15.9	7.5

소득 불균등정도는 일본, 대만에 비해 높아

○ '88년 현재 우리나라 가구의 **5분위별 소득분포**는 소득이 가장 높은 제5분위(소득상위 20%) 가구의 소득비중이 전체 가구소득의 42.2%에 이르러 제1분위(소득하위 20%) 가구소득의 5.7배를 보여 일본의 2.6배, 대만의 5.2배보다도 높다.

지니계수(Gini's Coefficient : 로렌츠곡선상의 완전균등면적에 대한 불평등면적의 비율로 0(완전 균등분배)에서 1(완전 불균등분배)까지로 나타내며 대체적으로 0.5이상이면 높은 불균등분배, 0.4이하면 낮은 불균등분배, 0.4~0.5이면 중간 불균등 분배라함)에 의한 소득집중도는 0.3355로 일본(0.2879), 대만(0.3120), 독일(0.3005), 스페인(0.3079), 이탈리아(0.3196), 영국(0.3236), 프랑스(0.3219), 캐나다(0.3272) 등에 비해서는 불균등도가 높으나, 미국(0.3536), 스위스(0.3568) 홍콩(0.4330), 호주(0.3572) 등보다는 낮은 편이다.

5분위별 소득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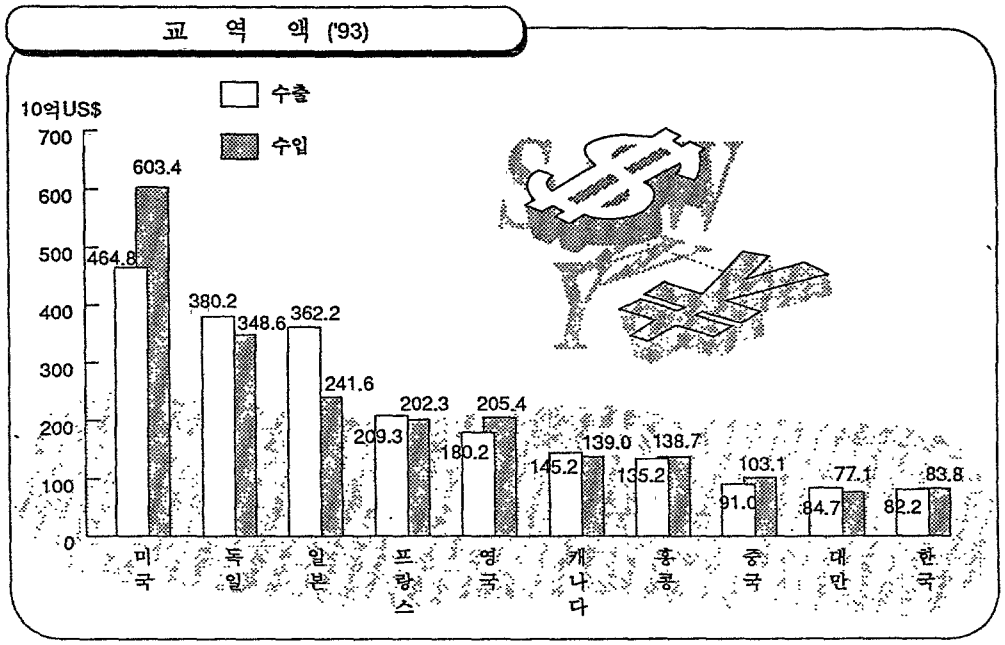
교역액규모 세계 12위, 국민 1인당 교역액은 23위(수출 19위, 수입 26위)

○ '93년 현재 우리나라의 **교역액**규모는 1,660억불(수출 822억불, 수입 838억불)로 세계 12위 교역국이다. 수출·수입액 규모는 각각 세계 13위 수준이다.
국민 1인당 교역액으로 따지면 세계 23위 수준(수출은 19위, 수입은 26위 수준)이다.

< 교역액 규모(1993) >

	총 교역액 규모(백만$)			1인당 교역액($)		
	계	수출	수입	계	수출	수입
대한민국	166,036(12)	82,236(13)	83,800(13)	3,769	1,867	1,902
일 본	603,868(3)	362,244(3)	241,624(3)	4,833	2,899	1,934
대 만	161,777(13)	84,678(12)	77,099(15)	7,724	4,043	3,681
홍 콩	273,906(8)	135,248(9)	138,658(8)	46,861	23,139	23,722
싱가포르	159,246(14)	74,012(14)	85,234(12)	56,914	26,452	30,462
중 국	194,058(11)	90,970(11)	103,088(11)	161	75	86
미 국	1,068,211(1)	464,773(1)	603,438(1)	4,143	1,803	2,340
프 랑 스	411,620(4)	209,349(4)	202,271(5)	7,174	3,649	3,525
독 일	728,785(2)	380,154(2)	348,631(2)	9,041	4,716	4,325
영 국	385,570(5)	180,180(5)	205,390(4)	6,668	3,116	3,552

주 : ( )내는 순위



우리나라 수출은 미국·캐나다가 26%, 일본이 15% 차지

○ 우리나라의 **지역별 수출구조**를 보면 수출액 크기순으로 따져 '92년 현재 미국·캐나다, 동남아, 일본, 유럽의 순이다. '85년에 비해 미국·캐나다의 의존비율이 크게 줄어든 대신 동남아시아와 아시아 사회주의 국가에 대한 비중이 높아졌다. 일본의 경우는 미국·캐나다 비중이 줄어든 대신 동남아, 유럽 비중이 높아졌고, 대만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우리나라의 유럽에 대한 수출비중은 총수출액의 13.6%에 그쳐 구성비만으로는 중국을 제외한 동남아시아 주요 수출국가 중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다.

< 목적지별 수출구조(1992) >

(%)

	유럽	미국·캐나다	일본	아시아사회주의국가	동남아시아
대한민국	13.6(13.8)	25.9(39 7)	15.2(15.0)	4 1(0 0)	23.5(13.7)
일 본	21.2(14.2)	30.3(40 2)	-(-)	3.2(7.3)	30.7(19.0)
대 만	16.8(9.7)	31.0(51 5)	10 9(11 3)	0.3(0.0)	31.4(15.9)
싱가포르	16.6(11.5)	21.9(21.9)	7 6(9 4)	1.8(2.1)	40.7(37.4)
홍 콩	18.1(14.9)	24.8(33.2)	5.2(4.2)	30.5(26 4)	12.9(13 1)
타 이	23.1(21.0)	22.8(21.0)	18 1(13.4)	1.2(4.0)	21.4(25.0)
인도네시아	14.7(6.4)	13.9(22.0)	31.8(46.2)	4.7(0 6)	29.8(18.7)
필 리 핀	19.4(17 0)	40.9(37.5)	17.8(19 0)	1.5(1.7)	15.0(19.5)
중 국	9.8(9 3)	10.9(9.4)	13 8(22.2)	0.9(0.9)	55 1(39.2)
말레이시아	15.6(15.1)	19.5(13.7)	13.3(23.8)	2.0(1.1)	42.6(39.8)

주 : ( )내는 1985년 구조

우리나라 수입 역시 미국·캐나다와 일본에서 각각 24% 차지

○ '92년 현재 **지역별 수입구조**를 보면 미국·캐나다 24.4%, 일본 23.9%, 유럽 13.8%로 미국·캐나다, 유럽지역으로부터의 수입비중이 약간 높아진 대신 일본, 동남아지역은 소폭 감소하였다. 동남아 주요 무역국가 중 일본에의 수입의존도가 높기로는 대만, 타이, 말레이시아 다음이고, 미국·캐나다에 대한 수입의존도가 높기로는 일본에 이어 두번째이다. 동남아국가들에 대한 수입비중은 아시아 주요 국가중 가장 낮은 수준이다.

< 목적지별 수입구조(1992) >

(%)

	유럽	미국·캐나다	일본	OPEC	동남아시아
대한민국	13 8(12 7)	24.4(22 8)	23.9(24.2)	11.8(11.1)	12.2(12 4)
일 본	16 2(8 5)	25 9(24 0)	-(-)	16.7(28.5)	20.6(23.7)
대 만	15.6(12.1)	23 4(25 6)	31.2(27.5)	5.7(16 8)	15.0(10.7)
싱가포르	14 9(13 3)	16.9(15.5)	21.0(17.0)	7.8(12.8)	31.2(26.4)
홍 콩	11 4(13 8)	7 8(9.8)	17.4(23 1)	1.0(0.7)	22.8(22.1)
타 이	17.4(17.9)	12.7(12.6)	29.3(26 5)	3.1(4.9)	20.0(25.9)
인도네시아	23.0(19.8)	15 7(18.7)	22.0(25.8)	3.8(8.7)	28.1(15.2)
필 리 핀	12.6(10.1)	19.7(25.9)	21.2(14.4)	11.2(15.6)	26.1(25.8)
중 국	14.1(17.5)	13 2(15.0)	16.7(14.2)	2.5(2.2)	34.1(38.5)
말레이시아	15.3(17.0)	16 5(16.4)	26.0(23.2)	2.4(5.0)	26.9(30 2)

주 ( )내는 1985년, 대만, 중국은 1990년

주요 수출 상품류는 전자기기가 21%, 섬유·의복이 20%, 운수장비가 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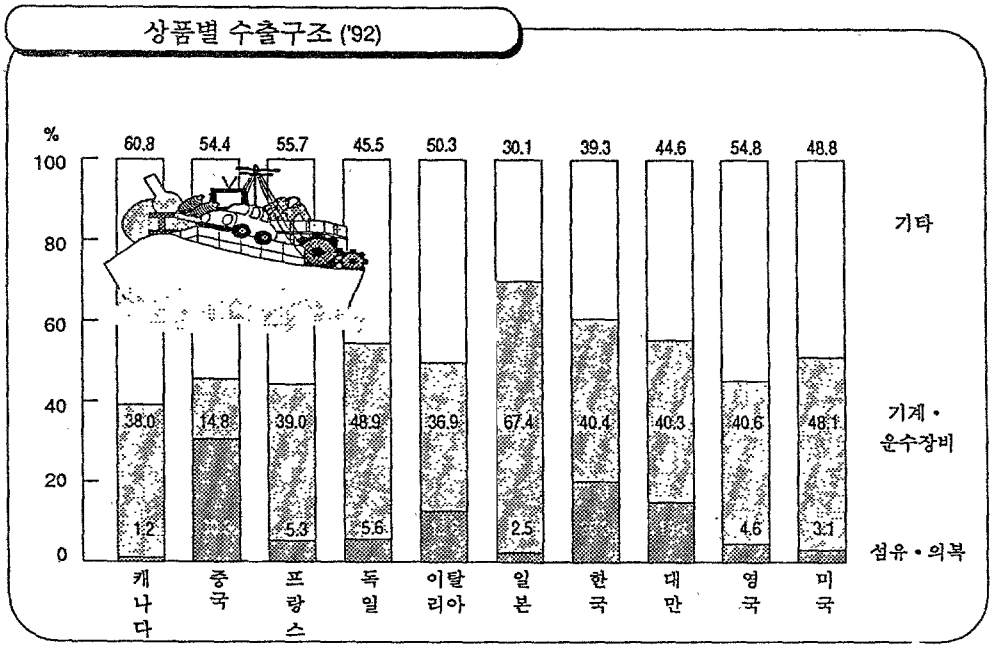
○ '92년 현재 **주요 상품류별 수출구조**를 보면, 전기기계 20.6%, 섬유·의복 20.3%, 운수장비 11.6%로 이들 3개 대분류가 52.5%를 차지하고 있다. 일본,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등 선진경제국들의 주요 수출 상품류는 운수장비, 기계(비전기기계 및 전기기계), 금속 및 금속재료가 높은 비중을 나타내고 있어 대부분 중공업 제품 위주인 반면, 우리나라는 경공업 제품인 섬유·의복류의 수출비중이 중국(30.8%)에 이어 매우 높은 편이다.

< 상품류별 수출구조(1992) >

(%)

	1위		2위		3위		4위	
대한민국	전기기계	20.6(11.9)	섬유·의복	20.3(23.4)	운수장비	11.6(20.7)	금속·금속재료	9.3(11.4)
일 본	운수장비	25.7(27.9)	비전기기계	22.4(16.8)	전기기계	19.3(16.8)	금속·금속재료	6.3(10.5)
대 만	비전기기계	19.0(8.1)	전기기계	16.5(15.5)	섬유·의복	15.1(20.4)	금속·금속재료	7.7(7.2)
중 국	섬유·의복	30.8(…)	전기기계	8.8(…)	금속·금속재료	5.3(…)	비전기기계	3.6(…)
싱가포르	비전기기계	26.7(11.4)	전기기계	22.6(17.7)	석유제품	12.9(26.6)	섬유·의복	4.7(4.0)
말레이시아	전기기계	27.7(15.5)	원 유	10.8(23.1)	비전기기계	6.9(1.7)	섬유·의복	6.0(3.5)
미 국	비전기기계	18.8(20.2)	운수장비	17.7(16.7)	전기기계	11.6(10.3)	금속·금속재료	3.8(2.9)
영 국	비전기기계	18.8(16.2)	운수장비	12.6(8.4)	전기기계	9.2(7.8)	금속·금속재료	6.4(6.2)
독 일	운수장비	20.2(18.4)	비전기기계	19.0(18.5)	전기기계	9.7(8.8)	금속·금속재료	8.1(10.1)
프 랑 스	운수장비	17.6(13.4)	비전기기계	13.2(12.1)	전기기계	8.2(8.0)	금속·금속재료	7.7(9.9)
이탈리아	비전기기계	19.9(17.4)	섬유·의복	12.8(13.4)	운수장비	9.5(7.8)	금속·금속재료	8.1(9.1)

주 : ( )내는 1985년 비율



기계류(비전기기계 및 전기기계)의 수출비중이 '85년에 비해 13.2%「포인트」 높아진 대신 운수장비가 9.1%「포인트」, 섬유 및 의복이 3.1%「포인트」, 금속재료가 2.1%「포인트」 낮아졌다.
일본의 경우 운수장비의 비중이 2.2%「포인트」, 금속재료가 4.2%-「포인트」 낮아진 대신 기계류 비중(41.7%)이 8.1%「포인트」 높아졌다.

주요 수입 상품류는 기계가 31%, 원유 12%

○ 한편 '92년 현재 **주요 상품류별 수입구조**를 보면 기계류 수입비중이 30.7%(비전기기계 17.2%, 전기기계 9.9%)로 '85년 당시에 비해 9.3%「포인트」 높아졌고 원유비중은 11.7%로 6.2%「포인트」 낮아졌다. 기계류, 운수장비, 금속 및 금속재료 등의 수입비중은 개발도상국은 물론, 선진경제국에서도 높은 비중을 보이고 있고, 일본,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등 선진국에서는 특히 경공업제품인 섬유·의복류 수입도 2~4위로 많은 편이다.

< 상품류별 수입구조(1992) >

(%)

	1위		2위		3위		4위	
대한민국	비전기기계	17.2(11.5)	전기기계	13.5(9.9)	원 유	11.7(17.9)	금속·금속재료	7.8(6.4)
일 본	원 유	12.8(26.8)	섬유·의복	7.6(4.7)	비전기기계	6.3(3.7)	전기기계	5.5(3.0)
대 만	전기기계	18.0(12.1)	비전기기계	13.7(10.1)	금속·금속재료	11.2(7.2)	운수장비	8.5(5.6)
중 국	비전기기계	18.6(…)	섬유·의복	12.6(6.4)	전기기계	11.5(…)	금속·금속재료	9.2(21.4
싱가포르	전기기계	21.5(14.6)	비전기기계	17.9(10.7)	원 유	8.8(22.3)	금속·금속재료	6.5(5.4)
말레이시아	전기기계	26.6(21.6)	비전기기계	18.6(14.1)	금속·금속재료	9.7(8.1)	운수장비	9.4(8.1)
미 국	운수장비	15.5(17.8)	비전기기계	14.2(10.6)	전기기계	11.8(9.5)	섬유·의복	7.6(6.0)
영 국	비전기기계	15.4(13.5)	운수장비	12.3(10.1)	전기기계	9.1(8.1)	섬유·의복	7.1(6.8)
독 일	운수장비	13.4(7.3)	비전기기계	12.3(9.0)	섬유·의복	9.5(8.4)	전기기계	8.3(6.3)

주 ·말레이시아는 1991년 자료 ·( )내는 1985년 비율

우리나라의 최대 수출국은 미국(24%), 최대 수입국은 일본(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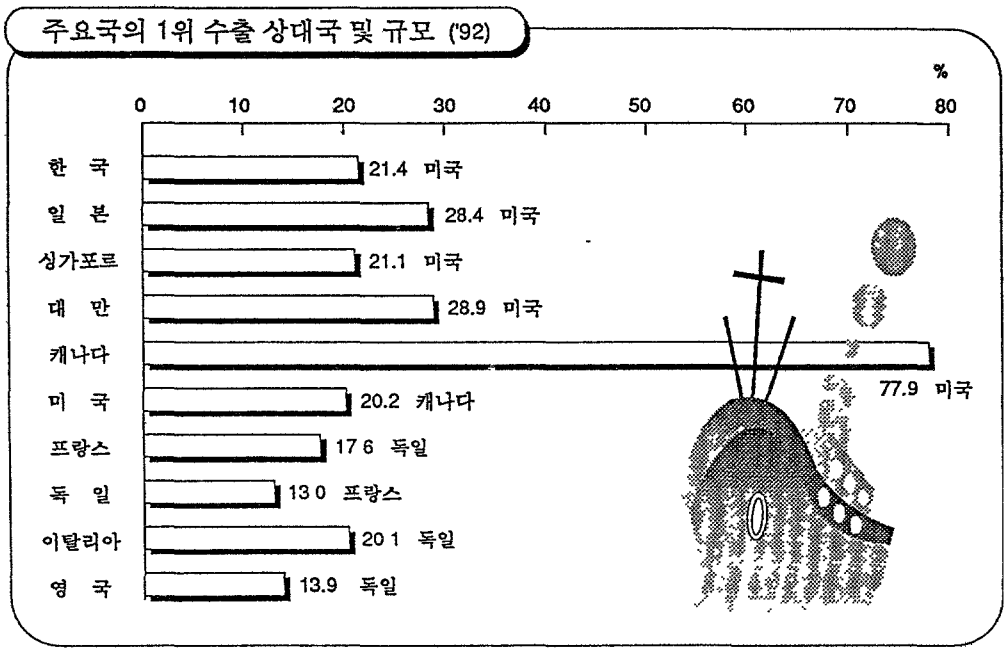
○ '92년 현재 우리나라의 **수출액 크기순 상대국**을 보면 총 수출액의 23.8%를 차지하고 있는 미국이 1위이고, 다음이 일본(15.2%), 홍콩(7.6%), 싱가포르(4.2%), 독일(3.8%) 순으로, 이들 5개국의 비중이 54.6%에 이른다. 한편 수출 상대국들의 수출액 중에서 우리나라가 차지하는 비중으로 따져 일본에게는 4위, 중국 5위, 홍콩 8위, 말레이시아 4위, 싱가포르 10위, 대만 14위, 타이 12위, 미국 6위, 캐나다 8위, 프랑스 27위, 독일 23위, 이탈리아 24위, 영국 27위, 호주 3위, 구소련에게는 18위의 수출상대국이다. (UN자료에 의한 것으로, 대만수치가 기타에 포함되어 있어, 순위에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주요 수출국별 수출액(1992) >

(백만불, %)

	1위	2위	3위	4위	5위
대한민국	미국 18,153(23.8)	일본 11,594(15.2)	홍콩 5,828(7.6)	싱가포르 3,199(4.2)	독일 2,877(3.8)
일 본	미국 96,486(28 4)	홍콩 20,702(6.1)	독일 20,337(6 0)	대한민국 17,786(5.2)	싱가포르 12,885(3 8)
대 만	미국 23,572(28.9)	홍콩 15,415(18.9)	일본 8,894(10.9)	독일 3,599(4.4)	영국 2,205(2.7)
중 국	홍콩 37,512(44.2)	일본 11,679(13.7)	미국 8,599(10 1)	독일 2,448(2.9)	대한민국 2,405(2.8)
싱가포르	미국 13,391(21 1)	말레이시아 7,901(12.5)	홍콩 4,960(7.8)	일본 4,825(7.6)	타이 3,947(6 2)
홍 콩	중국 35,411(29.6)	미국 27,581(23.1)	독일 6,339(5.3)	일본 6,262(5.2)	영국 4,281(3.6)
미 국	캐나다 89,666(20 2)	일본 47,605(10 7)	멕시코 40,329(9.1)	영국 21,807(4.9)	독일 21,124(4.8)
영 국	독일 26,437(13.9)	미국 21,751(11 4)	프랑스 20,164(10 6)	네덜란드 14,893(7.8)	이탈리아 10,792(5.7)
독 일	프랑스 55,764(13.0)	이탈리아 39,856(9.3)	네덜란드 35,720(8.3)	영국 33,324(7.8)	벨기에 31,700(7.4)

주 : ( )내는 각국 총 수출액에 대한 국가별 비율



○ 우리나라의 **수입액 크기 순 상대국**을 보면 '92년 현재 일본으로부터의 수입액 비중이 총 수입액의 23.9%를 차지해 1위이며, 다음이 미국(22.5%), 사우디아라비아(4.7%), 독일(4.6%), 중국(4.6%) 순이며, 이들 상위 5개국으로부터의 수입액이 총 수입액의 60.3%에 이른다.

한편 우리나라는 일본의 5위 수입국이며, 대만 4위, 중국 6위, 홍콩 4위, 말레이시아 6위, 싱가포르 8위, 타이 5위, 캐나다 8위, 미국 7위, 프랑스 24위, 독일 23위, 이탈리아 25위, 영국 24위, 호주 8위이고 구소련은 20위이다.(UN자료에 의한것으로 대만수치가 기타에 포함되어 순위에 다소 차이가 있을수 있음)

< 주요 수입국별 수입액(1992) >

(백만불,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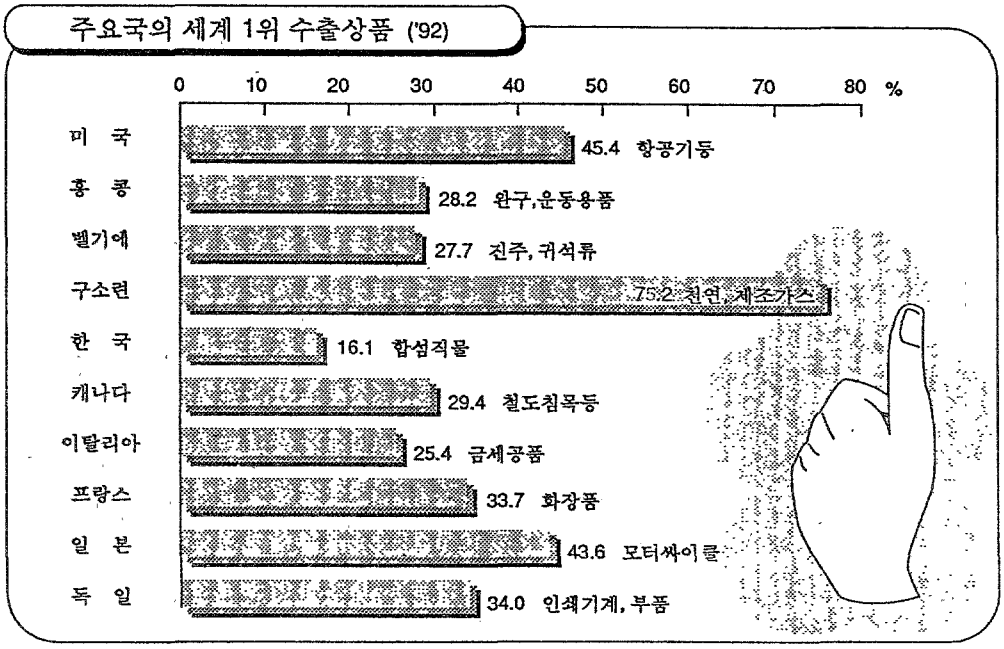
	1위	2위	3위	4위	5위
대한민국	일본 19,451(23 9)	미국 18,299(22 5)	사우디아라비아 3,797(4 7)	독일 3,741(4.6)	중국 3,725(4.6)
일 본	미국 52,607(22.8)	중국 16,926(7 3)	인도네시아 12,219(5.3)	호주 11,835(5.1)	대한민국 11,568(5.0)
대 만	일본 21,767(30.2)	미국 15,771(21 9)	독일 3,919(5.4)	대한민국 2,301(3.2)	호주 2,056(2.9)
중 국	홍콩 20,534(25.5)	일본 13,682(17.0)	미국 8,901(11.0)	독일 4,015(5.0)	러시아 3,526(4.4)
싱가포르	일본 15,122(21.0)	미국 11,878(16.5)	말레이시아 10,613(14.7)	사우디아라비아 3,696(5.1)	타이 2,681(3.7)
홍 콩	중국 45,783(37.1)	일본 21,472(17.4)	미국 9,128(7.4)	대한민국 5,705(4.6)	싱가포르 5,050(4.1)
미 국	일본 100,216(18 2)	캐나다 99,999(18.1)	멕시코 35,856(6.5)	독일 29,592(5.4)	중국 27,450(5.0)
영 국	독일 33,521(15.1)	미국 24,329(11.0)	프랑스 21,513(9.7)	네덜란드 17,450(7.9)	일본 13,109(5.9)
독 일	프랑스 48,843(12.0)	네덜란드 39,166(9.6)	이탈리아 37,440(9.2)	벨기에 28,669(7.0)	영국 21,543(5.3)
프 랑 스	독일 44,608(18 7)	이탈리아 25,413(10.7)	벨기에 20,576(8.6)	미국 19,749(8.3)	영국 18,367(7.7)
이탈리아	독일 40,584(22 0)	프랑스 27,246(14.8)	네덜란드 11,149(6.0)	영국 10,719(5.8)	미국 9,818(5.3)

주: ( )내는 각국 총 수입액에 대한 국가별 비율

합성섬유직물, 의류부속품 세계 수출 1위,
TV, 녹음기, 선박은 2위 등 5위내에 10개 상품류가 포함

○ <u>주요 상품별 수출액</u>(국제표준무역분류 3자리수 기준)을 보면 '92년 현재 우리나라는 합성섬유직물 및 의류부속품에서 세계 1위 수출국(합성섬유직물 세계 수출총액 25,943백만불중 4,187백만불 16.1%, 의류부속품 세계 총액 10,805백만불 중 1,688백만불 15.6%차지)이며, TV수상기 2위(15,259백만불 중 1,537백만불 10.1% : 일본이 15.7%로 1위), 녹음 및 음성재생기 2위(8.2% : 일본이 43.5%로 1위), 트레일러 및 기타 기계구동식이 아닌 차량 2위(16.3% : 독일이 21.4%로 1위), 선박·보트 및 부유구조물 2위(14.1% : 일본이 27.2%로 1위)이며, 합성섬유 3위(11.0% : 독일이 21.0%로 1위, 일본이 15.3%로 2위), 가죽 3위(7.7% : 1위 이탈리아 20.2%, 2위 홍콩 8.2%), 전자집적회로 3위(11.1% : 1위 미국 25.3%, 2위 일본 17.8%)이고, 신발류는 4위(9.7% : 1위 이탈리아 20.1%, 2위 홍콩 13.8%, 3위 중국 13.0%), 의류는 5위(5.1% : 1위 홍콩 15.0%, 2위 중국 12.5%, 3위 이탈리아 9.2%, 4위 독일 6.2%)를 차지하고 있다.

한편 일본은 세계 수출 1위 상품으로 타이어 및 튜브, 내연기관 및 부품, TV 수상기, 녹음기 및 음성재생기, 통신장비, 승용자동차, 선박, 카메라 등 8개 주종 상품류를 보유하고 있고, 세계 2위로는 합성섬유, 철강, 섬유피혁기계, 자동자료처리기계, 전자집적회로의 5개 상품류, 3위에는 자동차부품 및 부속품, 시계 등 4개 상품류를 보유하는 등 세계 5위권 수출 상품류에 18개 상품류를 보유하고 있다



원목 수입 세계 2위, 옥수수, 면화, 철광석 수입은 세계 3위

○ <u>주요 상품별 수입액</u>을 보면 '92년 현재 우리나라는 원목이 세계 각국별 수입총액의 9.3%, 석탄이 8.0%를 차지하면서 세계 2위의 수입국에 올라있고, 옥수수는 8.4%, 면화는 8.9%, 철광석은 8.5%로 3위, 철강1차제품은 6.6%, 전자집적회로는 7.3%로 각각 세계 4위의 수입국이며, 섬유피혁기계(4.4%)와 선박·보트 및 부유구조물(5.3%)은 각각 세계 5위 수입국이다.
한편 일본은 상품류별 세계 수입 5위권이내에 육류(1위), 생선류(1위), 원목(1위), 면화(1위), 철광석(1위), 석탄(1위), 천연 및 제조가스(1위)와 옥수수(2위) 원유(2위), 알루미늄(2위)을 비롯 모두 22개 상품류가 포함되어 있다.

< 우리나라의 세계 상위 수·출입 상품류(1992) >

(백만불, %)

수 출			수 입		
1위	합성섬유직물	4,187(16 1)	2위	원목	919(9.3)
	의류부속품	1,688(15.6)		석탄	1,597(8.0)
2위	TV수상기	1,537(10.1)	3위	철광석	880(8 5)
	녹음기 및 음성재생기	1,479(8.2)		면화	640(8.9)
	트레일러 등	1,158(16.3)		옥수수	847(8.4)
	선박 등	4,113(14.1)	4위	철강제1차제품	1,171(6.6)
3위	합성섬유	417(11.0)		전자집적회로	4,050(7.3)
	가죽	760(7.7)	5위	섬유피혁기계	1,056(4.4)
	전자집적회로	6,234(11 1)		선박·보트 등	840(5.3)
4위	신발류	3,034(9.7)			

주 : ( )내는 총액에 대한 비율임

세계 100대 수출상품 중 우리나라는 합섬직물 등 2개 상품류에서 1위차지

○ 세계 100대 수출상품(국제표준무역분류(SITC) 3단위 분류기준)의 제1위 수출국 분포를 보면 일본이 승용자동차를 비롯한 17개 상품류, 미국이 항공기 등 관련장비를 비롯한 20개 상품류, 독일이 자동차 부품 및 부속품을 비롯한 31개 상품류순으로 독일, 미국, 일본이 모두 68개 품목을 나누어 차지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합성섬유직물, 의류 및 모자의 2개, 홍콩은 여자용·유아용 의류를 비롯한 7개 상품류를 차지하고 있다.

수출상품의 분산정도는 비교적 다양화되었으나, 뛰어난 주력상품은 많지 않은 편

○ 한나라의 상품별 수출액구조가 세계의 상품별 수출구조에 어느 정도 접근되어 있는가를 나타내는 **수출분산지수**(SITC 3자리 품목군 239개 기준)를 보면 우리나라의 경우 '91년 현재 총 216개 상품류 수출에 0.500을 나타내, 아시아의 개발도상국들(대만 0.507, 타이 0.569, 홍콩 0.634, 말레이시아 0.569, 인도네시아 0.653)에 비하여는 분산도가 낮아 수출상품이 전산업에 걸쳐 보다 다양화되어 있다고 할 수 있으나, 선진경제국인 미국(0.296), 독일(0.265), 영국(0.238), 프랑스(0.256), 이탈리아(0.345) 등 보다는 높아, 이들 선진국들에 비하여는 다양화 정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일본(0.438)과 싱가포르(0.486)는 우리나라보다 분산지수가 다소 낮았다.
한편 어떤 국가의 수출액구조가 특정 품목들에 좌우되고 있는 정도를 나타내는 **수출집중지수**(SITC 239개 품목군 기준)는 우리나라의 경우 0.107로 선진경제국인 미국(0.081), 독일(0.076), 영국(0.065), 프랑스(0.063), 이탈리아(0.057) 등

보다는 높으나, 일본(0.138), 스페인(0.137), 캐나다(0.126) 등보다는 낮게 나타나고 있다. 결국 수출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월등히 높은 특정 품목군이 그리 많지 않다는 의미가 된다.

경상수지 적자 규모가 큰 순서로는 '92년 현재 16번째 국가

○ '92년도 국가별 **경상수지**(무역수지, 무역외수지, 이전수지)자료가 발표된 135개국중 경상수지 흑자국은 1위인 일본(117,640백만불, GDP의 3.2%), 2위인 스위스(13,419백만불, GDP의 5.6%)에서 35위인 바누아투(4백만불 : 남태평양소국)에 이르기까지 모두 35개국이며, 36위인 통가(-1백만불 : 남태평양소국)에서 135위인 미국(-66,380백만불 : GDP의 -1.1%)까지 100개국은 경상수지 적자국이었다.
우리나라는 '92년 현재 4,529백만불의 경상수지 적자('93년 385백만불 흑자, '94년 4,778백만불 적자)를 보여 국민 1인당 103.7불의 적자를 나타내고 있으며, 적자규모가 큰 순서로는 미국으로부터 시작하여 16번째에 해당한다. 대 GDP비율은 -1.5%정도이다.
경상수지중 **무역수지**(통관기준)는 '90~'92년의 3년동안 한해 평균 6,542백만불 적자를 보인 셈이며 한해 평균 수입액의 8.4%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일본은 이 기간중 한해 평균 78,955백만불, 한해 평균 수입액의 33.6%에 해당하는 무역흑자를 보였다.
대만 역시 같은 기간 중 한해 평균 11,453백만불, 한해 평균수입액의 18.1%에 해당하는 무역흑자를 보였다.

GNP 중 수출의존도가 높기로는 세계 40위, 수입의존도가 높기로는 64위권

○ 국민 총생산액(GNP)중에서 차지하는 **무역 의존도**는 '93년 현재 수출 25.0%, 수입 25.5%로, 무역 의존도가 집계된 120개국 중 수출 의존도가 높기로는 싱가포르(132.5%), 대만(38.6%), 말레이시아(76.9%), 홍콩(123.2%) 등과 함께 세계 40위권에 속하며, 수입 의존도가 높기로는, 싱가포르(152.6%), 말레이시아(74.5%), 홍콩(126.3%), 대만(35.0%)등과 함께 64위권에 속한다.

우리의 해외직접투자 규모는 세계 총 투자액의 0.6% 수준

○ '92년 현재 우리나라의 **해외직접투자액**(장기자본수지계정기준)은 1,048백만불로 세계 총 해외직접투자액 규모의 0.6%, 개발도상국들의 투자액 규모의 10.7%, 아시아 개발도상국 투자액 규모의 12.7%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일본의 해외 직접 투자규모는 17,240백만불로 세계 총규모의 10.1%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다.

우리나라에 대한 외국인 직접투자는 중국,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타이에도 뒤져

○ '92년 현재 우리나라에 대한 **외국인 직접투자액**(장기자본수지계정기준)은 551백만불로 세계 총 규모의 0.4%, 개발도상국으로의 투자규모의 1.1%, 아시아 개발도상국으로의 투자규모의 2.0%에 불과한 수준이다.
중국의 경우 개발도상국에 대한 총 투자규모의 22.1%,아시아 개발도상국에 대한 투자규모의 40.4%를 점하고 있으며, 싱가포르는 각각 11.2%, 20.4%, 말레이시아는 각각 8.2%, 14.9%, 타이는 4.2%, 7.7% 수준의 외국인 투자를 받고 있다

'93년 외환보유고 세계 18위, 부채상환능력은 충분한 셈

○ 우리나라의 '93년 현재 **외환보유고**는 20,262백만불로 외환보유액이 조사된 142개국중 18위에 올라 있다. 세계 1위 외환보유국은 일본으로 99,689백만불이며, 2위는 대만으로 89,298백만불이며, 아시아 국가중 싱가포르는 7위, 말레이시아는 13위에 올라 있다.

1년이상 장기공적 해외부채가 많기로는 세계 8위, GDP규모에 비해서는 119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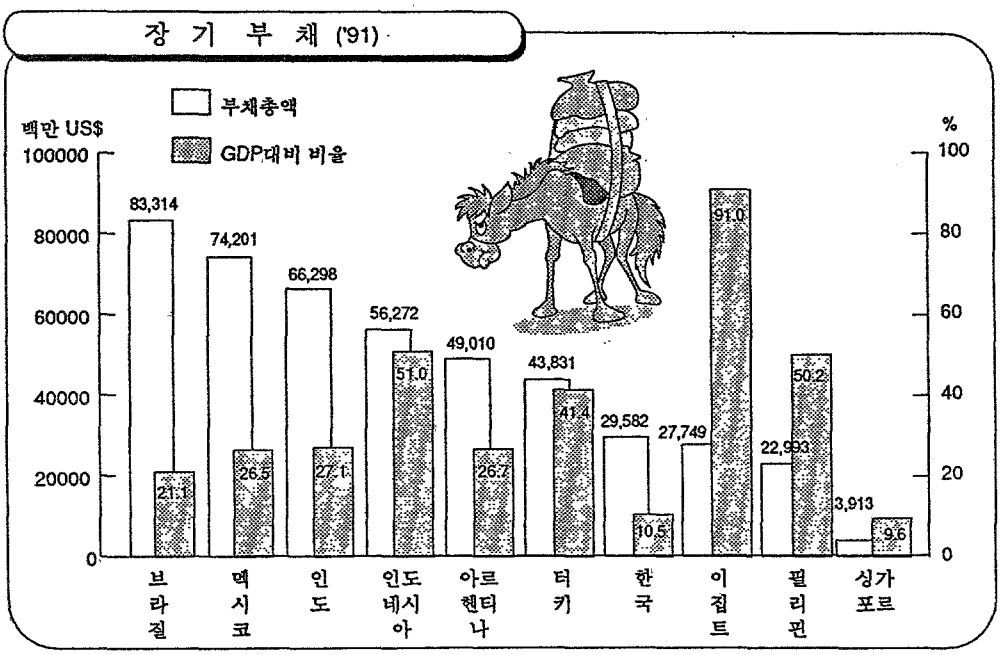
○ '91년 현재 우리나라의 **장기공적 해외부채**(1년이상 상환 : 비정부보증 민간채무, 단기채무 등 제외)는 29,582백만불로 개발도상국 총부채액의 3.0%에 해당하며 규모 크기 순으로는 8위이고, 국내 총생산액(GDP)대비로는 10.5%에 해당한다. GDP규모에 대한 비율순으로는 147개국중 119위에 해당한다.
장기부채 상환총액(원금 및 이자)은 '91년중 4,275백만불로 147개국 중 8위의 상환국이며 상환규모는 수출액의 5.0%에 해당한다.

< 외환보유고 및 장기공적 해외부채 >

(백만불)

	외환보유고('93)	장기공적 해외부채('91)
대 한 민 국	20,262(18)	29,582(8)
일 본	99,689(1)	-(-)
대 만	89,298(2)	3,243(55)
싱 가 포 르	48,361(7)	3,913(46)
말 레 이 시 아	27,364(13)	18,552(17)
타 이	25,440(14)	25,393(12)
인 도 네 시 아	12,355(28)	56,272(4)
필 리 핀	5,921(40)	22,993(13)

주 : ·( )내는 순위



11. 금융 · 재정 · 증권 · 보험

통화 증가율 매우 높고, 현금선호도도 선진제국에 비해 매우 높은 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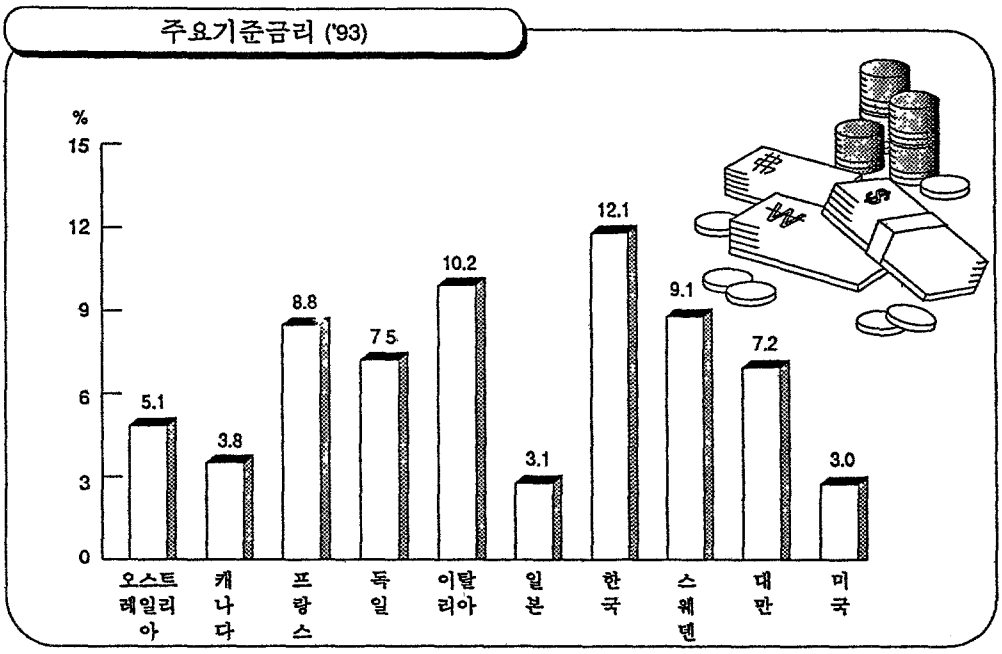
○ '93년 현재 우리나라의 **통화(M_1) 증가율**은 전년대비(말잔기준) 18.1%, 총통화(M_2) 증가율은 16.6%로 일본(통화 7.0%, 총통화 2.3%), 미국(9.7%, 1.4%), 영국(5.6%, 6.4%), 이탈리아(6.1%, 7.3%), 프랑스(1.0%, 3.8%), 독일(8.9%, 11.6%) 등 선진제국에 비하여 상당히 높은 편이나, 대만(15.3%, 15.1%), 싱가포르(23.6%, 8.5%), 타이(18.6%, 18.4%), 말레이시아(35.3%, 26.6%), 필리핀(22.3%, 27.1%) 등 아시아 주요국들과는 비슷하거나 다소 낮은 편이다.

통화 중 **예금통화에 대한 현금통화의 비율**은 '93년 현재 0.67(67%)로 일본(0.39), 이탈리아(0.21), 뉴질랜드(0.05), 영국(0.08), 미국(0.56), 프랑스(0.19), 독일(0.44), 덴마크(0.11) 등 선진제국에 비해 매우 높은 편으로, 그만큼 현금선호도가 높은 셈이다. 대만의 경우도 0.20(20%)으로 우리보다 낮은 편이며, 싱가포르(0.64), 타이(2.60), 필리핀(1.93), 말레이시아(0.65), 인도네시아(0.69) 등과는 비슷하거나 다소 낮은 수준이다.

콜머니 금리는 선진제국보다 월등히 높아

○ 금리의 가장 기준이 되는 **중앙은행 공정 할인율**은 '92년 7.00에서 '93년 5.00으로 낮아져 캐나다(4.11), 미국(3.00), 일본(1.75), 스위스(4.00) 등 보다는 높으나, 기타 선진제국 프랑스(9.50), 독일(5.75), 이탈리아(8.00) 보다는 낮고, 아시아 국가들인 대만(5.50), 타이(9.00), 필리핀(6.51) 등보다도 다소 낮은 편이다.

한편 '93년 현재 **단기 금융시장 금리**(Call Money Rate)는 12.10으로 일본(3.06), 프랑스(8.75), 독일(7.49), 이탈리아(10.20), 네덜란드(7.10), 미국(3.02), 영국(5.60) 등 선진제국 보다는 월등히 높은 편이다.



GDP대비 총세입 규모는 선진제국보다 상당히 낮은 편

○ '93년도 우리나라 중앙정부 **총세입의 대 GDP비율**은 19.34%, **총세출의 대 GDP비율**은 19.51%로 일본(총세입 14.38%, 총세출 15.62%)보다는 높으나 미국(19.63%, 24.63%), 캐나다(20.12%, 22.61%), 독일(30.80%, 32.76%), 이탈리아(41.45%, 50.76%), 영국(37.05%, 38.96%) 등 여러 선진국보다는 낮은 편이다. 대만(25.27%, 30.50%), 싱가포르(32.80%, 22.54%), 말레이시아(28.53%, 27.99%) 등도 우리보다 세입·세출의 대 GDP비율이 높은 편이다.

< 통화·예산지표(1993) >

	예금통화에 대한 현금통화비율 (%)	중앙정부 예산의 대 GDP비율(%)	
		총세입	총세출
대한민국	67	19.34	19 51
일 본	39	14.38	15.62
대 만	20	25 27	30.50
미 국	56	19 63	24 63
영 국	8	37.05	38 96
프 랑 스	19	40.63	44.93
독 일	44	30.80	32 76
이탈리아	21	41 45	50.76
싱가포르	64	32 80	22.5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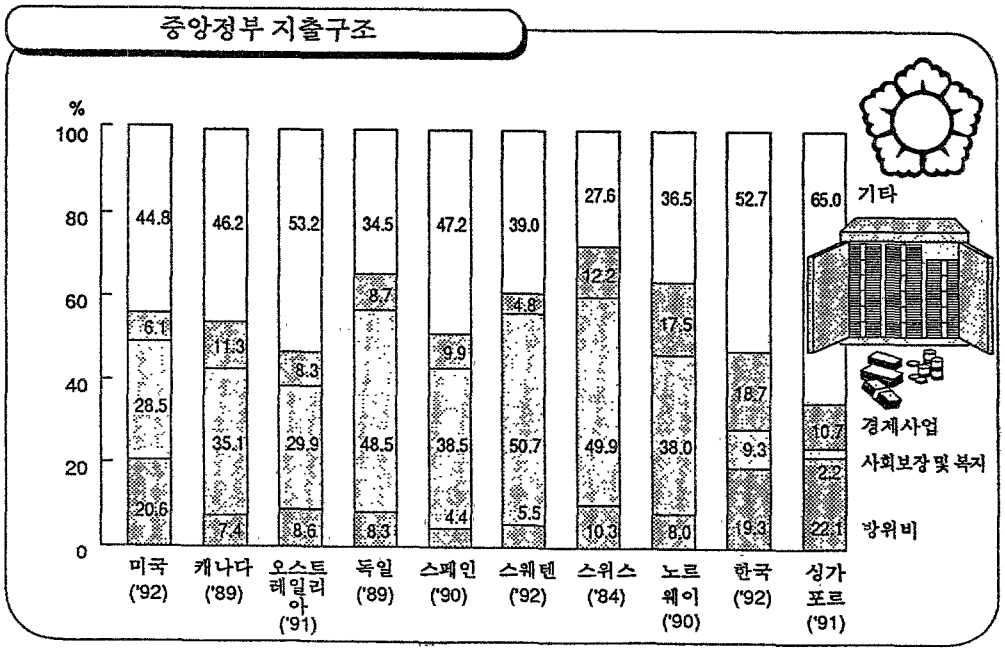
세출 중 방위비 비중 아직 높고, 사회보장·복지비 비중은 매우 낮아

○ '92년 현재 우리나라 **중앙정부 세출구성**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비목은 방위비로 19.3%이며 다음이 경제 사업비로 18.7%이고, 교육비로는 14.4%, 사회보장 및 복지비로는 9.3%, 주택 및 지역사회 개발비로는 7.2%, 보건비로는 0.9%를 지출하고 있다. 선진국들이 중앙정부 세출중 20~50% 이상을 사회보장 및 복지비로 투입하는 것에 비추어(미국28.5%, 캐나다35.1%, 호주29.9%, 뉴질랜드39.6%, 독일48.5%, 아일랜드26.7%, 룩셈부르크48.3%, 스웨덴50.7%, 스위스 49.9%, 영국33.1% : 연도는 나라별로 다소 차이가 있음) 우리나라의 사회보장 및 복지비 지출은 매우 낮은 편이며(일본의 경우 18.2% 차지), 보건비 지출 역시 매우 낮다(미국 16.0%, 호주 12.7%, 독일 18.1%, 아일랜드 13.0%, 영국 13.9%).

< 중앙정부 세출 구성 >

(%)

	공공행정	방위비	교육비	보건비	사회보장·복지비	경제 사업비
대한민국('92)	9.8	19.3	14.4	0.9	9.3	18.7
일 본('93)	…	6.4	8.0	…	18.2	…
싱가포르('91)	12.8	22.1	22.9	6.2	2.2	…
미 국('92)	9.1	20.6	1.8	16.0	28.5	6.1
영 국('91)	10.8	11.3	…	13.9	33.1	…
독 일('89)	3.9	8.3	0.6	18.1	48.5	8.7
핀 란 드('91)	7.8	4.3	13.9	3.2	44.8	18.1
스 웨 덴('92)	6.8	5.5	9.3	0.8	50.7	…
호 주('91)	9.6	8.6	7.0	12.7	29.9	8.3
말레이시아('92)	15.4	10.9	19.6	5.9	5.6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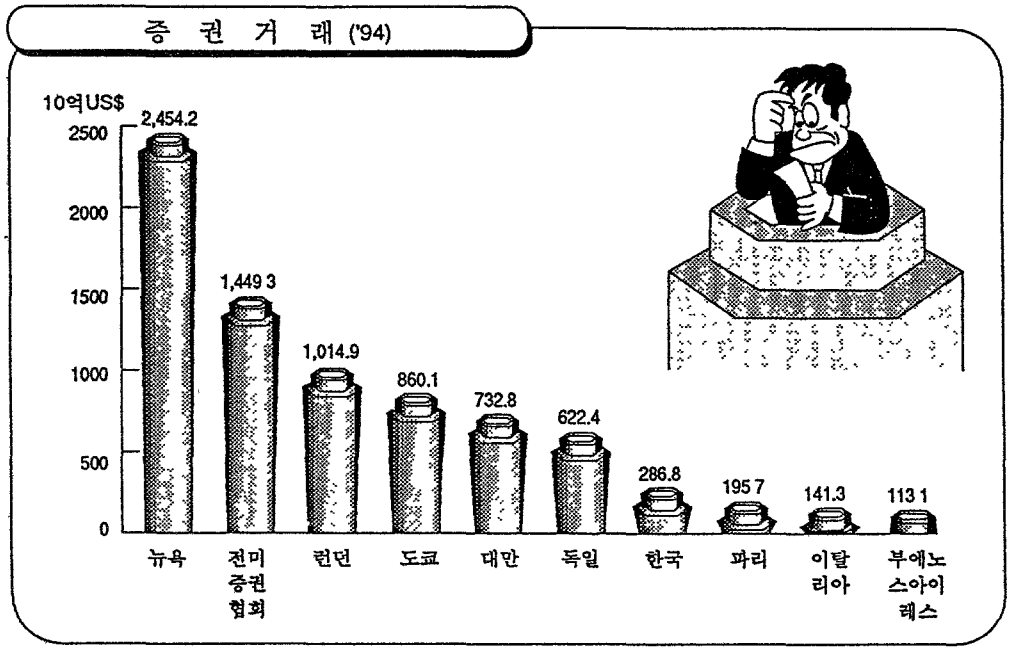


조세부담률은 선진제국에 비해 상당히 낮은 편

○ 우리나라의 **조세부담률**(사회보장세 제외)은 '92년 현재 18.7%로 선진경제국들의 20.6%(미국)~47.8%(덴마크)보다는 상당히 낮은 편이다. 일본은 19.8%이다

주식거래대금은 세계 7위 규모

○ 우리나라 증권시장의 **주식거래대금**(거래소기준)은 '94년 현재 2,868억불로 세계 7위이며, **상장주식 시가총액**은 '94년말 현재 1,918억불로 거래소기준으로 세계 15위 수준이다.



보험시장 규모는 세계 6위, 1인당 수입보험료는 세계 18위 수준

○ 우리나라 보험시장(생명보험 및 손해보험)의 '92년 현재 **수입보험료**는 360.5억불로 GDP대비 12.3%를 차지하고 있으며, 세계 보험시장의 2.46%를 점유하고 있어 세계 6위이다. **국민 1인당 수입보험료**는 825.7불로 세계 18위 수준이다. 일본은 수입보험료 기준 2위, 국민 1인당 수입보험료 기준 2위에 들어 있고, 대만의 경우는 각각 16위, 24위에 올라 있다.

12. 교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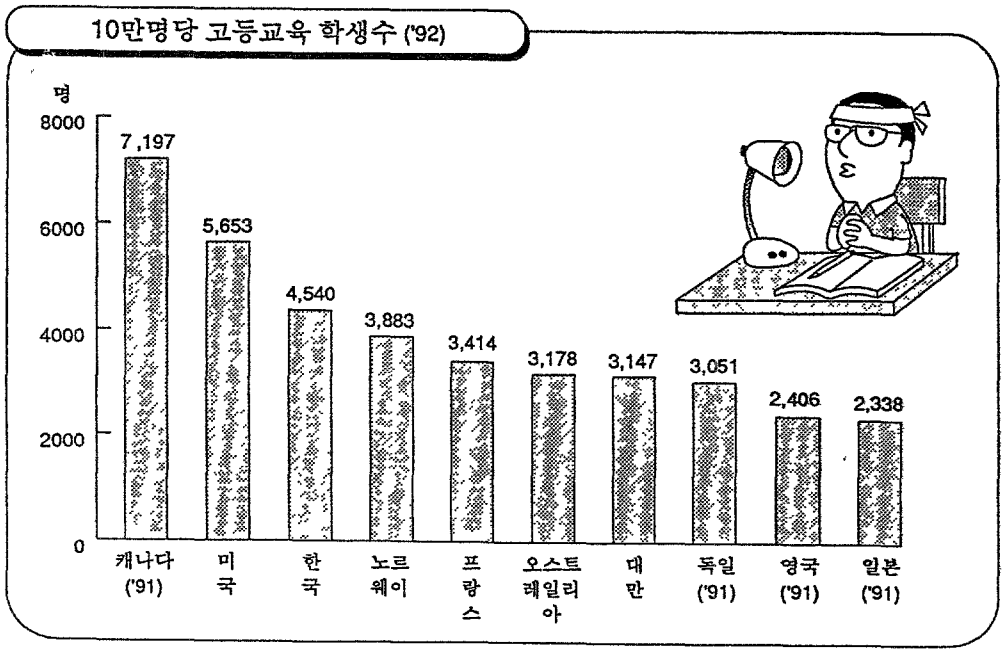
초등교육기관의 교육환경은 선진제국에 비해 열악한 편

○ '93년 현재 우리나라 **초등교육기관의 교사 1인당 학생수**는 31명으로 선진제국들의 수준에 비해 열악한 편이다(미국 15, 캐나다 17, 덴마크 11, 벨기에 15, 프랑스 16, 구서독 17, 이탈리아 12, 영국 20명). 일본의 경우도 '92년 현재 20명에 지나지 않으며, 말레이시아도 20명, 대만은 25명, 타이도 17명선이다.

○ 전문대 이상의 **고등교육기관 여학생 취학비율**도 '92년 현재 35%로 선진국들의 41%(구서독)~54%(프랑스, 스웨덴)정도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일본은 '91년 현재 40%선이다.

인구 십만명당 전문대이상 고등교육기관 학생수 규모로는 세계 3위, 일본은 31위 수준

○ **인구 10만명당 고등교육기관 학생수**는 '92년 현재 4,540명으로 캐나다('91년 7,197명), 미국('92년 5,653명)에 이어 3위로 매우 높은 수준이다. 일본은 '91년 현재 2,338명으로 세계 31위 수준, 대만은 '92년 현재 3,147명으로 14위 수준이다.



초등교육이상의 취학률은 매우 높아

○ **교육단계별 취학률**을 보면 취학전교육(유치원)은 '93년 현재 69%로 미국 65%('90년), 캐나다 60%('92년), 스위스 65%('92년), 영국 51%('90년)보다는 높고, 독일 89%('91년), 프랑스 83%('92년), 이탈리아 93%('92년) 등 보다는 낮아 선진제국들의 중간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일본은 47%('91년)이다.
초등교육 취학률은 99%이고, 중등교육 취학률은 88%로, 일본 97%('91년), 캐나다 93%('92년), 오스트리아 90%('92년), 노르웨이 89%('92년)에 이어 높다.
고등교육 취학률은 '93년 현재 46.4%로 캐나다 98.8%('92년), 미국 71.7%('90년), 핀란드 57.0%('92년), 뉴질랜드 49.7%('92년), 노르웨이 49.3%('92년)에 이어 높다. 일본은 31.5%('91년), 대만은 45.0%('93년)이다.

총 교육비지출 비중은 아직 낮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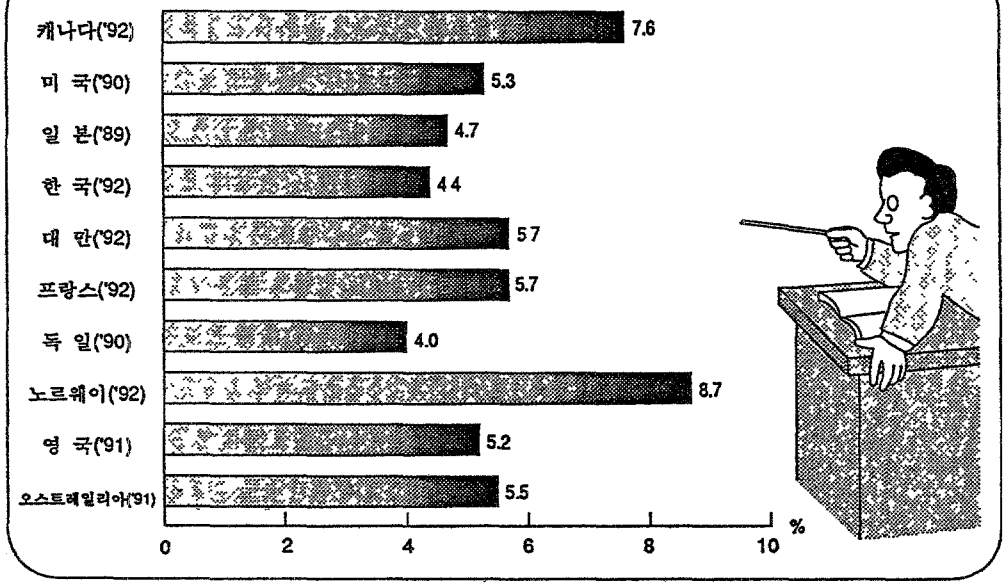
○ **GNP대비 총 교육비지출**은 '92년 현재 4.4%로 선진제국(미국 5.3%,일본 4.7%, 프랑스 5.7%, 네덜란드 6.2%, 스웨덴 8.8%, 영국 5.2%, 호주 5.5%, 이탈리아 5.4% 등 : 국가에 따라 연도는 상이)은 물론, 대만 5.7%, 말레이시아 5.5%보다도 낮은 편이다.
총 정부지출대비 교육비지출(중앙정부, 지방정부포함)은 '92년 현재 14.8%로 미국 12.3%('90년), 캐나다 14.3%('92년), 덴마크 11.8%('91년), 구서독 8.6%('90년), 스웨덴 12.7%('92년), 호주 14.1%('91년) 등 선진국보다는 높으나, 일본 16.5%('89년), 대만 17.1%('92년), 말레이시아 16.9%('92년), 타이 19.1%('91년) 보다는 오히려 낮다.

< 교육 지표 >

	인구10만명당 고등교육 학생수(명)	고등교육 취학률(%)	GNP대비 총 교육비 지출(%)	총 정부지출대비 교육비 지출(%)
대한민국	4,540(3)	46.4	4.4	14.8
일 본	2,338(31)	31.5	4.7	16.5
미 국	5,653(2)	71.7	5.3	12.3
대 만	3,147(14)	45.0	5.7	17.1
캐 나 다	7,197(1)	98.8	7.6	14.3
프 랑 스	3,414(8)	45.6	5.7	…
영 국	2,406(29)	27.8	5 2	…
이탈리아	2,795(21)	33.7	5.4	…

주 : · 국가별로 연도는 다소 상이
· ( )는 순위

GNP 대비 교육비 지출


캐나다('92)
7.6
미 국('90)
5.3
일 본('89)
4.7
한 국('92)
4.4
대 만('92)
5.7
프랑스('92)
5.7
독 일('90)
4.0
노르웨이('92)
8.7
영 국('91)
5.2
오스트레일리아('91)
5.5
0
2
4
6
8
10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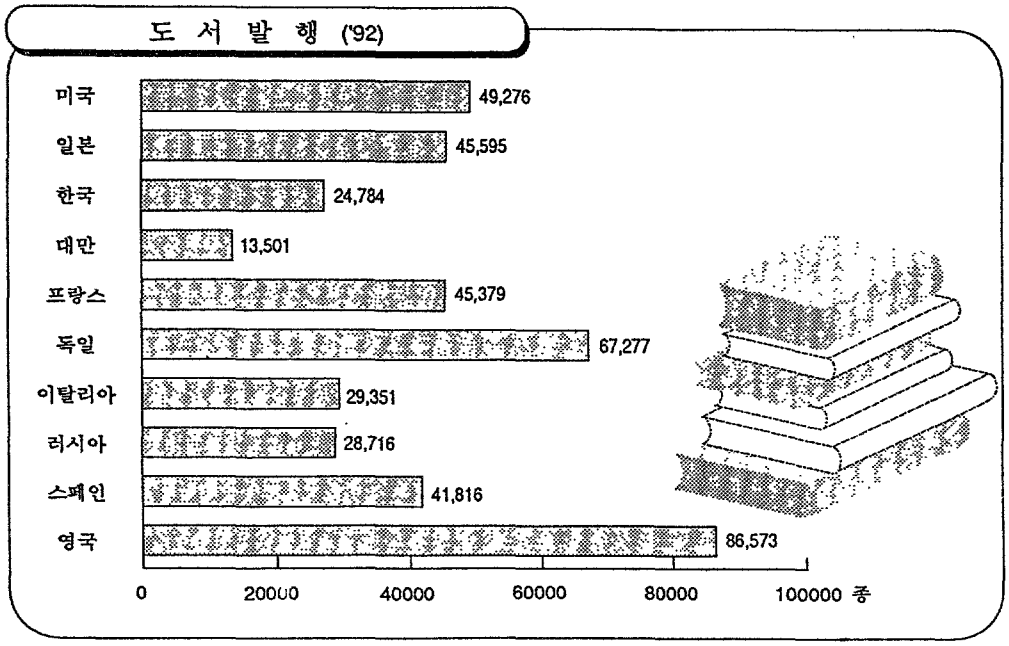
도서발행종수는 세계 9위 수준이나, 아동도서, 참고서 비중 높아

○ 국제 10진 분류(Universal Decimal Classification)에 의한 **도서발행종수**를 보면 우리나라는 '92년 현재 24,783종의 도서를 발행하여 영국(86,573종), 독일(67,277종), 미국(49,276종), 일본(45,595종), 프랑스(45,379종), 스페인(41,816종) 이탈리아(29,351종), 러시아(28,716종) 등에 이어 많은 도서를 발행하고 있다. 도서종류별로는 선진국에 비해 사회과학도서, 순수과학도서, 응용과학도서 및 문학도서의 점유비중이 낮은 대신, 학습 참고서('92년의 경우 15.8%), 아동도서('92년 16.7%) 및 종교도서('92년 8.2%)의 비중이 높다.

< 도서발행(1992) >

(종, %)

	총수	사회과학	순수과학	응용과학	문학
대한민국	24,783	11.6	1.3	11.9	18.8
일 본	45,595	22.8	7.8	7.9	20.5
미 국	49,276	20.6	5.5	16.5	17.9
프 랑 스	45,379	28.8	4.5	11.2	25.7
독 일	67,277	22.5	3.2	14.0	20.0
이탈리아	29,351	21.2	3.6	12.3	24.3
러 시 아	28,716	15.8	9.5	26.7	24.3
스 페 인	41,816	18.3	6.0	14.0	28.9
영 국	86,573	20.0	11.0	17.0	2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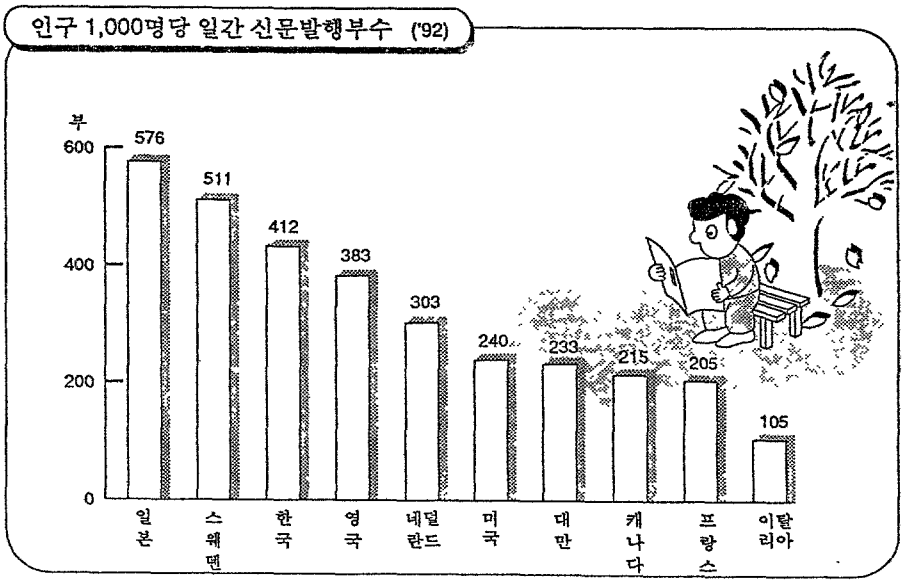


원서 번역도서 발간순으로는 세계 20위 수준

○ **원서의 번역도서 종수**(UDC분류)는 '87년 현재 세계 총 65,297종 중에서 우리나라는 890종을 번역하여 1.4%를 차지하고 있으며, 자료가 발표된 76개국 중 20위에 해당하고 있다. 가장 많은 번역도서 종수는 문학도서로 40.7%이고, 종교도서가 17.0%, 사회과학 도서가 15.7% 등이다.
일본의 경우 세계 5위의 번역도서 출판국으로 3,183종에 문학 42.0%, 응용과학 16 6%, 사회과학 13.8%순이다.
언어별 번역도서 종수로는 영어가 78.4%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다음이 독일어 8.8%, 프랑스어 7.4%, 러시아어 1.7% 등 순이다.
일본의 경우 영어 77.6%, 독일어 7.7%, 프랑스어 7.4%, 러시아어 2.5% 등 순이다.

인구 천명당 신문 발행부수는 세계 11위, 신문용지 사용량은 세계 20위로 평가 받아

○ UNESCO의 추계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92년 현재 **인구 천명당 신문발행부수**를 412부로 보고 있으며 홍콩(1위), 리히텐슈타인(2위), 노르웨이(3위) 등순으로 따져 11위라 하고 있다. 일본은 576부로 4위, 미국은 240부로 34위, 영국은 383부로 15위, 프랑스는 205부로 42위, 독일은 331부로 19위, 대만은 233부로 35위, 싱가포르는 336부로 17위라 하고 있다.
인구 천명당 신문용지 사용량은 '92년 현재 13.4톤으로 1위 스웨덴(54.3톤) 2위 미국(47.6톤), 3위 오스트리아(46.3톤) 등 순으로 따져 세계 20위로 보고 있으며 일본은 11위(29.8톤), 싱가포르는 9위(36.4톤)에 들어 있다.



인구 천명당 라디오 보급대수는 세계 11위, TV는 65위로 평가 받아

○ '92년 현재 **인구 천명당 라디오 보급대수**는 1,002대로 세계 12위(1위 미국 2,118대, 2위 괌 1,403대, 3위 호주 1,273대등)로 보고 있으며, 일본은 908대로 17위에 올라 있다.

인구 천명당 TV 보급대수는 '92년 현재 211대로 세계 65위라 하고 있으며(한국전력공사 자료에 따르면 '94년 현재 인구 천명당 칼라TV보급대수는 348.3대임), 일본은 614대로 8위, 홍콩은 281대로 47위, 싱가포르는 379대로 30위로 보고 있다.

< 라디오, TV보급대수(1992) >

(인구 천명당)

	라디오	TV
대한민국	1,002(12)	211(65)
일 본	908(17)	614(8)
싱가포르	646(36)	379(30)
홍 콩	668(35)	281(47)
중 국	182(125)	31(127)
말레이시아	430(69)	150(80)
미 국	2,118(1)	815(3)
영 국	1,146(7)	435(21)
독 일	885(20)	558(10)
프 랑 스	889(19)	408(27)
이탈리아	791(27)	421(24)
캐 나 다	1,030(10)	640(7)

주 · UNESCO추계치
· ( )내는 국가별 순위

○ **연간 1인당 영화관람회수**는 '93년 현재 1.1회에 불과하여 미국 3.9회, 캐나다 3.0회, 프랑스 2.1회, 영국 1.8회, 스페인 1.8회, 노르웨이 2.5회, 독일 1.5회, 이탈리아 1.5회 등 수준에 비하여 낮은 수준이다. 일본은 1.2회('89년), 홍콩은 10.3회('89년)이며 중국(14.1회)을 비롯한 사회주의국가(몽골 9.4회, 베트남 3.8회, 구소련 10.3회, 루마니아 5.6회 등)에서 대체로 관람회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인구 100명당 승용차 보유대수는 세계 60위 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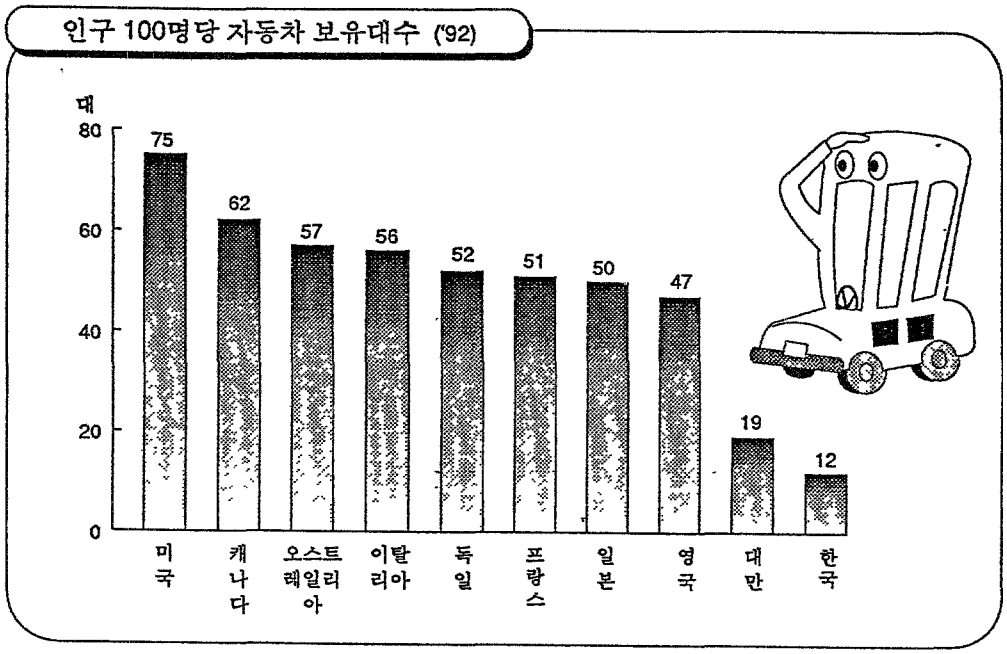
○ **인구 100명당 자동차 보유대수**는 '92년 현재 12.0대로 세계 60위 수준 이고, 승용차만으로는 인구 100명당 7.9대로 역시 60위 수준이다.

< 인구 100명당 자동차 보유(1992) >

(대)

	전차종	승용차
대한민국	12.0(60)	7.9(60)
일 본	49.5(15)	31.3(27)
대 만	19.1(48)	15.1(49)
싱가포르	17.3(53)	11.7(53)
홍 콩	7.8(69)	4.6(70)
미 국	74.6(1)	56.5(1)
영 국	46.5(17)	41.0(17)
캐 나 다	62.2(3)	48.7(4)
프 랑 스	50.8(13)	42.0(14)
독 일	52.3(11)	48.7(4)
이탈리아	55.8(8)	51.0(2)

주 : ( )내는 국가별 순위



이산화탄소 방출량 규모도 세계 14위 수준으로 지적

○ 대기 온실효과를 일으키는 **이산화탄소(CO_2) 방출량**은 '91년 현재 미국이 1,346백만톤으로 세계 1위 방출국이고, 2위는 구소련(977백만톤), 3위는 중국 694(백만톤), 4위는 일본(298백만톤), 5위는 독일(265백만톤) 등 순이다. 우리나라도 72백만톤을 방출하여 세계 14위 방출국으로 지적되고 있다.

한편 오존층의 파괴물질로서 냉매, 에어로졸 분사제, 발포제, 화재진압용 소화제 등으로 널리 쓰이고 있는 **염화불화탄소(CFCs) 및 하론(Harons)의 1인당 소비량**은 '90년 현재 0.39kg으로 세계 평균 0.72kg의 절반정도에 불과하나 통계수치가 발표된 82개국 중에서 23위 정도 순이다. 가장 많이 소비하는 나라는 싱가포르(1.44kg)이고, 영국(1.27kg), 프랑스(1.12kg), 독일(1.19kg), 네덜란드(1.18kg), 아랍에미리트(1.18kg), 이스라엘(1.16kg), 미국(0.88kg), 일본(0.97kg) 등이 다소비국으로 지목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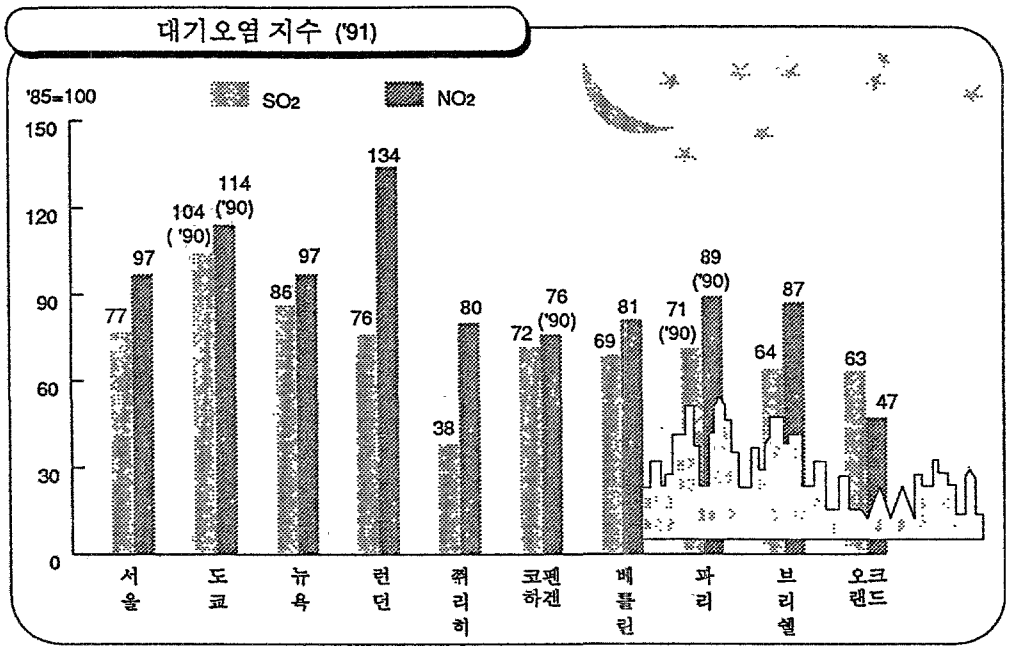
우리나라의 식수와 위생시설은 크게 양호한 것으로 평가

○ **안전한 물**(상수도 및 오염이 되지 않은 물)을 마실 수 있는 비율은 약97%, 화장실 등 **위생시설 확보율**은 거의 100%로 평가되어 이 부문에서는 아주 양호한 것으로 발표되어 있다. **폐지 재생률**은 73.9%로 비교적 양호한 점수를 받고 있는 반면, **알루미늄 재생률**은 5.6%로 낮은 점수를 받고 있다.

아황산가스 농도는 선진제국보다 3~5배나 많은 수치

○ 주로 산업부문과 발전부문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로 유류사용시 발생하며 산성비의 주요인이 되고 있는 **아황산가스(SO_2) 농도**는 우리나라 서울의 경우 '91년 현재 123.2㎍/㎥로 '85년에 비해 큰 폭으로 줄어들긴 하였으나, 일본 토쿄 26.0㎍/㎥, 미국 뉴욕 36.7㎍/㎥, 영국 런던 31.9㎍/㎥, 그리스 아테네 45.3㎍/㎥, 스위스 취리히 19.0㎍/㎥, 독일 서베를린 46.2㎍/㎥, 프랑스 파리 38.3㎍/㎥('90년), 벨기에 브뤼셀 25.0㎍/㎥ 등 보다도 3~5배 높다.
또한 주로 경유를 사용하는 수송 및 산업부문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로 산성비의 원인이 되는 **이산화질소(NO_2) 농도**는 서울의 경우 '91년 현재 94.2㎍/㎥로, 토쿄 43.0㎍/㎥, 뉴욕 76.1㎍/㎥, 런던 81.7㎍/㎥, 아테네 64.7㎍/㎥, 츄리히 48.0㎍/㎥, 서베를린 34.0㎍/㎥, 브뤼셀 45.2㎍/㎥ 등 보다도 높은 오염도를 나타내고 있다.

○ **하수처리시설 이용인구 비율**은 '90년 현재 39.3%로 OECD국가 평균인 63.0%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인구 10만명당 도로 교통사고 사망자수 세계 11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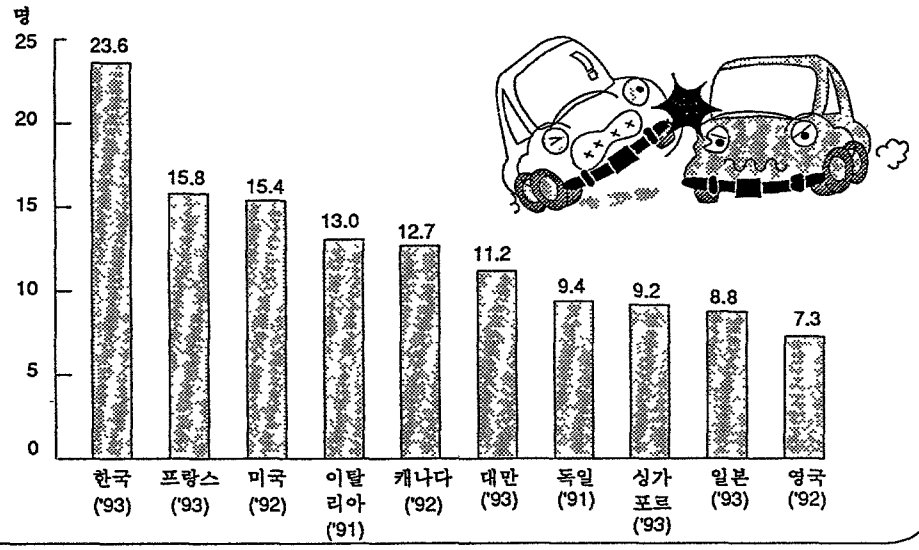
○ **인구 10만명당 도로 교통사고 발생건수**는 '93년 현재 592.2명으로 교통사고 통계가 발표된 100개 국가중 7위이고, **인구 10만명당 도로 교통사고 사망자**는 23.6명으로 11위로 발표되어 있다. 그러나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수(10만명당)중 일본은 8.8명으로 66위, 미국은 15.4명으로 29위, 캐나다는 12.7명으로 37위, 오스트리아는 16.4명으로 26위, 벨기에는 18.8명으로 18위 등으로 교통사고 발생이 많은 선진국들도 사망자수 비율은 우리나라보다 훨씬 낮게 나타나고 있다.

< 인구 10만명당 도로 교통사고 >

(건, 명)

	사고 발생건수		사망자수	
1	코스타리카	1,287.9	헝 가 리	43.5
2	쿠웨이트	957.0	스와질랜드	29.4
3	미 국	882.3	오 만	28.6
4	오스트리아	708.1	마케도니아	26.5
5	말레이시아	630.9	아랍에미리트	26.5
6	캐 나 다	627.5	이 라 크	26.4
7	대한민국	592.2	남아프리카공화국	25.5
8	벨 기 에	583.1	라트비아	25.1
9	일 본	579.9	말레이시아	24.2
10	아랍에미리트	575.6	리투아니아	23.7
11	요 르 단	558.5	대한민국	23.6

인구 10만명당 도로교통사고 사망자수



14. 보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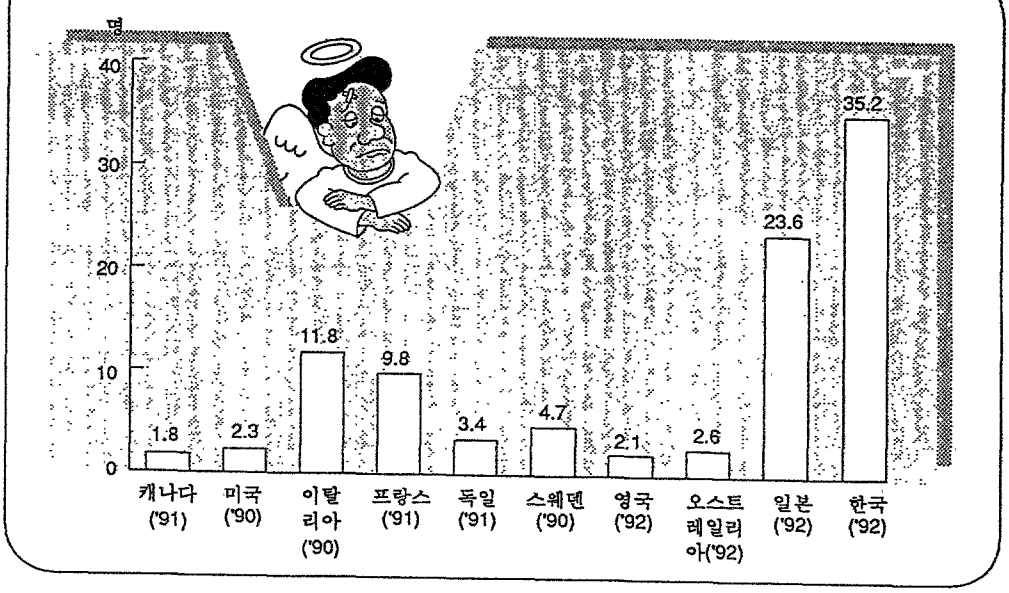
의사비율은 선진국들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

○ 인구 10만명당 의사비율은 '93년 현재 117명으로 이탈리아 475명, 벨기에 336명, 그리스 320명, 프랑스 300명, 스페인 382명, 스웨덴 253명, 캐나다 224명, 일본 175명 등과 비교해 매우 낮은 수준이다.

44개국가 중 간암사망률 남녀 각각 1위, 여자의 교통사고 사망률도 세계 1위 불명예

○ WHO에서 사망원인별 사망자수를 파악한 44개 국가별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사람들의 간암으로 인한 사망률은 남녀 각각 세계 제 1위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위암 사망률은 남자 3위, 여자 4위로, 고혈압성 질환 사망률은 남자 6위, 여자 7위로, 만성 간질환 사망률은 남자 3위, 여자 11위로 나타나고 있으며, 교통사고 사망률은 남자 3위, 여자 1위로 나타나고 있다. 반면에 심장병, 뇌혈관 질환, 동맥경화, 위 십이지장궤양, 폐암, 당뇨, 기관지염 등으로 인한 사망률은 비교적 낮았다.

인구 10만명당 간암에 의한 남자사망률



< 남자 사망원인별 사망률(1992) >

(남자 10만명당)

	간암		위암		고혈압성 질환		만성 간질환		교통사고	
1	대한민국	35.2	일 본	50.3	루마니아	78.2	헝 가 리	104.5	라트비아	65.4
2	홍 콩	29.3	러 시 아	43.0	헝 가 리	39.3	루마니아	50.1	리투아니아	48.6
3	일 본	23.6	대한민국	37.2	푸에르토리코	36.9	대한민국	45.8	대한민국	47.1
4	헝 가 리	12.5	포르투갈	36.5	불가리아	33.1	오스트리아	41.6	포르투갈	46.1
5	이탈리아	11.8	리투아니아	34.4	트리니다드토바고	28.9	포르투갈	40.6	러 시 아	42.6
6	프 랑 스	9.8	헝 가 리	34.0	대한민국	26.1	푸에르토리코	36.7	키르키스스탄	38.0
7	폴 란 드	7.0	불가리아	32.7	이탈리아	19.5	이탈리아	34.8	카자흐스탄	35.5
8	스 페 인	5.6	라트비아	32.2	모리셔스	18.1	멕 시 코	33.9	헝 가 리	34.5
9	싱가포르	5.4	이탈리아	28.6	폴 란 드	16.5	독 일	33.1	그 리 스	34.1
10	아르헨티나	5.3	카자흐스탄	26.3	홍 콩	15.7	모리셔스	32.0	스 페 인	32.2

주 : ·자료연도는 국가별로 다소 다름

< 여자 사망원인별 사망률(1992) >

(여자 10만명당)

	간암		위암		고혈압성 질환		만성 간질환		교통사고	
1	대한민국	11.8	러 시 아	30.3	루마니아	107.0	헝 가 리	39.1	대한민국	17.4
2	홍 .콩	9.2	일 본	27.9	헝 가 리	61.7	루마니아	28.6	라트비아	16.2
3	일 본	7.8	라트비아	25.7	불가리아	36.0	이탈리아	19.2	리투아니아	15.0
4	폴 란 드	7.7	대한민국	23.8	이탈리아	33.0	오스트리아	17.6	룩셈부르크	12.5
5	헝 가 리	7.6	포르투갈	23.0	트리니다드토바고	31.7	독 일	16.5	뉴질랜드	12.0
6	이탈리아	5.1	리투아니아	21.8	푸에르토리코	31.5	포르투갈	15.1	헝 가 리	11.9
·7	아르헨티나	4.8	헝 가 리	21.2	대한민국	29.2	룩셈부르크	13.0	포르투갈	11.4
8	핀 란 드	4.5	독 일	20.8	독 일	25.2	스 페 인	11.9	러 시 아	11.3
9	스 웨 덴	3.5	불가리아	20.3	스 위 스	23.5	체 코	10.8	미 국	11.1
10	체 코	3.2	오스트리아	19.8	폴 란 드	22.5	대한민국	10.3	그 리 스	10.3

주 : ·자료연도는 국가별로 다소 다름

GDP대비 보건의료비지출은 선진제국들의 하위수준과 비슷

○ WHO자료에 의하면 '90년 현재 우리나라 **보건의료비지출**은 15,634백만불로 GDP대비 6.6%에 해당한다.

< 보건의료비 지출 >

	GDP대비 보건의료비 지출비중(%)	1인당 보건비 지출(불)
대한민국	6.6	365
일 본	6.5	1,538
미 국	12.7	2,765
캐 나 다	9.1	1,945
프 랑 스	9.4	1,869
독 일	8.7	1,511
이탈리아	7.5	1,465
스 웨 덴	8.8	2,343
영 국	6.1	1,039
호 주	7.7	1,294
대 만	4.3	323
싱가포르	1.9	215
홍 콩	5.7	68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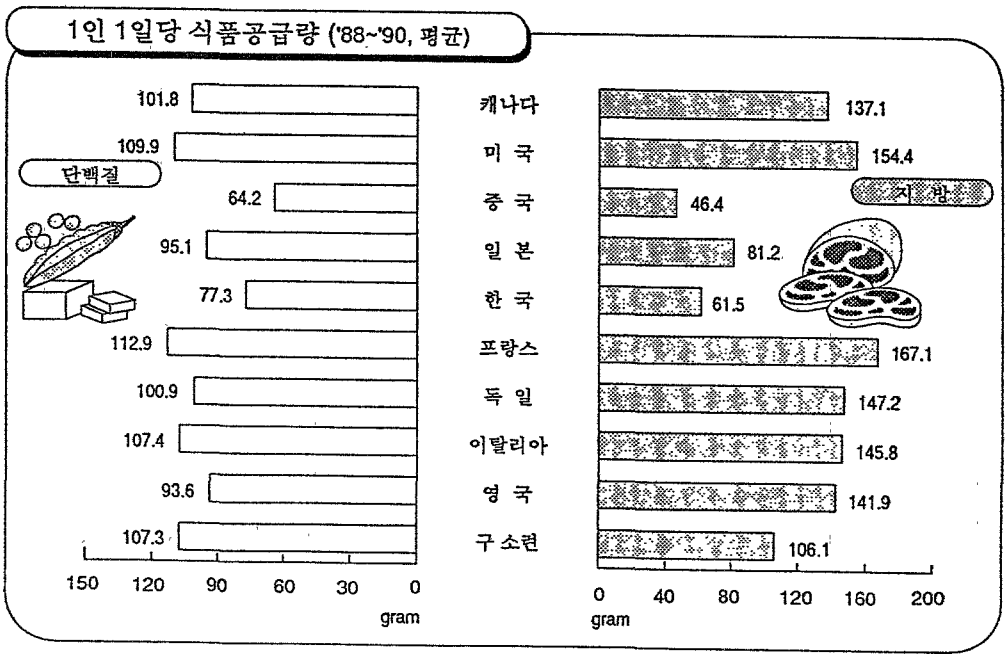
선진제국의 경우 미국이 GDP대비 12.7%를 보건의료비로 지출하는 것을 비롯, 프랑스 9.4%, 캐나다 9.1%로부터 일본 6.5%, 덴마크 6.3%, 영국 6.1% 등까지 다양하다. 우리나라는 23개 선진국들의 하위수준과 비슷하다. **1인당 보건의료비지출**은 365불로 선진제국들에 비해 크게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 **1인 1일당 식품공급량**을 보면 88~90년 평균 열량은 2,826㎉로 이중 2,452㎉가 식물성이고 374㎉가 동물성이다. 서구 선진국들이 25%~40% 가까운 열량을 동물성 식품에서 섭취하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우리나라의 경우 동물성 식품 열량 비중은 15% 정도에 불과하다.
단백질 섭취량은 서구 선진제국들의 70%~88%선, 지방 섭취량은 50%~40% 수준에 불과하다.

< 1인 1일당 식품 공급량('88~'90평균) >

	열량(㎉)	동물성 열량(㎉)	단백질(g)	지방(g)
대한민국	2,826	374	77.3	61.5
일 본	2,921	616	95.1	81.2
싱가포르	3,121	756	87.7	79.4
미 국	3,642	1,107	109.9	154.4
영 국	3,270	1,108	93.6	141.9
프 랑 스	3,435	1,338	108.3	153.3
독 일[1]	3,472	1,251	100.9	147.2
이탈리아	3,498	898	107.4	145.8
스 웨 덴	2,978	1,095	94.7	126.6
호 주	3,088	1,182	95.6	124.1

주 : 1) 서독



15. 과학기술 · 기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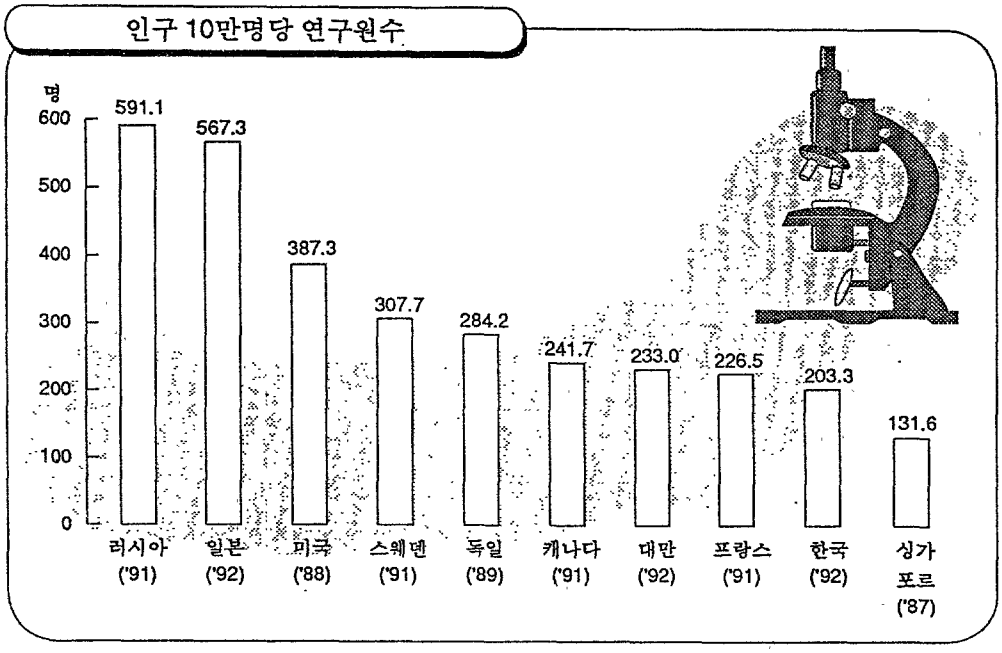
과학기술 연구원수는 103개국 중 10위, 인구 10만명당으로는 22위 수준

○ 실험 및 연구실에 종사하는 **과학기술 연구원수**는 '92년 현재 88,764명으로 통계자료가 나타난 103개국중 10위에 속한다. 연구원수가 가장 많은 나라는 중국(1,335천명)이고, 다음이 미국(949천명), 러시아(879천명), 일본(705천명) 순이다.

< 과학기술 연구원수 >

(명)

총수			인구 10만명당		
1	중 국 ('92)	1,335,336	1	구 동 독 ('89)	766.4
2	미 국 ('88)	949,200	2	러 시 아 ('91)	591.1
3	러 시 아 ('91)	878,500	3	일 본 ('92)	567.3
4	일 본 ('92)	705,346	4	이스라엘 ('84)	483.3
5	우크라이나('89)	348,600	5	불가리아 ('92)	422.0
6	구 서 독 ('89)	176,401	6	구체코슬로바키아('89)	418.7
7	프 랑 스 ('91)	129,215	7	미 국 ('88)	387.3
8	인 도 ('90)	128,036	8	라트비아 ('92)	339.5
9	구 동 독 ('89)	127,449	9	노르웨이 ('91)	315.8
10	대한민국 ('92)	88,764	22	대한민국 ('92)	203.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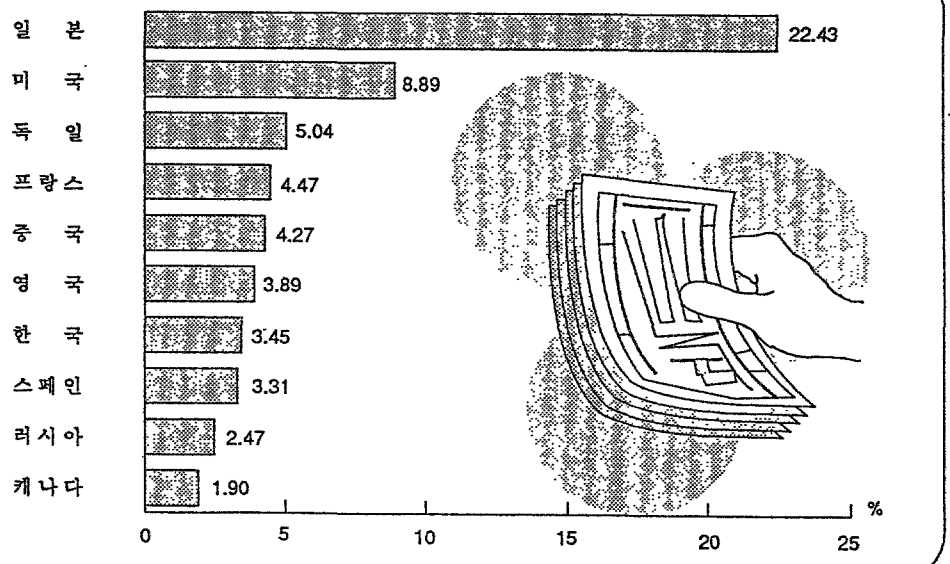
인구 10만명당 연구원수는 203.3명 수준으로 세계 22위에 속한다. 인구 10만명당 연구원수로 따져 구동독이 766.4명('89년)으로 가장 많았으며, 2위 러시아(591.1명), 3위 일본(567.3명), 4위 이스라엘(483.3명 : '84년) 등 순이었다.

산업재산권 출원은 세계 7위, 등록은 세계 8위 수준

○ '92년 현재 각국별로 집계한 **산업재산권(특허, 실용신안, 의장, 상표)출원건수**는 모두 3,700.5천건, 이중 우리나라에서는 127.8천건을 출원받아 세계 총 출원건수의 3.5%를 차지하여 세계 7위 수준이다. 이중 **특허출원건수**는 31.1천건으로 세계 특허출원건수 1,873.3천건의 1.7%정도에 해당하여 세계 112개국 중 19위를 점하고 있다.

한편 **산업재산권 등록건수**는 세계 총 1,935.7천건 중 우리나라는 62.3천건을 등록하여 세계 총 등록건수의 3.2%를 차지하여 세계 8위 수준이고, **특허등록건수**만으로는 세계 501.3천건중 10.5천건을 점유하여 1.8%수준으로 세계 16위선이다. 일본의 경우는 세계 산업재산권 출원 1위(세계 총 건수의 22.4%), 특허출원건수 1위(세계 총 건수의 20.6%)를 기록하고 있고, 산업 재산권등록에 있어서도 총 등록건수 1위(세계 총 등록건수의 59.5%), 특허 등록건수 2위(세계 특허등록건수의 15.6%)를 차지하고 있다.

산업재산권 출원 세계시장 점유율 ('92)



< 산업재산권 출원·등록(1992)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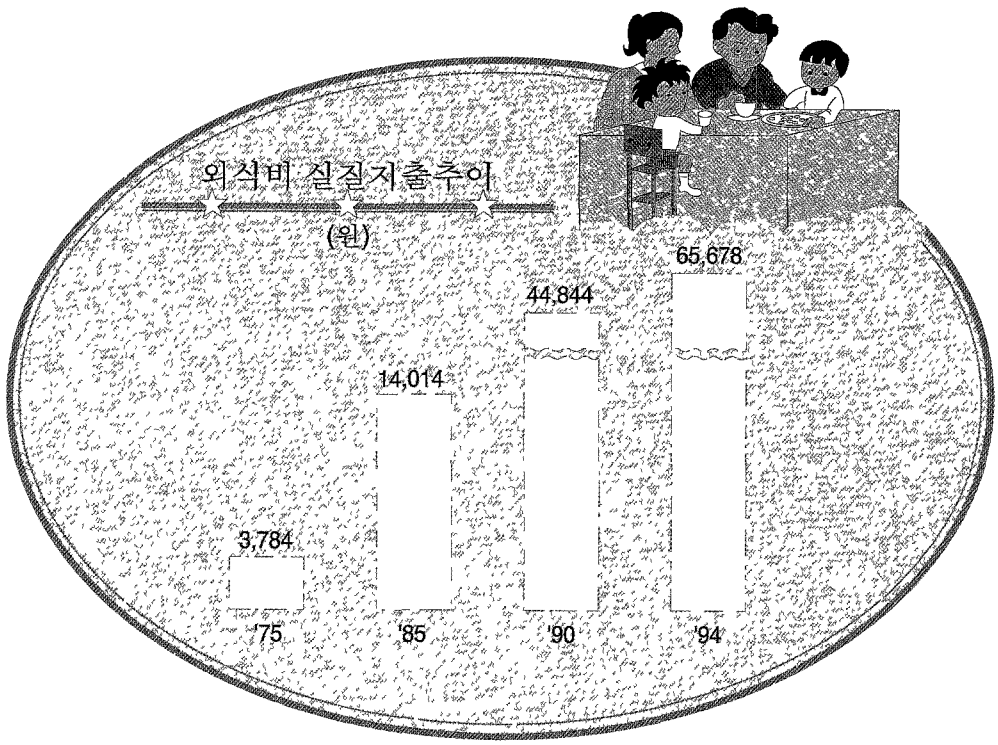
(건)

	출 원		등 록	
	계	특 허	계	특 허
대한민국	127,810(7)	31,073(19)	62,305(8)	10,502(16)
일 본	829,955(1)	385,173(1)	351,701(1)	92,457(2)
싱가포르	11,353(47)	1,354(52)	5,075(48)	1,281(34)
미 국	328,847(2)	187,932(2)	187,546(2)	98,104(1)
영 국	143,970(6)	99,735(4)	81,557(6)	38,245(5)
독 일	186,536(3)	116,285(3)	144,927(4)	47,111(3)
프 랑 스	165,228(4)	83,051(5)	156,285(3)	38,781(4)
이탈리아	95,751(9)	64,960(7)	60,120(9)	27,331(7)

주 · · ( )내는 국가별 순위

통계로 본
광복이후 한국인의 문화생활 변천

2002 2002 2002



『외식비에 대한 실질지출액은 '75년 3,784원에서 '94년 65,678원으로 17배 이상 증가하였는데 이와 같은 현상은 가구의 유형이 점차 핵가족화 되고 맞벌이 가구가 증가하는등 사회적 여건이 변화하여 외식이 여가문화의 일종으로서 자리잡고 있음을 보여준다.』

- 본문중에서 -

통계로 본

「광복이후 한국인의 문화생활변천」

1995. 8

통계조사국 사회통계과

Ⅰ. 문화생활의 개념과 분류체계

1. 문화생활의 개념과 범위

가. 문화생활의 개념과 분석내용

○ '문화'라고 하는 것은 한 마디로 정의하기가 매우 어렵고, 정의하기에 따라서 그 범위의 폭은 다양해질 수 있음.

- 여기서는 기본적으로 문화의 개념을 협의로 규정하여 일을 하는 사람이 비노동시간에 독서, 여행을 하거나 영화를 보는 등 구속적 성격을 띠지 않는 활동, 소위 선택적으로 여가활동을 하는 것을 문화생활로 보았음.

○ 이와 같은 문화생활의 개념에 입각하여 이용가능한 문화생활관련 통계자료를 중심으로 분석내용을 크게 보아 두 가지로 구성하였음.

- 첫번째로는, 문화생활관련 분야의 분석을 다음과 같이 셋으로 나누어 각 분야별로 시계열로 통계자료의 수집이 가능한 지표항목들을 중심으로 문화생활의 변화를 살펴 보았음.
  - 영화, 연극, 출판, 독서, 여행 등 문화활동 추이
  - 도서관, 박물관, 공원 등 문화시설 및 문화공간의 추이
  - 문화생활의 수단으로서의 문화관련용품 보급 추이
- 두번째로는, 가구의 문화생활관련 소비지출의 변화를 분석함으로써 국민들의 여가문화생활이 가계소비지출을 통하여 시대적 사회환경에 따라 어떻게 변해왔는가를 살펴 보았음.
  - 분석자료로는 각 연도의 「도시가계조사」자료('63~'94년)를 이용하였음.
  - 분석의 편의를 위해 「도시가계조사」의 소비지출대상 품목중 문화생활과 관련이 있다고 간주되는 품목(교양오락, 외식, 이미용 및 장신구, 음주, 담배)을 임의로 선정하여 그 품목들에 대한 지출을 문화생활관련비용으로 정의하였음.

나. 문화생활의 포괄범위 한계

○ 국민들이 향유하고 있는 문화생활중에는 본 분석을 위하여 선정된 부문 이외에도 다양한 문화관련 부문이 있을 것이나, 여기서는 일차적으로 이용가능한 실증적 통계를 중심으로 하여 지표화될 수 있는 문화생활부문만을 포함하였음.

-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은 부문은 통계자료의 계량화가 곤란하거나 자료수집에 어려움이 있어 분석대상에서 불가피하게 제외되었음.
  - 미술, 음악, 무용 등 순수예술활동
  - 스포츠, 놀이문화
  - 전통적인 문화예술
  - 자연속에서의 놀이 및 여가문화
  - 서울랜드 등 오락시설
  - 여행비 등 일부 문화생활관련 소비지출항목

○ 또한 여기에서 선정된 문화생활부문에 있어서도 기존통계의 미비로 시계열적 통계자료가 완전히 제공되지 못하는 경우도 있음.

2. 분류체계

○ 위의 문화생활의 개념과 범위하에서 분석이 이루어졌으며 통계의 편의상 설정된 각 분야별 구체적인 세부 지표항목들은 다음과 같음.

영 역	분 야	지 표 항 목
1. 문화활동	영 화	○ 한국영화 제작편수 ○ 극장수 ○ 1인당 연평균 영화관람횟수 ○ 방화 및 외화점유율 ○ 영화관람요금
	연 극	○ 연극공연건수 ○ 연극공연 관객수

영 역	분 야	지 표 항 목
	출판 및 독서	○ 출판사수 ○ 서점수 ○ 도서발행종수 ○ 도서발행부수 ○ 독서인구 비율 ○ 서적보유가구 비율 ○ 정기간행물수 ○ 신문·잡지 구독률
	여 행	○ 국내관광여행비율 및 1인당 연평균 여행횟수 ○ 해외관광여행비율 및 인구만명당 여행자수
2. 문화시설 및 공간	도 서 관	○ 도서관수 ○ 인구만명당 좌석수 ○ 인구만명당 장서수 ○ 인구만명당 이용자수
	박물관 및 지정문화재	○ 인구만명당 박물관 관람객수 ○ 박물관 관람객의 내국·외국인 비율 ○ 국가지정문화재수
	공 원 휴 양 지	○ 국립공원수 및 면적 ○ 인구만명당 국립공원 탐방객수 ○ 도시공원수 및 1인당 도시공원 면적 ○ 지역별 관광휴양지수 및 면적 ○ 해수욕장 관광지수
3. 문화관련 용품	승용차 및 전화	○ 자가용 1대당 인구수 ○ 인구100명당 가정용 전화가입자수
	문화용품	○ 라디오보급률 ○ TV보급률 ○ VTR보급률 ○ 전축보급률 ○ 냉장고보급률 ○ 세탁기보급률 ○ 피아노 및 올갠 보급률
4. 문화생활 관련 소비지출	교양·오락및 신문·도서	○ 명목·실질금액, 문화비구성비, 배율('75년기준)
	외 식	○ 명목·실질금액, 문화비구성비, 배율('75년기준)
	담배및음주	○ 명목·실질금액, 문화비구성비, 배율('75년기준)
	이미용·장신구	○ 명목·실질금액, 문화비구성비, 배율('75년기준)

Ⅱ. 문화생활의 시대적 변천 양상(요약)

1. 해방이후 '60년대까지 : 기본적 성격의 문화생활

○ 해방이후 경제성장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기 전인 '60년대까지만 해도 먹고사는데 급급했던 한국인들에게는 일상생활속에서 일 이외에는 여유가 별로 없었고, 여가나 문화생활의 개념이 거의 없었던 세대들이었음.

- 당시의 소비생활 측면을 보면, '63년에만 보더라도 소비지출중 식료품비의 비중이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문화비 비중은 10.1% 정도에 불과함.
  - 또한 '65년에 문화생활관련지출중에서 담배값(36.5%), 이미용비(28.2%)가 당시 문화생활관련비의 반 이상을 차지하였는데, 별다른 문화활동이나 시설이 없었던 '60년대까지만 해도 담배를 피우거나, 목욕탕에 가는 일, 이발소·미장원에 가는 일이 문화생활의 성격을 띤 활동으로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였음을 알 수 있음.
  - 당시만 해도 우리나라 국민들은 일 이외의 여가를 즐길만한 경제적 여유가 없었고 또한 문화생활을 위한 선택의 폭도 다양하지 못했기 때문에 요즈음에는 일상생활에서 기본적이며 대중적으로 간주되고 있는 활동들이 그 당시에는 문화성격을 가진 활동의 일부로 간주되었던 것임.
- 문화생활 매체로서는 라디오와 영화가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였는데 집안에서는 라디오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큰 낙이었으며, 집 밖에서는 기껏해야 영화를 보러 가는 것이 문화생활의 전부였음.
  - 라디오의 보급률은 '59년 당시 0.8%였던 것이 '61년 14.7%, '70년에는 69.0%로 나타나 '70년대 이전에 이미 라디오가 각 가정에 많이 보급되어 있었음을 보여줌.
  - 영화는 '60년대, '70년대 초반까지 가장 보편적인 대중문화로서 전성기를 구가하였으며, 그 당시 영화제작편수만 보더라도 '66~'70년 기간동안만도 958편으로 최고수준에 달하였으며, 1인당 연평균 영화관람횟수도 5~6회로 나타났음.(그러나 '70년대 이후 TV의 보급과 '80년대 후반 이후 VTR의 보급으로 영화인구가 대폭 감소하여 최근 '93년에는 1인당 연평균 영화관람횟수가 1회정도에 불과함.)

2. '70년대 : TV 등 전자제품의 보급으로 인한 문화생활 형태의 변화

○ 소득향상에 따라 어느정도 경제적인 여유가 생기면서부터 국민들의 욕구가 기본적인 것에서 벗어나 교양·오락이나 여가에 대한 관심과 욕구가 표출되기 시작하였는데 그 시점은 대체적으로 '70년대 중반부터인 것으로 볼 수 있음.

○ '70년대 초반까지는 라디오청취, 영화관람이 주된 문화생활이었으나, '60년대 후반까지 3개 TV 방송국이 연이어 개국함으로써 '70년대 중반이후부터 TV의 보급이 본격화되었고, 국민들의 여가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국민생활에서 문화생활이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커지게 됨.

- TV가 우리나라 사람들의 문화생활에서 차지하는 몫은 상당히 컸음. '70년대 이전만 해도 TV 보급률이 10%에도 미치지 못하던 것이 '75년에는 30.7%, '85년에는 99.1%로 크게 증가하여 '70년대 중반이후 가장 보편적인 대중문화의 매체가 되었음.

○ 가구의 선택적인 소비지출인 문화생활관련 소비지출의 변화를 보면 '70년대에 들면서 문화비지출 구조가 크게 변화하였음을 알 수 있음.

- 특히 교양·오락을 위한 가구의 소비가 상대적으로 대폭 증가하여 '70년대 들면서 TV 등 교양·오락과 관련한 용품들이 보급되면서 교양·오락 활동이 다양해지고 있음을 보여줌.
  - 문화생활관련 소비지출중 교양·오락비의 비중을 보면 '65년 당시에는 5.7%이었으나, '70년대 중반들어 크게 증가해 '75년에는 23.9%를 차지하였음.
- 그 외에도 음주를 위한 지출이 문화생활관련비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대로 진입하면서 지속적인 증가를 보임.
  - 이는 한국인의 여가생활에서 음주가 차지하는 비중이 그만큼 크다는 것을 말해줌.
  - 음주문화는 한국인의 독특한 문화형태로 볼 수 있는데, 이는 최근에 오면서 여가문화가 점차 개인 및 가족화되어가는 추세와는 대조적으로, 현대사회에서도 정서적 동질감을 구하고자 하는 한국인 특유의 공동체적 사회여건하에서 음주문화가 문화활동의 일부로서 발전해 온 사실을 뒷받침해 줌.

3. '80년대 : 여가의 대중화와 문화활동의 다양화

○ '70년대가 TV 등 문화생활매체의 발전과 보급이 본격화되면서 여가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커지고, 실제적으로 문화활동이 늘어나기 시작한 시대였다면, '80년대이후는 여가의 증대와 여가문화의 대중화·다양화가 이루어진 시기로 구분해 볼 수 있음.

○ '70년대까지만 해도 TV나 라디오, 영화 등에 국한되던 여가활용에서 '80년대에 들면서는 다양한 문화관련용품의 보급에 따라 여가활동이 다양화되기 시작하였음.

- 우선 세탁기, 냉장고 등 전기·전자제품 보급의 대중화로 일상생활이 더욱 간편해짐에 따라 사람들, 특히 주부들의 여가가 크게 증대되었으며, '일중심'에서 '여가중심'으로 생활가치관의 변화가 실질적으로 나타나고 있었음.
  - 냉장고, 세탁기는 '80년대 후반에 들어서 보급률이 크게 증가하여 냉장고는 '91년 가구보유율이 99.1%로 모든 가구가 소유하고 있으며, 세탁기도 '91년 80.9%의 높은 보급률을 보임.
- TV, 오디오, 비디오, 컴퓨터 등 개인용 기기의 보급이 보편화되면서, 가정이 여가활동을 하는 중요한 장소로 대두되었음.
  - '80년 8월 칼라TV 시판실시, '80년 12월 칼라TV 방송실시에 따른 방송매체의 질적인 변화로 인해 TV의 보급이 더욱 확산되었으며, TV보급률이 '91년 99.9%로 모든 가구가 TV를 보유하게 되었음.
  - VTR은 비교적 최근에 많이 보급되고 있는 문화용품으로 '85년만 해도 보급률이 4.1%에 불과하였으나, '91년 현재 50.1%로 급격한 증가를 보임.
  - 전축 등 오디오제품도 '70년대만해도 10%전후의 보급률을 보였으나, '90년대에는 35%정도로 보급률이 증가하고 있음.
  - 피아노·올갠은 다른 문화용품에 비해 가구 보급률이 높지 않으나 '70년대만해도 1%대에 불과하던 것이 '91년에는 10.7%로 크게 증가하고 있음.

○ 인쇄매체의 발달로 출판문화가 양적·질적 성장을 보이면서 여가활용을 위해 독서를 하는 인구가 크게 늘어났음.

- 출판사수와 서점수가 크게 증가하여 잠재적인 독서인구의 확대를 가져왔음.
  - 출판사수의 추이는 '75년 1,076개에 불과하던 것이 '94년에 10,325개로 10배 가까이 증가하였고, 서점수도 '76년 3,061개에서 '94년 5,683개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
- 여러 계층의 독서인구가 늘어나면서 도서의 종류도 다양해져 '47년에 1,028종에 불과하던 것이 '75년에는 9,225종, 80년대 들어 3만종을 넘어섰고, 발행부수도 1억부를 넘어 섰음.
- '80년대 후반에 들면서 도서관, 도서관시설 등 문화시설·공간이 늘어났고 또한 여가활용방법으로서의 독서가 더욱 보편화되고 있음.
  - 공공도서관수는 '57년 당시에는 59개였으나, '80년대 들면서 크게 늘어 '85년 388개, '93년에는 688개로 도서관수가 증가하고 있음.
  - 도서관시설도 크게 확충되어 '80년 이전에는 인구만명당 좌석수가 10개가 채 안되던 것이 '85년 20.5개, '93년에는 41.5개로 좌석수가 크게 늘어났음.
  - 장서수도 '80년대 들면서 인구만명당 1,000권대로 넘어서 '85년에는 2,215권, '93년에는 4,135권으로 크게 증가하였음.
- 실제로 독서를 하며 여가를 활용하는 인구의 증가를 통계로 보면,
  - '80년대 이후 독서인구의 비율도 꾸준한 증가를 보여 '92년에는 15세이상 인구중 64.1%가 독서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들이 읽는 연평균 독서량도 '84년 당시 6.9권에서 '92년 14.3권으로 크게 늘고 있음.

4. 최근 : 자가용 보급의 확대와 옥외 여가활동의 증대

○ '80년대말 이후 국민의 여가생활에서 특징적인 것으로 자가용승용차 보급의 증가, 외식과 국내여행 등 옥외 여가활동의 증대, 해외여행의 증대 등을 열거할 수 있음.

- 소득향상, 핵가족화와 맞벌이 가구의 증대, 자가용 보급 등에 따라 가족단위 외식의 증가가 두드러짐.
  - 문화생활관련 소비지출 중 외식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80년대 들어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94년에는 44.8%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외식을 위한 실질 지출액도 '75년 이후 17배 이상의 높은 증가를 보임.
- 국내관광여행도 크게 늘어났으며, 점차 여가나 휴가를 이용하여 국내관광여행을 즐기는 국민들이 늘어나는 것은 문화 혹은 여가시설이나 공간이 과거에 비해 상당히 늘어나고 있는 점과 무관하지 않을 것임.
  - 1년동안 국내관광여행을 한 인구의 비율을 보면 '84년 67.2%에서 '93년 93.2%로 증가하여 최근에는 거의 모든 국민이 국내여행을 즐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1인당 연평균 국내관광 여행횟수는 '84년 2.0회에서 '94년 들어 4.8회로 증가하였고, 특히 승용차보급의 증대에 따라 '90년대 들어 당일치기 여행이 크게 늘어나고 있음.
  - 박물관을 찾는 관람객수도 '75년에 인구만명당 378명이었으나 '93년에는 976명으로 국민 10명중 1명 이상이 박물관을 찾고 있음.
  - 국립공원수는 '75년 당시 12개에서 '93년 20개로 증가하였고, 국립공원을 찾는 관광객수도 '80년 인구만명당 2,753명에서 '93년 7,355명으로 증가하고 있음.
  - 관광휴양지수는 '85년 77개소에서 '93년 185개소로 증가하였음. 이중 관광지로 지정된 해수욕장수만해도 '69년 당시에는 1개소 밖에 없던 것이 '85년 17개소, '93년에는 29개소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

- 해외관광여행자수도 '88올림픽 개최와 '89년 해외여행 자유화 조치 이후 크게 증가하고 있음.
  - 해외관광여행자수는 '83년 당시에만 해도 2,443명으로 전체 해외여행자수의 0.5%에 불과하였으나, '89년 이후 크게 늘어나 '94년 현재 백만명이 넘어선 1,290,123명으로 전체 해외여행자수의 거의 절반에 달하는 40.9%를 차지함.
  - 인구만명당 해외관광여행자수도 '85년 0.4명에서 '94년 290.2명으로 증가해 소득수준이 크게 향상되면서 여가나 휴가를 이용하여 해외로 나가는 사람들이 늘고 있음을 보여줌.

〈문화생활관련 주요지표〉

	'45	'55	'65	'75	'85	'94	비고
〈문화활동〉							
○ 한국영화제작편수	5	15	189	83	80	63[1]	1) '93
○ 극장수	-	111	529	597	561	640[1]	1) '93
○ 1인당 연평균 영화관람횟수	-	-	4.3	2.2	1.2	1.1[1]	1) '93
○ 출판사수	-	-	-	1 076	2 665	10 325	
○ 서점수	-	-	-	3 061[1]	3 738	5 683	1) '76
○ 도서발행종수	1 028[1]	1 308	3 188	9 225	33 743	29 564	1) '47
○ 도서발행부수(천부)	-	-	5 048[1]	24 418	114 971	152 326	1) '68
○ 독서인구비율	-	-	-	-	56.1[1]	64.1[2]	1) '84 2) '92
○ 정기간행물수	247[1]	465[2]	669	1 201	1 911	8 724	1) '47
· 일간	56[1]	43[2]	39	37	30	126	2) '56
· 주간	53[1]	119[2]	104	114	158	2 561	
· 월간	123[1]	224[2]	352	637	1 027	3 376	
○ 1인당 연평균 국내관광여행횟수	-	-	-	-	2.0[1]	4.8[2]	1) '84 2) '93
○ 인구만명당 해외관광여행자수	-	-	-	-	0.4	290.2	

	'45	'55	'65	'75	'85	'94	비고
《문화시설 및 공간》							
○ 도서관수	29[1]	59[2]	120	259	388	688[3]	1) '48
· 인구만명당 좌석수	-	2.3[2]	4.1	8.7	20.5	41.5[3]	2) '57
· 인구만명당 장서수	-	461[2]	459	760	2 215	4 135[3]	3) '93
· 인구만명당 이용자수	-	-	785	2 481	3 916	8 352[3]	
○ 인구만명당 박물관 관람객수	-	-	-	378	837	976[1]	1) '93
○ 국가지정문화재수	-	-	809	1 282	1 948	2 460[1]	1) '93
○ 국립공원수	-	-	-	12	17	20[1]	1) '93
○ 인구만명당 국립공원탐방객수	-	-	-	-	6 477	7 355[1]	1) '93
○ 도시공원수	-	-	-	-	2 558	5 891[1]	1) '93
○ 관광휴양지수	-	-	-	-	77	185[1]	1) '93
○ 관광지 지정 해수욕장수	-	-	-	3	17	29[1]	1) '93
《문화관련용품》							
○ 자가용 1대당 인구수	37 747	8 020	5 212	704	91	9	
○ 인구100명당 가정용 전화가입자수	-	-	0.3	1.5	12.5	31.8	
○ 100가구당 라디오보급률	-	0.8[1]	-	69.0[2]	-	-	1) '59
							2) '70
○ 100가구당 TV보급률	-	-	0.6	30.7	99.1	99.9[1]	1) '91
○ 100가구당 VTR보급률	-	-	-	-	4.1	50.1[1]	1) '91
《문화생활관련 소비지출》							
○ 총 문화생활관련비용(문화비)							
· 배율('75년 기준)	-	-	-	1.00	1.99	8.08	
○ 교양·오락							
· 문화비 구성비(%)	-	-	5.7	23.9	21.9	19.1	
· 배율('75년 기준)	-	-	-	1.00	2.31	10.98	
○ 외식비							
· 문화비 구성비(%)	-	-	11.2	9.9	27.2	44.8	
· 배율('75년 기준)	-	-	-	1.00	3.70	17.36	
○ 담배값							
· 문화비 구성비(%)	-	-	36.5	21.5	8.8	4.0	
· 배율('75년 기준)	-	-	-	1.00	1.14	2.51	
○ 음주관련비용							
· 문화비 구성비(%)	-	-	5.6	10.5	13.0	11.8	
· 배율('75년 기준)	-	-	-	1.00	3.15	11.94	
○ 이미용비							
· 문화비 구성비(%)	-	-	28.2	22.1	17.4	13.4	
· 배율('75년 기준)	-	-	-	1.00	1.06	3.99	

Ⅲ. 분야별 문화생활의 변천

1. 문화활동

가. 영화

(1) 영화제작편수 추이

○ 영화제작편수를 5년간격으로 살펴보면 '66~'70년 기간중 958편이 제작되어 영화 제작이 활발하게 이루어졌으나 '70년 이후에는 서서히 줄어 들고 있음.

'45~60	'61~65	'66~70	'71~75	'76~80	'81~85	'86~90	'91~93
458편	672편	958편	673편	539편	436편	470편	280편

- 이는 종전에는 영화라는 문화매체가 지금보다 훨씬 대중적인 역할을 하여 왔으나 '70년대 이후 TV, VTR 등 전자제품의 보급으로 영화관 람객수가 감소했기 때문임.

	'70	'75	'80	'85	'90	'91
TV 보 급 률(%)	6.4	30.7	86.7	99.1	97.2	99.9
VTR보급률(%)	-	-	-	4.1	27.8	50.1

○ 영화의 내용별 제작편수를 보면 50년동안 주로 통속, 수사·활극, 시대물, 문예 등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통속영화의 제작편수가 가장 많았음.

〈표 1-1〉 영화제작편수 추이

(단위 : 편)

	합 계	통 속	수사·활극	시 대 물	문 예	계몽·청소년·사 회
1945	5	-	-	-	-	5
1950	5	1	-	4	-	-
1960	87	73	7	3	3	1
1970	209	107	79	17	4	2
1980	91	53	26	4	7	1
1990	111	63	8	3	-	37
1993	63	52	5	1	1	4

자료 : 영화진흥공사, 「한국영화연감」, 「한국영화자료편람」

* 애정물, 희곡, 괴기물은 통속에, 무협은 수사·활극에, 군사·반공은 시대물에, 종교는 계몽·청소년·사회에 포함된 수치임.

(2) 극장수 추이

○ '53년 당시 전국 극장수는 104개소로 그후 계속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다가 '71년에 717개로 정점을 이룬 후 점차 줄어 '93년에는 640개임.

- '80년대 중반에 들어 극장수가 다시 늘고 있는데 이는 기존 도심권의 소극장(300석이하 규모 극장)신설에 기인하는 것임.
  - 소극장은 '82년에 전체 404개 극장중 11개로 2.7%에 불과하던 것이 '82년부터 소극장신고제에 따라 크게 증가하여 '93년에는 640개중 405개로 63.3%를 차지함.

〈표 1-2〉 극장수

(단위 : 개소, %)

	전국극장수	소 극 장		인구십만명당 극 장 수	서울소재극장	비율[1]
		극장수	비 율			
1953	104	-	-	-	-	-
1955	111	-	-	0.5	-	-
1960	273	-	-	1.1	51	18.7
1965	529	-	-	1.8	83	15.7
1970	690	-	-	2.1	114	16.5
1971	717	-	-	2.2	112	15.6
1975	597	-	-	1.7	113	18.9
1980	447	-	-	1.2	91	20.4
1982	404	11	2.7	1.2	82	20.3
1985	561	248	44.2	1.4	159	28.3
1990	789	544	68.9	1.8	211	26.7
1993	640	405	63.3	1.5	152	23.8

자료 : 한국문화예술진흥원「문예연감」, 영화진흥공사「한국영화연감」
주1) 전국극장수중 서울소재극장이 차지하는 비중임.

(3) 영화관람객수 및 영화관람요금

○ 영화관람객수는 '60년대 후반에 가장 많았으며 특히 '69년에 연관람객수가 1억7천300명에 달하여 가장 많은 기록을 보였고, 국민 1인당 연평균 관람횟수가 5~6회로 가장 높게 나타났음.

○ 방화·외화에 대한 선호도를 보면 '60년대에는 한국영화관람객과 외국영화관람객이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 '70년대에 한국영화관람객수가 큰 폭으로 줄어 서울의 총관람객수중 한국영화관람객수의 비율은 '75년에 1/4정도에 불과하였고, 이러한 경향은 '80년대에도 지속되어 전국 영화관람객수의 방화점유율이 '80년 47.3%에서 '93년에는 15.9%로 감소하였음.

〈표 1-3〉 영화관람객수 및 방화·외화 점유율

(단위 : 명, 회, %)

	영화관람객수		방화·외화 점유율[1]		
		1인당연평균관람횟수		방 화	외 화
1966	156 336 340	5.4		41.3	58.7
1967	164 077 224	5.6	서	51.0	49.0
1968	171 341 354	5.7		47.5	52.5
1969	173 043 272	5.6		44.5	55.5
1970	166 349 541	5.3	울	41.6	58.4
1975	75 597 977	2.2		26.2	73.8
1980	53 770 415	1.4	전	47.3	52.7
1990	53 459 280	1.2		20.2	79.8
1993	48 230 788	1.1	국	15.9	84.1

자료 : 영화진흥공사, 「한국영화연감」, 「한국영화자료편람」
주1) 방화·외화점유율은 '66~'75년은 서울지역자료이며 '80년이후는 전국자료임.

○ 영화관람요금추이를 살펴보면, '80년대 이전에는 외국영화관람요금이 한국영화관람요금에 비해 1.2~1.3배 정도 비쌌으나, '90년대에 들어와서는 요금이 같아졌음.

〈표 1-4〉 영화관람요금

(단위 : 원, 배)

연도	방화요금	외화요금	외화/방화	연도	방화요금	외화요금	외화/방화
1965	65	70	1.08	1980	1 500	2 000	1.33
1970	200	250	1.25	1990	4 000	4 000	1.00
1975	500	600	1.20	1994	5 000	5 000	1.00

자료 : 영화진흥공사, 「한국영화연감」

나. 연극

○ 문화예술분야의 전반적인 발전에 따라 매년 연극공연건수도 증가하여 '83년에 283건에서 '89년에 1,205건으로 급격히 증가하였다가 최근에는 감소하는 추세임.

○ 분야별로 연극공연건수를 보면 종래까지는 대체적으로 번역극이 창작극보다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나, '80년대 후반이후 창작극이 번역극보다 높은 비중을 차지함.

○ 전국공연건수중 서울지역 공연건수의 구성비를 보면 '80년대 이후 50% 정도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어 연극활동이 서울지역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음.

〈표 1-5〉 연극공연건수

(단위 : 건, %)

	전국연극							서울지역	
	공연건수	창작극	구성비	번역극	구성비	기 타	구성비	공연건수	구성비
1983	283	143	50.5	140	49.5	-	0.0	139	49.1
1986	409	193	47.2	216	52.8	-	0.0	257	62.8
1987	720	360	50.0	352	48.9	8	1.1	367	51.0
1988	1 191	643	54.0	530	44.5	18	1.5	760	63.8
1989	1 205	694	57.5	495	41.2	16	1.3	578	48.0
1990	727	455	62.6	272	37.4	-	0.0	376	51.7
1991	1 046	506	48.4	519	49.6	21	2.0	-	-
1992	723	396	54.8	309	42.7	18	2.5	-	-

자료 : 한국문화예술진흥원, 「문예연감」
* 전국자료는 '83년이후만 수집가능

다. 출판 및 독서

(1) 출판사의 증가

○ '70년대이후 출판문화의 성장을 출판사수에 관한 자료를 통해 보면 '70년에 1,016개소에 불과하던 것이 '94년에 10,325개소로 '70년에 비하

여 10.2배가 증가하여 인쇄매체의 발달로 독서대중화를 위한 기반조성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줌.

	'70	'75	'78	'81	'85	'90	'94
전국출판사수	1,016	1,076	1,920	2,176	2,665	5,704	10,325

○ 전국 출판사중 서울 출판사의 비중을 보면 '78년 91.1%에서 '94년 77.0%로 감소 추세에 있으나, 여전히 서울 집중도가 높은 편임.

	'78	'81	'85	'90	'94
전국 출판사수	1,920	2,176	2,665	5,704	10,325
· 서울출판사수	1,750	1,802	1,729	4,433	7,953
(구성비 : %)	(91.1)	(82.8)	(64.9)	(77.7)	(77.0)

(2) 서점의 증가 및 중대형화

○ 전국의 서점수도 꾸준히 증가하여 '94년 현재 5,683개로 '76년에 비하여 2,622개가 늘어 1.8배 증가하였고 출판사와 같이 서울에 대한 집중도가 높음.

	'76	'80	'85	'90	'94
전국 서점수	3,061	3,690	3,738	4,739	5,683
· 서울서점수	805	1,077	916	1,104	1,280
(구성비 : %)	(26.3)	(29.2)	(24.5)	(23.3)	(22.5)

○ '81년 교보문고의 설립을 시작으로 100평이상의 중대형서점이 증가하여 '94년에 중대형서점은 전국에 85개로 전체 1.5%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는 중대형서점이 쾌적한 문화공간과 정보이용의 용이 등으로 이점이 있기 때문임.

- 중대형서점은 특히 서울에 집중되어 있어 '94년에 전체 85개중 28개로 전국 중대형서점중 32.9%를 차지하고 있음.

	'92	'93	'94
중대형서점수			
· 전국(전체서점중 비율 : %)	45(0.8)	68(1.3)	85(1.5)
· 서울(전국중대형서점중 비율 : %)	22(48.9)	19(27.9)	28(32.9)

(3) 도서발행 추이

〈도서발행종수 및 부수〉

○ 소득증가에 따른 여가활동을 위한 독서인구의 증가로 서적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도서발행종수도 다양해져 '47년에 1,028종에 불과하던 것이 '70년에 2,633종, '80년에 20,985종, '94년에는 29,564종이 발간되었음.

- 특히 '80년대에는 발행종수가 3만종이 넘어섰고 발행부수도 1억부를 넘었음.

〈표 1-6〉 도서발행종수 및 부수

(단위 : 종, 천부)

연 도	발행종수	발행부수	연 도	발행종수	발행부수
1947	1 028	-	1975	9 225	24 418
1955	1 308	-	1980	20 985	64 610
1960	1 618	-	1985	33 743	114 971
1965	3 188	-	1990	41 712	241 839
1970	2 633	4 841	1994[1]	29 564	152 326

자료 : 대한출판문화협회, 「한국출판연감」
주1) '91년부터는 초판·개정판만 집계하고 중판은 제외

〈분야별 도서발행종수 및 부수〉

○ 분야별로 도서발행추이를 살펴보면

- 비교적 일반 독자층을 가진 문학부문의 경우는 '52년 이후 최근에 이르기까지 가장 다양한 종류의 서적이 발행되고 있음. 발행종수의 추이를 보면 '52년에 239종, '75년 2,481종, '94년에는 6,053종으로 독자층이 점차 다양해지면서 종수도 크게 증가하였음. 이에 따라 연간 발행부수도 '75년 452만부에서 '94년에는 1,467만여부로 증가함.

• 또한 시대상황에 따라 국민들의 정서를 반영한 다양한 종류의 책들이 발행되었고, 시대에 따라 베스트셀러의 내용도 변하고 있음.

- 예술부문서적의 발행종수는 '52년에 37종에 불과하였으나 점차 증가하여 '94년에는 1,314종이 출판되었음.
  - 문화예술분야의 전반적인 발전에 따라 문화예술활동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 관심이 커지면서 이와 관련한 서적의 종류도 지속적으로 증가함.
- 기술과학과 관련한 서적은 특히 '52년 이후 발행종수의 증가폭이 가장 크게 나타나며 '94년 발행종수는 3,887종에 이름.
  - 우리사회가 산업화됨에 따라 기술과학과 관련한 다양한 지식의 수요가 점차 커지고 있음을 보여줌.
- 또한 어학관련서적의 발행종수를 보면 '52년 138종에서 '94년에는 1,321종으로 증가하였고, 또한 연간 발행부수도 '75년 60만부에서 '94년 522만여부로 크게 증가하였음.
  - 이는 국제화시대의 도래와 해외여행이 늘어나면서 어학과 관련한 다양한 서적의 수요가 크게 늘었기 때문으로 보임.

〈표 1-7〉 분야별 도서발행종수 및 부수

(단위 : 종, 천부)

	1952		1975		1980		1994[1]		94/52	94/75
	종수	부수	종수	부수	종수	부수	종수	부수	종수(배율)	부수(배율)
합 계	1 393	-	9 225	24 418	20 985	64 610	29 564	152 326	21.2	6.2
총 류	5	-	228	330	361	569	283	552	56.6	1.7
철 학	44	-	337	467	793	1 189	727	3 046	16.5	6.5
종 교	-	-	601	2 213	1 918	4 895	1 941	5 468	9.1[2]	2.5
사회과학	182	-	1 005	1 491	2 276	2 595	3 539	5 735	19.4	3.8
순수과학	188	-	135	193	296	418	463	1 231	2.5	6.4
기술과학	46	-	779	878	1 722	1 765	3 887	5 073	84.5	5.8
예 술	37	-	481	872	1 222	2 431	1 314	3 752	35.5	4.3
어 학	138	-	430	601	865	2 021	1 321	5 218	9.6	8.7
문 학	239	-	2 481	4 519	5 107	8 743	6 053	14 665	25.3	3.2
역 사	57	-	211	490	580	861	966	2 003	16.9	4.1
아 동	298	-	1 069	4 227	3 494	6 621	4 360	17 646	14.6	4.2
학 습	159	-	1 468	8 136	2 351	32 502	4 710	87 936	29.6	10.8

자료 : 대한출판문화협회, 「한국출판연감」
주1) '91년부터는 초판·개정판만 집계하고 중판은 제외
주2) 종교는 「94/75」임.

(4) 독서인구

○ 출판사·서점의 증가, 분야별 다양한 도서발행 등에 따라 실제적으로 독서인구가 증가하여 왔는데 이에 관한 통계자료를 보면

- 독서인구비율은 '84년에는 56.1%, '89년에는 61.3%, '92년에 64.1%로 꾸준한 증가를 보였으며, 독서인구가 읽는 연평균 독서량도 '92년에 14.3권으로 '84년에 비하여 7.4권이나 증가하였음.

〈표 1-8〉 독서인구비율 및 연평균 독서권수

(단위 : %, 권)

	1984		1989		1992	
	독서인구비율	권수	독서인구비율	권수	독서인구비율	권수
전 국	56.1	6.9	61.3	9.5	64.1	14.3
남	63.4	8.6	65.7	10.8	68.0	17.2
여	49.6	5.4	57.1	8.2	60.4	11.5

자료 : 통계청, 「한국의 사회지표」

(5) 정기간행물 추이 및 신문·잡지 구독률

○ 정기간행물을 보면 '47년에 247종에서 '94년에 8,724종으로 35.3배 증가하였음.

- '80. 12월의 언론통폐합에 따라 일간, 주간지 등 정기간행물수가 일시적으로 줄었으나, '87년 언론자율화 이후 점차 늘어나고 있음.
  - 주간지, 월간지 등 잡지는 우리 사회가 전문화·정보화됨에 따라 다양한 분야의 잡지가 발행되어 '94년에 주간지는 '47년 대비 48.3배 증가하였고, 월간지는 27.4배 증가하였음.
  - 특히 일간신문은 '87년 언론자율화 이후 크게 증가하여 '87년에 30종에 불과하던 것이 '88년에는 65종, '94년에는 126종으로 크게 늘어났음.

〈표 1-9〉 정기간행물

(단위 : 종)

	합 계	통 신	일 간	주 간	월 간	연간 등 기타
1947	247	6	56	53	123	9
1960	1 378	237[1)]	112	429	433	167
1965	669	10	39	104	352	164
1970	740	11	44	101	405	179
1975	1 201	7	37	114	637	406
1979	1 476	7	36	121	768	544
1980	1 215	2	29	97	659	428
1985	1 911	2	30	158	1 027	694
1987	2 412	2	30	226	1 298	865
1988	3 388	2	65	496	1 733	1 092
1990	5 183	2	85	1 028	2 460	1 608
1994	8 724	2	126	2 561	3 376	2 659
94/47(배율)	35.3	0.3	2.3	48.3	27.4	295.4

자료 : 공보처, 「정기간행물일람표」
주1) '60년의 통신부문은 TELEX를 포함한 수치임.

○ 신문구독률은 '85년 62.2%에서 '93년에 70.5%로 8.3%나 증가한 반면, 잡지구독률은 다소 감소하고 있는데 '93년 현재에는 24.1%에 이름.

〈표 1-10〉 신문·잡지구독률

(단위 : %)

	1985		1990		1993	
	신문구독률	잡지구독률	신문구독률	잡지구독률	신문구독률	잡지구독률
전 국	62.2	37.2	66.6	27.5	70.5	24.1
남	74.9	-	79.3	29.1	82.6	24.9
여	50.8	-	54.8	26.1	59.0	23.3

자료 : 통계청, 「한국의 사회지표」

라. 여 행

(1) 국내여행 추이

○ 소득수준의 향상과 승용차 보급의 증가로 국내관광여행을 한 인구의 비율은 '84년 67.2%에서 '93년 93.2%로 증가하여 최근 거의 모든 국민이 국내여행을 즐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이에 따라 1인당 연평균 여행횟수는 '84년 2.0회에서 '93년 4.8회로 증가하여 1년동안에 한사람이 5번 정도의 여행을 한 것으로 나타났음.

○ 국내 관광여행을 숙박여행과 비숙박여행으로 나누어 보면 숙박여행은 '84년 33.6%에서 '93년 70.9%로, 비숙박여행은 53.5%에서 83.7%로 증가하였음.

- 1인당 연평균 숙박여행횟수는 '84년 0.5회에서 '93년 1.5회, 비숙박여행횟수는 동기간중 1.5회에서 3.3회로 증가했으며, 특히 승용차 보급의 증대에 따라 '90년대 들어 당일치기 여행이 크게 늘고 있음.

〈표 1-11〉 국내관광여행비율 및 1인당 연평균 여행횟수

	국내관광		숙박여행		비숙박여행	
	여행비율 (%)	1인당연평균 여행횟수	비 율 (%)	1인당연평균 여행횟수	비 율 (%)	1인당연평균 여행횟수
1984	67.2	2.0	33.6	0.5	53.5	1.5
1988	69.0	2.0	35.9	0.5	55.5	1.5
1991	72.7	2.2	37.8	0.5	56.6	1.6
1993	93.2	4.8	70.9	1.5	83.7	3.3

자료 : 한국관광공사, 「국민여행실태조사」

(2) 해외관광여행 추이

○ 해외여행자수를 나타내주는 내국인 출국자수는 '61년 11,245명에 불과하였으나, '89년 해외여행 자유화 조치이후 높은 성장세를 보여, '92년에 2백만명대를 넘었고 '94년에 3,154,326명이 출국하여 2년만에 3백만명을 돌파함.

- 문화생활과 관련이 깊은 관광여행을 목적으로 한 출국자수는 '83년 2,443명으로 내국인 여행자수의 0.5%에 불과하였으나 10여년 정도가 지난 '94년에는 1,290,123명으로 내국인 출국자중 40.9%를 차지해 해외여행자중에서 거의 절반 정도가 관광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이에 따라 인구만명당 관광여행자수도 '85년 0.4명에서 '94년 290.2명으로 증가하여 '89년에 100명중 1명이 해외여행을 했으나 최근 들어서는 100명중 3명이 관광여행을 하고 있는 셈임.

〈표 1-12〉 해외여행자수 및 관광여행자 비율

	내국인 출국자수 (명)	관광여행자수 (명)	관광여행자 비율(%)	인구만명당 내국인 출국자수	인구만명당 관광여행자수
1961	11 245	-	-	4.3	-
1965	19 796	-	-	6.9	-
1970	73 569	-	-	22.8	-
1975	129 378	-	-	36.7	-
1980	338 840	-	-	88.9	-
1983	493 461	2 443	0.5	123.6	0.6
1985	484 155	1 745	0.4	118.6	0.4
1989	1 213 112	448 727	37.0	285.8	105.7
1990	1 560 923	590 486	37.8	364.1	137.7
1991	1 856 018	651 897	35.1	429.0	150.7
1992	2 043 299	724 146	35.4	468.0	165.8
1993	2 418 930	846 813	35.0	549.1	192.2
1994	3 154 326	1 290 123	40.9	709.6	290.2

자료 : 법무부, 「출입국관리통계연보」

2. 문화시설 및 공간

가. 도서관

○ 공공도서관수는 '48년 29개에서 '93년 688개로 23.7배 증가하였고, 좌석수는 '57년 4,856개에서 '93년 182,730개로 37.6배, 장서수는 '48년 968,718권에서 18,216천권으로 18.8배, 이용자수도 '60년 1,062천명에서 '93년 36,795천명으로 34.6배 증가하여 도서관 시설의 확충에 따라 이용자수가 대폭 증가하였음.

- 인구만명당 지표로 보면 '80년 이전만 해도 인구만명당 좌석수가 10개가 채 안되던 것이 '85년 20.5개, '93년 41.5개로 좌석수가 크게 늘었음. 장서수도 '80년대 들면서 인구만명당 1,000권대를 넘어서 '85년 2,215권, '93년 4,135권으로 크게 증가하였음.
- 이와같이 도서관수, 좌석수, 장서수, 이용자수가 급격히 증가한 것은 사회구조가 다원화, 전문화되면서 서적발행종수가 증가하였고 여가활용을 위한 독서인구가 증가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됨.

〈표 2-1〉 공공도서관 시설 및 이용자수

	도서관수 (개)	좌석수 (개)	좌석수 인구만명당	장서수 (권)	장서수 인구만명당	이용자수 (천명)	이용자수 인구만명당
1948	29	-	-	968 718	-	-	-
1957	59	4 856	2.3	982 097	461	-	-
1960	59	4 545	1.8	1 049 943	420	1 062	425
1965	120	11 630	4.1	1 318 365	459	2 254	785
1970	194	17 129	5.3	2 676 115	830	4 386	1 360
1975	259	30 830	8.7	2 682 074	760	8 753	2 481
1980	277	39 146	10.3	4 265 403	1 119	10 836	2 842
1985	388	83 782	20.5	9 039 557	2 215	15 981	3 916
1990	591	150 615	35.2	13 772 929	3 219	31 824	7 423
1993	688	182 730	41.5	18 216 000	4 135	36 795	8 352
(93/48) (배율)	23.7	37.6 [1]	18.0 [1]	18.8	9.0 [1]	34.6 [2]	19.7 [2]

자료 : 도서관협회, 「한국도서관통계」

* 공공도서관의 범위는 각급 학교도서관을 제외한 국립도서관, 공립도서관, 특수도서관, 국회도서관 등을 말함.

주1) 「93/57」배율임.

주2) 「93/60」배율임.

나. 박물관 및 국가지정문화재

(1) 박물관 관람객

○ 박물관은 인류·역사·고고·민속·예술·자연과학·산업 등에 관한 자료를 수집·보존·전시하고, 이들을 조사·연구하여 일반 공중의 사회교육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문화시설이며

- 이러한 박물관 문화시설을 향유하는 연간 관람객수를 살펴보면 해방당시에는 4,500명에 불과하던 것이 '93년에는 4,863천명으로 급격히 증가하였음.
  - 인구만명당 내국인 관람객수는 '75년 378.1명에서 '93년 975.5명으로 증가하여 최근에는 10명당 1명 꼴로 박물관을 관람한 것으로 나타났음.
  - 박물관 관람객 현황을 내국인, 외국인별로 보면 내국인, 외국인 비율은 '71년에 내국인 66.4%, 외국인 33.6%인데 비해, 최근 '93년에는 내국인 88.4%, 외국인 11.6%로 내국인의 비율이 압도적임. 이는 우리나라 국민들이 문화예술과 여가생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음.

〈표 2-2〉 박물관 연간관람객수

	합 계 (명)	내국인 (명)	인구만명당 관람객수	내 국 인 비율(%)	외국인 (명)	외 국 인 비율(%)	인구만명당 관람객수
1945	4 500	-	-	-	-	-	2.7
1950	169 700	-	-	-	-	-	-
1955	64 162	-	-	-	-	-	29.8
1960	108 243	-	-	-	-	-	43.1
1967	359 831	-	-	-	-	-	119.4
1971	756 427	501 893	152.6	66.4	254 534	33.6	230.0
1975	1 511 758	1 334 032	378.1	88.2	177 726	11.8	428.5
1980	2 404 345	2 173 176	570.0	90.4	231 169	9.6	630.7
1986	3 789 976	3 448 558	836.7	91.0	341 423	9.0	919.6
1990	4 559 690	3 880 793	905.3	85.1	678 897	14.9	1 063.6
1991	5 172 626	4 483 897	1 036.3	86.7	688 729	13.3	1 195.5
1993	4 862 997	4 297 636	975.5	88.4	565 361	11.6	1 103.8

자료 : 문화공보부「문화공보30년」, 국립중앙박물관「박물관연보」
* 국립박물관(중앙, 경주, 광주, 전주, 부여, 청주, 전주, 공주 등 8개 박물관)의 관람객 현황임

(2) 국가지정문화재

○ 문화재는 선조의 예지가 결집된 민족의 얼이며, 민족문화의 표상으로서 그 시대의 배경과 사상이 깃들어 있다고 볼 수 있으며

- 정부에서는 문화재의 올바른 원형보존과 전승을 위해서, 꾸준한 문화재의 발굴에 노력을 기한 결과 '93년 국가지정문화재가 총 2,460점에 이르고 있음.
- 이를 유형별로 보면 보물이 1,184점으로 가장 많고, '65년 이후 가장 큰 증가를 보인 것은 중요민속자료로 '65년 2점에 불과하던 것이 '93년 225점으로 크게 증가하였음.

〈표 2-3〉 유형별 국가지정문화재

(단위 : 점)

	합 계	국 보	보 물	사적 명승	천연 기념물	무형 문화재	중요민속 자료
1963	770	121	400	138	111	-	-
1965	809	121	418	147	114	7	2
1970	1 101	135	525	214	165	37	25
1975	1 282	181	596	251	167	54	33
1980	1 530	201	682	285	183	71	115
1985	1 948	230	848	322	259	81	208
1990	2 241	257	1 049	346	274	94	221
1991	2 342	269	1 107	375	274	93	224
1992	2 400	274	1 142	387	279	94	224
1993	2 460	282	1 184	393	282	94	225

자료 : 문화재관리국

다. 공 원

(1) 국립공원

○ 국립공원이란 우리나라를 대표할만한 수려한 자연풍경지로서 일반 국민들이 문화생활과 여가를 즐길 수 있는 휴식처가 되고 있는데

- '67년 지리산 국립공원이 최초로 지정된 이후 '73년 9개소에서 '93년 20개소로 증가하였음.

※ 20개의 국립공원 지정 현황을 보면 지리산, 경주, 계룡산, 한려해상, 설악산, 속리산, 한라산, 내장산, 가야산, 덕유산, 오대산, 주왕산, 태안해안, 북한산, 다도해해상, 치악산, 월악산, 소백산, 월출산, 변산반도임.

- 국립공원 면적은 '73년 1,854㎢에서 '93년 6,473㎢로 3.5배 증가하였고 우리나라 전체면적에서 차지하는 구성비는 '73년 1.9%에서 '93년 6.5%로 증가 하였음.

○ 국립공원을 찾는 관광객수는 '80년 10,497천명에서 '93년 32,403천명으로 늘어났음.

- 인구만명당 관광객수를 보면 '80년 2,753명에서 '90년 9,132명으로 계속 증가하였으나 '93년에 들어서는 7,355명으로 줄어들었음.

〈표 2-4〉 국립공원수 및 면적

	국립공원수 (개소)	국립공원면적			국립공원 탐방객수 (천명)	인구만명당 탐방객수
		총면적 (km^2)	1인당면적 (m^2)	우리나라면적 대 비(%)		
1973	9	1 854	0.05	1.9	-	-
1975	12	2 484	0.07	2.5	-	-
1980	13	2 794	0.07	2.8	10 497	2 753
1985	17	5 578	0.14	5.6	26 430	6 477
1990	20	6 473	0.15	6.5	39 147	9 132
1991	20	6 440	0.15	6.5	33 976	7 852
1993	20	6 473	0.15	6.5	32 403	7 355

자료 : 건설부,「건설통계편람」

(2) 도시공원

○ 도시공원이란 도시계획구역안에서 자연경관의 보호와 시민의 건강·휴양 및 정서생활의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국가가 지정한 공원으로 도시민이 항상 가깝게 접할 수 있는 문화공간임.

- 도시공원수를 보면 '84년 2,337개소에서 '93년 5,891개소로 2.5배 증가하였으며 공원 유형별로 보면 근린공원, 어린이공원의 수는 증가한 반면, 자연공원의 수는 큰 변동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음.
- 1인당 도시공원 면적은 '84년 19.3㎡에서 '93년 18.6㎡로 약간 감소하였음.
  · 이는 도시공원의 면적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자연공원의 1인당 면적이 '84년 13.9㎡에서 '93년 11.3㎡로 감소하였기 때문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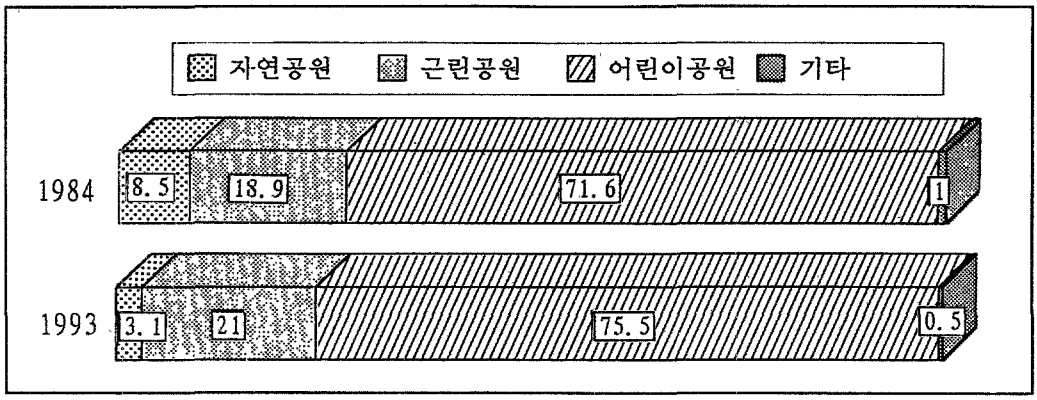
〈표 2-5〉 도시공원

(단위 : 개소, ㎡)

	계	1인당 면적	자연공원	1인당 면적	근린공원	1인당 면적	어린이공원	1인당 면적	기타	1인당 면적
1984	2 337	19.3	199	13.9	441	4.6	1 673	0.2	24	0.6
1985	2 558	21.4	173	15.6	547	5.1	1 816	0.1	22	0.6
1986	3 304	22.8	168	15.8	805	6.1	2 305	0.2	26	0.7
1987	3 732	23.1	174	15.8	872	6.4	2 659	0.2	27	0.7
1988	3 732	22.4	174	15.3	872	6.2	2 659	0.2	27	0.7
1989	4 019	21.8	174	14.8	911	6.1	2 907	0.2	27	0.7
1990	4 305	22.1	181	15.2	990	6.0	3 105	0.2	29	0.7
1991	5 132	18.0	180	10.9	1 101	6.3	3 824	0.1	27	0.7
1992	5 486	17.9	178	10.8	1 165	6.2	4 117	0.2	26	0.7
1993	5 891	18.6	180	11.3	1 237	6.3	4 446	0.3	28	0.7

자료 : 건설부,「건설통계편람」

〈그림 2-1〉 유형별 도시공원수 구성비



라. 관광휴양지 및 해수욕장

(1) 관광휴양지

○ 관광휴양지역이란 국민의 여가선용을 위한 휴양시설과 자연적으로 형성되어 있는 지역인데 구체적으로 국민관광지, 골프장, 종합휴양업, 스키장, 해수욕장, 약수터, 온천 등이 포함됨.

- 관광휴양지의 수를 살펴보면 '84년 61개소에서 '93년 185개소로 약3배 증가하였음.
- 지역별로 보면 '84년 경기도의 관광휴양지가 14개로 가장 많았으나 '93년에는 강원도의 휴양지수가 37개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음.
  - 또한 전체 휴양지 면적의 지역별 분포를 보면 '84년 경기 62.3%, 강원 13.7%로 휴양지의 면적이 경기, 강원 등 중부지방에 집중되었으나, '93년에는 경기지역이 32.5%로 낮아지는 등 휴양지의 지역별 분포도가 '84년에 비해 전국적으로 고르게 되었음.
  - 이는 정부가 경제성장과 국민의 소득증대로 인한 관광수요를 충족시키고 국제관광지로서의 면모를 갖추기 위해 국토의 관광자원으로서의 개발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고 관광객의 수용시설이 특정지역이나 대도시에 편중되지 않도록 균형있게 분산·배치하도록 노력을 기하고 있기 때문임.

〈표 2-6〉 지역별 관광휴양지수 및 면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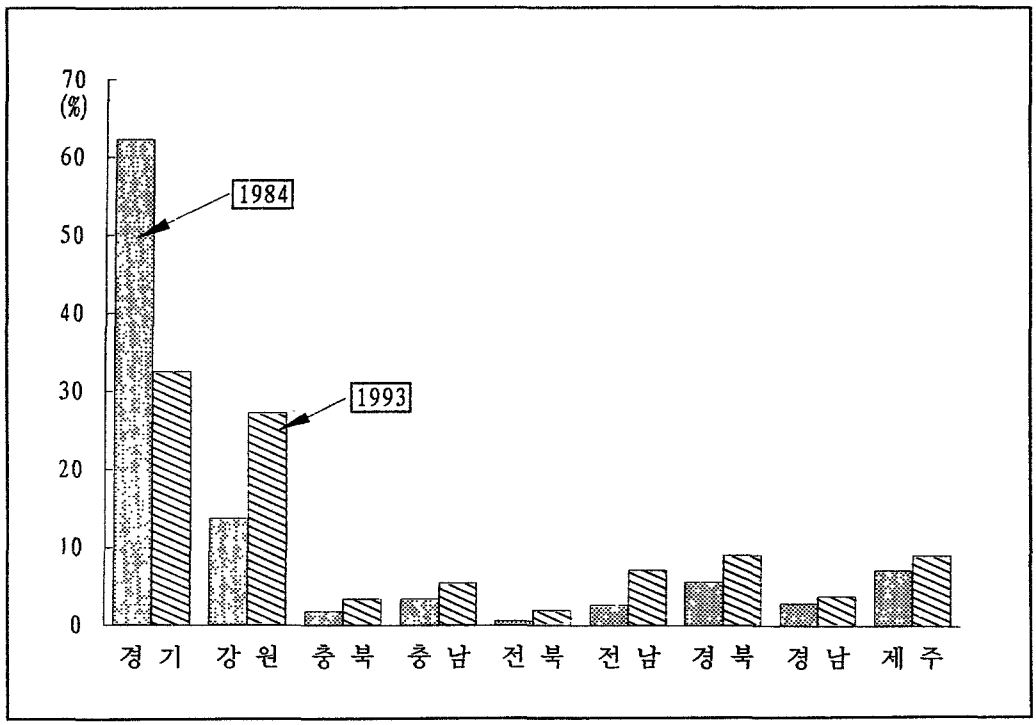
(단위 : 개소, ㎢)

		계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1984	면적	129.188	80.538	17.670	2.335	4.426	0.781	3.297	7.174	3.708	9.259
	(%)	(100.0)	(62.3)	(13.7)	(1.8)	(3.4)	(0.6)	(2.6)	(5.6)	(2.9)	(7.2)
	수	61	14	12	3	6	1	6	7	4	8
1993	면적	195.686	63.641	53.429	6.629	10.679	4.007	14.140	17.741	7.519	17.901
	(%)	(100.0)	(32.5)	(27.3)	(3.4)	(5.5)	(2.0)	(7.2)	(9.1)	(3.8)	(9.1)
	수	185	35	37	13	17	8	16	31	15	13

자료 : 한국관광개발원, 「관광연감」
교통부, 한국관광공사, 「관광동향에 관한 연차보고서」('93년)

* 관광 휴양지란 자연적 또는 문화적 관광자원을 갖추고 관광객을 위한 기본적인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지역.

〈그림 2-2〉 지역별 휴양지 추이



(2) 해수욕장 관광지

○ 관광 휴양지의 일종이며 여름피서 관광지로서 일반인이 많이 찾는 해수욕장을 살펴보면 관광지로 지정된 해수욕장수는 '69년 최초로 충청남도의 대천 해수욕장이 지정된 이래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

- 지역별로 해수욕장의 분포를 보면 '93년 현재 동해안지역(강원,경북)에 13개소로 전체 해수욕장수(29개)의 약 절반 정도를 차지하고 있음.
  - 관광지로 지정되지 않은 해수욕장까지 포함할 경우 '93년 해수욕장은 전국에 140개가 있으며 그 중 동해안이 59개소로 42%를 차지함.

〈표 2-7〉 지역별 해수욕장수

(단위 : 개소)

	전국	경기	강원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1969	1	-	-	1	-	-	-	-	-
1975	3	-	-	1	-	-	-	-	2
1980	9	1	5	1	-	-	-	-	2
1985	17	1	8	1	-	-	3	-	4
1990	25	2	10	3	-	2	3	1	4
1991	28	2	10	4	-	4	3	1	4
1992	28	2	10	4	-	4	3	1	4
1993[1)]	29	2	10	4	1	4	3	1	4
	(140)	(7)	(42)	(11)	(3)	(26)	(17)	(22)	(12)

자료 : 문화체육부 관광시설과

*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지내의 해수욕장수임.

주1) 괄호안의 수치는 관광지 비지정 해수욕장을 포함한 것임.

3. 문화관련용품

가. 승용차 및 전화

○ 우리나라의 승용차 보급추이를 살펴보면 '45년 해방직후에는 1천3백대에 불과하였으나, '88년에 1백만대를 돌파하고 '94년 5백만대를 넘어서 '88년 이후 급격한 증가를 보였음. 문화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자가용의 보급추이도 승용차의 보급률과 비슷한 경향을 보이고 있음.

- 자가용 1대당 인구수는 '45년에 37,747명이었으나, 자가용 승용차 보급의 확대로 '85년에 91명으로, '94년에는 1대당 10명도 안되는 9명으로 나타났음.

  · 이러한 자가용 승용차 보급의 확대는 '80년대 후반 이후 차를 이용한 가족단위의 여행이 보편화되는데 기여하였고, 또한 가족단위 외식의 증가와 외식산업의 발달을 가져왔음.

○ 가정용 전화가입자수는 '59년 당시 25천명에 불과하던 것이 최근 '94년 14,126천명에 이르게 되었음.

- 인구100명당 가정용 전화보급률도 '71년까지 전화가입자수가 1명미만이던 것이 '94년에는 약 32명 정도가 전화를 가입하고 있는것으로 나타났음.

  · 6·25를 겪은 50년대에는 전화의 수요가 거의 없었으나, 60년대 들어 경제개발이 시작되면서 전화수요가 크게 증가하였고 특히 70년대이후 가구소득이 상승함에 따라 가정용 전화보급율이 크게 증가하였음.

  · 그러나 수요에 공급이 미치지 못하여 70년대까지는 전화에 가입하기가 매우 힘들어 웬만한 집의 재산목록 1호로 여겨졌음.

  · 이러한 부족 현상은 '85년 국산전화교환기가 개발되면서 해소되어 '90년 가정용 전화가입자수가 10,819천명으로 천만명이 넘게 되었음.

  · 인구 100명당 가정용 전화보급률도 '90년에 25.2명에 이르게 되었고, 최근 '94년에는 인구 100명당 31.8명이 전화에 가입하고 있는것으로 나타나 이제는 전화가 문화용품이기 보다는 생활필수품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음.

〈표 3-1〉 자가용 보급대수 및 가정용 전화가입자수

	승용차 보급대수 (대)	승용차 1대당 인구수	인구 백명당 보급대수	자가용 보급대수 (대)	자가용 1대당 인구수	인구 백명당 보급대수	가정용 전화 가입자수 (천명)	인구 백명당 가입자수
1945	1 311	12 870	0.01	447	37 747	0.00	-	-
1955	6 556	3 283	0.03	2 684	8 020	0.01	-	-
1960	12 776	1 966	0.05	4 224	5 947	0.02	-	-
1965	13 001	2 208	0.05	5 507	5 212	0.02	91	0.3
1970	60 677	531	0.19	28 687	1 124	0.09	237	0.7
1975	84 212	419	0.24	50 093	704	0.14	527	1.5
1980	249 102	153	0.65	178 513	214	0.47	1 734	4.5
1985	556 659	73	1.36	449 062	91	1.10	5 108	12.5
1988	1 117 999	38	2.66	975 013	43	2.32	8 457	19.9
1990	2 074 922	21	4.84	1 902 067	23	4.44	10 819	25.2
1992	3 461 057	13	7.93	3 256 931	13	7.46	12 822	29.4
1994	5 148 713	9	11.58	4 930 238	9	11.09	14 126	31.8

자료 : 교통부, 「교통통계연보」,
한국통신, 「전기통신통계연보」

나. 문화용품 보급률

○ 방송매체가 발달하고 가정에 라디오, TV, 전축, VTR 등 전자제품이 보급됨으로써 문화의 대중화가 이루어지고 가정이 여가를 향유할 수 있는 장으로 대두하게 되었음.

- TV의 보급이 본격화되기 전인 '70년대 초까지는 각 가정에서는 라디오가 유일한 문화생활의 매체 구실을 함.
  - '70년 당시 100가구당 보급률이 라디오는 69.0%에 달하였으나, TV는 6.4%, 전축은 9.8%에 불과하였음.

- TV는 '60년대에 KBS('61. 12), TBC('64. 12), MBC('69. 8) 방송국이 연이어 개국함으로써 '70년대 중반 이후부터 가구당 TV보급률이 큰 폭으로 증가하여 가장 보편적인 대중매체로 자리를 잡았음.
  · 또한 '80년 8월 칼라TV 시판실시, '80년 12월 칼라TV 방송실시로 방송매체의 질적인 변화가 생겨 '85년 흑백, 칼라 TV를 모두 포함한 보급률은 99.1%에 이르렀고,
  · '90년에는 텔레비젼 수상기 보유대수가 11,034천대로, 모든 가구가 텔레비젼을 보유하게 되었으며 최근에는 한 가구당 2대 이상의 TV를 보유하는 경우도 많은 실정임.
- VTR은 비교적 최근에 등장하여 이용되고 있는 문화전달매체로 '85년만 해도 보급률이 10가구당 1가구에도 미치지 못하던 것이, '90년에 들어서는 10가구당 3가구 정도로 VTR의 보유율이 크게 증가하였음.
  · VTR의 보급으로 시청각 문화활동이 수동적 성격에서 개인의 개성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능동적 성격으로 변화되었음.

○ 냉장고, 세탁기 등의 문화생활용품은 생산기술이 크게 발달하지 못했던 '70년대까지만 해도 보급률이 낮아 사치품으로 여겨지던 것이, 그 후 '80년대 후반, '90년대에 들어서는 생활필수품화되어, 냉장고는 거의 모든 가구가 소유하고 있으며, 세탁기도 10가구당 8가구는 소유하고 있음.

○ 피아노 및 올갠은 다른 문화용품에 비해 가구 보급률이 높지는 않으나, '70년대에는 보급률이 1%대에 불과하던 것이 '91년에는 10.7%로 크게 증가하였음.

〈표 3-2〉 문화용품 보급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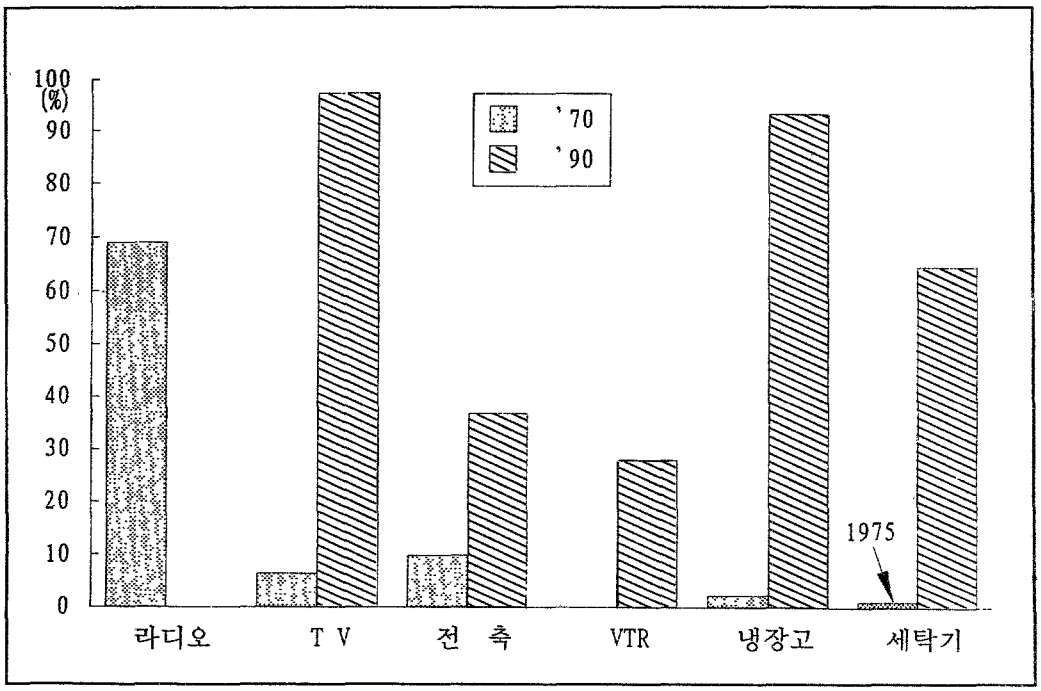
(단위 : 천가구, %)

	라디오	보급률	TV	보급률	전축	보급률	VTR	보급률	냉장고	보급률	세탁기	보급률	피아노및올갠	보급률
1959	315	0.8	-	-	-	-	-	-	-	-	-	-	-	-
1961	643	14.7	-	-	-	-	-	-	-	-	-	-	-	-
1965	-	-	32	0.6	-	-	-	-	-	-	-	-	-	-
1970	4 043	69.0	374	6.4	575	9.8	-	-	127	2.2	-	-	61	1.0
1975	-	-	2 041	30.7	886	13.3	-	-	442	6.7	70	1.0	107	1.6
1980	-	-	6 907	86.7	-	-	-	-	3 016	37.8	833	10.4	299	3.8
1985	-	-	9 484	99.1	-	-	394	4.1	6 804	71.1	2 487	26.0	576	6.0
1990	-	-	11 034	97.2	4 172	36.7	3 157	27.8	10 576	93.1	7 302	64.3	-	-
1991	-	-	-	99.9	-	35.2	-	50.1	-	99.1	-	80.9	-	10.7

자료 : 인구주택총조사, 한국통계연감, 가구소비실태조사 보고서('91년)
문화공보30년(TV보급률은 '63~'69, '71~'74, '76~'79년)

* 보급률은 백가구당 보유가구수이며 TV보급율은 90년 부터는 칼라TV만을 포함.

〈그림 3-1〉 문화용품 보급률 추이



4. 가구의 문화생활관련 소비지출

※ 가구소비지출에 관한 실태는 해방이후 '50년까지는 조사되지 않았으며, '50년대에는 한국은행에서 '생계비조사'를 실시하였으나 조사대상 가구수가 적고, 조사기준과 범위가 명확치 않으며 내용이 불충분할 뿐 아니라 '63년이후 실시된 '도시가계조사'와는 시계열상 맞지 않아 이용상 제약이 있음. 이에 따라 자료편의상 '63년부터 도시가계연보를 기초로 하여 도시가구의 문화생활관련 월평균 소비지출 추이를 보기로 함.

* 가구의 문화생활관련 소비지출은 통계분석의 편의와 자료의 이용가능성을 감안하여 교양오락 및 신문도서, 외식, 이미용 및 장신구, 음주, 담배에 대한 소비지출로 정의하였음.

가. 소득향상에 따른 소비유형의 변화 : '80년대 이후 문화소비의 가속화

○ 오늘날 경제성장에 따른 소득증가와 생활수준의 향상으로 우리의 소비생활수준과 소비형태도 크게 변화해 가고 있으며, 특히 삶의 질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가계소비지출중에서 문화생활을 위한 소비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지고 있음.

- 우선 소비지출의 변화를 보면 '63년 당시 6,300원에 불과했던 도시가구의 월평균 소비지출액은 '94년에 1,140,432원으로 크게 증가하였고, 생활필수적인 성격을 가진 식료품비는 동 기간중 3,840원에서 338,715원으로, 문화생활관련비는 634원에서 218,082원으로 증가하였음.
  - 소비지출에서 식료품비가 차지하는 비중(엥겔계수)은 '63년 61.0%에서 '94년 29.7%로 감소하였음.

○ 문화생활관련 소비지출비중을 대체적으로 10년 간격으로 보면 '63년에 10.1%, '75년에 9.7%, '85년에 10.3%, '94년에 19.1%로 변화하였음.

- 이를 통해 문화생활관련 소비지출비중의 증가가 '80년대 이후 두드러졌으며, '80년대 중반까지는 비중이 크게 변화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음.

이는 '80년대 이르기까지는 문화생활이 다양하지 못했고, 담배,이미용 등 최소한의 기본적인 문화생활 비중이 높았으며, '80년대 들어서야 문화관련용품이나 활동이 다양화되고 대중화되기 시작했으며, 소비지출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외식도 '80년대 후반에 들면서 보편화되었기 때문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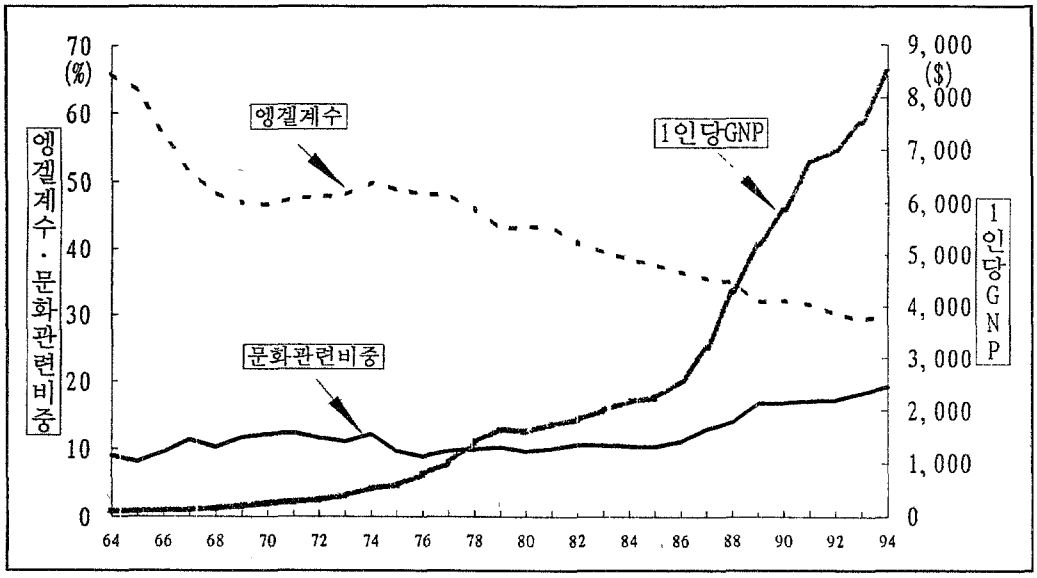
〈표 4-1〉 가계소비지출 및 문화생활관련 지출비중 추이

(단위 : 원, %)

	'63	'75	'85	'94
1 인 당 GNP($)	100	594	2 242	8 483
가 계 소 비 지 출	6 300(100.0)	58 350(100.0)	317 025(100.0)	1 140 432(100.0)
식료품비(엥겔계수)[1]	3 840(61.0)	28 470(48.8)	118 898(37.5)	338 715(29.7)
문화생활 관련지출[2]	634(10.1)	5 634(9.7)	32 618(10.3)	218 082(19.1)

주1) ( )안은 소비지출에 대한 구성비임, 엥겔계수=식료품비 / 소비지출
주2) 교양오락 및 신문도서, 외식, 이미용 및 장신구, 음주, 담배를 포함

〈그림 4-1〉 도시가구 가계소비지출에서의 식료품비지출과 문화관련비용의 구성비 추이



〈표 4-2〉 문화생활관련 항목별 소비지출에 대한 구성비

(단위 : %)

	'63	'75	'85	'90	'94
교양·오락 및 신문·도서	1.75	2.89	2.79	3.93	4.27
• 교양·오락용품	0.25	1.24	1.29	2.27	1.99
• 교양·오락서비스	0.52	1.07	0.96	1.10	1.65
• 신문·도서	0.98	0.58	0.54	0.56	0.63
외식	1.27	0.96	2.80	6.54	8.58
담배 및 음주	4.13	3.08	2.24	3.11	3.02
• 담배	3.65	2.07	0.90	0.90	0.76
• 음주	0.48	1.01	1.34	2.21	2.26
이미용 및 장신구	2.91	2.73	2.46	3.12	3.26
• 이미용품	0.54	1.06	0.73	0.96	1.11
• 이미용서비스	2.02	1.08	1.07	1.26	1.45
• 장신구	0.35	0.59	0.66	0.90	0.70

○ 물가상승분을 제외한 실질소비지출액은 '75년 237,195원에서 '94년 882,005원으로 최근 20년간 3.7배 증가한데 반해, 같은 기간중 문화생활과 관련한 실질지출액은 20,684원에서 167,101원으로 8배이상 높게 증가하였음.

- 이처럼 문화생활관련 실질지출액의 증가율이 더 높게 나타난 것은 생활수준의 향상과 여가활용의 증대에 따라 문화소비성향이 가속화되고 있기 때문임.

〈표 4-3〉 문화생활관련비용의 실질지출추이

(단위 : 원)

	'75	'85	'90	'94
실질소비지출	237 195	412 793	685 662	882 005
('75년기준배율)	(1.00)	(1.74)	(2.89)	(3.72)
실질문화관련비용	20 684	41 185	114 547	167 101
('75년기준배율)	(1.00)	(1.99)	(5.54)	(8.08)

*실질지출액은 '90년 기준임, 「실질금액 = 명목금액/물가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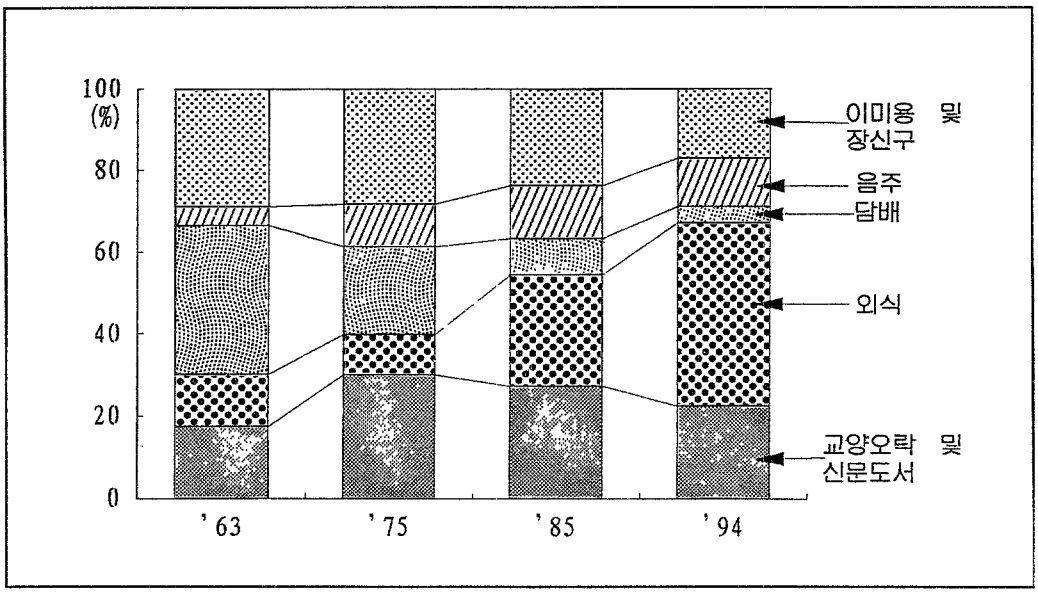
나. 문화생활관련 항목별 소비지출

(1) 문화생활관련 소비지출 구조의 변화

○ 소득수준의 향상과 여가활용방법의 다양화에 따라 문화생활관련 소비지출 구조도 크게 변화하고 있음.

- '63년 당시 문화생활관련 소비지출중에서 비중이 가장 큰 것은 담배로서 36.3%를 차지하였으나 '94년 현재에는 4.0%로 비중이 크게 줄어들었음.
- 외식비의 경우 '63년에는 비중이 12.6%였던것이 '94년에는 44.8%로 문화생활관련 소비지출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교양·오락 및 신문·도서를 위한 소비지출은 '70년대 큰 증가를 보인 이후 여전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이외에 음주도 꾸준한 증가를 보이고 있는 반면, 이미용 및 장신구의 비중은 감소하는 추세임.

〈그림 4-2〉 문화생활관련 소비지출 구조의 변화



〈표 4-4〉 항목별 문화생활관련 소비지출 구성비

(단위 : %)

	교양·오락 및 신문·도서	외 식	담 배	음 주	이미용 및 장신구
'63	17.5	12.6	36.3	4.7	28.9
'75	29.9	9.9	21.5	10.5	28.2
'85	27.2	27.2	8.8	13.0	23.8
'94	22.4	44.8	4.0	11.8	17.1

(2) 문화생활관련 항목별 소비지출의 변화

1) 교양 · 오락 및 신문 · 도서

※ 교양 · 오락용품에는 TV, 라디오, 카메라, 운동기구, 전축, 녹음기, 악기, 완구, 자전거, 음반, 등산낚시도구, 원예용품 등이 포함되며, 교양 · 오락 서비스에는 극장입장료, 스포츠오락시설이용료, 문화시설입장료, 스포츠 관람료, 교양오락강습료, TV시청료 등이 포함됨.

○ 문화생활관련 소비지출 항목으로 가장 대표적인 교양 · 오락비 지출은 '63년의 49원에서 '94년에는 41,505원으로 늘어남.

- 같은 기간중 문화생활관련 소비지출중에서 교양 · 오락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63년 7.7%에서 '94년 19.1%로 증가하였음.

○ 신문 · 도서 지출은 '63년 62원에서 '94년 7,172원으로 늘어났으나, 문화생활관련 소비지출중에서의 비중은 '63년 9.8%에서 '94년 3.3%로 오히려 낮아졌음.

〈표 4-5〉 교양·오락 및 신문·도서 비용의 지출추이(명목금액)

(단위 : 원, %)

	'63	'75	'85	'90	'94
교 양 · 오 락	49	1 347	7 143	23 126	41 505
	(7.7)	(23.9)	(21.9)	(20.2)	(19.1)
· 교양오락용품	16	722	4 093	15 561	22 638
	(2.5)	(12.8)	(12.5)	(13.6)	(10.4)
· 교 양 오 락 서 비 스	33	625	3 050	7 565	18 867
	(5.2)	(11.1)	(9.4)	(6.6)	(8.7)
신 문 · 도 서	62	336	1 724	3 853	7 172
	(9.8)	(6.0)	(5.3)	(3.4)	(3.3)

* ( )안은 문화생활관련 소비지출중에서 차지하는 비중임

○ 교양·오락비를 물가상승분을 제외한 실질지출액으로 보면 '75년 3,343원에서 '94년 현재 36,701원으로 11배 증가하였는데, 그 중 교양·오락용품에 대한 지출은 21배, 교양·오락서비스는 6배이상 증가하였음.

- 교양·오락용품에 대한 지출이 크게 늘어난 것은 종래 교양·오락용의 품목이 TV, 라디오, 카메라 등 일부 품목에 국한되던 것이 최근들어 품목이 다양화되었을 뿐 아니라 기술혁신에 따른 신상품의 개발로 소비자의 구매빈도가 늘어났기 때문임.

○ 신문·도서에 대한 실질지출액의 변화는 '75년 1,920원에서 '94년 5,992원으로 약3배 증가함

〈표 4-6〉 교양·오락 및 신문·도서 비용의 실질지출추이

(단위 : 원)

	'75		'85		'90		'94	
	금액	'75년 기준배율	금액	'75년 기준배율	금액	'75년 기준배율	금액	'75년 기준배율
교양·오락	3 343	1.00	7 734	2.31	23 126	6.92	36 701	10.98
· 교양오락용품	1 011	1.00	4 268	4.22	15 561	15.39	21 236	21.00
· 교양오락서비스	2 332	1.00	3 466	1.49	7 565	3.24	15 465	6.63
신문·도서	1 920	1.00	2 236	1.16	3 853	2.01	5 992	3.12

* 실질지출액은 '90년 기준임, 「실질금액 = 명목금액/물가지수」

2) 외식

○ 우리나라 도시가구가 외식비로 지출한 비용은 '63년 80원에서 '94년에 97,795원으로 크게 증가하였으며, 문화생활관련 소비지출중 외식비의 비중도 동 기간중 12.6%에서 44.8%로 높아졌음.

〈표 4-7〉 외식비의 지출추이 (명목금액)

(단위 : 원, %)

	'63	'75	'85	'90	'94
외식	80	560	8 871	44 844	97 795
	(12.6)	(9.9)	(27.2)	(39.1)	(44.8)

* ( )안은 문화생활관련 소비지출중에서 차지하는 비중임

○ 소비지출에서 외식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증가한 것은 식료품비의 비중이 감소하는 추세와는 상당히 대조를 보이고 있음.

- 세부품목별 구성비를 보면 과거에는 주식비의 비중이 부식비나 외식비의 비중보다 훨씬 높았으나, 점차 먹거리가 풍성해지면서 부식이나 외식에 대한 지출이 늘어났음.
  · 총 식료품비용중에서 주식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63년 62.5%에서 '94년 12.3%로 크게 줄어든 반면, 외식비의 비중은 동 기간중 2.1%에서 28.9%로 증가하였음.

〈표 4-8〉 식료품비 세부품목별 지출(명목금액) 및 구성비추이

(단위: 원, %)

	'63		'75		'85		'94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식 료 품 비	3 840	100.0	28 470	100.0	118 898	100.0	338 715	100.0
• 외 식	80	2.1	560	2.0	8 871	7.5	97 795	28.9
• 주 식	2 400	62.5	13 190	46.3	33 390	28.1	41 672	12.3
• 부 식	1 280	33.3	11 700	41.1	57 120	48.0	136 115	40.2
• 기호식품	80	2.1	3 020	10.6	19 520	16.4	63 134	18.6

○ 외식비에 대한 실질지출액은 '75년 3,784원에서 '94년 65,678원으로 17배이상 증가 하였음.

- 이와 같은 현상은 가구의 유형이 점차 핵가족화되고 맞벌이 가구가 증가하는 등 사회적 여건이 변화하여 외식이 여가문화의 일종으로서 자리잡고 있음을 보여줌.

〈표 4-9〉 외식비의 실질지출추이

(단위: 원)

	'75	'85	'90	'94
외 식	3 784	14 014	44 844	65 678
('75년기준배율)	(1.00)	(3.70)	(11.85)	(17.36)

* 실질지출액은 '90년 기준임, 「실질금액 = 명목금액/물가지수」

3) 담배 및 음주

○ 담배에 대한 지출은 '63년 230원에서 '94년 8,624원으로 증가했으나, 문화생활관련 소비지출중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63년 36.3%에서 '94년 4.0%로 크게 감소함.

- '60년대 당시에는 문화생활이 그다지 보편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흡연이 남성들에게는 휴식을 위한 중요한 방법이었으나 최근 건강에 대한 관심증대와 선택할 수 있는 여가활동이나 용품이 다양해짐으로써 그 비중이 대폭 감소하였음.

○ 음주지출은 '63년 30원에서 '94년 25,800원으로 증가하였고, 문화생활관련 소비지출중 음주대 비율은 '63년 4.7%이던 것이 '70년대 중반이후 최근에 까지 10%이상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표 4-10〉 담배·음주대 지출추이 (명목금액)

(단위: 원, %)

	'63	'75	'85	'90	'94
담 배	230 (36.3)	1 210 (21.5)	2 859 (8.8)	6 176 (5.4)	8 624 (4.0)
※ 담배가격	30(파고다)	150(은하수)	450(솔)	600(88)	900(디스)
음 주	30 (4.7)	590 (10.5)	4 245 (13.0)	15 165 (13.2)	25 800 (11.8)

* ( )안은 문화생활관련 소비지출중에서 차지하는 비중임

○ 담배의 실질지출액은 '75년 2,725원에서 '94년 6,844원으로 2.5배 증가하였음.

※ 흡연율은 '89년 39.3%에서 '92년 38.5%로 약간 감소 (자료 : 통계청, 한국의 사회지표)

○ 음주대는 '75년 1,676원에 불과하던것이 '94년에는 20,016원으로 12배 가까운 증가를 보임.

- '70년대이후 음주대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은 음주가 한국인의 여가생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말해주는데
  · 이것은 여가문화가 점차로 개인 및 가족화되어가는 추세와는 대조적으로, 정서적동질감을 구하고자 하는 한국인 특유의 공동체적 사회여건하에서 음주문화가 발전해 온 사실을 뒷받침함.

※ 음주인구 비율을 보면 '86년 48.3%에서 '92년 57.9%로 증가. 특히, 남자(동기간중 80.1%→85.3%) 보다는 여자(동기간중 20.6%→33.0%)가 훨씬 높은 증가율을 보임 (자료 : 통계청, 한국의 사회지표)

〈표 4－11〉　담배·음주대 실질지출추이

(단위 : 원)

	'75		'85		'90		'94	
	금액	'75년 기준배율	금액	'75년 기준배율	금액	'75년 기준배율	금액	'75년 기준배율
담　배	2 725	1.00	3 104	1.14	6 176	2.27	6 844	2.51
음 주 대	1 676	1.00	5 286	3.15	15 165	9.05	20 016	11.94

* 실질지출액은 '90년 기준임,「실질금액 = 명목금액/물가지수」

4) 이미용 및 장신구

○ 문화관련비용중에서 이미용과 관련한 지출액의 비중은 '63년 당시 25.4%에서 '94년에는 절반수준인 13.4%로 감소하였는데 이는 이미용에 대한 지출도 증가하였으나 외식, 교양·오락 등 다른 문화생활관련 지출이 보다 큰 폭으로 증가하였기 때문에 그 비중이 감소한 것임.

- '70년대 중반까지는 22%전후의 높은 비율을 보여 이미용과 관련한 지출이 문화생활관련 지출의 큰 부분을 차지하였는데
  · 당시 별다른 문화활동이 없던 시절에는 목욕, 이미용이 문화생활의 중요한 하나의 지표가 되었음을 말해주고 있음.

○ 장신구와 관련된 지출추이를 보면 문화관련비용중 장신구 지출액이 차지하는 비중은 크게 변하지 않고 있음.

〈표 4－12〉　이미용·장신구 관련비용 지출추이(명목금액)

(단위 : 원, %)

	'63	'75	'85	'90	'94
이　미　용	161	1 247	5 680	15 233	29 192
	(25.4)	(22.1)	(17.4)	(13.3)	(13.4)
· 이 미 용 품	34	619	2 299	6 602	12 689
	(5.4)	(11.0)	(7.0)	(5.8)	(5.8)
· 이미용서비스	127	628	3 381	8 631	16 503
	(20.0)	(11.1)	(10.4)	(7.5)	(7.6)
장　신　구	22	344	2 096	6 150	7 994
	(3.5)	(6.1)	(6.4)	(5.4)	(3.7)

* ( )안은 문화생활관련 소비지출중에서 차지하는 비중임

○ 물가상승률을 감안한 실질지출액은 '75년 6,177원에서 '94년 24,641원으로 약 4배 증가함.

- 특히, 이미용품은 동기간중 855원에서 13,777원으로 16배가 넘는 높은 증가를 보임.
  - 이는 최근에 여러가지 다양한 이미용품의 개발과 함께 건강하고 아름다운 삶에 대한 현대인들의 관심이 커지면서 그에 대한 지출액도 늘어나기 때문임.
  - 화장품의 경우 과거 분이나 '구리무'라 불렸던 크림종류만이 서민들이 사용하는 화장품의 전부였으나, 오늘날 기능 및 사용목적, 색상에 따라서 종류가 다양화 되고 외국 화장품업체의 국내 진출도 많아져 지출액이 매우 커졌음.

○ 장신구의 실질지출액은 '75년 당시 1,058원이었던 것이 '94년에 7,228원으로 7배 가까이 증가함.

- 특히, 80년대후반 높은 증가율을 보이는데 각자 자신의 개성을 찾으려는 노력과 대중매체에 의한 영향도 많은 작용을 한 것으로 보여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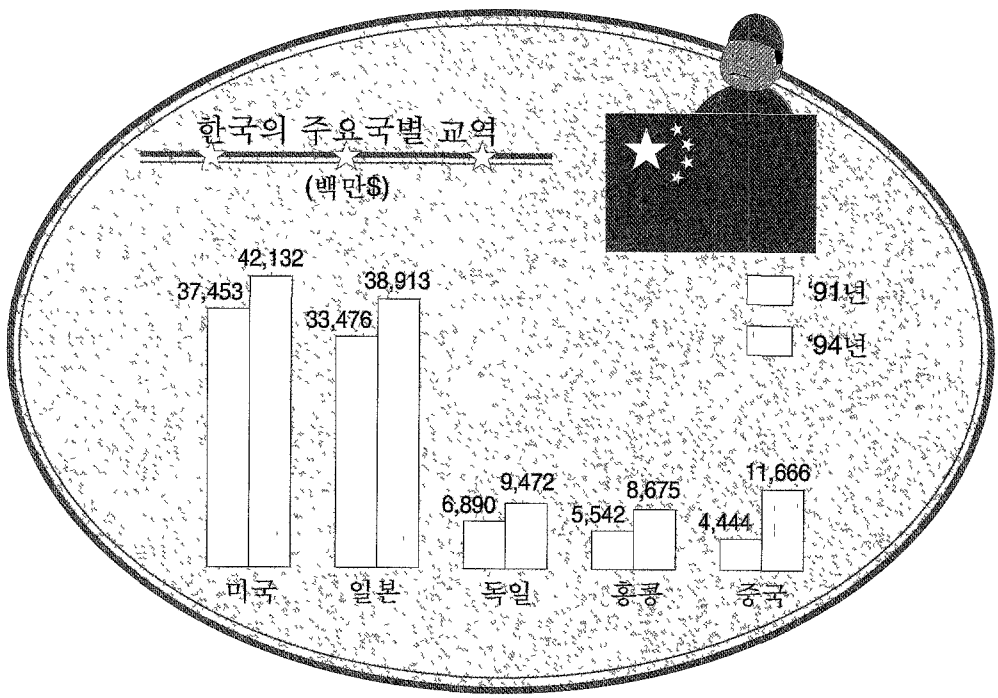
〈표 4－13〉 이미용·장신구 관련비용 실질지출추이

(단위 : 원)

	'75		'85		'90		'94	
	금액	'75년 기준배율	금액	'75년 기준배율	금액	'75년 기준배율	금액	'75년 기준배율
이 미 용	6 177	1.00	6 576	1.06	15 233	2.47	24 641	3.99
· 이미용품	855	1.00	2 318	2.71	6 602	7.72	13 777	16.11
· 이 미 용 서 비 스	5 322	1.00	4 258	0.80	8 631	1.62	10 864	2.04
장 신 구	1 058	1.00	2 235	2.11	6 150	5.81	7 228	6.83

* 실질지출액은 '90년 기준임, 「실질금액 = 명목금액/물가지수」

통계에 나타난
한 • 중간 경제교류 실태



『우리나라의 국별 수출입을 보면
'91년에는 미국, 일본, 독일, 홍콩에 이어
중국이 다섯번째 교역 상대국이었으나
'94년에는 미국, 일본에 이어 세번째의 교역 상대국으로 부상하였다.』

- 본문중에서 -

통계에 나타난

「한·중간 경제교류 실태」

1995. 8

자료관리국 국제통계과

1. 교역

한·중 수교이후 지난 3년간 교역규모 약 3배 신장 - 수출은 6배 증가

○ 수교이전인 91년 우리나라와 중국과의 교역규모는 4,444백만불에 불과하였으나 94년에는 11,666백만불에 달해 3년간 2.6배의 급격한 신장세를 시현하였다.

— 수출입으로 나누어 살펴보면 우리나라의 대중국 수출은 91년에 1,003백만불에서 94년에 6,203백만불로 6.2배나 증가한 반면

— 수입은 같은 기간 동안 3,441백만불에서 5,463백만불로 3년간 58.7% 증가에 그쳤다

<표> 한국의 대 중국 무역규모

(단위: 백만$, %)

연 도	무역 총액	대 중국		수 출	대 중국		수 입	대 중국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1990	134,860	2,853	2.1	65,016	585	0.9	69,844	2,268	3.2
1991	153,395	4,444	2.9	71,870	1,003	1.4	81,525	3,441	4.2
1992	158,407	6,379	4.0	76,632	2,654	3.5	81,775	3,725	4.6
1993	166,036	9,080	5.5	82,236	5,151	6.3	83,800	3,929	4.7
1994	198,361	11,666	6.0	96,013	6,203	6.5	102,348	5,463	5.3
94.1~6	91,076	5,444	6.0	43,713	2,882	6.6	47,363	2,562	5.4
95.1~6	123,593	7,699	6.2	58,328	4,181	7.2	65,265	3,518	5.4
92-94 연평균증가율	8.9	37.9	-	10.1	83.6	-	7.9	16.7	-

자료:한국무역협회『무역통계』

○ 증가율 측면에서 보면 지난 3년간 중국과의 무역액은 연평균 37.9% (수출 83.6%, 수입16.7%)증가해 우리나라 무역 총액의 연평균 증가율 8.9%(수출 10.1%, 수입 7.9%)보다 훨씬 높은 증가세를 나타내었다.

○ 최근에도 대중국무역 신장세는 지속되고 있다. 95년 1~6월까지의 대중국 무역액은 7,699백만불로 전년 동기의 5,444백만불보다 41.4% 증가해 대중국 무역규모가 점차 확대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 이러한 대중국 무역 신장세로 우리나라의 총무역 규모중 대중국 무역규모 비중은 91년에 2.9%에서 95.1~6월에 6.2%로 지난 3여년간 3.3%「포인트」나 증가되었다.

중국이 우리나라의 3대 교역상대국으로 부상

○ 우리나라의 국별 수출입을 보면 91년에는 미국, 일본, 독일, 홍콩에 이어 중국이 다섯번째 교역상대국이었으나 94년에는 미국, 일본에 이어 세번째의 교역 상대국으로 부상하였다.

○ 한편 중국 입장에서 보면 우리나라가 제6위의 교역국을 기록하고 있다

<표> 한국 및 중국의 주요국별 무역(수출+수입)

(단위 : 백만$)

한국			중국		
주요 교역국	1991	1994	주요 교역국	1991	1993
미 국	37,453	42,132	미 국	14,166	27,652
일 본	33,476	38,913	일 본	20,251	39,033
독 일	6,890	9,472	독 일	5,404	10,008
홍 콩	5,542	8,675	홍 콩	49,600	32,537
중 국	4,444	11,666	한 국	3,245	8,220
(순위)	(5)	(3)	(순위)	(6)	(6)
무역총액	153,395	198,361	무역총액	135,633	195,713

대중국 무역수지 흑자전환

○ 통관기준 대중국 수출입을 보면 수교이전에는 수입이 수출을 능가해 91년에는 2,438백만불의 적자를 기록했으나 92년이후 수출이 수입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증가하여 93년 이후 흑자로 반전되었다.

○ 통관기준 무역수지 규모를 연도별로 보면 91년에는 2,438백만불, 92년에는 1,071백만불의 적자였으나 93년에는 1,222백만불, 94년에는 740백만불의 흑자를 보였다.

○ 특히 95. 1~6월중에는 흑자규모가 663백만불로서 전년 같은기간의 320백만불보다 크게 늘어나는 등 흑자규모가 점차 확대되는 추세이다

<표> 대중국 무역수지 추이(통관기준)

(단위:백만$)

	91	92	93	94		95.1~6
				1~6	년 간	
수 출	1,003	2,654	5,151	2,882	6,203	4,181
수 입	3,441	3,725	3,929	2,562	5,463	3,518
무역수지	-2,438	-1,071	1,222	320	740	663

대중국 수출은 중화학 공업제품, 수입은 경공업제품이 주도

○ 94년 수출총액 6,203백만불중 중화학공업제품이 3,613백만불로 대중국 수출의 58.2%를 차지하여 수출을 주도하였다.

○ 반면 수입은 94년 수입총액 5,463백만불중 경공업제품이 1,908백만불로 34.9%를 차지하였으며, 중화학공업제품은 1,338.3백만불로서 24.5%를 차지함으로써 경공업제품이 수입의 주류를 이루고 있다.

○ 94년 수출을 주요 상품별로 보면 섬유류가 1,248백만불(대중국수출의 20.1%)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어 화학제품 1,162백만불, 철강 및 금속제품 930백만불의 순으로 나타났다.

○ 한편 대중국 수입은 93년까지 농림수산품이 매년 30%이상을 차지하며 수입의 주류를 이루었으나 94년에는 섬유류 수입이 대폭 증가(전년비 44.2%)함에 따라 1,427백만불을 기록한 섬유류가 수입 1위 상품으로 부상하였으며, 그 뒤를 이어 농림수산품이 1,335백만불을 기록하였다.

<표> 상품 유형별 대중국 수출입

(단위 : 백만$, %)

	1990	1991	1992	1993	1994	92-94 연평균증가율
수 출 총 액	584.9	1,002.5	2,653.6	5,151.0	6,203.0	83.6
식료품 및 직접 소비재	4.4	2.6	4.9	15.6	32.5	130.9
원 료 및 연 료	3.2	23.5	106.7	357.2	317.2	138.2
경 공 업 제 품	259.2	432.6	776.8	1,378.4	2,240.4	73.0
(섬 유 류)	171.5	281.0	457.9	801.2	1,248.2	64.4
(생활용품)	5.0	13.4	32.5	70.9	112.1	102.8
중 화 학 공 업 제 품	318.1	543.8	1,765.3	3,399.9	3,612.8	88.0
(화학 공업제품)	102.0	195.9	519.7	730.8	1,161.8	81.0
(철강 및 금속제품)	89.3	155.0	858.1	1,125.2	929.5	81.7
(기계류·수송 기계)	29.3	76.3	184.7	1,058.0	870.4	125.1
수 입 총 액	2,268.1	3,440.5	3,724.9	3,928.7	5,462.8	16.7
식료품·원료·연료	1,104.4	1,477.2	1,813.8	1,857.0	2,216.2	14.5
(농림수산업)	599.8	1,053.1	1,238.8	1,223.5	1,334.6	8.2
(광산물)	343.3	392.5	519.2	536.3	642.1	17.8
경 공 업 제 품	739.9	1,259.6	1,230.6	1,246.0	1,908.4	14.9
(섬유류)	469.0	668.8	812.9	989.1	1,426.6	28.7
중 화 학 공 업 제 품	423.9	703.8	680.6	825.7	1,338.3	23.9
(화학공업제품)	520.6	745.2	566.5	446.6	750.0	0.2
(철강 및 금속제품)	239.2	380.1	271.7	237.9	496.3	9.3

2. 투자

대 중국투자 지난 3년간 약 10배 늘어

○ 양국간의 투자보장협정(92. 5월)과 수교가 이루어지면서 대 중국투자는 매우 활발해져 급신장하는 양상을 보였다

○ 수교 전해인 91년의 대 중국투자 건수는 112건으로 84.7백만불의 투자(허가기준)가 이루어졌으나, 94년에는 1,067건에 824.8백만불의 투자가 이루어져 금액 기준으로 지난 3년간 9.7배 신장되었다

○ 증가율면에서 보면 투자금액(허가기준)으로 볼 때 대 중국투자가 92~94년중 3년간 평균 113.5% 신장하여 같은 기간 동안 우리나라의 전체 해외투자 증가율 32.4%를 훨씬 능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이러한 추세는 95년에도 지속되어 95. 1~6월중 대중국 투자금액은 552백만불로써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6.8% 증가하였다

<표> 연도별 한국의 대 중국 투자

(단위 : 건, 백만$, %)

	90	91	92	93	94		95
					1-6월	연간	1-6 월
해외투자(1)							
건 수	517	539	632	1,050	974	1,949	749
투자금액	1,624.8	1,605.6	1,210.4	1,888.5	1,605.7	3,722.7	1,864.5
대중국투자(2)							
건 수	38	112	269	630	520	1,067	416
투자금액	54.5	84.7	221.9	639.4	376.0	824.8	552.0
비 중(2/1)							
건 수	7.4	20.8	42.6	60.0	53.4	54.7	55.5
금 액	3.4	5.3	18.3	33.9	23.4	22.2	29.6

대 중국투자 비중 91년에 5.3%에서 94년에 22.2%로

○ 이처럼 대중국투자가 우리나라 해외투자를 주도함으로써 대중국투자의 비중은 91년에 5.3%에서 94년에 22.2%로 지난 3년간 16.9%「포인트」 나 증가하였다

제조업 분야에 투자 집중

○ 94년말 잔존 허가기준으로 볼 때 대중국 투자는 1,985건에 1,708백만불의 투자가 이루어졌는데 이중 제조업이 1,716건에 1,499백만불을 기록하고 있어 건수 및 금액면에서 86.4%와 87.8%를 각각 차지해 제조업부문의 투자가 대다수를 차지하였음을 알 수있다

○ 제조업 업종별로 보면 조립금속, 섬유·의복, 비금속광물 등 3개업종에서 약 50%의 투자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산업별 대 중국투자(94년말)

(단위 : 건, 백만$)

	해외총투자		대중국투자			
	건수	금액	건수	비중	금액	비중
임업 및 수산업	149	226.3	29	1.5	8.8	0.5
광업	54	1022.8	12	0.6	6.1	0.4
제조업	3342	5679.4	1716	86.4	1499.4	87.8
(조립금속)	493	2091.4	207	(12.1)	329.7	(22.0)
(섬유의복)	817	735.7	397	(23.1)	216.5	(14.4)
(비금속광물)	126	382.6	73	(4.3)	167.9	(11.2)
(신발가죽)	301	282.2	180	(10.5)	142.3	(9.5)
(석유화학)	333	490.4	157	(9.1)	137.7	(9.2)
기타	1524	3355.7	228	11.5	193.3	11.3
총계	5069	10284.2	1985	100.0	1707.6	100.0

주 : ( )은 제조업에 대한 비중

중국의 대 한국투자는 매우 미미

○ 91년까지 중국의 대 한국투자는 5건에 3.6백만불의 투자에 불과 하였으나 94년말 현재 72건 17.6백만불 투자로 큰 증가를 보였다

○ 그러나 이는 우리나라의 대중국투자 규모에 비추어 볼 때 매우 미미한 수준이다

중국의 대 한국투자는 서비스업에 편중

○ 94년말 인가·수리기준으로 본 중국의 대한국투자는 72건에 17.6백만불이며 이중 서비스업에 62건, 11.6백만불의 투자를 기록했다

— 투자수위 업종은 무역업으로 94년말까지 42건에 6.8백만불의 허가·수리가 이루어졌으며

— 음식점업에 대한 투자도 많아 투자 건수로는 무역업에 이어 제 2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금액면에서는 무역, 전기·전자에 이어 제 3위를 기록하고 있다.

<표> 연도별 중국의 대 한국투자

(단위 : 건, 천$, %)

	1990년 이 전	1991년		1992년		1993년		1994년	
			증가율		증가율		증가율		증가율
건 수	2	3	200.0	6	100.0	29	383.3	32	10.3
금 액	2,900	690	590.0	1,056	53.0	6,727	537.0	6,207	-7.7

주 · 인가·수리 기준

3. 인적 교류

한국인의 대 중국 출국자수는 지난 3년간 15배 증가

○ 91년의 대중국 출국자수는 15,261명에 불과하였으나 94년에는 235,452명으로 91년에 비해 15.4배 수준을 나타냈다

○ 증가율을 보면 지난 3년간 연평균 148.9%의 신장세를 보여 우리나라의 전체 출국자 증가율 17.1%를 훨씬 상회하였다

○ 이러한 증가세에 힘입어 한국인의 대중국 출국자수 비중은 91년에 0.7%에서 94년에 6.8%로 지난 3년간 무려 6.1%「포인트」나 증가하였다

<표> 한국인의 대중국 출국자수

(단위 : 명,%)

	90	91	92	93	94	95 1-6월
총출국자수(1)	1,882,400	2,165,725	2,353,889	2,741,500	3,478,199	1,922,340
대중국출국자수(2)	9,645	15,261	43,234	111,655	235,452	161,411
비 중(2/1)	0.5	0.7	1.8	4.1	6.8	8.4

상용, 관광, 취업목적 출국자가 주류를 이루어

○ 한국인의 대중국 출국자를 방문 목적별로 살펴보면 94년의 경우 상용(108,202명)이 46.0%를 차지하고 있으며, 관광(55,190명)이 23.4%, 취업(30,460명)이 12.9%로 3개부문에서 82.3%를 차지했다

○ 특히 94년 4월 중국이 특정국가에서 해제됨에 따라 중국 여행이 더욱 자유로워져 94년에 관광목적으로 중국에 간 사람은 55,190명으로 전년의 3,487명에 비해 약 16배의 폭발적인 증가세를 시현하였다

○ 한편 유학 목적의 출국자가 크게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91년에 유학목적 출국자수가 21명에 불과하였으나 94년에는 4,942명으로 235배나 신장하였다

<표> 한국인의 대중국 출국목적별 출국자

(단위 : 명, %)

	1990년	1991년	증가율	1992년	증가율	1993년	증가율	1994년	증가율
상 용	1669	6457	280.0	22544	149.1	64762	187.3	108202	67.1
관 광	2777	1265	-54.5	2706	113.9	3487	28.9	55190-	16배
취 업	532	686	28.9	1021	48.8	15298	1398.3	30460	99.1
방 문	271	1449	434.9	5348	169.1	13067	144.3	15804	200.9
연 수	1963	4001	103.8	7040	76.0	6756	-4.0	9867	46.0
유 학	12	21	75.0	138	557.1	1011	632.6	4942	388.8
공 무	130	57	56.2	654	1047.4	996	52.3	1797	80.4
회의참석	207	172	-16.9	738	329.1	887	20.2	1604	80.8
기 타	2002	977	-51.2	2662	172.5	4672	75.5	6554	40.3
합 계	9645	15261	58.2	43234	183.3	111655	164.4	235452	110.9

자료 : 출입국 관리국「출입국 관리통계」

중국인의 한국 방문자수는 미증

○ 중국인의 한국 방문자수는 91년 44,188명에서 94년 63,302명으로 지난 3년간 43.2%증가에 그쳤다

○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인 부문은 공무목적 방문으로 91년 107명에서 94년 1,160명으로 11배 증가한 반면 관광목적으로 입국한 중국인은 94년 5,320명으로 91년의 10,492명보다 오히려 5천명 이상 감소하였다

<표> 중국인의 체류자격별 입국자

(단위 : 명, %)

	1990년	1991년	증가율	1992년	증가율	1993년	증가율	1994년	증가율
단기상용	145	91	-37.3	2745	30배	13551	393.7	22683	67.4
단기종합	-	-	-	-	-	10910	-	14848	36.1
산업연수	-	-	-	-	-	4682	-	14220	203.7
방문시찰	12874	25509	98.1	22168	-13.1	-	-	-	
관 광	7802	10492	34.5	6483	-38.2	3696	-43.0	5320	43.9
상 담	2044	2814	37.7	3903	38.7	-	-	-	-
공 무	16	107	568.8	66	-38.3	572	766.7	1160	102.8
일반연수	29	17	-41.4	3219	189배	453	-85.9	79	-82.6
기 타	2305	5358	132.5	6603	23.2	6147	-6.9	4992	-18.8
합 계	25215	44188	75.2	45187	2.3	40011	-11.5	63302	58.2

자료 · 출입국 관리국 「출입국 관리통계」

4. 통신 · 운수

중국발송 우편량은 지난 2년간 3배 증가, 도착은 미증

○ 수교이전의 자료가 없어 수교전후를 직접 비교하기는 곤란하나 92년 대비 94년의 해외 발송 총우편량은 15.4% 감소한 데 비해 동기간 중 대중국 우편발송량은 584천건에서 1,998천건으로 3.4배 증가 하였다.

○ 이에 따라 해외발송 총우편량중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92년 1.7%에서 94년 6.9%로 크게 증가 하였다.

○ 한편 중국으로부터 도착하는 우편량은 92년 1,007 천건에서 94년 1,414천건으로 2년간 40.4%증가에 그쳤다.

<표> 한 · 중 우편량

(단위 : 천건, %)

	1992년	1993년	1994년	92 — 94 연평균증가율
발 송				
총우편량(1)	34,201.3	28,789.7	28,926.9	-8.7
대중국우편량(2)	583.5	1,918.6	1,998.4	85.1
비 중(2/1)	1.7	6.7	6.9	-
도 착				
총우편량(1)	62,653.7	59,584.8	61,828.5	-0.7
대중국우편량(2)	1,007.3	1,200.0	1,414.1	17.5
비 중(2/1)	1.6	2.0	2.3	-

한·중 통화량 급증

○ 발신기준 한·중 통화량은 91년 5,171천분에서 94년 32,240천분으로 6.2배나 증가하였다.

<표> 발신기준 한·중 통화량

(단위:분)

	1990년	1991년	1992년	1993년	1994년
통 화 량	2,267,887	5,170,872	9,924,435	17,858,678	32,240,122

선박 및 항공기 입출항 대폭 증가

○ 인적·물적 교류증가에 따라 91년 중국선적의 우리나라 입출항 선박수가 22척과 26척에 불과하였던 것이 94년에는 1,478척과 1,869척으로 대폭 증가 하였다. 특히 93년 5월 한·중 해운협정 이후 그 증가세가 두드러져 92년 입출항이 각각 83척과 80척에서 94년에는 1,478척과 1,868척으로 입항선적수는 18배, 출항 선적수는 23배나 증가하였다.

○ 중국기적의 항공기 또한 교류증가에 따라 90년 10대에 불과 하였던 것이 94년에는 입출항 수가 각각 550대와 531대로 50배이상씩 증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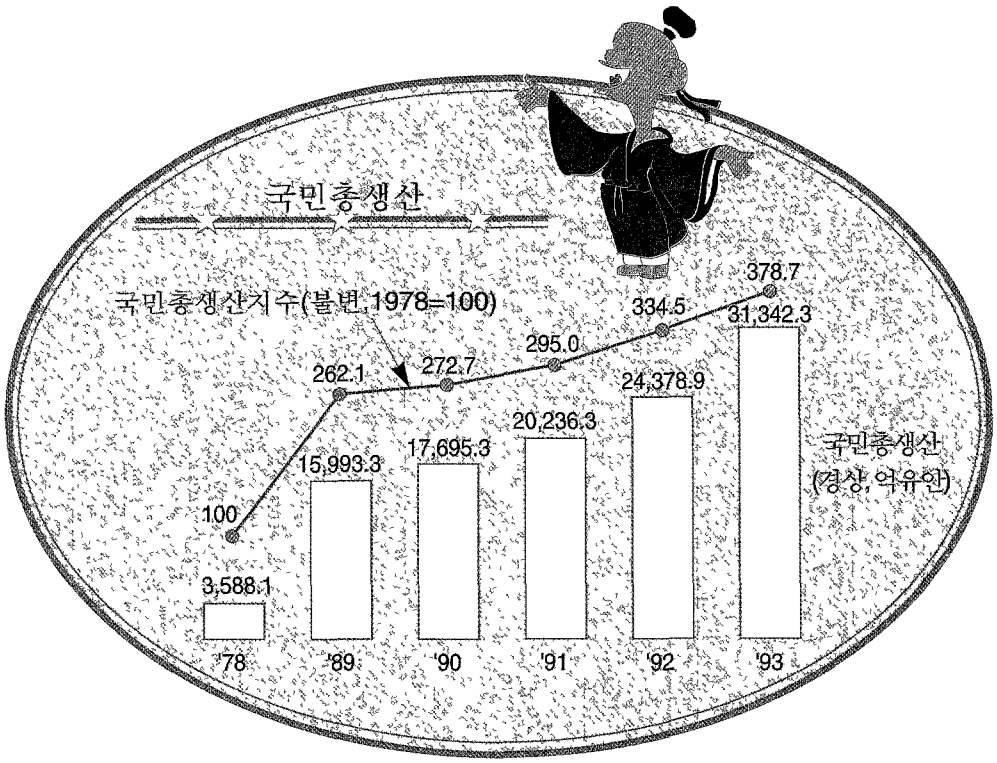
<표> 중국 선박 및 항공기의 입·출항 수

(단위: 척, 대)

	1990년		1991년		1992년		1993년		1994년	
	입 항	출 항	입 항	출 항	입 항	출 항	입 항	출 항	입 항	출 항
선 박	13	16	22	26	83	80	1,689	1,691	1,478	1,869
항공기	10	10	6	8	97	95	291	282	550	531

자료 : 출입국 관리국 「출입국 관리통계」

통계로 본 중국의 경제 사회상



『'79년부터 '93년까지
지난 15년간 중국 경제는
불변가격으로 연평균 9.3%(우리나라는 7.6%),
경상가격으로 연평균 15.5%의 높은 성장을 기록하였다.』

- 본문중에서 -

통계로 본

「중국의 경제 사회상」

1995. 8

자료관리국 국제통계과

1. 인 구

중국의 인구는 세계1위이나 인구밀도는 비교적 낮은편

○ 94년 중국인구는 119,850만명으로 세계에서 단연 1위를 보이고 있으며, 세계전체 인구의 21.2%나 차지하고 있다

— 남녀별 인구를 보면 남자가 전체인구의 51.1%를 차지하여 여자를 상회하고 있다. 이에 따라 여자 100명당 남자수를 나타내는 성비는 104.5명으로써 우리나라의 101.4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90년 인구총조사 자료를 기준으로 지역별 인구를 살펴보면 주요 30개 지역중 사천성이 전체인구의 9.5%를 차지해 가장 높고 그 다음은 하남성(7.6%), 산동성(7.5%), 강소성(5.9%)의 순이었다

○ 인구밀도는 92년 기준으로 1㎢당 122명(94년 125명)으로 집계되 세계 평균 인구밀도인 40명 보다는 높으나 한국(452명), 일본(329명), 영국(237명), 독일(226명) 등 보다는 현저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인구규모 및 인구밀도

국 가 명	추 계 인 구 (94년, 만명)	성 비[1]	인구밀도(92년, 명/1㎢당)
세 계	566,552	101.4	40
중 국	119,850	104.5	122[2]
한 국	4,445	101.4	452[3]
일 본	12,542	97.0	329
미 국	26,051	95.4	27
영 국	5,796	96.1	237
독 일	8,094	94.7	226
프랑스	5,757	95.2	104

주 : 1) 중국, 한국을 제외한 나머지 수치는 95년 자료 2) 94년 125명 3) 95년 기준
자료: 「'94중국통계연감」, 통계청 「'91장래인구추계」, UN 「'92 UN세계인구전망」

<표> 중국 주요 지역의 총인구에 대한 구성비(1990년 인구총조사 자료 기준)

(단위 : %)

사천성	하남성	산동성	강소성	광동성	하북성	호남성	안휘성
9.5	7.6	7.5	5.9	5.6	5.4	5.4	5.0

인구 증가율은 65년을 정점으로 점차 감소 추세

○ 인구증가율은 52년 2.0%, 62년 2.7%, 65년 2.8%로 점차 높아졌으나 그 이후 감소세로 반전하여 94년에는 1.1%로 낮아졌다

— 출생률도 인구증가율과 비슷한 추이를 보이나 사망률은 의료시설 확대와 식생활 개선의 영향으로 52년이후 계속 감소하여 1.7%(52년)에서 0.7%(94년)으로 떨어졌다

○ 91~94년 연평균 인구증가율은 1.2%로 나타나 0.3~0.4%수준을 보이는 유럽국가들에 비해서는 높은 편이나 2~3%대를 보이는 개발도상국의 일반적 수준보다는 낮은 편이다

<표> 자연증가율, 출생률, 사망률의 추이

(단위 : %)

연 도	자연 인구 증가율	출 생 률	사 망 률
1952	2.0	3.7	1.7
1962	2.7	3.7	1.0
1965	2.8	3.9	1.0
1970	2.6	3.3	0.8
1975	1.6	2.3	0.7
1980	1.2	1.8	0.6
1985	1.4	2.1	0.7
1990	1.4	2.1	0.7
1991	1.3	2.0	0.7
1992	1.2	1.8	0.7
1993	1.1	1.8	0.7
1994	1.1	1.8	0.7

<표> 인구증가율 국제비교(91~95년 평균)

(단위 : %)

중 국[1]	한 국	일 본	미 국	멕 시 코
1.19	0.91	0.38	1.03	2.06
독 일	프랑스	영 국	터 키	오스트레일리아
0.44	0.37	0.24	2.05	1.41

주 : 1) 91~94평균

자료 : 「'94 중국통계연감」, 통계청 「'91 장래인구추계」, UN 「'92 UN세계인구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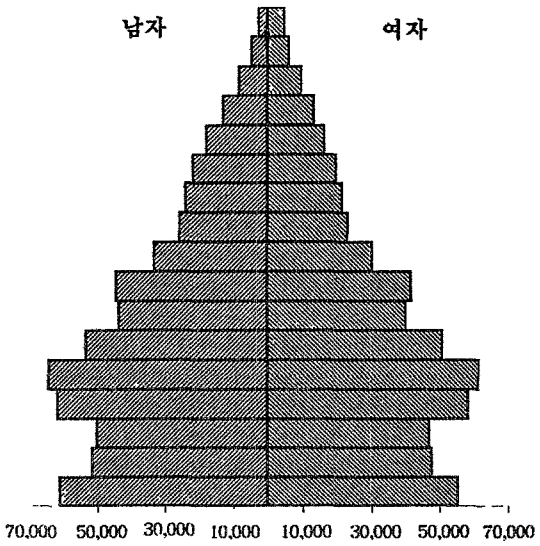
인구구조는 후진국형인 피라미드형을 보여

○ 중국의 90년 인구총조사 자료를 중심으로 인구구조를 살펴보면 저연령층의 인구가 많고 고연령층으로 감에 따라 줄어드는 양상으로써 후진국형인 피라미드형에 가까운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표> 연령구조

(단위 : 천명)

연 령	총 계	남 자	여 자
0— 4	116,438	61,049	55,389
5— 9	99,337	51,631	47,706
10—14	97,227	50,184	47,043
15—19	120,158	61,650	58,508
20—24	125,761	64,233	61,528
25—29	104,268	53,513	50,755
30—34	83,876	43,706	40,170
35—39	86,352	44,569	41,783
40—44	63,708	33,336	30,372
45—49	49,088	25,856	23,232
50—54	45,620	24,111	21,509
55—59	41,709	21,840	19,869
60—64	33,976	17,842	16,494
65—69	26,333	12,918	13,415
70—74	18,051	8,344	9,707
75—79	10,934	4,689	6,245
80+	7,676	2,710	4,966



○ 인구고령화의 정도를 나타내주는 65세 이상 인구비중은 5.6%로 나타나 우리나라(5.7%)와 비슷한 수준이다

— 이를 타국과 비교해보면 미국(12.6%), 일본(12.6%), 독일(15.0%) 등 이미 고령화된 선진국 보다는 훨씬 낮으나

— 베트남(4.7%), 인도(4.1%), 인도네시아(3.9%), 필리핀(3.5%) 등 개발도상국보다는 높은 수준이다

<표> 65세이상 인구 비교

(단위 : %)

중 국(90)	한 국(95)	일 본(91)	미 국(91)	독 일(90)
5.6	5.7	12.6	12.6	15.0
베트남(89)	인 도(91)	인도네시아(90)	필리핀(91)	태 국(92)
4.7	4.1	3.9	3.5	4.1

자료 : 「'94 중국통계연감」, 통계청 「'91.장래인구추계」, UN 「'92 UN세계인구전망」

미혼율 — 중학교 출신이 가장 높아

○ 90년 인구총조사 자료에 따르면 15세이상 인구의 혼인상태별 구성은 미혼이 25.1%, 유배우가 68.2%, 사별이 6.1%, 이혼이 0.6%로 나타났다

— 우리나라의 경우 90년 현재 미혼 33.0%, 유배우 59.1%, 사별 7.2%, 이혼 0.8%로 집계돼 중국의 미혼비율이 우리나라에 비해 낮은 수준을 시현하고 있다

○ 교육정도별로 혼인상태를 보면 국민학교 이하의 학력을 가진 남녀의 유배우 비율(71.3%)이 가장 높고 중학교 출신 남녀의 미혼비율(36.2%)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학력이 높을수록 미혼비율이 높은 것이 일반적이나 중국의 경우는 중학교 출신(36.2%), 고등학교 출신(31.0%), 전문대이상 출신(30.5%) 순으로 오히려 낮아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 국민학교 이하의 혼인상태 구조에서 사별비율(10.1%)이 높은 것은 이들이 사고 위험이 높은 광업 등 노동관련 작업에 주로 종사하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표> 교육 정도별 혼인상태구조(15세이상 인구대상)[1]

(단위 : %)

	미 혼	유 배 우	사 별	이 혼
총 계	25.1	68.2	6.1	0.6
국 민 학 교 이 하	17.9	71.3	10.1	0.7
중 학 교 졸 업	36.2	62.4	0.9	0.5
고 등 학 교 졸업[2]	31.0	67.7	0.7	0.6
전 문 대 이 상	30.5	68.1	0.8	0.6

주 : 1) 우리나라의 경우 90년 미혼 33.0%, 유배우 59.1%, 사별 7.2%, 이혼 0.8%를 보였음

2) 고등중학교와 중등 전문학교로 구성

여성의 평균 초혼 연령은 22.7세로 젊은 편

○ 중국 여성의 평균 초혼연령은 89년 22.1세, 91년 22.3세, 93년 22.7세로 점차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중국 여성의 초혼 연령은 우리나라의 24.9세보다는 낮은 수준이다

— 이를 타국과 비교해보면 미국(23.3세), 일본(25.1세) 등 선진국 보다는 젊으나

— 개도국인 인도(18.7세), 인도네시아(20.0세) 필리핀(22.4세), 아르헨티나(22.9세) 등보다는 높은 것이다

<표> 여성 평균 초혼연령의 국제비교

(단위 : 세)

중 국(93)	한 국(91)	일 본(80년대)	미 국(80년대)
22.7	24.9	25.1	23.3
인도(80년대)	인도네시아(80년대)	필리핀(80년대)	아르헨티나(80년대)
18.7	20.0	22.4	22.9

자료 : 「'94 중국통계연감」,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UN 「 The World's Women 70-90」

중국의 민족구성 — 한족이 91.9%, 조선족은 0.2%에 불과

○ 90년 인구총조사 결과에 의하면 중국은 한족 등 57개 민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중 한족이 전체인구의 91.9%를 차지해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 나머지 소수민족중 인구 100만명을 넘는 민족은 장족(1.4%), 만주족(0.9%), 회족(0.8%), 위구르족(0.6%), 조선족(0.2%) 등 15개 민족이다

○ 조선족은 192만명으로 추산되며 주로 요녕성, 길림성, 흑룡강성 등에서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중국민족의 구성

(단위 : 만명, %)

	한 족	소수 민족									
			장족	만주족	회족	묘족	위구르족	토가족	티벳족	조선족	기타
인구수	103,919	9,132	1,556	985	861	738	721	573	459	192	3,046
구성비	91.9	8.1	1.4	0.9	0.8	0.7	0.6	0.5	0.4	0.2	2.6

2. 고용, 임금 및 물가

경제개혁이후 3차산업으로의 노동력 이동 급증

○ 경제개혁의 첫해인 78년 전체 취업자중 1차산업이 70.5%, 2차산업이 17.4%, 3차산업이 12.1%의 비중을 보였으나,

— 1993년에는 각각 56.4%,. 22.4%, 21.2%로 나타나 경제개혁 및 개방정책의 실시이후 농업부문에서 공업 및 서비스산업 부문으로의 노동력 이동이 빠르게 진전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 3차산업 취업자구성의 경우 우리나라와 미국, 일본 등 선진국은 모두 60%이상을 나타내고 있으나 중국은 아직 20%대에 머물고 있어 중국경제가 선진화됨에 따라 3차산업으로의 노동력 이동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표> 산업별 취업자 구성비

(단위 : %)

		1차	2차	3차
중 국	1978	70.5	17.4	12.1
	1983	67.1	18.8	14.2
	1988	59.3	22.4	18.3
	1993	56.4	22.4	21.2
한 국	1993	14.7	24.4	60.9
미 국	1993	2.7	16.9	80.4
일 본	1993	5.9	23.8	70.2

자료 : 「'94 중국통계연감」, 통계청 「지난 30년간 고용사정의 변화」, ILO 「'94 노동통계연감」

<참고>
○ 대외개방을 선언하기 이전인 78년 이전에는 계획경제체제하에서 노동시장 운영
— 노동력의 배치, 직업할당, 임금수준이 국가에 의해 획일적으로 결정됨으로써 노동력의 자유로운 지역간·업종간 이동이 불가능

○ 대외개방을 공식 선언한 78년부터 노동력의 획일적인 계획관리를 완화
— 기업과 노동자간의 계약고용 방식을 허용함에 따라 특정범위내에서 부분적으로 노동시장이 형성

도시지역 취업자의 68%가 국영기업체에서 근무

○ 93년 도시와 농촌취업자의 비율은 27대 73으로 농촌노동력의 비중이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도시취업자의 비율은 52년 12%에서 점차 높아져 41년간 15% 「포인트」가 증가하여 완만한 증가세를 보여주고 있다

○ 도시지역의 취업자는 93년에 68%가 국영기업체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외국인투자 사업체, 주식회사 등 사영업체 성격의 기업체에 근무하는 취업자는 9.9%로 극히 미약한 수준이다

— 경제개혁의 첫해인 78년에는 국영기업의 취업자비중이 78.3%로 상당히 높았으나

— 93년에는 68.4%로 낮아진 반면 주식회사(1.0%), 외국인투자업체(0.8%), 사영·개인업체 및 기타(8.1%) 등의 취업자구성도가 점차 높아지고 있다

<표> 도시·농촌간 기업체 취업자

(단위: %)

	도 시	국 영	집단 및 협동운영 사업체	주식 회사	외국인 투자 사업체	기 타	농 촌
1952	12.0	63.6	0.9	0	0	35.5	88.0
1978	23.7	78.3	21.5	0	0	0.2	76.3
1993	26.5	68.4	21.7	1.0	0.8	8.1	73.5

도시지역 실업률은 78년에 5%에서 94년에 2%대로 낮아져

○ 도시지역 실업자수는 1994년말 현재 480만명이었으며, 실업률은 2.9%로 1978년의 5.3%보다 2.4%「포인트」하락하였다

— 이는 경제개혁 정책의 추진과 함께 기업설립을 완화하고 경제가 발전함에 따라 고용기회가 대폭 확대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 한편 도시실업자의 약 80%가 청년실업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도시 실업자수 및 실업률

(단위 : 만명, %)

	1978	1983	1988	1993	1994
도시 실업자수	530.0	271.4	296.2	420.1	480.0
·청년 실업자	249.1	222.0	245.3	331.9	379.2
·청년실업자구성	47.0	81.8	82.8	79.0	79.0
실 업 률	5.3	2.3	2.0	2.6	2.9

○ 주요 도시지역의 실업률을 보면 1993년 현재 영하(3.8%), 감숙(3.6%), 사천(3.5%), 호남(3.4%)은 높은 편이며, 북경(0.4%), 산서(0.8%), 천진(1.0%), 길림(1.3%)은 낮은 편이다

○ 개혁개방정책추진이후 인구의 도시집중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어 향후 도시지역의 실업문제가 심각해 질 것으로 예상된다

<표> 주요도시지역의 실업률[1] (1993년)

(단위:%)

북 경	산 서	천 진	길 림	복 건
0.4	0.8	1.0	1.3	1.5
영 하	감 숙	사 천	귀 주	호 남
3.8	3.6	3.5	3.4	3.4

주 : 1) 실업률은 16~50세 이하의 남자와 16~45세 이하의 여자를 대상으로함

경제개방이후 임금 급격히 상승

○ 1952년 부터 실시된 '저임금, 다취업'방침과 계획임금제도의 영향으로 53년 ~ 78년의 1인당 명목임금 평균상승률은 1.25%에 불과하였으나 경제개방이 본격화된 79년 ~ 93년의 연평균 상승률은12.9%로서 급격히 상승하여 왔다

— 이처럼 높은 상승률은 1978년부터 실시된 상여금 및 성과급 지급, 식품가격 보조, 승진에 따른 加給制 도입 등에 따른 것으로 로 풀이된다

대외개방이 활발한 연해지역의 임금이 상대적으로 높아

○ 1인당 연평균 임금은 3,371元이나 지역별 임금을 비교해 보면 상해(5,646元), 북경(4,510元), 천진(4,003元), 광동(5,322元) 등 대외 개방이 활발한 연해지역의 평균 임금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한편 서장(4,067元), 감숙(3,418元), 청해(3,800元) 등 서부 내륙지방의 평균임금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최근 이들 지역의 자원개발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표> 주요지역의 1인당 연평균 임금(1993)

(단위 : 元)

평 균	북 경	천 진	하 북	내몽고
3,371	4,510	4,003	3,034	2,796
요 녕	길 림	흑룡강	상 해	절 강
3,248	2,700	2,661	5,646	4,201
광 동	귀 주	서 장	감 숙	청 해
5,322	2,840	4,067	3,418	3,800

농림수산업, 광공업 보다 서비스업의 임금수준이 높아

○ 93년 산업별 임금을 보면 부동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의 1인당 연평균 임금이 4,320元으로 가장 높고, 다음이 전기·가스·수도업(4,319元), 운수·창고 및 통신업(4,273元), 과학연구기술서비스업(3,904元)순이었다

— 전반적으로 서비스업이 농림어업(2,042元), 광업(3,711元), 제조업(3,348元)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산업별 1인당 임금 순위 비교

순위 / 국가	1	2	3	4	5	6	7	8
중 국	부동산업	전기·가스 수도업	운수 창고 및 통신업	과학연구 기술서비스업	건설업	금융 및 보험업	지질탐사 수리관리업	광 업
한 국	교육 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전기·가스 수도업	기타공공,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	건설업	광 업	보건 및 사회복지 사업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

○ 우리나라와 선진국의 경우도 서비스업이 광공업보다 높은 임금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 94년 우리나라 전산업 월평균 임금은 110만원이며 높은 임금수준을 보인 산업은 교육서비스업(174만원), 금융 및 보험업(157만원),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142만원)순이다

— 중국의 고소득 산업인 부동산업 운수·창고 및 통신업 등은 우리나라에서는 평균 이하의 소득을 받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우리나라 부동산업 : 101만원, 운수 · 창고 및 통신업 : 95만원)

중국의 최근 물가 동향 — 다소 불안

○ 49년 중국 정부 수립이후 70년대말까지 정부의 공정가격 실시에 따른 영향으로 1~2%대의 안정적인 물가 수준을 유지하였다

○ 78년 대외개방, 경제개혁 실시의 영향으로 80년에 6%의 소매물가 상승률을 나타내자 물가조정 정책을 적극적으로 실시하여 81년에는 2.4%로 안정되었다

○ 84~88년간은 경제체제 개혁의 일환으로 추진된 가격현실화 정책의 영향 등으로 지속적인 물가 상승이 일어나 88년에는 사상 최고 수준인 18.5%를 시현하였다

○ 89년 6월의 천안문 사태를 계기로 계엄체제하의 강력한 인플레 억제정책이 실시됨으로써 90년 소매물가 상승률은 2.1% 수준으로 진정되었다

○ 91년 9월 중국정부의 긴축정책 완화 조치이후 고도성장에 따른 각종 원자재가격 상승이 다시 물가상승을 부추기고 있어 93년에는 소매물가 상승률이 13.2%로 다시 급등하여 현재 불안한 물가동향을 보이고 있다

<표> 소매물가 상승률 추이

(단위:1978=100,%)

	78	80	82	84	85	86	87	88	89	90	91	92	93
지 수	100.0	108.1	112.8	117.7	128.1	135.8	145.7	172.6	203.3	207.6	213.6	225.2	254.9
상승률	07	60	19	2.8	88	6.0	73	18.5	17.8	21	2.9	5.4	13.2

3. 광공업

경제개방 선언후 사기업체의 생산액 비중 크게 증가

○ 광공업 총생산액은 78년 4,237억元에서 93년 52,692억元으로 증가하여 지난 15년간 연평균 18.3%의 높은 신장세를 시현하였다

○ 광공업 총생산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소유주체별로 살펴보면 국유기업의 경우 78년 77.6%를 차지 했으나 1984년 69.1%로 떨어진후 계속 그 비중이 줄어 93년에는 43.1% 수준에 머무른 반면

— 78년 경제개혁후 80년부터 나타나기 시작하는 일종의 사기업 형태인 개인소유기업, 합영기업, 사영기업 등의 경우 80년 1% 미만의 비중을 차지하였으나 85년 3%, 90년 9.8%, 93년 18.5%로 그 비중이 크게 증가 되었다

— 앞으로도 비교적 생산규모가 적은 개인소유기업이나 외국의 선진기술이 직접적으로 투입되는 합영기업의 비중은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표> 소유주체별 광공업 생산액

(단위 : 억元, %)

연 도	총생산액	국 유 기 업	집단운영 기업	개인소유기업 및 기타[1]
1978	4,237.0	77.6	22.4	
1980	5,154.3	76.0	23.5	0.5
1985	9,716.5	64.9	32.1	3.0
1990	23,924.4	54.6	35.6	9.8
1991	28,248.0	52.9	35.7	11.4
1992	37,065.7	48.1	38.0	13.9
1993	52,692.0	43.1	38.4	18.5

주 : 1) 사영기업, 합영기업, 홍콩 및 마카오 기업인의 경영기업, 외자경영기업 등 포함

자료 : 「'95 중국통계 적요」

산업구조—중공업 중심

○ 광공업 총생산액을 경공업과 중공업으로 나누어 보면 중공업이 78년 56.9%, 85년 52.9%, 93년 56.0%를 각각 차지하여 중공업이 경공업보다 광공업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79년부터 93년까지 15년간의 생산액증가율을 보면 경공업이 연평균 18.5%, 중공업이 18.2%로 나타나 양부문이 고르게 성장하였다

<표> 광공업 구조

(단위 : 억元, %)

연 도	생 산 액		구 성 비	
	중 공 업	경 공 업	중 공 업	경 공 업
1978	2,411	1,826	56.9	43.1
1985	5,141	4,575	52.9	47.1
1990	12,111	11,813	50.6	49.4
1991	14,447	13,801	51.1	48.9
1992	19,572	17,492	52.8	47.2
1993	29,508	23,184	56.0	44.0
79-93 평균증가율	18.2	18.5	-	-

자료 : 「'95 중국통계 적요」

TV, 냉장고, 세탁기 등 내구소비재의 생산이 대폭 증가

○ 경제개혁 및 대외개방조치이후 중국의 공업생산량은 크게 증가하였다

— 특히 내구소비재가 높은 증가율을 보였는 바 칼라TV의 경우 79년부터 93년까지 연평균 73.2%의 높은 증가율을 보였으며 냉장고(43.0%), 세탁기(95.0%), 선풍기(30.4%), 사진기(31.9%) 등도 연평균 30%이상의 높은 증가율을 나타냈다

○ 우리나라와 비교해보면 선풍기의 경우 중국은 93년 7,387만대를 생산해 우리나라의 31.8배를 나타냈으며, 사진기는 6.5배 세탁기는 4.1배나 많은 양을 생산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표> 주요 공산품 생산 추이

	단위	1978	1985	1991	1992	1993[1]	79-93 평균증가율(%)
가정용 냉장고	만대	2.8	144.8	469.9	485.8	596.4(358.5)	43.0
가정용 세탁기	〃	0.04	887.2	687.2	707.9	895.9(219.9)	95.0
칼 라 TV	〃	0.4	435.3	1205.1	1333.1	1435.8(1537.5)	73.2
사 진 기	〃	17.9	1709.0	478.2	526.5	1136.5(176.0)	31.9
선 풍 기	〃	137.8	3174.6	3174.6	6837.0	7387.3(231.9)	30.4
화 학 섬 유	만톤	28.5	94.8	94.8	213.0	237.4(145.8)	15.2

주 : 1) ( )은 우리나라의 생산량

4. 무역 및 외환

중국의 무역규모 세계 9위

○ 중국의 수출액은 93년 현재 917억 달러 (94년 1,210억 달러)로 세계 9위를 기록하고 있다

— 1위는 4,651억 달러를 수출한 미국, 2위는 3,800억 달러인 독일, 3위는 3,616억 달러인 일본이며 우리나라는 822억 달러(94년 960억 달러)로 세계 11위를 보이고 있다

○ 중국의 수입액도 93년 현재 1,040억 달러(94년 1,157억 달러)로 세계 9위를 기록하고 있다

— 1위는 미국으로 5,807억 달러, 2위는 독일 3,426억 달러, 3위는 일본 2,413억 달러이며, 우리나라는 838억 달러(94년1,023억 달러)로 11위를 보이고 있다

<표> 수출입액(1993)

(단위 : 억미불)

순위	수 출		순위	수 입	
1	미 국	4,651	1	미 국	5,807
2	독 일	3,800	2	독 일	3,426
3	일 본	3,616	3	일 본	2,413
4	프랑스	2,104	4	영 국	2,038
5	영 국	1,783	5	프랑스	1,948
9	중 국[1]	917	9	중 국[1]	1,040
11	한 국[2]	822	11	한 국[2]	838

주 : 1) 94년 수출은 1,210억 달러, 수입은 1,157억 달러
2) 94년 수출은 960억 달러, 수입은 1,023억 달러

자료 : 「'94 중국통계연감」, 한국은행 「조사통계월보 95.5」
OECD 「주요경제지표 95.5」

○ 중국은 85년과 86년에 우리나라보다 많은 무역규모를 보인 후 87년부터는 수입 증가세의 둔화로 우리보다 적은 규모를 보이다 92년 이후에는 수출 호조에 힘입어 우리나라의 수출입을 능가 하였다

공업화의 추진으로 공업제품의 수출입이 크게 증가

○ 78년 개혁·개방 당시 총수출액의 구성을 보면 1차 상품(SITC 0~4) 53.5%, 공업제품(SITC 5~9) 46.5%로 원재료 중심의 수출구조를 보였다

— 78년 이후 공업화의 본격 추진으로 1차 상품의 수출비율은 계속 감소하고, 공업제품의 비율은 계속 증가하여 93년에는 1차상품이 18.2%, 공업제품이 81.8%의 구성을 나타냈다

○ 수입에 있어서도 1차상품의 비율이 80년에 34.8%였으나, 93년에는 13.6%로 크게 줄고, 공업제품의 비율은 80년에 65.2%에서 93년에 86.4%로 늘어났다

— 특히 기계류의 수입이 빠르게 증가하여 기계 및 운수장비의 수입이 93년 전체수입의 43.3%를 차지하였다

<표> 수출입 상품구조

(단위 : %)

	수 출				수 입			
	1980	1985	1990	1993	1980	1985	1990	1993
1차상품(SITC 0~4)	50.3	50.6	25.6	18.2	34.8	12.6	18.5	13.6
0 식품 및 산동물	16.5	13.9	10.6	9.2	14.6	3.7	6.3	2.1
1 음료 및 담배류	0.4	0.4	0.6	1.0	0.2	0.5	0.3	0.2
2 비식용원료	9.4	9.7	5.7	3.3	17.8	7.7	7.7	5.2
3 광물성연료	23.6	26.1	8.4	4.5	1.0	0.4	2.4	5.6
4 동식물류, 유지, 왁스	0.3	0.5	0.3	0.2	1.2	0.3	1.8	0.5
공업제품(SITC5~9)	49.7	49.4	74.4	81.8	65.2	87.4	81.5	86.4
5 화학품 및 관련제품	6.2	5.0	6.0	5.0	14.5	10.6	12.5	9.3
6 섬유 고무 철강 등 제조제품	22.1	16.4	20.3	17.9	20.8	28.2	16.7	27.5
7 기계 및 운수장비	4.7	2.8	9.0	16.7	25.6	38.4	31.6	43.3
8 잡제품	16.8	25.2	39.2	42.3	4.4	10.3	20.8	6.2

중국의 무역 - 일본, 미국, 홍콩, 한국 등에 크게 의존

○ 78년 이후 대외 무역관계의 계속적인 확대로 현재 180여개 국가와 교역관계를 맺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중국의 수출입 비중을 국별로 보면 93년 현재 일본(19.9%), 홍콩(16.6%), 미국(14.1%) 등 3개국의 비중이 50%를 넘고 있어 그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대만(7.4%), 독일(5.1%), 한국(4.2%), 러시아(3.9%)와의 교역도 점차 높아지고 있다

○ 특히 선진국에 대한 수출입 비중이 점차 높아지고 있는 바 일본, 미국, EEC의 비중이 93년 현재 전체의 47.3%를 차지할 정도이다

<표> 중국의 국별 수출입 현황(1993)

(단위 : 억달러)

	수출입		수 출	수 입
		비중(%)		
총 액	1,957.0	100.0	917.4	1,039.6
일 본	390.3	19.9	157.8	232.5
홍 콩	325.3	16.6	220.6	104.7
미 국	276.5	14.1	169.6	106.9
대 만	143.9	7.4	14.6	129.3
독 일	100.1	5.1	39.7	60.4
한 국	82.2	4.2	28.6	53.6
러시아	76.8	3.9	26.9	49.9
E E C	261.0	13.3	116.9	144.1
ASEAN	106.7	5.5	46.8	59.9

자료 : 「중국해관통계」(한국에 대한 수출입은 우리나라에서 잡은 통계와 차이가 있음)

중국의 외자도입은 홍콩, 일본, 대만에 크게 의존

○ 78년 개혁·개방 노선이 공식적으로 채택된후 외자도입은 꾸준히 증가하였다

— 80년대 중반까지는 차관이 주류를 이루었으나 중반 이후에는 직접투자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 특히 최근 중국이 전면적인 대외개방정책을 추구하면서 외국기업들의 중국진출이 크게늘어 92년에는 대외개방이후 12년간에 이루어진 외자도입 계약건수보다도 많은 48,858건을 기록했으며 93년에는 계약건수 83,595건, 계약금액 1232.7억달러를 기록하였다

○ 중국의 외자도입 현황을 국별로 보면 93년 현재 집행기준으로볼 때 홍콩(48.5%), 일본(12.6%), 대만(8.1%) 3개국이 전체 도입액의 70% 정도를 차지하고 있어 중국의 외자도입이 이들 3개국에 크게 의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차관의 경우 일본이 전체 차관액의 31.7%를 차지했으며 그 다음은 세계은행(17.0%), 홍콩(12.9%), 프랑스(5.7%), 미국(5.3%)의 순이었다

— 직접투자는 홍콩이 전체 직접투자액의 62.8%를 차지했으며 그다음은 대만(11.3%), 미국(7.4%), 일본(4.9%)의 순이었다

○ 우리나라는 92년 수교후 투자가 급격히 증가하고는 있으나 93년 현재 집행기준으로 중국 외자도입 총액의 1.0%수준에 불과하였다. (우리나라의 대 중국투자는 중국의 통계에 나타난 수치와 우리나라 통계에 나타난 수치간에 차이가 있음)

<표> 외자 도입액 추이(계약 기준)

(단위 : 억미불)

	총 계		차 관		외국인 직접투자 및 기타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79 - 82	949	205.7	27	135.5	922	70.0
1985	3,145	98.7	72	35.3	3,073	63.3
1988	6,063	160.0	118	98.1	5,945	61.9
1989	5,909	114.8	130	51.9	5,779	62.9
1990	7,371	120.9	98	51.0	7,273	69.9
1991	13,086	195.8	108	71.6	12,978	124.2
1992	48,858	694.4	94	107.0	48,764	587.4
1993	83,595	1232.7	158	113.1	83,437	1119.7

<표> 국별 외자 도입액(집행기준, 1993)

(단위 : 백만미불, %)

	총 계	구성비	차 관	구성비	외국인 직접투자 및 기타	구성비
총 계	38,959.7	100.0	11,188.9	100.0	27,770.9	100.0
홍 콩	18,893.0	48.5	1,448.0	12.9	17,444.9	62.8
일 본	4,906.0	12.6	3,544.7	31.7	1,361.4	4.9
대 만	3,139.1	8.1			3,139.1	11.3
미 국	2,662.5	6.8	594.7	5.3	2,067.9	7.4
프 랑 스	774.8	2.0	633.3	5.7	141.4	0.5
영 국	570.7	1.5	350.2	3.1	220.5	0.8
한 국[1]	384.5	1.0	30.0	0.03	381.5	1.4
독 일	274.5	0.7	212.0	1.9	62.5	0.2
세 계 은 행	1,904.9	4.9	1,904.9	17.0		
아시아개발은행	343.4	0.9	343.4	3.1		

주 : 1) 통계작성 기준 및 시점 등의 차이로 우리나라에서 발표한 통계수치와는 차이가 있음

중국의 대외채무구조는 비교적 안정적

○ 중국은 자본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개도국으로서 경제건설에 필요한 자금의 상당부문을 외자에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그러나 88년 중국의 외채규모가 400억 달러를 넘어서자 외채 위험에 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 중국의 외채는 93년 현재 835.8억 달러를 보이고 있으나,

— 원리금 상환액의 재화 및 용역수입에 대한 비율인 원리금 상환 부담율(DSR)은 7.7% 정도로 위험수준인 25%에 비해 상당히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 외채의 외환수입에 대한 채무비율도 92년 현재 91%정도로 기타 개도국에 비해 상당히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 외채구조를 보면 93년 현재 총외채 835.8억 달러중 중장기 채무가 83.8%를 차지하고 있으며, 단기 채무는 16.2%를 차지하고 있다

<표> 중국의 외채 추이

(단위 : 억달러, %)

	총외채	중장기 외 채	구성비	단 기 외 채	구성비	원리금상환 부담율(DSR)[1]	외환수입 대비 채무 비율[2]
1985	158.28	94.10	59.5	64.18	40.5	2.6	53.4
1988	400.03	326.96	81.7	73.07	18.3	6.3	84.4
1991	605.61	502.57	83.0	103.04	17.0	8.0	87.0
1992	693.21	584.75	84.4	108.46	15.6	7.3	90.7
1993	835.75	700.27	83.8	135.46	16.2	7.7	

주 : 1) 원리금상환율 = 원리금상환액/재화 및 용역수입, 원리금 상환액에는 단기외채상환액은 미포함
2) 외환수입대비 채무비율 = 총외채/외환수입

자료 : 「'93중국통계연감」, 「91/ 92대외경제무역연감」

5. 재　　정

개혁·개방정책이 본격화되는 79년부터 재정적자 누적

○ 경제개혁정책이 본격적으로 실시되었던 79년부터 계속적인 재정 적자 기조를 시현하고 있다

— 85년 21.6억원의 흑자를 제외하면 79년(-170.6억원)부터 93년(-205.0억원)까지 계속적으로 적자를 보였다

— 이는 개혁·개방 추진에 따른 투자지출의 증대와 각종 재정보조의 급증 등에 기인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표> 중국의 재정적자추이

(단위 : 억元)

	수　　입	지　　출	재정수지
1978	1,121.2	1,111.0	10.2
1979	1,103.3	1,273.9	-170.6
1980	1,085.2	1,212.7	-127.5
1981	1,089.5	1,115.0	-25.5
1982	1,124.0	1,153.3	-29.3
1983	1,249.0	1,292.5	-43.5
1984	1,501.9	1,546.4	-44.5
1985	1,866.4	1,844.8	21.6
1986	2,260.3	2,330.8	-70.6
1987	2,368.9	2,448.5	-79.5
1988	2,628.0	2,706.6	-78.6
1989	2,947.9	3,040.2	-92.3
1990	3,312.6	3,452.2	-139.6
1991	3,610.9	3,813.6	-202.7
1992	4,153.1	4,389.7	-236.6
1993	5,114.8	5,319.8	-205.0

78년 대외시장개방 선언후 국방비는 절반으로 줄고 사회 교육비는 거의 배가 되어

○ 78년 개방선언시 세출의 기능별 구성을 보면 경제사업비 63.7%, 사회교육비 13.2%, 국방비 15.1%를 나타냈으나,

— 점차 사회교육비의 비중은 늘고, 국방비의 비중은 줄어 들어 93년에는 사회교육비 22.3%, 국방비 8.1%를 시현하였다

— 경제사업비의 경우도 78년 63.7%에서 93년 40.5%로 줄어들었으나, 이는 78년 경제개혁이후 각종 경제정책을 예산외 자금으로 보조하게 됨에 따른 영향으로 분석된다

<표> 국가재정 세출의 기능별 분류

(단위 : %)

	경제사업비	사회교육비	국 방 비	행정관리비	기 타
1978	63.7	13.2	15.1	4.8	3.2
1981	48.8	19.0	15.1	7.4	9.7
1984	50.7	21.5	11.7	9.0	7.1
1987	51.5	20.7	8.6	9.3	9.9
1990	44.8	21.4	8.4	12.0	13.4
1993	40.5	22.3	8.1	12.0	17.1

6. 국민소득

경제개방 선언후 연평균 9.3%의 고도성장을 이룩

○ 79년부터 93년까지 지난 15년간 중국경제는 불변가격으로 연평균 9.3%(우리나라는 7.6%), 경상가격으로 연평균 15.5%의 높은 성장을 기록하였다

— 불변GNP 추이를 살펴보면 88년 9월이후 중국정부의 治理整頓이라 일컬어지는 긴축정책의 실시로 89년과 90년에는 4.3%, 4.0%의 상대적으로 낮은 성장률을 보였으나 긴축정책이 종료된 91년 가을이후 빠른 회복세를 보여 91년 8.24%, 92년 13.4%, 93년 13.2%의 고도성장을 이룩하였다

<표> 경제성장 추이[1]

	단 위	1988	1989	1990	1991	1992	1993	79—93 평균성장률 (%)
국민총생산 (경상)	억元	3588.1	15993.3	17695.3	20236.3	24378.9	31342.3	15.5
국민총생산 지수(불변)	78=100	100.0	262.1	272.7	295.0	334.5	378.7	9.3
1인당 국민총생산	元 표시	375	1430	1559	1758	2093	2663	14.0
	미불표시[2]	223	380	326	330	380	462	5.0

주 : 1) 중국은 SNA방식을 도입하여 1978년 자료부터 발표
2) IMF의 국제금융통계(IFS)의 대미중국환율 적용

○ World Bank 자료에 따르면 93년 중국 GNP규모는 5810억달러로 미국, 일본, 독일 등에 이어 세계 7위를 나타냈다

— 중국은 인구규모, 높은 경제성장률 추이 등을 고려할 때 2천년대에 들어서면 세계 5위권내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 1인당 국민총생산은 달러표시 기준으로 78년 223달러에서 93년 462달러로 늘어나는데 그쳐 아직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표> GNP의 국제비교(1993년)

(단위 : 10억미불)

중 국	한 국[1]	일 본	미 국	캐나다
581	331	3,927	6,388	575
독 일	영 국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1,903	1,043	1,289	1,135	534

주 : 1) 우리나라는 세계 12위 기록 자료 : 「'95 The World Bank Atlas」

국내총생산에서의 3차 산업 비중이 점차 높아지고 있어

○ 경제활동별 국내총생산을 보면 78년에 1차산업이 28.4%, 2차산업이 48.6%, 3차산업이 23.0%에서 93년에 1차산업이 21.2%, 2차산업이 51.8%, 3차산업이 27.0%로 변화되어 15년간 산업구조의 큰 변화는 없었으나,

○ 1차 산업의 경우 그 비중이 계속 낮아지고 있고 3차 산업은 점차 높아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중국경제가 성장함에 따라 당분간 이 추세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표> 경제활동별 국내총생산

(단위 : %)

연 도	1차 산업	2차 산업[1]	3차 산업
1978	28.4	48.6	23.0
1983	33.9	45.7	20.4
1988	27.2	46.8	26.0
1990	28.4	43.6	28.0
1991	26.2	45.1	28.7
1992	23.8	48.0	28.2
1993	21.2	51.8	27.0

주 : 1) 건설업 포함

7. 교 육

중국의 고등교육 진학률 그다지 높지 않아

○ 진학률을 보면 국민학교 적령아동입학률과 국민학교 졸업생 진학률은 94년에 각각 98.4%, 86.6%로 비교적 높은 수준이나 중학 졸업생 진학률은 46.4%로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국민학교 적령아동 입학률 및 졸업생 진학률(1994)

(단위 : %)

	국민학교 적령아동 입 학 률	국민학교 졸업생 진 학 률	중학졸업생 진학률
중 국	98.4	86.6	46.4
한 국	98.3	99.5	97.5

자료 : 「94 중국통계연감」, 교육부

○ 인구 10만명당 대학생수를 보면 94년 2.3명에 불과해 우리나라의 4,008명, 미국의 5,653명, 일본의 2,338명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 이는 교육경비, 학교공간, 학생모집과 배분 등의 제약요인으로 인해 대학시설 및 학생수를 증가시키지 못한데 기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표> 인구 10만명당 대학생수

(단위 : 명)

중국(94)	한국(94)	미국(92)	일본(91)
2.3	4,008	5,653	2,338
독일(91)	영국(91)	프랑스(92)	오스트레일리아(92)
3,051	2,406	3,414	3,178

자료 : 「'94 중국통계연감」,한국교육개발원 「'94 한국의 교육지표」

교원 1인당 학생수 선진국 수준

○ 국민학교, 중·고등학교, 대학교의 교원 1인당 학생수를 비교해 보면 전과정 모두에서 우리나라보다 월등히 적고 미, 일 등 선진국과는 비슷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 중국의 교사 1인당 학생수는 93년 기준 국민학교 22.4명, 중·고등학교 14.7명, 대학교 6.5명으로 교육선진국인 미국의 20명, 13명, 16명, 일본의 20명, 16명, 10명과 비슷한 수준을 보여주었다

<표> 교원 1인당 학생수

(단위 : 명)

	국민학교		중·고등학교		대 학 교	
	연도	학생수	연도	학생수	연도	학생수
중 국	93	22.4	93	14.7	93	6.5
한 국	94	30	94	23	94	34
미 국	85	20	85	13	90	16
일 본	92	20	91	16	91	10
영 국	90	20	—	—	91	16
카 나 다	92	17	92	16	91	29
뉴질랜드	92	16	92	9	92	12

자료 : 「'94 중국통계연감」
한국교육개발원 「'94 한국의 교육지표」
UNESCO 「'94 통계연감」

8. 보건 및 체육

의료시설 및 인력은 빈약한 수준

○ 병상수의 경우 62년 93만개소에서 93년 310만개로 늘어나 30여년간 불과 3.3배 증가했으며 인구 10만명당 병상수도 62년 103개에서 93년 240개로 늘어나는 데 그쳤다

— 인구 10만명당 병상수를 주요국과 비교해 보면 미국이 585개, 일본이 1,316개, 영국이 1,124개 등으로 선진국에 비해 매우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 인구 10만명당 의사수의 경우도 62년 102명에서 93년 158명으로 늘어나는 데 그쳐 선진국의 일반적 수준인 200~400명선에는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다

<표> 병상수 및 의사수 현황

(단위 : 만개, 만명)

	병상수	인구10만명당 (개)	의사수[1]	인구10만명당 (명)
1962	93.3	103	68.8	102
1970	126.2	133	70.2	85
1975	176.4	173	87.8	95
1980	218.4	201	115.3	117
1985	248.7	211	141.3	133
1990	292.5	230	176.3	154
1993	309.9	240	183.2	158

주 . 1) 한의사와 양의사

<표> 인구 10만명당 병상수의 국제비교

(단위 : 개)

중국(93)	한국(93)	미국(80)	일본(88)
240	374	585	1,316
영국(81)	프랑스(82)	대만(93)	싱가포르(81)
1,124	588	479	405

자료 : 「'94 중국통계연감」, 보건복지부 「보건사회 통계연보」, UN 「UN 통계연감」

주요 사망원인에 폐결핵, 전염병, 신생아질환이 포함되어 있는 전형적인 후진국형 사인유형을 보여

○ 중국의 사망원인을 도시, 농촌으로 나누어 살펴보면,

— 도시에서는 각종 암으로 인한 사망이 21.8%를 차지해 가장 높고, 그 다음이 뇌혈관 질환(21.4%), 호흡기 질환(17.1%), 심장병(14.7%)의 순이며 정신병(1.2%)과 신생아병(1.1%)이 주요사인 10위 내에 포함되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 농촌에서는 호흡기 질환이 26.5%를 차지해 가장 높고 그 다음이 악성 종양(16.4%), 뇌혈관 질환(15.7%) 손상과 중독(11.5%)의 순이며 폐결핵(1.9%), 신생아 질환(1.9%), 전염병(1.4%)이 주요사인 10위 내에 포함되는 특징을 나타내고 있다

○ 일본, 미국, 영국 등 주요국과 비교해 보면 주요국에서는 주요사인에 포함되지 않는 신생아병, 전염병, 폐결핵에 의한 사망이 10대 사망원인으로 포함되어 있어 전형적인 후진국형 사인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0대 사망원인 비교

(단위 : %)

순 위	중 국(93)				한국(93)	일본(92)	미국(90)	영국(90)
	도 시	구성비	농 촌	구성비				
1위	악성 종양	21.8	호흡기질환	26.5	악성 종양	악성 종양	심장병	심장병
2위	뇌혈관질환	21.4	악성 종양	16.4	뇌혈관질환	심장병	악성 종양	악성 종양
3위	호흡기질환	17.1	뇌혈관질환	15.7	불의의사고	뇌혈관질환	뇌혈관질환	뇌혈관질환
4위	심장병	14.7	손상과 중독[1]	11.5	심장병	폐렴	불의의사고	폐렴
5위	손상과 중독[1]	6.8	심장병	10.0	만성간질환 및 경변증	불의의사고	폐렴	불의의사고
6위	소화기질환	3.7	소화기질환	5.0	고혈압성 질환	자살	당뇨병	기관지염및 폐기종, 천식
7위	내분비 및 신진대사질환	2.1	폐결핵	1.9	당뇨병	신염, 신증후군 및 신증	고혈압성 질환	당뇨병
8위	비뇨·생식기질환	1.6	신생아질환	1.9	기관지염 및폐기종, 천식	만성간질환 및 경변증	자살	위·십이지장궤양
9위	정신 질환	1.2	전염병[2]	1.4	결핵	기관지염 및폐기종, 천식	만성간질환 및 경변증	자살
10위	신생아질환	1.1	비뇨·생식기질환	1.3	자살	당뇨병	기관지염 및 폐기종, 천식	아테로마성 경화증

주 : 1) 일반적으로 불의의 사고에 포함하여 집계　2) 폐결핵 제외

자료 : 「'94 중국통계연감」, 통계청「사망원인 통계연보」　WHO「WHO 통계연감」

중국 체육 — 여성이 주도

○ 중국의 세계기록 수립을 보면 78년에는 3종목에서 3회의 세계기록을 경신했던 것으로 나타났고, 그후 완만한 증가세를 보인후 92년 (42종목, 106회), 93년 (57종목, 124회)에 급격히 증가하였다

○ 중국의 세계기록 수립을 성별로 보면 78년의 세계기록 수립은 모두 여성에 의해 이루어졌고 91년 세계기록 수립회수의 88.0%, 92년 96.2%, 93년 87.9%가 모두 여성에 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 종목면에서도 여성의 활동이 두드러져 91년 중국이 세계기록을 수립한 31종목의 83.9%, 93년 수립한 57종목의 82.5%가 모두 여자 종목이었다

<표> 중국의 세계기록수립 회수 및 종목수

(단위:%)

	회 수		종 목 수	
		여 자		여 자
1978	3	100.0	3	100.0
1982	15	26.7	11	36.4
1986	12	50.0	7	57.1
1990	16	56.3	14	64.3
1991	50	88.0	31	83.9
1992	106	96.2	42	
1993	124	87.9	57	82.5

9. 사회, 문화 및 관광

주거환경은 위해, 심천, 주해, 해구가 비교적 좋은 편

○ 주거면적, 수도보급률, 도시가스보급률, 대중교통 차량수, 녹지면적 등을 고려하여 중국 주요도시를 비교해 보면 위해, 심천, 주해, 해구가 타도시에 비해 비교적 좋은 주거환경을 갖춘 것으로 나타났다

○ 1인당 주거면적을 보면 위해와 해구가 각각 10.1㎡으로 가장 넓고 그다음은 주해(9.9㎡), 녕파(9.0㎡), 북경(8.5㎡)의 순이었다

○ 수도 보급률의 경우 46개 주요도시중 20개(43.5%)가 100%의 수도보급률을 보였으며, 나머지 도시도 대부분이 90%이상을 보였다

○ 도시가스 보급은 도시간 차이가 커서 위해, 해구, 연대, 주해 등이 95% 내외를 보인 반면 서녕, 귀주, 호허호터, 합비 등은 40% 이하의 보급률을 보였다

○ 서민의 교통편의도를 비교해 보기 위해 만명당 대중교통 차량수를 비교해 보면 만명당 대중교통 차량수가 가장 많은 도시는 심천으로 17.8대였으며 북경(14.0대), 청도(14.0대), 대련(13.3대), 서녕 (13.0대), 해구(11.7대)등도 비교적 많은 차량수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1인당 공공녹지 면적을 보면 주해(17.6㎡), 위해(16.1㎡), 심천(16.0㎡), 귀양(13.3㎡)이 높은 수준을 보였으나 이는 93년 우리나라의 1인당 도시공원 면적인 18.6㎡ 에도 미치지 못하는 낮은

<표> 중국 주요도시의 주거 환경비교 (1993년)

	1인당주거 면적(㎡)	도시수도 보급률(%)	도시가스 보급률(%)	만명당대중 교통차량수 (대)	1인당공공 녹지면적[1] (㎡)
북 경	8.5	100.0	86.6	14.0	6.4
호허호터	7.1	91.1	33.7	4.0	2.6
대 련	7.2	100.0	92.7	13.3	4.5
하얼빈	6.2	96.3	91.0	7.3	3.3
상 해	7.3	100.0	50.9	11.2	1.0
남 경	7.6	100.0	84.9	11.0	6.9
녕 파	9.0	97.6	65.6	9.0	2.3
합 비	7.7	99.5	34.9	7.7	7.3
청 도	7.7	99.1	63.1	14.0	3.9
연 대	8.4	98.4	97.7	4.2	6.2
위 해	10.1	100.0	98.2	5.4	16.1
심 천	7.7	100.0		17.8	16.0
주 해	9.9	87.1	94.6	9.8	17.6
해 구	10.1	98.0	98.0	11.7	6.2
귀 양	7.3	93.3	32.5	9.7	13.3
서 안	6.4	98.1	39.2	6.1	2.4
서 녕	6.9	99.1	17.1	13.0	2.3

주 : 1) 93년 우리나라의 1인당 도시공원 면적을 보면 서울 8.7㎡, 부산 7.9㎡, 대구 19.5㎡, 인천 14.4㎡이었으며 1인당 도시공원 면적의 전체 평균은 18.6㎡이었음

경제개방이후 출판물 발간 급증

○ 94년 현재 도서발간 종수는 약 10만종으로 우리나라의 3.5배, 일본과 미국의 2.1배에 달하고 있다

— 52년 1만 4천종에 불과하던 도서발간은 경제개방을 선언한 78년에 1만5천종을 시작으로 급격히 증가하여 94년에는 10만 2천종에 이른다

○ 신문의 경우도 52년 296종에서 점차 줄어 78년에 186종에 불과하였으나 그 이후 급격히 증가하여 94년에 972종을 나타내 16년동안 5.2배나 증가하였다

○ 이러한 출판물의 급격한 증가는 78년 경제개방선언 이후 현대화건설 추진에 따른 필연적인 추세로 분석된다

<표> 도서 및 신문출판 현황

(단위 : 종, 억권)

	도 서 발 간[1]		신 문	
	종류	총발간부수	종류	총인쇄부수
1952	13,692	7.9	296	16.1
1978	14,987	37.7	186	127.8
1983	35,700	58.0	340	155.1
1988	65,961	62.2	829	207.2
1993	96,761	59.3	943	192.6
1994	102,355	59.3	972	186.7

주: 1) 94년 우리나라의 도서발간 종수는 29,564종이며, 미국은 49,276종(92년), 일본은 48,053종(93년)이었음

중국 방문 관광객수 - 경제개방 선언이후 폭발적으로 증가

○ 78년 중국이 개방노선을 채택한 이후 중국을 찾는 해외 관광객수는 해마다 크게 늘어나면서 관광수입 또한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 중국을 방문한 관광객수(동포 및 화교포함)를 보면 개방선언 해인 78년에 181만명에 불과했던 관광객수가 85년 1,783만명, 90년2,746만명, 94년 4,368만명으로 증가하여 16년 사이 24배 이상의 증가세를 보였다

○ 주요 관광객은 홍콩 마카오 및 대만의 동포로 94년 기준 총관광객수의 87.9%를 차지했으며, 외국인의 비율은 11.9%이었다

— 외국인 관광객을 국적별로 보면 94년 방문객 기준 일본인이 114만명으로 외국인 관광객의 22.0%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러시아(14.3%), 미국(9.1%), 싱가폴(4.5%), 말레이지아(4.0%)순인 것으로 집계 되었다

— 우리나라 관광객은 순수 관광비자 발급 이전인 91년 1천 3백명, 92년 2천 7백명이 학술세미나 및 산업시찰 목적으로 다녀왔으며, 94년 4월 중국지역이 특정국가에서 해제된 후에는 94년 한 해동안 5만 5천명이 관광한 것으로 나타났다

○ 관광객의 증가에 비례해 관광 수입 또한 크게 늘어 78년 2억 6천만 달러에서 85년 12억 5천만 달러, 90년 22억 2천만 달러, 94년 73억 2천만 달러로 늘어나 16년간 28배가 신장 되었다

<표> 중국방문 관광객수 및 관광수입

(단위: 만명, %, 억미불)

	관광객수	외국인	화 교	대만, 마카오, 홍콩 동포	관광 수입
1978	180.9	12.7	1.1	86.2	2.6
1985	1783.3	7.7	0.5	91.8	12.5
1990	2746.2	6.4	0.3	93.3	22.2
1993	4152.7	11.2	0.4	88.4	46.8
1994	4368.4	11.9	0.2	87.9	73.2

자료 : 「'94 중국 통계 연감」 「'95 중국 통계 적요」

<표> 외국인 관광객의 국적 구성 (1994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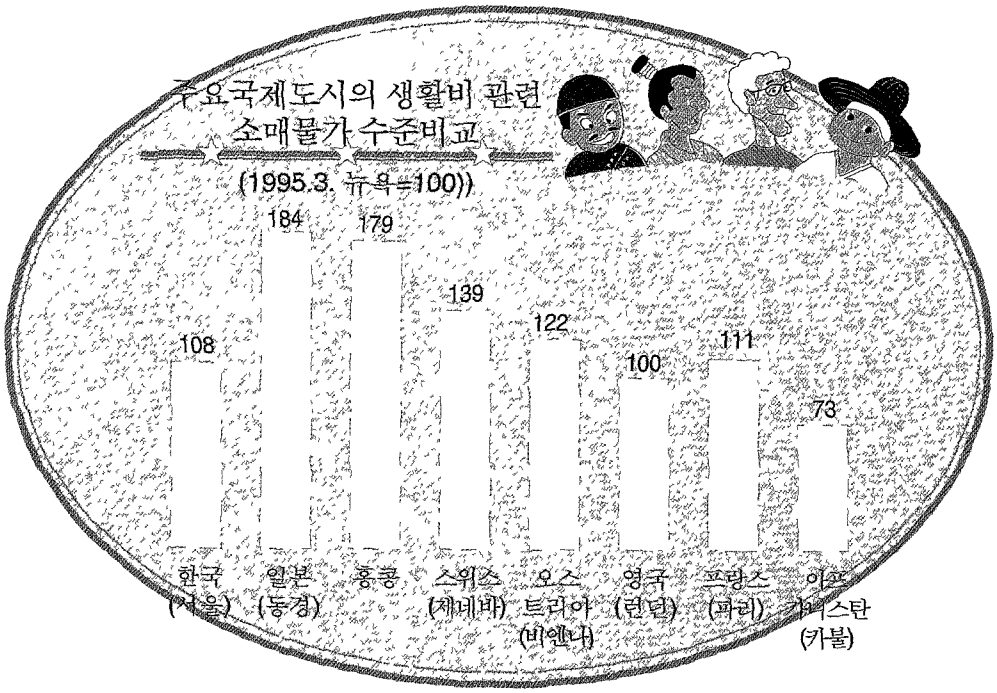
(단위: %)

일 본	러시아	미 국	싱가폴	말레이지아
22.0	14.3	9.1	4.5	4.0
영 국	태 국	독 일	카나다	한 국
3.2	3.2	2.9	2.2	0.1

자료 : 「'95 중국 통계 적요」

계간 국제통계 창간 및
통계로 본 국제경제동향

2002 2002 2002



『'95년 3월을 기준으로 뉴욕의 생활비 관련 소매물가 지수를
100으로 볼때 일본의 동경이 184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이 홍콩(179), 스위스 제네바(139),
오스트리아의 비엔나(122)등의 순이었다.』

- 본문중에서 -

계간 국제통계 창간 및 통계로 본 국제경제 동향

1995. 9

자료관리국 국제통계과

Ⅰ. 계간 국제통계 창간

1. 발간목적

○ 세계화, 정보화 시대를 맞이하여 국내통계 뿐만 아니라 국제통계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어 이에 대한 적절한 대처가 시급

○ 지금까지 국제통계는 주로 연간단위로 제공되고 있어 시의성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서비스되는 내용도 매우 부실한 실정

○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다양한 국제통계자료를 망라하여 분기별로 발간하는 국제통계간행물을 창간하게 되었음

2. 발간주기 및 시기

○ 매분기마다 발간
○ 창간호는 95년 9월 20일에 발간

3. 수록내용

가. 주제별 통계

○ 경제성장률, 물가지수, 통화량, 산업생산지수 등 25개 주요통계지표를 선정하여 우리나라와 30여개국의 자료를 함께 수록

<표> 주제별 통계 수록항목

수 록 항 목	자 료 출 처	비 고
○ 국내총생산(경상)	International Financial Statistics(IFS)	-
○ 경제성장률(불변GDP기준)	자국월보, IFS	
○ 산업생산지수	IFS	
○ 주요상품생산	Main Economic Indicators(MEI)	
○ 경기선행지수	MEI	
○ 임금지수	UN통계월보	
○ 고용지수	자국월보, IFS	
○ 노동생산성지수	자국월보, IFS	
○ 실업률	IFS	
○ 주요도시 소매물가 비교	UN통계월보	
○ 주요상품 국제가격	IFS	
○ 소비자물가지수	자국월보, IFS	
○ 생산자물가지수	자국월보, IFS	
○ M1 잔고증가율	자국월보, IFS	
○ M2 잔고증가율	IFS	
○ 공정할인율	IFS	
○ 주가지수	IFS	
○ 수출(F.O.B)	MEI	미달러로 환산
○ 수입(C.I.F)	IFS	"
○ 무역수지	IFS	"
○ 경상수지	IFS	"
○ 대외지급준비금(금제외)	IFS	"
○ 국제금리	IFS	
○ 환율	자국월보, IFS	
○ 실질 실효환율지수	IFS	

○ 통계자료를 동일한 기준에 따라 비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UN, IMF, OECD, EU 등 국제기구가 가공하여 발표한 자료를 주로 활용

○ 이용자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하여 10년간의 시계열자료를 이용한 도표도 함께 수록

나. 국가별 통계

○ 우리나라와의 교역규모가 큰 나라 및 향후 교류증가가 예상되는 국가 뿐만 아니라 국민의 관심이 높은 국가를 중심으로 수록 대상국을 46개국으로 선정

○ 이용자 편의를 위해 주요국(미국, 일본, 독일, 중국, 러시아 등 11개국)과 기타국(카나다, 싱가포르, 스위스 등 35개국)으로 구분하고 주요국에 대하여는 상세한 통계표를 수록하여 제공

	국 가	활용 통계자료	비 고
주요국 (11개)	대만, 독일, 미국, 싱가포르, 영국, 일본, 중국, 카나다, 프랑스, 홍콩, 러시아 등 11개국은 다양한 경제지표 뿐만 아니라 사회, 문화지표도 수록	주로 자국통계월보를 이용	독일, 미국, 영국, 중국, 프랑스 등의 경우 사회·문화통계 미비
기타국 (35개)	·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 대륙별로 나누고 내용은 경제지표 중심으로 수록 · 아시아 9개국, 미주 6개국, 유럽 17개국, 오세아니아 2개국, 아프리카 1개국 총 35개국 수록	UN의 통계월보, IMF의 IFS, OECD의 MEI, EU의 EUROSTAT 및 자국통계월보를 비교하여 가장 빠른 자료를 수록	

다. 국제경제동향(부록편에 수록)

○ 산업활동, 물가, 실업, 무역 및 경상수지, 경제성장 등 최근의 경제동향, 국제금융시장의 환율 및 국제금리 동향, 국제원자재 가격의 동향 등을 분석하여 수록

○ 국제금융부문은 국제금리부문과 주요국 환율 추이로 나누어 수록

○ 국제원자재가격은 금, 은, 동 등 주요원자재의 현황과 추세를 종합

4. 향후 발간방향

○ 초기에는 분기별로 발간하다가 97년 이후 월간 간행물로의 전환 검토

○ 수록되는 국가를 현재의 46개국에서 국민의 관심도를 감안하여 점차 확대 추진(향후 교류증가 예상국가 중심)

Ⅱ. 통계로 본 국제경제동향

1. 경제 성장

G7의 경제성장률 — 94년 하반기까지 상승세를 보이다가 95년 들어 하향안정세 전환

○ 주요선진 7개국으로 구성된 G7 국가의 GDP기준 경제성장률을 보면 94년 1/4분기에 전년동기대비 2.3%, 2/4분기에 2.9%, 3/4분기에 3.5%, 4/4분기에 3.4%로 점차 상승하는 추세를 보였으나 95년 들어서는 미국, 일본, 영국을 중심으로 하향안정세로 돌아섰다.

— G7국가중에서 성장세가 최근 다소 부진한 국가는 미국, 일본 및 영국인 것으로 나타났다.

○ 미국은 GDP성장률 기준으로 93년에 3.1%, 94년에 4.1%의 높은 성장세에서 95년 1/4분기중 2.7%로 성장세가 둔화된데 이어 2/4분기에는 1.1%로 나타나 미국경기의 연착륙(soft landing)이 어느정도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2/4분기의 성장률 둔화는 자동차 산업의 부진에 따른 것으로 자동차 생산감소는 실질 GDP 성장률을 1.4%포인트 끌어 내렸다고 상무부는 분석 발표했다

○ 일본의 95년 1/4분기 GDP성장률은 공공투자의 감소와 고베 대지진 영향에 따른 개인소비의 위축으로 당초 예상보다 밑도는 전년동기대비 0.1%를 기록했다

○ 영국은 정부가 경제의 연착륙을 시도한다는 정책을 표방한 이후 94년 3.8%성장에 이어 95년 1/4분기 전년동기대비 3.6%, 2/4분기 2.9%로 점차 성장세가 둔화되고 있다

○ 독일은 구서독지역의 경기회복과 구동독지역의 고성장으로 작년에 2.3%의 성장률을 보였으나 95년 1/4분기에는 연초의 통일세 재도입 등 소득세 인상으로 민간소비가 위축되고 건설투자도 작년 이후 크게 줄어 2%내외의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선진국에 비해 높은 성장세 지속

○ 아시아 주요국을 보면 1993~94년중의 미국경제회복과 주변 ASEAN 국가들의 경기호조에 힘입어 94년에 10.1%의 높은 GDP성장률을 보였던 싱가포르 경제가 95년 1/4분기중 전년 동분기대비 7.2%로 성장이 둔화되었으며

— 우리나라는 엔고에 따른 수출호조와 투자확대의 영향으로 94년 8.4%의 높은 GDP성장률에 이어 95년 1/4분기 9.9%, 2/4분기 9.6%의 높은 성장률을 견지하고 있다.

○ 대만은 해외경기의 활성화, 대중국 수출 증가, 대일 수출 호조, 내수호전 등으로 94년에 GNP성장률 6.1%를 기록한데 이어 95년 1/4분기에 6.9%, 2/4분기에 7.1%의 성장률을 나타냈다

○ 홍콩은 작년의 5.5% GDP성장률에 이어 95년 1/4분기에도 6%의 비교적 높은 성장률을 기록했다

<표> 경제성장률 비교 (실질 GDP기준)

(단위 : 전년(동기)대비, %)

	1993	1994					1995	
		I	II	III	IV	연 간	I	II
OECD	1.2	2.2	2.8	3.3	3.3	2.9		
G7	1.2	2.3	2.9	3.5	3.4	3.0		
미 국	3.1	3.6	4.1	4.4	4.1	4.1	2.7[1]	1.1[1]
일 본	-0.2	-0.3	0.5	1.0	0.8	0.6	0.1	
독 일	-1.7	2.3	2.3	2.3	2.6	2.3		
영 국	2.3	3.3	4.1	3.9	4.0	3.8	3.6	2.9
프 랑 스	-1.5	1.3	2.5	3.2	3.7	2.7	3.8	
한 국	5.8	8.9	7.6	7.6	9.3	8.4	9.9	9.6
대 만	6.0	5.8	5.6	6.1	6.8	6.1	6.9	7.1
홍 콩	5.8	5.8	5.6	5.5	5.1	5.5	6.0	
싱가포르	10.1	11.9	9.5	10.9	8.3	10.1	7.2	

주: 1)전기대비 연율

자료 : OECD「주요경제지표(MEI)」, 각국 통계월보

2. 소비자 물가

선진국 물가 등귀율 1~3%대의 안정세 유지

○ 일본은 94년에 전년대비 0.7%의 낮은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시현한데 이어 95년에도 전년동월대비 1% 미만의 물가상승률을 유지하고 있다

— 특히 95년 3월과 4월에는 각각 -0.4%, -0.2%의 물가하락을 보였으며 5월에는 0%, 6월에는 0.3%의 물가상승률을 보여 매우 안정적인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 미국은 95년 7월중 전년동월 대비 2.8% 상승한 것으로 나타나 지난 4월의 3.1%를 정점으로 다소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 이는 미국의 수입물가하락과 임금상승률의 하락에 따른 영향이며

— 최근들어서는 컴퓨터업계를 중심으로 가격파괴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어 물가의 안정 추세는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 독일은 95년 6월중 전년 동월에 비해 2.4% 증가하여 3~4%대를 보였던 93~94년 보다 안정된 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영국의 95년 6월중 물가상승률은 전년동월대비 3.5%로 1993년 및 1994년의 물가 안정세에서 벗어나 95년 들어 물가가 다소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이는 클라크 재무장관이 올해 목표치로 정한 2.5%를 크게 상회하는 수준으로 금리인상 등 인플레이션 억제를 위한 일련의 정책들이 취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 프랑스는 95년 6월중 전년동월대비 1.6% 상승에 머물러 물가 안정세가 지속되고 있다

— 93년 이후 경기회복세가 계속되고 있음에도 물가상승 압력은 크게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 물가는 선진국에 비해 높은 편이나 최근 안정추세

○ 우리나라는 1994년에 전년대비 6.2%상승률을 보인후 95년 들어 4~5%의 안정적인 물가상승률을 보이고 있다

— 8월에도 전년동월비 3.5%의 상승률을 보여 지난 4월의 5.1%를 정점으로 지속적인 하향 안정세를 나타내고 있다

○ 대만의 95년 6월중 물가상승률은 전년동월대비 4.7%로 증가하였으며, 싱가포르도 95년도에 2%대의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다

<표> 소비자 물가지수 증가율

(단위 :전년(동월)대비, %)

	1992	1993	1994	1995					
				1	2	3	4	5	6
아시아									
한 국[1]	6.2	4.8	6.2	4.9	4.2	4.7	5.1	5.1	4.3
대 만	4.5	2.9	4.1	5.2	3.4	3.9	4.4	3.3	4.7
싱가포르	2.3	2.4	3.6	3.4	2.4	2.4	2.3	2.2	1.8
일 본	1.7	1.3	0.7	0.6	0.2	-0.4	-0.2	0.0	0.3
터 키	70.1	66.1	106.3	130.6	130.0	127.7	94.8	82.4	
홍 콩	9.4	8.5	8.1	10.1	8.9	9.5	9.6	9.1	8.9
북 미									
멕 시 코	15.5	8.7	6.9	10.2	14.4	20.4	29.3	34.2	
미 국[2]	3.0	3.0	2.6	2.8	2.9	2.9	3.1	2.9	3.0
카 나 다	1.5	1.8	0.2	0.5	1.8	2.2			
유 럽									
독 일	4.0	4.2	3.0	2.3	2.4	2.3	2.3	2.2	2.4
영 국	3.7	1.6	2.4	3.3	3.4	3.5	3.3	3.4	3.5
폴 란 드	45.3	36.9	33.3	32.4	33.6	33.2	32.4		
프 랑 스	2.4	2.1	1.7	1.7	1.7	1.8	1.6	1.6	1.6

주 : 1) 7월은 3.8%, 8월은 3.5%

2) 7월 2.8%

자료 : IMF「국제금융통계(IFS)」, 각국 통계월보

3. 주요국제도시의 생활비 관련 소매물가 수준비교

일본 동경의 소매물가는 뉴욕의 1.8배

○ 각국의 주요도시에 파견 근무하는 UN 직원의 상대적인 생계비 수준을 대략 측정하여 소매물가 지수로 작성 매분기별로 발표하는 자료를 보면

— 95년 3월을 기준으로 뉴욕의 생활비 관련 소매물가지수를 100으로 볼때 일본의 동경이 184로 가장 높았으며

— 그 다음은 홍콩(179), 스위스의 제네바 (139), 오스트리아의 비엔나 (122)등의 순이었고,

— 가장 낮은 곳은 아프가니스탄의 카불로 73이었다

○ 한편 영국의 런던(100), 러시아의 모스크바(100), 필리핀의 마닐라(101) 등은 뉴욕의 생활비관련 소매물가와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

○ 전반적으로 보면 선진국의 주요도시들은 뉴욕보다 높은 수준의 물가지수를 보였으며 아시아, 아프리카의 개도국들은 70~90 수준을 보였다

서울의 생활비관련 소매물가 — 뉴욕보다 8% 포인트 높아

○ 우리나라의 서울은 95년 3월 현재 108로 나타나 뉴욕보다 높은 수준이었으며 아르헨티나의 부에노스아이레스(110), 지부티의 지부티(107), 레바논의 베이루트(107)등과 비슷한 수준이었다

<표> 주요국제도시의 생활비 관련 소매물가 수준비교

(1995. 3. 뉴욕=100)

국 가	및 도 시	지수	국 가	및 도 시	지수
아시아			유 럽		
한국,	서울	108	그리스,	아테네	91
레바논,	베이루트	107	네덜란드,	헤이그	108
말레이지아,	콸라룸푸르	85	독일,	본	119
베트남,	하노이	91	덴마크,	코펜하겐	111
싱가포르,	싱가포르	104	러시아,	모스크바	100
인도,	뉴델리	87	벨기에,	브뤼셀	117
아프가니스탄,	카블	73	스웨덴,	스톡홀롬	102
일본,	동경	184	스위스,	제네바	139
태국,	방콕	91	스페인,	마드리드	97
터키,	앙카라	89	영국,	런던	100
필리핀,	마닐라	101	오스트리아,	비엔나	122
홍콩,	홍콩	179	이탈리아,	로마	93
			포르투갈,	리스본	86
북 미			폴란드,	바르샤바	90
멕시코,	멕시코시티	87	프랑스,	파리	111
미국,	워싱턴	90			
카나다,	몬트리올	75	아프리카		
			가나,	아크라	87
남 미			앙골라,	루안다	96
브라질,	브라질리아	104	지부티,	지부티	107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	110			
칠레,	산티아고	94	오세아니아		
			오스트레일리아,	시드니	83

주: 각 국에 파견된 UN직원을 대상으로 그들이 주로 사용하는 생활필수품중 약 200여개의 재화 및 서비스품목을 선정하여 가격을 조사한 후 「UN」에서 소매물가지수를 작성

자료: UN「UN 통계월보」

4. 통화 (M2잔고 기준)

선진국의 통화 증가는 1~3%대로 안정된 반면 우리나라와 대만은 두자리 증가세

○ 통화지표로 널리 쓰이는 총통화(M2)기준에 맞춰 가공한 IMF의 통화량 자료를 중심으로 각국의 총통화잔고 증가율을 비교해 보면

— 일본, 미국, 영국, 프랑스 등 물가가 안정된 국가의 94년~95년 4월까지의 총통화잔고 증가율이 1~3%대의 매우 낮은 수준을 보인 반면

—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높았던 멕시코, 폴란드, 터키는 총통화 증가율도 역시 높았던 것으로 나타나 통화와 물가의 높은 관련성을 보여주었다

○ 한편 우리나라와 대만의 총통화 잔고 증가율이 94년~95년 7월까지 12~18%의 비교적 높은 수준을 보였다

<표> M2 잔고 증가율 추이

(단위 :전년(동월)대비, %)

	93	94	1995				
			1	2	3	4	5
한 국[1]	16.6	18.7	21.8	16.1	17.4	17.6	16.4
대 만[2]	15.5	15.2	16.3	14.1	13.7	13.1	12.2
싱가포르	8.5	14.4	17.0	16.6	15.0	15.1	
일 본	2.2	3.1	3.8	3.6	3.0	2.9	
터 키	64.4	147.1	133.8	132.4	133.9		
멕 시 코	14.5	21.7	25.6	30.1	30.4	27.4	
미 국	1.4	0.2					
독 일	11.6	2.5	1.3	0.8	0.2	-0.1	1.0
영 국[3]	5.1	4.2	4.1	4.5	5.4		
프 랑 스[4]	-3.1	2.1	2.2	3.0	3.0	3.6	
오스트레일리아	6.0	9.8	8.0	7.9	7.5	7.8	

주 : 1) 6월 15.7%, 7월 13 9% 2) 6월 12.4% 3) 자국통화 M4기준 4) 자국통화 M3기준
자료 : IMF「국제금융통계(IFS)」, 각국통계월보

5. 실업률

미국, 독일 등 선진국의 실업률 감소추세

○ 주요 선진 7개국 (G7)의 실업률을 보면 94년에 6.9%에서 95년에는 1월부터 5월까지 6.6%수준으로 하향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

○ 미국은 5월중 전월 대비 0.1%포인트 하락한 5.5%의 실업률을 보였으며 3월의 5.7%이후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 제조업의 재고조정이 마무리되고 있고 실업에 큰 영향을 미치는 제조업 부문의 고용둔화가 하반기부터 다소 회복될 것으로 보여 실업률의 하락 추세가 계속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 독일의 실업률은 5월중 10.0%를 보여 93년 9월 이래 가장 낮은 수치였으며 5개월째 하락세를 지속하고 있다

일본의 실업률 갈수록 악화되고 있으나 G7중에서는 가장 낮은 수준

○ 일본은 경기침체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7월중 3.2%의 실업률을 나타내어 53년 이후 최고치였던 지난 4월, 6월과 동일한 수치를 기록했다

○ 일본 총무청은 실업률 상승에 대해 엔고 등으로 경기침체가 장기화된데다 기업들이 신규채용을 억제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설명했으며 최근 엔고 현상이 다소 주춤하였으나 일본 고용사정에는 별로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우리나라와 대만의 실업률 선진국에 비해 매우 낮아

○ 우리나라와 대만은 주요선진국에 비해서는 매우 낮은 수준의 실업률을 보이고 있다

○ 우리나라는 95년 8월 중순까지 이어진 엔고에 따른 수출호조와 내수 확대에 힘입어 지난 6월 사상 최저치인 1.8%의 실업률을 기록한 후 7월에도 1.8%의 실업률을 유지했다

○ 대만은 우리나라보다도 낮은 수준인 1.4~1.7%의 실업률 수준을 보이고 있으며 5월에는 전월대비 0.1% 상승한 1.6%를 보였다

<표> 실업률

(단위 : %)

	1994	1995						
		1	2	3	4	5	6	7
OECD	7.8	7.5	7.4	7.4	7.5			
G7	6.9	6.6	6.5	6.5	6.6	6.6		
미 국	6.0	6.2	5.9	5.7	5.6	5.5		
독 일	6.9	11.1	11.0	10.6	10.4	10.0		
일 본[1]	2.9	2.9	2.9	3.0	3.2	3.1	3.2	3.2
영 국[1]	9.6	8.5	8.5	8.4	8.3	8.3		
프랑스[1]	12.3	11.9	11.8	11.7	11.6	11.6		
카 나 다	10.4	10.6	10.4	10.8	10.0	9.6		
이탈리아	11.3			12.2			11.9	
한 국	2.4	2.3	2.6	2.4	2.1	1.9	1.8	1.8
대 만	1.6	1.4	1.7	1.5	1.5	1.6		

주: 1)계절조정

자료 : OECD「주요경제지표(MEI)」, 각국 통계월보

6. 노동 생산성

선진국 중에서 스위스, 독일 등의 노동생산성 증가율이 영·미·일 국가를 훨씬 앞질러

○ 94년을 기준으로 볼때 노동생산성 증가율이 비교적 높았던 국가는 스위스(전년비 12.7%), 스웨덴(전년비 12.0%), 독일(전년비 10.4%)등이었으며

— 영국(4.8%), 프랑스(6.4%), 미국(3.0%), 일본(2.9%)등 기타 주요 선진국들은 5% 내외의 증가율을 보였다

○ 우리나라는 94년에 전년비 7.6%의 증가율을 보여 비교적 높은 편이었으며 대만은 4.0%를 보여 낮은 수준이었다

우리나라와 일본의 최근 노동생산성 증가율 상승세

○ 94년~95년까지의 분기별 추이를 보면

— 스웨덴, 스위스는 94년 1/4분기에 전년동기대비 각각 14.7%, 12.8%의 높은 노동생산성 증가율을 보였으나 점차 감소추세를 보여 95년 1/4분기에는 스웨덴이 7.7%, 스위스가 7.3%의 증가율을 나타냈다

— 영국은 94년 4/4분기에 전년동기대비 4.6%, 프랑스는 6.6%, 미국은 2.9%, 독일은 11.9%를 보였으나 분기별 추이로는 별다른 특징을 보이지 않았다

○ 반면 우리나라와 일본은 94년 1/4분기에 전년동기대비 각각 4.5%, -0.6%를 보인후 점차 상승세를 보여 우리나라는 95년 1/4분기 12.6%로 증가하였으며 일본도 95년 1/4분기에 8.0%로 상승하였다

<표> 노동생산성 증가 추이

(단위 : 전년(동기)대비, %)

	1992	1993	1994					1995
			I	II	III	IV	연간	I
아시아								
한 국	10.7	7.0	4.5	6.5	8.1	10.8	7.6	12.6
대 만[1]	4.0	3.7	2.5	4.0	3.9	6.6	4.0	9.1
싱가포르	2.6	6.7	7.2	4.3	6.1	3.8	5.3	2.8
일 본	-5.4	-1.4	-0.6	1.7	4.3	7.5	2.9	8.0
북 미								
미 국[1]	1.2	0.6	2.6	2.9	3.6	2.9	3.0	
카 나 다	-0.7	6.6	3.1	2.3	3.6	3.7	3.2	5.7
유 럽								
독 일[1]	0.5	0.5	8.6	10.7	10.1	11.9	10.4	
스 웨 덴[1]	7.8	10.0	14.7	14.1	8.1	10.9	12.0	7.7
스 위 스	4.4	4.7	12.8	16.7	11.3	10.3	12.7	7.3
영 국	2.0	1.9	4.2	6.2	5.9	4.6	4.8	
프 랑 스	1.8	1.2	5.4	6.6	7.0	6.6	6.4	
오세아니아								
오스트레일리아	5.1	9.2	4.3	3.5	3.3	5.8	4.5	2.3

주 : 1) 분기별 자료는 I는 3월, II는 6월, III은 9월, IV은 12월 자료를 사용

자료 : IMF「국제금융통계(IFS)」, 각국 통계월보

7. 수출입

G7 전체의 무역수지(통관기준)는 지속적인 흑자를 기록하고 있어

○ 선진 7개국(G7) 전체의 통관기준 무역수지를 보면 94년 485억 달러의 흑자를 나타냈으며, 95년에 들어서도 1월에 52억, 2월에 59억, 3월에 59억달러의 흑자를 시현하였다.

일본은 최대의 흑자국, 미국은 최대의 적자국

○ 일본은 94년 1,209억달러의 흑자를 기록한 후 95년에 들어서도 상반기(1월~6월)중 576억달러, 7월중 94억달러의 흑자를 나타내 G7중 가장 큰 규모의 무역흑자국이었다.

○ 반면 미국은 94년 1,506억달러의 무역적자를 기록했으며 95년에도 1/4분기 416억달러, 4월 149억달러의 무역적자를 나타내 G7 국가중 가장 큰 규모의 무역적자국이었다.

○ G7 국가중에서 95년중에 무역흑자를 보이는 국가는 일본, 카나다,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등 5개국으로 G7국가의 무역흑자를 주도하였으며 무역적자를 보이는 국가는 미국과 영국 두나라였다.

○ 우리나라는 94년에 64억달러의 무역적자를 보인 후 95년 들어서도 지속적인 적자추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최근 8월에는 9억달러의 적자를 보였다.

○ 94년 77억달러의 무역흑자를 기록했던 대만은 1월과 6월에 각각 1억달러, 5억달러의 무역적자를 나타냈으나 상반기 전체로는 18억달러의 무역흑자를 기록했다.

<표> 주요국의 수출입 및 무역수지(통관기준)

(단위 : 10억미불)

	1992	1993	1994	1995					
				1	2	3	4	5	6
OECD									
수출	2674.7	2593.0	2920.6	263.3	272.3	281.6			
수입	2693.6	2536.4	2858.4	258.6	266.4	275.6			
수지	-18.9	56.6	62.2	4.7	5.9	6.0			
G7									
수출	1957.0	1905.2	2129.4	190.8	197.9	206.0			
수입	1934.0	1841.9	2080.9	185.6	192.0	200.1			
수지	23.0	63.3	48.5	5.2	5.9	5.9			
미 국									
수출	448.2	465.1	512.6	45.4	46.2	48.6	47.6		
수입	532.7	580.7	663.2	60.5	59.7	61.6	62.5		
수지	-84.5	-115.6	-150.6	-15.1	-13.5	-13.0	-14.9		
일본[1]									
수출	339.7	360.9	395.6	27.2	35.2	42.6	40.1	35.5	40.2
수입	233.0	240.7	274.7	24.4	23.9	28.7	29.2	28.5	28.5
수지	106.7	120.2	120.9	2.8	11.3	13.9	10.9	7.0	11.7
카나다									
수출	134.6	145.3	165.4	16.3	16.1	15.1	15.8		
수입	122.4	131.9	148.3	13.3	13.2	14.4	14.0		
수지	12.2	13.4	17.1	3.0	2.9	0.7	1.8		
독 일									
수출	429.7	380.0	422.3	38.3	39.8	41.2			
수입	408.2	342.6	376.6	31.7	35.2	37.3			
수지	21.5	37.4	45.7	6.6	4.6	3.9			
프랑스									
수출	235.9	210.4	235.1	22.1	23.1	23.9	24.4		
수입	230.0	194.8	219.8	20.4	21.1	21.6	21.7		
수지	5.9	15.6	15.3	1.7	2.0	2.3	2.7		
영 국									
수출	190.1	178.9	205.2	19.0	19.3	19.6			
수입	221.0	204.5	227.0	20.5	20.5	20.9			
수지	-30.9	-25.6	-21.8	-1.5	-1.2	-1.3			
이탈리아									
수출	178.2	168.5	189.8	17.3	17.0	19.1			
수입	188.5	147.8	167.6	14.9	15.9	15.8			
수지	-10.3	20.7	22.2	2.4	1.1	3.3			
한국[2]									
수출	76.6	82.2	96.0	7.7	8.4	10.1	10.2	10.7	11.3
수입	81.8	83.8	102.4	8.9	9.9	11.7	11.2	11.8	11.8
수지	-5.2	-1.6	-6.4	-1.2	-1.5	-1.6	-1.0	-1.1	-0.5
대 만									
수출	81.5	85.1	93.1	7.4	8.5	9.1	9.6	10.1	8.6
수입	72.0	77.1	85.4	7.5	7.7	8.3	9.6	9.3	9.1
수지	9.5	8.0	7.7	-0.1	0.8	0.8	0.0	0.8	-0.5

주: 1) 7월 수출 380억달러, 7월 수입 286억달러

2) 수출의 경우 7월 105억달러, 8월 106억달러, 수입은 7월 113억달러, 8월 115억달러

자료 : OECD 「 주요경제지표(MEI)」, 각 국 통계월보

8. 경상수지

G7 국가중 일본, 이탈리아, 프랑스만 흑자 유지

○ G7국가중 1994년 경상수지 흑자를 보인 국가는 일본, 이탈리아, 프랑스 등 3개국이었으며 미국, 독일, 카나다, 영국 등 4개국은 적자를 보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 94년 1,291억달러의 경상수지 흑자를 보였던 일본은 95년 들어서도 매분기 300억달러 이상의 흑자를 보이고 있으나 전년에 비해 흑자폭은 소폭 감소 추세에 있다.

— 95년 1/4분기의 흑자규모 301억 달러는 94년 1/4분기보다 48억 달러 감소된 것이며 2/4분기의 311억 흑자도 전년 동기인 2/4분기보다 23억 달러 감소된 수치이다

— 한편 95년 7월에도 92억 2천만 달러의 흑자를 나타냈으나 94년의 월평균 수준을 밑도는 등 흑자 규모가 감소 추세에 있다

○ 우리나라는 94년에 45억달러의 경상수지 적자를 보인 후 95년 상반기중에도 57.9억달러의 적자를 보여 전년상반기보다 적자폭이 32.1억불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 상반기 경상수지는 수출의 견실한 성장세에도 불구하고 수입의 높은 증가세로 무역수지가 41.9억달러 적자를 보인데다가 무역외수지 적자규모도 94년 상반기보다 확대됨으로써 경상수지는 57.9억달러 적자를 기록하여 전년상반기(25.8억불 적자)보다 32.1억불 적자폭이 확대되었다.

○ 대만은 94년 60억달러의 경상수지 흑자에 이어 95년 1/4분기에도 12억달러의 흑자를 기록했다.

<표> 주요국의 경상수지 추이

(단위 : 억미불)

	1992	1993	1994					1995
			I	II	III	IV	연간	I
G7								
미국	-679	-1039	-249	-360	-468	-480	-1557	-405
일본[1]	1176	1314	349	334	296	312	1291	301
카나다	-221	-239	-69	-55	-30	-28	-182	
독일	-212	-148	-25	-8	-127	-70	-231	
영국	-179	-178	-13	-32	7	38	-1	
이탈리아	-279	111	21	38	49	48	156	
프랑스	43	102	21	9	28	-17	49	
한 국	-45	4	-21	-4	-17	-3	-45	-35
대 만	82	67	6	18	16	21	60	12

주 : 1) 1995년 2/4분기는 311억달러 흑자, 7월에는 92억 2천만 달러 흑자

자료 : IMF「국제금융통계(IFS)」, 각 국 통계월보

9. 대외지급준비금(금제외)

대만의 대외지급준비금(금제외) 5월 현재 1,003억불로 일본에 이어 세계2위

○ IMF포지션, SDRs, 보유외환 등으로 구성되는 대외지급준비금(금제외)의 각국 보유현황을 보면 일본이 95년 6월 기준 1,583억달러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금을 제외한 대외지급준비금으로 본 대외자산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 94년 925억달러의 대외지급준비금(금제외)을 보유했던 대만은 95년 들어서도 증가추세가 지속되어 95년 5월 기준 1,003억달러의 대외지급준비금을 보유하고 있어 일본에 이어 세계 2위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무역규모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평가된다.

○ 독일은 95년 6월 기준 828억달러를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미국은 95년 6월 기준 790억달러를 보유하였다.

○ 한편 G7국가인 프랑스는 3월 기준 268억달러, 영국은 3월 기준 426억달러, 이탈리아는 6월 기준 382억달러를 각각 보유하고 있다.

○ 아시아에서는 일본, 대만에 이어 싱가포르(4월기준 644억달러), 중국(4월기준 614억달러)의 순이었으며, 우리나라는 95년 8월 기준 311억 달러를 보유하고 있다.

<표> 대외지급준비금(금제외) 보유 추이

(단위 : 억달러)

	1992	1993	1994	1995					
				1	2	3	4	5	6
아시아									
한 국[1]	171	202	256	262	264	265	273	278	283
대 만	823	836	925	932	952	979	995	1003	
싱가포르	399	484	582	587	587	613	644		
일 본	716	985	1259	1269	1276	1435	1554	1560	1583
중 국	206	224	529	561	587	594	614		
태 국	204	245	293	290	292	291	307	322	339
북 미									
미 국	603	624	633	650	704	757	777	795	790
카나다	114	125	123	132	143	146	147	150	148
유 럽									
독 일	910	776	774	785	794	821	815	821	828
스위스	333	326	347	299	300	320	311	319	337
스웨덴	226	191	233	240	246	245	247	250	
영 국	366	368	410	404	408	426			
이탈리아	276	275	323	311	306	282	277	300	382
프랑스	270	226	263	266	266	268			
오세아니아									
오스트레일리아	112	111	113	115	117	124	125	123	113

주 :1) 8월말 현재 311억달러

자료 : IMF「국제금융통계(IFS)」, 각 국 통계월보

10. 환 율

미·독·일의 외환시장 개입으로 최근 달러화는 엔화에 대한 강세 지속

○ 달러에 대한 엔화의 환율은 93년말에 111.85엔에서 94년말에 99.75엔, 지난 6월말에 84.6엔으로 계속 내려갔으나 7월말에 88.3엔으로 반전한 이후 8월 15일에는 미·독·일 3국의 외환시장에 대한 협조개입으로 8월 16일 오전 한 때 99엔대를 돌파하는 등 초강세를 나타냈다

○ 금년 8월 16일 이후 달러화는 단기 급등에 따른 차액매물과 일본 수출기업들의 달러화 매도에 따라 96엔대를 유지하고 있었으나 독일의 추가금리 인하가능성에 따라 8월말에는 98엔대를 회복하는 등 다시 강세를 나타내고 있다

○ 더우기 일본정부가 효고은행과 기즈협동조합에 대해 파산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발표함에 따라 일 금융체제에 대한 불안이 널리 확산되고 있고 달러화가치 하락을 막기 위한 미·일 금융당국의 공동작전으로 9월 8일 현재 달러당 100.21엔으로 100엔대가 넘어서는 등 당분간은 달러화 강세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표> 환율비교(미달러기준)

(단위 : 월말)

	93. 12	94. 12	95년					
			3월	4월	5월	6월	8월1일	8월29일
엔 화	111.85	99.75	89.47	84.25	83.20	84.60	88.05	98.10
마르크화	1.735	1.550	1.407	1.387	1.391	1.381	1.376	1.477
원 화	808.1	788.7	771.5	761.8	760.1	758.1	757.1	774.8

자료 : 로이타통신

11. 국제금리

8월중 국제금리 — 대체로 하향 안정 추세

○ 95년 1월이후 하락 추세를 보이던 3개월 유로달러금리는 95년 7월에 5.899%(평균)에서 8월에는 다소 오른 5.901%(평균)를 나타냈다

— 이는 7월 6일 미국 연방기금목표금리 인하 등으로 7월13일 5.81%까지 하락했던 유로달러금리가 8월 들어 나타난 달러화 강세, 미 연방준비위원회 의장의 추가금리인하 유보 발언 등의 영향인 것으로 풀이된다.

○ 현금리 수준을 유지하겠다는 독일연방은행의 결정후 7월한때 상승세를 보였던 유로마르크금리는 8월들어 약간 떨어진 4.431%(평균)을 보였으며 유로파운드금리는 7월에 이어 8월에도 다소의 상승세를 보인 6.901%(평균)를 나타냈다

○ 한편 유로엔금리는 전반적인 하락 추세속에 8월 중순이후 나타난 엔화약세의 영향으로 8월에도 전월에 비해 다소 떨어진 0.881%(평균)를 나타냈다

<표> 리보금리 추이 (3개월물)

(단위 : 기간 평균, 연리 %)

	유로달러	유로엔	유로마르크	유로파운드	유로 F.프랑	유로 S.프랑
1991	5.983	7.375	9.250	11.533	9.605	8.243
1992	3.830	4.464	9.502	9.648	10.352	7.911
1993	3.303	3.012	7.236	8.838	8.537	5.018
1994	4.748	2.306	5.350	5.535	5.835	4.165
1995. 1	6.340	2.360	5.098	6.609	5.878	4.087
2	6.260	2.316	5.079	6.819	5.825	3.875
3	6.298	2.212	5.036	6.775	7.976	3.736
4	6.236	1.545	4.623	6.743	7.827	3.469
5	6.125	1.363	4.552	6.795	7.522	3.452
6	6.005	1.208	4.524	6.777	7.164	3.218
7	5.899	0.956	4.553	6.896	6.435	2.900
8	5.901	0.881	4.431	6.901	5.941	2.882

자료 . 日經, Financial Times

미국금리 — 달러화 강세의 영향으로 하향 안정세 유지

○ 7월 6일의 연방기금 목표금리 인하조치와 8월 중순부터 나타난 달러화 강세의 영향으로 미국금리는 7월 이후 소폭의 하락세를 보였으나 재무성증권수익률(1년)의 경우는 8월 들어 소폭의 오름세를 나타냈다

○ 향후 미 연방준비위원회와 일본은행의 외환시장 협조개입으로 당분간 달러화가 강세를 유지할 것으로 보여 미국금리의 하락이 예상되나 미국 경기가 안정세를 보이고 있어 큰 폭의 금리하락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표> 미국의 주요금리 추이

(단위: 기간평균, %)

	1992	1993	1994	1995							
				1	2	3	4	5	6	7	8
프라임레이트	6.26	5.90	7.02	8.50	9.00	9.00	9.00	9.00	9.00	8.80	8.75
연방기금금리	3.65	3.15	4.29	5.69	6.01	6.06	6.06	6.06	6.05	5.86	5.78
재무성증권수익률(1년)	3.72	3.29	5.02	6.58	6.29	6.26	5.89	5.64	5.33	5.28	5.43

자료 : 日經, Financial Times

일본금리 — 7월에 이어 8월에도 지속적인 하락세

○ 95년 들어 1/4분기중 하락세를 유지하였던 일본의 장기금리는 2/4분기 들어서도 지속적인 하락세를 기록했다

— 이는 4월 14일 일본은행이 급격한 엔고 및 경기회복 지연을 타개하기 위한 조치의 일환으로 공정할인율을 1.75%에서 사상 최저치인 1%로 0.75%포인트 인하시킨 것에 영향을 받아 장기금리도 동반 하락하였기 때문이다

○ 대표적 단기금리인 단기대출금리(프라임레이트)의 경우도 4월 공정할인율 인하후 하락세를 지속하여 4월에 3.0%(평균)이었던 금리가 8월에는 2.0%(평균)로 1%포인트 하락하였다

<표> 일본의 주요금리 추이

(단위 : 기간말, %)

기간 말	1992	1993	1994	1995							
				1	2	3	4	5	6	7	8
공정할인율	3.25	1.75	1.75	1.75	1.75	1.75	1.00	1.00	1.00	1.00	1.00
공채수익률(10년)	4.81	3.34	4.53	4.59	4.31	3.80	3.48	3.09	2.82		
단기대출금리[1]	5.21	3.97	3.00	3.00	3.00	3.00	3.00	2.40	2.38	2.14	2.00

주 : 1) 기간평균
자료 : 일본총무청「일본통계월보」

12. 국제 원자재가격 동향

국제원유가 — 안정세 유지

○ 95년 3월말 쿠웨이트 석유노조 파업을 계기로 상승한 국제 원유가(WTI기준)는 5월말까지 배럴당 19불대의 강세를 유지했었다.

— 5월 1일에는 WTI 원유가가 20.5$/Bbl로 9개월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하기도 했다.

○ 그러나 6월 OPEC총회 이후 회원국간의 결속력 약화가능성 증대, 미국경제 둔화조짐의 표면화, 비 OPEC 국가들의 생산량 급증 예상 등으로 국제원유 가격이 하락세를 보여 5월말에 배럴당 18.87불이었던 원유가격(WTI기준)이 6월말에 배럴당 17.42불을 나타냈다.

○ 7월 들어서 미국의 석유재고가 감소하였다는 발표와 8월중 북해지역 석유생산이 정기보수 관계로 감소할 것이라는 예상 등에 영향을 받아 7월말에는 전월대비 0.9% 상승한 17.58$/Bbl를 보였으며 8월말에도 전월대비 1.8% 상승(17.89$/Bbl)하는 등 소폭 상승세를 시현하였다.

<표> 원유가 추이

(단위 : 월말, $/Bbl)

	91.12	92.12	93.12	94.12	95			
					5	6	7	8
두바이	15.19	15.70	11.95	15.99	17.09	15.35	15.14	15.51
브렌트	18.23	17.90	13.21	16.42	17.87	16.36	16.14	16.35
WTI	19.12	19.50	14.20	17.72	18.87	17.42	17.58	17.89

자료 : 석유개발공사

8월중 1차산품가격 하락세 지속

○ 지난 4월 이후 1차산품가격은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다

— 로이터 지수로 보면 지난 3월에 2,324.3 포인트를 최고로 하여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추세를 보여 8월에는 2,222.4 포인트를 기록하는 등 지난 5개월동안 4.4% 감소하였다.

○ 특히 7월에 비해 8월중의 1차산품 가격이 하락한 것은 동 등 일부 비철금속을 비롯한 소맥 등 곡물류의 전반적인 하락세에 기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주요 1차산품가격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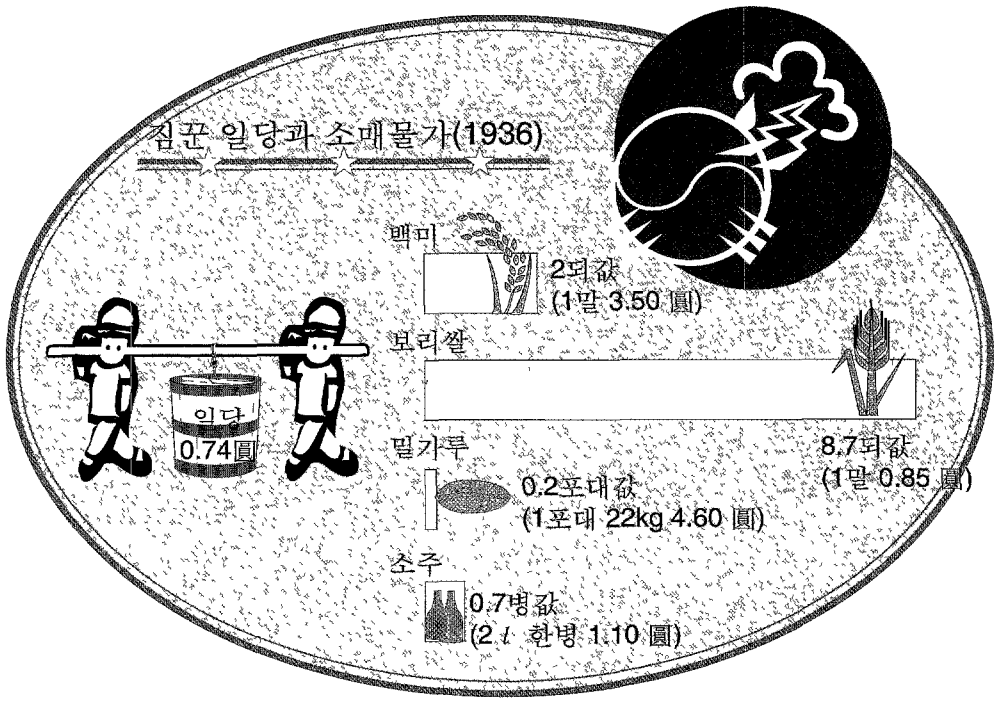
(단위 :월평균)

	대두 ¢/부셀	옥수수 ¢/부셀	소맥 ¢/부셀	동 £/MT	연 £/MT	알루미늄 $/MT	Reuter 지수
1991.12	555.4	247.2	392.9	1,209.6	291.8	1,098.8	1,609.2
1992.12	568.5	213.5	365.9	1,424.5	294.5	1,207.9	1,674.1
1993.12	687.2	291.6	367.7	1,720.8	459.2	1,095.3	1,659.4
1994.12	563.5	221.8	383.9	2,979.3	634.3	1,873.9	2,190.2
1995. 3	569.7	241.5	351.2	2,984.5	584.3	1,801.4	2,324.3
4	580.0	249.0	350.5	2,836.5	616.5	1,831.5	2,318.5
5	576.5	256.7	366.8	2,773.8	596.7	1,768.0	2,317.4
6	589.5	272.8	397.9	2,987.5	610.6	1,776.3	2,292.9
7	617.0	285.9	446.8	3,078.9	622.9	1,864.5	2,234.3
8	592.1	283.6	438.1	3,044.3	624.2	1,892.5	2,222.4

자료 · AP - DJ

통계로 다시보는

광복이전의 경제 • 사회상



『'36년 당시 집짓는 대목(大木)의 하루 일당(日當:1.97圓)으로는
당시 서울 소매물가로 따져 쌀 5되 6홉값 정도였고,
가장 일당이 적은 짐꾼 일당(0.74圓)은
쌀 2되값 정도였다.』

- 본문중에서 -

통계로 다시보는

「광복이전의 경제·사회상」

1995. 9

자료관리국 자료관리과

1. 인구현상

일제강점(日帝强占) 당시 한반도 총인구는 13,313천명 …… 1910년

○ 한일합방당시인 1910년말 한반도 총인구는 13,313천명.
- 남자 7,057천명(53.0%), 여자 6,256천명(47.0%)으로 성비(性比:여자 백명당 남자 인구비율)는 112.8에 달함.
- 총인구중 한국인은 13,129천명(98.6%), 남자 6,954천명, 여자 6,175천명.
- 일본인은 172천명으로 총인구의 1.3%에 해당.

○ 1930년 이전에 한반도 총인구가 2천만명을 넘어선 것으로 추정.

○ 1935년경 인구밀도(명/㎢)는 100명선을 넘고, 당시 한국인의 평균 가족수는 5.3명 내외 수준.

광복전해 한국인 인구는 한해전보다 오히려 694천명 줄어 …… 1944년

○ 1943년말 총인구는 26,662천명으로 일제강점당시에 비해 2배를 넘어섬.
- 한반도내 일본인 거주자도 759천명(총인구의 2.8%)으로 최고 수준(1910년대비 4.4배 증가).

○ 1944. 5. 1. 실시한 국세조사결과에 의하면 1943년말 보고된 인구에 비해 한국인 인구는 694천명(남자 392천명, 여자 302천명)이 오히려 줄어듬.
- 국민 징용령(1939), 조선인 징병제(1943), 학병제(1943), 총동원법에 의한 전면 징용(1944), 여자 정신대 경남, 경북, 경기반동원(1944) 등이 당시에 이루어 졌음

	총인구(천명)	남	여	한국인	인구밀도(명/㎢)
1910년	13,313	7,057	6,256	13,129	60.3
1920년	17,289	8,909	8,380	16,916	78.3
1930년	20,257	10,320	9,936	19,686	91.7
1940년	23,709	11,976	11,733	22,955	107.4
1943년	26,662	13,324	13,338	25,827	120.7
('44. 5. 1.)	(25,918)	(12,892)	(13,026)	(25,133)	(117.3)

주 · ( )내는 국세조사잠정결과자료.

경기도(서울포함) 인구 1위, 전라남도 2위, 3위는 경북 …… 1944. 5. 1. 당시

○ 1920년말 당시 인구가 가장 많은 도는 경북(2,112천명, 총인구의 12.2%), 2위는 전남(제주도 포함:1,955천명, 총인구의 11.3%), 3위는 경남(부산포함:1,796천명, 총인구의 10.4%)순.

○ 1944년 5월 1일 기준으로 인구가 가장 많은 도는 경기(서울포함:3,092천명, 총 인구의 11.9%), 2위는 전남(제주도 포함:2,750천명, 10.6%), 3위는 경북 (대구 포함:2,605천명, 10.0%)순.

	1920년(천명,%)	1944. 5. 1.	'20~'44년간 증가배수(배)
전국	17,289(100.0)	25,918(100.0)	1.50
경기	1,786(10.3)	3,092(11.9)	1.73
충북	777(4.5)	980(3.8)	1.26
충남	1,140(6.6)	1,675(6.5)	1.45
전북	1,220(7.1)	1,675(6.5)	1.34
전남	1,995(11.3)	2,750(10.6)	1.41
경북	2,112(12.2)	2,605(10.0)	1.23
경남	1,796(10.4)	2,417(9.3)	1.35
강원	1,182(6.8)	1,858(7.2)	1.57
황해	1,281(7.4)	2,015(7.8)	1.57
평남	1,082(6.3)	1,826(7.0)	1.69
평북	1,205(7.0)	1,883(7.3)	1.56
함남	1,229(7.1)	2,015(7.8)	1.64
함북	524(3.0)	1,124(4.3)	2.15

주요 도시(당시 府)인구 1920~1944년 사이 5.7배 늘어

○ 일제강점이후 도시상공업의 발달과 농촌인구의 이농, 실업자와 세궁민(細窮民)의 도회지 이주 등으로 1920~1944년 사이 도시(府)인구는 5.7배 늘어난 대신, 농촌(郡·島)인구는 불과 1.3배 증가.

○ 특히 경기도의 부(府)인구는 경기도 전체 인구의 16.1%(1920년)에서 41.4%(1944. 5) 까지 확대.

	총인구(천명)	부인구(%)	군·도인구(%)
1920년	17,289	598 (3.5)	16,691 (96.5)
1930년	20,257	1,119 (5.5)	19,138 (94.5)
1940년	23,709	2,841 (12.0)	20,868 (88.0)
('44. 5. 1.)	(25,918)	(3,412)(13.2)	(22,506)(86.8)

서울(당시 京城府)인구는 989천명('44년 5월)으로 1920년 대비 약 4배 증가

○ 서울(당시 京城府)인구는 1920년 말 250천명에서 1944년 5월 989천명으로 4.0배 증가.
- 인천 5.9배, 대구 4.6배, 부산 4.5배, 평양 4.8배, 원산 4.1배, 청진 16.4배, 신의주 8.6배 증가.

	1920년(천명)	'44. 5. 1.(천명)	'20~'44년증가(배)
경성	250.2	988.5	4.0
인천	36.5	213.8	5.9
대구	44.7	206.6	4.6
부산	73.9	329.2	4.5
평양	71.7	341.7	4.8
원산	27.6	112.9	4.1
청진	11.2	184.3	16.4
신의주	13.8	118.4	8.6

일본인 63%는 부(府)에 살고 경기도(서울포함)내 일본인수는 전체 일본인의 28% ····· 1944년

○ 한국거주 일본인의 대다수는 주요 도시인 부(府)에 살면서 공무·자유업, 상공업 등에 주로 종사.
- 부(府)에 사는 일본인 비율은 1920년 당시 전체 일본인수의 49.8%, 1930년 52.5%, 1944년 62.8%.

○ 도별로는 경기도(서울포함)에 전체 일본인의 27.8%(1944년)가 살았고, 다음은 경남(부산포함) 13.7%, 함북 10.4% 등이었음.

0~14세의 유년인구가 총인구의 43% 차지 ····· 1944년

○ 1944년 당시 0~14세 사이의 유년인구(幼年人口)는 총인구의 43.2%에 이르고, 15~64세까지의 노동력인구는 52.9%였으며, 65세 이상은 3.9%였음.
- 노동력인구의 부양부담(총부양비)은 89.0%(유년부양비 81.6%, 노년부양비 7.4%)

※'95년 현재 유년인구비율은 23.2%, 노년인구비율은 5.7%, 노동력인구는 71.1%, 총부양비는 40.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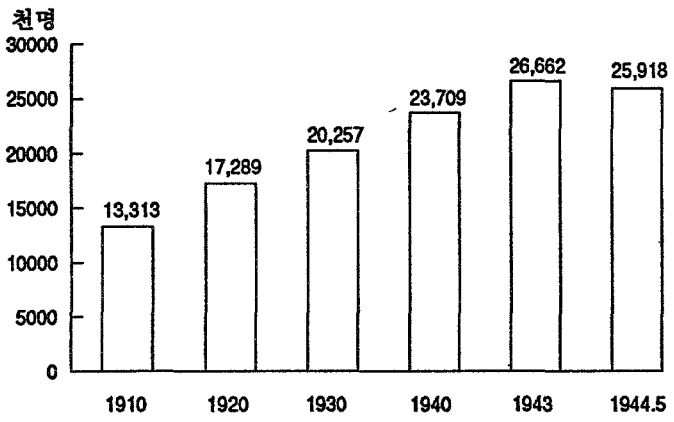
	1925년	1935년	1944년
총인구(천명)	19,020(100.0)	22,208(100.0)	25,120(100.0)
0~14세(천명)	7,551(39.6)	9,090(40.9)	10,850(43.2)
15~64세(천명)	10,729(56.4)	12,278(55.4)	13,294(52.9)
65세이상(천명)	740(4.0)	840(3.7)	976(3.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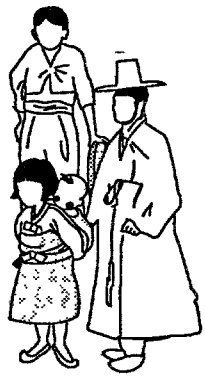
1940년 당시 한국인 평균연령은 24.2세(중위연령 19세)

○ 1940년 국세조사결과에 의하면 당시 한국인의 평균연령은 24.2세, 중위수인구연령(총인구의 절반이 되는 인구가 속한 연령)은 19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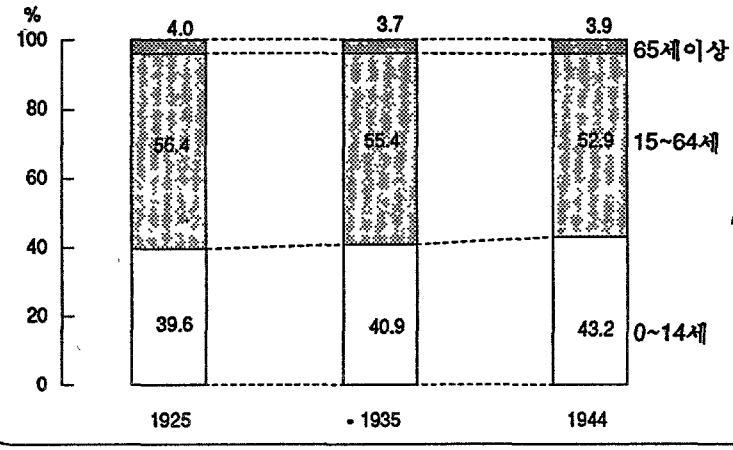
※'95년 현재 평균연령은 31.2세, 중위연령은 29세.

총 인 구


천명
30000
25000
20000
15000
10000
5000
0
13,313
17,289
20,257
23,709
26,662
25,918
1910
1920
1930
1940
1943
1944.5



인구구조


%
100
80
60
40
20
0
4.0
3.7
3.9
65세이상
56.4
55.4
52.9
15~64세
39.6
40.9
43.2
0~14세
1925
1935
1944



15~19세 여자중 63%가 결혼, 10~14세 기혼 여자도 4% ····· 1935년

○ 1935. 10. 1. 기준 국세조사 자료에 따르면 당시의 암울한 시대상과 조혼풍습으로 인해 한국인 여자 15~19세 인구중 63.3%가 이미 결혼(유배우 62.4%, 사별및 이혼 0.9%)하였던 것으로 나타남.

- 10~14세 여자중 유배우(有配偶)인구도 4.0%나 됨.
- 남자의 경우 20~24세 인구중 67.8%가 결혼(유배우 65.3%, 사별및 이혼 2.5%)하였던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15~19세 남자의 23.6%, 10~14세 남자의 1.5%도 유배우로 나타남.

	남자(%)				여자(%)			
	미혼	유배우	사별	이혼	미혼	유배우	사별	이혼
10~14세	98.5	1.5	0.0	0.0	96.0	4.0	0.0	0.0
15~19세	75.8	23.6	0.2	0.4	36.7	62.4	0.3	0.6
20~24세	32.2	65.3	0.9	1.6	3.1	94.9	1.1	0.9
25~29세	7.9	87.9	1.9	2.3	0.4	96.6	2.2	0.8
30~34세	2.5	92.4	4.0	2.2	0.1	95.0	4.2	0.7

45세이상 인구중 여자는 44%, 남자는 19%가 사별(死別) ····· 1935년

○ 45세이상 한국인중 남자는 18.7%, 여자는 44.1%가 부부중 한쪽이 사망한 사별인구로 나타남.

- 특히 여자의 경우 60~64세 인구중 54.9%가 남편과 사별.

20~24세 신부, 연하(年下)의 신랑과 혼인하는 비율 27% ····· 1923년

○ 1923년 당시 20~24세 신부가 같은 연령계층의 신랑과 혼인하는 비율은 39.9%, 신랑연령이 보다 위인 연령계층(25~29세)과 혼인하는 비율은 19.5%였으며 신랑연령이 신부보다 적은 20세미만의 연령계층과 혼인하는 비율도 26.9%에 이름.

○ 25~29세 신부가 연하의 신랑과 혼인하는 비율은 31.5%.

妻 \ 夫	20세미만	25세미만	30세미만	35세미만	40세미만	40세이상
15세미만	63.8	20.5	10.6	3.6	0.9	0.6
20세미만	48.6	28.9	15.5	5.0	1.5	0.5
25세미만	26.9	39.9	19.5	9.0	3.1	1.6
30세미만	11.9	19.6	37.4	16.7	8.3	6.1
35세미만	4.3	6.0	13.8	39.5	18.4	18.0
40세미만	2.4	2.8	5.6	15.7	36.8	36.7

한국인의 8할이 농업에 의존 …… 1930년

○ 1930년 당시 한국인 가구의 78.3%(인구수로는 80.5%)가 농림목축업에 생활기반을 두었음.

○ 상업 및 교통업 의존가구는 7.0%(인구수 6.4%), 작업장 인부, 막노동, 날품팔이 등 기타직업 의존가구도 5.8%(인구수 4.8%)에 이르렀음.

	한국인(천호, 천명)		일본인(천호, 천명)	
	호수(%)	인구수(%)	호수(%)	인구수(%)
총수	3,679.5(100.0)	19,685.6(100.0)	126.3(100.0)	501.9(100.0)
농림목축업	2,679.2(78.3)	15,853.3(80.5)	9.3(7.4)	42.1(8.4)
어업·제염업	59.8(1.6)	312.7(1.6)	3.1(2.5)	12.6(2.5)
광공업	89.8(2.4)	449.3(2.3)	17.6(13.9)	72.4(14.4)
상업·교통업	255.9(7.0)	1,253.9(6.4)	34.7(27.4)	147.4(29.4)
공무·자유업	108.4(2.9)	523.1(2.7)	49.6(39.2)	176.8(35.2)
기타직업	212.7(5.8)	948.1(4.8)	7.8(6.2)	31.9(6.4)
무직·불신고	73.6(2.0)	345.3(1.7)	4.2(3.4)	18.6(3.7)

공무·자유업종사자 비율, 일본인은 일본주업자 총수의 35%, 한국인은 1.6%에 불과 …… 1930년

○ 일정한 생업이 있는 주업자를 기준으로 할때, 1930년 당시 일본인 주업자(총수 179.3천명)의 35.1%가 공무·자유업 종사자였고, 한국인의 경우는 한국인 주업자 총수(8,970.4천명)의 1.6%만이 공무·자유업 종사자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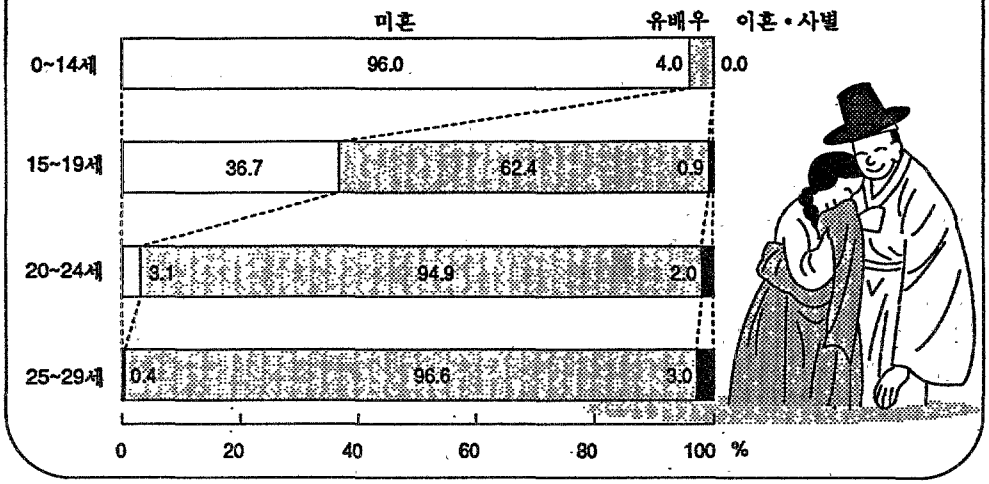
○ 상업및 교통업 주업자 비율은 일본인 31.0%, 한국인 5.0%였음.
- 정치적·경제적 기축을 어느 민족이 잡고 있었는지를 엿볼 수 있음.

광복전해 15세이상 한국인 유업자의 96%가 단순 작업 노동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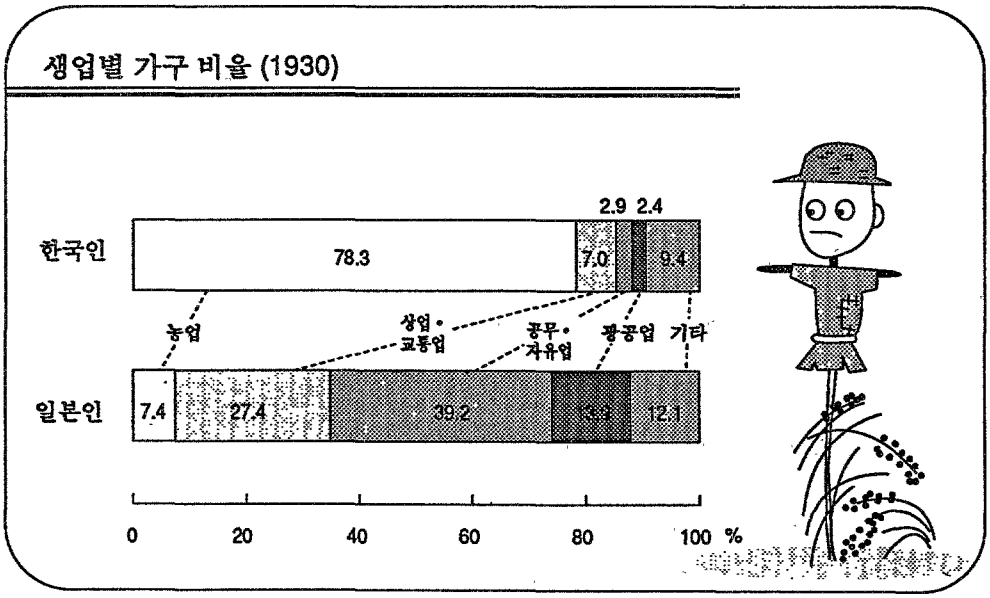
○ 1944년 국세조사자료에 따르면 한국인은 15세이상 유업자(9,617.3천명)중 단순작업노동자비율이 96.3%(농군포함), 사무원은 1.9%, 공무·자유업 및 기타직업자는 1.4%, 기술자는 0.3%, 경영자는 0.1%로 나타나고 있음.

○ 이에 비해 일본인의 경우(15세이상 유업자 237.8천명)는 단순작업자 44.8%, 사무원 28.4%, 공무·자유업 및 기타직업 19.0%, 기술자 6.3%, 경영자 1.5%였음.

연령별 여자 혼인상태 (1935)



생업별 가구 비율 (1930)



14세이하 어린이의 6%가 생계를 돕기위해 나서 …… 1944년

○ 한국인 14세이하 어린이(총수 10,850천명)의 6.0%(654천명)가 생계에 보탬을 얻기 위해 주로 고된 작업일에 나서고 있었음.
- 11세이하 어린이(총수 9,122천명)의 1.7%(154천명), 12~14세 어린이(1,728천명)의 28.9%(500천명)가 일터에 나서고 있었음.

일자리를 잃은 전직실업자(前職失業者)만도 10% 넘어 …… 1933년

○ 1933년 조사자료에 따르면 직업이 있었던 자가 실직한 한국인 전직실업자(前職失業者) 비율이 조사대상자 총수(1,278.5천명)의 10.3%에 이르고 있었음.
- 봉급생활자였던 자 12.3%, 일용노동자였던 자 11.7%, 기타노동자였던 자의 8.2%가 실업자로 전락하였음.

○ 일본인의 경우(조사대상자 88.9천명)는 전직실업자가 3.0%에 지나지 않았음.

생활이 절박한 영세궁민(零細窮民)수가 총인구의 27% …… 1931년

○ 1931년 조사자료에 따르면 생활이 지극히 궁박한 상태에 있으나 우선 허겁지겁 연명하는 세민(細民)과 긴급구제가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궁민(窮民) 및 걸인(乞人)의 수가 총인구(20,263천명)의 26.7%에 이르는 542만명이라 하였고, 이는 5년전인 1926년 당시(총인구 19,104천명)에 비해 2.5배 이상 늘어난 것이라 하였음.

	세궁민계(천명,%)	세민	궁민	걸인
1926년	2,165.7(11.3)	1,860.0(9.7)	295.6(1.5)	10.1(0.1)
1930년	4,342.4(21.4)	3,466.1(17.1)	876.3(4.3)	…(…)
1931년	5,415.3(26.7)	4,203.1(20.7)	1,048.5(5.2)	163.8(0.8)

주 : ( )내는 총인구대비율임.

1930년 당시 일본내 한국인 거주자 42만명, 노동자·막일꾼이 유업자의 71.5%

○ 일본 국세조사자료에 의하면 1930년 당시 일본내 한국인은 41만 9천여명, 1920년(4만 1천명)에 비해 10배 이상 불어났다고 함.

○ 한국인의 직업은 전체 인구(419천명)의 33.0%가 공장노동자(138천명), 3.9%가 광산노동자(16천명), 7.5%가 막노동, 날품팔이 등 기타 유업자(31천명)였고, 노약자, 어린이, 주부, 실업자 등 무업자(159천명)를 제외하면 한국인 유업자(260천명)의 71.5%(186천명)가 노동자, 막일꾼이었던 셈임.

일제강점이후 만주 등지로 떠난 사람 100만명 넘는 것으로 추산

○ 기근과 가난, 압제와 핍박을 견디다 못해 고향을 등지고, 압록강·두만강을 넘어 서북간도 등지로 이주한 동포는 조선 총독부 통계자료에 의하더라도 1910년 9월~1929년 까지 약 20년간 35만 7천명이라 하였음.

○ 조선 총독부 촉탁 善生永助의 『조선의 인구』 자료에 따르면 1923년말까지 북방 대륙으로 이주한 한국인수가 839,079명이라 하였음.

○ 일본 외무성 및 만주국 정부가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1942년 당시 만주에 거주하고 있는 한국인수가 151만 2천명에 이른다하였음.

어쩔 수 없이 산으로 들어간 화전민(火田民)수도 152만여명 ····· 1936년

○ 빚이나 생활고에 쪼들려 농토, 가재도구들을 잃고 어쩔 수 없이 산으로 찾아 들어간 화전민(火田民)수도 1936년 현재 28만 2천호에 152만여 명이라 하였음.
- 1916년 당시에는 화전민 호수 4만 9천호에 인구 24만 6천명으로 나타나고 있음

○ 1928년 함남 갑산군 화전민 1,448호를 대상으로 화전민이 된 이유를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41.6%가 식량수확감소로 생계가 막연해서, 26.7%가 재난으로 가산을 모두 잃어, 13.1%가 농촌에서 채무로 인해 토지를 팔고 생계가 막막하여; 11.0%가 분가를 하였으나, 농사를 지어 먹고 살 분배토지가 없어서 등으로 나타나고 있음.

	1916년	1936년	1943년
화전민 호수(호)	49,161	282,044	247,956
화전민 인구수(명)	245,626	1,520,368	1,314,344
(한국인 총수대비:%)	(1.5)	(7.1)	(5.1)

세궁민(細窮民)과 억압받던 백성들 함북, 경기로 몰려 ····· 1940년

○ 1940년 당시 한국인의 6.5%가 자신의 본적지인 도(道)를 떠나 타도(他道)에 거주.

○ 함경북도는 25.5%, 경기도는 12.0%가 타도(他道)사람으로 타도인구비율이 매우 높았고, 특히 함경북도에는 함남, 강원, 전남, 경남, 경기도 사람들이 많이 들어와 살았음.

	현거주자(천명)	거주도와 본적도가 다른자(천명)	%
전국	23,541	1,531	6.5
함북	1,017	259	25.5
경기	2,667	320	12.0
강원	1,742	158	9.1

주 : 국세조사결과.

12세이상 한국인중 약 80%가 문맹(文盲) …… 1944년

○ 1944년 국세조사자료에 의하면 12세이상 한국인(15,426천명)중 간이서당(簡易書堂) 조차 다니지 못한 사람이 79.8%(12,305천명)에 이르렀음.
- 남자의 66.1%(4,954천명), 여자의 92.7%(7,351천명)가 불취학자(不就學者).

○ 한국인의 79.8%가 문맹인 것과는 달리, 당시 한반도내 일본인(12세이상 478천명)의 불취학 비율은 3.8%(18천명)에 불과.

	대졸	전문졸	중졸	國高卒	國初卒	국초중퇴	서당수료	불취학
한국인(%)	0.05	0.14	1.30	0.32	10.59	1.61	6.22	79.77
일본인(%)	1.51	4.03	32.50	29.82	26.73	1.60	-	3.80

인구천명당 31명 출생, 18명 사망 …… 1930~1943년 평균

○ 1930년부터 1943년까지 14년간 자료에 의하면, 한국인은 한해 평균 약 725천명이 출생하여 조출생률(인구천명당 출생아수)은 평균 30.6명꼴.

○ 같은 기간동안 한해 평균 415천명이 사망하여 조사망률(인구천명당 사망자수)은 평균 17.5명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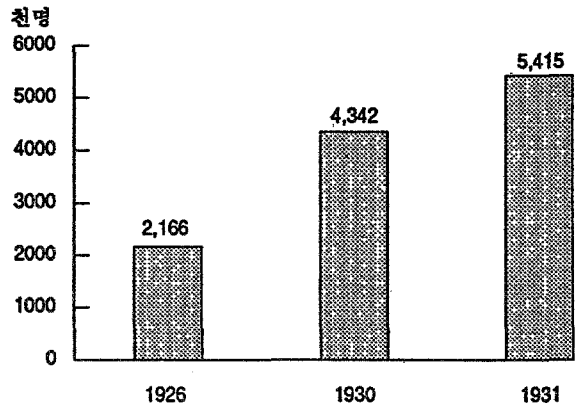
출생아 천명당 1세미만 영아사망은 74명꼴 …… 1925~1937년 평균

○ 1925년부터 1937년까지의 자료에 의하면 한해 평균 1세미만의 영아사망수는 49천명, 영아사망률(출생아 천명당 영아사망수)은 73.7명꼴.

총사망자중 0~4세아는 35%, 35세이상은 38% 차지 …… 1930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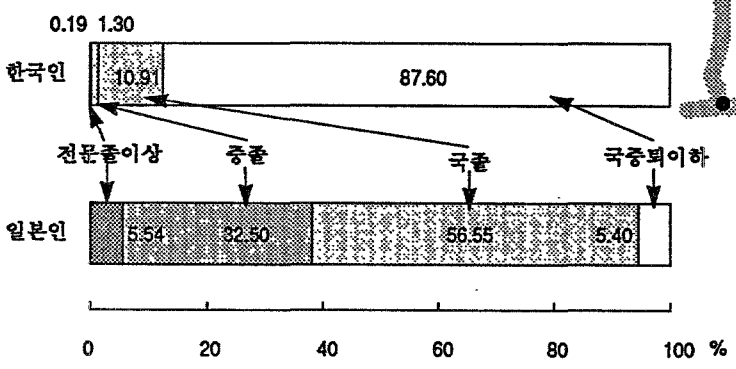
○ 1930년 당시 총사망자(381.9천명)중 0~4세아의 사망비율은 34.5%(131.9천명)였고, 35세이상 사망비율은 38.2%(145.8천명)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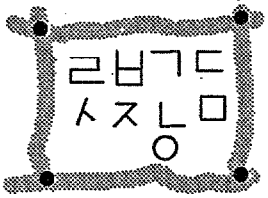
세궁민수





12세이상 학력별 구성 (194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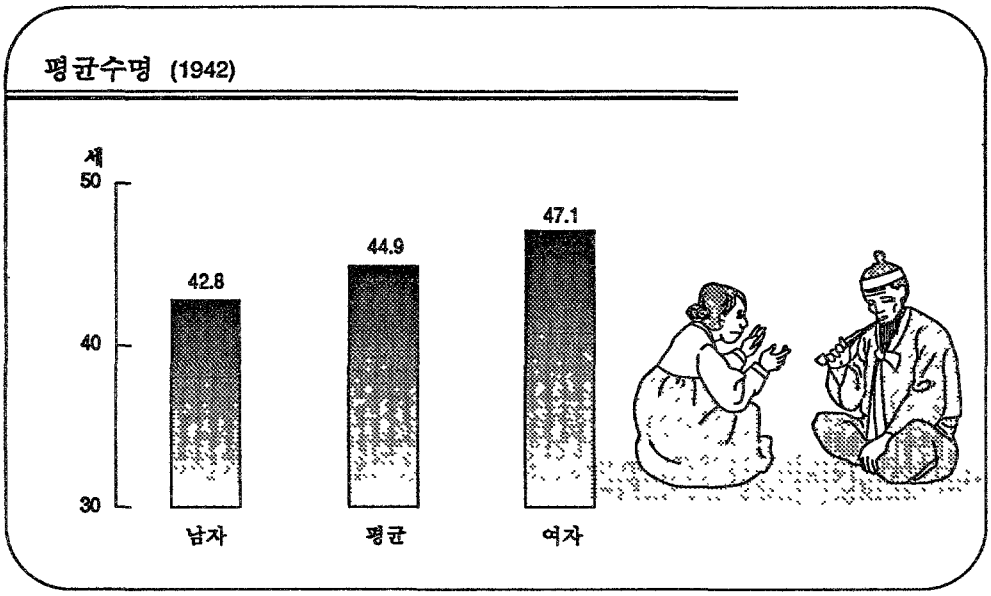


○ 여자사망자 백명당 남자사망자 비율은 116.1명으로 남자가 16.1명 더 많았고, 0세아의 경우는 122.8명, 35세 이상은 119.7명이었음.

	0세	0~4세	5~14세	15~34세	35세이상
총사망비율(%)	12.1	34.5	10.2	16.4	38.2
여자백명당 남자사망자(명)	122.8	119.6	113.8	103.9	119.7

평균수명 45세 못미쳐 ····· 1942년

○ 높은 영·유아사망률과 중장년층의 사망률을 반영, 1940년대 초반의 한국인 평균수명(平均壽命)은 44.9세(남자 42.8세, 여자 47.1세)정도로 나타나고 있음.



2. 토지 · 농촌 · 농림수산업

논은 서울, 대전, 부산순, 택지는 평양, 함흥, 부산순으로 비싸(표준 중등지가격) …… 1943년

○ 1943년 당시 도시의 표준중등지(標準中等地) 매매가격기준으로 볼 때, 논은 서울 4,500圓, 대전 3,250圓, 부산 2,400圓순(300평 기준)으로 높았고, 밭은 서울 7,500圓, 부산 4,000圓, 대전 2,400圓순(300평 기준)으로 높았으며, 도시의 밭값은 논값보다도 오히려 높았음.

○ 서울중등지 논값(300평)은 당시 소 16마리(도축장기준 1마리 274圓), 밭은 27마리값에 해당.

○ 택지가격(100평기준)은 평양 135,000圓, 함흥 20,900圓, 부산 15,000圓순으로 높았음.

동양척식주식회사 소유 토지 약 30년간 9.4배 늘어 …… 1943년

○ 동양척식주식회사(東洋拓植株式會社)는 한반도의 개척(開拓)과 식민(植民)사업 및 일본 이민 장려를 목적으로 1908년 설립된 특권회사로, 토지조사사업 결과 조선총독부의 소유가 된 토지(국유지)를 헐값에 불하받아 동척(東拓)이 보유한 토지는 1911년 26,820정보(1정보=3,000평)에서 1943년 251,640정보로 약 30여년간 9.4배 증가.

○ 동척 소유 토지에서 얻는 소득만해도 1927년 당시 쌀 31만 1천석(石), 잡곡 1만 6천석, 면화 3만근(斤), 금전대납금(소작료) 약 12만圓이라 하였음.

	동척불입자본금(천圓)	동척보유토지(정보)	동척대부금(천圓)
1911년	5,000	26,820	2,167
1930년	35,000	123,565	83,019
1943년	75,000	251,640	318,521

총농가의 70%이상이 사실상의 소작농(小作農) 이하 계층 …… 1942년

○ 1935년 당시 한국인 농가수는 한국인 총가구수(3,984.8천가구)의 76.7%에 해당하는 3,055.4천호였으며, 1942년(한국인 총가구수 4,587.2천가구)에는 66.3%에 해당하는 3,043.5천호였음.

○ 1942년 당시 전체 농가(3,053.4천호:일본인 및 외국인 농가포함)의 70.9%가 사실상의 소작농(小作農) 이하 계층이었음(자작겸 소작농가중 소작비율이 50% 이상인 농가포함).

	자작	자작겸 소작	소작	피고용자	순수화전민
1942년(천호)	529.7	729.4(소작50%이상 369.8)	1,641.7	95.8	56.8
(%)	17.3	23.9(소작50%이상 12.1)	53.8	3.1	1.9

민족별 토지보유자 1인당 평균면적은
한국인 1정보, 일본인 4정보꼴 …… 1942년

○ 1942년 당시 한국인 토지 보유자 1인당 평균 보유면적은 1.0정보, 일본인은 3.6정보꼴로 나타나고 있음(지세납세의무자 기준).
- 총보유자(지세납부의무자 기준) 4,058.3천명중 2.9%에 불과한 일본인 보유자 119.4천명의 토지 총보유면적은 424.2천 정보에 달해 토지 총면적 4,460.0천 정보의 9.5%에 이름.

산미증식계획(産米增殖計劃)으로 쌀생산은 늘었어도
한국인 1인당 소비량은 오히려 줄어…… 1928년

○ 1920년 당시 쌀생산량은 12,708천석이었고, 1928년에는 산미증식계획에 따라 17,299천석으로 1920년 대비 36.1% 늘어났음.

○ 산미증식계획의 본래 의도가 일본 본토의 부족 식량 문제해결이었으므로 동 기간중 일본 등지로의 반출량도 1,855천석에서 7,421천석으로 무려 4.0배 늘어났음.

○ 이에 따라 한국내의 일본인 1인당 소비량은 연간 1.2석(1일당 3홉 3작)으로 변함이 없었으나 한국인 1인당 소비량은 1920년 연간 0.625석(1일당 1홉 7작)에서 1928년에는 0.525석(1일당 1홉 4작)으로 오히려 줄어 들었음.
부족식량의 부분적 보충을 위해 만주조가 수입되었음.

	쌀생산량(천석)	쌀수출량(천석)	일본인1인당 연간쌀소비(석)	한국인1인당 연간쌀소비(석)	조수입량(천석)
1920년	12,708	1,855	1.2	0.625	863
1928년	17,299	7,421	1.2	0.525	1,935

○ 1930~1936년간 인구 1인당 연간 쌀소비량은 0.4석으로 하루 평균 1홉 2작 정도였고, 쌀 소비량의 3배 가까운 잡곡(연간 1인당 1.2석)을 주곡으로 보충하는 형편이었음.

○ 태평양 전쟁이 한창이던 1943~1945년간의 식량소비량은 쌀, 잡곡을 통틀어 1인당 연간 1.2석(하루 3홉 3작꼴)내외로 일제강점이후 최악의 식량 기근을 맞았던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일본으로 반출하기 위한 면(棉)재배 적극 장려

○ 일본은 북양남면(北洋南棉)이란 미명하에 일본으로 가져가기 위한 면재배를 적극 장려하였음. 1910년 60.2천정보였던 재배면적은 1943년 316.7천정보로 5.3배 가까이 늘었고, 수확고는 2,108천근(斤)에서 3억2,420만근(斤)으로 15.4배 늘었음.

소·돼지는 농가 2호당 1마리, 닭은 농가당 2마리꼴로 사육 …… 1935년

○ 1935년 당시 소사육두수는 168만마리, 전체농가 2호당 1마리꼴이었고, 돼지 사육두수는 162만마리로 역시 농가 2호당 1마리꼴이었으며, 닭은 712만마리로 농가 1호당 2마리꼴이었음.

일제말엽 산림 남벌(濫伐)

○ 1935년 당시 용재(用材) 벌채량은 2,265천㎥에 금액으로는 1,814만圓이었고, 1943년에는 11,927천㎥에 금액 8,864만圓에 달해 1935년 대비 벌채량으로는 5.3배, 가격기준으로는 4.9배 늘어났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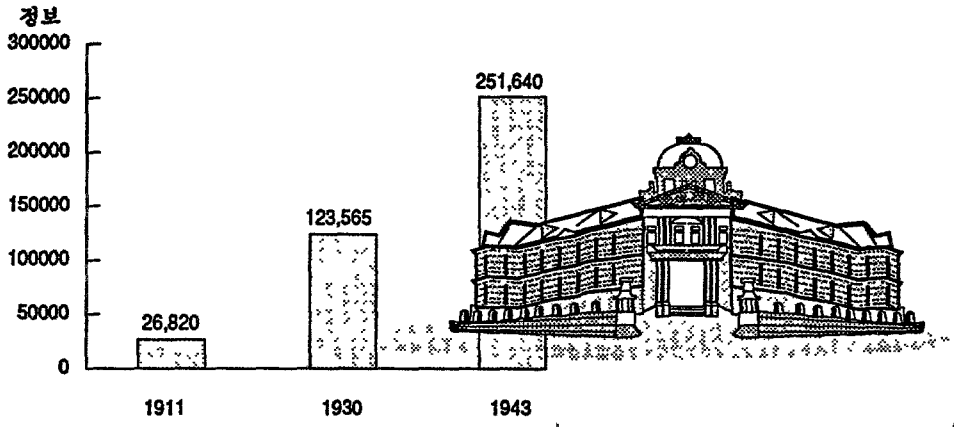
어선중 95%가 무동력선(無動力船) …… 1943년

○ 1943년 당시 수산업자 가구수는 전체 가구수(4,878.9천가구)의 4.0%에 해당하는 197.6천 가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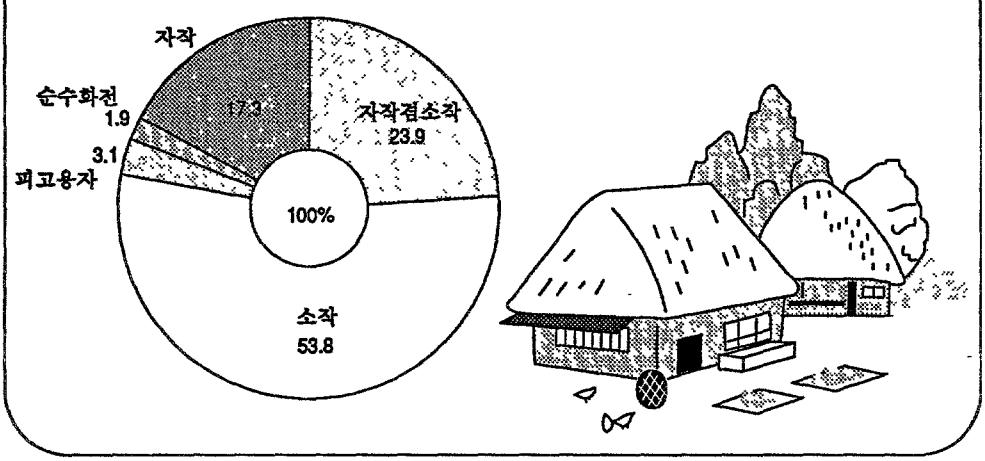
○ 어선(66.9천척)중 동력선은 4.8%, 무동력선은 95.2%.

○ 어류포획량(633.1천톤)중 명태 33.9%(214.7천톤), 조기 17.4%(109.8천톤), 멸치 7.6%(48.3천톤), 꽁치 5.1%(32.5천톤), 갈치 4.6%(29.4 천톤)차지.

동척보유토지



농가구성 (1942)



3. 광공업

금채취에 일본인들 혈안, 1934~1939년 금은광 광업 출원 24.5천건

○ 1930년대 중반을 전후하여 일본인 주도하의 「골드러시(Gold Rush)」 선풍이 불어 1934~1939년 사이 6년간 24,522건의 금은광(金銀鑛) 광업 출원이 있었고, 5,369건의 허가가 있었음.

○ 사금(砂金) 광업 출원건수도 동기간중 1,800건(허가건수 390건)으로 대형 준설기인 드레저(dredger) 를 동원하였고, 한국인은 함지박이 고작.

○ 1922년부터 1945년 8월까지 금은광석 채굴량은 1,730천톤에 달하였음.

○ 그밖의 지하자원에 대한 일본인의 수탈도 극심하였음. 노임을 적게 들이기 위해 관(官)의 협력하에 재소자(在所者)까지 동원하였음. 1922~1945년 8월까지 철광석 17,526천톤, 석탄 57,488천톤, 흑연 3,451천톤을 채굴.

공장 1만 3천여개, 종사자 36만 3천명 ····· 1943년

○ 1943년 당시 종사자 5인이상 공장수는 13,293개, 총종사자수는 362,953명이었음.

○ 1939년 당시 조선 공장 명부에 등재된 6,530개 공장중 종업원 50명 이상인 당시 중·대규모 공장도 36.1%로 나타나 당시의 공장규모가 노동집약형이었음을 나타내고 있음.

	공장수(개소)	종사자(명)	남(%)	여(%)
1932년	4,643	110,650	72.2	27.8
1940년	7,142	294,971	72.2	27.8
1943년	13,293	362,953	···	···

한국인 공장이 60%,
그러나 94%가 종사자 50명이하 중소규모 ····· 1939년

○ 1939년 당시 종사자 5인이상 6,530개 공장(공장명부등재 공장기준)중 한국인 명의의 공장은 3,916개로 전체의 60.0%.
- 그러나 한국인 공장의 94.3%인 3,693개가 종사자 5~50인 이하.

○ 한국인 공장의 34.9%(1,368개)가 식료품공장(주로 과자, 수산품제조, 양곡·쌀겨·찌끼 등 도정공장)이었고, 26.7%(1,047개)가 화학공업공장(주로 생선기름, 동식물성 비료제조)이라 하였음.

공장수로는 식료품, 종사자수로는 화학공업이 가장 많아 ····· 1940년

○ 1940년 당시 공장수가 가장 많은 업종은 식료품 공업(전체 공장의 29.0%)이었고, 다음이 화학공업(22.1%)이었음.

○ 종사자가 많은 순서로는 화학공업(전체 종사자의 29.1%), 방직공업(17.5%), 식료품공업(14.2%) 등이었음.
- 공장당 평균 종사자수 기준으로는 방직공업 77.3명, 금속공업 68.1명, 화학공업 54.5명 등이었음.

○ 여자종사자가 많은 순서로는 방직공업(전체 여자종사자의 46.0%), 화학공업(24.1%) 등의 순.

	공장수(개)	종사자수(명)	여자(명)
계	7,142(100.0)	294,971(100.0)	82,047(100.0)
방직공업	668(9.4)	51,615(17.5)	37,734(46.0)
금속공업	289(4.0)	19,680(6.7)	750(0.9)
기계기구공업	689(9.6)	35,128(11.9)	1,090(1.3)
요업	382(5.4)	17,486(5.9)	2,019(2.5)
화학공업	1,576(22.1)	85,920(29.1)	19,777(24.1)
제재·목재품업	474(6.6)	15,481(5.3)	743(0.9)
인쇄·제본업	324(4.5)	8,383(2.8)	385(0.5)
식료품공업	2,069(29.0)	41,791(14.2)	11,075(13.5)
기타공업	671(9.4)	19,487(6.6)	8,474(10.3)

방직공업이래야 고작 견직물·메리야쓰공장들 ····· 1940년

○ 「방직공업」의 69.9%가 직물업(특히 견직물)과 막대소(莫大小:메리야쓰)제조업이었고, 「금속공업」의 90.7%는 주물업과 금속제품(못, 침, 철물 등) 제조업, 「기계기구공업」의 26.1%가 자전거부품, 광산용기계기구제조업, 「요업」의 59.4%가 도자기, 벽돌·기와 등 제조업, 「화학공업」의 74.6%가 동물성 비료, 생선기름제조업, 「식료품공업」의 73.7%가 정미소, 양조업이었으며, 「기타공업」의 55.9%가 재봉업 등으로 사실상 원시 산업형태나 다를 바 없었음.

공업생산액의 업종별 크기순으로는
화학, 식료품, 방직공업순 ····· 1943년

○ 1943년 공업총생산액 2,050백만圓중 화학공업 29.3%, 식료품공업 19.5%, 방직공업 16.8%, 금속공업 14.6%로 이들 4개업종이 전체의 80.2% 차지.

	총공업생산액(백만圓)	화학공업	식료품공업	방직공업	금속공업
1940	1,619.9(100.0)	648.8(40.1)	303.9(18.8)	230.8(14.2)	144.2(8.9)
1943	2,050.0(100.0)	600.0(29.3)	400.0(19.5)	345.0(16.8)	300.0(14.6)

기계기구공업제품자급도 28.5%로 가장 낮고,
카메라, 시계, 축음기생산못해 ····· 1941년

○ 1941년 당시의 생산·소비수준(국내소비액 2,903.7백만圓, 국내생산액 2,113.0백만圓)에 의한 국내공업제품의 자급도는 평균 72.8%라 하였음. 자급도가 높은 업종제품으로는 화학공업제품 98.3%, 식료품공업제품 95.1%였으며, 주로 수입에 의존하여 자급도가 낮은 업종제품은 기계·기구공업제품 28.5%, 방직공업제품 50.3% 였음.

○ 특히 기계기구공업제품중 공작기계, 철도기관차 및 차륜, 제도 및 측량기구, 자동차 부속품, 전신전화기, 시계, 카메라, 축음기 등은 국내 생산이 없었고, 의료기구는 자급률 3.5%, 내연기관 및 부속품은 3.7%, 원동기는 7.1%정도였다고 함.

대규모 회사수와 자본금, 일본인 것이
한국인의 11배, 34배 많아 ····· 1944년

○ 1944년 당시 공칭자본금(公稱資本金) 백만圓 이상으로 한반도내에 본점(本店)을 둔 공업·건설 관련 회사수는 213개였고, 그중 195개사(91.5%)가 일본인 명의의 회사였으며, 한국인 명의의 회사는 18개사(8.5%)에 불과.

○ 납입자본금 총액 1,311백만圓중 일본인 자본금은 1,273백만圓(97.1%)이었고, 한국인 자본금은 38백만圓(2.9%)에 불과.

○ 일본인 투자자본이 한국인 투자액의 33.6배, 일본인 회사수가 한국인 회사수의 10.8배나 많다는 통계만 보더라도 당시 한국인들의 집단적 경영이 얼마나 보잘 것 없는 것이며, 우월한 자본과 특권을 가진 일본인들의 경제 침탈이 어느 정도였던가를 추측할 수 있을 것임.

15살이하 직공이 13%, 여자직공의 경우는 26%나 돼 …… 1940년

○ 극빈한 생활환경으로 어린 소년소녀들까지도 힘든 공장노동에 휩쓸렸던 것으로 나타남. 1931년 당시 15세이하 직공은 전체 직공수의 8.2%(남 2.8%, 여 19.7%)였으나 1940년 당시에는 13.1%(남 7.0%, 여 26.2%)로 늘어났음.

	총직공수(명)			15세 이하 직공수(명)		
	계	남	여	계	남	여
1931년	86,419	58,762	27,657	7,112(8.2)	1,662(2.8)	5,450(19.7)
1936년	148,799	98,249	50,550	16,457(11.1)	5,078(5.2)	11,379(22.5)
1940년	230,688	157,486	73,202	30,163(13.1)	10,962(7.0)	19,201(26.2)

주 : ( )내는 각각의 총수에 대한 비율임.

하루평균 11시간 노동,
남자 한달 봉급 쌀 1.2섬값(도매가격기준) …… 1943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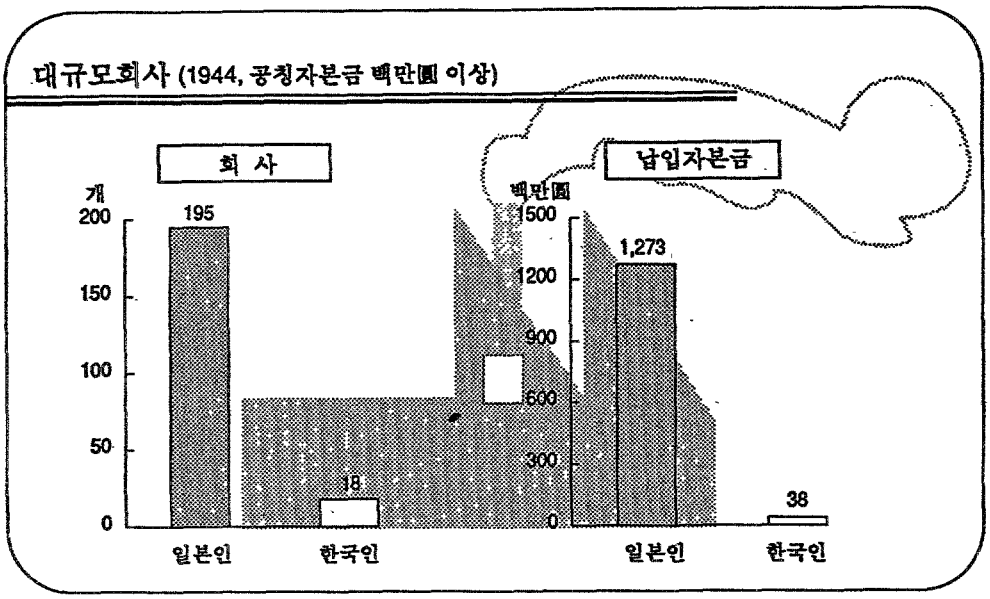
○ 1943년 당시 정액급여(일당)를 받는 공장노동자의 하루 평균 근로시간은 남녀 각각 11.2시간으로 고된 노동의 연속이었음. 근로일수는 남자평균 25일, 여자평균 28일(여자직공의 절반 가까이가 종사하는 방직공업의 근로일수가 28일로 높기때문)이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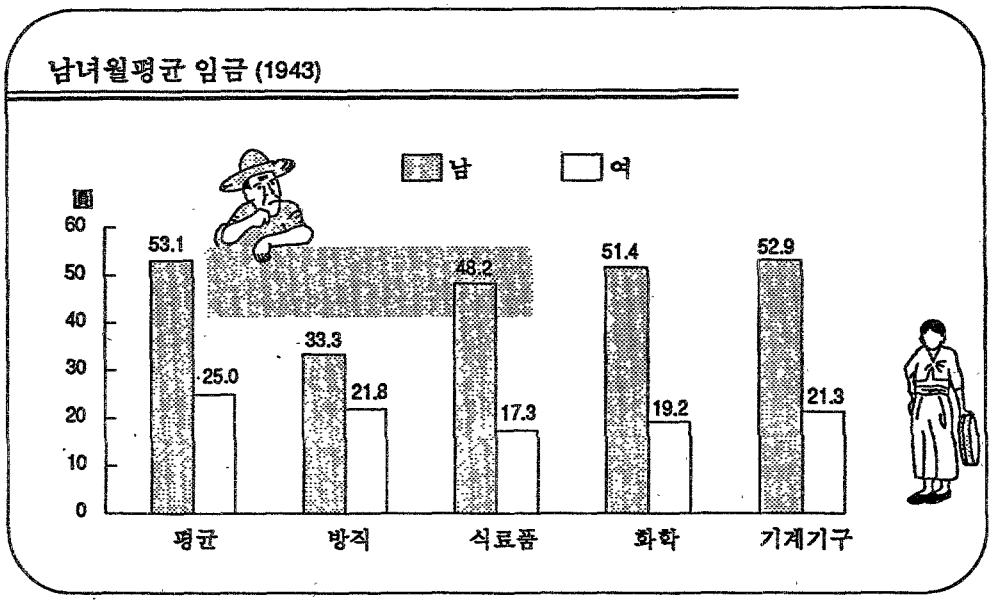
○ 시간당 평균임금은 남자가 19전(錢), 여자가 8전(錢), 하루당 평균 임금은 남자 212.4전, 여자 89.3전이었고 한달내내 아무런 탈없이 계속 작업하였을 경우 한달 평균임금은 남자가 53원 10전, 여자가 25원꼴이었음.

○ 당시 서울의 쌀 중품(中品) 1섬(대두 10말, 180ℓ환산)의 도매가격(소매가격자료미상)이 43원 45전, 보리쌀 1섬(180ℓ)의 도매가격은 18원 3전이었으므로, 이로써 따지면 남자월급 53원은 쌀 1.2섬 또는 보리쌀 2.9섬에 해당하는 셈이며 여자월급 25원은 쌀 0.5섬 남짓 또는 보리쌀 1.4섬 정도에 해당하는 셈임.

	1일평균실근로시간		1월평균근로일수		1월평균임금(圓)	
	남	여	남	여	남	여
평균	11.2	11.2	25	28	53.10	25.00
방직공업	11.4	11.5	26	28	33.28	21.84
식료품공업	11.6	10.8	26	25	48.17	17.32
전기·가스·수도업	10.9	10.4	29	28	60.17	37.94
화학공업	11.3	10.7	24	20	51.38	19.20
금속공업	11.7	10.6	24	26	56.25	27.48
기계기구공업	10.5	10.3	24	23	52.92	21.25

주 : ·노동자30인이상 민영업체의 한국인 노동자대상
·요업, 인쇄·제본업, 제재·목제품, 기타공업은 표기하지 않았음.


대규모회사 (1944, 공칭자본금 백만圓 이상)
회 사
납입자본금
개
백만圓
200
150
100
50
0
1500
1200
900
600
300
0
195
18
1,273
38
일본인
한국인
일본인
한국인


남녀월평균 임금 (1943)
남
여
圓
60
50
40
30
20
10
0
53.1
25.0
33.3
21.8
48.2
17.3
51.4
19.2
52.9
21.3
평균
방직
식료품
화학
기계기구

4. 회사 · 상업 · 금융 · 보험

법인회사수 3,354개, 주식회사 68% ····· 1941년

○ 1941년 당시 한반도내의 법인회사수는 3,354개사로, 그중 한반도에 본점(本店)을 둔 회사수는 3,156개소(94.1%), 지점(支店)만을 설치한 회사가 198개사였음
- 주식회사는 2,281개사(68.0%), 합자회사는 696개사(20.7%), 합명회사는 274개사(8.2%), 유한회사는 103개사(3.1%)였음.

○ 1개회사당 납입자본금(또는 출자액:본점설치회사 기준)은 평균 535.3천圓이었고, 주식회사만으로는 766.3천圓이었음.

	형태별 법인회사수					본지점 설치별	
	계	합명	합자	주식	유한	본점설치	지점만 설치
1910년	177	20	54	103	-	152	25
1935년	2,487	218	1,039	1.230	-	2,359	128
1941년	3,354	274	696	2,281	103	3,156	198

시장(市場) 1,593개소, 가축 · 고기류 매상 비중 34% ····· 1941년

○ 1941년 당시 1,593개의 시장이 있었고, 그중 공설시장은 99.1%에 달하는 1,579개, 사설시장은 14개가 있었음.

○ 공설시장은 연간 평균 90일(3~5일에 1회), 사설시장은 165일(1~3일에 1회) 영업.

○ 가장 많이 팔린 품목은 가축 · 가금 · 고기류 등 축산물로서 연간 총매상고(582.7백만圓)의 34.3%를 차지하였고, 농산물은 20.8%, 수산물은 13.4%, 직물 · 의류는 12.1%, 기타 19.4%였음.

은행수 본점 5, 지점 및 출장소 241,
인구 1인당 은행예금은 96원 ····· 1943년

○ 1943년 당시 금융기관으로는 은행(본점 5, 지점 및 출장소 241), 조선금융조합연합회(지부수 13), 지방민의 소금융기관인 금융조합(614개), 수형(手形:어음)교환소(11개), 무진회사(1개), 신탁회사(1개사, 지점 8)가 있었고, 공익전당포(27개)와 일반 대금업자(貸金業者)영업도 성행.

○ 1910년 당시 은행예금 연말 현재고는 17.9백만圓, 인구 1인당 1.3圓정도였으나, 1943년 당시에는 2,551.3백만圓, 인구 1인당 95.7圓 이었음.

공익전당포, 봉급생활자·소상인 이용 많고,
의류 가장 많이 잡혀 ····· 1943년

○ 1943년 당시 공익전당포(公益典當鋪)는 27개소가 있었고, 연간 대부건수는 121천건(1개 전당포당 4,482건)이었음.

○ 공익전당포를 가장 많이 이용한 계층(1943년 총이용건수 121.0천건)은 급료생활자(41.6%), 소상인(14.5%), 노동자(14.1%) 등이었음.

○ 전당포의 질물(質物)은 주로 의류로서 총점수(點數:267.8천점)의 83.9%를 차지

○ 원금과 이식(利息)을 갚지 못해 전당잡힌 물건이 전당포의 소유로 바뀐 질권(流質)도 1935년~1943년간 총대부건수의 4.5%정도 였음.

사설 대금업자 금리 최고 3푼 9리,
시장대금업은 최고 1할까지 받아 ····· 1934~1943년

○ 공익전당포 이외에 사설대금업(私設貸金業)도 성행하였으며, 한국인끼리의 대금업거래는 월리(月利) 최고 3푼 9리에서 최저 1푼 5리(보통 2푼 7리~2푼 2리)의 금리로 이루어졌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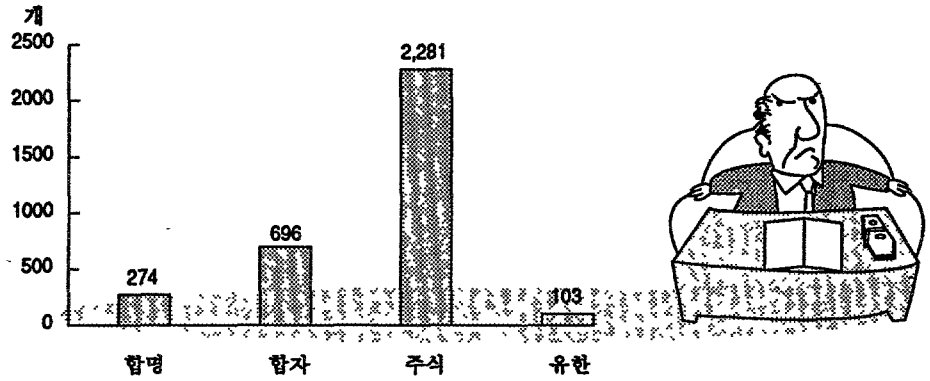
○ 시장상인을 대상으로한 시장대금업(市場貸金業)은 월리(月利) 최고 1할 0푼 9리에서 최저 2푼 7리(보통 8푼 1리~3푼 6리)의 금리로 거래.

인구 1인당 생명보험 수입보험료 3.5圓,
화재보험 수입보험료 47錢 ····· 1943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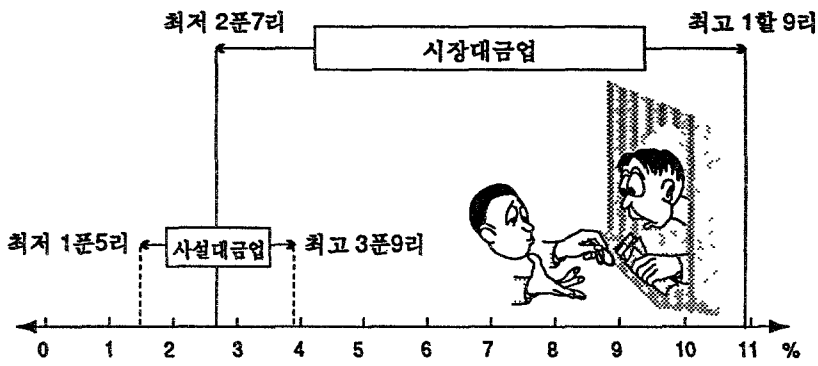
○ 1943년말 당시 생명보험 가입건수는 1,072천건, 계약금액 총액은 2,215백만圓, 계약건수당 계약액은 2,066圓 이었음.
- 생명보험 수입보험료는 92.5백만圓으로 인구 1인당 3圓 47錢 꼴.

○ 손해보험은 화재(火災), 해상(海上), 운송(運送), 손해(損害), 자동차(自動車)보험이 주축이었으나, 그밖에 미미하나마 신용(信用), 초자(硝子), 삼림(森林), 도난(盜難), 항공(航空)보험도 있었음.
- 손해보험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화재보험(1943년 당시 계약건수의 98.7%, 계약고 기준 84.8%)의 계약건수는 7,298천건, 계약고 2,941백만圓, 인구 1인당 보험료는 47錢이었음.

법인회사 (1941)



대금업자 월 금리 (1934 ~ 1943)



5. 철도 · 운수

철도 이용객 33년간 63.5배 늘어 ····· 1910~1943년

○ 1899년 경인선 개통당시 철도선로 연장은 30㎞, 1910년 일제강점 당시는 1,080㎞(674.6리), 1943년 당시는 4,568㎞였음. 철도길이는 경인선 개통 당시에 비해 152배 이상, 1910년 대비로는 4.2배 늘어났음.

○ 정거장 총수는 1910년 105개역에서 1943년 677개역으로 6.4배 늘어났음.

○ 1910년 당시 철도 하루평균 이용자는 5,700명, 1943년에는 351천명으로 61.5배 늘어났음.

○ 1910년 당시 철도수송여객 인원수는 연간 2,024천명이었으나, 1943년에는 128,469천명에 이르러 33년간 63.5배 늘어났음.

○ 철도이용객 중 1등열차 이용객수의 비율은 1910년 0.5%에서 1943년에는 0.05%로 비중이 줄어들고, 2등열차 역시 1910년 3.3%에서 1943년에는 1.0%로 줄어듦. 반면 3등열차 승객수는 1910년 96.2%에서 1943년에는 98.9%로 늘어났음.

철도 수입이 총독부예산의 31% 차지 ····· 1935년

○ 일제당시 철도수입은 조선총독부 특별회계의 가장 중요한 세입원(歲入源)이었음. 1935년의 경우 총독부예산(290.3백만圓)중 철도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은 31.0%(1930년 31.5%, 1938년 27.0%)였고, 관업 및 관유재산 수입(169.2백만圓)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53.2%였음.

철도 운수수입은 33년간 66배 가량 늘어 ····· 1910~1943년

○ 국유철도 운수수입은 1910년 당시 4,413천圓(여객수입 2,351천圓, 화물수입 2,062천圓)에서 1943년에는 290,337천圓(여객수입 181,759천圓, 화물수입 108,578천圓)으로 33년간 65.8배 늘어났음.

	총 액(천圓)	여객수입	화물수입	1일1㎞당 평균수입(圓)
1910년	4,413(100.0)	2,351(53.3)	2,062(46.7)	···
1935년	56,478(100.0)	28,173(49.9)	28,305(50.1)	48.8
1940년	153,374(100.0)	91,495(59.7)	61,879(40.3)	98.7
1943년	290,337(100.0)	181,759(62.6)	108,578(37.4)	173.6

1906년이후 연평균 3천 3백만圓 이상을 철도에 투자 …… 1906~1942년

○ 일제는 한반도에서의 원료획득, 상품판매, 지하자원을 비롯한 산업개발, 만주개발 및 이권확보, 통치상 경비망 확충, 만주, 중국 병탈전략을 위한 국방적 필요성 등으로 철도에 막대한 투자를 하였음. 1906년부터 1942년까지 총 12억 3천만圓 이상(연평균 3천3백만圓)을 투자.

	총 액(1906~1942년)	1906~1931년	1932~1938년	1939~1942년
철도투자액(천圓)	1,235,319	339,852	304,862	590,605
연 평 균(천圓)	33,387	13,071	43,552	147,651

자동차수 8,800여대, 인구 2,570명당 1대꼴 …… 1938년

○ 1938년 당시 보유자동차수는 통털어 8,800여대, 인구 2,567명당 1대꼴.
- 당시 일본은 117,500대로 인구 589명당 1대꼴, 미국은 2,970만 5,200대로 인구 4명당 1대꼴이라 하였음(1948년 조선경제연보).

○ 1945년 4월 당시 남한의 등록자동차수는 7,326대(이중 반수는 폐차나 다름없었다함)였다고 함(1949년 조선경제연보).

국토면적 1㎢당 기성도로길이는 불과 8m …… 1943년

○ 1943년 당시 한반도내 도로망 총연장은 31,450㎞, 그중 기성(旣成)도로는 86.1%에 해당하는 27,093㎞였고, 국토면적 1㎢내에 불과 8m 정도의 기성도로가 있었던 셈.

서울전차 230대 운행, 하루평균 53만 4천명 이용한 셈

○ 1944년 당시 경전(京電)의 총보유전차수 252대, 운행가능 전차수는 234대.
- 경성궤도가 있었으나 통계미상.

○ 1944년 한해 총 1억 9천 5백만명, 하루평균 534천명 이용한 셈.

○ 전차요금은 1회 승차에 5전(1944년은 6전)정도.

6. 전매(專賣)

전매수입 비중 조세수입의 52% 수준 …… 1943년

○ 1943년 당시 전매수입(專賣收入)은 263.4백만圓으로 조선총독부 세입예산 총액(1,878.6백만圓)의 14.0%, 동회계의 관업(官業) 및 관유재산(官有財産) 수입액(735.9백만圓)의 35.8%에 해당.

○ 당시 경상조세 및 임시 조세수입총액이 506.7백만원이었는바, 전매수입은 이의 52.0%에 달하는 금액임.

전매수입중 담배가 차지하는 비중이 88% …… 1943년

○ 전매수입중 연초전매수입은 87.5%, 인삼은 1.9%, 아편은 1.5%, 기타 9.1%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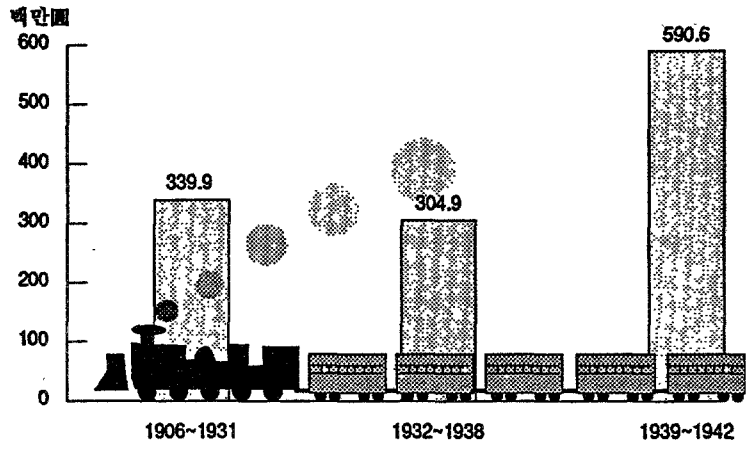
	전매수입총액	연초매각	인삼매각	아편몰핀매각	기타수입
1934년(천원)	47,820	39,479	1,567	583	6,191
(%)	(100.0)	(82.6)	(3.3)	(1.2)	(12.9)
1943년(천원)	263,379	230,537	4,851	4,038	23,953
(%)	(100.0)	(87.5)	(1.9)	(1.5)	(9.1)

담배판매액 인구 1명당 8원 20전꼴, 약 쌀 2말(도매)값 …… 1943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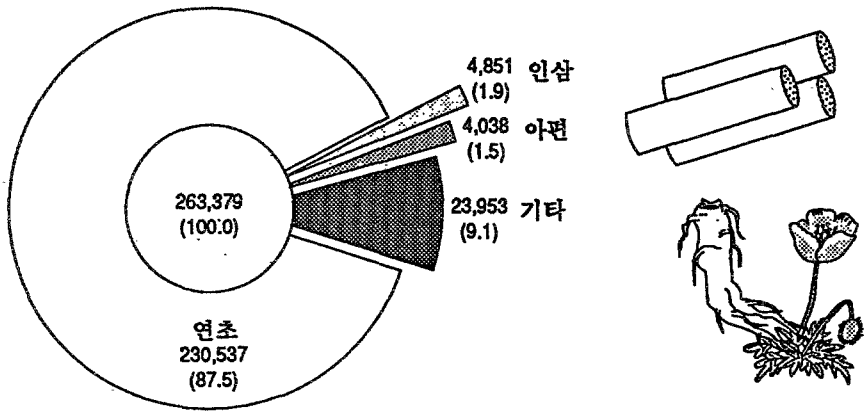
○ 1943년 당시 종이말이담배(紙卷)가 127억 2천 9백만개비가 제조되었고, 필터없는 담배(兩切)가 98.8%, 필터담배(口付)가 1.2%차지.
- 조각담배(刻담배)는 14,351톤 제조.

○ 1943년 당시 제조연초 총판매액(수입품 포함)은 219.3백만圓으로, 당시 인구 1인당 8圓 23錢꼴로, 당시 쌀 중품 1말(18ℓ) 도매가격(서울)이 약 4圓 32錢이었으므로, 이와 비교하면 연간 쌀 1.9말값에 해당하는 셈.

철도투자액



전매수입 (1943, 천원,%)



7. 무역

수출액 84%, 수입액 82%가 일본에 대한 것 …… 1910~1944년 총액기준

○ 1910년 일제강점 당시 총 상품수출액은 19.9백만圓이었고, 광복전 해안 1944년은 919.6백만圓이었으며(35년간 46.2배 증가), 1910~1944년까지 총 상품수출액은 13,573.5백만圓이었음.
- 1910~1944년까지 일본으로의 수출액은 11,369.6백만圓으로 총수출액의 83.8%에 해당.

○ 1910년 당시 상품수입액은 39.8백만圓, 1944년은 955.9백만圓(35년간 24.0배 증가)이었으며, 1910~1944년까지 총 상품수입액은 17,686.0백만圓이었음.
- 1910~1944년까지 일본으로부터의 수입액은 14,454.2백만圓으로 총수입액의 81.7%에 해당.

○ 1910~1944년까지의 무역적자는 4,112.5백만圓으로 이중 일본에 대한 적자가 75.0%인 3,084.5백만圓에 달하였음.

식료조생품 수출 43%, 완제품 수입 62% …… 1915~1944년 총액기준

○ 1915~1944년까지 30년간 수출 주요상품류는 쌀을 비롯한 식료조생품(食料粗生品)으로 43.2%를 차지하였고, 수입 주요상품류는 면직물을 비롯한 완제품(完製品)으로 61.6%를 차지하였음.
- 국내 쌀을 헐값에 주고 비싼 일본 옷 사입는 형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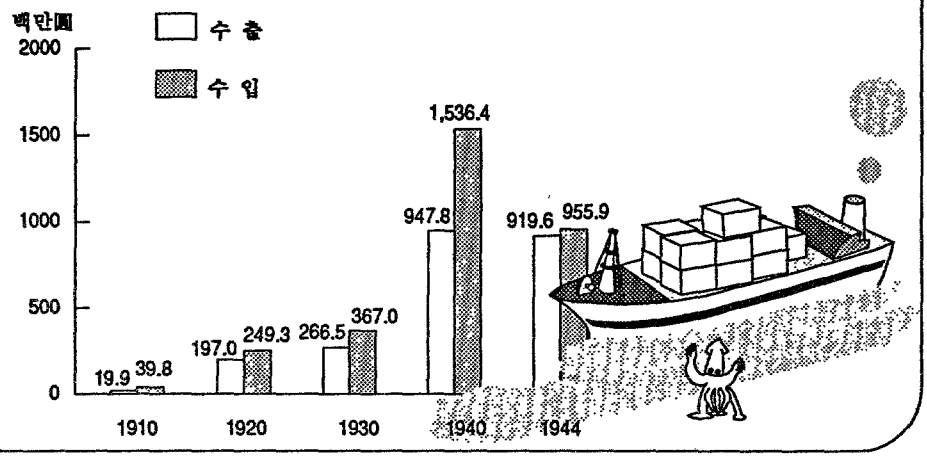
	계(백만圓)	식료조생품	식료제조품	원재료	반제품	완제품
수 출	13,447.5	5,809.5	508.5	1,773.1	2,374.7	2,981.7
(1915~1944년)	100.0	43.2	3.8	13.2	17.6	22.2
수 입	17,389.8	1,637.1	847.7	2,071.6	2,130.0	10,703.4
(1915~1944년)	100.0	9.4	4.9	11.9	12.2	61.6

일제 36년간 금(金) 250톤 일본으로 반출 …… 1909~1945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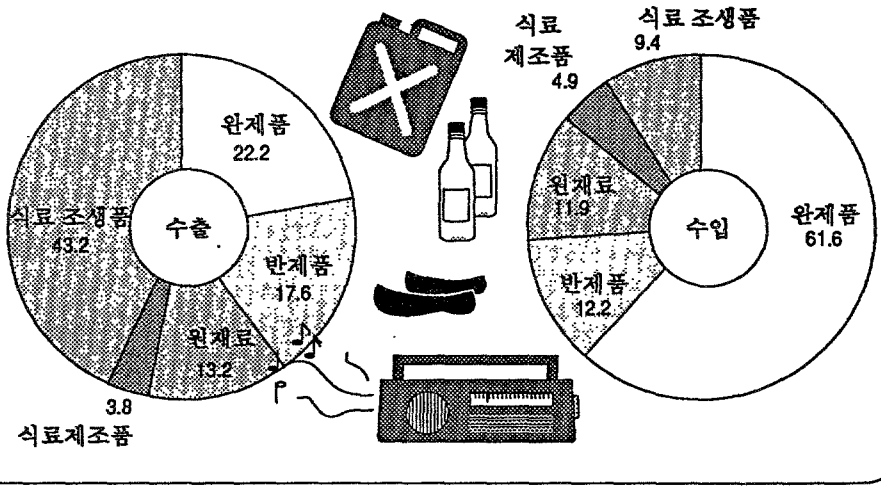
○ 1909년부터 1944년까지 36년간 한반도내 금(金) 생산량은 406,926kg.

○ 같은 기간중 당시 조선은행을 경유하여 일본으로 반출된 량은 총생산량의 61.3%에 해당하는 249,593kg이었음.

수출 • 수입액



주요상품류별 수출입 구성 (1915~1944, %)



8. 국민계정

1938년 당시 1인당 GDP 130圓, 쌀 3.9섬 해당(도매가 기준)

○ 한반도내의 1인당 국내총생산(GDP)은 1911년 34.5圓, 1920년 99.7圓, 1930년 75.0圓, 1938년 130.4圓으로 추계하고 있음.
- 1938년 당시 쌀 중품 1석(石, 180ℓ)의 서울 도매가격이 33.4圓 정도였으므로 1938년 1인당 GDP는 쌀 약 3.9섬에 해당.

○ 1938년 당시 일본 본토의 1인당 GDP는 366.8엔으로 우리나라의 약 2.8배, 대만은 208.2엔으로 약 1.6배 정도였음(화폐단위의 가치는 동일시 하였음).

연평균 경제성장률 3.7%, 제2차 산업은 8.8% ····· 1911~1938년

○ 1911~1938년까지 28년간 국내순생산(NNP)에 의한 연평균 경제성장률은 약 3.7%.
- 제1차 산업은 연평균 2.6%, 제2차 산업은 8.8%, 제3차 산업은 4.2% 성장하여 농업국가인 한반도에 자본주의 경제체제가 급속히 확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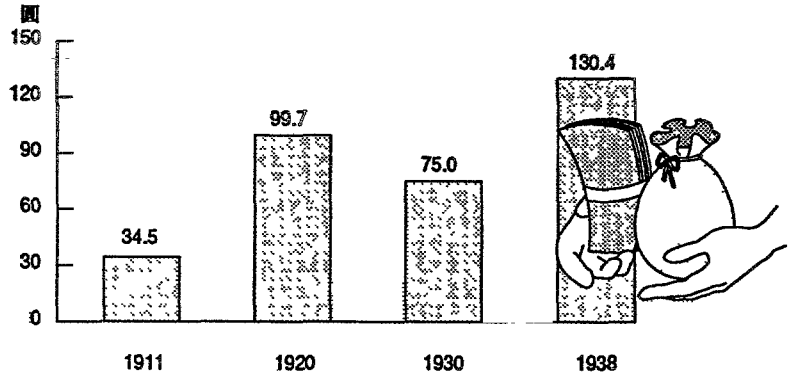
2차 산업 비중 4.7%에서 19.5%로 확대 ····· 1911~1938년

○ 1911년 당시 한반도의 산업구조(NNP기준)는 제1차 산업 66.1%, 제2차 산업 4.7%, 제3차 산업 29.2%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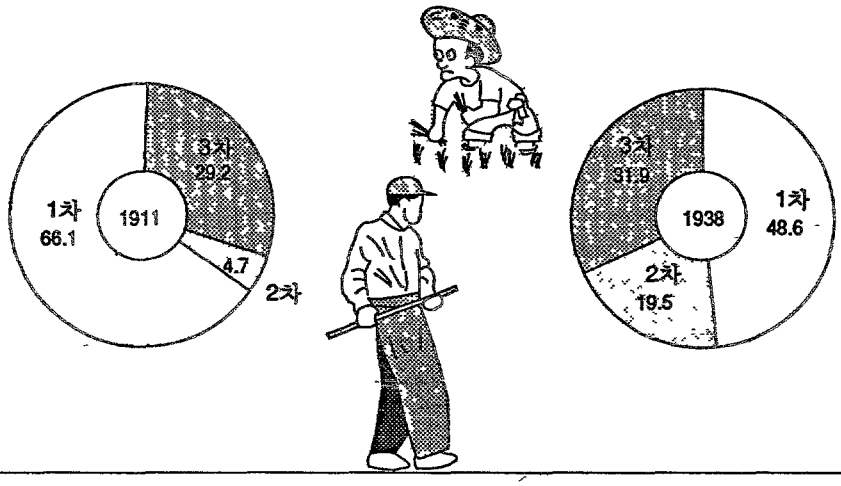
○ 1938년 당시로는 제1차 산업 48.6%, 제2차 산업 19.5%, 제3차 산업 31.9%로 2차 산업이 크게 성장.

	국내총생산(백만圓)			산업구조(%)		
	경상가격	34~36년 평균가격	1인당(경상: 圓)	1차 산업	2차 산업	3차 산업
1911년	540.7	914.3	34.5	66.1	4.7	29.2
1920년	1,747.2	1,409.4	99.7	69.0	6.1	24.9
1930년	1,517.0	1,594.6	75.0	46.0	10.7	43.3
1938년	2,973.1	2,722.6	130.4	48.6	19.5	31.9

1인당 GDP


圓
150
120
90
60
30
0
34.5
99.7
75.0
130.4
1911
1920
1930
1938

산업구조 (%)


3차
29.2
1차
66.1
1911
4.7
2차
3차
31.9
1차
48.6
1938
2차
19.5

9. 재정 · 통화

일제강점이후 35년간 총독부 세입예산규모 111배 이상 늘어 …… 1944년

○ 조선 총독부 세입(歲入)예산은 1910년 당시 22.0백만圓. 1944년에는 2,441.7백만圓으로 일제강점 35년간 무려 111.1배 팽창.
- 세출기준으로는 1910년 17.8백만圓(결산)에서 1944년 2,441.7백만圓(예산)으로 137.1배 늘어났음.

	세입(천圓)	세출(천圓)
1910년	21,979(100.0)	17,816(100.0)
1920년	146,344(665.8)	122,221(686.0)
1930년	239,730(1,090.7)	208,724(1,171.6)
1940년	995,264(4,528.2)	813,517(4,566.3)
1944년	2,441,706(11,109.3)	2,441,706(13,705.1)

주 : · 1944년은 예산기준, 그밖의 연도는 결산기준.

태평양 전쟁중 초팽창예산편성, 공채(公債) 남발

○ 태평양전쟁이 한창이던 1943~1944년 예산은 폭발적으로 증가하였음. 1943년 세입(결산기준)은 전해대비 43.1%, 1944년 세입(예산기준)은 30.0%나 급증.

○ 1943년, 1944년도는 세입확보를 위해 철도, 전매사업을 비롯한 관업 및 관유재산수입을 전해보다 각각 27.4%, 38.0%씩 늘려잡았고, 공채금(公債金)을 각각 96.4%, 78.4%씩 크게 늘려 잡았음.
- 공채수입이 전체예산중 차지하는 비중이 1944년의 경우 26.8%에 이름.

○ 1943년말 당시 조선총독부의 빚이자 곧 한민족의 빚인 국채(國債) 현재고(現在高)는 무려 16억 3,647만圓.
- 한국인 1인당 63圓 40錢꼴의 빚을 떠 맡은 셈(서울도매가격기준 쌀 1.5섬값).

	세입(천圓)	세출(천圓)	세입중 공채수입비율(%)
1940년	995,264(24.3)	813,517(19.6)	15.8
1941년	1,085,391(9.1)	931,809(14.5)	13.7
1942년	1,312,826(21.0)	1,155,791(24.0)	14.2
1943년	1,878,647(43.1)	1,531,983(32.5)	19.5
1944년	2,441,706(30.0)	2,441,706(59.4)	26.8

주 : · 결산기준액, 단 1944년은 예산기준액.
· ( )내는 전년대비 증가율(%).

33년간 조세수입 48배 늘고,
1가구당 부담액은 쌀 3말에서 3섬으로 변해 …… 1911~1943년

○ 1911년 당시 조세수입총액은 13.3백만圓, 1943년에는 641.6백만圓에 이르러 1911년 대비 48.4배 늘어났음.
- 국세는 40.7배 늘어났으며, 도세(道稅)는 48.4배 늘어났고, 부세(府稅)는 58.9배(1914년 대비), 면(面) 부과금은 16.8%(1912년 대비) 늘어났음. 한편, 학교조합비는 8.3배(1913년 대비) 늘어났고, 학교비부과금은 1,785.2배(1912년 대비)나 늘어났음.

○ 국세를 제외하고는 거주지역에 따라 징세범위의 차이는 있으나, 조세수입총액 전체를 전체 가구수 및 총인구로 단순히 나누어 1가구당 및 인구 1인당 조세부담액을 계산해 보면 1911년 당시는 1가구당 4.6圓, 1인당 0.9圓 정도였으나, 1943년 당시에는 1가구당 131.5圓, 1인당 24.1圓으로 크게 늘어났음.
- 1911년 당시 쌀 중품 1석(180ℓ)의 서울 도매가격이 17.4圓 정도였으므로 이를 기준으로 보면 1911년 당시에는 1가구당 쌀 약 3말 가격에 못미치는 액수를 조세로 납부한 셈.
- 1943년 당시로는 1가구당 약 쌀 3섬(당시 쌀 중품 1석(180ℓ) 도매가격은 43.5圓 정도)에 해당하는셈.

지세(地稅) 100圓이상 납세자 일본인 3.9%. 한국인 0.3% …… 1929년

○ 지세(地稅)는 1930년대 중반이후 그 비중이 약화되긴하였으나(1934~1943년간 국세총액대비 평균 7.3%) 농업국가인 한반도내에서는 중요한 세종(稅種)이었음.

○ 1929년 당시의 자료에 의하면 한국인 지세납세의무자 3,917.7천명중 100圓이상의 지세를 납부하는 인원은 0.27%에 불과한 반면, 일본인의 경우는 지세납세의무자 86.9천명중 3.9%나 되었음.
- 한편, 1圓 미만의 지세를 납부하는 인원은 한국인의 경우 전체의 51.6%, 일본인의 경우 26.4%였음.
- 당시의 한국인과 일본인의 재산분포상태를 가늠해 볼 수 있는 자료라 할 것임.

	지세납세의무자수(명)	100원 이상(%)	10~100원 미만	1~10원 미만	1원 미만
한국인	3,917,723(100.0)	0.27	5.97	42.17	51.59
일본인	86,858(100.0)	3.85	23.52	46.23	26.40

한국인 1호당 직접세 부담액,
일본인 1호당 부담액의 9%(郡)~15%(府)선 …… 1942년

○ 1942년 당시 한국인의 직접세(直接稅) 부담액은 부(府)의 경우 1인당 14.3圓, 1호당 78.4圓이었고, 군(郡)의 경우 1인당 4.4圓, 1호당 24.2圓이었음. 일본인의 경우는 부(府)에서 1인당 121.2圓, 1호당 539.6圓이었고, 군(郡)에서는 1인당 69.9圓, 1호당 269.1圓이었음.
- 이로 미루어 보아도 당시 한국인과 일본인의 경제력 차이가 얼마나 심하였던가를 추측할 수 있음.

일본제 수입상품에는 엄청난 특혜를 주어 보호

○ 1934~1943년간 총 수입액은 11,143.2백만圓으로 그중 일본 상품 87.4%(9,739.4백만圓), 기타 외국상품 12.6%(1,403.8백만圓)였음.

○ 수입관세는 120.9백만圓으로 그중 일본 상품에 대한 관세(移入稅라 하였음)는 불과 27.6%(33.3백만圓), 기타 외국상품에 대한 관세는 72.4%(87.5백만圓)로 일본제 상품에 엄청난 특혜 부여.
- 이입세(移入稅)는 주정(酒精), 알콜성 음료, 직물 등에 약간의 세를 부과하였을 뿐 대개의 품목은 적용하지 않아, 당시 한반도내의 열악한 가내공업 및 수공업제품의 경쟁력은 일본 공산품에 짓밟히는 결과를 초래.

한국인 공직자 평균 월급은 일본인에 비해 45~52% 정도 …… 1943년

○ 1943년 당시 한국인 공직자의 평균 봉급은 일본인 공직자 평균 봉급에 비하여 국비(國費) 지급직의 경우 52.0%, 도비(道費) 지급직의 경우 44.9%, 부비(府費) 지급직의 경우 47.7%에 불과.

○ 1943년 당시 한국인 공직자(국비, 도비, 부비지급직 계 63,767명)의 약 60.1%(38,326명)를 차지하고 있었던 말단 고용원의 월평균 봉급은 46圓을 약간 웃돌아 당시 서울 도매가격기준으로 따져 쌀 1석(石=180ℓ, 중품 43원 45전)정도에 해당하는 돈이었고, 보리쌀 가격으로는 2.5석(180ℓ, 18원 3전)을 조금 웃도는 수준이었음.

	국비지급(圓)		도비지급(圓)	
	한국인	일본인	한국인	일본인
평균월급	51.38	98.78	57.85	128 81
칙임관	342.12	497.99	-	548.33
주임관	155.94	272.35	163.31	237.41
판임관	71.29	122.46	70.86	117.23
이원(吏員)	-	-	58.29	104.03
촉탁	102.93	116.22	66.60	102.02
고원(雇員)	46.90	73.50	46.10	63.6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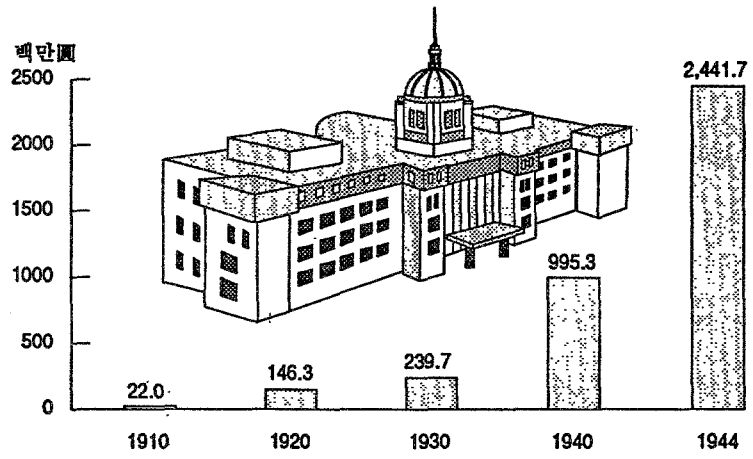
1944년 당시 화폐 유통액 26억 7천만圓, 1921년 대비 24배 이상 늘어

○ 구 한국화폐의 통용이 금지된 1921년 당시(연말기준) 한반도내의 화폐 총 유통액은 110.3백만圓이었고, 이후 1930년까지는 8~9천만圓대를 넘나들어 1억圓 미만선 유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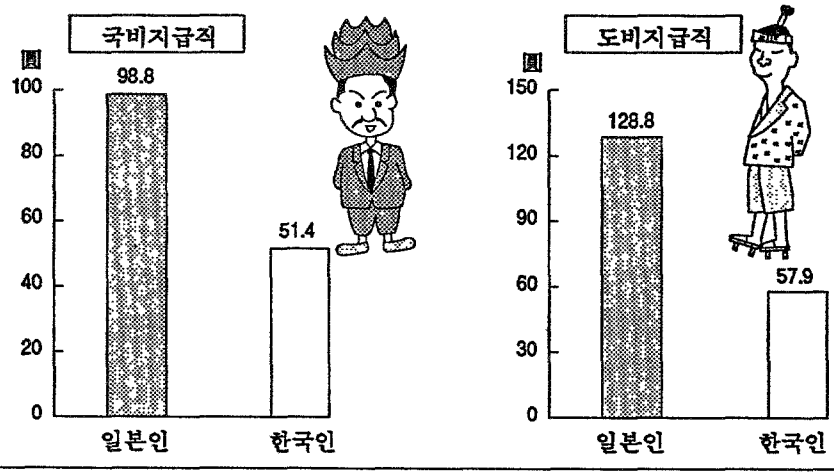
○ 1931년부터 화폐유통액은 1억圓대를 본격적으로 넘어서게 되었고, 1937년부터는 2억圓대 1940년에는 5억圓대, 1942년에는 8억圓대, 1943년에는 13억圓대, 1944년에는 27억圓대에 육박하여 엄청난 증가를 보였음.
- 1921년이후 만을 따져도 무려 24.2배이상 늘어난 셈임.

	화폐유통액(백만 圓)	조선은행권(백만圓),(%)
1910년	29.9	20.2(67.4)
1921년	110.3	101.3(91.9)
1930년	92.5	90.6(98.0)
1937년	203.7	193.2(94.8)
1940년	509.7	486.1(95.4)
1942년	804.0	771.4(96.0)
1943년	1,292.2	1,256.0(97.2)
1944년	2,671.2	2,624.6(98.3)

조선총독부 세입예산 규모



공직자 평균 월급 (1943)



10. 물가 · 임금

노동임금상승은 물가상승에 못미쳐 ····· 1937~1944년

○ 1937~1944년간 서울(경성府)의 소매물가는 연평균 10.9%가량 상승하였던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같은 기간중 노동임금은 연평균 9.3%가량 올라 물가상승수준에 미치지 못하였던 것으로 나타남.

같은 기술인부라도 일본인 인부임(일당)이 1.6배 이상 많아 ····· 1936년

○ 1936년 당시 한국인 일반 노임(일당)과 일본인 노임(일당)간에는 일본인이 약 1.6~1.7배 가량 높았던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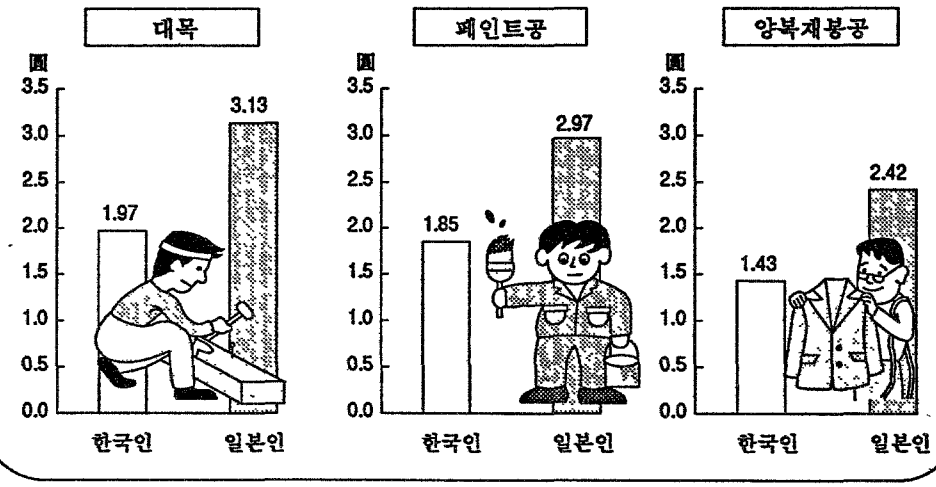
	한국인 日當(圓)	일본인 日當(圓)
대목(大木)	1.97	3.13(한국인의 1.6배)
기와공	1.92	3.16(〃 1.6배)
페인트공	1.85	2.97(〃 1.6배)
통제조공	1.70	2.80(〃 1.6배)
양복재봉공	1.43	2.42(〃 1.7배)
구두제조공	1.41	2.26(〃 1.6배)
활판식자공	1.21	2.04(〃 1.7배)

짐꾼 하루 일당으로는 쌀 2되 밖에 못 사 ····· 1936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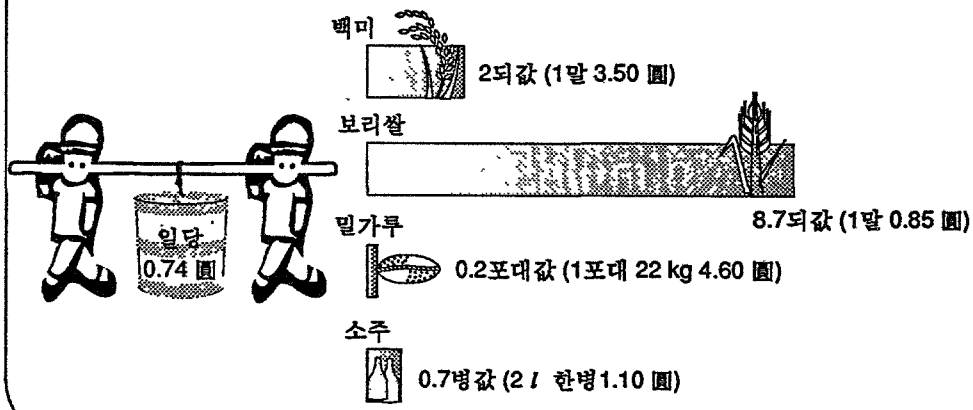
○ 1936년 당시 집짓는 대목(大木)의 하루 일당(日當:1.97圓)으로는 당시 서울 소매물가로 따져 쌀 5되 6홉값(보리쌀로는 2.3말, 밀가루는 0.4포대, 쇠고기 2.8근 값) 정도였고, 가장 일당이 적은 짐꾼(擔軍) 일당(0.74圓)은 쌀 2되값(보리쌀로는 8.7되, 밀가루는 0.2포대미만, 쇠고기 1근, 소주 0.7병) 정도였음.

	품질규격	소매가격(서울:圓)
백미	2등품, 1말(18ℓ)	3.50
보리	2등품, 1말(18ℓ)	0.85
참깨	백색, 1말(18ℓ)	3.20
간장	2ℓ	0.65
밀가루	1등품, 22kg(1포대)	4.60
쇠고기	중등육, 600g	0.70
돼지고기	중등육, 600g	0.60
소주	25도, 2ℓ	1.10
맥주	기린, 1병	0.35

기술인부 일당 (1936)



짐꾼 일당과 소매물가 (1936)



11. 교육

한국 학생수는 한국인 인구의 3%, 일본 학생수는 일본인 인구의 18% ····· 1930년

○ 1930년 당시 보통학교부터 대학에 이르기 까지 총학교수는 2,978개교, 총학생수는 668,466명이라 하였음

○ 그 중 한국인 학생수는 578,386명(86.5%), 일본인 학생수는 90,080명(13.5%)이었음.
- 당시 한국인 학생수는 한국인 인구(19,686천명)의 2.9%에 불과하였던데 반해, 일본인 학생수는 일본인 인구(502천명)의 17.9%나 되어 민족별 총 인구 중에서 교육받는 학생 비율로는 일본인의 경우가 6배 이상 높았음.

국민학교 취학률 불과 32% ····· 1940년

○ 1940년 당시 국민학교 학생수는 1,483.7천명으로 취학률(적령아동수에 대한 재학생수의 비율:적령아동수는 1940년 기준 국세조사결과의 7~14세 아동 4,677.8천명을 이용)은 불과 31.7%였음(일본 아동포함:일본아동 취학률은 1942년 당시 99.9%).

○ 국민학교 1학급당 학생수는 71명꼴로 나타나고 있음(1943년 자료).

한국인 중등학교생 인구의 0.3%, 일본인 중등학교생은 일본인 총수의 5.2% ····· 1943년

○ 1943년 당시 공·사립중학교, 공·사립고등여학교, 관·공·사립실업학교 및 실업보습학교(實業補習學校)를 합한 중등교육기관은 모두 401개교, 학생수는 129.2천명으로 한국학생과 일본학생의 비율은 69% 대 31%였음.

○ 민족별 총인구당 학생비율은 한국 0.3% 남짓, 일본 5.2%였음.

○ 중등학교 교직원 5,142명중 일본인은 71.6%(3,682명), 한국인은 28.4%(1,460명)였음.
- 사립학교 및 실업학교의 학생 대부분이 한국인이었으므로 이를 제외한 공립학교의 경우 일본인 교사비율은 87.3%에 이르렀음.

○ 인문계라 할 수 있는 공·사립중학교, 공·사립고등여학교에 다니는 한국인 학생수는 전체의 48.9%였고, 농업·상업·수산 등 실업학교 및 실업보습학교에 다니는 학생수는 전체의 51.1%였음.

사범학교생 한국인 3,452명당 1명꼴 ····· 1943년

○ 1943년 당시 초등교원 양성기관인 사범학교(15개교) 학생수는 10,955명으로 그중 한국인 학생수는 68.3%인 7,482명이었음.
- 한국인 학생수는 한국인 3,452명당 1명 꼴, 일본인 학생수는 일본인 227명당 1명 꼴이었음.

○ 교직원수는 449명으로 한국인은 16.7%인 75명이었음.

고등교육을 받는 한국인 학생수는 5,682명당 1명꼴 ····· 1943년

○ 1943년 당시 전문학교이상의 고등교육을 받는 학생수는 통털어 8,527명, 그중 한국인 학생수는 53.8%인 4,589명이었음.
- 한국인 학생수는 한국인 5,628명당 1명, 일본인 학생수는 일본인 193명당 1명꼴.

한국아동의 유치원 취원율 0.7%, 일본아동 취원율은 6.5% ····· 1940년

○ 1940년 당시 3~6세 아동수는 한국아동 2,888.9천명, 일본아동 67.0천명이었고 이중 유치원에 다니는 아동수는 한국아동 20.1천명, 일본아동 4.3천명이었음.
- 한국아동의 취원율은 해당아동 천명당 7명, 일본아동의 취원율은 천명당 65명이었던 셈임.

서당은 1935년 6,209개소에서 1943년에는 2,679개소로 줄어

○ 1935년 당시 서당(書堂)수는 6,209개소, 학생수는 161.8천명이었고, 선생수는 6.9천명이었음.

○ 1943년 당시 서당수는 2,679개소, 학생수는 142.4천명, 선생수는 3.4천명으로 신식교육에 그 터전을 잃어갔음.

중도퇴학생 졸업자대비 55%에 달해 ····· 1934~1942년

○ 1934~1942년간 자료에 의하면 정규학교(유치원, 서당, 간이학교 제외)재학생 중 경제적 이유(수업료를 내지못함)나 사회적, 가정사정 등으로 인해 중도퇴학한 학생은 총졸업자 대비 54.6%, 총입학자 대비 23.6%에 이르렀음.

○ 특히 국민학교의 경우 중도퇴학생 비율은 졸업자 대비 57.1%에 달하였음.

	입학자(명)	졸업자(명)	퇴학자(명)	퇴학/입학(%)	퇴학/졸업(%)
계(1934~1942년)	3,477,996	1,505,936	821,671	23.6	54.6
국민학교	3,287,336	1,386,895	792,484	24.1	57.1
중학교 및 고등여학교	71,046	41,147	13,012	18.3	31.6
실업학교 및 실업보습학교	93,424	60,168	13,090	14.0	21.8
전문학교	10,201	6,341	2,189	21.5	34.5
대학예과	557	490	33	5.9	6.7
대학	767	531	102	13.3	19.2
사범학교	14,665	10,364	761	5.2	7.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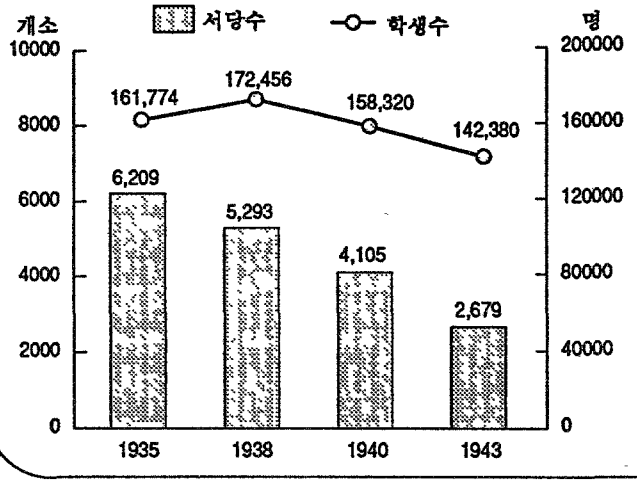
주 : ·국민학교는 일본인 학생이 포함되었으며, 그외 학교는 한국인 학생만에 대한 것임.

한국인 전체 교직원 평균월급은 일본인의 절반 못미쳐 ····· 1943년

○ 1943년 당시 학교예산에서 지급되는(學校費支辦) 일본인 교직원의 평균 월급은 163.3圓이었고, 한국인은 그 절반에 못미치는 51.3圓으로 차별이 심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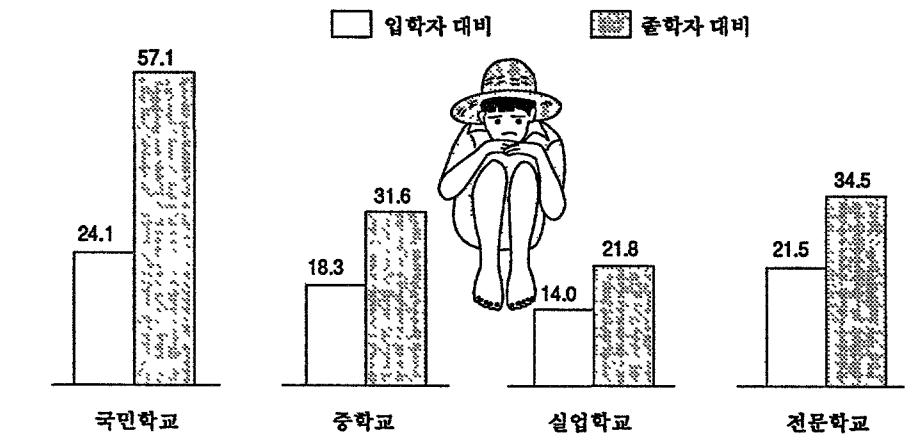
	일본인 월급(圓)	한국인 월급(圓)
평균	106.3	51.3
주임관	161.5	92.9
판임관	104.3	57.2
이원(吏員)	92.8	54.4
촉탁	55.5	37.1
고원(雇員)	51.5	32.6

서당





중도퇴학비율 (1934~1942, %)



12. 의료 · 보건

1개 병원에 매달린 인구가 무려 15~16만명 ····· 1935, 1943년

○ 1935년 당시 병원수는 관 · 공립, 사립병원을 모두 합하여 136개소가 있었고, 병원 1개소당 인구수는 무려 16만 1천명 수준이었음.

○ 1943년 당시 병원수는 181개소, 병원 1개소당 인구수는 14만 7천여명 수준.
- 1943년 당시 사립병원 116개소중 일본인 경영 병원은 76개소(65.5%), 한국인 병원은 40개소(34.5%)였으며, 관공립병원은 65개소였음.

자격의(資格醫) 한사람당 인구 7천명이 의존 ····· 1943년

○ 자격있는 양의(洋醫)를 가리키는 의사수는 1943년 당시 3,813명에 불과하여 의사 1인당 약 7천명의 인구가 매달린 셈.

○ 의사가 턱없이 부족하여 의사없는 지역에 상당기간 개업을 할 수 있도록 한 무자격의사인 한지의업자(限地醫業者)가 604명, 의사로서의 자격을 갖지 못한 구식 한방의(舊式 漢方醫) 등 의술을 습득한 한국인을 대상으로 면허를 준 의생(醫生)이 3,337명 있었음.
- 이들 한지의업자, 의생을 모두 포함한다하더라도 의사 1인당 인구수는 3,400여명에 달하였음.

	의사(명)	의사1인당인구(명)	한지의업자(명)	의생(명)	계(명)	총의사1인당인구(명)
1935년	2,506	8,736	260	4,044	6,810	3,215
1943년	3,813	6,992	604	3,337	7,754	3,439

도립병원 이용 한국인은 오히려 줄어 들어

○ 경제적 빈곤으로 인해 급한 환자가 생겨도 한국인의 병원이용은 쉽지 않았던 편. 사립병원보다는 진료비가 덜든다는 도립(道立)병원마저 한국인 이용자(입원, 외래포함)는 줄어든 대신, 일본인 이용자는 크게 늘어났음.

	한국인이용자(명)	일본인이용자(명)
1911년	186,956	53,762
1920년	171,285	104,701
1930년	134,575	163,794

소화기계병 사망자 20%, 신경계병 사망자 19% ····· 1933년

○ 1933년 자료에 의하면 한국인 사망자의 주요 사망원인은 소화기계병(消化器系病:위·십이지장궤양, 식도질환, 만성간질환 및 간경변증 등) 19.7%, 신경계병(神經系病:수막염, 뇌성마비, 간질 등) 19.3%, 호흡기계병(呼吸器系病:폐렴, 기관지염 등) 14.5%, 악성감기 8.7%, 전염성병 7.7% 등 순이었음.

	총사망자(명)	소화기병	신경계병	호흡기병	감기	전염성병
1920년	394,986	47,539	66,543	42,035	23,321	119,692
(구성비)	(100.0)	(12.0)	(16.8)	(10.6)	(5.9)	(30.3)
1933년	392,668	77,545	75,853	56,759	34,072	30,068
(구성비)	(100.0)	(19.7)	(19.3)	(14.5)	(8.7)	(7.7)

주 : ·그외질병은 표기하지 않았음.

말라리아, 폐디스토마 등 지방풍토병 극성 ····· 1920년대

○ 1920년대 초반 자료에 따르면 당시 한반도에는 폐디스토마, 십이지장충 등의 기생충병을 비롯 말라리아, 나병(癩病)과 같은 지방 풍토병(風土病)이 만연하였음.

○ 1923년 자료에 의하면 폐디스토마는 전남에서 가장 심하였고, 황해, 강원, 함남, 평남, 충남에 많았다하며, 십이지장충병은 경북을 최고로 충남, 강원 등에 많았으며, 나환자는 경북을 최고로 경남, 전남 등지에 많았다 함. 말라리아는 강원, 경북, 함남, 황해, 경기, 충남 등 각지에 창궐하였고, 특히 1920년대 당시에는 해마다 6만여명 이상이 앓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남.

	1920년		1921년		1922년		1923년	
	발생(명)	사망(명)	발생(명)	사망(명)	발생(명)	사망(명)	발생(명)	사망(명)
폐디스토마	5,908	1,443	4,195	784	7,549	690	26,083	979
나병	1,094	321	1,129	368	11,015	736	942	295
십이지장충	12,327	1,308	10,896	992	1,102	359	11,144	578
말라리아	65,227	3,729	67,621	2,929	64,290	1,860	62,592	1,420

장티푸스 등 급성전염병 한해 평균 2만여명 발생 ····· 1934~1943년

○ 1934~1943년 사이 10년간 당시 적리(赤痢:이질의 일종), 장티푸스, 두창(痘瘡:마마, 천연두) 등 10종의 급성전염병 총환자발생수는 20만 4,800명으로 한해 평균 2만여명 이상이 발생.

- 특히 장티푸스가 극성을 떨쳐 10년간 8만 7천여명이 발생하여 1만 3천여명이 사망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백명당 14.9명 사망), 적리(赤痢)는 4만 6백여명이 발생하여 7천 1백여명이 사망(치사율 17.7%).

	계(10종전염병)	장티푸스	적리	디프테리아	발진티푸스	두창
총환자발생 (1934~43년)	204,737	87,050	40,644	23,407	19,592	14,860
사 망	34,005	13,004	7,181	5,224	2,482	3,540
치 사 율	16.6	14.9	17.7	22.3	12.7	23.8

주 : · 성홍열, 파라티푸스, 유행성뇌척수막염, 재귀열, 콜레라는 「계」 에만 포함됨.

10세미만 영유아 전염병 치사율 백명당 23명꼴 ····· 1934~1943년

○ 10세미만 영유아의 전염병 발생수는 1934~1943년간의 총발생수(204.8천명)의 29.8%(61.0천명)에 이르렀고, 환자 백명당 22.8명이 사망한 것으로 나타남.

○ 절대적 빈곤으로 인해 병원이용이 쉽지않아 한국인 백성들의 전염병 치사율은 일본인들 보다 훨씬 높았음.

	10종전염병계	적리	두창	디프테리아
한국인 치사율(%)				
1938년	20.3	20.4	25.0	28.7
1940년	17.7	24.6	19.5	27.7
1943년	14.0	19.7	30.2	24.3
일본인 치사율(%)				
1938년	11.2	12.2	33.3	6.8
1940년	12.3	14.2	13.3	7.7
1943년	10.1	9.8	19.6	6.2

17세 남학생 신장 155㎝, 체중 44㎏에 불과 ····· 1924년

○ 1924년 당시 한국학생들의 6.0%가 트라코마를 비롯한 눈병에 시달리고 있었고, 충치는 12.5%가 앓고 있었다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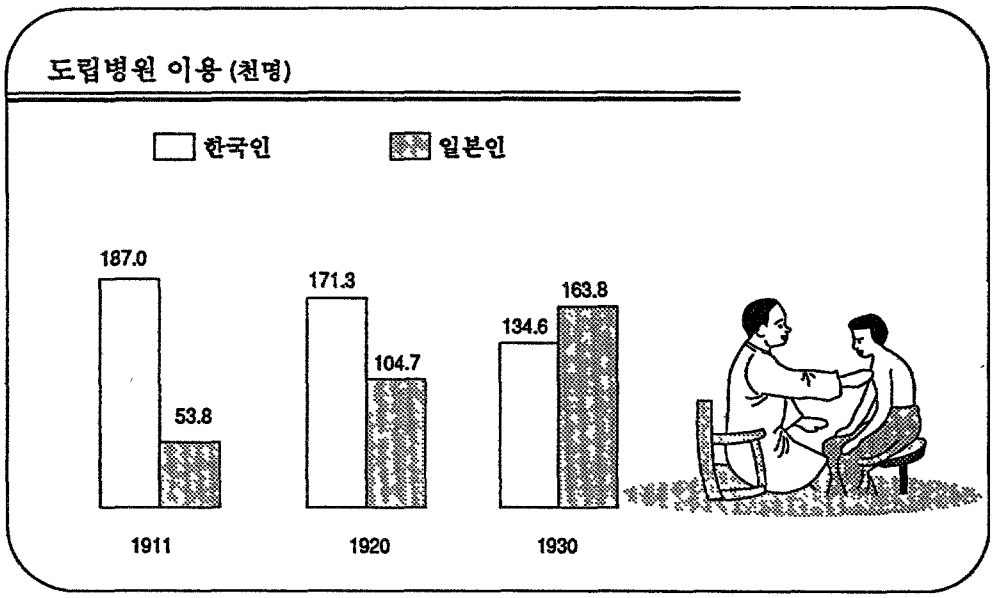
○ 1924년 당시 관공립학생의 신체검사자료에 따르면 현재의 고등학교 3학년생 나이인 17세 남자의 경우 키 154.5㎝, 몸무게 43.9㎏, 가슴둘레 75.8㎝로 나타나고 있고, 여자의 경우는 키 150.9㎝, 몸무게 44.7㎏, 가슴둘레 71.5㎝로 나타나고 있음.

- 현재와 비교하면 남자의 경우 키 16㎝, 몸무게 19㎏, 여자의 경우 키 8㎝, 몸무게 9㎏이상의 차이가 나는 셈임.

학생들 64%가 기생충 감염, 회충은 52% 감염 ····· 1925년

○ 소학교, 보통학교, 중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1925년 학생 기생충 검사 자료에 따르면 각종 기생충 감염률이 64.4%로 나타나고 있음.
- 회충은 52.2%, 편충은 25.8%, 십이지장충은 3.0% 등으로 나타나고 있음.

○ 한편 1925년 당시 농촌거주 한국인의 66.8%도 각종 기생충병에 감염되어 있었고, 회충감염률 54.9%, 편충 27.0%, 십이지장충 4.6% 등으로 나타나고 있음.



13. 기타 사회 · 문화

일본 신앙인 신도(神道)와 일본 불교가 활개쳐

○ 1943년 당시 불교사찰 및 포교소수는 1,466개소(그중 조선 불교 포교소수는 90.5%(1,326개소), 진종대곡파, 일연종 등을 비롯한 일본 불교는 9.5%(140개소))였고, 신도수는 조선 불교 250천명(42.5%), 일본 불교 338천명(57.5%)으로 일본 불교세가 신도수에 있어서 조선 불교를 압도하였던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기독교교회 및 포교소수는 4,797개소(천주교 515개소 포함)가 있었으나, 일본기독교단 소속교회(일본기독교회, 일본조합기독교회, 일본성결교회, 일본성교회, 일본에소시스트교회)도 54개소있었음. 신도수는 327천명으로 나타나고 있음.

○ 일본의 민간신앙으로 국교(國敎)인 신도(神道)가 들어와 그 사원인 신사(神祠)가 국내 각지에 세워졌음. 1943년 당시 포교당수는 326개소로 나타나고 있음

○ 그밖에 천도교, 보천교, 대종교 등 대소종교단체가 많이 있었으나, 법령상 종교로 인정받지 못한 「유사종교」로 지목하여 경무국 관할하에 두어 탄압하였던 관계로 교세는 크게 떨치지 못하였던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불교		기독교		신도(神道)	
	포교소	신도수(명)	포교소	신도수(명)	포교소	신도수(명)
1934년	614	414,750	4,409	441,419	275	101,295
1940년	1,038	537,864	5,522	507,922	315	96,725
1943년	1,466	588,210	4,797	326,711	326	78,580

1917년이후 노동쟁의 급증

○ 노동쟁의 발생건수는 1912~1916년 당시에는 한해 평균 5~6건에 불과하였고 연평균 참가 인원도 663명 정도 였음.

○ 1928~1936년 사이에는 한해 평균 158건 발생에 연평균 참가 인원도 1만 2천여명에 달하였던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쟁의 발생의 67.1%(1917~1940년 계)가 열악한 임금을 인상하라는 요구였고, 작업장에서의 대우개선요구가 10.8%였음.

- 1931년 6월 총독부 경무국이 조사한 「공장 및 광산노동상황조사」 자료에 따르면 총 1,199개 조사대상 공장 중 8시간 이내 작업 0.9%, 8~9시간 4.7% 9~10시간 8.5%, 10~12시간 44.0%이내, 12시간 이상도 41.1%에 달하였다고 함.

소작농민들의 반발도 심해

○ 소작권 이동 반대, 소작료인하, 지세(地稅)·공과금 등을 지주가 부담해 줄 것등을 요구하는 소작쟁의(小作爭議)도 많았음. 1922~1931년 사이에는 한해 평균 445건, 1932~1939년 사이에는 한해 평균 18,287건의 크고 작은 쟁의가 전국 각처에서 일어났음.

	1922~1931년	1932~1939년
쟁의건수(건)	4,447	146,294
(연평균)	(444.7)	(18,286.8)
참가인원(명)	62,724	…

경찰관서 3,212개소로 국토강점 당시에 비해 6.7배 늘어 …… 1941년

○ 1910년 일제강점 당시 경찰관서는 경찰부(警察部) 14개소, 경찰서(警察署) 107개소, 주재소(駐在所) 269개소, 파출소(派出所) 91개소 합계 481개소가 있었음. 경찰관헌수는 5,694명이었음(일본인 39.8%).

○ 1941년 당시에는 경찰부 13개소, 경찰서 256개소, 주재소 2,392개소, 파출소 318개소, 출장소 233개소로 총 경찰관서수는 3,212개소로 1910년 대비 6.7배 늘어났으며, 경찰관헌수도 23,269명(일본인 비율 61.9%)으로 4.1배 늘어났음.

인구 1인당 연간 우편물 이용 17.3통꼴 …… 1943년

○ 1910년 당시 934개에 불과하던 우편함수는 1943년 6,495개로 약 7배 가량 늘어났음(1943년 당시 우편함 1개당 인구수는 4,105명 꼴).

○ 총 우편물 배달통수는 1910년 53,181천통(인구 1인당 4.0통)이었으나, 1943년에는 477,976천통(인구 1인당 17.3통)으로 9.0배 늘어났음.

○ 전보 발신통수는 1910년 2,060천통에서 1943년 15,525천통으로 약 7.5배 늘어났음.

	우편함수(개)	우편물배달통수(천통)	전보발신통수(천통)
1910년	934	53,181	2,060
1935년	6,726	358,872	7,992
1943년	6,495	477,976	15,525

한국인 전화가입자 1,357명당 1명 ····· 1941년

○ 1910년 당시 전화가입자수는 6,448명.
- 한국인 254명(3.9%), 일본인 6,114명(94.8%), 기타 외국인 80명(1.3%).

○ 1941년말 당시 전화가입자수는 61,682명.
- 한국인 17,620명(28.6%). 일본인 43,502명(70.5%), 기타 외국인 560명(0.9%)

○ 공중전화대수는 1910년말 30대에서 1943년말에는 141대가 되었음.

	전화취급국수	전화가입자수			
		계	한국인	일본인	기타 외국인
1910년	217	6,448	254	6,114	80
1935년	766	39,763	8,746	30,431	586
1941년	894	61,682	17,620	43,502	560
1943년	923	66,510	···	···	···

한국인 라디오 청취자 인구 천명당 5명꼴 ····· 1943년

○ 라디오 방송국수는 1943년 당시 11개소, 청취자수는 295,032명, 그중 한국인은 128,509명(43.5%), 일본인은 164,810명(55.9%), 기타 외국인은 1,713명(0.6%)이었음.

○ 민족별 인구 천명당으로 따져 한국인은 5.0명, 일본인은 217.3명, 기타 외국인은 22.5명 꼴이었음.

총 호수대비 수도급수호수는 7.2%('42년), 전기수용가수는 17.7%('43년)

○ 1942년 당시 수도수는 72개소, 급수호수(給水戶數)는 346.2천호로 당시 전체 호수의 7.2%에 해당하였으며, 급수량은 연간 83,116백만ℓ, 1일 평균 227.7백만ℓ로 급수호수 1호당 하루 평균 658ℓ정도 였음.

○ 전력발전량은 1943년 당시 5,691.8백만 kWh였고, 전등수용가수는 861.8천호로 총호수의 17.7%에 해당하였으며, 1호당 전등수는 3.8등이었다.

	수도		전기	
	급수호수(호)	1호당 1일급수량(ℓ)	수용가수(호)	1호당전등수(등)
1935년	183,002	499	357,308	3.6
1940년	283,880	612	622,886	3.8
1943년[1]	346,179	658	861,789	3.8

주 : 1) 수도는 1942년 자료.

활동사진 1사람당 연간 1회, 연극은 6명당 1명 관람한 셈 …… 1943년

○ 1943년 당시 연극관람인원은 4,218.9천명으로 인구 6.3명당 1명이 관람한 셈이었고, 영화(활동사진)관람인원은 총 26,592.3천명으로 인구 1인당 1회 관람한 셈이었음.

○ 당시 1회 연극관람료는 1圓9錢꼴, 1회 영화관람료는 평균 47錢꼴이었음.

	연극		영화	
	관람인원(천명)	총인구/관람인원	관람인원(천명)	총인구/관람인원
1935년	2,492.4	8.8	8,783.6	2.5
1940년	3,196.8	7.4	21,690.5	1.1
1943년	4,218.9	6.3	26,592.3	1.0

가난, 질병 등에 못이겨 자살하는 사람도 늘어

○ 가난과 질병, 이민족과의 갈등 등으로 자살자(自殺者)수도 크게 늘어났음. 1910년 당시 474명에 불과하였던 자살자수는 1937년 2,816명, 1943년 2,027명에 이르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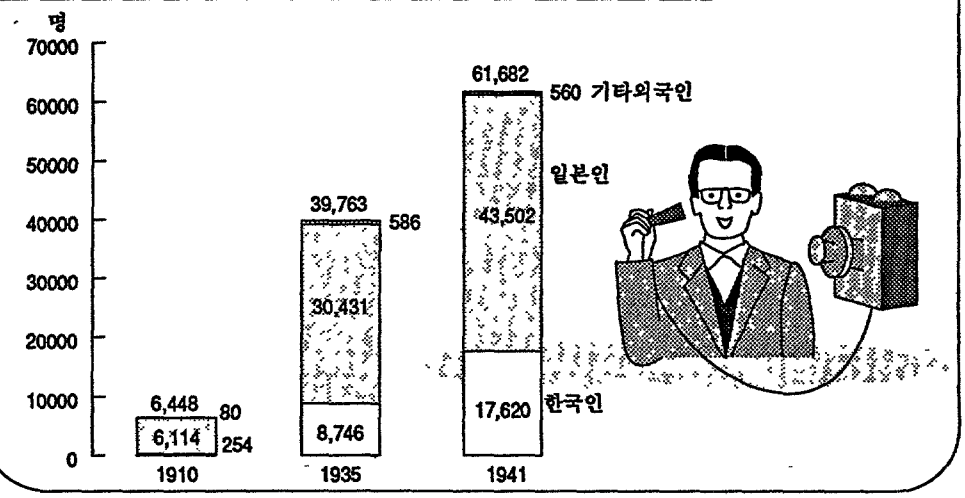
○ 1943년 자료에 의하면 한국인 자살자 1,957명(총2,027명의 96.5%)의 자살원인을 보면, 병고(病苦)(22.0%), 생활곤란(16.2%)으로 인한것이 가장 많았던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이리·표범 등에 의한 인명, 가축피해도 상당수 있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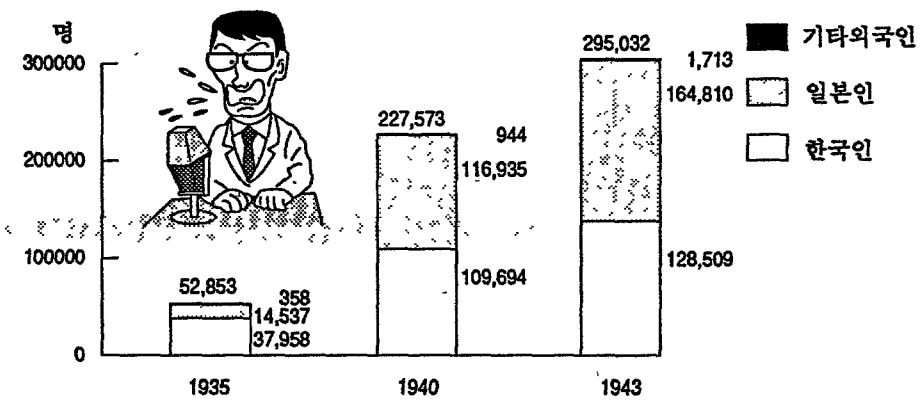
○ 일제 당시만하더라도 이리, 곰, 호랑이, 표범 등에 의한 인명사상자와 가축피해도 상당수있었던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인명사상자(명)	가축피해(마리)
1934년	41	1,869
1936년	63	2,203
1941년	61	2,445
1942년	51	2,285
1943년	37	1,79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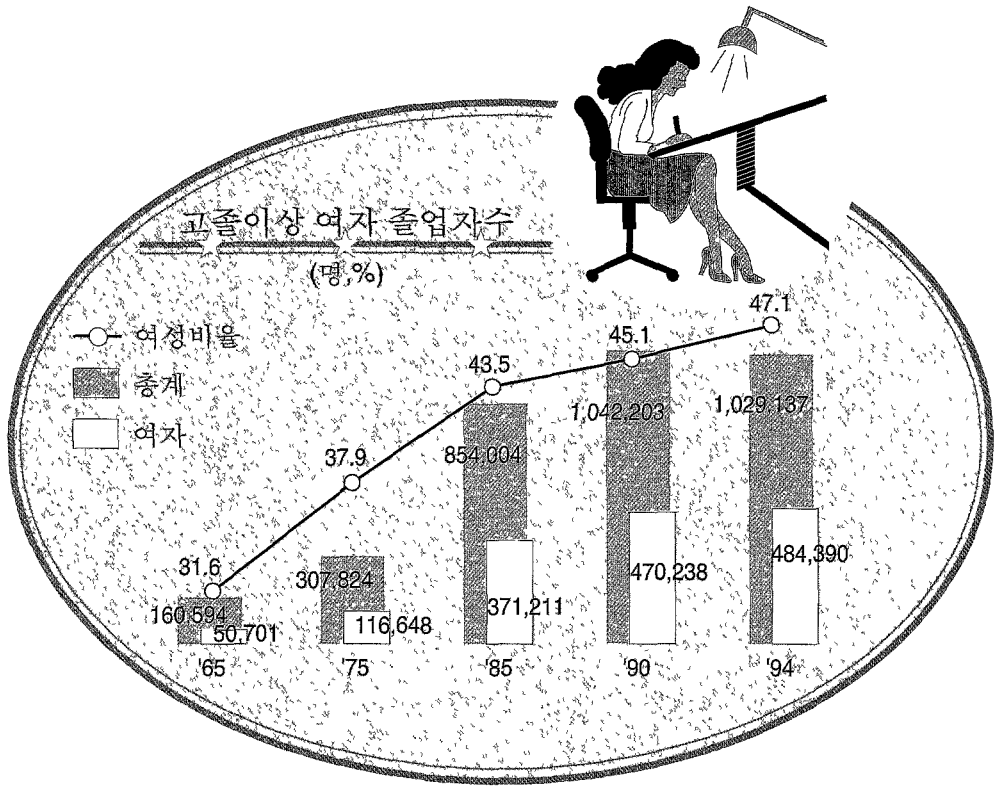
전화가입자



라디오 청취자



여성의 사회활동실태 국제비교
— 통계에 나타난 세계속의 한국여성 —



『우리나라의 고등학교 이상 여성 졸업자수 추이를 보면
'65년에는 고등학교 여성 졸업자수가 4만 3천명에 불과하였으나
'94년에는 33만명에 달해 8배나 증가하였다.
우리나라 여성의 학력수준 향상은 30대 이후 사회참여를 보다 촉진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여 여성의 사회활동 참여율을 높이는 주요인인 것으로 알려졌다.』

- 본문중에서 -

여성의 사회활동실태 국제비교

-통계에 나타난 세계속의 한국여성-

1995. 9

자료관리국 국제통계과

1. 가정 및 가족 관계

우리나라 여성의 초혼연령은 24.9세로 선진국과 비슷한 수준

○ 우리나라 여자의 초혼연령은 72년에 22.6세에서 85년에 24.1세, 91년에 24.9세로 지난 19년간 2.3세가 증가하였으며 점차 높아지고 있는 추세이다

— 같은 기간 남자의 초혼연령은 26.7세에서 28.1세로 1.4세가 증가하는데 그쳐 남녀간 혼인연령의 차는 72년 4.1세에서 91년 3.2세로 다소 줄어들었다

○ 이를 타국과 비교해보면 우리나라 여성의 초혼연령인 24.9세(91년 기준)는 선진국중에서 미국(23.3세), 독일(23.6세), 영국(23.1세)보다는 늦으나 일본(25.1세), 싱가포르(26.2세), 스위스(25.0세) 보다는 빠른 수준이다. 다만 인도(18.7세), 터키(20.6세), 필리핀(22.4세)등 개도국의 여성은 우리나라 여성보다 빨리 결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남녀간 혼인연령의 차는 선진국과 개도국간에 뚜렷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자국 특유의 사회관습과 생활방식의 영향이 큰 것으로 분석된다

— 남녀간 혼인연령차는 대체로 2~4세 정도로서 연령차가 낮은 국가는 미국(1.9세), 싱가포르(2.2세), 영국(2.3세) 등이며

— 연령차가 3세 이상인 국가는 한국(3.2세), 일본(3.5세), 독일(4.3세), 인도(4.7세) 등으로 나타났다.

<표> 초혼연령(80년대)

(단위 : 세)

	한 국[1]	싱가포르	인 도	일 본	터 키
남	28.1	28.4	23.4	28.6	23.6
여	24.9	26.2	18.7	25.1	20.6
차이(남-여)	3.2	2.2	4.7	3.5	3.0
	필리핀	미 국	독 일[2]	영 국	스위스
남	25.3	25.2	27.9	25.4	27.9
여	22.4	23.3	23.6	23.1	25.0
차이(남-여)	2.9	1.9	4.3	2.3	2.9

주 : 1) 1991년 2) 서독 자료

자료 : 통계청「'94 인구동태통계연보」 UN「70~90 The World's Women」

우리나라의 출산연령층은 선진국에 비해 젊은 편

○ 여자 1명이 가임기간동안 낳은 평균자녀수를 의미하는 합계출산율은 70년대에 4.5명에서 92년 1.8명으로 낮아져 싱가포르(1.7명), 독일(1.3명)보다는 높으나 영국(1.8명) 및 미국(2.1명)과는 비슷한 수준을 나타냈다

○ 출산율을 연령별로 살펴보면 우리나라는 전체출산의 약 54.3%가 25~29세 여성에 의해 이루어진 반면 일본(43.9%), 미국(29%), 독일(38%)등 선진국의 경우는 40%내외를 보이고 있다

— 반면 30~34세 여성층의 전체출산에 대한 구성비를 보면 우리나라는 18.9%를 나타냈으나

— 일본(32%), 독일(28%), 영국(24%)등은 우리나라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나 선진국 여성들은 여성의 사회적 지위가 안정될수록 출산연령층도 높아짐을 보여주고 있다

<표> 합계 출산율 및 연령별 출산율

	합계출산율	연령별 출산율(해당연령 여자인구 천명당)							
	(92,명)	연도	15-19	20-24	25-29	30-34	35-39	40-44	45-49
한 국[1]	4.5	1970	17	190	315	211	113	43	6
			(1.9)	(21.2)	(35.2)	(23.6)	(12.6)	(4.8)	(0.7)
	1.8	1993	4.2	76.6	193.8	67.6	13.1	1.8	0.1
			(1.2)	(21.4)	(54.3)	(18.9)	(3.7)	(0.5)	(0.0)
일 본	1.5	1993	3.9	44.0	130.8	93.9	22.8	2.3	0.1
			(1.3)	(14.8)	(43.9)	(31.5)	(7.7)	(0.8)	(0.0)
싱가포르	1.7	1992	8.2	55.3	135.8	114.3	44.1	7.2	0.2
			(2.2)	(15.1)	(37.2)	(31.3)	(12.1)	(2.0)	(0.1)
미 국	2.1	1989	59.4	115.4	116.6	76.2	29.7	5.2	0.2
			(14.8)	(28.6)	(29.0)	(18.9)	(7.4)	(1.3)	(0.0)
독 일[2]	1.3	1989	11.1	54.2	107.3	78.1	26.7	4.9	0.2
			(3.9)	(19.2)	(38.0)	(27.6)	(9.5)	(1.7)	(0.1)
영 국	1.8	1991	32.9	89.1	120.4	86.8	32.0	5.0	0.3
			(9.0)	(24.3)	(32.9)	(23.7)	(8.7)	(1.3)	(0.1)
오스트레일리 아	1.9	1990	22.0	79.6	139.0	101.6	34.7	5.5	0.2
			(5.8)	(20.8)	(36.3)	(26.5)	(9.1)	(1.4)	(0.1)

주 : 1) 1993년 자료는 잠정치 2) 서독자료

자료 통계청「'94 인구동태통계연보」, UN「'92 인구통계연감」

혼인외 출산율 — 개방적 성문화를 가진 북유럽 국가가 특히 높아

○ 남녀간 혼인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아이를 출산하는 비율(85~92년 평균)을 보면 스웨덴의 경우 전체 출산의 50%를 넘고 있으며 덴마크(47%), 노르웨이(34%), 프랑스(32%), 영국(31%) 등도 모두 30%를 넘는 높은 혼인외 출산율을 보였다

○ 주요 선진국중에서는 유교의 영향을 받은 일본이 불과 1%의 혼인외 출산율을 보여 가장 낮은 수준을 보였다

<표> 혼인외 출산율(85~92년 평균)

(단위 : %)

일 본	미 국	노르웨이	덴 마 크	스 웨 덴
1	27	34	47	52
독 일	**영 국**	**프 랑 스**	**스 위 스**	**이탈리아**
15	31	32	6	7

자료 : UNDP 「'94 Country Human Development Indicators」

우리나라 미성년 출산율 선진국보다 낮은 수준

○ 우리나라 15~19세 미성년 여성 천명당 출산율을 보면 70년에 17명에서 93년 4명으로 떨어졌다

— 이는 정부 및 민간단체의 강력한 출산력 감소 노력과 여성의 학력과 혼인연령이 높아짐에 따라 출산율이 감소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 UNDP자료에 의하면 1990년의 경우 일본(3.5명), 네덜란드(8.3명), 덴마크(9.1명), 스위스(6.6명)등의 선진국은 천명당 10명이하로 나타났으며,

— 인도(88.3명), 이집트(76.0명). 칠레(66.0명), 아르헨티나(74.0명)등 개도국 그룹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한편 미국은 60명으로 높게 나타나 다른 선진국과는 대조를 이루고 있다

<표> 미성년자(15~19세) 출산율(1990년)

(단위 : 여성 1000명당)

한 국[1]	일 본	인 도	네덜란드	덴마크
4	3.5	88.3	8.3	9.1
스위스	이집트	칠 레	아르헨티나	미 국
6.6	76.0	66.0	74.0	60.0

주 : 1) 1993년

자료 : 통계청 「'95 한국의 발자취」, UNDP 「'95 인간개발보고서」

우리나라의 출생성비 — 선진국보다 훨씬 높아

○ 여아 100명당 남아의 수를 나타내는 출생성비는 우리나라의 경우 70년 109.5명에서 93년 115.6명으로 계속 높아져 자연성비 수준(105.0명)을 보이는 미국(105.0명), 일본(105.7명), 프랑스(105.4명)등과 대조를 보여 남아선호사상이 매우 강한 것을 알 수 있다.

○ 출산율이 상당한 수준까지 낮아져 있는 현 상황에서 출생성비가 계속 왜곡된 모습을 보인다면 조만간 기형적인 형태의 인구구조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표> 출생성비

(단위 : 여아 100명당 남아수)

한국(93)	일본(91)	싱가포르(92)	태국(91)	홍콩(90)
115.6	105.7	106.6	105.8	107.7
미국(89)	독일(91)	영국(91)	프랑스(90)	오스트레일리아(91)
105.0	105.5	105.2	105.4	105.3

자료 : 통계청 「'94 인구동태통계연보」, UN 「'92 인구통계연감」

결혼적령인구의 성비 — 후진국은 여자가, 선진국은 남자가 많아

○ 25~29세의 남자와 20~24세의 여자를 대상으로 하여 여자 100명당 남자수를 집계해보면 우리나라는 95년 현재 101.3명으로 적당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 성비의 비대칭이 심한 국가를 남자가 많은 국가와 여자가 많은 국가로 나누어 살펴보면

— 홍콩(130.4명), 싱가포르(123.1명), 카나다(119.4명), 덴마크(118.6명), 오스트리아(116.1명) 등 선진국들은 일반적으로 결혼적령기에 있는 남자가 여자에 비해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 멕시코(82.8명), 베트남(86.5명), 중국(86.9명), 인도네시아(87.1명)등 개도국들은 일반적으로 결혼적령기에 있는 여자가 남자에 비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 이러한 현상은 인구구조의 차이때문에 발생하는 것으로

— 선진국은 연령간 인구규모 차이가 크지 않아 연령계층이 한단계 높은 남자(25~29세)와 여자(20~24세)를 비교해도 자연성비의 영향으로 여전히 남자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는 반면

— 후진국은 연령계층간 인구규모 차이가 큰 피라미드 구조를 나타내고 있어 연령계층이 하나 낮은 여자(20~24세)와 남자(25~29세)를 비교하면 여자의 절대수가 높아 성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나게 된다

<표> 결혼적령인구의 성비[1]

(단위 : 여자100명당 남자수)

95명 미만인 국가			95~105명인 국가			106명 이상		
연도			연도			연도		
90	말레이지아	93.6	95	한 국	101.3	92	싱가포르	123.1
89	베 트 남	86.5	92	타 이	95.0	91	홍 콩	130.4
91	인 도	93.4	90	브 라 질	97.9	91	미 국	110.3
90	인도네시아	87.1	92	노르웨이	103.6	92	카 나 다	119.4
91	일 본	87.7	91	이탈리아	104.7	92	덴 마 크	118.6
90	중 국	86.9	93	프 랑 스	101.2	90	독 일	114.6
85	터 키	87.5	91	뉴질랜드	98.1	91	영 국	108.8
91	필 리 핀	88.7	92	오스트레일	97.9	92	오스트리아	116.1
85	멕 시 코	82.8		리 아		91	스 웨 덴	113.1

주 : 1) 남자는 25~29세, 여자는 20~24세 인구 대상
자료 : UN「'92 인구통계연감」, 통계청「'91 장래추계인구」

우리나라 여성 가장 가정 증가추세 - 선진국보다는 낮아

○ 우리나라 인구주택총조사 자료를 기초로 여성 가장 가정을 여성 가구주에 대한 전체 가구의 비율로 보면 80년에 14.7%에서 90년에 15.7%로 지난 10년동안 1%포인트 높아졌다

— 이는 여성의 사회적지위 향상과 여성의 학력수준 향상, 여성 사회참여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및 기혼여성의 취업여건 개선 등에 기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UNDP자료에 의하면 미국(32.3%), 독일(30.2%)등 선진국의 경우는 25% 이상으로 우리나라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일본은 17%로 선진국중 낮은 그룹에 속한다

○ 필리핀(11.3%), 이집트(12.0%), 인도네시아(13.0%)등 개도국들은 낮은 수준을 보여주었다

<표> 여성 가장 가정(1990년)

(단위 : %)

한 국	미 국	홍 콩	일 본	필리핀
15.7	32.3	25.7	17.0	11.3
인도네시아	독 일	브라질	칠 레	이집트
13.0	30.2	20.1	21.0	12.0

자료 : 통계청 「'90 인구주택총조사보고서」, UNDP 「'95 인간개발보고서」

미성년 여성의 유배우 비율은 생활수준과 교육수준이 낮은 개도국에서 높게 나타나

○ 우리나라 미성년 여성(15~19세)의 유배우 비율을 보면 70년 2.8%에서 20년간 2.3%나 감소하여 90년에는 0.5%의 매우 낮은 수준을 보였다

○ 미성년 여성의 유배우 비율은 생활수준과 교육수준이 그다지 높지 못한 인도(43.5%), 터키(20.8%), 멕시코(20.1%) 등 개도국에서 특히 높게 나타났다

○ 미국(5.2%), 일본(0.9%), 독일(1.7%) 등 선진국들은 대개 2~5%의 낮은 수준을 보여 개도국과 대조적인 모습을 보였다

<표> 미성년 여성(15~19세)의 유배우 비율(80년대)

(단위 : %)

한 국[1]	인 도	인도네시아	일 본	중 국
0.5	43.5	17.3	0.9	4.3
터 키	필 리 핀	홍 콩	멕 시 코	미 국
20.8	14.0	2.0	20.1	5.2
브 라 질	덴 마 크	독 일[2]	영 국	프 랑 스
14.6	0.8	1.7	2.7	1.3

주 : 1) 1990년 2) 서독자료

자료 : 통계청 「'90 인구주택총조사 보고서」, UN 「70~90 The World's Women」

이혼 여성 비율은 역시 미국이 가장 높아

○ 25~44세 사이의 여성을 대상으로 조사한 이혼비율을 보면 미국이 11.4%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이 덴마크(10.4%), 스웨덴(10.2%), 영국(8.8%), 프랑스(7.5%)의 순이었다

○ 반면 인도(0.8%), 중국(0.3%), 멕시코(1.0%), 말레이지아(1.6%) 등 선진국 그룹에 속하지 않은 국가들은 2%이하의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어 서구 선진국들과 대조를 보이고 있다

○ 우리나라의 경우 70년 1.5%에서 90년 1.3%로 0.2%포인트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으나 경제가 선진화되고 성문화가 개방화됨에 따라 앞으로 그 비율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표> 25~44세 여성중 이혼여성 비율(80년대)

(단위 : %)

한 국[1]	말레이지아	인 도	일 본	중 국
1.3	1.6	0.8	3.4	0.3
홍 콩	멕 시 코	미 국	카 나 다	아르헨티나
1.2	1.0	11.4	5.4	2.1
덴 마 크	독 일[2]	스 웨 덴	영 국	프 랑 스
10.4	6.4	10.2	8.8	7.5

주 : 1) 1990년 2) 서독자료

자료 : 통계청 「 '90 인구주택총조사 보고서」, UN「70~90 The World's Women」

가사활동을 가장 많이 도와주는 남자는 미국 남자

○ 가사활동의 남녀 배분율에서 남자가 차지하는 비율을 보면 미국의 경우 남자가 전체 가사활동시간의 36%를 차지하고 있어 아내를 가장 많이 도와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은 카나다(32%), 핀란드(31%), 불가리아(31%)의 순이었다.

○ 식사준비의 경우는 영국남자(26%)가 가장 많이 도와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 미국(22%), 네덜란드(20%), 카나다(19%)의 순이었다

○ 아이돌보기의 경우는 개도국의 남자들이 비교적 많이 도와주는 것으로 나타나 헝가리(32%), 과테말라(32%), 폴란드(31%), 노르웨이(30%)의 순이었다

○ 쇼핑은 유독 네팔남자의 배분율(59%)만이 높게 나타났고 그외 개도국과 선진국은 모두 30~40% 수준에 머물러 있어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표> 가사활동의 남녀 배분율

(단위 : %)

	연 도	계		식사준비		아이돌보기		쇼 핑		기 타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미 국	1986	36	64	22	78	28	72	40	60	39	61
카 나 다	1986	32	68	19	81	24	76	42	58	33	67
과테말라	1977	18	82	1	99	32	68	42	58	27	73
핀 란 드	1979	31	69	18	82	23	77	43	57	46	54
네덜란드	1980	21	79	20	80	21	79	37	63	14	86
노르웨이	1981	24	76	19	81	30	70	43	57	18	82
영 국	1984	28	72	26	74	24	76	40	60	24	76
불가리아	1988	31	69	12	88	19	81	30	70	42	58
헝 가 리	1976	27	73	10	90	32	68	35	65	36	64
폴 란 드	1984	22	78	10	90	31	69	30	70	24	76
네 팔	1979	22	78	12	88	19	81	59	41	24	76

자료: UN 「70~90 The World's Women」

2. 정치활동

여성의 투표권을 최초로 인정한 국가는 뉴질랜드

○ 여성의 투표권은 1893년 뉴질랜드에서 처음 행사하게 되었고 8년후 1901년 오스트레일리아에서 두번째로 투표권을 갖게 되었다

—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여성은 1979년에 그리고 이라크와 바누아트의 여성은 1980년에 투표권을 행사하게 되어 최근에야 여성의 투표권이 인정된 국가였다

— 93년 1인당 국민소득 3만5천달러(「'95 The World Bank Atlas」 자료)로 세계 1위였던 스위스는 1971년에야 투표권을 인정해 108개 국가중 101번째로 여성 투표권을 인정한 국가였다

○ 우리나라는 1948년에 여성 투표권을 인정해 108개국중 54번째로 참정권을 갖게된 국가로 나타났다

<표> 여성의 투표권 획득연도[1]

(단위 : 연도)

뉴질랜드(1)	오스트레일리아(2)	핀란드(3)	노르웨이(4)	구 소 련(7)
1893	1901	1906	1913	1917
영 국(8)	독일[2] (13)	미 국(17)	프 랑 스(33)	북 한(43)
1918	1919	1920	1944	1946
한 국(54)	스위스(101)	남아프리카 공화국(106)	이라크(107)	바누아투(107)
1948	1971	1979	1980	1980

주 : 1) ( )안은 순위 2) 서독대상, 동독도 공동 13위로 1919년

자료 : UN「70~90 The World's Women」

여성의 정치참여 — 북유럽국가가 단연 돋보여

○ 의회에 대한 여성참여도를 여성국회의원 비율을 기준으로 보면 1994. 6. 30. 현재 핀란드(39%), 스웨덴(34%), 노르웨이(39%), 덴마크(33%)등 북유럽국가들이 30% 이상의 여성비율을 나타내 정치활동에 적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 공산권국가인 쿠바(23%), 중국(21%), 북한(20%) 등도 공산국가의 특성을 반영하여 높은 여성 참여도를 나타냈다

— 우리나라의 여성 국회의원 비율은 1995년 8월 현재 2%(299명중 6명)에 머물러 20%이상의 참여도를 보이는 유럽국가에 비해 크게 뒤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 여성 장차관비율은 1987년 현재 도미니카(25.6%), 바하마(24.0%), 노르웨이(20.3%)가 20%이상이었고 핀란드도 19.4%에 달했다

— 전체적으로 여성의 장차관 비율은 의회 참여보다 훨씬 낮은 수준이었으며, 구소련(1.0%), 중국(2.5%), 쿠바(2.4%) 등 공산권국가에서도 그 참여율이 저조했다

— 우리나라는 1995년 8월 현재 5%의 장차관비율을 보여 7~9%수준을 보인 유럽국가에 비해서는 다소 참여도가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여성의 정치 활동

	여성 국회의원비율 (1994. 6. 30., %)	여성 장·차관수(1987, 명)	
			비율 (%)
한 국[1]	2	2	5.0
베 트 남	18	0	0.0
북 한	20		
일 본	7	0	0.0
중 국	21	7	2.5
미 국	10	27	11.7
카 나 다	17	14	6.2
쿠 바	23	1	2.4
도 미 니 카	13	11	25.6
바 하 마	11	12	24.0
노 르 웨 이	39	13	20.3
덴 마 크	33	10	8.0
독 일[2]	20	6	8.3
스 웨 덴	34	4	8.7
프 랑 스	6	4	9.8
핀 란 드	39	7	19.4
구 소 련	8[3]	8	1.0

주 : 1) 1995년 8월 현재 2) 서독 자료 3) 러시아

자료 : UNDP 「'95 인간개발보고서」, UN 「'70~90 The World's Women」

3. 경제 활동

지난 30여년간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 급증

○ 우리나라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65년에 37.2%에서 94년 47.9%로 10.7% 포인트 증가하여 여성의 사회참여가 지난 29년동안 크게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 이는 싱가포르(50.6%), 일본(50.3%), 미국(55.7%), 독일(58.9%) 등 주요 선진국보다는 낮으나, 우리나라의 취업구조가 점차 선진화됨에 따라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선진국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는 20대에서 50대까지 꾸준히 지속되는 반면 우리나라는 20대 초반과 40대에만 적극 참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1992년 또는 1993년)을 기준으로 어느 연령층에서 사회참여가 높은가를 살펴보면

— 미국의 경우 20~49세까지가 모두 70%이상의 참여율을 보였고, 독일의 경우도 20~54세까지가 모두 80~90%의 높은 참여율을 보였으며,

— 프랑스, 오스트리아 등 주요 선진국의 경우도 20대에서 50대까지 사회참여가 꾸준히 지속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 반면 우리나라의(1994년) 경우 20~24세 여성이 64.7%, 40~44세 여성이 64.2%, 45~49세 여성이 61.1%로써 나타나 20대 초반과 40대의 연령층에서 사회 참여가 비교적 높은 것(쌍봉구조)으로 나타났고 그외 연령층은 선진국에 비해 참여율이 매우 떨어졌다.

— 우리나라 20대 여성의 참여율이 높은 것은 여성 고학력화에 따른 15~19세의 경제활동 인구구성이 크게 준 반면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 졸업후 취업이 늘고 있는 데 기인한다.

— 40대 여성의 참여율이 높은 것은 결혼, 육아문제로 근로를 중단하였다가 가정생활이 안정됨에 따라 취업자가 느는데 기인한다

<표> 여성의 연령별 경제활동 참가율

(단위 : %)

	한 국 (94)	싱가포르 (93)	일 본 (93)	미 국 (93)	독 일 (92)	오스트리아 (92)	프랑스 (93)
총 계	47.9	50.6	50.3	55.7	58.9	44.8	47.5
15~19	15.6	25.6	17.4	38.4	42.6	44.1	6.7
20~24	64.7	79.4	74.5	70.1	84.7	75.3	51.8
25~29	45.6	77.6	64.3	74.7	95.1	72.9	82.4
30~34	48.6	64.3	52.7	73.5	97.0	69.1	78.1
35~39	59.6	57.7	61.7	74.8	97.3	69.0	80.9
40~44	64.2	54.6	70.3	76.4	96.5	68.9	78.4
45~49	61.1	49.3	71.9	75.3	95.8	63.7	78.2
50~54	58.7	36.8	66.9	69.4	90.2	55.6	65.5
55~59	53.9	23.9	56.4	57.0	27.0	23.8	47.8
60~64	27.9[1]	10.9	40.1	37.4	2.7	5.2	15.1
65이상		4.0	15.9	7.5	0.4	0.8	1.3

주 : 1) 60세 이상

자료 : 통계청 「 '95 경제활동인구 연보」, ILO「'94 노동통계연감」

우리나라 여자 아동 경제활동 참가율 매우 낮아

○ 여자 10세에서 14세가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정도를 나타내는 여자 아동 경제활동 참가율은 우리나라가 70년에 3.6%에서 90년 0.7%로 과거에 여자아동이 다소 경제활동에 참여했던 것은 경제적 어려움을 반영하는 것이다

○ 외국의 여자아동 경제활동 실태를 보면 1990년의 경우 싱가포르(0.5%), 칠레(0.2%), 이탈리아(0.4%) 등은 우리나라보다 낮으나 중국(22.3%), 케냐(27.1%)등 저개발 개도국은 우리나라보다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여자아동(10~14세) 경제활동참가율

(단위 : %)

	1970	1990
한 국[1]	3.6	0.7
싱 가 포 르	2.9	0.5
중 국	38.0	22.3
칠 레	1.6	0.2
이 탈 리 아	3.3	0.4
브 라 질	7.8	2.6
케 냐	36.6	27.1

주 : 1) UNDP자료임

자료 : UNDP「'95 인간개발보고서」

한국의 경제활동 참가인구중 여성비율 계속 증가 추세

○ 우리나라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 인구중 여성비율은 70년 36%에서 94년 40%로 4%포인트 증가함으로써 남성보다 빠른 속도로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UNDP자료에 의하면 중국(43%)만이 우리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케냐(39%), 홍콩(37%), 말레이지아(36%), 싱가포르(36%)등은 우리나라보다 모두 낮게 나타났다

<표> 경제활동 참가인구중 여성비율(1994년)

(단위 : %)

한 국	말레이지아	홍 콩	중 국	싱가포르
40	36	37	43	36
필리핀	터 키	브라질	칠 레	케 냐
31	34	28	29	39

자료 : 통계청 「'94 지난 30년간의 고용사정의 변화」, UNDP 「'95 인간개발보고서」

우리나라 여성의 취업구조 — 단순노동직종에서 전문기술직 및 서비스업종으로 변화

○ 우리나라 여성의 취업구조를 1965년 이후 직업별로 보면 농림수산업 종사자수 비중은 65년에 64.0%(1,818천명)에서 93년에 17.2%(1,328천명)로 감소한 반면 생산·운수직 종사자 비중은 9.2%에서 20.4%로 크게 증가하였다.

— 전문기술·행정관리직 종사자 비중은 같은 기간중 1.5%에서 9.6%로, 사무관련직 종사자 비중은 1.2%에서 15.4%로, 판매종사자 비중은 15.8%에서 18.6%로, 서비스업 종사자 비중은 8.3%에서 18.8%로 증가하였다.

○ 여성의 취업분야가 단순노동직종에서 전문·기술직 및 서비스 업종으로 크게 변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여성의 직업별 취업구조 변화

(단위 : 천명, %)

	계	전문·기술 행정·관리	사무관련 종사자	판 매 종사자	서비스직 종사자	농림수산업 종 사 자	생산·운수 장비운전사
1965	2,839	42	33	449	237	1,818	261
	(100)	(1.5)	(1.2)	(15.8)	(8.3)	(64.0)	(9.2)
1975	4,261	87	156	620	472	2,212	713
	(100)	(2.0)	(3.7)	(14.6)	(11.1)	(51.9)	(16.7)
1985	5,833	317	597	1,070	992	1,611	1,245
	(100)	(5.4)	(10.2)	(18.3)	(17.0)	(27.6)	(21.3)
1990	7,376	566	939	1,247	1,230	1,490	1,904
	(100)	(7.7)	(12.7)	(16.9)	(16.7)	(20.2)	(25.8)
1991	7,535	636	1,032	1,289	1,302	1,400	1,877
	(100)	(8.4)	(13.7)	(17.1)	(17.3)	(18.6)	(24.9)
1992	7,639	729	1,097	1,332	1,350	1,392	1,739
	(100)	(9.5)	(14.4)	(17.4)	(17.7)	(18.2)	(22.8)
1993	7,738	745	1,188	1,443	1,453	1,328	1,581
	(100)	(9.6)	(15.4)	(18.6)	(18.8)	(17.2)	(20.4)

주 : 국제자료와 비교를 위하여 '93년까지만 기재, '94년 자료는 분류형태가 크게 달라 미기재

( )안은 구성비

자료 : 통계청 「'94 지난 30년간 고용사정의 변화」

우리나라 여성의 전문직·사무직 취업구조 남자에 접근

○ 여성의 직업별 취업구조를 남자와 비교해 보면 65년에는 전문기술직 사무직의 여성취업률이 남자보다 훨씬 낮았으나 93년에는 남자의 취업구조에 크게 접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판매종사자는 여성이 여전이 높으나 생산관련직 종사자는 남자의 취업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남녀간 직업별 취업구조 비교

(단위 : 천명, %)

	계	전문기술 행정관리	사무관련 종사자	판 매 종사자	서비스직 종사자	농림수산업 종사자	생산·운수 장비운전사
1965 남	5,273	191	296	524	282	2,922	1,058
	(100)	(3.6)	(5.6)	(9.9)	(5.3)	(55.4)	(20.1)
여	2,839	42	33	449	237	1,818	261
	(100)	(1.5)	(1.2)	(15.8)	(8.3)	(64.0)	(9.2)
1985 남	9,137	773	1,132	1,242	630	2,075	3,285
	(100)	(8.5)	(12.4)	(13.6)	(6.9)	(22.6)	(36.0)
여	5,833	317	597	1,070	992	1,611	1,245
	(100)	(5.4)	(10.2)	(18.3)	(17.0)	(27.6)	(21.3)
1990 남	10,709	1,009	1,413	1,380	788	1,726	4,394
	(100)	(9.4)	(13.2)	(12.9)	(7.4)	(16.1)	(41.0)
여	7,376	566	939	1,247	1,230	1,490	1,904
	(100)	(7.7)	(12.7)	(16.9)	(16.7)	(20.2)	(25.8)
1993 남	11,515	1,234	1,703	1,618	921	1,474	4,564
	(100)	(10.7)	(14.8)	(14.1)	(8.0)	(12.8)	(39.6)
여	7,738	745	1,188	1,443	1,453	1,328	1,581
	(100)	(9.6)	(15.4)	(18.6)	(18.8)	(17.2)	(20.4)

주 : ( )안은 구성비
자료 : 통계청 「'94 지난 30년간 고용사정의 변화」

우리나라 여성의 전문, 기술, 행정, 관리직 종사자 비율은 아직 선진국 수준에 못미쳐

○ 직업별 여성의 취업구조를 주요국과 비교해보면 고급직종인 전문, 기술, 행정, 관리직 여성종사자의 경우 우리나라가 93년 기준으로 9.6% 수준인 반면 스웨덴(45.1%), 노르웨이(36.8%), 덴마크(34.4%), 카나다(35.9%), 미국(32.0%) 등 선진국에 비해 상당히 낮은 수준이었다

○ 최근 우리나라 여성의 학력수준이 크게 향상되었고, 여성의 사회참여에 대한 사회적 인식도 개선되고 있어 여성의 전문직 비율은 앞으로도 계속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표> 직업별 여성 취업구조 국제비교(1993년)

(단위 : %)

	계	전문기술 행정관리	사무직	판매직	농 림 수산업	생 산 관리직	서비스직 및 기타
한 국	100.0	9.6	15.4	18.6	17.2	20.4	18.8
싱가포르[1]	100.0	9.0	14.1	27.1	0.1	35.5	14.3
일 본	100.0	13.1	28.5	14.0	6.6	25.2	12.6
홍 콩	100.0	13.1	36.1	12.9	0.4	13.7	23.8
미 국[2]	100.0	32.0	26.8	12.6	0.9	9.7	18.0
카 나 다	100.0	35.9	27.7	9.7	2.4	7.1	17.2
노르웨이[3]	100.0	36.8	17.7	11.8	3.2	8.5	22.1
덴 마 크[4 5]	100.0	34.4	25.5	7.7	1.2	13.8	17.4
독 일[4 6]	100.0	19.7	31.8	12.9	3.7	12.5	19.4
스 웨 덴[7]	100.0	45.1	21.2	9.6	1.8	9.5	12.8
영 국	100.0	29.8	26.0	11.3	10.1	7.6	15.2
오스트레일리아	100.0	20.6	6.6	3.6	23.7	14.7	30.7

주 : 1) 1992년 2) 16세 이상 3) 16~74세 4) 1991년
5) 15~74세 6) 서독자료 7) 16~64세
※ 기타 국가는 15세이상 인구기준

자료 : 통계청 「 '95 경제활동인구 연보」, ILO「'94 노동통계연감」

우리나라 여성의 제조업 취업비율은 선진국에 비해 높은 편이나 S.O.C 및 기타 서비스업 취업비율은 낮은 편

○ 우리나라는 경제개발에 따른 공업화의 급진전으로 취업구조가 급격히 선진화되었다

— 우리나라 여성의 취업구조를 산업별로 보면 농림어업은 70년 57.2%에서 94년 15.9%로 상당히 감소하였고

— 광공업, S.O.C 및 기타 부문의 여성취업자 비중은 70년에 각각 12.2%, 30.6%에서 94년에 각각 22.1%, 62.0%로 급격히 증가하였다

○ 이를 주요 선진국과 비교해보면 우리나라 여성의 제조업 취업자 구성비는 22.0%로 미국(11.6%), 카나다(8.9%), 영국(13.8%), 이탈리아(19.8%) 등 보다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농림어업 부문은 15.9%로 미국, 일본, 독일 등의 2~7% 수준보다 높으며

— 사회간접자본(S.O.C) 및 기타 부문의 취업자는 62.0%로 미국, 일본, 영국 등에 비해 10%정도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 우리나라 취업구조가 선진화됨에 따라 사회간접자본(S.O.C) 및 기타부문으로의 취업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표> 여성의 산업별 취업자 구성비

(단위 : %)

	연 도	농림어업	광공업		사회간접자본 및 기타
				제조업	
한 국	1994	15.9	22.1	22.0	62.0
싱가포르	1992	0.1	28.4	28.4	71.5
일 본	1993	6.7	22.5	22.4	70.8
홍 콩	1993	0.8	21.2	21.2	78.0
미 국[3]	1993	1.2	11.8	11.6	87.0
카 나 다	1993	2.8	9.3	8.9	88.0
덴 마 크[1]	1991	3.0	14.5	14.5	82.4
독 일[2]	1992	3.6	22.1	22.0	74.3
이탈리아	1992	8.5	20.1	19.8	71.4
영 국[3]	1989	0.9	14.0	13.8	85.0
오스트레일리아	1993	3.7	9.5	9.2	86.8

주 : 1) 15~74세 2) 서독 자료 3) 16세이상

※ 기타 국가는 15세이상 인구기준

자료 : 통계청 「 '95 경제활동인구 연보」, ILO「'94 노동통계연감」

우리나라의 고령 여성취업자 비율은 일본에 이어 두번째로 높아

○ 우리나라 취업자중 고령 취업자(55세이상 기준)비율을 보면 70년에 9.6%에서 93년에 14.4%로 23년간 4.8% 증가하였다

— 여성 고령 취업자도 70년에는 전체취업자의 3.2%에 불과하였으나 93년에는 6.1%로 증가하였으며 그 증가추세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 고령 여성 취업자가 크게 늘고 있는 주요인은 국민건강수준 향상에 따른 평균수명의 증가, 핵가족화, 자녀로부터의 독립 등에 따른 요인으로 풀이된다

○ 우리나라 여성의 고령 취업자 비율 6.1%는 일본의 8.0%를 제외하면 미국(5.0%), 영국(5.0%), 독일(3.9%) 등 주요 선진국보다도 1~3% 정도 높은 수준이다

<표> 고령 취업자(55세이상) 비율(1993년)

(단위 : %)

	한 국[1]	싱가포르	일 본	홍 콩	미 국
계	14.4	6.8	21.0	9.4	11.5
남	8.3	5.3	13.0	7.4	6.5
여	6.1	1.5	8.0	1.9	5.0

	독 일[2]	영 국	오스트리아[2]	핀란드	오스트레일리아
계	11.5	11.8	5.6	7.7	7.8
남	7.7	6.8	3.9	3.9	5.4
여	3.9	5.0	1.7	3.8	2.5

주 : 1) 1994년 계 14.9%, 남자 8.6%, 여자 6.3% 2) 1992년

자료 : 통계청 「'95 경제활동인구 연보」, ILO 「'94 노동통계연감」

한국여성 실업률 - 선진국보다 훨씬 낮아

○ 우리나라 여성의 실업률은 70년 2.8%에서 94년 1.9%로 이는 지난 24년간 0.9%포인트 떨어졌다. 94년 여성실업률1.9%는 남성실업률 2.7%보다도 0.8%포인트 낮은 수준이다.

○ 95년 UNDP가 발표한 "95년 인간개발보고서"에 의하면 외국 여성의 경우 선진국중에서 실업률이 가장 높은 나라는 스페인(29.2%)이며, 그 밖의 이탈리아(17.3%), 프랑스(13.8%)등 유럽국가가 높게 나타났다

○ 선진국중 낮은 나라는 일본(2.6%), 오스트리아(3.8%), 스위스(4.7%) 등으로 5%이내이다

<표> 실업률(1993년)

(단위 : %)

	한 국[1]	스페인	이탈리아	프랑스	미 국
남	2.7	19.0	8.1	9.9	7.0
여	1.9	29.2	17.3	13.8	6.5
	카나다	일 본	오스트리아	스위스	영 국
남	11.7	2.4	3.5	3.0	12.4
여	10.6	2.6	3.8	4.7	7.5

주 : 1) 1994년

자료 : 통계청 「'94 지난 30년간 고용사정의 변화」, UNDP 「'95 인간개발보고서」

○ 한편 15~24세의 젊은층 실업률을 보면 우리나라 여성이 94년에 6%로 91~92년을 기준으로 한 외국의 경우와 비교하여 보면 스페인(40%), 이탈리아(36%), 프랑스(23%)등 주요선진국에 비하여 훨씬 낮은 수준에 있다

<표> 젊은층(15~24세) 실업률(1991~92년)

(단위 : %)

	한 국[1]	스페인	이탈리아	프랑스	일 본
남	9	27	26	15	5
여	6	40	36	23	4
	미 국	카나다	노르웨이	덴마크	스웨덴
남	14	20	11	11	12
여	13	15	13	12	9

주 : 1) 1994년
자료 : 통계청 「'94 지난 30년간 고용사정의 변화」, UNDP 「'95 인간개발보고서」

비농업국가 여성의 근로시간 — 한국이 수위권에

○ 우리나라 제조업 전체 근로자의 주당 평균 근로시간은 소득수준의 향상과 노사분규의 영향으로 80년에 53.1시간에서 93년에 48.9시간으로 감소하였다

— 제조업에 근무하는 여성 근로자의 경우도 같은 기간 53.5시간에서 48.4시간으로 5.1시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 비 농업국가(농업취업자수 50%미만)를 대상으로 제조업 여성 근로자의 주당 평균 근로시간을 비교해 보면 우리나라는 48.4시간으로 주요 선진국에 비해 매우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 일본(37.7시간), 독일(40.1시간), 영국(40.4시간) 등 주요 선진국들은 우리나라보다 8~10시간정도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제조업의 주당 평균근로시간(1993년)

(단위 : 시간)

	한 국[1]	일 본	홍 콩	네덜란드[2]	스페인[2]
계	48.9	43.0	44.9	39.8	36.3
남	49.1	46.3	46.2	39.9	36.8
여	48.4	37.7	42.6	39.3	34.5

	노르웨이	독 일	스웨덴	영 국	뉴질랜드
계	36.8	40.9	37.3	43.1	41.6
남	38.4	41.2	38.6	43.8	42.5
여	32.0	40.1	33.5	40.4	39.1

주 : 1) 1994년 계 48.7시간, 남자 49.0시간, 여자 48 3시간
2) 1992년

자료 : 노동부 「'94 매월노동통계조사 보고서」, ILO 「'94 노동통계연감」

우리나라 여성의 임금수준 — 남자보다 빠른 속도로 증가

○ 남녀간 동등한 조건에 의한 직장 취업 및 근로조건 개선 등 성차별 감소로 인한 남녀평등화 추세가 가속화되고 있다.

○ 1975년이후 1994년까지 지난 19년동안 임금상승률을 보면 남자임금이 연평균 15.1% 상승한 반면 여자는 16.8%로 상승하여 임금격차가 크게 축소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여자임금의 남자임금에 대한 비율을 이용하여 전산업 기준 남녀간 임금격차를 살펴보면, 우리나라의 경우 75년에 여자임금이 남자임금의 42%수준이었으나 93년에도 57%수준으로 크게 개선되었으나 아직도 상당한 격차를 나타내고 있다.

— 특히 대졸기준 남녀임금격차를 보면 75년에는 여자임금이 남자임금의 63%에 불과했으나 93년에는 74%로 증가해 고학력 남녀간 임금격차가 상당히 개선되었음을 알 수 있다.

<표> 남녀간 월평균 임금격차 완화 추세(전산업)

(단위 : 원, %)

	75	80	85	90	93
◆ 전 학 력 평 균	46,654	150,747	268,766	501,992	757,007
A. 남 자	60,319	192,589	328,177	588,320	867,970
B. 여 자	25,465	85,674	158,486	323,691	490,541
C.격차(B/A,%)	(42.2)	(44.5)	(48.3)	(55.0)	(56.5)
◆ 대 졸 기 준					
A. 남 자	123,573	348,513	564,800	833,004	1,098,434
B. 여 자	77,187	210,981	411,642	593,776	815,103
C.격차(B/A,%)	(62.5)	(60.5)	(72.9)	(71.3)	(74.2)

자료 : 노동부 「직종별 임금실태조사보고서」,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보고서」

우리나라 남녀간 임금격차 — 일본에 이어 두번째

○ 국제노동기구(ILO) 발표자료를 이용하여 주요국의 제조업 임금격차를 보면, 대부분의 국가가 70~80% 수준을 나타내고 있어 우리나라와는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 일본은 여자임금이 남자임금의 43.6%밖에 안되는 것으로 나타나 임금격차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 우리나라는 OECD국가에서는 일본에 이어 두번째로 임금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 최근 남녀간 동등한 조건에 의한 직장 취업 및 근로조건 개선 등으로 남녀간 임금격차는 급속히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표> 남녀간 임금격차[1] (제조업)

(단위 : %)

한 국[2] (93)	싱가포르(93)	일 본(92)	엘살바도르(90)	코스타리카(92)
52.2	57.1	43.6	94.1	72.1
노르웨이(93)	덴마크(92)	독 일(93)	스위스(92)	영 국(93)
87.1	85.0	82.6	67.9	68.2
프랑스(93)	뉴질랜드(93)	오스트레일리아(93)	이집트(90)	케 냐(91)
79.1	76.8	84.9	67.9	73.3

주 : 1) 여자임금을 남자임금으로 나누어 산출 2) 1994년에는 52.9%

자료 : 노동부 「'94 매월노동통계조사 보고서」, ILO「'94 노동통계연감」

4. 보 건

북아메리카 여성이 아프리카 여성에 비해 약 25세 오래 살아

○ 세계 여성의 평균수명은 지역별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어 북아메리카의 경우 91~95평균 79세인데 반해 아프리카는 불과 54.6세에 불과하여 양대륙간에 24.8세의 큰 차이를 보였다

— 그외 유럽(78.5세), 오세아니아(75.5세), 라틴아메리카(70.9세)는 모두 70세이상을 보인 반면 아시아는 66.1세를 보여 평균수명의 후진성을 보였다

여자 수명이 가장 긴 나라는 일본이며, 우리나라 여성 수명도 선진국 수준에 접근

○ 각 국의 여자 평균수명을 비교해 보면 91~95년 평균으로 일본이 81.6세를 나타내 가장 장수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여성수명이 가장 짧은 국가는 우간다로 42.9세에 불과했다

— 우리나라는 60년 여자평균수명이 53.7세에 불과했으나 소득수준 향상에 따른 국민보건의식 향상, 의료기술의 발달, 의료보험제도의 도입 등의 영향으로 91년에는 75.7세로 크게 늘어나 점차 선진국 수준에 접근하고 있다

방글라데시, 네팔 등 남아시아 국가들은 여자보다 남자의 수명이 길어 — 우리나라 남녀수명차 8세

○ 「UN 세계인구전망」에 따르면 평균적으로 여자는 남자보다 4년정도 더 오래 사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방글라데시, 몰디브, 네팔 등 남아시아 국가의 경우는 여성수명이 남성보다 짧거나 거의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

○ 몰디브의 경우 91~95년 평균 남자 64.7세, 여자 62.0세로 나타나 남자가 여자보다 2.7년 더 오래 사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외 방글라데시, 네팔도 각각 0.5년, 1년씩 남자가 더 오래 사는 것으로 집계됐다

○ 이러한 현상은 남아시아 국가들이 농경중심 국가이기 때문에 여자들이 고된 육체노동과 집안잡일, 육아 등에 시달리게 되어 일찍 사망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인다

○ 한편 우리나라는 남자가 67.7세, 여자가 75.7세로 여자가 8세 더 사는 것으로 나타나 평균수준을 웃돌았다.

<표> 평균수명(91~95년평균)

(단위 : 세)

	남 자	여 자	수 명 차 (여자—남자)
세 계	62.7	66.7	4.0
아 시 아	63.6	66.1	2.5
한 국[1]	67.7	75.7	8.0
일 본	75.9	81.6	5.7
네 팔	54.0	53.0	-1.0
몰 디 브	64.7	62.0	-2.7
방글라데시	53.1	52.6	-0.5
부 탄	47.9	49.1	1.2
인 도	60.1	60.7	0.6
파키스탄	59.0	59.0	0.0
북아메리카	72.7	79.4	6.7
미 국	72.6	79.3	6.7
카 나 다	74.2.	80.7	6.5
라틴아메리카	65.2	70.9	5.7
브 라 질	63.5	69.1	5.6
칠 레	68.5	75.6	7.1
유 럽	71.9	78.5	6.6
네덜란드	74.3	80.5	6.2
노르웨이	73.8	80.5	6.7
독 일	72.7	79.0	6.3
영 국	73.7	78.7	5.0
스 웨 덴	75.2	80.8	5.6
프 랑 스	73.0	80.8	7.8
오세아니아	69.9	75.5	5.6
오스트레일리아	73.8	80.1	6.3
아프리카	51.4	54.6	3.2
르 완 다	44.8	47.7	2.9
말 라 위	43.5	44.9	1.4
우 간 다	40.8	42.9	2.1

주 : 1) 1991년

자료 : 통계청「'93 생명표」, UN「'92 세계인구전망」

우리나라의 영아사망률 선진국 수준에 접근

○ 우리나라의 영아사망률 (출생아 천명당 1세미만에 사망한 영아수)은 약 10명(91년 기준 남자 9.89, 여자 9.39)으로 미국의 8명, 일본의 5명, 영국의 7명, 독일의 7명 보다는 높으나 선진국 수준에 크게 접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영아사망률이 높은 국가는 이디오피아(122명), 탄자니아(102명), 인도(88명), 인도네시아(65명) 등 의료수준이 낮고 위생시설이 미흡한 아프리카와 아시아의 개도국들로 평균 30~100명 수준을 나타내 선진국의 10명이하 수준과는 큰 차이를 보였다

<표> 영아 사망률 (91~95년 평균)

(단위 : 출생천명당)

한 국[1]	베 트 남	싱가포르	인 도	인도네시아
10	36	7	88	65
일 본	필리핀	미 국	브라질	독 일
5	40	8	57	7
영 국	프랑스	이디오피아	이집트	탄자니아
7	7	122	57	102

주 : 1) 1991년기준 남자 9.89, 여자 9.39명

자료 : 통계청 「'93 생명표」, UN「'92 인구통계연감」

출생 10만명당 부탄의 임산부 사망자수는 1,710명으로 우리나라의 57배

○ 보건위생 환경 및 의료기술 진보의 척도로 사용되는 모성사망률(출생 10만명당 임산부 사망자수)을 보면 우리나라는 의료수준의 향상과 더불어 80년 42명에서 92년 30명으로 낮아졌으나 미국(7.9명), 일본(9.0명), 독일(9.1명) 등 선진국의 6~10명과는 다소 차이가 있다

○ UN의 「The World's Women」에 따르면 모성사망률은 후진국과 선진국간에 큰 차이를 보여 부탄(1,710명), 소말리아(1,100명), 가나(1,000명) 등은 80~90년 평균 1,000명이상의 모성사망률을 보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표> 모성사망률[1]

(단위 : 출생십만명당)

한국(92)	싱가포르(90)	일 본(91)	네 팔 (80-90년평균)	부 탄 (80-90년평균)
30.0	2.0	9.0	830	1,710

인도네시아 (80-90년평균)	멕시코(90)	미 국(89)	독 일(90)	영 국(91)
450	54.0	7.9	9.1	6.4

프랑스(90)	가 나 (80-90년평균)	나이지리아 (80-90년평균)	소 말 리 아 (80-90년평균)	수 단 (80-90년평균)
10.4	1,000	800	1,100	660

주 : 1) 모성사망률 = 임신기간과 산욕기동안 사망한 임산부/연간출생자수×100,000

자료 : 보건복지부 「'93 보건사회통계연보」, UN 「'92 인구통계연감」

UN 「70-90 The World's Women」

피임률 — 선·후진국간의 차이가 뚜렷하게 나타나

○ 우리나라의 15~44세 기혼여성의 피임률은 70년 24%에서 점차 상승하여 94년에는 77%로 지난 24년동안 53%포인트나 증가하였다.

— 구체적인 피임방법으로는 영구불임시술과 콘돔이용이 증가하는 반면 피임약 복용은 감소하는 경향이다.

<표> 우리나라의 피임률 추이

(단위 : %)

	1976	1982	1988	1994
총 계	**44.2**	**57.7**	**77.1**	**77.4**
난관수술	4.1	23.0	37.2	28.6
정관수술	4.2	5.1	11.0	11.6
자궁내장치	10.5	6.7	6.7	10.5
먹는피임약	7.8	5.4	2.8	1.8
콘 돔	6.3	7.2	10.2	14.3
기 타	11.3	10.3	9.2	10.6

자료 · 보건사회연구원「'94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실태조사」

○ 선진국의 기혼여성 피임률은 86~93년 평균으로 영국이 81%, 독일이 75%, 미국이 74% 등 일반적으로 70~80% 수준을 보였으나

— 터키(63%), 필리핀(40%), 인도(43%) 등 아시아지역 개도국은 40~60%의 비교적 낮은 피임률을 보였고

— 가나(13%), 이집트(46%) 등 아프리카지역 개도국은 40% 이하의 낮은 피임률을 보여 선후진국과 큰 차이를 시현하였다.

— 중국은 정부의 산아제한시책의 영향으로 개도국중에서는 높은 수준인 83%의 피임률을 보였다.

<표> 기혼여성의 피임률(86~93년 평균)

(단위 : %)

한 국[1]	인 도	일 본	중 국	터 키	필리핀
77	43	64	83	63	40
미 국	**독 일**	**영 국**	**프랑스**	**가 나**	**이집트**
74	75	81	81	13	46

주 · 1)1994년, 15~44세 여성 대상

자료 : UNDP「'95 인간개발보고서」

우리나라 여성의 흡연율 매우 낮은 수준

○ 흡연인구 조사대상이 미국, 일본 등 선진국은 15세이상, 우리나라는 20세이상이기 때문에 비교에 다소 곤란한 점은 있으나, 92년 우리나라 여자의 흡연비율은 6.1%로 선진국의 20~30%수준에 비해 매우 낮은 편인 것으로 나타났다.

○ 선진국중 여자흡연율이 가장 높은 국가는 덴마크로 90년 기준 40.3%였으며 노르웨이(34.0%), 네덜란드(31.0%), 스웨덴(25.9%) 등 나머지 북유럽 국가들도 비교적 높은 흡연율을 보였다.

○ 남자의 경우는 우리나라가 92년 73.2%로 선진국의 일반적 수준인 20~40% 수준에 비해 매우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흡연인구 비율(1990년)

(단위 : %)

국 가	남 자	여 자
한 국[1]	73.2	6.1
일 본	60.5	14.3
미 국	28.4	22.8
네덜란드	39.0	31.0
노르웨이	37.0	34.0
덴 마 크	47.1	40.3
독 일[2]	36.3	21.4
스 웨 덴	25.8	25.9
영 국	31.0	29.0
프 랑 스	37.8	19.2

주 : 한국은 20세 이상 남녀대상이나, 나머지 국가는 15세 이상
1) 1992년 2) 1989년

자료 : 통계청 「'94 한국의 사회지표」, UN「70-90 The World's Women」

5. 교육 및 사회문화

우리나라 여성의 학력수준 크게 향상

○ 우리나라의 고등학교 이상 여성 졸업자수 추이를 보면 65년에는 고등학교 여성 졸업자수가 4만 3천명에 불과하였으나 94년에는 33만명에 달해 8배나 증가하였다

— 초급대 졸업자는 2천 8백명에서 7만명으로 25배, 대졸이상은 3천 7백명에서 8만명으로 22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우리나라 여성의 학력수준이 크게 높아졌음을 보여줬다.

— 특히 대학원 졸업자의 경우는 65년에 34명에 불과했으나 94년에는 7천 8백명인 것으로 집계되어 무려 230배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이러한 우리나라 여성의 학력수준 향상은 30대 이후 사회참여를 보다 촉진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여 여성의 사회활동 참여율을 높이는 주요 인인 것으로 알려졌다.

<표> 고졸이상 여자 졸업자수

(단위 : 명)

	65	94	배수
고등학교	43,405	330,479	7.6배
초급대(전문대)	2,808	70,467	25.1배
교육대	826	2,791	3.4배
대졸이상	3,662	80,203	21.9배
(대학원)	(34)	(7,810)	(229.7배)

자료 : 교육부 「'94 교육통계연보」

<표> 각급학교 졸업자수[1] 추이

(단위 : 명)

	65	75	85	90	94
1. 중 학 교	209,592	568,648	865,627	835,699	735,679
남 자	135,737	337,565	422,973	430,054	379,602
여 자	73,855	231,083	412,654	405,645	356,077
	(100.0)	(312.9)	(558.7)	(549.2)	(482.1)
2. 고등학교	129,566	263,369	642,354	761,922	687,794
남 자	86,161	161,311	352,982	407,086	357,315
여 자	43,405	102,058	289,372	354,836	330,479
	(100.0)	(235.1)	(666.7)	(817.5)	(761.4)
3. 초 급 대 (전문대)	5,668	1,538	73,927	87,131	128,366
남 자	2,860	380	40,667	41,109	57,899
여 자	2,808	1,158	33,260	46,022	70,467
	(100.0)	(41.2)	(1184.5)	(1639.0)	(2509.5)
4. 교 육 대	1,825	5,841	4,331	4,965	3,853
남 자	999	2,700	1,734	1,910	1,062
여 자	826	3,141	2,597	3,055	2,791
	(100.0)	(380.3)	(341.4)	(369.9)	(337.9)
5. 대 학 교	22,970	33,610	118.584	165,916	179,519
남 자	19,342	23,893	75,813	104,627	106,676
여 자	3,628	9,717	42,771	61,289	72,843
	(100.0)	(267.8)	(1178.9)	(1689.3)	(2007.8)
6. 대 학 원[2]	565	3,466	18,037	22,269	29,605
남 자	531	2,892	14,808	17,233	21,795
여 자	34	574	3,229	5,036	7,810
	(100.0)	(1688.2)	(9497.0)	(14811.8)	(22970.6)

주 : 1) 방송통신고등학교 및 대학, 개방대학(원) 제외
2) 석사학위이상 수여자

자료 : 교육부 「'94 교육통계연보」

우리나라 여성의 고등교육 취학률은 선진국 수준

○ 전문대 이상의 교육을 의미하는 고등교육을 유엔교육과학문화기구(UNESCO) 통계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카나다의 경우 93년 여자의 고등교육 취학률이 109.1%로 가장 높았다

— 우리나라는 34.3%의 여자 고등교육 취학률을 보여 오스트리아(34.9%), 네덜란드(36.0%), 이탈리아(34.7%)와 비슷했으며

— 일본(26.1%), 스위스(22.3%), 영국(27.3%)보다는 오히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남자의 고등교육 취학률의 경우 우리나라는 94년 64.3%로 카나다(88.8%)에 이어 높은 취학률을 보여 우리나라 남녀간 고등교육 취학에 다소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고등교육 취학률

(단위 : %)

	연 도	총 계	남 자	여 자
한 국	94	49.3	64.3	34.3
일 본	91	31.5	36.6	26.1
미 국	91	76.2		
카 나 다	92	98.8	88.8	109.1
네 덜 란 드	91	38.8	41.6	36.0
노 르 웨 이	92	49.3	44.7	54.0
덴 마 크	91	37.6	34.8	40.7
스 위 스	92	30.7	38.9	22.3
스 페 인	91	39.5	37.6	41.4
영 국	90	27.8	28.2	27.3
오스 트 리아	92	36.5	38.1	34.9
이 탈 리 아	92	33.7	32.7	34.7
프 랑 스	92	45.6	41.1	50.3
오스트레일리아	92	39.6	36.1	43.1

주 : 고등교육은 종합대학, 교육대학, 기술대학 등 전문대 이상의 교육기관 포함. 취학률은 실제 취학자수를 각국 제도상의 취학적령인구로 나누어 계상하므로 조기취학, 만학, 연령별 인구 추계의 불확실성 등의 이유로 실제 취학자수가 취학적령인구보다 많은 경우는 취학률이 100%를 넘는 경우가 발생

자료 : 한국교육개발원「'94 한국의 교육지표」, UNESCO 「'94 통계연감」

우리나라의 교육은 남자에게 치중되어 있어

○ 남자 대학생 100명당 여대생의 수가 몇명이나 되는가를 각 국별로 살펴보면 우리나라는 94년 여대생이 55.4명이어서 남녀간 고등교육차이가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 말레이지아(90.0명), 멕시코(74.9명), 칠레(79.9명) 등 개도국들은 일반적으로 60~90명 수준을 보였으며

— 선진국의 경우는 오히려 여대생의 수가 많은 경우가 많아 우리나라와 대조적인 모습을 보였다

<표> 대학생 남녀비(85~91년 평균)

(단위 : 남자100명 기준)

한 국[1]	말레이지아	싱가포르	일 본	홍 콩
55.4	90.0	72.2	62.7	52.8
멕 시 코	미 국	카 나 다	아르헨티나	칠 레
74.9	112.0	128.0	114.7	79.9
노르웨이	독 일	스 웨 덴	영 국	프 랑 스
112.8	68.3	116.3	90.9	113.3

주 : 1) 1994년, 대상은 전문대 이상

자료 : 교육부, 국립교육평가원「'94 교육통계연보」, UNESCO「'92 통계연감」

○ 여자 문맹률의 경우 우리나라는 75년 기준으로 볼때 6.5%이나 최근에는 매우 낮은 것으로 추정되며, 90년 일본은 0.3%, 이탈리아는 3.6%, 스페인은 86년 5.8%로 매우 낮은 수준이나 후진국은 아직도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남녀간 문맹률 차이를 보면 선진국들은 대개 1~2%의 적은 차이를 보인 반면 아시아, 아프리카 개도국의 문맹률은 매우 높아 40~70% 수준을 보였으며 남녀간 문맹률 차이도 커 평균 20~30%포인트 차이를 보였다

<표> 문맹률(15세이상)

(단위 : %)

	연 도	계	남 자	여 자	남 녀 차 (여자-남자)
한 국	75	3.7	0.9	6.5	5.6
싱 가 포 르	90	10.9	4.9	17.0	12.1
인 도[1]	91	47.8	35.9	60.7	24.8
일 본	90	0.2	0.1	0.3	0.2
중 국	90	22.2	13.0	31.9	18.9
홍 콩	71	22.7	9.9	35.9	26.0
멕 시 코	90	12.4	9.6	15.0	5.4
미 국[2]	79	0.5			
카 나 다	86	3.4			
스 페 인	86	4.2	2.5	5.8	3.3
이 탈 리 아	90	2.9	2.2	3.6	1.4
이디오피 아	84	75.7	67.3	83.6	16.3
이 집 트	86	54.2	41.6	67.2	25.6
수 단	90	72.9	57.3	88.3	31.0

주 : 1) 7세이상 2) 14세이상

자료 : 한국교육개발원「'94 한국의 교육지표」, UNESCO 「'94 통계연감」

여교사 비율은 계속 증가하나 선진국에 비해 아직 낮은 수준

○ 우리나라의 여교사 비율은 94년에 초등교육기관이 55%, 중등교육기관이 36%, 고등교육기관이 22%로 매년 점차 높아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주요 선진국에 비해서는 아직 낮은 수준이다

— 초등교육기관의 경우 독일(84%), 이탈리아(91%), 프랑스(77%)등 주요 선진국들은 여교사비율이 60~90% 수준을 보였으며

— 중등교육기관의 경우도 우리나라의 36%보다 훨씬 높은 수준인 40~60%를 보였다

— 다만 고등교육기관의 경우는 우리나라의 여교사 비율(22%)과 독일(24%), 영국(21%), 프랑스(28%) 등 선진국의 여교사 비율간에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 여교사 비율은 초등, 중등, 고등교육기관 순으로 그 비율이 점차 줄어드는 것이 선·후진국 모두에서 볼 수 있는 공통점이었다

<표> 여교사 비율

(단위 : %)

	초등교육		중등교육		고등교육	
	연도	비율	연도	비율	연도	비율
한국	90	50	90	34	90	22
	94	55	94	36	94	22
싱가포르	89	71	89	63	89	21
인도네시아	92	51	89	33	92	8
일본	92	60	92	31	92	16
홍콩	87	74	87	49	92	25
카나다	92	69	92	53	91	28
독일	91	84	91	40	91	24
스페인	92	83	91	50	91	31
영국	90	78	90	53	90	21
프랑스	92	77	92	58	91	28
오스트레일리아	92	74	92	51	92	31

자료 : 한국교육개발원 「'94 한국의 교육지표」, UNESCO 「'94 통계연감」

여성인구 10만명당 강간 건수 - 미국이 최고

○ 성범죄의 증가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제기되고 있는 시점에서 구조적인 여성문제의 하나인 강간범죄의 분석은 강간범죄의 특성상 실제 발생건수에 비해 신고율이 대단히 낮고, 기소율 또한 다른 강력 범죄에 비해 낮기 때문에 실제 발생한 강간범죄의 극히 일부분에 불과한 공식자료를 대상으로 해야 하는 제약이 있다

○ 신고기준으로 15~59세의 여성 십만명당 강간건수를 살펴보면 87~89년 평균 미국이 118건으로 단연 최고를 기록했으며 일본(5건), 이탈리아(4건)는 10건 미만의 낮은 발생건수를 보여 대조적이었다

— 우리나라의 여성 십만명당 강간건수(신고기준)는 70년 10.4건, 90년 39.5건, 92년 38.1건으로 집계돼 프랑스(17건), 노르웨이(20건), 덴마크(35건)등 성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알려진 몇몇 선진국보다도 높은 수준이었다

○ 한편 우리나라의 강간범죄건수의 경우는 70년 1,659건에서 92년 5,465건으로 연평균 5.6%의 증가를 보였으며 강간 범죄자수의 경우도 70년 1,939명에서 92년 5,400명으로 늘어나 연평균 4.8%의 꾸준한 증가세를 보여 교도대책의 수립이 시급함을 보여줬다

<표> 여성인구 10만명당 강간건수 (87~89년 평균)

(단위 : 건수)

한 국[2]	일 본	미 국	프 랑 스	노르웨이
38.1	5	118	17	20
덴 마 크	독 일	스 웨 덴	이탈리아	프 랑 스
35	26	43	4	17

주 : 1) 15~59세여자 대상 2) 1992년

자료 : 한국여성개발원 「'94 여성관련 사회통계 및 지표」, UNDP 「'94 Country Human Development Indicators」

경제·가사 활동으로 가장 바쁜 여성은 농업국의 여성

○ 인도네시아, 네팔 등 농업중심 국가의 여성은 경제활동과 가사활동에 종사하는 시간이 선진국에 비해 훨씬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 인도네시아, 네팔, 과테말라 여성의 경우 경제·가사 활동으로 보내는 시간이 각각 주당 77.4시간, 75.6시간, 79.1시간인데 반해 주요 선진국의 여성들은 40~50시간대에 머물러 있어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 특히 농업국의 여성들은 농업의 특성상 경제활동에도 적극 참여하고 있는데 인도네시아 여성은 주당 41.3시간, 네팔 여성은 주당 32.3시간을 소요해 선진국 여성에 비해서는 약 두배정도, 선진국 남성과는 비슷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 남자는 경제활동에, 여자는 가사활동에 더 많은 시간을 소요한다는 것은 선·후진국의 공통적 현상이나 경제·가사활동에 소요하는 총시간을 남녀간 비교해 보면

— 인도네시아 남성은 60.9시간, 네팔 남성은 52.6시간을 소요하여 여성의 77.4시간, 75.6시간보다 월등히 작아 농업중심국은 여성이 남성보다 훨씬 많은 일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선진국의 경우는 남자와 여자의 경제·가사활동 시간이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나 남녀간 일의 분배가 어느정도 균등히 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표> 시간 활용

(단위 : 주당시간)

	연 도	경제·가사활동		경 제 활 동		가 사 활 동	
		남 자	여 자	남 자	여 자	남 자	여 자
인 도 네 시 아	1973	60.9	77.4	55.3	41.3	5.6	36.1
네 팔	1979	52.6	75.6	40.7	32.3	11.9	43.3
미 국	1986	59.4	56.4	41.3	24.5	18.1	31.9
카 나 다	1986	46.4	46.4	32.9	17.5	13.5	28.9
과 테 말 라	1977	67.6	79.1	56.7	29.4	10.9	49.7
프 랑 스	1965	63.1	64.3	51.8	21.7	11.3	42.6
독 일[1]	1965	53.5	57.5	42.4	13.3	11.1	44.2
네 델 란 드	1980	32.7	40.5	23.9	7.1	8.8	33.4
노 르 웨 이	1981	43.4	46.9	34.2	17.1	9.2	29.8
핀 란 드	1979	41.7	47.4	30.0	21.8	11.7	25.6

주 : 1) 서독자료

자료 : UN「70~90 The World's Women」

6. 인간개발보고서에 나타난 여성의 사회적 지위

○ 본 자료는 유엔개발계획(UNDP)이 89년부터 발표해오고 있는 인간개발지수(HDI)와 9월 4일부터 15일까지 열린 제4차 세계 여성회의에 맞춰 올해 처음으로 개발해 낸 남녀평등 지수(GDI), 여성권한척도(GEM)의 주요내용중 우리나라 여성의 지위와 관련된 사항을 국제비교하여 수록한 것입니다.

○ UNDP에서 인용된 수치와 앞부문에서 인용된 타 국제기구의 수치는 집계방식, 산출산식 등의 차이로 다소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인간개발지수(HDI)로 본 우리나라의 위치

○ 유엔이 각 국의 교육수준, 국민소득, 평균수명 등 주요통계를 활용하여 인간개발성취의 정도를 평가하여 발표하는 인간개발지수(HDI)에 따르면 92년 현재 카나다가 0.950포인트를 기록하여 174개국중 1위를 기록했다.

— 2위는 미국(0.938)이, 3위는 일본(0.937)이 차지했으며

— 독일(0.921)은 15위를 차지해 세계 3위권인 경제규모에 비해서 다소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 우리나라는 0.882포인트로 31위를 기록해 상위 20%권안에 속하였으며 아시아 국가중에서는 일본(3위), 홍콩(24위)에 이어 3번째였다.

— 경제발전정도를 대표하는 1인당 실질GDP의 경우 우리나라는 92년 기준 38위로써 인간개발지수의 순위인 31위에 비해 뒤져 있는 것으로 나타나 1인당 실질소득에서의 순위보다는 교육, 평균수명 등 사회·문화개발의 성취정도가 더욱 컸던 것으로 분석됐다.

○ 한편 러시아는 52위, 중국은 1백 11위, 베트남은 1백 20위였으며 북한은 0.733포인트로 83위를 기록해 우리나라의 31위와는 큰 거리가 있음을 알 수 있다 .

<표> 인간개발지수(HDI) 순위(1992년)

HDI순위	국 가	HDI점수	1인당 실질GDP순위
1	카 나 다	0.950	8
2	미 국	0.938	1
3	일 본	0.937	8
8	프 랑 스	0.931	11
15	독 일	0.921	6
18	영 국	0.916	23
24	홍 콩	0.905	10
31	한 국	0.882	38
35	싱가포르	0.878	16
52	러 시 아	0.849	52
83	북 한	0.733	97
111	중 국	0.594	123
120	베 트 남	0.539	151

남녀평등지수(GDI)로 본 우리나라 여성의 사회적 지위

○ 교육수준, 소득 및 의료수준 등에 있어서의 남녀평등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UNDP가 개발한 남녀평등지수(GDI)를 보면 92년 기준으로 스웨덴이 1위이며 핀란드(2위), 노르웨이(3위), 덴마크(4위)의 순으로 나타나 유럽국가의 남녀평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미국은 5위, 일본은 8위를 기록했으며

— 우리나라는 0.780포인트로 130개국중 37번째로써 상위 28%그룹안에 속했으며, 1인당 국민소득의 순위인 38위 보다 높아 남녀평등지수로 본 남녀평등정도가 낮은 편은 아닌 것으로 평가된다.

○ 남녀평등지수는 평균수명, 문자해득률, 취학률, 남녀소득차 등으로 구성되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교육관련지표인 문자해득률과 취학률은 남녀 모두 선진국 수준의 매우 높은 수준인 반면 남녀소득차가 큰 데 기인하여 37위에 머물렀다

— 최근 우리나라의 소득순위(93년 1인당 GNP기준 32위), 교육수준 및 의료수준은 계속 향상되고 있어 여성의 사회적 지위는 계속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 한편 개도국인 바베이도스(11위), 바하마(26위), 우루과이(32위), 타이(33) 등이 상위에 랭크되었으며 중국은 71위에 머물렀고 북한은 지수산출 대상에서 포함되지 않았다.

<표> 남녀평등지수(GDI) 순위

GDI순위	국 가	점 수	소득구성비[1]		평균수명(1992)		문자해득률(1990, %)		취학률(1992, %)	
			여자	남자	여자	남자	여자	남자	여자	남자
1	스 웨 덴	0.919	41.6	58.4	81.1	75.4	99.0	99.0	79.3	76.7
2	핀 란 드	0.918	40.6	59.4	79.6	71.7	99.0	99.0	100.0	90.6
3	노르웨이	0.911	37.8	62.2	80.3	73.6	99.0	99.0	88.6	86.4
4	덴 마 크	0.904	39.8	60.2	78.2	72.5	99.0	99.0	85.6	82.3
5	미 국	0.901	34.6	65.4	79.3	72.5	99.0	99.0	98.1	91.9
8	일 본	0.896	33.5	66.5	82.5	76.4	99.0	99.0	76.3	78.4
11	바베이도스	0.878	39.4	60.6	77.9	72.9	96.3	97.8	73.1	74.8
17	홍 콩	0.854	29.4	70.6	81.8	75.6	86.5	95.7	69.7	70.2
26	바 하 마	0.828	28.3	71.7	77.9	68.7	97.7	98.4	76.8	71.8
28	싱가포르	0.822	28.9	71.1	77.4	72.4	84.3	95.4	66.3	68.9
32	우루과이	0.802	26.2	73.8	75.7	69.3	97.3	96.5	81.9	71.8
33	타 이	0.798	34.6	65.4	71.8	66.3	91.4	95.8	52.8	53.1
37	한 국	0.780	22.0	78.0	74.9	67.3	95.8	99.1	75.0	83.5
71	중 국	0.578	31.2	68.8	70.4	66.7	70.0	88.2	51.8	58.0

주 1) (여성소득/남녀총소득) × 100, 최근년도 자료

여성권한척도(GEM)로 본 우리나라 여성의 사회적 위치

○ 각 국 여성들이 정치·경제활동과 정책결정과정에 얼마나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지를 점수로 환산한 여성권한척도(GEM)를 보면 스웨덴이 0.757포인트로 1위를 기록했고 그 다음은 노르웨이(0.752), 핀란드(0.722), 덴마크(0.683)가 차지해 4개국 모두 북유럽국가인 특징을 보였다.

○ 우리나라는 116개국중 90위를 나타내 중국(23위), 필리핀(28위), 북한(50위), 인도네시아(56위), 방글라데시(80위) 등 경제수준이 우리나라보다 낮은 국가 수준에도 못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우리나라의 여성권한척도(GEM)이 낮게 나타난 이유는 여성권한척도의 구성지표중 전문기술직 여성비율(42.5%)은 7위인 뉴질랜드(47.8%), 8위인 네덜란드(42.5%)와 비슷한 수준으로 매우 높은 데 반해 전통적으로 우리나라 여성이 정치에 대한 참여저조로 여성의원비율(1.0%)이 낮은 데 기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경우는 UNDP가 개발한 여성권한척도가 여성의 사회적 지위를 나타내는 중요한 지표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 다만 우리나라 여성의원비율은 인간개발보고서의 발표내용과는 달리 95년 현재 2%이며, 행정관리직과 전문관리직의 여성비율도 최근 고학력 여성취업의 급증으로 상당히 높아지고 있는 추세여서 조만간 상위랭크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표> 여성권한척도(GEM) 순위

순위	국 가	점 수	여성의원비율(1994)	행정관리직(1992)	전문관리직(1992)	소득구성비[2]
1	스 웨 덴	0.757	33.5	38.9	63.3	41.6
2	노르웨이	0.752	39.4	25.4	56.5	37.8
3	핀 란 드	0.722	39.0	23.9	61.4	40.6
4	덴 마 크	0.683	33.0	14.7	62.9	39.8
6	뉴질랜드	0.637	21.2	32.3	47.8	30.9
7	네덜란드	0.625	29.3	13.5	42.5	25.2
8	미 국	0.623	10.3	40.2	50.8	34.6
23	중 국	0.474	21.0	11.6	45.1	31.2
27	일 본	0.442	6.7	8.0	42.0	33.5
28	필 리 핀	0.435	11.2	27.7	63.2	21.1
50	북 한	0.380	20.1	3.7	24.6	38.7
56	인도네시아	0.362	12.2	6.6	40.8	25.3
80	방글라데시	0.287	10.3	5.1	23.1	22.8
90	한 국	0.255	1.0[1]	4.1	42.5	22.0

주 : 1) 인간개발보고서에는 10%로 되어있으나 '95년 8월 현재 여성의원 비율은 2.0%임.
2) (여성소득/남녀총소득) × 100, 최근년도 자료

〈요 약〉

	항 목	한 국				주 요 국	
		과 거		현 재		연 도	통 계
		연도	통 계	연도	통 계		
1. 가정 및 가족 관계	1. 여성의 초혼연령	72년	22.6세	91년	24.9세	80년대	미국23.3세 독일23.6세 영국23.1세 일본25.1세 인도18.7세 필리핀22.4세
	2. 합계출산율	70년	4.5명	92년	1.8명	92년	싱가포르1.7명 영국1.8명 미국2.1명
	3. 혼인외 출산율					85 ~ 92년	스웨덴52% 덴마크47% 노르웨이34% 일본1%
	4. 미성년자 출산율의 변화 (여성 1,000명당)	70년	17명	93년	4명	90년	일본3.5명 네덜란드8.3명 덴마크9.1명 인도88.3명
	5. 출생성비	70년	109.5	93년	115.6		미국('89)105.0 일본('91)105.7 프랑스('90)105.4
	6. 결혼적령인구의 성비			95년	101.3		홍콩('91)130.4 싱가포르('92)123.1 멕시코('85)82.8 베트남('89)86.5
	7. 여성 가장 가정	80년	14.7%	90년	15.7%	90년	미국32.3% 독일30.2% 일본17% 필리핀11.3%
	8. 미성년여성의 유배우비율	70년	2.8%	90년	0.5%	80년대	인도43.5% 터키20.8% 일본0.9% 독일1.7%
	9. 이혼여성비율	70년	1.5%	90년	1.3%	80년대	미국11.4% 덴마크10.4% 인도0.8% 중국0.3%
	10. 가사활동의 남녀 배분율						미국('86)36:64 네팔('79)22:78 카나다('86)32:68
	11. 무배우 여성 비율	70년	70.6%	90년	66%	80년대	미국59% 독일63% 노르웨이54% 프랑스5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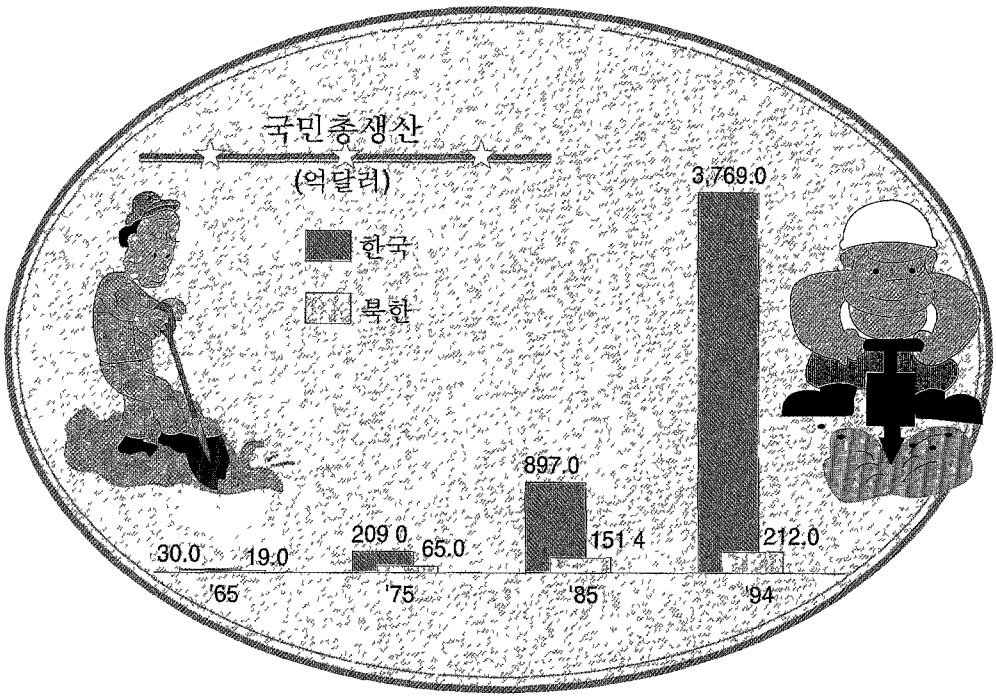
	항 목	한 국				주 요 국	
		과 거		현 재		연 도	통 계
		연도	통 계	연도	통 계		
2. 정치 활동	1. 여성의 투표권 획득연도				1948년		뉴질랜드1893년 오스트레일리아1901년 스위스1971년
	2. 여성국회의원 비율			95년 8월	2%	94.6.30	핀란드39% 스웨덴34% 북한20%
	3. 여성 장·차관수			95년 8월	5%	87년	도미니카25.6% 바하마24.0% 중국2.5% 쿠바2.4%
3. 경제 활동	1.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	65년	37.2%	94년	47.9%	93년	싱가포르50.6% 일본50.3% 미국55.7%
	2. 여자아동 경제 활동 참가율	70년	3.6%	90년	0.7%	90년	싱가포르0.5% 칠레0.2% 이탈리아0.4% 케냐27.1%
	3. 경제활동 참가 인구중 여성비율	70년	36%	94년	40%	94년	중국43% 케냐39% 홍콩37% 싱가포르36%
	4. 여성의 직업별 취업자 구성비 (전문기술·행정관리)	65년	1.5%	93년	9.6%	93년	스웨덴45.1% 노르웨이36.8% 덴마크('91)34.4% 미국32.0%
	5. 여성의 산업별 취업자 구성비 (제조업)	65년	9.4%	94년	22.0%		미국('93)11.6% 카나다('93)8.9% 영국('89)13.8%
	6. 여성의 고령 취업자비율 (55세 이상)	70년	3.2%	93년	6.1%	93년	일본8.0% 미국5.0% 영국5.0% 독일3.9%
	7. 여성실업률	70년	2.8%	94년	1.9%	93년	스페인29.2% 이탈리아17.3% 프랑스13.8% 일본2.6%
	8. 여성의 젊은층 실업률 (15~24세)	70년	6.1%	94년	6.0%	91~92년	스페인40% 이탈리아36% 프랑스23% 일본4%

	항 목	한국				주요국	
		과거		현재		연 도	통 계
		연도	통 계	연도	통 계		
	9. 여성의 주당평균 근로시간 (제조업)	80년	53.5 시간	93년	48.4 시간	93년	일본37.7시간 독일40.1시간 영국40.4시간
	10. 우리나라 여성의 임금격차 (전산업)	75년	42%	93년	57%		
	11. 남녀별 임금 격차(제조업)	80년	45.1%	93년	52.2%		일본('92)43.6% 싱가포르('93)57.1% 스위스('92)67.9% 영국('93)68.2%
4. 보건	1. 여성의 평균수명	60년	53.7세	91년	75.7세	91~95 년	일본81.6세 우간다42.9세 미국79.3세 독일79.0세
	2. 영아사망률 (출생천명당)	70년	53명	91년	10명	91~95 년	미국8명 일본5명 영국7명 독일7명 이디오피아122명
	3. 모성사망률 (출생십만명당)	80년	42명	92년	30명		미국('89)7.9명 일본('91)9.0명 독일('90)9.1명 부탄(80~90)1,710명
	4. 기혼여성 피임률	70년	24%	94년	77%	86~93 년	영국81% 독일75% 미국74% 터키63%
	5. 여성의 흡연율	89년	7.6%	92년	6.1%	90년	덴마크40.3% 노르웨이34.0% 네덜란드31.0% 스웨덴25.9%
5. 교육 및 사회 문화	1. 고등교육 여성 취학률	70년	3.1%	94년	34.3%	92년	오스트리아34.9% 네덜란드('91)36.0% 이탈리아34.7%
	2. 대학생 남녀비 (남자 100명당)	70년	32.9명	94년	55.4명	85~91 년	말레이지아90.0명 멕시코74.9명 칠레79.9명

	항 목	한 국				주 요 국	
		과 거		현 재		연 도	통 계
		연도	통 계	연도	통 계		
	3. 여성문맹률 (15세이상)	75년	6.5%				일본('90)0.3% 중국('90)31.9% 싱가포르('90)17.0%
	4. 여교사비율 (초등교육기관)	65년	25.5%	94년	55%		독일('91)84% 프랑스('92)77% 이탈리아('92)91%
	5. 여성교육 10만명당 강간건수 (15~59세)	70년	10.4건	92년	38.1건	87~89년	일본5건 이탈리아4건 스웨덴43건 미국118건
	6. 경제·가사시간 활용(남자)						미국('86)59.4시간 카나다('86)46.4시간 인도네시아('73)60.9시간 네팔('79)52.6시간
6. 여성의 사회적 지위 종합지표	1. 인간개발지수 (HDI)				0.882 (31위)		카나다0.950(1위) 미 국0.938(2위) 일 본0.937(3위)
	2. 남녀평등지수 (GDI)				0.780 (37위)		스웨덴0.919(1위) 미 국0.901(5위) 일 본0.896(8위)
	3. 여성권한척도 (GEM)				0.255 (90위)		스웨덴0.757(1위) 중 국0.474(23위) 북 한0.380(50위)

여 백

남북한 경제사회상 비교



『'65년도의 남한의 국민총생산은 북한 국민총생산의 1.6배였으나,
'75년에는 3.2배, '85년에는 5.9배, '94년에는 17.8배를
기록함으로써 남북한 경제규모의 격차가 계속
확대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본문중에서 -

남북한 경제사회상 비교

1995. 11

자료관리국 국제통계과

1. 자 연 환 경

가. 영 토 조 건

남한지역은 북한지역보다 영토의 이용면에서 효율적

○ 남한의 영토면적은 1992년에는 99,314㎢로써 임야가 65,689㎢(66.1%), 경지면적이 21,324㎢(21.5%), 공장 및 사회간접자본 등이 12,301㎢(12.4%)로 구성되어 있다.

○ 이에 반해 북한의 영토면적은 임야가 91,323㎢(74.4%), 경지면적이 20,133㎢(16.4%), 공장 및 사회간접자본 등이 11,306㎢(9.2%)로 구성되어 있어 남한지역의 임야는 북한지역에 비해 약 8%「포인트」적은 반면 경지면적과 공장 및 사회간접자본 등의 면적은 3~5%「포인트」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 이처럼 남한은 북한에 비하여 경지면적이 넓고 산업의 발달 및 사회간접자본확충에 따른 공장 및 사회간접자본 등이 많아 영토의 이용면에서 효율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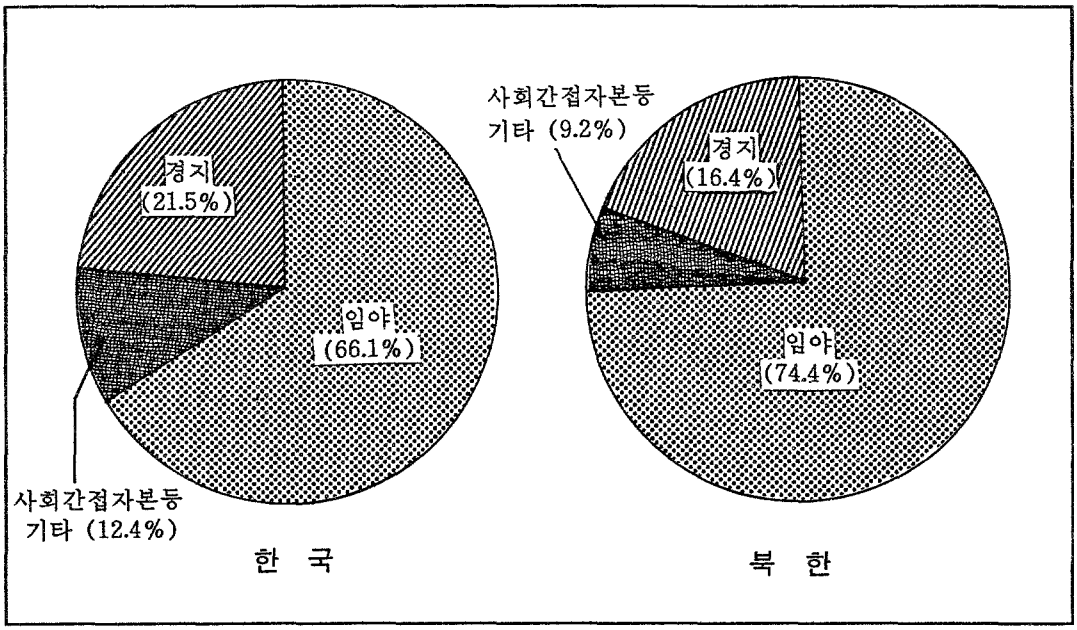
〈표 1〉 영 토 의 이 용(1992년)

(단위 : ㎢, %)

구 분	한 국		북 한		남 북 한		차 이 (A-B) (% p)
		구성비(A)		구성비(B)		구성비	
합 계	99,314	100.0	122,762	100.0	222,076	100.0	-
경 지	21,324	21.5	20,133	16.4	41,457	18.7	5.1
임 야	65,689	66.1	91,323	74.4	157,012	70.7	-8.3
사회간접자본 등 기타	12,301	12.4	11,306	9.2	23,607	10.6	3.2

자료 : 내무부, 통일원

〈도 1〉 영 토 의 이 용(1992년)



북한은 남한보다 광물자원의 부존량이 풍부

○ 경제성 있는 광물자원 30개 품목중 15개 품목은 북한지역에 부존량이 풍부하며 9개 품목은 남한지역에 부존량이 풍부하다.

○ 남한지역은 휘수연, 망간, 형석, 납석, 규사, 고령토 등의 매장량이 풍부하다.

- 남한지역에서 부존비율이 가장 높은 광물은 납석(98.9%), 고령토(95.2%), 휘수연(94.2%)등의 순이며
- 부존비율이 낮은 광물은 유연탄(0.2%), 석회석(1.5%), 연·아연(5.1%)등이다.

○ 북한지역은 철, 니켈, 아연, 마그네사이트, 석회석, 유연탄, 무연탄, 금, 은 등 산업발전에 필요한 중요광물의 매장량이 풍부하다.

〈표 2〉 광 물 자 원 부 존 비 율

(단위 : %)

광 물 명	한 국	북 한	남/북(배)
철	6.2	93.8	0.1
중 석	44.3	55.7	0.8
휘 수 연	94.2	5.8	16.3
니 켈	15.3	84.7	0.2
망 간	86.2	13.8	6.3
금	33.3	66.7	0.5
은	33.3	66.7	0.5
동	51.6	48.4	1.1
연 · 아 연	5.1	94.9	0.1
흑 연 (인 상)	44.4	55.6	0.8
흑 연 (토 상)	50.0	50.0	1.0
형 석	92.5	7.5	12.3
활 석	50.0	50.0	1.0
납 석	98.9	1.1	89.9
석 면	69.8	30.2	2.3
석 회 석	1.5	98.5	0.0
규 사	82.7	17.3	4.8
마그네사이트	0.0	100.0	0.0
고 령 토	95.2	4.8	20.0
중 정 석	30.3	69.7	0.4
모 나 자 이 트	30.3	69.7	0.4
베 리 륨	45.5	54.5	0.8
질 코 늄	28.6	71.4	0.4
우 라 늄	68.3	31.7	2.2
무 연 탄	11.0	89.0	0.1
유 연 탄	0.2	99.8	0.0

자료 : 통일원

나. 기 후 조 건

북한지역의 연평균 기온은 남한지역보다 4.1℃ 낮아

○ 남한지역의 지난 1965년이후 연평균 기온은 13.3℃로써 북한지역의 9.2℃ 보다 4.1℃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3〉 연 도 별 평 균 기 온

(단위 : ℃)

	한 국 (A)	북 한 (B)	차이(A−B)
1965	13.0	8.2	4.8
1970	12.5	—	—
1975	13.5	9.5	4.0
1980	12.3	8.3	4.0
1985	13.1	8.7	4.4
1990	14.2	9.8	4.4
1994	14.5	10.2	4.3
평 균[1] ('65～'94)	13.3	9.2	4.1

자료 : 기상청, 통일원
주 : 1) '65～'94기간중 통계표에 나타난 수치를 단순평균 하였음.

북한지역의 연평균 강수량은 남한보다 420㎜ 적어

○ 남한지역의 지난 1965년이후 연평균 강수량은 1,395㎜로써 북한지역의 975㎜ 보다 420㎜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4〉 연도별 연중 강수량

(단위 : ㎜)

	한 국 (A)	북 한 (B)	차이(A−B)
1965	1,185	1,041	144
1970	1,531	−	−
1975	1,263	947	316
1980	1,469	800	669
1985	1,784	982	802
1990	1,652	1,380	272
1994	1,015	1,022	−7
평 균[1] ('65～'94)	1,395	975	420

자료 : 기상청, 통일원
주 : 1) '65～'94기간중 통계표에 나타난 수치를 단순평균 하였음.

남한의 기상조건이 북한보다 벼농사에 유리

○ 기상조건을 보면 남한지역의 경우 북한지역보다 여름에 고온다습하여 남한지역이 북한지역보다 벼농사에 유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 남한지역인 서울의 6～8월 평균기온은 23.7℃, 광주는 23.8℃, 부산은 23.1℃로써 북한지역인 평양의 22.9℃, 함흥 21.1℃, 웅기 18.2℃보다 높은 편이다.

〈표 5〉 월 평 균 기 온

(단위 : ℃)

	서 울	광 주	부 산	평 양	함 흥	웅 기
6 월	21.2	20.7	20.0	21.1	18.6	14.7
7 월	24.5	25.0	23.8	23.8	21.8	18.9
8 월	25.5	25.7	25.5	23.9	22.8	21.1
평 균	23.7	23.8	23.1	22.9	21.1	18.2

자료 : 기상청
주 : 남한은 '89년 현재, 북한은 '73～'86기간중 월별 평년값

○ 남한지역인 서울의 6~8월 강수량은 850.0㎜, 광주는 1,365.3㎜, 부산은 883.5㎜로써 북한지역인 평양의 498.0㎜, 함흥 570.3㎜, 웅기 449.9㎜보다 많은 편이다.

〈표 6〉 월 평 균 강 수 량

(단위 : ㎜)

	서 울	광 주	부 산	평 양	함 흥	웅 기
6 월	177.1	216.1	233.7	84.8	109.7	116.5
7 월	343.5	693.3	456.9	244.4	233.4	169.6
8 월	329.4	455.9	192.9	168.8	227.2	163.8
합 계	850.0	1,365.3	883.5	498.0	570.3	449.9

자료 : 기상청
주 : 남한은 '89년 현재, 북한은 '73~'86기간중 월별 평년값

2. 인　　구

가. 총인구 및 인구증가율

남북한 인구격차가 줄어들고 있어

○ 남북한 인구를 비교하여 보면 남한인구는 1949년도에는 20,189천명에서 1995년도에는 44,851천명으로 증가하여, 지난 46년동안 2.2배 증가된 것으로 나타났다.

- 북한인구는 1949년도에는 9,622천명이었으나, 1995년도에는 23,261천명으로 늘어나 지난 46년동안 2.4배 증가되었다.

○ 한편 남북한 인구격차를 살펴보면 1949년도 남한인구는 북한인구보다 2.1배 많았으나 1995년도 남한인구는 북한인구보다 1.9배로써 남북한 인구격차가 다소 줄어들고 있다.

〈표 7〉　　총　인　구

(단위 : 천명)

	한　국	북　한	남 북 한	남/북(배)
1949	20,189	9,622	29,811	2.10
1965	28,705	12,252	40,957	2.34
1975	35,281	16,172	51,453	2.18
1985	40,806	19,995	60,801	2.04
1995	44,851	23,261	68,112	1.93

자료: 통계청, 통일원

북한의 평균인구증가율은 남한보다 높아

○ 북한의 1950년도부터 1995년까지 46년간 평균 인구증가율은 2.02%로써 남한의 1.75%보다 0.27%p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남한의 인구증가율은 1965년도에는 2.57%, 1975년도에는 1.70%, 1985년도에는 0.99%, 1995년도에는 0.90%로 증가율이 계속 감소되고 있다.

○ 북한의 인구증가율은 1965년도에는 3.30%, 1975년도에는 2.76%, 1985년도에는 1.86% 1995년도에는 1.34%로 증가율이 감소하고 있지만 남한보다는 증가율이 높은 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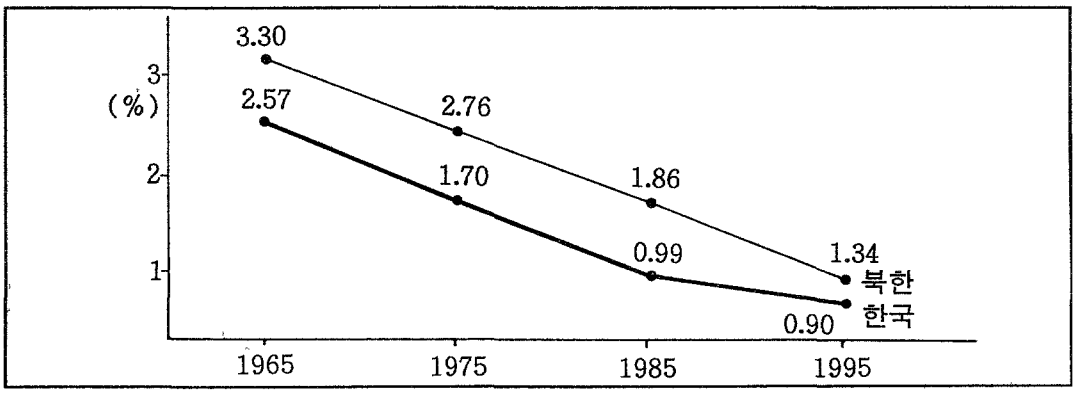
〈표 8〉 인 구 증 가 율

(단위 : %, %p)

	한 국 (A)	북 한 (B)	남 북 한	차이(A−B)
1965	2.57	3.30	2.94	−0.73
1975	1.70	2.76	2.03	−1.06
1985	0.99	1.86	1.27	−0.87
1995	0.90	1.34	1.05	−0.44
평 균 ('50～'95)	1.75	2.02	1.81	−0.27

자료 : 통계청, 통일원

〈도 2〉 인 구 증 가 율



나. 인구밀도 및 성비

인구밀도는 남한이 북한보다 2배이상 높아

○ 해방후 1949년도 남한의 인구밀도는 205.1인/㎢로써 북한의 78.4인/㎢보다 2.6배 높으며, 1995년도에는 남한의 인구밀도는 451.3인/㎢로써 북한의 189.5인/㎢보다 2.4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남한의 인구밀도 변화를 살펴보면 1949년도에는 205.1인/㎢이었으나 1965년도에는 291.6인/㎢, 1975년도에는 357.1인/㎢, 1985년도에는 411.6인/㎢, 1995년도는 451.3인/㎢로 늘어나 지난 46년동안 2.2배 높아졌다.

○ 북한의 인구밀도 변화를 살펴보면 1949년도에는 78.4인/㎢이었으며 1965년도에는 100.2인/㎢, 1975년도에는 132.4인/㎢, 1985년도에는 163.7인/㎢, 1995년도에는 189.5인/㎢로 늘어나 1949년대비 2.4배 높아졌다.

〈표 9〉 인 구 밀 도

(단위 : 인/㎢)

	한 국	북 한	남 북 한	남/북(배)
1949	205.1	78.4	134.3	2.6
1965	291.6	100.2	185.0	2.9
1975	357.1	132.4	232.4	2.7
1985	411.6	163.7	274.6	2.5
1995	451.3	189.5	306.8	2.4

자료 : 통계청, 통일원

북한은 여자가 남자보다 많았으나 최근 반전

○ 해방후 남북한의 여자 100명에 대한 남자인구수인 성비를 비교해 보면 남한은 남자가 많은 男超현상이 해방이후 지속되어 온 반면 북한은 여자가 많은 女超현상이 1949년이후 1991년까지 지속하다가 1992년이후에는 男超현상으로 전환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남한은 1949년도 성비가 102.1명에서, 1995년도에는 101.4명으로 다소 줄어들었으나 男超현상은 지속하고 있다.

○ 북한 1949년도 성비가 98.8명에서 1991년에는 99.9명으로 여자가 많았으나, 1995년도에는 100.2명으로 100을 상회함으로써 최근에는 男超현상으로 전환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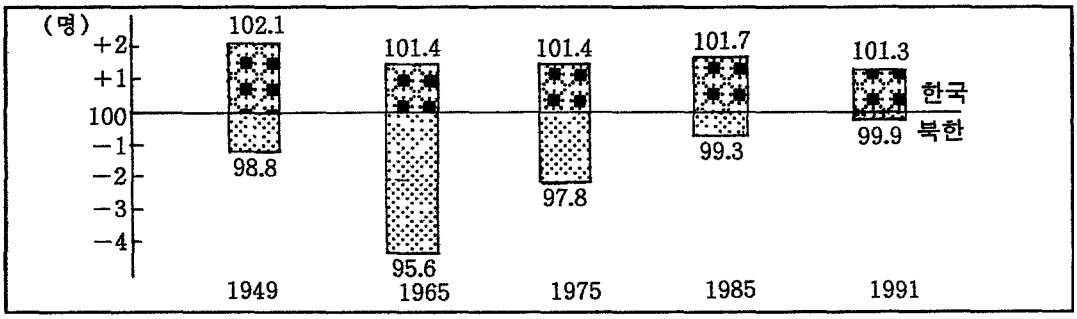
〈표 10〉 성 비

(단위 : 명)

	한 국 (A)	북 한 (B)	남 북 한	차이(A−B)
1949	102.1	98.8	101.0	3.3
1965	101.4	95.6	99.7	5.8
1975	101.4	97.8	100.3	3.6
1985	101.7	99.3	100.9	2.4
1991	101.3	99.9	100.8	1.4
1995	101.4	100.2	101.0	1.2

자료 : 통계청, 통일원

〈도 3〉 성 비



다. 분단이후세대 및 전후세대 인구

남북한의 분단이후세대 인구수는 총인구의 80%를 넘어

○ 민족의 이질성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는 1946년 이후 출생자로 정의되는 분단이후세대 인구수를 살펴보면 1995년도에는 남한이 36,744천명으로써 총인구대비 81.9%를 차지하였으며 북한은 각각 19,963천명으로써, 85.8%를 차지하여 북한의 분단이후세대가 남한의 그것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남한의 분단이후세대 인구의 총인구대비 구성비를 연도별로 살펴보면 1965년도 52.9%, 1975년도 66.8%, 1985년도 75.3%, 1995년도에는 81.9%를 나타내 지난 30년간 분단이후세대 인구수 비중이 29%「포인트」정도 높아졌다.

○ 북한의 분단이후세대 인구의 총인구대비 구성비는 1965년도 52.0%에서, 1975년도 68.2%, 1985년도 78.6%, 1995년도에는 85.8%로 높아졌다.

〈표 11〉 분단이후세대 인구 및 총인구대비 구성비

	한 국		북 한		남 북 한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1965	15,186	52.9	6,365	52.0	21,551	52.6
1975	23,557	66.8	11,025	68.2	34,582	67.2
1985	30,726	75.3	15,723	78.6	46,449	76.4
1995	36,744	81.9	19,963	85.8	56,707	83.3

자료 : 통계청, 통일원

남북한의 전후세대 인구수도 총인구의 70%를 넘어

○ 1954년 이후 출생자로 정의되는 전후세대 인구수를 살펴보면 1995년도에는 남한이 32,392천명으로써 남한 총인구대비 72.9%를 차지하고 있으며 북한은 18,260천명으로써 78.5%를 차지하여 북한의 전후세대인구 비중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 남한의 전후세대 인구의 총인구대비 구성비의 연도별 변화를 살펴보면 1965년도 36.9%에서 1975년도 54.4%, 1985년도 64.5%, 1995년도에는 72.9%로 지난 30년간 36%「포인트」증가되었음을 알 수 있다.

○ 북한의 전후세대 인구의 총인구대비 구성비의 연도별 변화를 살펴보면 1965년도 36.1%에서 1975년도 56.5%, 1985년도 69.4%, 1995년도에는 78.5%로 지난 30년간 42.1%「포인트」증가되었다.

〈표 12〉 전후세대 인구 및 총인구대비 구성비

	한 국		북 한		남 북 한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1965	10,588	36.9	4,422	36.1	15,009	36.6
1975	19,178	54.4	9,131	56.5	28,309	55.0
1985	26,321	64.5	13,885	69.4	40,206	66.1
1995	32,691	72.9	18,260	78.5	50,952	74.8

자료 : 통계청, 통일원

라. 노동력 인구

25~54세 주력노동계층은 남북한 모두 증가 추세

○ 25~54세의 주력 노동계층의 인구구성비가 남북한 모두 1965년이후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있다.

○ 15세미만의 유년계층은 남한은 산아제한정책 등으로 인하여 1965년에 43.8%에서 1995년도에는 23.2%로 계속 감소추세에 있으며, 북한은 1965년의 42.2%에서, 1970년 43.1%로 증가하여 왔으나 그 이후에는 감소추세에 있다.

○ 15~24세의 청소년 계층은 남한은 1965년에 17.4%에서 1980년에 22.6%로 증가하였다가 80년대 초반이후 감소추세에 있으며, 북한 또한 1965년에 19.5%에서 1990년에 22.0%로 높아졌으나 최근에는 감소추세에 있다.

○ 55세이상의 노년인구계층은 남한은 1965년의 7.5%에서 계속 증가하여 1995년에는 13.3%로 대폭 증가되었으나, 북한은 1965년의 7.5%에서 1995년에 9.8%로 소폭 증가에 그쳤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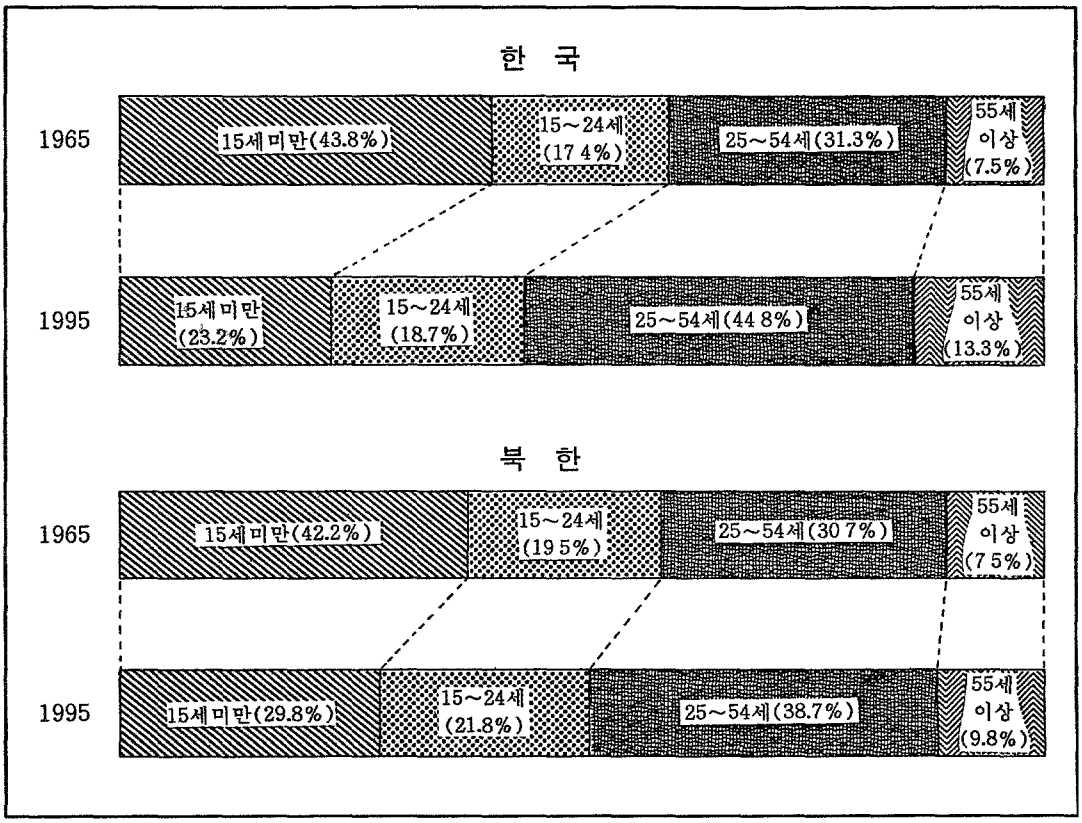
〈표 13〉 연령계층별 인구 구성비

(단위 : %)

	15세 미만		15~24세		25~54세		55세 이상	
	한 국	북 한	한 국	북 한	한 국	북 한	한 국	북 한
1965	43.8	42.2	17.4	19.5	31.3	30.7	7.5	7.5
1970	42.5	43.1	18.1	17.2	31.6	31.9	7.7	7.8
1975	38.6	42.3	21.0	18.7	32.3	31.6	8.1	7.4
1980	34.0	40.5	22.6	20.6	34.5	31.6	9.0	7.3
1985	30.2	37.6	21.3	20.7	38.7	34.1	9.8	7.6
1990	25.8	33.2	20.4	22.0	42.3	36.3	11.4	8.5
1995	23.2	29.8	18.7	21.8	44.8	38.7	13.3	9.8

자료 : 통계청, 통일원

〈도 4〉 인 구 구 성 비



북한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남한보다 훨씬 높아

○ 경제활동인구가 15세이상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인 경제활동 참가율은 북한이 자발적 실업을 허용하지 않는 체제상의 특수성과 노약자나 병약자도 일하지 않으면 식량배급에 차별을 받기 때문에 1965년 이후 남한보다 계속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남한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1965년에 54.3%에서, 1975년에 58.3%, 1985년도에 56.6%, 1992년에 60.9%로 지난 27년간 6.6%「포인트」 증가하였다.

○ 북한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1965년에 61.0%에서, 1975년에 64.1%, 1985년도에 66.8%, 1992년에 68.4%로 지난 27년간 7.4%「포인트」증가에 그쳤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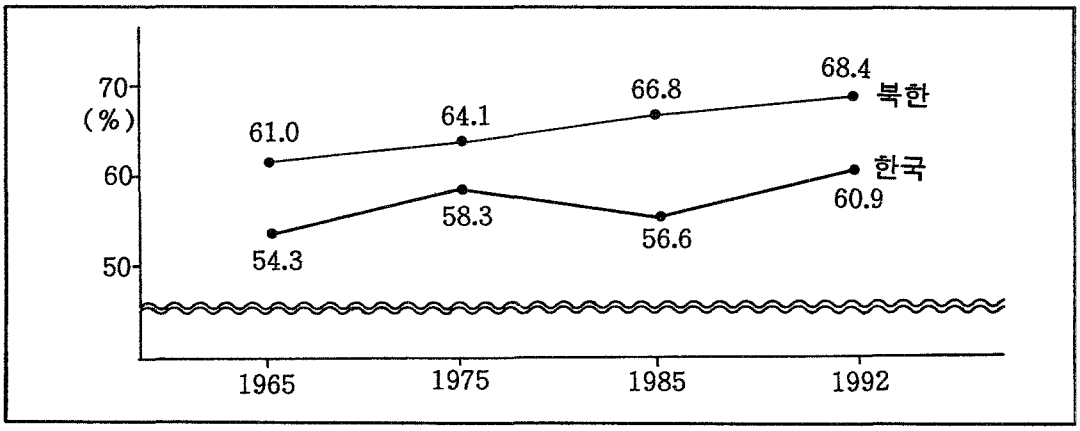
〈표 14〉 경제활동 참가율

(단위 : %, %p)

	한 국 (A)	북 한 (B)	남 북 한	차이(A−B)
1965	54.3	61.0	56.3	−6.7
1975	58.3	64.1	60.1	−5.8
1985	56.6	66.8	59.8	−10.2
1992	60.9	68.4	63.3	−7.5

자료 : 통계청, 통일원

〈도 5〉 경제활동 참가율



3. 군사비 및 군사력 현황

1980년도 이후 남한의 군사비가 오히려 북한보다 많아

○ 군사비총액을 달러화 기준으로 환산하여 비교하여 보면 1980년 이전까지는 북한이 남한보다 많았으나 1980년도 이후에는 남한이 북한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 남한의 군사비는 1965년도의 1.1억달러에서 1994년의 130.3억달러로 규모가 118.5배 확대되었으며, 북한의 군사비는 1965년도의 2.6억달러에서 1994년의 56.6억달러로 규모가 21.8배 확대되었다.

○ 북한대비 남한의 군사비는 1965년도에는 0.4배, 1975년도에는 0.6배였으나 1980년도에는 1.1배, 1985년도 1.2배, 1994년도에는 2.3배를 기록하였다.

〈표 15〉 군 사 비

(단위 : 억달러)

	한 국	북 한	남/북(배)
1965	1.1	2.6	0.4
1975	9.6	16.3	0.6
1980	37.0	32.4	1.1
1985	43.0	35.0	1.2
1994	130.3	56.6	2.3

자료 : 통일원, 한국은행

북한 군사비의 대 GNP비율은 여전히 높아

○ 군사비가 GNP에서 차지하는 비율인 군사의 대 GNP비율은 1965년이후 북한이 남한보다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남한 군사비의 대 GNP비율은 1965년에 3.7%에서, 1975년에 4.6%, 1985년에 4.8%, 1994년도에는 3.5%에 불과하며 지난 30여년간 3~4%대를 시현하였다.

○ 북한 군사비의 대 GNP비율은 1965년에 13.7%, 1975년에 25.1%, 1985년에 23.0%, 1994년도에는 26.7%를 차지하므로써 남한에 비해 금액은 적으나 GNP에 대한 군사비 비중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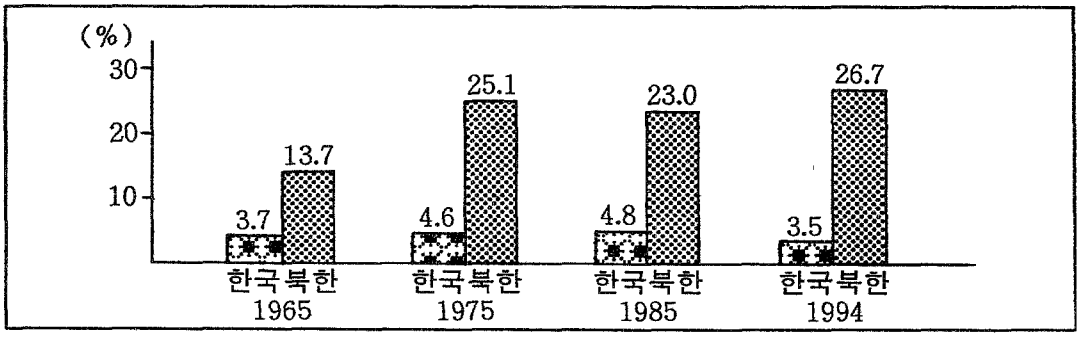
〈표 16〉 군사비의 대 GNP비율

(단위 : %)

	한 국	북 한	남/북(배)
1965	3.7	13.7	0.3
1975	4.6	25.1	0.2
1985	4.8	23.0	0.2
1994	3.5	26.7	0.1

자료 : 통일원, 한국은행

〈도 6〉 군사비의 대 GNP비율



군사비의 대 세출예산 비율은 남북한이 모두 20~30% 수준으로 높아

○ 군사비의 대 세출예산 비율을 보면 남북한이 공통적으로 높으나 남한은 감소추세에 있으며, 북한은 최근까지 여전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남한의 군사비 대 세출예산 비율은 1965년에 36.7%에서, 1975년에 30.0%, 1985년에 30.1%, 1994년도에는 24.2%로 계속 낮아지고 있다.

○ 북한의 군사비 대 세출예산 비율은 1965년에 18.6%에서 1975년에 30.8%, 1985년에 31.3%, 1994년도에는 30.0%로 나타났다.

〈표 17〉 군사비의 대 세출예산 비율

(단위 : %)

	한 국	북 한	남/북(배)
1965	36.7	18.6	2.0
1975	30.0	30.8	1.0
1985	30.1	31.3	1.0
1994	24.2	30.0	0.8

자료 : 통일원, 한국은행

1991년도 이후 1인당 군사비 남한이 많아

○ 남한의 1인당 군사비지출액은 1991년 이전에는 북한이 많았으나 경제규모의 확대와 더불어 1991년이후부터 북한을 앞서고 있다.

○ 남한의 1인당 군사비지출액은 1965년에는 3.8달러, 1975년 27.2달러, 1985년 105.4달러, 1991년 244.8달러, 1994년도에는 293.1달러를 지출하고 있다.

○ 북한의 1인당 군사비지출액은 1965년에는 21.0달러, 1975년 103.4달러, 1985년 175.9달러, 1991년 232.9달러, 1994년도에는 246.6달러를 지출하고 있다.

〈표 18〉 1인당 군사비 지출

(단위 : 달러)

	한 국	북 한	남/북(배)
1965	3.8	21.0	0.2
1975	27.2	103.4	0.3
1985	105.4	175.9	0.6
1991	244.8	232.9	1.1
1994	293.1	246.6	1.2

자료 : 통일원, 한국은행

북한 군사력은 병력과 장비면에서 남한보다 우위

○ 북한의 군사력은 1962년에 주창된 4대군사노선과 1964년에 완성된 3대혁명론을 바탕으로 군비를 증강한 결과 병력면과 장비면에서 남한보다 우위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 남한의 병력은 1994년도에는 65.5만명으로써 북한의 103만명에 비하여 36.4% 적은 것으로 보인다.

○ 지상군의 장비를 보면 남한의 전차수는 북한보다 48.7% 적으며, 장갑차는 16% 적은 것으로 보인다.

○ 해군의 장비를 보면 전투함은 북한에 비해 56.2% 적고, 지원함은 북한의 18.8% 수준에 불과하고, 남한의 잠수함은 2척에 불과하다.

○ 공군의 장비를 보면 전술기는 북한의 61.2% 수준이며, 지원기는 37.5% 수준에 달하고 있으며 헬기만이 유일하게 남한이 북한보다 2.1배 많다.

〈표 19〉 남북한 군사력 현황(1994년)

(단위 : %)

구 분			한 국			북 한		남/북(배)
병 력			육 군	54만명	65.5만명[1]	90만명	103만명[2]	0.6
			해 군	6만명		4.6만명		
			공 군	5.5만명		8.4만명		
지상군	부대	군 단	11개			18개		0.6
		사 단	50개			53개		0.9
		여 단	21개			99개		0.2
	장비	전 차	1,950대			3,800대		0.5
		장갑차	2,100대			2,500대		0.8
		야 포	4,600문			10,800문		0.4
해 군	전 투 함		190척			434척		0.4
	지 원 함		60척			320척		0.2
	잠 수 함		2척			26척		0.1
공 군	전 술 기		520대			850대		0.6
	지 원 기		180대			480대		0.4
	헬 기		620대			290대		2.1

자료 : 국방백서(1994~95)

주 : 1) 남한병력에는 방위병은 미포함, 해군에 해병병력 포함.
지상군사단에 해병사단 포함.

2) 북한병력에는 육군에 해병병력 포함.

4. 수교국 및 국제기구가입 현황

남한의 수교국은 북한보다 47개국 많아

○ 남한은 1995. 10월 현재 179개국과 수교하였으나 북한은 125개국과 수교하였으며 남북한 동시 수교국은 125개국이다.

○ 지역별로 보면 아주·미주 및 구주지역에서 남한이 북한보다 12~14개국 많이 수교하였으며, 중동 및 아프리카 지역에서는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20〉 수교현황(1995. 10월 현재)

(단위 : 국)

구 분	한 국 (A)	북 한 (B)	동시수교	차이(A-B)
아 주	32	20	17	12
미 주	34	20	19	14
구 주	48	35	33	13
중 동	19	14	13	5
아프리카	46	43	43	3
계	179	132	125	47

자료 : 외무부

아주, 미주, 구주지역에서 남한의 단독수교국 많아

○ 1995. 10월 현재 남한이 단독으로 수교한 국가수는 54개국으로써 북한의 7개국보다 많으며 아주, 미주, 구주지역에서 단독수교국이 많았다.

〈표 21〉 남북한 단독수교국 현황(1995. 10월 현재)

(단위 : 국)

구 분	한 국 (A)	북 한 (B)	차이(A-B)
아 주	15	3	12
미 주	15	1	14
구 주	15	2	13
중 동	6	1	5
아프리카	3	0	3
계	54	7	47

자료 : 외무부

국제기구 가입현황도 남한이 북한의 2배이상

○ UN산하 및 전문기구등의 가입현황을 보면 1995년 10월 현재 남한은 29개 기관, 북한은 18개 기관에 가입하였으며

○ 정부간 주요기구는 남한은 59개기관, 북한은 17개기관에 가입하고 있다.

〈표 22〉 국제기구 가입현황(1995. 10월 현재)

(단위 : 기구)

구 분	한 국 (A)	북 한 (B)	차이(A-B)
유엔산하기구	2	2	0
유엔직속기구	11	5	6
유엔전문기구	16	11	5
기타정부간기구	59	17	42
계	88	35	53

자료 : 외무부

재외공관수도 남한이 훨씬 많아

○ 남한의 재외공관은 1995년 10월 현재 141개소인 반면 북한은 69개소에 불과한 실정이다.

〈표 23〉 재외공관현황(1995. 10월 현재)

(단위 : 개소)

구 분	한 국 (A)	북 한 (B)	차이(A-B)
상주대사관	98	53	45
(총)영사관	38	3	35
대 표 부	5	13	-8
계	141	69	72

자료 : 외무부

5. 경 제 총 량

가. 국민총생산 및 실질성장률

1994년 남한의 국민총생산은 북한의 약 18배

○ 1965년도의 남한의 국민총생산은 북한 국민총생산의 1.6배였으나, 1975년에는 3.2배, 1985년에는 5.9배, 1994년에는 17.8배를 기록함으로써 남북한 경제규모의 격차가 계속 확대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남한의 국민총생산은 1965년도의 30억달러에서 1994년도에는 3,769억달러를 기록함으로써 1965년대비 125.6배 신장하였다.

○ 북한의 국민총생산은 1965년의 19억달러에서 1994년도에는 212억달러를 기록함으로써 1965년대비 11.2배 신장에 그쳤다.

〈표 24〉 국 민 총 생 산

(단위 : 억달러)

	한 국(A)	북 한(B)	남/북(배)
1965[1)]	30.0	19.0	1.6
1975[1)]	209.0	65.0	3.2
1985[1)]	897.0	151.4	5.9
1994[2)]	3,769.0	212.0	17.8

주 : 1) 1965, 1975, 1985년 수치는 통일원 자료임.
2) 1994년 수치는 한국은행자료임.

북한은 최근 5년간 부의 성장률을 시현

○ 북한은 최근 5년간(1990~94) 부의 성장률을 기록한 반면 남한은 최근 5년간(1990~94) 7.5% 상승하여 남한과의 경제규모의 격차가 더욱 확대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한편 1966~94년 기간중 남한의 연평균 명목성장률은 18.1%를 기록하였으나 북한은 8.7%의 증가에 그쳤다.

〈표 25〉 실 질 성 장 률

(단위 : %)

	한 국(A)	북 한(B)	차 이(A-B)(%p)
1965	5.8	8.5	-2.7
1975	6.4	5.4	1.0
1985	7.0	2.7	4.3
1990	9.3	-3.7	13.0
1991	8.4	-5.2	13.6
1992	5.0	-7.6	12.6
1993	5.8	-4.3	10.1
1994	8.2	-1.7	9.9
명목평균성장률 (1966~94)	18.1	8.7	9.4

자료 : 통일원, 한국은행

1994년 남한의 1인당 GNP는 북한의 9배이상

○ 1965년도 남한의 1인당 GNP는 105달러로써 북한의 1인당 GNP 162달러의 60% 수준에 이르렀으나 1994년도에는 남한의 1인당 GNP가 8,483달러로써 북한의 923달러에 비하여 9.2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남한의 1인당 GNP는 1965년 105달러에서 1994년도에는 8,483달러를 기록하므로써 1965년 대비 80.8배 증가되었으나 북한의 1인당 GNP는 1965년 162달러에서 1994년도에는 923달러를 기록하므로써 1965년 대비 5.7배 증가에 그쳤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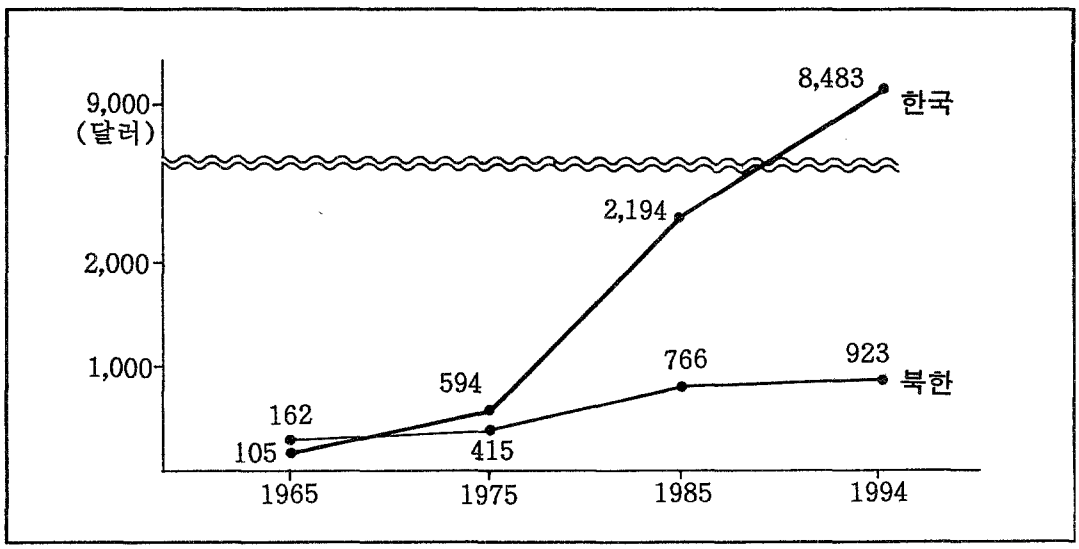
〈표 26〉 1 인 당 GNP

(단위 : 달러)

구 분	한 국(A)	북 한(B)	남 북 한	남/북(배)
1965	105	162	120	0.6
1975	594	415	533	1.4
1985	2,194	766	1,724	2.9
1990	5,659	1,064	4,104	5.3
1991	6,518	1,038	4,665	6.3
1992	7,007	943	4,952	7.4
1993	7,513	904	5,267	8.3
1994	8,483	923	5,906	9.2

자료 : 통일원, 한국은행

〈도 7〉 1 인 당 GNP



나. 산업별 성장률 및 산업구조

북한의 최근 경제부진은 제조업과 건설업의 負의 성장이 주된 원인

○ 남한은 지난 5년간(1990~94) 중화학공업, 전기가스수도업종 및 서비스산업의 주도하에 높은 경제성장을 나타내고 있지만 북한은 광공업분야의 5년간(1990~94) 負의 성장 및 건설업의 4년간(1991~94)에 걸친 부의 성장으로 인하여 5년연속 부의 성장을 나타내고 있다.

○ 남한의 지난 5년간(1990~94) 성장주도산업의 성장률은 다음과 같다.

구 분	1990	1991	1992	1993	1994	평 균[1]
중화학공업(%)	12.7	12.1	7.8	8.6	13.0	10.8
전기가스수도업(%)	16.3	7.4	6.9	13.0	11.4	11.0
서 비 스 업(%)	9.3	9.4	6.0	6.8	9.1	8.1

주 : 1) 평균은 지난 5년간(1990~94)의 단순평균임.

○ 북한의 지난 5년간(1990~94) 부진산업의 성장률은 다음과 같다.

구 분	1990	1991	1992	1993	1994	평 균[1]
광 공 업(%)	−2.9	−11.9	−15.0	−3.2	−4.2	−7.4
건 설 업(%)	5.9	−3.4	−2.1	−9.7	−26.9	−7.2

주 : 1) 평균은 지난 5년간(1990~94)의 단순평균임.

〈표 27〉 산 업 별 성 장 률

(단위 : %)

	한 국					북 한				
	1990	1991	1992	1993	1994	1990	1991	1992	1993	1994
농 림 어 업	-5.1	-1.0	5.4	-2.9	1.2	-10.2	2.8	-2.7	-7.6	2.7
광 공 업	8.7	8.7	4.6	4.9	10.2	-2.9	-11.9	-15.0	-3.2	-4.2
광 업	-10.8	0.8	-11.4	-3.7	2.3	-8.5	-6.8	-6.1	-7.2	-5.5
제 조 업	9.1	8.9	4.8	5.0	10.4	-1.5	-13.4	-17.8	-1.9	-3.8
(경 공 업)	(2.7)	(2.7)	(-1.3)	(-3.2)	(3.6)	(-6.2)	(-4.4)	(-7.3)	(5.0)	(-0.1)
(중 공 업)	(12.7)	(12.1)	(7.8)	(8.6)	(13.0)	(-0.4)	(-15.8)	(-21.0)	(-4.2)	(-5.2)
전기가스수도업	16.3	7.4	6.9	13.0	11.4	-2.2	-4.5	-5.7	-8.7	4.2
건 설 업	23.7	11.4	-1.9	8.4	4.6	5.9	-3.4	-2.1	-9.7	-26.9
서 비 스 업	9.3	9.4	6.0	6.8	9.1	0.3	2.5	0.8	1.2	2.2
(정 부)	(4.6)	(3.6)	(3.7)	(2.8)	(1.5)	(1.2)	(4.4)	(2.4)	(2.3)	(3.3)
(기 타)	(10.0)	(10.1)	(6.3)	(7.4)	(10.3)	(-1.1)	(-0.3)	(-1.7)	(-0.5)	(0.4)
국 내 총 생 산	9.2	8.5	4.8	5.8	8.4	-3.7	-5.1	-7.7	-4.2	-1.8
국 민 총 생 산	9.3	8.4	5.0	5.8	8.2	-3.7	-5.2	-7.6	-4.3	-1.7

자료 : 한국은행

북한의 산업구조중 농림어업 비중이 29.5%로 남한의 7%보다 크게 높아

○ 1994년도 북한의 농림어업은 29.5%를 차지하므로써 남한의 7.0%에 비하여 22.5%「포인트」나 높는 등 산업구조의 후진성을 보여주고 있다.

○ 1994년 남한의 산업구조는 사회간접자본 및 서비스업종이 65.8%, 광공업은 27.2%, 농림어업은 7.0%를 차지하였다.

○ 1994년 북한의 산업구조는 사회간접자본 및 서비스업종이 39.1%, 광공업이 31.4%, 농림어업이 29.5%를 차지하였다.

〈표 28〉 산 업 구 조

(단위 : %)

	한국				북한			
	1991	1992	1993	1994	1991	1992	1993	1994
농림어업	8.0	7.6	7.1	7.0	28.0	28.5	27.9	29.5
광공업	28.6	27.6	27.4	27.2	38.0	33.8	32.9	31.4
(제조업)	(28.2)	(27.3)	(27.1)	(26.9)	(30.0)	(24.6)	(24.7)	(23.6)
사회간접자본및기타	63.4	64.8	65.5	65.8	34.0	37.7	39.2	39.1

자료 : 한국은행

6. 재 정

가. 세입·세출규모

1993년 남한의 세입규모 북한의 2.5배

○ 세입규모를 달러화 기준으로 환산하여 보면 남한은 1965년도에 4억달러에서 1993년에 481억달러로 120.3배 증가한 반면, 북한은 같은 기간중 14억달러에서 189억달러로 13.5배 증가에 그쳤다.

○ 남북한 세입규모를 비교해 보면 남한의 세입규모는 북한에 비해 1965년에는 0.3배, 1975년에는 0.6배, 1985년에는 1.3배였으나, 1993년에는 2.5배로써 그 격차가 계속 커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29〉 세 입 규 모

(단위 : 억달러)

	한 국	북 한	남/북(배)
1965	4	14	0.3
1975	34	54	0.6
1985	149	113	1.3
1993	481	189	2.5

자료 : 통일원, 한국은행

1994년 남한의 세출규모 북한의 2.9배

○ 남한의 세출규모는 북한에 비해 1965년에는 0.3배, 1975년 0.6배, 1985년 1.3배, 1994년도에는 2.9배로써 매년 격차가 확대되고 있다.

〈표 30〉 세 출 규 모

(단위 : 억달러)

	한 국	북 한	남/북(배)
1965	3	14	0.3
1975	32	53	0.6
1985	143	112	1.3
1994	538	189	2.9

자료 : 통일원, 한국은행

나. 재정부담률

북한의 재정부담률 남한보다 훨씬 높아

○ GNP에 대한 세출예산의 비율인 재정부담률은 북한이 남한보다 훨씬 높아 북한의 생산수단에 대한 국유화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남한의 재정부담률은 1965년에는 10.0%, 1975년 15.3%, 1985년 15.9%, 1994년도에는 15.5%를 나타내고 있는 반면 북한의 재정부담률은 1965년에는 73.7%, 1975년 84.6%, 1985년 74.3%, 1994년도에는 89.2%를 차지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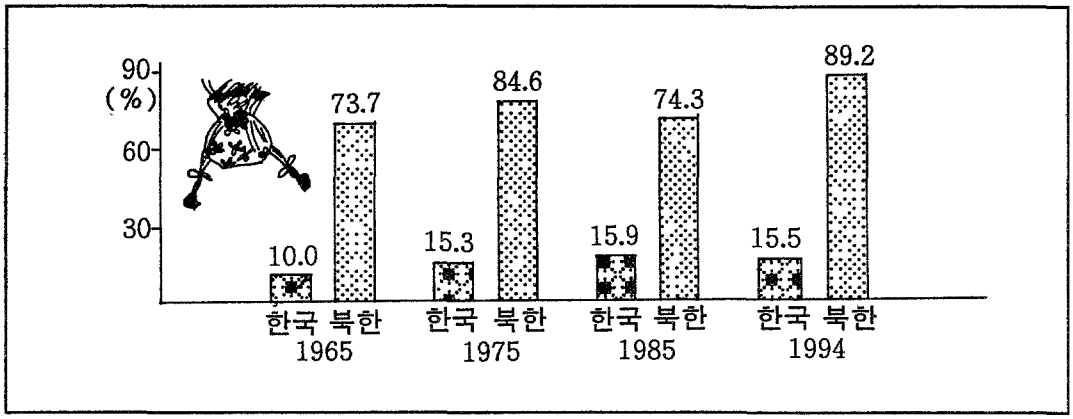
〈표 31〉 재 정 부 담 률

(단위 : %)

	한 국	북 한	남 북 한	남/북(배)
1965	10.0	73.7	34.7	0.1
1975	15.3	84.6	31.8	0.2
1985	15.9	74.3	24.3	0.2
1994	15.5	89.2	18.3	0.2

자료 : 통일원, 한국은행

〈도 8〉 재 정 부 담 률


90
(%)
60
30
10.0
73.7
15.3
84.6
15.9
74.3
15.5
89.2
한국 북한
1965
한국 북한
1975
한국 북한
1985
한국 북한
1994

7. 농수산업

가. 농업인력 및 경지면적

북한의 농가인구는 계속 증가한 반면 남한은 감소

○ 남한의 농가인구는 1965년 15,812천명에서 1975년 13,244천명, 1985년 8,521천명, 1992년도에는 5,707천명으로 지난 30년간 64%나 감소하였으나, 북한의 농가인구는 1965년 4,999천명에서 1975년 6,501천명, 1985년 7,492천명, 1992년도에는 8,398천명으로 지난 30년간 68.0% 증가하였다.

○ 북한 농가인구대비 남한의 농가인구는 1965년 3.2배로써 남한 농가인구가 많았으나 1992년에는 0.7배로 오히려 북한의 농가인구가 많아졌다.

〈표 32〉 농 가 인 구

(단위 : 천명)

	한 국	북 한	남 북 한	남/북(배)
1965	15,812	4,999	20,811	3.2
1975	13,244	6,501	19,745	2.0
1985	8,521	7,492	16,013	1.1
1992	5,707	8,398	14,105	0.7

자료 : 농림수산부, 통일원

남한의 농가인구비율은 계속 감소

○ 남한의 총인구대비 농가인구비율은 1965년의 55.1%에서 1992년의 13.1%로 대폭 감소한 반면 북한은 1965년의 40.8%에서 1992년의 37.6%로 소폭 감소에 그쳤다.

○ 남한의 총인구대비 농가인구비율의 변화를 살펴보면 1965년 55.1%, 1975년 37.5%, 1985년 20.9%, 1992년도에는 13.1%를 나타내 지난 27년간 42%「포인트」나 감소하였다.

- 북한의 총인구대비 농가인구비율은 1965년 40.8%, 1975년 40.2%, 1985년 37.5%, 1992년 37.6%로 소폭 감소하였다.

〈표 33〉 농 가 인 구 비 율

(단위 : %)

	한 국	북 한	남 북 한
1965	55.1	40.8	50.8
1975	37.5	40.2	38.4
1985	20.9	37.5	26.3
1992	13.1	37.6	21.4

자료 : 농림수산부, 통일원

북한의 농가호수는 계속 늘어

○ 남한의 농가호수는 1965년에 2,507천호, 1975년에 2,379천호, 1985년에 1,926천호, 1992년도에는 1,641천호로써 계속 감소추세에 있으나, 북한은 1965년 1,096천호, 1975년 1,435천호, 1985년 1,684천호, 1992년도에는 1,909천호로써 농가호수가 점차 증대하고 있는 추세에 있다.

○ 남북한 농가호수를 비교하여 보면 1965년도에는 남한이 북한의 2.3배이었으나, 1975년에는 1.7배, 1985년에는 1.1배로 감소되어 1992년도에는 0.9배를 기록하여 북한이 남한보다 농가호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34〉 농 가 호 수

(단위 : 천호)

	한 국	북 한	남 북 한	남/북(배)
1965	2,507	1,096	3,603	- 2.3
1975	2,379	1,435	3,814	1.7
1985	1,926	1,684	3,610	1.1
1992	1,641	1,909	3,550	0.9

자료 : 농림수산부, 통일원

경지면적은 남한이 넓어

○ 1994년 남한의 경지면적은 2,033천ha로서 북한의 1,992천ha보다 넓으나 경제개발에 따라 다소 감소추세에 있다.

○ 남한의 경지면적은 1965년도에는 2,256천ha, 1975년 2,240천ha, 1985년 2,144천ha, 1994년도에는 2,033천ha로 감소 추세에 있다.

○ 북한의 경지면적 변화를 보면 1965년도에는 1,993천ha, 1975년 2,078천ha, 1985년 2,136천ha, 1994년도에는 1,992천ha로써 큰 변화가 없음을 알 수 있다.

〈표 35〉 경 지 면 적

(단위 : 천ha)

	한 국	북 한	남 북 한	남/북(배)
1965	2,256	1,993	4,249	1.13
1975	2,240	2,078	4,318	1.08
1985	2,144	2,136	4,280	1.00
1994	2,033	1,992	4,025	1.02

자료 : 농림수산부, 통일원

호당 경지면적 북한은 감소추세이나 남한은 증가

○ 호당 경지면적은 남한은 1965년 0.90ha에서 1992년 현재 1.26ha로 계속 증가하고 있으나, 북한은 1965년 1.82ha에서 1992년도에는 1.03ha로 계속 감소하고 있다.

○ 남한의 호당 경지면적 변화를 살펴보면 1965년도에는 0.90ha, 1975년 0.94ha, 1985년 1.11ha, 1992년도에는 1.26ha로 증가하고 있다.

○ 북한의 호당 경지면적 변화를 살펴보면 1965년도에는 1.82ha, 1975년 1.45ha, 1985년 1.27ha, 1992년도에는 1.03ha로 계속 감소하고 있다.

〈표 36〉 호 당 경 지 면 적

(단위 : ha)

	한 국	북 한	남 북 한	남/북(배)
1965	0.90	1.82	1.18	0.50
1975	0.94	1.45	1.13	0.65
1985	1.11	1.27	1.19	0.87
1992	1.26	1.03	1.14	1.22

자료 : 농림수산부, 통일원

재배면적은 남북한이 모두 줄어들어

○ 1965년 남한의 재배면적은 3,221천ha로써 북한의 2,642천ha보다 21.9% 넓었으나 1994년에는 북한보다 5.5%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 남한의 재배면적은 1965년 3,221천ha, 1975년 2,531천ha, 1985년 1,780천ha, 1994년 1,403천ha로 계속 감소하고 있으며, 북한의 재배면적은 1965년 2,642천ha, 1975년 1,889천ha, 1985년 1,846천ha, 1994년도에는 1,485천ha로 줄어들었다.

〈표 37〉 재 배 면 적

(단위 : 천ha)

	한 국	북 한	남 북 한	남/북(배)
1965	3,221	2,642	5,863	1.22
1975	2,531	1,889	4,420	1.34
1985	1,780	1,846	3,626	0.96
1994	1,403	1,485	2,888	0.94

자료 : 농림수산부, 통일원

북한은 논보다 밭이 많아

○ 남한의 경지면적중 논의 비중은 1994년에 62.3%로써 밭보다 논이 많으며, 북한은 논의 비중이 29.4%에 불과해 논보다 밭이 많은 편이다.

○ 1965년 남한의 경지면적중 논의 구성비는 57.0%에서, 1994년에 62.3%로 논의 구성비가 계속 높아져 왔다.

○ 1965년 북한의 밭의 구성비는 72.4%에서 1994년에 70.6%로 밭의 구성비가 떨어지고 논의 구성비가 높아져 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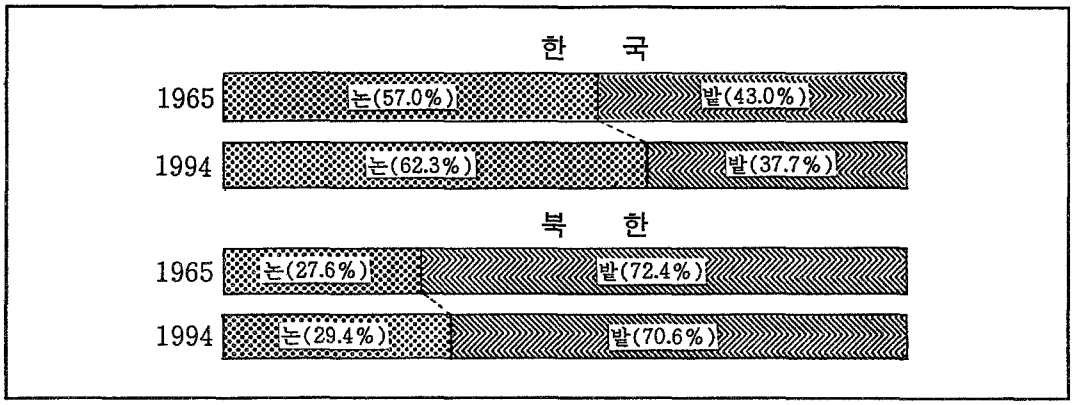
〈표 38〉 경지면적 구성비

(단위 : %)

	한 국		북 한	
	논	밭	논	밭
1965	57.0	43.0	27.6	72.4
1975	57.0	43.0	29.5	70.5
1985	61.8	38.2	29.9	70.1
1994	62.3	37.7	29.4	70.6

자료 : 농림수산부, 통일원

〈도 9〉 경지면적 구성비



나. 농업 생산력

남북한 식량생산 격차는 줄어

○ 남한의 식량생산량은 1965년에 6,524천M/T에서 1994년에 5,744천M/T로 지난 29년간 12% 감소하였으나 북한의 식량생산량은 1965년 3,540천M/T에서 1994년에 4,125천M/T로 16.5% 증가하였다.

○ 이에따라 북한 식량생산량에 대한 남한 식량생산량비율은 1965년에 1.8배에서 1994년에 1.4배로 남북한 식량생산 격차가 줄어 들고 있다.

〈표 39〉 식 량 작 물 생 산 량

(단위 : 천M/T)

	한 국	북 한	남 북 한	남/북(배)
1965	6,524	3,548	10,072	1.8
1975	7,654	4,355	12,009	1.8
1985	6,990	4,193	11,183	1.7
1994	5,744	4,125	9,869	1.4

자료 : 농림수산부, 통일원

북한의 식량생산은 옥수수의 비중이 높아

○ 남한은 식량생산중 쌀 생산비중이 높으나 북한은 옥수수 생산비중이 높다.

○ 남한의 쌀 생산량은 1965년 3,501천M/T으로써 전체 곡물생산의 53.7%였으나 1994년에는 5,060천M/T로 증가되었고 구성비도 88.1%로 늘어났으며 옥수수 및 기타 식량생산은 매우 미미한 실정이다.

○ 북한의 옥수수 생산량은 1965년 1,527천M/T으로써 북한 식량생산량의 43.0%를 차지하고 있으며, 1975년도에는 50.1%, 1985년도 49.4%, 1994년도에는 51.8%를 차지하고 있으며, 쌀은 1994년에 36.4%에 불과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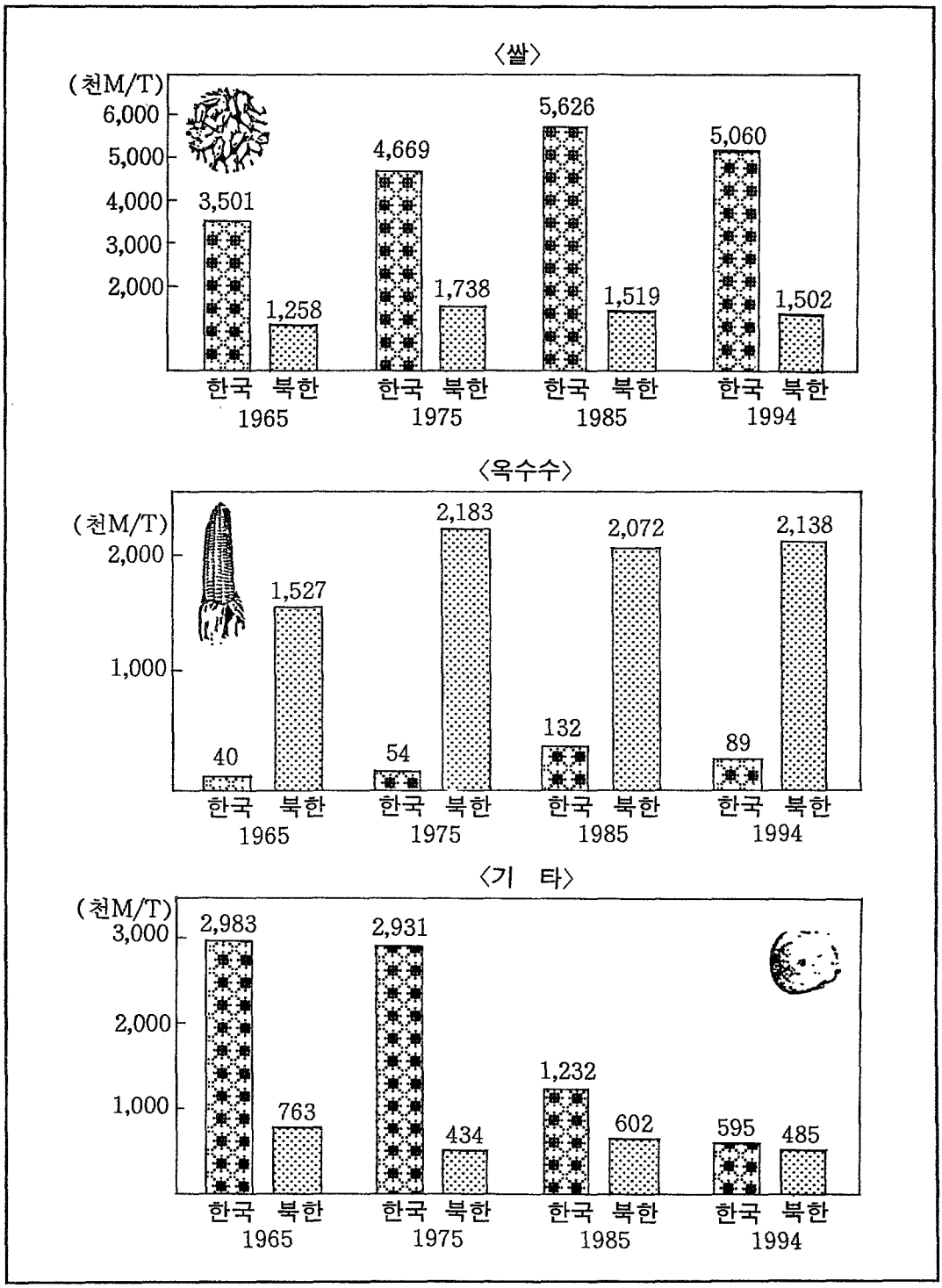
〈표 40〉 주요 곡종별 생산량

(단위 : 천M/T)

	한 국			북 한			남/북(배)		
	쌀	옥수수	기 타	쌀	옥수수	기 타	쌀	옥수수	기 타
1965	3,501	40	2,983	1,258	1,527	763	2.8	0.03	3.9
(구성비)	(53.7)	(0.6)	(45.7)	(35.5)	(43.0)	(21.5)			
1975	4,669	54	2,931	1,738	2,183	434	2.7	0.02	6.8
(구성비)	(61.0)	(0.7)	(38.3)	(39.9)	(50.1)	(10.0)			
1985	5,626	132	1,232	1,519	2,072	602	3.7	0.06	2.0
(구성비)	(80.5)	(1.9)	(17.6)	(36.2)	(49.4)	(14.4)			
1994	5,060	89	595	1,502	2,138	485	3.4	0.04	1.2
(구성비)	(88.1)	(1.5)	(10.4)	(36.4)	(51.8)	(11.8)			

자료 : 농림수산부, 통일원

〈도 10〉 주요 곡종별 생산량



남한의 1994년도 단보당 쌀생산량은 북한의 1.7배

○ 1994년도 남한의 정보당 식량작물 생산량은 북한대비 1.47배, 단보당 쌀 생산량은 1.7배를 나타내고 있으며 1992년도 농가인구 1인당 식량작물생산량은 2.1배로 남한의 농업생산성이 북한보다 높은 편이다.

○ 1965년 남한의 정보당 식량작물 생산량은 2.03M/T으로써 북한의 1.34M/T에 비하여 1.51배, 1994년도에는 남한은 4.09M/T으로써 북한의 2.78M/T에 비하여 1.47배를 나타냈다.

○ 1965년 남한의 단보당 쌀 생산량은 285kg으로써 북한의 233kg에 비하여 1.2배, 1994년도에는 남한은 459kg으로써 북한의 264kg에 비하여 1.7배를 나타냈다.

○ 1965년 남한의 농가인구 1인당 식량생산량은 0.41M/T으로써 북한의 0.71M/T에 비하여 0.6배였으나 1992년도에는 남한은 1.09M/T으로써 북한의 0.51M/T에 비하여 2.1배를 나타내었다.

〈표 41〉 농 업 생 산 성 지 표

	정보당식량작물생산량 (M/T)				단보당 쌀 생산량 (kg)				농가인구1인당 식량작물 생산량 (M/T)			
	한국	북한	남북한	남/북(배)	한국	북한	남북한	남/북(배)	한국	북한	남북한	남/북(배)
1965	2.03	1.34	1.72	1.51	285	233	269	1.2	0.41	0.71	0.48	0.6
1975	3.02	2.31	2.72	1.31	383	289	352	1.3	0.58	0.67	0.61	0.9
1985	3.93	2.27	3.08	1.73	455	242	383	1.9	0.82	0.56	0.70	1.5
1992	4.20	2.69	3.48	1.56	461	268	397	1.7	1.09	0.51	0.74	2.1
1994	4.09	2.78	3.42	1.47	459	264	393	1.7	1.11	—	—	—

자료 : 농림수산부, 통일원

다. 어 획 량

어선의 노후화와 유류 부족으로 북한의 어획량 감소세

○ 남한의 어획량은 1965년 637천M/T에서 1975년 2,135천M/T, 1985년 3,103천M/T, 1994년에는 3,477천M/T으로 1965년대비 5.5배 증가한 반면 북한의 어획량은 1965년 773천M/T, 1975년 1,304천M/T, 1985년 1,781천M/T, 1994년에는 998천M/T으로 어선의 노후화와 유류부족으로 1985년 이후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다.

○ 이에따라 북한대비 남한의 어획량은 1965년 0.8배에서 1975년 1.6배, 1985년 1.7배, 1994년에는 3.5배로 남북한 격차가 확대되고 있다.

〈표 42〉 어 획 량

(단위 : 천M/T)

	한 국	북 한	남 북 한	남/북(배)
1965	637	773	1,410	0.8
1975	2,135	1,304	3,439	1.6
1985	3,103	1,781	4,884	1.7
1994	3,477	998	4,475	3.5

자료 : 농림수산부, 통일원

8. 광 공 업

가. 광 업

석탄생산능력은 북한이 앞서

○ 남한의 석탄생산능력은 1965년도에는 북한의 0.6배, 1975년 0.8배, 1985년 0.6배에서 1994년에는 북한의 0.3배를 기록하고 있다.

○ 남한의 석탄생산능력은 1965년에 10,248천M/T에서, 1975년 17,593천M/T, 1985년 22,543천M/T으로 상승세를 유지하다가 1994년에 7,440천M/T으로 하락하였다.

○ 북한의 석탄생산능력은 1965년에 17,860천M/T에서, 1975년 20,900천M/T, 1985년 37,500천M/T으로 상승세를 유지하다가 채굴조건의 악화로 1994년에 25,400천M/T으로 하락하였다.

〈표 43〉 석 탄 생 산 능 력

(단위 : 천M/T)

	한 국	북 한	남 북 한	남 / 북 (배)
1965	10,248	17,860	28,108	0.6
1975	17,593	20,900	38,493	0.8
1985	22,543	37,500	60,043	0.6
1994	7,440	25,400	32,840	0.3

1985년 북한의 철광석 생산능력은 남한의 15배이상

○ 1994년 남한의 철광석 생산능력은 북한의 12%에 불과하다.

○ 남한의 철광석 생산능력은 1965년도에는 735천M/T, 1975년 574천M/T, 1985년 625천M/T, 1994년도에는 546천M/T을 나타내고 있다.

○ 북한의 철광석 생산능력은 1965년도에는 5,800천M/T, 1975년도 7,500천M/T, 1985년도 9,800천M/T으로 상승세를 유지하다가 광산노동기피 및 채굴조건 악화로 1994년 4,586천M/T으로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다.

〈표 44〉 철 광 석 생 산 능 력

(단위 : 천M/T)

	한 국	북 한	남 북 한	남 / 북 (배)
1965	735	5,800	6,535	0.13
1975	574	7,500	8,074	0.08
1985	625	9,800	10,425	0.06
1994	546	4,586	5,132	0.12

자료 : 통계청, 통일원

나. 금속공업

남한의 선철생산능력은 북한의 3.9배로 높아져

○ 남한의 선철생산능력인 제선능력은 1965년에 북한의 5.2%수준에 불과하였으나 1975년도에는 36.2% 수준, 1985년도에는 1.7배, 1994년도에는 3.9배로 크게 높아졌다.

○ 남한의 제선능력은 1965년에 78천M/T로써, 1975년에 1,100천M/T, 1985년에 8,832천M/T, 1994년도에는 21,350천M/T으로 1965년대비 273.7배 증대되었다.

○ 북한의 제선능력은 1965년에 1,490천M/T로써, 1975년 3,040천M/T, 1985년 5,076천M/T, 1994년도에는 5,413천M/T으로 1965년대비 3.6배 증대에 그쳤다.

— 북한 제선능력이 지난 1965년이후 꾸준히 성장추세를 유지한 원인은 금속공업을 중화학공업의 모체산업으로 중시하여 왔으며 최근에는 수출전략산업으로 중시하였기 때문이다.

〈표 45〉 제 선 능 력

(단위 : 천M/T)

	한 국	북 한	남 북 한	남 / 북 (배)
1965	78	1,490	1,568	0.1
1975	1,100	3,040	4,140	0.4
1985	8,832	5,076	13,908	1.7
1994	21,350	5,413	26,763	3.9

자료 : 통상산업부, 통일원, 한국철강협회 기술부

남한의 제강능력은 북한의 5.9배로 높아져

○ 남한의 제강능력은 1965년도에는 북한의 15.6%에 불과하였으나 1975년도에는 1.0배, 1985년도에는 3.6배, 1994년도에는 5.9배로 남북한 격차가 확대되고 있다.

○ 남한의 제강능력은 1965년도 322천M/T, 1975년 2,852천M/T, 1985년 15,612천M/T, 1994년에는 35,320천M/T으로써 1965년 대비 109.7배 증가하였다.

○ 북한의 제강능력은 1965년도 2,127천M/T, 1975년 2,729천M/T, 1985년 4,300천M/T, 1994년에는 5,980천M/T으로써 1965년 대비 2.8배 증가에 그쳤다.

〈표 46〉 제 강 능 력

(단위 : 천M/T)

	한 국	북 한	남 북 한	남 / 북 (배)
1965	322	2,127	2,449	0.2
1975	2,852	2,729	5,581	1.0
1985	15,612	4,300	19,912	3.6
1994	35,320	5,980	41,300	5.9

자료 : 통상산업부, 통일원, 한국철강협회 기술부

남한의 압연강재생산능력은 북한의 11.5배로 높아져

○ 남한의 압연강재생산능력은 1985년도에는 북한의 4.9배였으나, 1994년도에는 11.5배로 격차가 확대되었다.

○ 남한이 압연강재 생산능력은 1985년 16,505천M/T에서 1994년 46,270천M/T으로써 1985년대비 2.8배 높아졌다.

○ 북한의 압연강재 생산능력은 1985년 3,390천M/T에서 1994년 4,040천M/T으로써 1985년대비 1.2배 높아졌다.

〈표 47〉 압연강재 생산능력

(단위 : 천M/T)

	한 국	북 한	남 북 한	남 / 북 (배)
1985	16,505	3,390	19,895	4.9
1994	46,270	4,040	50,310	11.5

자료 : 통상산업부, 통일원, 한국철강협회 기술부

남한의 연생산능력은 북한의 2.0배

○ 연 생산능력은 1985년도에는 북한의 1.5배, 1994년도에는 2.0배로 격차가 확대되고 있다.

○ 남한의 연생산능력은 1985년도 70.0천M/T, 1994년 176.0천M/T으로 1985년대비 2.5배 높아진 반면 북한의 연생산능력은 1985년도 47.5천M/T, 1994년 87.5천M/T으로써 1985년대비 1.8배 높아졌다.

〈표 48〉 연 생 산 능 력

(단위 : 천M/T)

	한 국	북 한	남 북 한	남 / 북 (배)
1985	70.0	47.5	117.5	1.5
1994	176.0	87.5	263.5	2.0

자료 : 통상산업부, 통일원

남한 아연생산능력은 북한과 유사

○ 아연 생산능력은 1985년도에는 북한의 39.2%에 불과하였으나 1994년에는 남북한 모두 유사한 수준을 보이고 있으며 남한이 약간 많은 편이다.

○ 한국의 아연생산능력은 1985년도 104.0천M/T, 1994년 300.0천M/T으로써 1985년대비 2.9배 높아진 반면 북한의 아연생산능력은 1985년도 265.0천M/T, 1994년 295.0천M/T으로써 1985년대비 11.3% 증가에 그쳤다.

〈표 49〉 아 연 생 산 능 력

(단위 : 천M/T)

	한 국	북 한	남 북 한	남 / 북 (배)
1985	104.0	265.0	369.0	0.4
1994	300.0	295.0	595.0	1.0

자료 : 통상산업부, 통일원

남한의 동 생산능력은 북한의 2.5배

○ 동 생산능력은 1985년도에는 북한의 1.7배였으나, 1994년도에는 2.5배로 격차가 확대되고 있다.

○ 남한의 동 생산능력은 1985년 130.0천M/T, 1994년 225.0천M/T으로써 1985년 대비 1.7배 높아진 반면 북한의 동 생산능력은 1985년도 77.0천M/T, 1994년 90.4천M/T으로써 1985년 대비 1.2배 증가에 그쳤다.

〈표 50〉 동 생 산 능 력

(단위 : 천M/T)

	한 국	북 한	남 북 한	남 / 북 (배)
1985	130.0	77.0	207.0	1.7
1994	225.0	90.4	315.4	2.5

자료 : 통상산업부, 통일원

알루미늄 생산능력은 북한이 앞서

○ 남한의 알루미늄 생산능력은 1985년도에는 북한의 1.8배였으나 1991년도에는 북한의 87.5%수준으로 북한이 앞서고 있다.

○ 남한의 알루미늄 생산능력은 1991년에 17.5천M/T으로 나타났으나 북한의 알루미늄 생산능력은 20.0천M/T으로 14.3% 높은 수준이며, 1992년이후 남한은 알루미늄을 생산하지 않고 있다.

〈표 51〉 알 루 미 늄 생 산 능 력

(단위 : 천M/T)

	한 국	북 한	남 북 한	남 / 북 (배)
1985	17.5	10.0	27.5	1.8
1991	17.5	20.0	37.5	0.9
1994	0.0	20.0	20.0	–

자료 : 통상산업부, 통일원

다. 기계공업

남한 자동차 생산능력은 북한의 95.5배

○ 남한의 자동차생산능력은 1965년도에는 북한의 90%수준이었으나 1975년에 6.9배, 1985년에 21.5배, 1994년도에는 95.5배를 기록하고 있으며 최근 북한의 원유 도입량의 감소로 인하여 자동차공업의 쇠퇴가 예상된다.

○ 남한의 자동차 생산능력은 1965년도 4.5천대, 1975년 166.2천대, 1985년 644.0천대, 1994년도에는 3,153.0천대로써 1965년대비 700.7배 성장한 반면 북한의 자동차 생산능력은 1965년 5.0천대, 1975년 24.0천대, 1994년 33.0천대로써 1965년 대비 6.6배 성장하는데 그쳤다.

〈표 52〉 자동차 생산능력

(단위 : 천대)

	한 국	북 한	남 북 한	남 / 북 (배)
1965	4.5	5.0	9.5	0.9
1975	166.2	24.0	190.2	6.9
1985	644.0	30.0	674.0	21.5
1994	3,153.0	33.0	3,186.0	95.5

자료 : 통상산업부, 통일원

남한의 농기계 생산능력은 북한의 23.6배

○ 남한의 농기계 생산능력은 1985년도에는 북한대비 15.4배를 기록하였으나, 1994년에는 23.6배를 기록함으로써 그 격차가 계속 확대되고 있다.

○ 남한의 농기계 생산능력은 1985년에 493천대, 1994년에는 754천대로써 1985년대비 1.5배 증가한 반면 북한의 농기계 생산능력은 1985년에 32천대, 1994년에 32천대로써 변화가 없다.

〈표 53〉 농 기 계 생 산 능 력

(단위 : 천대)

	한 국	북 한	남 북 한	남 / 북 (배)
1985	493	32	525	15.4
1994	754	32	786	23.6

자료 : 통상산업부, 통일원

남한의 공작기계 생산능력은 북한의 9.4배

○ 남한의 공작기계 생산능력은 1985년도에는 북한대비 4.7배를 기록하고 있으나 1994년에는 9.4배로 확대되었다.

○ 남한의 공작기계 생산능력은 1985년 141천대, 1994년 330천대로써 1985년대비 2.3배 증가한 반면 북한의 공작기계 생산능력은 1985년 30천대, 1994년 35천대로써 1985년대비 1.2배 증가에 그쳤다.

〈표 54〉 공 작 기 계 생 산 능 력

(단위 : 천대)

	한 국	북 한	남 북 한	남 / 북 (배)
1985	141	30	171	4.7
1994	330	35	365	9.4

자료 : 통상산업부, 통일원

남한의 조선능력은 북한의 24.2배

○ 남한의 조선능력은 1985년도에는 북한대비 12.2배, 1994년에는 24.2배를 기록하고 있어 북한의 해운산업과 수산업의 낙후성을 간접적으로 파악 할 수 있다.

○ 남한의 조선능력은 1985년 2,620천G/T, 1994년 5,170천G/T으로써 1985년 대비 2.0배 증가하였으나 북한의 조선능력은 1985년 214천G/T, 1992년 214천G/T으로써 변화가 없다.

〈표 55〉 조 선 능 력

(단위 : 천G/T)

	한 국	북 한	남 북 한	남 / 북 (배)
1985	2,620	214	2,834	12.2
1994	5,170	214	5,384	24.2

자료 : 통상산업부, 통일원

라. 화 학 공 업

1994년도 남한의 화학비료 생산능력은 물량기준으로 북한의 1.2배

○ 남북한간 화학비료 생산능력을 비교해 보면 1965년도에는 남한이 북한의 23.8%수준으로써 북한의 생산능력이 월등하였으나, 1975년에는 북한의 74.7% 수준에서 1994년에는 북한의 1.2배로 남한이 북한을 앞질렀다.

○ 남한의 화학비료 생산능력은 1965년에 170천M/T에서 1994년에 4,252천M/T로 늘어나, 1965년대비 25.0배 확대되었으나 북한의 화학비료 생산능력은 농업의 화학화정책으로 인하여 1965년 713천M/T에서 1994년 3,514천M/T으로 늘어나 1965년대비 4.9배 확대에 그쳤다.

〈표 56〉 화학비료 생산능력

(단위 : 천M/T)

	한 국	북 한	남 북 한	남 / 북 (배)
1965	170	713	883	0.2
1975	1,905	2,550	4,455	0.7
1985	3,098	3,514	6,612	0.9
1994	4,252	3,514	7,766	1.2

자료 : 통상산업부, 통일원

남한의 주요합성섬유 생산능력은 북한의 34배

○ PVC, LDPE, HDPE, PP, PS등 5대 합성수지를 기준으로 한 생산능력을 비교해보면 1985년도에는 남한이 북한대비 12.1배를 나타내고 있으며 1992년에는 34.0배를 기록하고 있다.

○ 남한의 주요합성수지 생산능력은 1985년도 1,109천M/T, 1992년 5,093천M/T으로써 1985년 대비 4.6배 나타낸 반면 북한의 주요합성수지 생산능력은 1985년도 92천M/T, 1992년도 150천M/T으로써 1985년대비 1.6배에 그쳤다.

〈표 57〉 주요 합성수지 생산능력

(단위 : 천M/T)

	한 국	북 한	남 북 한	남 / 북 (배)
1985	1,109	92	1,201	12.1
1992	5,093	150	5,243	34.0

자료 : 통상산업부, 통일원

마. 건 재 공 업

남한의 판유리 생산능력은 북한의 9.5배

○ 남한의 판유리 생산능력은 1965년도에는 북한의 91.3%수준이었으나, 1992년에는 9.5배로 격차가 크게 확대되고 있다.

○ 남한의 판유리 생산능력은 1965년 600천상자에서 1992년 23,650천상자로 늘어나 1965년대비 39.4배 확대되었으며, 북한의 판유리 생산능력은 1965년에 657천상자에서 1992년 2,500천상자로 증가되어 1965년대비 3.8배에 그쳤다.

○ 북한의 판유리 생산능력이 증대된 원인은 6.25사변후 파괴된 산업시설, 주택, 공공건물, 철도 등을 복구하기 위하여 건재공업을 발전시켜 왔기 때문이다.

〈표 58〉 판 유 리 생 산 능 력

(단위 : 천상자)

	한 국	북 한	남 북 한	남 / 북 (배)
1965	600	675	1,257	0.9
1975	2,700	1,582	4,282	1.7
1985	7,690	2,200	9,890	3.5
1992	23,650	2,500	26,150	9.5

자료 : 통상산업부, 통일원

남한의 시멘트 생산능력은 북한의 4.3배

○ 남한의 시멘트 생산능력은 1965년도에는 북한의 73.1%수준이었으나, 1994년에는 4.3배로 격차가 확대되고 있다.

○ 남한의 시멘트 생산능력은 1965년 1,747천M/T에서 1994년 51,634천M/T으로 증가되는 등 1965년대비 29.6배 확대되었으나, 북한의 시멘트 생산능력은 1965년 2,390천M/T에서 1994년 12,020천M/T으로 1965년대비 5.0배로 확대되는데 그쳤다.

〈표 59〉 시 멘 트 생 산 능 력

(단위 : 천M/T)

	한 국	북 한	남 북 한	남 / 북 (배)
1965	1,747	2,390	4,137	0.7
1975	11,196	5,200	16,396	2.2
1985	25,221	9,040	34,261	2.8
1994	51,634	12,020	63,654	4.3

자료 : 통상산업부, 통일원

바. 섬 유 공 업

남한의 섬유생산능력은 북한의 9.4배

○ 남한의 섬유생산능력은 1985년도에는 북한대비 9.4배, 1994년도에는 9.4배를 기록하고 있다.

○ 남한의 섬유생산능력은 1985년 1,237천M/T, 1994년 1,664천M/T으로써 1985년 대비 1.3배 확대되었으며, 북한의 섬유생산능력은 1985년 131천M/T, 1994년 177천M/T으로써 1985년대비 1.4배 확대되었다.

〈표 60〉 섬 유 생 산 능 력

(단위 : 천M/T)

	한 국	북 한	남 북 한	남 / 북 (배)
1985	1,237	131	1,368	9.4
1994	1,664[1)]	177	1,841	9.4

자료 : 통상산업부, 통일원
주 : 1) 섬유사 생산량 기준

남한의 직물생산능력은 북한의 13.1배

○ 남한의 직물생산능력은 1985년도에는 북한대비 9.7배, 1994년도에는 13.1배를 기록하고 있다.

○ 남한의 직물생산능력은 1985년 5,801백만㎡, 1994년 8,799백만㎡로써 1985년대비 1.5배 확대되었으나 북한의 직물생산능력은 1985년 600백만㎡, 1994년 670백만㎡로써 1985년대비 1.1배 확대되었다.

〈표 61〉 직 물 생 산 능 력

(단위 : 백만㎡)

	한 국	북 한	남 북 한	남 / 북 (배)
1985	5,801	600	6,401	9.7
1994	8,799[1)]	670	9,469	13.1

자료 : 통상산업부, 통일원
주 : 1) 편직물은 제외함

사. 전자공업 및 경공업

남한의 TV수상기 생산능력은 북한의 71.1배

○ 남한 TV수상기 생산능력은 1985년도에는 북한대비 22.5배를 기록하고 있으며 1994년 현재에는 71.1배를 기록하고 있다.

○ 남한 TV수상기 생산능력은 1985년 5,400천대, 1994년 18,500천대로써 1985년대비 3.4배로 확대된 반면 북한의 TV수상기 생산능력은 1985년 240천대, 1994년 260천대로써 1985년대비 1.1배 증가에 그쳤다.

〈표 62〉 TV 수 상 기 생 산 능 력

(단위 : 천대)

	한 국	북 한	남 북 한	남 / 북 (배)
1985	5,400	240	5,640	22.5
1994	18,500	260	18,760	71.1

자료 : 통상산업부, 통일원

남한 냉장고 생산능력은 북한의 26.2배

○ 남한 냉장고 생산능력은 1985년도에는 북한대비 65.7배, 1994년도에는 26.2배를 기록하고 있다.

○ 남한 냉장고 생산능력은 1985년 1,970천대, 1994년 3,305천대로써 1985년대비 1.7배로 규모가 확대된 반면 북한 냉장고 생산능력은 1985년 30천대, 1994년 126천대로써 1985년 대비 4.2배 규모가 확대되었다.

〈표 63〉 냉 장 고 생 산 능 력

(단위 : 천M/T)

	한 국	북 한	남 북 한	남 / 북 (배)
1985	1,970	30	2,000	65.7
1994	3,305	126	3,431	26.2

자료 : 통상산업부, 통일원

남한의 신발생산능력은 북한의 3.5배

○ 남한의 신발생산능력은 1965년도에는 북한대비 2.7배, 1975년 3.5배, 1985년 8.5배, 1994년도에는 3.5배를 기록하고 있다.

○ 남한의 신발생산능력은 1965년 100백만족에서 1994년 220백만족으로 1965년대비 2.2배 규모가 확대된 반면 북한의 신발 생산능력은 1965년 37백만족에서 1994년 62백만족으로 1965년 대비 1.7배 확대에 그쳤다.

〈표 64〉 신 발 생 산 능 력

(단위 : 백만족)

	한 국	북 한	남 북 한	남 / 북 (배)
1965	100	37	137	2.7
1975	170	49	219	3.5
1985	495	58	553	8.5
1994	220	62	282	3.5

자료 : 통상산업부, 통일원

9. 에 너 지

가. 에너지공급총량 및 공급구조

남한의 에너지공급총량은 대폭 확대된 반면 북한은 최근 감소

○ 남한의 에너지공급총량은 1965년도 12,055천 TOE(Ton of Oil Equivalent)에서 1992년에 116,011천 TOE로써 1965년 대비 9.6배 증가한 반면 북한의 에너지공급총량은 1965년도 11,853천 TOE에서 1992년 21,384천TOE로 1.8배 증가하였으나 1990년의 27,292천 TOE에 비해 감소함으로써 최근의 에너지난을 반영하고 있다.

○ 남한의 에너지공급총량은 1965년도 북한대비 1.0배에서 1992년에 5.3배로 남북한 격차가 확대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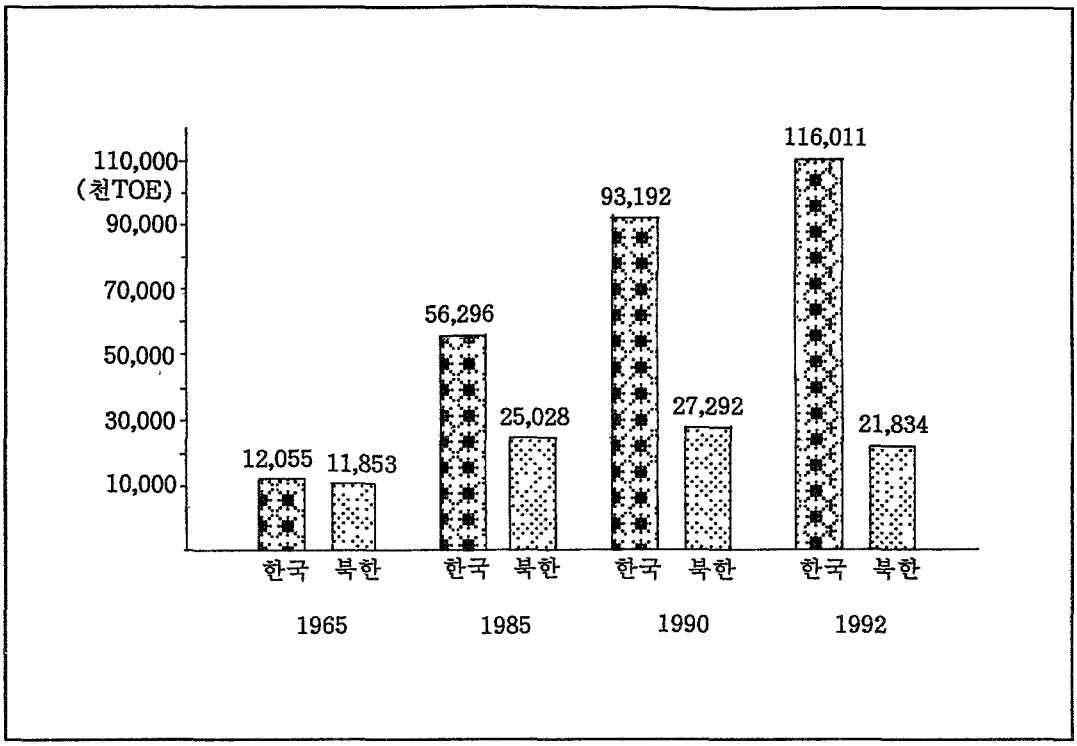
〈표 65〉 에 너 지 공 급 총 량

(단위 : 천 TOE)

	한 국	북 한	남 북 한	남 / 북 (배)
1965	12,055	11,853	23,908	1.0
1985	56,296	25,028	81,324	2.2
1990	93,192	27,292	120,484	3.4
1992	116,011	21,834	137,845	5.3

자료 : 통상산업부, 통일원

〈도 11〉 에 너 지 공 급 총 량



1992년 북한1인당 에너지공급량은 1965년 수준

○ 남한의 1965년도 1인당 에너지 공급량은 0.42TOE에서 1992년에 2.66TOE로써 1965년대비 6.3배 증가한 반면 북한은 1965년에 0.97TOE에서 1992년에 0.98TOE로써 거의 같은 수준을 유지함으로써 최근 북한의 에너지 사정을 나타내 주고 있다.

○ 남한의 1인당 에너지 공급량은 1965년도에는 북한의 43.3%수준으로써 남한의 에너지가 부족하였음을 알 수 있으나 1992년에는 2.7배로 남한의 에너지 공급량이 북한을 크게 앞지르는 등 남북한 격차가 확대되고 있다.

〈표 66〉 1인당 에너지 공급량

(단위 : TOE)

	한 국	북 한	남 북 한	남 / 북 (배)
1965	0.42	0.97	0.58	0.4
1985	1.38	1.25	1.34	1.1
1990	2.17	1.25	1.87	1.7
1992	2.66	0.98	2.09	2.7

자료 : 통상산업부, 통일원

북한의 에너지 공급원은 석탄이 70% 이상, 남한은 석유가 60%

○ 남한의 에너지 공급원은 석탄에서 석유, 원자력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북한은 석탄이 에너지공급원의 70%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 남한의 에너지 공급원은 1965년도에는 석탄이 43.8%, 석유가 12.1% 차지하였으며, 1992년도에는 석유가 61.8%, 석탄 20.4%, 원자력이 12.2%를 차지하여 에너지 공급구조가 다양화되었다.

○ 북한의 에너지공급원은 1965년도에는 석탄이 71.9%, 수력이 15.2%를 차지하였으며, 1992년도에는 석탄이 70.9%, 수력이 16.3%를 차지함으로써 구조변경이 거의 일어나지 않고 있다.

〈표 67〉 에 너 지 공 급 구 조

(단위 : 천TOE, %)

	한 국						북 한				
	계	석탄	석유	수력	원자력	기타	계	석탄	석유	수력	기타
1965	12,055	5,280	1,455	178	—	5,142	11,853	8,519	351	1,797	1,185
(구성비)	(100.0)	(43.8)	(12.1)	(1.5)	(—)	(42.7)	(100.0)	(71.9)	(3.0)	(15.2)	(10.0)
1989	81,659	24,493	40,523	1,140	11,841	3,663	28,742	20,654	2,322	3,754	2,012
(구성비)	(100.0)	(30.0)	(49.6)	(1.4)	(14.5)	(4.5)	(100.0)	(71.9)	(8.1)	(13.1)	(7.0)
1992	116,011	23,618	71,740	1,216	14,133	5,304	21,834	15,476	1,520	3,550	1,288
(구성비)	(100.0)	(20.4)	(61.8)	(1.0)	(12.2)	(4.6)	(100.0)	(70.9)	(7.0)	(16.3)	(5.9)

자료 : 통상산업부, 통일원

나. 석탄 생산량, 원유도입량 및 정유능력

남북한 모두 최근 석탄 생산량 격감

○ 남북한의 석탄생산량을 비교해 보면 북한의 매장량이 남한보다 풍부한 까닭으로 해방이후 지금까지 북한의 생산량이 남한보다 월등하며, 남한의 석탄생산량은 1965년도에는 북한대비 57.4% 수준이었으나 1994년에는 북한대비 29.3%에 불과하다.

○ 남한의 석탄생산량은 1965년에 10,248천M/T에서 1994년에는 7,440천M/T으로 최근 생산량이 격감하고 있는 반면 북한의 석탄생산량은 1965년 17,860천M/T에서 1994년에 25,400천M/T으로 생산량이 증가하였으나 1985년의 37,500천M/T에 비해서는 32.3% 감소하였다.

〈표 68〉 석 탄 생 산 량

(단위 : 천M/T)

	한 국	북 한	남 북 한	남 / 북 (배)
1965	10,248	17,860	28,108	0.6
1975	17,593	20,900	38,493	0.8
1985	22,543	37,500	60,043	0.6
1994	7,440	25,400	32,840	0.3

자료 : 통계청, 통일원

북한의 원유도입량 1990년 이후 격감

○ 남한의 원유도입량은 1965년 11,170천배럴에서 1994년 577,969배럴로 1965년 대비 51.7배로 규모가 크게 증가한 반면 북한의 원유도입량은 1965년에 2,842천배럴에서 1994년에 6,670천배럴로 2.3배 증가에 그쳤으며, 1990년대비 63.9%나 감소하였는데, 이는 구소련의 몰락으로 러시아에서 원유도입에 대한 경화결제요구로 북한의 외환사정이 어려워 원유도입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 남북한간 비교하여 보면 1965년 남한의 원유도입량은 북한의 3.9배, 1985년에는 13.8배, 1990년 16.7배, 1994년에는 86.7배에 달하고 있다.

〈표 69〉 원 유 도 입 량

(단위 : 천배럴)

	한 국	북 한	남 북 한	남 / 북 (배)
1965	11,170	2,842	14,012	3.9
1985	198,313	14,367	212,680	13.8
1990	308,368	18,472	326,840	16.7
1994	577,969	6,670	584,639	86.7

자료 : 통상산업부, 통일원

남한의 정유능력 북한의 24.6배

○ 남한의 정유능력은 1975년 440천 BPSD(Barrel Per Stream Day)에서 1994년에 1,700천 BPSD로 규모가 1975년대비 3.9배로 확대된 반면 북한의 정유능력은 1975년에 20천BPSD에서 1994년에 69천 BPSD로 3.5배 늘어났다.

○ 남북한간 정유능력을 비교하여 보면 1994년에 남한의 정유능력이 1,700천 BPSD로써 북한의 69천BPSD에 비해 24.6배에 달하고 있다.

〈표 70〉 정 유 능 력

(단위 : 천BPSD)

	한 국	북 한	남 북 한	남 / 북 (배)
1975	440	20	460	22.0
1985	790	69	859	11.4
1994	1,700	69	1,769	24.6

자료 : 통상산업부, 통일원

다. 발전시설용량과 발전량

북한 발전시설용량 수력이 화력을 앞서

○ 남한의 발전용량은 1965년 769천kw로써 북한의 2,385천KW에 비하여 32.2% 수준에 불과하였으나 1994년에는 28,750천KW로써 북한의 7,237천KW에 비해 4.0배에 달하고 있다.

○ 남한의 발전용량에 대한 구성은 1965년도에는 화력이 72.0%, 수력이 28.0%를 차지하였으나 1994년에는 화력이 64.8%, 원자력이 26.5%, 수력이 8.7%로써 화력과 수력의 비중은 감소하고 있는 반면 원자력은 증가하고 있다.

○ 북한의 발전용량에 대한 구성을 보면 포장수력이 풍부하기 때문에 수력이 우세하다. 1965년도에는 수력이 88.3%, 화력이 11.7%이었으나 1994년에는 수력이 60.0%, 화력이 40.0%로써 화력의 비중이 높아지긴 했으나 해방후 지금까지 수력위주의 전력을 생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71〉 발 전 시 설 용 량

(단위 : 천kw)

	한국				북한			A/B (배)
	계(A)	수 력	화 력	원자력	계(B)	수 력	화 력	
1965	769	215	554	—	2,385	2,105	280	0.3
(구성비)	(100.0)	(28.0)	(72.0)	(—)	(100.0)	(88.3)	(11.7)	
1975	4,720	621	4,099	—	4,530	2,730	1,800	1.0
(구성비)	(100.0)	(13.2)	(86.8)	(—)	(100.0)	(60.3)	(39.7)	
1985	16,137	2,223	11,048	2,866	5,962	3,362	2,600	2.7
(구성비)	(100.0)	(13.8)	(68.5)	(17.8)	(100.0)	(56.4)	(43.6)	
1993	27,654	2,504	17,354	7,616	7,142	4,292	2,850	3.9
(구성비)	(100.0)	(9.1)	(63.4)	(27.5)	(100.0)	(60.1)	(39.9)	
1994	28,750	2,493	18,641	7,616	7,237	4,337	2,900	4.0
(구성비)	(100.0)	(8.7)	(64.8)	(26.5)	(100.0)	(60.0)	(40.0)	

자료 : 한국전력공사, 통일원

남한 발전량은 북한의 7.1배

○ 남한의 발전량은 1965년에 33억kwh에서 1994년에 1,650억kwh로 50배나 늘어났으나, 북한은 1965년에 132억kwh에서 1994년에 231억kwh로 75% 증가에 그쳤다.

- 특히 북한의 발전량은 1985년에 252억kwh에서 1994년에 231억kwh로 지난 9년동안 8.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 이처럼 감소한 이유는 발전시설의 노후화, 석탄공급의 부족 및 저열탄의 사용, 에너지 관리기술의 낙후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 남북한간 발전량을 비교해 보면 남한 발전량은 1965년에는 북한대비 25% 수준이었으나 1994년에는 7.1배로 크게 늘어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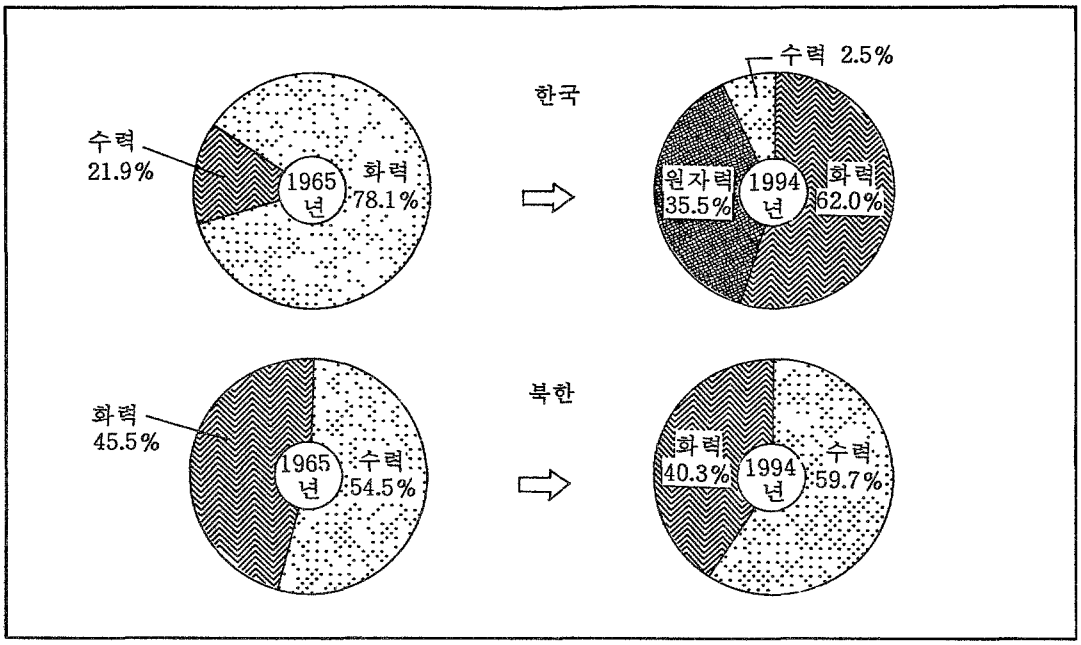
〈표 72〉 발 전 량

(단위 : 억kwh)

	한국				북한			A/B (배)
	계(A)	수 력	화 력	원자력	계(B)	수 력	화 력	
1965	33	7	25	—	132	72	60	0.3
(구성비)	(100.0)	(21.9)	(78.1)	(—)	(100.0)	(54.5)	(45.5)	
1975	198	17	182	—	183	98	85	1.1
(구성비)	(100.0)	(8.5)	(91.5)	(—)	(100.0)	(53.6)	(46.4)	
1985	580	37	376	167	252	124	128	2.3
(구성비)	(100.0)	(6.3)	(64.8)	(28.9)	(100.0)	(49.2)	(50.8)	
1992	1,310	49	696	565	247	142	105	5.3
(구성비)	(100.0)	(3.7)	(53.1)	(43.2)	(100.0)	(57.5)	(42.5)	
1994	1,650	41	1,022	587	231	138	93	7.1
(구성비)	(100.0)	(2.5)	(62.0)	(35.5)	(100.0)	(59.7)	(40.3)	

자료 : 한국전력공사, 통일원

〈도 12〉 발 전 량 구 성 비


수력
21.9%
1965
년
화력
78.1%
한국
수력 2.5%
원자력
35.5%
1994
년
화력
62.0%
화력
45.5%
1965
년
수력
54.5%
북한
화력
40.3%
1994
년
수력
59.7%

10. 사회간접자본

가. 철 도

남한의 철도총연장 북한의 1.3배

○ 남한의 철도총연장은 1970년에 5,500km에서 1994년에는 6,559km로써 1970년에 비해 19.3% 증가하였으며, 북한의 철도총연장은 1970년에 4,043km에서 1994년에는 5,112km로써 1970년에 비해 26.4% 증가하였다.

- 북한의 철도총연장이 남한과 비슷한 이유는 북한이 지형적인 제약과 유류절약을 위하여 도로건설보다 철도건설에 비중을 두었기 때문이며, 북한의 철도는 단선이기 때문에 수송능력은 남한에 비해 뒤떨어지고 있다.

○ 남북한간 철도총연장을 비교해 보면 1970년에는 남한이 북한에 비하여 36.0% 길었으며, 1994년에는 28.3%가 더 긴 것으로 나타났다.

〈표 73〉 철 도 총 연 장

(단위 : km)

	한 국	북 한	남 북 한	남 / 북 (배)
1970	5,500	4,043	9,543	1.4
1980	6,007	4,370	10,377	1.4
1990	6,435	5,045	11,480	1.3
1994	6,559	5,112	11,671	1.3

자료 : 철도청, 통일원

1994년도 북한의 전철화율은 75.3%

○ 남한의 전철총연장은 1985년도에 432㎞에서 1994년에 557.4㎞로 지난 9년 동안 29.1% 증가되었으며, 북한은 1985년에 2,741㎞에서 1994년에 3,850㎞로 40.5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남한의 전철화율은 1985년도에는 6.9%, 1994년에는 8.5%를 차지하고 있으며, 북한의 전철화율은 1985년도에는 60.7%, 1994년에는 75.3%를 차지함으로써 북한의 전철화율이 남한보다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북한의 철도가 전기화된 이유는 노후된 디젤기관차를 대체하고 유류절약을 기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표 74〉 전철총연장 및 전철화율

(단위 : ㎞, %)

	한 국		북 한		남 북 한		A/B (배)
	전철 총연장 (A)	전철 화율	전철 총연장 (B)	전철 화율	전철 총연장	전철 화율	
1985	432	6.9	2,741	60.7	3,173	29.3	0.16
1990	524.5	8.2	3,194	63.3	3,718.5	32.4	0.16
1994	557.4	8.5	3,850	75.3	4,407.4	37.8	0.14

자료 : 철도청, 통일원

1994년 남한 지하철 총연장 북한의 4.8배

○ 남한의 지하철총연장은 1975년에 7.8㎞에서 1994년에 164.1㎞로 지난 19년간 20.7배나 신장하였으며, 북한은 같은 기간동안 12㎞에서 34㎞로 미증에 그쳤다.

○ 남북한간 비교해 보면 1994년에 남한이 164.1km로서 북한의 34km에 비해 4.8배 긴 것으로 나타났다.

〈표 75〉 지 하 철 총 연 장

(단위 : km)

	한 국	북 한	남 북 한	남 / 북 (배)
1975	7.8	12.0	19.8	0.7
1985	132.7	32.0	164.7	4.1
1990	149.7	34.0	183.7	4.4
1994	164.1	34.0	198.1	4.8

자료 : 건설교통부, 통일원

나. 육로 및 해운

1994년 남한도로총연장 북한의 3.2배

○ 남한의 도로총연장은 1970년 40,244km에서 1994년 73,833km로 1970년 대비 1.8배 확대되었으며, 북한의 도로총연장은 1970년에 20,000km에서 1994년에 23,219km로 1.2배 확대되는데 그쳤는데 대부분 비포장도로이며 산간오지수송을 담당하고 있다. 이와 같이 북한의 도로발달이 미약한 이유는 도로운송을 철도운송의 보조적 역할로 생각하고 있으며 유류를 절약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 남한의 도로총연장은 1970년도에는 북한에 비하여 2.0배로 나타났으나, 1980년도에는 2.2배, 1990년도에는 2.5배, 1994년도에는 3.2배로 격차가 점차 확대되고 있다.

〈표 76〉 도 로 총 연 장

(단위 : km)

	한 국	북 한	남 북 한	남 / 북 (배)
1970	40,244	20,000	60,244	2.0
1980	46,951	21,000	67,951	2.2
1990	56,715	23,000	79,715	2.5
1994	73,833	23,219	97,052	3.2

자료 : 건설교통부, 통일원

1994년 남한 고속도로 길이 북한의 3.1배

○ 남한의 고속도로 길이는 1975년 1,142km에서 1994년 1,650km로 지난 19년동안 44.5% 늘어났으며, 북한의 고속도로 길이는 1975년 15km에서 1994년 524km로 34.9배나 확대되었다.

○ 남북한간 고속도로 길이를 비교해 보면 남한의 고속도로 길이는 1975년의 경우 북한에 비하여 76.1배를 나타내고 있으며, 1985년도에는 북한의 5.9배, 1994년에는 북한의 3.1배를 나타내고 있는 등 남한의 고속도로 길이가 북한보다 훨씬 긴 것으로 나타났다.

〈표 77〉 고 속 도 로 길 이

(단위 : km)

	한 국	북 한	남 북 한	남 / 북 (배)
1975	1,142	15	1,157	76.1
1985	1,415	240	1,655	5.9
1990	1,550	354	1,904	4.4
1994	1,650	524	2,174	3.1

자료 : 건설교통부, 통일원

1994년 남한 항만하역능력 북한의 7.9배

○ 북한의 해운은 바다가 동서로 단절된 여건과 중국, 러시아와의 교역이 육상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해운은 발전되지 못하였으며, 남한의 항만하역능력은 1980년도에는 북한에 비하여 3.6배를 나타내고 있으며, 1990년에는 6.4배, 1994년에는 북한의 7.9배를 기록하고 있다.

○ 남한의 항만하역능력은 1980년의 112,886천톤에서 1994년 276,200천톤으로 1980년 대비 2.4배 확대되었으며, 북한의 항만하역능력은 1980년의 30,980천톤에서 1994년 35,010천톤으로 1980년대비 1.1배 확대되었으나 자유경제무역지대의 증설로 인하여 항만하역능력이 나아질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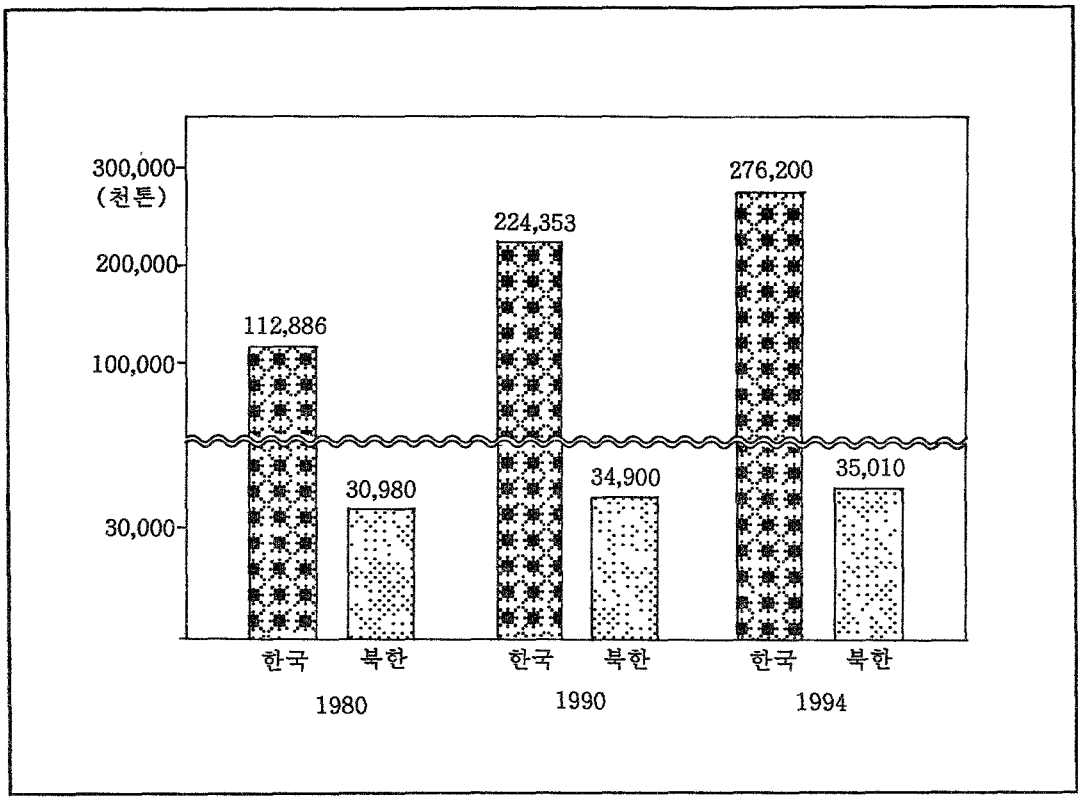
〈표 78〉 항 만 하 역 능 력

(단위 : 천톤)

	한 국	북 한	남 북 한	남 / 북 (배)
1980	112,886	30,980	143,866	3.6
1990	224,353	34,900	259,253	6.4
1994	276,200	35,010	311,210	7.9

자료 : 해운항만청, 통일원

〈도 13〉 항 만 하 역 능 력


300,000
(천톤)
200,000
100,000
30,000
112,886
30,980
224,353
34,900
276,200
35,010
한국
북한
한국
북한
한국
북한
1980
1990
1994

다. 수 송 수 단

북한의 철도는 화물중심으로 운영

○ 남한의 철도차량은 1994년에 기관차가 582대(3.3%), 객차가 1,868대(10.6%), 화차가 15,191대(86.1%)이며, 북한은 각각 1,171대(5.3%) 1,044대(4.7%), 20,088대(90.1%)로 나타나 화차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남한의 기관차량 보유대수는 1994년의 경우 북한대비 0.5배, 객차는 1.8배, 화차는 0.8배로써 북한의 철도는 여객보다 화물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79〉 철 도 차 량 보 유 대 수

(단위 : 량)

	한	국		북	한	
	기관차	객 차	화 차	기관차	객 차	화 차
1985	561	2,168	16,133	1,074	860	22,000
(구성비)	(3.0)	(11.5)	(85.5)	(4.5)	(3.6)	(91.9)
1994	582	1,868	15,191	1,171	1,044	20,088
(구성비)	(3.3)	(10.6)	(86.1)	(5.3)	(4.7)	(90.1)

자료 : 철도청, 통일원

1994년 남한의 자동차 보유대수는 북한의 27.0배

○ 남한의 자동차 보유대수는 1994년 7,404.3천대인 반면, 북한의 자동차 보유대수는 1994년에 274.0천대로 남한이 북한보다 27.0배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80〉 자 동 차 보 유 대 수

(단위 : 천대)

	한 국	북 한	남 북 한	남 / 북 (배)
1970	126.5	70.0	196.5	1.8
1994	7,404.3	274.0	7,678.3	27.0

자료 : 건설교통부, 통일원

남한의 1994년 항공기 보유대수 북한의 10.2배

○ 남한의 항공기 보유대수는 1994년 현재 215대로써 북한의 21대보다 10.2배에 달하고 있다.

〈표 81〉 항 공 기 보 유 대 수

(단위 : 대)

	한 국	북 한	남 북 한	남 / 북 (배)
1980	92	14	106	6.6
1990	179	18	197	9.9
1994	215	21	236	10.2

자료 : 건설교통부, 통일원

1994년 남한 선박보유톤수 북한의 7.3배

○ 남한의 선박보유톤수는 1975년도에는 208만 G/T로써 북한의 12만 G/T보다 17.3배 달하고 있으며 1994년도에는 650만 G/T로써 북한의 89만 G/T보다 7.3배에 달하고 있다.

〈표 82〉 선 박 보 유 톤 수

(단위 : 만G/T)

	한 국	북 한	남 북 한	남 / 북 (배)
1975	208	12	220	17.3
1980	417	38	455	11.0
1990	711	54	765	13.2
1994	650	89	739	7.3

자료 : 해운항만청, 통일원, 한국은행

11. 대외거래 및 경제협력

가. 대 외 거 래

남한의 1994년 무역총액 북한의 94배

○ 남한의 1965년 무역총액은 6.0억달러에 불과하였으나 1994년에는 1,983.6억 달러를 기록함으로써 1965년 대비 330.6배의 신장세를 보였다.

- 북한의 무역총액은 1965년도에는 3.9억달러였으나 1985년에 31.0억달러, 1990년에 46.4억달러를 기록하여 상승추세를 보이다가 1991년 구소련의 붕괴이후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으며 1994년에는 21.1억 달러로써 1965년 대비 5.4배 증가에 그쳤다.
- 북한의 무역총액이 1991년 이후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는 이유는 러시아의 경화결제요구 및 중국의 일부품목에 대한 경화결제요구로 무역규모가 축소된데에 기인한다.

○ 남북한간 비교해보면 남한의 1965년 무역총액은 북한에 비하여 1.5배를 나타냈으나, 1975년도에는 6.1배, 1985년도에는 20.0배, 1994년 현재 94.0배를 기록하여 그 격차가 커지고 있다.

〈표 83〉 무 역 총 액

(단위 : 억달러)

	한 국	북 한	남 북 한	남 / 북 (배)
1965	6.0	3.9	9.9	1.5
1975	116.7	19.1	135.8	6.1
1985	614.2	31.0	645.2	20.0
1990	1,348.6	46.4	1,395.0	29.1
1994	1,983.6	21.1	2,004.7	94.0

자료 : 관세청, 통일원

북한의 무역수지 만성적인 적자

○ 무역규모를 수출입을 나누어 보면 1994년 남한의 수출은 960.1억달러, 수입은 1,023.5억달러로써 통관기준 무역수지가 −63.4억달러이었다.

○ 북한의 경우 1994년 수출은 8.4억달러, 수입은 12.7억달러로써 무역수지는 −4.3억달러로 나타났다.

- 북한의 무역수지는 1965년 −0.1억달러, 1975년 −2.7억달러, 1985년 −4.7억달러, 1990년 −6.0억달러에 이어, 1994년에도 −4.3억달러를 기록하는 등 만성적인 적자가 계속되고 있다.
- 1990년이후 무역수지 적자 폭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데 그 원인은 중국의 대북한 원유 수출가격의 인상 및 러시아의 대북한 수출가격의 국제시세화와 곡물수입 증대에 기인하고 있다.

〈표 84〉 무 역 수 지

(단위 : 억달러)

	한국			북한			남/북(배)	
	수 출	수 입	무역수지	수 출	수 입	무역수지	수 출	수 입
1965	1.8	4.2	−2.4	1.9	2.0	−0.1	0.9	2.1
1975	50.0	66.7	−16.7	8.2	10.9	−2.7	6.1	6.1
1985	302.8	311.4	−8.4	13.1	17.8	−4.7	23.1	17.5
1990	650.2	698.4	−48.2	20.2	26.2	−6.0	32.2	26.7
1994	960.1	1,023.5	−63.4	8.4	12.7	−4.3	114.3	80.6

자료 : 관세청, 통일원

북한의 1994년 무역의존도 10%수준

○ 남한의 GNP대비 무역총액의 비율인 무역의존도는 1965년도에는 20.0%에서, 1994년도에는 52.6%로 높아졌다.

○ 북한의 무역의존도는 1965년 20.5%에서, 1994년에는 10.0%로 떨어졌다.

○ 일반적으로는 무역의존도가 낮은 나라는 국내부존자원이 풍부한 경우가 대부분인데 북한의 무역의존도가 낮은 원인은 북한의 주요 경제운용의 기본원칙인 자력갱생의 원칙과 대외지불능력의 부족에 기인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표 85〉 무 역 의 존 도

(단위 : %)

	한 국	북 한
1965	20.0	20.5
1975	55.8	29.4
1985	68.5	20.5
1994	52.6	10.0

자료 : 통계청, 통일원

나. 외 채

남한의 순외채는 북한보다 적어

○ 남한의 총외채는 1980년도에는 271.7억달러, 1990년도에는 317.0억 달러였으며, 1994년에는 568.5억달러를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남한의 순외채는

1980년도 196.3억달러에서 1994년에는 103.1억달러로 감소하고 있다.

○ 북한의 외채는 만성적인 무역수지적자 등으로 인하여 외채의 규모가 계속 증가하였다. 1980년도의 북한의 총외채는 22.3억달러, 1990년 78.6억달러이었으며, 1994년에는 106.6억달러를 나타내고 있다.

〈표 86〉 외 채

(단위 : 억달러)

	한 국		북 한		남 북 한		남 / 북 (배)	
	총외채	순외채	총외채	순외채	총외채	순외채	총외채	순외채
1980	271.7	196.3	22.3	22.3	294.0	218.6	12.2	8.8
1985	467.6	355.4	29.0	29.0	496.6	384.4	16.1	12.3
1990	317.0	63.7	78.6	78.6	395.6	142.3	4.0	0.8
1994	568.5	103.1	106.6	106.6	675.1	209.7	5.3	1.0

자료 : 재정경제원, 통일원

북한 1994년 외채/GNP비율 50%넘어

○ 남한의 GNP에 대한 총외채의 비율인 외채/GNP비율은 1994년에 15.1%에 불과한데 비해 북한은 50.3%로써 남한보다 월등히 높은 수준에 있다.

○ 남한의 외채/GNP비율은 1980년도에는 44.9%, 1985년 52.1%이었으나 계속 감소하여 1990년 13.1%, 1994년에는 15.1%를 나타내고 있다.

○ 북한의 외채/GNP비율은 1980년도에는 16.5%, 1985년에는 19.2%에 불과하였으나 1990년에는 34.0%, 1994년에는 현재 50.3%를 기록함으로써 외채의 비중이 계속 높아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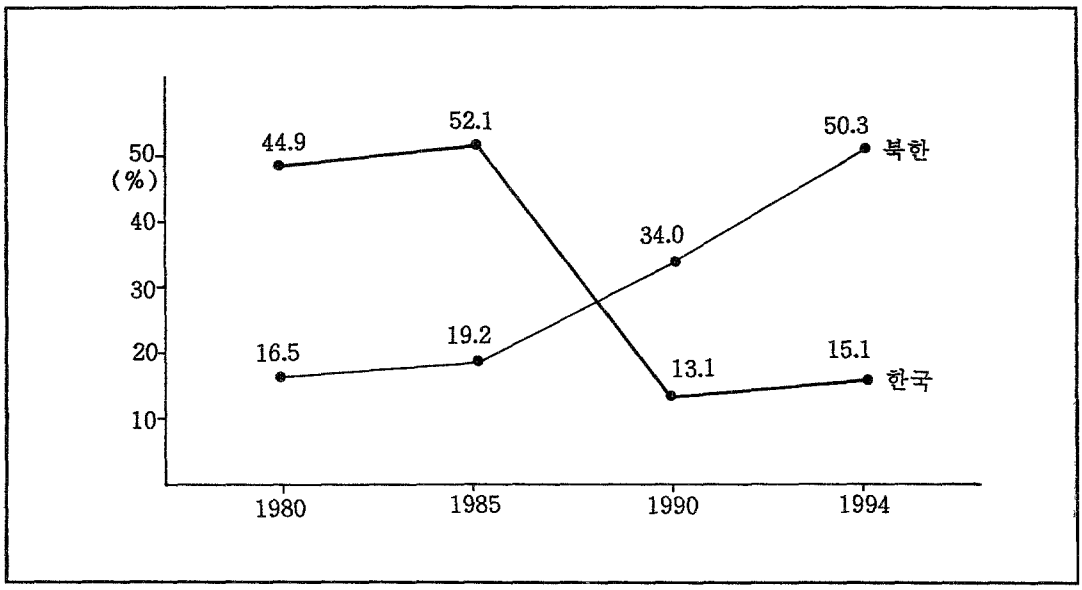
〈표 87〉 외채 / GNP 비율

(단위 : %)

	한 국	북 한	남 북 한
1980	44.9	16.5	39.7
1985	52.1	19.2	47.4
1990	13.1	34.0	14.9
1994	15.1	50.3	17.0

자료 : 통계청, 통일원

〈도 14〉 외채 / GNP 비율



12. 남북한 교류

가. 인적교류

1989~1995(1~5월)중 북한 방문자수 약 700여명

○ 우리 정부의 1989년 6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기본지침에 따라 인적교류가 이루어지고 있다.

○ 1989년이후 1995년 5월말 현재 북한방문 승인은 49건(811명)으로써 이중 34건(744명)이 성사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1990~1992년중에 방북자가 가장 많았던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88〉 북 한 방 문

	승 인		성 사	
	건 수	명	건 수	명
1989	1	1	1	1
1990	6	187	3	183
1991	11	243	10	237
1992	8	257	8	257
1993	5	19	4	18
1994	7	54	1	12
1995 (1~5월)	11	50	7	36
계	49	811	34	744

자료 : 통일원

남한 방문자수 575명

○ 1989년이후 1995년 5월말 현재 남한방문 승인은 14건에 597명으로써 이중 12건에 575명이 성사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89〉 남 한 방 문

	승인		성사	
	건 수	명	건 수	명
1990	5	306	4	291
1991	3	175	3	175
1992	3	103	3	103
1993	2	6	2	6
1994	—	—	—	—
1995(1~5월)	1	7	—	—
계	14	597	12	575

자료 : 통일원

제3국에서 남북주민간 접촉자수 4,421명

○ 1989년 이후 1995년 5월말 현재 제3국에서 남북주민간 접촉 승인은 4,577건에 11,109명이며, 이중 1,316건에 4,421명이 성사되었다.

〈표 90〉 남 북 주 민 간 접 촉

	승인		성사	
	건 수	명	건 수	명
1989	21	22	—	—
1990	206	652	62	377
1991	685	2,047	266	1,173
1992	744	2,250	238	1,015
1993	1,148	2,182	313	707
1994	1,261	2,673	237	691
1995(1~5월)	512	1,283	200	458
계	4,577	11,109	1,316	4,421

자료 : 통일원

학술분야 남북주민간 접촉자수 제일 많아

○ 제3국에서 분야별 남북주민간 접촉 실태를 살펴보면 학술분야가 76건(1,125명), 경제분야 370건(873명), 이산가족 상봉이 706건(785명), 종교분야가 32건(287명)순으로 나타났다.

〈표 91〉 분야별 남북주민간 접촉(1989~1995년 5월)

	승인		성사	
	건수	명	건수	명
이산가족	2,197	2,375	706	785
학술	327	1,966	76	1,125
문화	151	835	21	394
종교	134	599	32	287
체육	84	206	15	61
경제	1,290	3,390	370	873
언론출판	126	379	24	91
관광교통	101	312	27	81
기타	167	1,047	45	724
계	4,577	11,109	1,316	4,421

자료 : 통일원

나. 물적교류

1988년 이후 반출입승인액 약 10억달러

○ 우리 정부의 1988년 7월 7일 선언 및 후속조치인 10월의 대북 경제 개방조치에 따라 남북물자교역이 꾸준히 증가되어 왔다.

— 북한은 남북교역을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직교역건수는 미미한 실정이며, 대부분 홍콩, 일본, 중국 등을 중개지로 하는 간접교역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

○ 1988년 이후 1995년 5월말까지 반입승인 건수는 2,217건으로써 904,983천달러에 이르고 있으며, 반출승인건수 및 금액도 546건에 111,938천달러에 이르고 있고, 총교역액은 2,763건에 1,016,921천달러에 이르고 있다.

〈표 92〉 반 출 입 승 인 현 황

	반 입			반 출			합 계		
	건수	품목수	금액(천달러)	건수	품목수	금액(천달러)	건수	품목수	금액(천달러)
1988	4	4	1,037	—	—	—	4	4	1,037
1989	57	20	22,235	1	1	69	58	21	22,304
1990	75	26	20,354	4	4	4,731	79	30	25,085
1991	328	92	165,996	40	48	26,176	368	140	192,172
1992	365	93	200,685	42	34	12,818	407	127	213,503
1993	478	87	188,528	76	39	10,262	554	126	198,790
1994	601	92	203,521	173	50	25,423	774	142	228,944
1995 (1~5월)	309	64	102,627	210	48	32,459	519	112	135,086
계	2,217		904,983	546		111,938	2,763		1,016,921

자료 : 통일원

남한은 북한의 3위 교역국으로 부상

○ 1989년 이후 1995년 4월말까지의 북한 반출입 통관현황을 살펴보면 반입은 2,542건에 728,114천달러에 이르고 있으며, 반출은 833건에 60,173천달러로써 총교역액은 788,287천달러로 나타났다.

〈표 93〉 반 출 입 통 관 현 황

	반 입			반 출			합 계		
	건수	품목수	금액(천달러)	건수	품목수	금액(천달러)	건수	품목수	금액(천달러)
1989	66	24	18,655	1	1	69	67	25	18,724
1990	78	21	12,278	4	3	1,187	82	24	13,465
1991	300	50	105,722	23	17	5,547	323	67	111,269
1992	510	81	162,863	63	24	10,563	573	105	173,426
1993	601	77	178,166	97	21	8,425	698	98	186,591
1994	708	83	176,298	267	42	18,248	975	125	194,546
1995 (1~4월)	279	59	74,132	378	37	16,134	657	96	90,266
계	2,542	—	728,114	833	—	60,173	3,375	—	788,287

자료 : 통일원

○ 1994년도 통관기준으로 남한과 북한간의 총교역액은 194,546천달러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교역규모는 북한의 교역국 기준으로 볼때 중국, 일본에 이어 3위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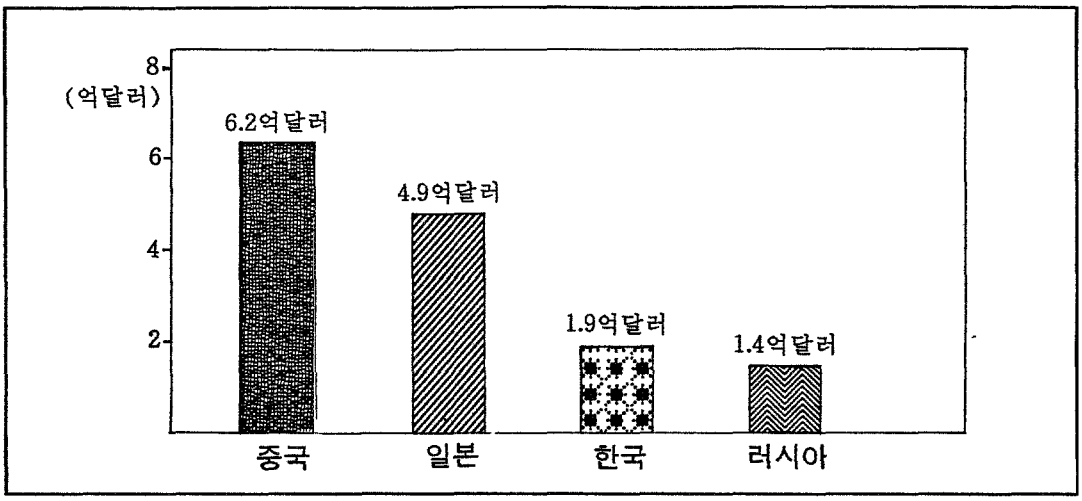
〈표 94〉 1994년 북한의 주요국별 교역규모

(단위 : 억달러)

	합 계	중 국	일 본	한 국	러시아	기 타
금 액	21.1	6.2	4.9	1.9	1.4	6.7
(구성비)	(100.0)	(29.6)	(23.5)	(9.0)	(6.6)	(31.3)

자료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도 15〉 1994년 북한의 주요 교역국



반출승인액중 위탁가공 비중 높아

○ 우리나라의 대기업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위탁가공교역액은 1988년 이후 1995년 5월말 현재까지 56,772천달러로써 총반출입승인액의 5.6%를 차지하고 있으며 계속 늘어나는 추세에 있다.

○ 반입승인액중 위탁가공이 차지하는 비율은 1992년 0.3%, 1993년 2.3%, 1994년 8.2%를 차지하였으며, 반출승인액중 위탁가공이 차지하는 비율은 1992년 3.2%, 1993년 35.2%, 1994년 47.1%를 차지하였다.

〈표 95〉 위탁가공교역 승인현황

(단위 : 천달러)

	반 입		반 출		합 계	
	금 액	위탁가공	금 액	위탁가공	금 액	위탁가공
1991	165,996	23	26,176	13	192,172	36
(구성비)	(100.0)	(0.3)	(100.0)	(0.0)	(100.0)	(0.0)
1992	200,685	556	12,818	413	213,503	969
(구성비)	(100.0)	(0.3)	(100.0)	(3.2)	(100.0)	(0.5)
1993	188,528	4,385	10,262	3,611	198,790	7,996
(구성비)	(100.0)	(2.3)	(100.0)	(35.2)	(100.0)	(4.0)
1994	203,521	16,598	25,423	11,966	228,944	28,564
(구성비)	(100.0)	(8.2)	(100.0)	(47.1)	(100.0)	(12.5)
1995(1~5월)	102,627	10,742	32,459	8,465	135,086	19,207
(구성비)	(100.0)	(10.5)	(100.0)	(26.1)	(100.0)	(14.2)
계(88~95.5)	904,983	32,304	111,938	24,468	1,016,921	56,772
(구성비)	(100.0)	(3.6)	(100.0)	(21.9)	(100.0)	(5.6)

자료 : 통일원

반입승인 및 통관품목중 철강금속의 비중 높아

○ 반입승인 품목구조를 분석해 보면 철강금속이 1994년에 64.0%를 차지하였으며, 농림산물은 14.8%, 섬유류는 11.3%를 차지하였다.

〈표 96〉 반입승인 품목구조

(단위 : 천달러, %)

	농림산물	수산물	광산물	철강금속	섬유류	화학제품	기 타	합 계
1989	510	357	3,596	15,945	1,479	—	348	22,235
(구성비)	(2.3)	(1.6)	(16.2)	(71.7)	(6.6)	(—)	(1.6)	(100.0)
1993	16,060	4,163	1,084	151,316	11,182	617	4,106	188,528
(구성비)	(8.5)	(2.2)	(0.6)	(80.3)	(5.9)	(0.3)	(2.2)	(100.0)
1994	30,215	4,200	4,522	130,351	22,918	952	10,363	203,521
(구성비)	(14.8)	(2.1)	(2.2)	(64.0)	(11.3)	(0.5)	(5.1)	(100.0)

자료 : 통일원

○ 반입통관 품목구조를 분석해보면 반입승인 품목구조와 마찬가지로 철강금속이 1989년 80.8%, 1992년 77.0%, 1994년 77.3%를 차지함으로써 비중이 가장 높았다.

〈표 97〉 반입통관 품목구조

(단위 : 천달러, %)

	농림산물	수산물	광산물	철강금속	섬유류	화학제품	기 타	합 계
1989	414	174	1,094	15,073	1,311	—	589	18,655
(구성비)	(2.2)	(0.9)	(5.9)	(80.8)	(7.0)	(—)	(3.2)	(100.0)
1992	10,435	5,085	14,579	125,416	3,683	1,248	2,417	162,863
(구성비)	(6.4)	(3.1)	(8.9)	(77.0)	(2.3)	(0.8)	(1.5)	(100.0)
1994	9,916	2,723	1,448	136,340	18,500	954	6,417	176,298
(구성비)	(5.6)	(1.6)	(0.8)	(77.3)	(10.5)	(0.6)	(3.6)	(100.0)

자료 : 통일원

반출승인 및 통관 품목구조중 섬유류 비중 높아

○ 반출승인 품목구조를 분석해 보면 섬유류가 1994년 54.3%를 차지하였고 화학제품이 23.4%를 차지하였다.

〈표 98〉 반출승인 품목구조

(단위 : 천달러, %)

	농림수산물	섬유류	전기전자제품	기계류	화학제품	철강류	기타	합계
1989	—	69	—	—	—	—	—	69
(구성비)	(—)	(100.0)	(—)	(—)	(—)	(—)	(—)	(100.0)
1993	491	7,217	500	179	936	39	900	10,262
(구성비)	(4.8)	(70.4)	(4.9)	(1.7)	(9.1)	(0.4)	(8.7)	(100.0)
1994	50	13,794	—	80	5,957	151	5,391	25,423
(구성비)	(0.2)	(54.3)	(—)	(0.3)	(23.4)	(0.6)	(21.2)	(100.0)

자료 : 통일원

○ 반출통관 품목구조도 반출승인 품목구조와 유사하게 섬유류가 1989년 100%, 1993년 74.5%, 1994년 70.5%를 차지함으로써 비중이 가장 높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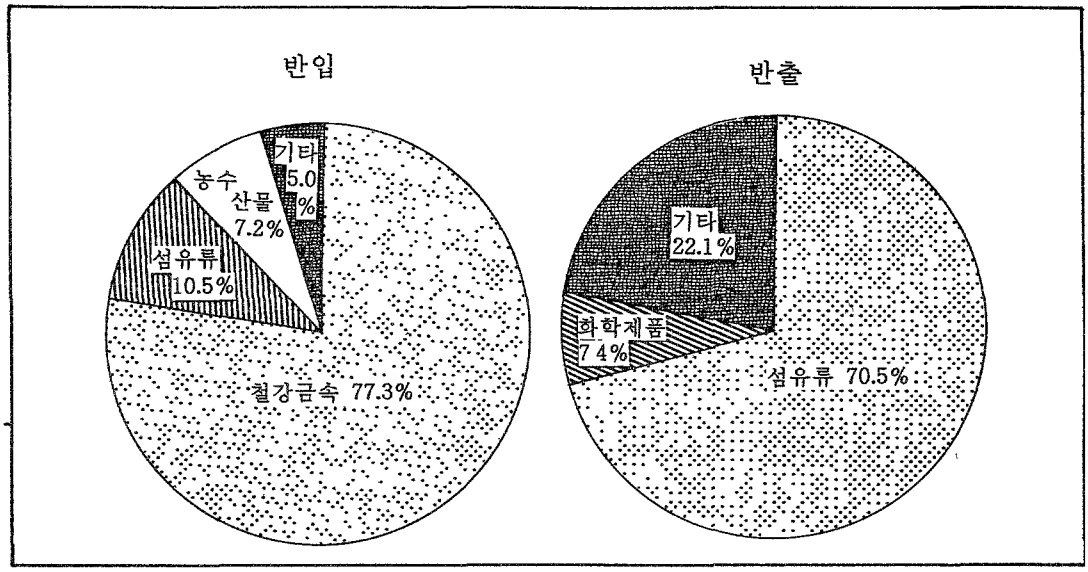
〈표 99〉 반출통관 품목구조

(단위 : 천달러, %)

	농림수산물	섬유류	전기전자제품	기계류	화학제품	철강류	기타	합계
1989	—	69	—	—	—	—	—	69
(구성비)	(—)	(100.0)	(—)	(—)	(—)	(—)	(—)	(100.0)
1993	6	6,274	463	—	1,096	34	552	8,425
(구성비)	(0.1)	(74.5)	(5.5)	(—)	(13.0)	(0.5)	(6.6)	(100.0)
1994	151	12,856	—	39	1,349	243	3,610	18,248
(구성비)	(0.8)	(70.5)	(—)	(0.2)	(7.4)	(1.3)	(19.8)	(100.0)

자료 : 통일원

〈도 16〉 반출입통관 품목구조(1994년)



13. 가 격

가. 생활필수품 가격

1991년 북한 쌀 암거래 가격 남한의 5배이상

○ 북한은 시장경제에 의한 가격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정부당국이 정하는 가격정책을 채택하고 있으며 물자가 매우 부족하기 때문에 정부에서 정한 「국정소매가격」과 암거래가격간에 현저한 차이가 있다.

○ 주요 생필품의 가격을 살펴보면 북한의 1991년도 쌀 1kg 국정소매가격이 남한 화폐기준으로 27원으로 평가되나 암거래 가격은 253배나 높은 6,820원수준이다.

— 1991년 달걀 1개의 국정소매가격이 58원인 반면 암거래가격은 17.6배인 1,023원이다.

○ 이를 남한의 소매가격과 비교하여 보면 쌀 1kg의 경우 1991년도에 남한이 1,313원으로 북한의 국정소매가격(27원)에 비해 48.6배가 비싸나 암거래가격(6,820원)에 비하여는 19.3%수준에 불과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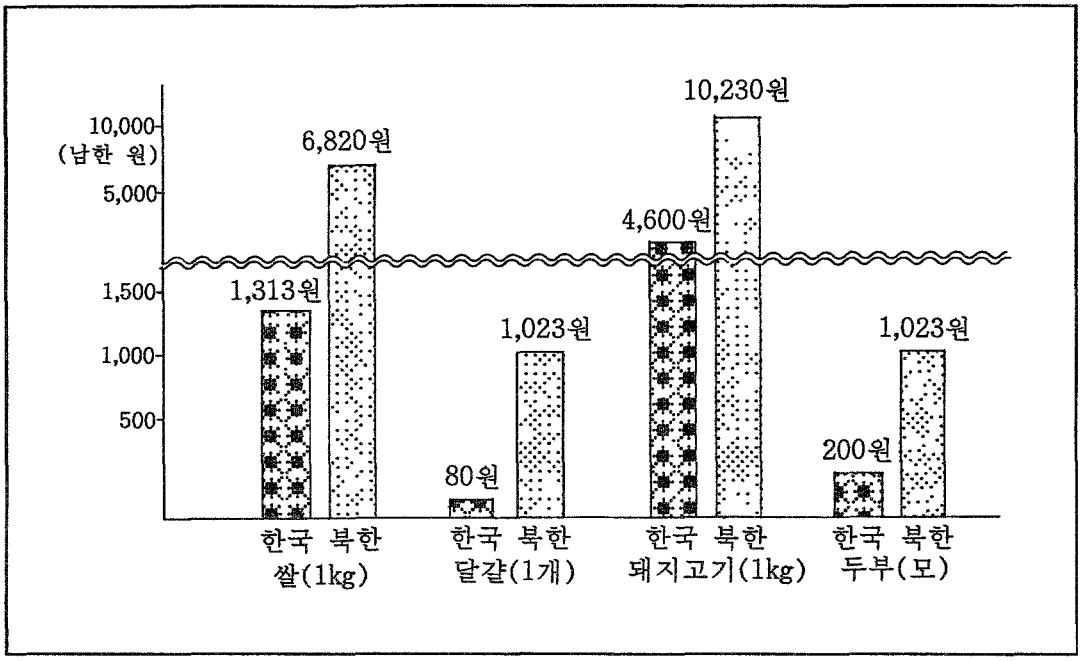
〈표 100〉 주요 식료품가격(1991년)

(단위 : 남한 원)

품 목	규 격	단위	한 국	북 한		남/북(배)	
				국정소매가격	암거래 가 격	국정소매가격	암거래 가 격
쌀	일반미 중품(경기·서울)	kg	1,313	27	6,820	48.6	0.2
달 걀	백색중란(서울)	개	80	58	1,023	1.4	0.1
돼지고기	정육(서울)	kg	4,600	2,387	10,230	1.9	0.4
쇠 고 기	한우정육(서울)	kg	11,700	2,558	13,640	4.6	0.9
두 부	450g	모	200	41	1,023	4.9	0.2
된 장	샘표	kg	760	51	—	14.9	—

자료 : 통일원

〈도 17〉 주요식료품 가격(1991년)



주 : 북한은 암거래가격임

1991년 북한 칫솔 암거래가격 남한의 13배

○ 1991년도 남북한의 주요 일용품가격을 비교해 보면, 남한의 칫솔 가격은 북한 국정소매가격대비 44%수준이며, 스타킹은 58.7% 수준으로써 남한이 싼 편이며, 밀크로션, 운동화, 양말, 양복은 북한이 싼 편이다.

○ 북한 암거래가격과 남한의 가격을 비교해보면 북한의 치약가격은 남한의 5.7배, 칫솔은 13.0배, 운동화는 1.2배, 양복은 1.1배 수준으로 평가된다.

〈표 101〉 주요 일용품가격(1991년)

(단위 : 남한 원)

품 목	규 격	단위	한 국	북 한		남 / 북(배)	
				국정 소매 가격	암거래 가 격	국정 소매 가격	암거래 가 격
치 약	화이트 150g	개	480	477	2,728	1.0	0.2
칫 솔	럭키 특8호	개	180	409	2,332	0.4	0.1
양 말	남한 면, 북한 나이론	족	2,000	512	1,705	3.9	1.2
스 타 킹	판타롱 BYC	족	200	341	—	0.6	—
밀크로션	태평양 남성용	병	6,000	682	1,364	8.8	4.4
운 동 화	천	족	5,500	1,159	6,820	4.7	0.8
양 복	윈저 혼방모 50%	벌	120,000	40,920	136,400	2.9	0.9

자료 : 통일원

1991년 북한 소주 암거래가격 남한의 15배이상

○ 1991년도 남북한의 주요 기호품 가격 수준을 북한 국정소매가격과 비교하여 보면, 소주, 콜라, 사이다, 담배는 남한의 가격이 싼 편이며 맥주는 북한이 싼 편이다.

○ 북한 암거래격과 비교하여 보면 소주, 사이다, 담배 등에서 북한보다 싼 편이다.

〈표 102〉 주요 기호품가격(1991년)

(단위 : 남한 원)

품 목	규 격	단위	한 국	북 한		남 / 북(배)	
				국정 소매 가격	암거래 가 격	국정 소매 가격	암거래 가 격
맥 주	OB, 크라운 500㎖	병	700	314	—	2.2	—
소 주	진로 360㎖	병	450	818	6,820	0.6	0.1
콜 라	두산 355㎖	병	230	512	—	0.4	—
사 이 다	칠성 340㎖	병	230	409	1,705	0.6	0.1
담 배	남한「솔」, 북한「평양」	갑	600	614	6,820	1.0	0.1

자료 : 통일원

1991년 북한 칼라TV 암거래가격 6,820,000원

○ 1991년도 주요공산품가격 수준을 남북한간 비교하여 보면 북한의 공산품 고가정책에 따라 칼라TV, 카세트, 라디오, 카메라 등 모든 공산품의 남한 가격이 북한의 국정소매가격보다 싼 편으로 나타났다.

○ 예컨대 칼라TV의 경우 남한이 236천원(금성 16인치기준)인 반면 북한의 국정소매가격이 511.5천원, 암거래가격이 6,820천원으로써 모두 훨씬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표 103〉 주요 공산품가격(1991년)

(단위 : 남한 원)

품 목	규 격	단위	한 국	북 한		남/북(배)	
				국정 소매 가격	암거래 가 격	국정 소매 가격	암거래 가 격
칼라TV	금성 16″	대	236,000	511,500	6,820,000	0.5	0.03
카 세 트	금성 TSF	대	52,000	88,600	272,800	0.6	0.2
라 디 오	아남 RFA3	대	14,800	34,100	255,750	0.4	0.1
카 메 라	삼성 미놀타 SF-A	대	130,000	136,400	341,000	1.0	0.4
자 전 거	삼천리 표준 26″	대	74,000	136,400	1,364,000	0.5	0.1
선 풍 기	대우 RFP	대	24,500	27,280	—	0.9	—
세 탁 기	삼성 SEW-403	대	182,000	136,400	—	1.3	—
냉 장 고	금성 170 ℓ	대	190,000	221,650	—	0.9	—

자료 : 통일원

나. 공공요금

1991년 북한 전화, 택시요금 남한보다 비싸

○ 1991년도 공공요금을 비교해보면 지하철의 경우 1구간, 1회당 남한이 200원이나 북한은 34원으로 남한이 5.9배 비싼 편이며, 그밖에 우편요금, 전보요금, 버스요금도 북한이 남한보다 싼 것으로 나타났다.

○ 그러나 전화는 시내기준으로 남한이 20원인 반면 북한은 34원으로 41.2% 싸며, 택시요금도 남한이 600원인 반면 북한이 1,535원으로 60.9% 더 싼 것으로 나타났다.

〈표 104〉 공공요금(1991년)

(단위 : 남한 원)

구 분	기 준	한 국	북 한	남/북(배)
철도(완행)	최저운임	170	136	1.3
	서울~평택(75.4km)	640	1,262	0.5
	평양~안주(75.0km)			
시내버스	일 반	140	34	4.1
	학 생	100	10	10.0
지하철	1구간, 1회당	200	34	5.9
택 시	기 본	600	1,535	0.4
	주행 1km당	125	341	0.4
우 편	일 반	100	34	2.9
	등 기	600	136	4.4
전 화	시내(3분기준)	20	34	0.6
	국제(수동 3분기준, 번호통화)			
	(동남아)	3,900	10,230	0.4
	(유 럽)	6,000	10,912	0.5
전 보	1자당	25	10	2.5

자료 : 통일원

1991년 북한 목욕요금, 숙박료, 이발료는 남한보다 훨씬 싼편임

○ 1991년도의 대중목욕료는 남한이 1,000원인 반면 북한은 34원으로 남한이 29.4배 비싼 편이며, 그밖에 이발료, 숙박료, 영화관람료, 유원지입장료 등도 북한이 남한보다 싼 편이다.

〈표 105〉 기타 공공요금(1991년)

(단위 : 남한 원)

구 분	기 준	한 국	북 한	남/북(배)
목 욕 료	대중탕	1,000	34	29.4
이 발 료	고 급	12,000	341	35.2
	보 통	5,000	239	20.9
	직 장	3,000	171	17.5
	학 생	2,000	171	11.7
숙 박 료	여관(을)	8,800	614	14.3
영화관람료	방 화	3,500	136	25.7
	외 화	4,000	188	21.3
유원지입장료	서울랜드(대인), 만경대유희장	2,600	34	76.5

자료 : 통일원

14. 임　　금

남한의 임금수준 북한의 10~20배 수준

○ 북한과 남한의 임금체계나 직종 및 직급구분이 달라 비교하기는 어려우나 유사한 분야를 기준으로 남한 화폐로 환산하여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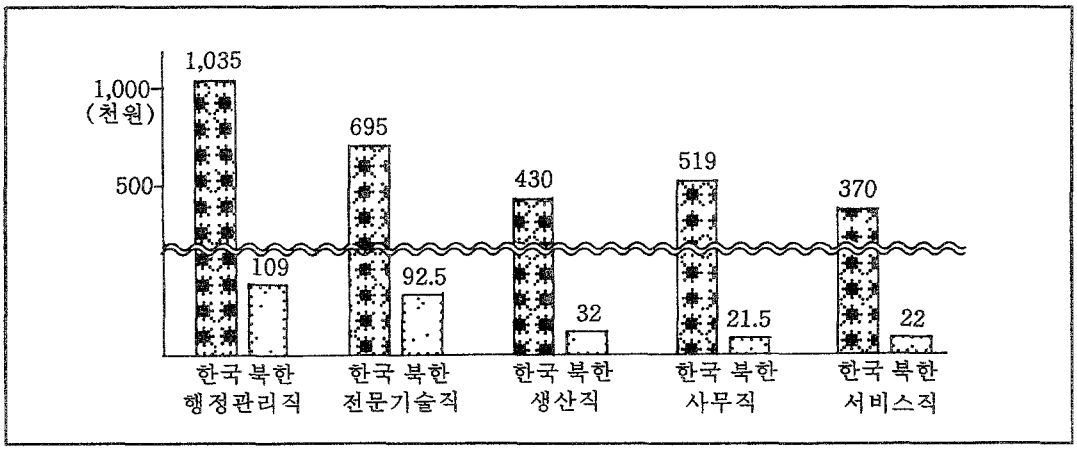
○ 1990년 기준으로 남한의 행정관리직근로자 1개월 평균임금은 1,035천원으로써 북한의 당·정무원 부장급 1개월 임금인 101~117천원에 비하여 8.8~10.2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남한의 전문기술직 근로자 1개월 평균임금은 695천원으로써 북한의 공장·기업소 지배인 1개월 임금인 84~101천원에 비하여 6.9~8.3배 높은 수준이다.

○ 남한의 생산직 근로자 1개월 평균임금은 430천원으로써 북한의 노동자중 가장 임금수준이 높은 광부, 제철·제련공의 1개월 임금인 30~34천원 보다 무려 12.6~14.3배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 남한의 서비스직 근로자 1개월 평균임금은 370천원으로써 북한의 편의시설 관련 종사자의 1개월 평균임금인 17~27천원에 비하여 13.7~21.8배 높은 편으로 나타났다.

〈도 18〉　　직 종 별　임 금(1990년)



주 : 북한은 직종별 최고임금계층의 단순산술평균치임.

〈표 106〉 직 종 별 임 금(1990년)

(단위 : 남한 천원)

한국		북한			남/북(배)
직 종 별	임 금	구 분	직 책 별	임 금	
행정관리직	1,035	당 · 정 기 관	당·정무원 부장	101~117	8.8~10.2
			정무원부부장·도인민위원장	84~101	10.2~12.3
			도인민위부위원장·군인민위원장	57~ 67	15.4~18.2
전문기술직	695	공장·기업소	특급기업소 지배인	84~101	6.9~ 8.3
			1·2급 기업소지배인, 기사장	50~ 67	10.4~13.9
생 산 직	430	노동자·사무원	광부, 제철·제련공	30~ 34	12.6~14.3
			일반기계공, 운전기사	25~ 27	15.9~17.2
			일반노동자	23~ 27	15.9~18.7
사 · 무 직	519		사무원	20~ 23	22.6~26.0
서 비 스 직	370	편 의 시 설 관 련 종 사 자	여관, 식당, 이발소, 상점등	17~ 27	13.7~21.8
판 매 직	413				

자료 : 노동부, 통일원

남한사무원 1인당 구매력 북한보다 훨씬 높아

○ 1991년 남한의 사무원 1개월 평균임금인 519,000천원과 북한의 사무원 1개월 평균임금인 70북한원을 가지고 소비재를 살 수 있는 1인당 구매력을 분석해 보면 다음과 같다.

○ 남한의 사무원 1개월 평균임금을 가지고 쌀만 구입한다면 395.3kg을 살 수 있으나, 북한의 사무원은 국정소매가격으로 875.0kg을 살 수 있는 반면 암거래 가격으로 구입시 3.5kg밖에 살 수 없는 형편이다.

○ 남한 사무원이 달걀을 구입한다면 6,487.5개를 살 수 있으나, 북한사무원은 국정소매가격으로 411.8개, 암거래 가격으로 23.3개 밖에 살 수 없어 남한사무원의 임금으로 살 수 있는 구매력이 북한보다 높은 것으로 추정된다.

○ 남한사무원이 북한사무원보다 돼지고기는 북한 국정소매가격 대비 11.3배, 치약은 21.6배, 치솔은 49.5배, 운동화는 4.6배, 소주는 39.5배, 콜라는 38.7배, 칼라TV는 44.0배, 라디오는 50.1배, 선풍기는 24.1배 많이 살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07〉 일반사무원 1인당 구매력(1991년)

품명		규격	단위	한국	북한		남/북(배)	
					국정소매 가격구입시	암거래 가격구입시	국정소매 가격구입시	암거래 가격구입시
식료품	쌀	일반미 중품	kg	395.3	875.0	3.5	0 5	112.9
	달걀	백색중란	개	6,487.5	411.8	23.3	15 8	278.4
	돼지고기	정육	kg	112.8	10.0	2.3	11.3	49.0
	쇠고기	한우정육	kg	44.4	9.3	1.8	4.8	24.7
	두부	450g	모	2,595.0	583.3	23.3	4 4	111.4
	된장	—	kg	682.9	467.0	—	1.5	—
일용품	치약	150g	개	1,081 3	50.0	8.8	21.6	122 9
	칫솔	성인용	개	2,883.3	58.3	10.2	49.5	282.7
	양말	성인용	족	259.5	46.6	14.0	5.6	18.5
	스타킹	판타롱	족	2,595.0	70.0	—	37.1	—
	밀크로션	남성용	병	86.5	35.0	17 5	2.5	4.9
	운동화	천	족	94.4	20.6	3.5	4.6	27.0
	양복	혼방모 50%	벌	4.3	0.6	0.2	7.2	21.5
기호품	맥주	500㎖	병	741.4	76.1	—	9.7	—
	소주	360㎖	병	1,153.3	29.2	3.5	39.5	329.5
	콜라	355㎖	병	2,256.5	46.7	—	48.3	—
	사이다	340㎖	병	2,256.5	58.3	14.0	38 7	161.2
	담배	남한「솔」 북한「평양」	갑	865.5	38.9	3.5	22.2	247.1
공산품	칼라TV	금성16″	대	2.2	0 05	0.004	44 0	550.0
	카세트	금성TSF	대	10.0	0.27	0.09	37.0	111.1
	라디오	아남 RFA3	대	35.1	0.70	0.09	50.1	390.0
	카메라	삼성미놀타 SF-A	대	4.0	0.18	0.07	22.2	57.1
	자전거	삼천리표준 26″	대	7.0	0.18	0.02	38.9	350.0
	선풍기	대우 RFP	대	21 2	0.88	—	24 1	—
	세탁기	삼성 SEW-403	대	2.9	0.18	—	16 1	—
	냉장고	금성 1701	대	2.7	0.11	—	24.5	—
	만년필	동아 55G2	자루	259.5	8.75	—	29.7	—
	주전자	세광 21	개	157.3	7.00	—	22.5	—
	형광램프	백색 32″×436″	개	810 9	17.50	—	46.3	—

자료 · 통일원

15. 보 건

가. 의료수준

1990년 북한의 평균수명 남한보다 7세 낮아

○ 한 국가의 총체적 의료수준을 나타내는 평균수명을 보면 남한의 1980년도 평균수명은 65.8세로써 북한의 62.7세보다는 3.1세 높았으며 남북한 모두 1980년도의 세계 평균수명 58.9세보다는 높았으나 선진국 평균수명 72.0세보다 낮았다.

○ 1990년도에는 남한의 평균수명은 71.3세로써 북한의 64.3세보다 7.0세 높아 1980년도에 비하여 격차가 커지고 있으며 남북한 모두 1990년도 세계 평균수명 62.3세보다 높았으나 선진국 평균수명 74.0세보다 낮았다. 남한의 경우 선진국 평균에 크게 근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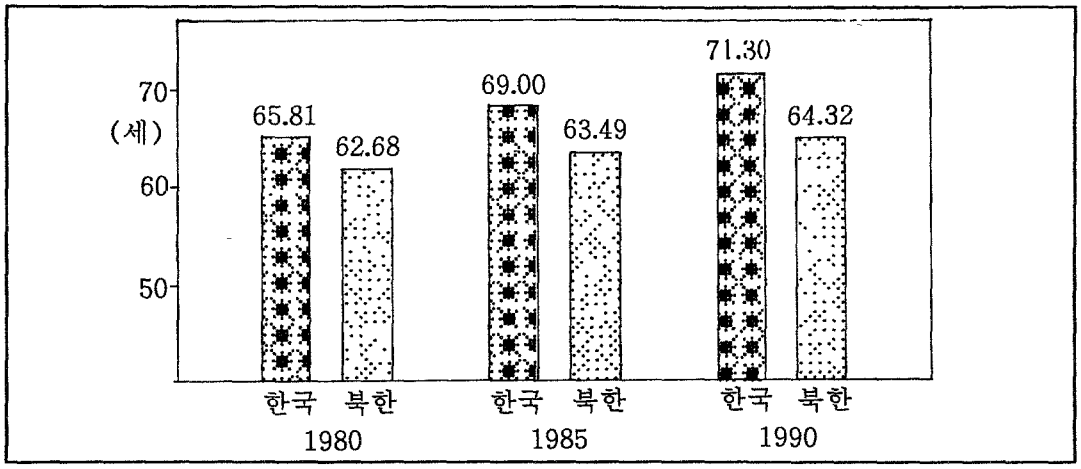
〈표 108〉 평 균 수 명

(단위 : 세)

	한 국			북 한			세 계	선진국	차 이
	평균(A)	남 자	여 자	평균(B)	남 자	여 자	평 균	평 균	(A−B)
1980	65.81	62.70	69.07	62.68	60.18	65.18	58.9	72.0	3.13
1985	69.00	64.92	73.33	63.49	60.99	65.99	60.6	72.9	5.51
1990	71.30	67.40	75.40	64.32	61.82	66.82	62.3	74.0	6.98

자료 : 통계청, 통일원

〈도 19〉 평 균 수 명



1992년 북한의 영아사망률 남한의 2.3배

○ 남한의 영아사망률을 보면 1980년도에는 총출생수 1,000명당 17.3이었으나 1992년도에는 12.8명으로 낮아졌으며 북한은 1980년 39.5명에서 1994년에 27.7명으로 낮아졌다.

○ 남북한의 영아사망률을 비교해보면 남한의 총출생수 1,000명당 12.8명(1992년)으로 북한의 27.7명(1994년)에 비해 훨씬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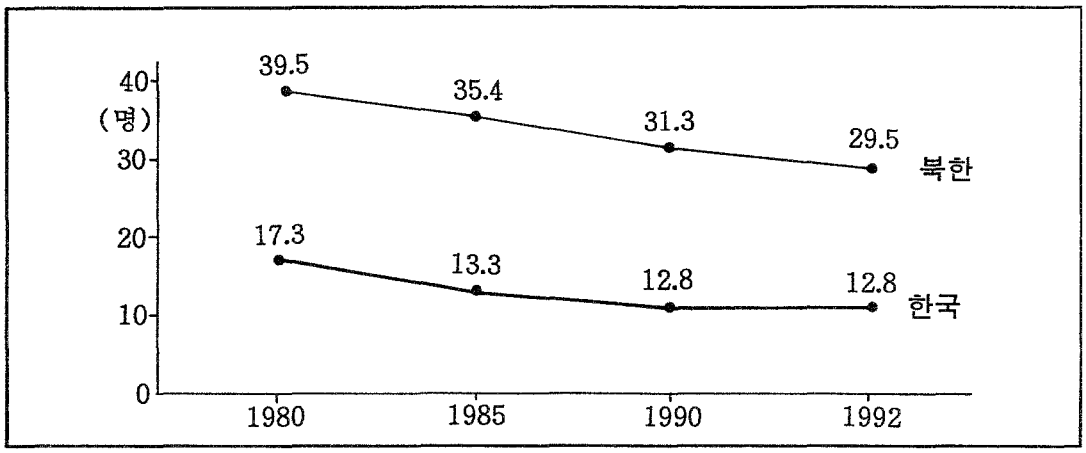
〈표 109〉 영 아 사 망 률

(단위 : 1,000명당)

	한 국(A)	북 한(B)	차 이(A−B)
1980	17.3	39.5	−22.2
1985	13.3	35.4	−22.1
1990	12.8	31.3	−18.5
1992	12.8	29.5	−16.7
1994	−	27.7	−

자료 : 통계청, Nicholas and Judith Banister

〈도 20〉 영 아 사 망 률



총인구에 대한 입원환자 연인원 비율 남한이 높아

○ 총인구에 대한 입원환자 연인원 비율을 분석해 보면 남북한 공통적으로 의료수준이 낮았던 1965년도에는 남한은 8.2%, 북한은 9.9%로써 남한이 1.7%「포인트」 낮았으나, 1986년도에는 남한이 42.5%, 북한이 9.3%로 남한이 북한보다 33.2%「포인트」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1994년도의 총인구에 대한 남한의 입원환자 연인원비율은 77.1%로 1986년보다 34.6%「포인트」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의료보험이 전국민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등 의료서비스가 확대되었기 때문이다.

〈표 110〉 총인구에 대한 입원환자 연인원 비율

(단위 : %)

	한 국(A)	북 한(B)	차 이(A−B)(%p)
1965	8.2	9.9	−1.7
1975	13.3	10.4	2.9
1985	40.1	9.6	30.5
1986	42.5	9.3	33.2
1994	77.1	−	−

자료 : 보건복지부, 북한중앙통계국

북한 발표 사망원인통계 신뢰성 낮아

○ 남한의 1986년도 사망원인을 분석해 보면 순환기계의 질환이 31.7%, 증상·징후 불명확 병태가 16.7%, 악성신생물은 16.4%로 나타났으며, 북한은 순환기계의 질환이 45.3%, 악성신생물 13.9%, 증상·징후 불명확 병태가 2.6%로 나타나 북한의 사망원인이 선진국형으로 변화한 것처럼 보이나 북한의 사망원인 통계가 부정확한데에 기인할 가능성이 높다.

〈표 111〉 북한의 주요 사망원인 구성비

(단위 : %)

	감염성 및 기생충	악 성 신생물	순 환 기 계 질 환	호 흡 기 계 질 환	소 화 기 계 질 환	증상 · 징 후 불 명	손 상 및 중 독	기 타
1960	28.3	2.6	12.1	14.2	14.4	13.7	2.9	11.8
1970	10.9	5.7	22.9	14.9	20.6	10.7	4.0	10.3
1980	5.2	12.0	42.3	10.3	10.6	5.7	6.5	7.4
1986	3.9	13.9	45.3	9.4	10.4	2.6	7.7	6.8
('86한국)	(3.8)	(16.4)	(31.7)	(4.2)	(9.1)	(16.7)	(12.0)	(6.1)
('93일본)	(1.6)	(27.7)	(36.0)	(13.3)	(4.5)	(3.7)	(6.7)	(6.5)

자료 : 통계청, 북한중앙통계국

나. 의료시설 및 인력

1986년 남한의 병·의원수 북한의 1.3배

○ 남한의 병·의원수는 1965년에 5,208개에서 1986년에 9,081개로 늘어났으며 1993년에는 13,568개소로써 1965년 대비 2.6배 증가하였다. 그러나 북한은 1965년에 5,575개에서 1986년에 7,172개로 지난 21년간 28.6% 증가에 그쳤다.

○ 남북한간 비교해 보면 남한의 병·의원수는 1965년에 북한대비 0.9배에서 1986년 1.3배로 늘어났으며, 1990년 이후에는 더욱 격차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표 112〉 병 · 의 원 수

(단위 : 개소)

	한 국	북 한	남/북(배)
1965	5,208	5,575	0.9
1975	6,257	6,484	1.0
1986	9,081	7,172	1.3
1993	13,568	—	—

자료 : 보건복지부, 북한 조선중앙통신사 및 중앙통계국

1982년 남한의 한방 병·의원수 북한보다 90배이상

○ 남한의 1982년 한방 병·의원수는 2,461개소를 나타내고 있으며 1993년에는 5,294개소로써 1982년대비 2.2배 증가하였다. 그러나 북한은 1982년에 26개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 남북한간 비교해 보면 남한의 한방 병·의원수는 1982년에 북한대비 94.7배로 나타나 그 격차가 매우 큼을 알 수 있다.

〈표 113〉 한 방 병 · 의 원 수

(단위 : 개소)

	한 국	북 한	남/북(배)
1965	2,247	14	160.5
1975	2,382	13	183.2
1982	2,461	26	94.7
1993	5,294	—	—

자료 : 보건복지부, 북한 조선중앙통신사

1986년 북한의 치과 병·의원수 고작 13개

○ 남한의 1986년 치과 병·의원수는 3,278개소를 나타내고 있으며 1993년에는 7,276개소로써 1986년 대비 2.2배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북한은 1986년에 13개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 1986년 남한의 치과 병·의원수는 북한에 비해 252.2배에 이르고 있다.

〈표 114〉 치 과 병 · 의 원 수

(단위 : 개소)

	한 국	북 한	남/북(배)
1965	1,079	1	1,079.0
1975	1,614	4	403.5
1986	3,278	13	252.2
1993	7,276	—	—

자료 : 보건복지부, 북한 조선중앙통신사

1986년 북한의 정신병원 189개소

○ 특수병원인 결핵병원, 간장병원, 정신병원 수를 보면 북한이 남한보다 특이하게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 1986년 결핵병원은 북한이 338개이나 남한은 5개에 불과하며 나병원은 북한이 263개, 남한이 1개이며, 정신병원은 북한이 189개에 이르는 반면 남한은 9개에 불과하다.

〈표 115〉 특 수 병 원 현 황

(단위 : 개소)

	한 국			북 한		
	결핵병원	나 병 원	정신병원	결핵병원	나 병 원	정신병원
1965	3	8	—	224	—	11
1975	4	1	—	585	12	130
1986	5	1	9	338	263	189
1993	5	1	35	—	—	—

자료 : 보건복지부, 북한 조선중앙통신사 및 중앙통계국

1986년 보건소 수도 남한이 북한의 15배이상

○ 남한의 1986년 보건소 수는 3,528개소를 나타내고 있으며 1993년 현재에는 3,634개소를 나타내고 있는 반면 북한은 1986년에 228개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 남북한간 격차를 살펴보면 남한의 보건소 수는 1965년에 북한대비 6.51배, 1975년에 6.98배, 1986년에 15.47배로 나타났으며 남한의 증가추세를 보아 남북한 격차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표 116〉 보 건 소 수

(단위 : 개소)

	한 국	북 한	남/북(배)
1965	1,536	236	6.51
1975	1,536	220	6.98
1986	3,528	228	15.47
1993	3,634	—	—

자료 : 보건복지부, 북한 조선중앙통신사 및 중앙통계국

1986년 남한의 의약품 판매업소 북한의 약 34배

○ 1986년 남한의 의약품 판매업소수는 28,714개소로 나타나고 있으며 1993년에는 30,543개소로써 1986년에 비해 6.4% 증가하였다. 이에 반해 북한은 1986년에 846개에 불과하였다.

○ 남북한간 격차를 살펴보면 남한의 의약품판매업소수는 1965년에 북한대비 46.2배, 1975년에 37.1배, 1986년에 33.9배를 기록하고 있으며 남한의 의약품판매업소수의 증가 추세를 보아 남북한 격차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표 117〉 의 약 품 판 매 업 소 수

(단위 : 개소)

	한 국	북 한	남/북(배)
1965	16,341	354	46.2
1975	18,984	512	37.1
1986	28,714	846	33.9
1993	30,543	—	—

자료 : 보건복지부, 북한 조선중앙통신사 및 중앙통계국

1986년 의·약사수 남한이 북한보다 1.3배

○ 남북한의 의료인력을 비교해 보면 남한은 양적인 면에서 북한보다 많으며, 인구 만명당 지표를 보면 북한보다 열세이지만 의료인력의 양성기간이 남한보다 짧기 때문에 질적인 면에서 남한의 의료인력이 보다 우수할 것으로 판단된다.

○ 1965년도 남한의 의·약사수는 25,493명이었으나 1986년에는 72,986명으로 1993년에는 112,046명으로 지난 30년간 4.4배나 늘어났다. 이에 반해 북한은 1965년에 11,393명에서 1986년에 54,918명으로 지난 21년간 4.8배가 늘었다.

〈표 118〉 의 · 약 사 수

(단위 : 명)

	한 국	북 한	남/북(배)
1965	25,493	11,393	2.2
1975	41,933	28,298	1.5
1986	72,986	54,918	1.3
1993	112,046	—	—

자료 : 보건복지부, 북한 조선중앙통신사 및 중앙통계국

인구 만명당 의·약사수는 북한이 남한을 앞질러

○ 인구만명당 의·약사수는 남한은 1965년 8.9명에서 1986년에 17.7명, 1993년에 25.4명으로 늘어났다.

○ 북한은 1965년 9.3명에서 1986년에 27.0명으로 늘어났으며 북한이 남한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119〉 인 구 만 명 당 의·약 사 수

(단위 : 명)

	한 국(A)	북 한(B)	차이(A−B)
1965	8.9	9.3	−0.4
1975	11.9	17.5	−5.6
1986	17.7	27.0	−9.3
1993	25.4	−	−

자료 : 보건복지부, 북한 조선중앙통신사 및 중앙통계국

16. 사 회

남한의 총가구수 증가속도 북한보다 빨라

○ 1980년 남한의 총가구수는 7,969천가구이며 1987년도에는 10,259천가구로써 1980년 대비 1.3배로 규모가 확대되었으나 1980년 북한의 총가구수는 3,396천가구이며 1987년도에는 4,054천가구로써 1980년대비 1.2배로 규모가 확대되었다.

— 다만 북한의 총가구수에 군인가구수가 제외되었다는 점이며 군인가구를 포함해서 남북한을 비교하더라도 남북한 격차가 확대되는 추이는 변함이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 남북한간 총가구수를 비교해보면 1980년 남한의 총가구수는 북한대비 2.35배였으나 1987년에는 2.53배로 증가되어 남한의 총가구수의 증가속도가 북한보다 빠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120〉 총 가 구 수

(단위 : 천가구)

	한 국	북 한	남/북(배)
1966	4,901	—	—
1980	7,969	3,396	2.35
1985	9,571	3,816	2.51
1987	10,259	4,054	2.53
1990	11,357	—	—

자료 : 보건복지부, 북한중앙통계국

남한의 핵가족화 진행속도 북한보다 빨라

○ 남한의 1980년 평균가구원수는 4.6명에서 1987년 4.1명으로 0.5명 감소된 반면 북한의 1980년 평균가구원수는 5.1명에서 1987년에 4.8명으로 0.3명 감소하였으나 다만 총가구수와 마찬가지로 북한의 평균가구원수에는 군인이 제외되었다는 점이며 평균가구원수는 상당히 높을 것으로 판단된다.

○ 남북한간 비교해보면 남한의 평균가구원수가 1987년 4.1명(1990년에는 3.8명)으로써 북한의 평균가구원수 4.8명보다 0.7명이 낮아 핵가족화 진행속도가 남한이 북한보다 다소 빠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121〉 평 균 가 구 원 수

(단위 : 명)

	한 국	북 한	남/북(배)
1966	5.5	—	—
1980	4.6	5.1	0.90
1985	4.2	4.9	0.86
1987	4.1	4.8	0.85
1990	3.8	—	—

자료 : 보건복지부, 북한중앙통계국

북한의 인구이동률 남한보다 훨씬 낮아

○ 북한은 직업선택 및 거주이전의 자유가 제한됨에 따라 인구이동률이 남한보다 극히 낮은 수준이다.

○ 남한의 총인구대비 인구이동률은 1980년 21.9%, 1985년 21.4%, 1987년 22.6%, 1993년도에는 19.8%를 나타내고 있는 반면 북한의 총인구대비 인구이동률은 1980년 5.3%, 1985년 4.7%, 1987년 5.9%를 나타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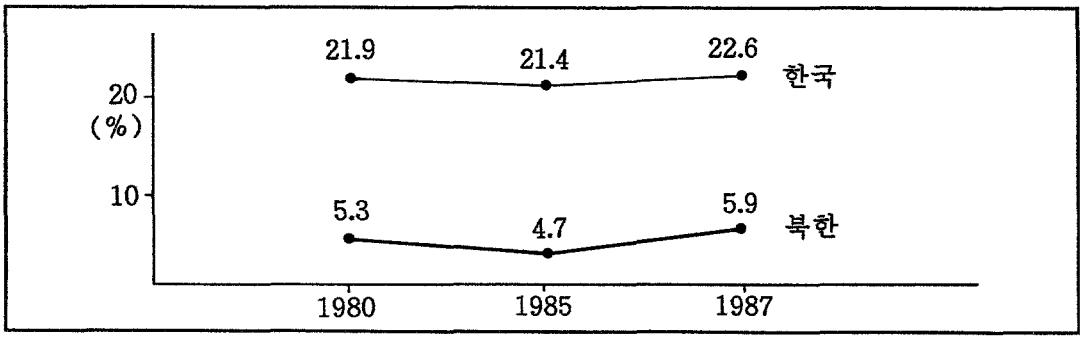
〈표 122〉 인 구 이 동

(단위 : 천명, %)

	한 국		북 한		남/북(배)	
	총이동수	총인구대비비율	총이동수	총인구대비비율	총이동수	총인구대비비율
1970	4,047	13.1	—	—	—	—
1980	8,259	21.9	920	5.3	9.0	4.1
1985	8,679	21.4	882	4.7	9.8	4.6
1987	9,309	22.6	1,134	5.9	8.2	3.8
1993	8,807	19.8	—	—	—	—

자료 : 통계청, 북한중앙통계국

〈도 21〉 인 구 이 동 률



북한 혼인건수 증가속도 남한보다 빨라

○ 북한은 젊은 노동력의 국방의 의무 및 각종 노력동원을 위하여 만혼을 장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혼인건수가 남한보다 크게 증가하였다.

○ 남한의 혼인건수는 1975년도에는 285,789건에서 1987년에 380,220건으로 1975년대비 33.0% 증가한 반면 북한의 혼인건수는 1975년도에는 84,819건에서 1987년 188,007건으로 1975년대비 121.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123〉 혼 인 건 수

(단위 : 건)

	한 국	북 한	남/북(배)
1949	—	46,368	—
1965	—	107,493	—
1975	285,789	84,819	3.37
1985	379,318	142,753	2.66
1987	380,220	188,007	2.02
1990	404,931	—	—

자료 : 보건복지부, 북한중앙통계국

북한의 이혼—남한보다 훨씬 적어

○ 북한의 가부장제도는 사회주의 목표달성을 위하여 개혁을 추구하였지만 남존여비 가부장질서가 북한이 남한보다 강한 것으로 보인다.

○ 남한의 1975년도 이혼건수는 17,173건, 1987년에는 44,585건으로써 1975년대비 2.6배를 나타내고 있으나 북한의 1975년 이혼건수는 3,714건, 1987년도에는 4,231건으로서 1975년대비 1.1배 증가에 그치는 등 이혼이 거의 늘어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24〉 이 혼 건 수

(단위 : 건)

	한 국	북 한	남 북 한	남/북(배)
1949	—	4,763	—	—
1965	—	3,021	—	—
1975	17,173	3,714	20,887	4.62
1985	40,380	4,526	44,906	8.92
1987	44,585	4,231	48,816	10.54
1990	48,290	—		—

자료 : 보건복지부, 북한중앙통계국

17. 교 육

북한의 의무교육연한은 남한보다 길어

○ 남한의 교육체계는 초등, 중등, 고등 교육단계별로 6-3-3-4로 되어 있으나, 북한의 교육체계는 4-6-4로 되어 있으며 의무교육연한은 유치원 높은반을 포함한 11년으로써 우리의 국민학교 6년과 일부지역의 중학교 의무교육을 합한 것보다 긴편이다.

○ 남한과 달리 북한은 영재의 조기발굴로 이들을 교육시키기 위한 특수학원이 많은데 예술학원, 체육학원, 외국어학원 등이 대표적이며 교육 최초연령은 만 6세이다.

〈표 125〉 교 육 체 계

한국			북한		
구 분	교육기간	연 령	구 분	교육기간	연 령
-	-	-	유치원	2	4~5
국민학교	6	6~11	인민학교	4	6~9
중학교	3	12~14	고등중학교(중등반)	4	10~13
고등학교	3	15~17	고등중학교(고등반)	2	14~15
예술고등학교	3	15~17	예술학원	10	6~15
체육고등학교	3	15~17	체육학원	10	6~15
외국어고등학교	3	15~17	외국어학원	6~9	6~14
전문대학	2	18~19	고등전문학교	2~3	16~18
단과대학	4	18~21	단과대학	3~4	16~19
대학	4~6	18~23	대학	4~6	16~21
대학원	2	24~25	연구원	2~4	22~25
-	-		혁명학원	6~10	6~15

자료 : 통일원

인구를 감안한 북한의 교육기관수 남한보다 상대적으로 많아

○ 남한의 1965년도 교육기관수는 국민학교는 5,125개교, 중등학교 1,909개교, 4년제 대학교수는 107개교로써 북한대비 국민학교는 1.3배, 중등학교는 0.6배, 대학교는 1.1배를 나타내고 있으며, 1990년도에는 북한대비 국민학교는 1.3배, 중등학교는 1.0배, 대학교는 1.5배를 나타내고 있다.

○ 그러나 남한의 인구가 북한보다 약 2배 많은 것을 감안하면 남한의 교육기관수는 인구규모에 비하여 북한보다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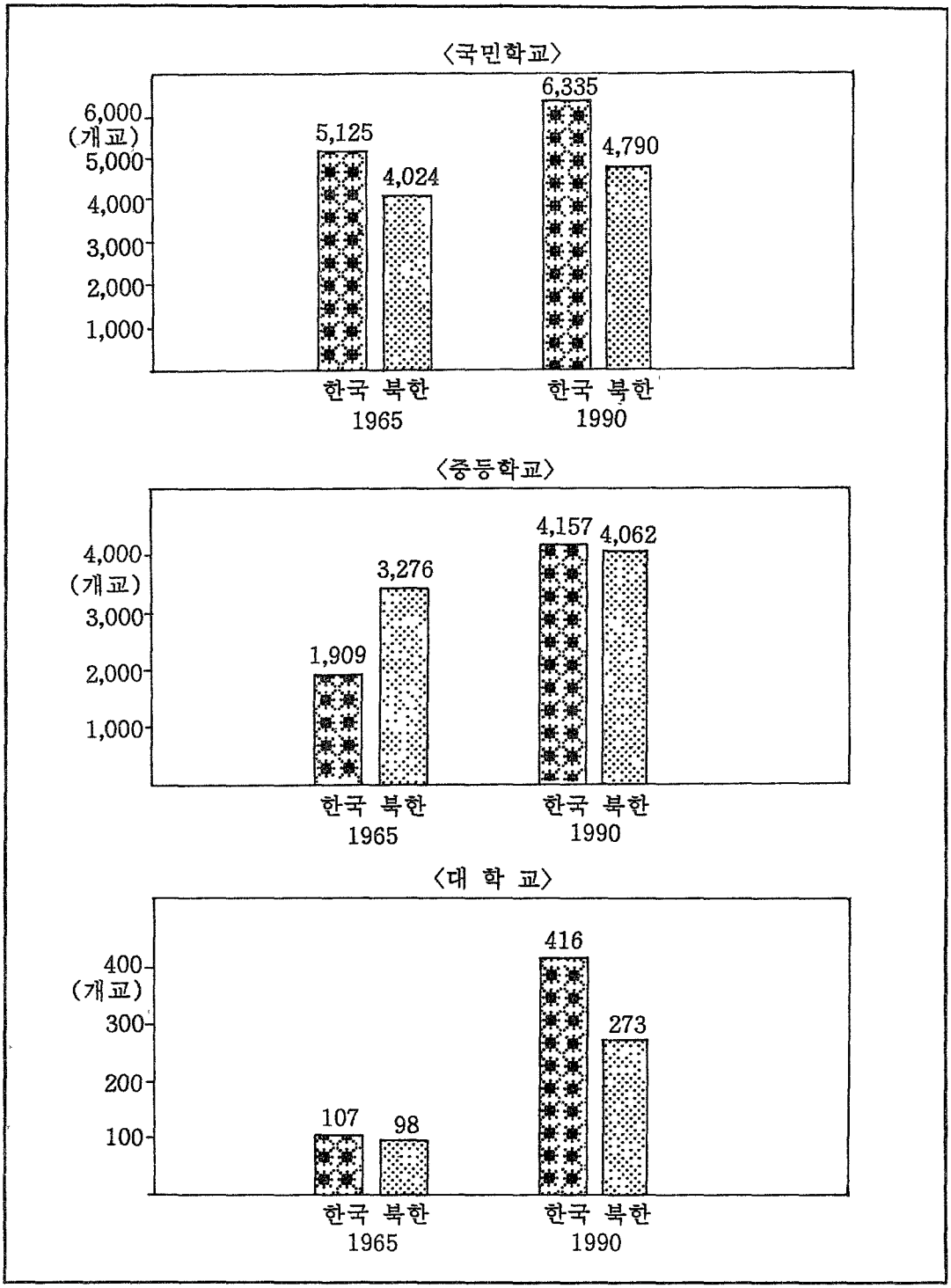
〈표 126〉 교 육 기 관 수

(단위 : 개교)

	한 국			북 한			남/북(배)			인구규모
	국민학교	중등학교	대학교	국민학교	중등학교	대학교	국민학교	중등학교	대학교	남/북(배)
1965	5,125	1,909	107	4,024	3,276	98	1.3	0.6	1.1	2.34
1975	6,367	3,119	154	4,700	3,861	150	1.4	0.8	1.0	2.18
1985	6,519	3,973	312	4,760	—	234	1.4	—	1.3	2.04
1990	6,335	4,157	416	4,790	4,062	273	1.3	1.0	1.5	1.97

자료 : 교육부, 통일원

〈도 22〉 교 육 기 관 수


〈국민학교〉
6,000
(개교)
5,000
4,000
3,000
2,000
1,000
5,125
4,024
6,335
4,790
한국 북한
1965
한국 북한
1990
〈중등학교〉
4,000
(개교)
3,000
2,000
1,000
1,909
3,276
4,157
4,062
한국 북한
1965
한국 북한
1990
〈대 학 교〉
400
(개교)
300
200
100
107
98
416
273
한국 북한
1965
한국 북한
1990

남한의 대학생수 북한보다 훨씬 많아

○ 남한의 1965년도 학생수는 국민학교는 4,941천명, 중등학교는 1,178천명, 4년제 대학교는 109천명으로써 북한대비 국민학교는 4.3배, 중등학교는 1.6배, 대학교는 0.7배를 나타내고 있으나, 1990년도에는 각각 4,869천명, 4,560천명, 1,143천명으로 북한대비 국민학교는 2.6배, 중등학교는 1.5배, 대학교는 3.6배를 나타내고 있다.

○ 1965년 남한의 대학생수(109천명)는 북한대비 69.9% 수준으로 북한보다 적었으나 1990년도(1,143천명)에는 북한대비 3.6배로 인구규모에 비해서 훨씬 많은 편이다.

〈표 127〉 학 생 수

(단위 : 천명)

	한 국			북 한			남/북(배)			인구규모
	국민학교	중등학교	대학교	국민학교	중등학교	대학교	국민학교	중등학교	대학교	남/북(배)
1965	4,941	1,178	109	1,152	717	156	4.3	1.6	0.7	2.34
1975	5,599	3,150	223	1,715	2,322	—	3.3	1.4	—	2.18
1985	4,857	4,935	1,018	1,900	2,600	280	2.6	1.9	3.6	2.04
1990	4,869	4,560	1,143	1,908	3,016	314	2.6	1.5	3.6	1.97

자료 : 교육부, 통일원

남한의 초·중등학교 북한보다 대형화

○ 남한의 국민학교 및 중등학교는 수용학생수에 있어서 북한보다 대형화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 남한의 국민학교 1개교당 학생수는 1965년도에는 964명, 1990년도 769명을 나타냄으로써, 북한대비 3.4배, 1.9배를 각각 나타내고 있다.

○ 남한의 중등학교 1개교당 학생수는 1965년도에는 617명, 1990년도 1,097명을 나타냄으로써 북한대비 2.8배, 1.5배를 각각 나타내고 있다.

○ 남한의 4년제 대학교 1인당 학생수는 1965년도에는 1,019명, 1990년도에는 2,748명을 나타냄으로써 1965년에는 북한보다 36% 적었으나 1990년에는 북한대비 2.4배를 각각 나타내고 있다.

〈표 128〉 교육기관 1개교당 학생수

(단위 : 명)

	국민학교 1개교당 학생수			중등학교 1개교당 학생수			대학교 1개교당 학생수		
	한 국	북 한	남/북(배)	한 국	북 한	남/북(배)	한 국	북 한	남/북(배)
1965	964	286	3.4	617	219	2.8	1,019	1,592	0.6
1990	769	398	1.9	1,097	742	1.5	2,748	1,150	2.4

자료 : 교육부, 통일원

1990년 남한의 인구만명당 대학생수 북한의 1.8배

○ 고급인재의 배출정도를 나타내는 인구만명당 대학생수는 1965년도에 남한이 38명, 북한이 127.3명으로 북한이 많았으나 1990년도에는 남한이 266.6명, 북한이 144.6명으로 남한이 북한을 능가하고 있다.

○ 인구만명당 대학생수 증가추세를 보면 1965년에 남한이 38.0명에서 1990년에 266.6명으로 7배 늘었으나 북한은 1965년 127.3명에서 1990년에 144.6명으로 13.6% 증가에 그쳤다.

〈표 129〉 인 구 만 명 당 대 학 생 수

(단위 : 명)

	한 국	북 한	남/북(배)
1965	38.0	127.3	0.3
1980	117.0	140.9	0.8
1985	249.5	140.9	1.8
1990	266.6	144.6	1.8

자료 : 교육부, 통일원

북한의 대학교는 전 지역에 고루 분포

○ 남한은 대학교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으나 북한은 전지역에 고루 대학이 설립되어 있다.

○ 시도별 대학교 수 구성비는 남한은 서울특별시가 36.3%, 경기도가 10.8%를 차지함으로써 수도권에 대학이 집중되어 있으나, 북한은 함경남도가 14.7%, 평양특별시가 13.9%, 함경북도가 13.2%를 나타냄으로써 전지역에 고루 대학이 배치되어 있으며, 그 원인은 북한은 공장지대에 공장대학을 많이 설치하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표 130〉 시도별 대학교 수(1990년)

(단위 : 개교, %)

한 국			북 한		
시·도	대학교수	구 성 비	시·도	대학교수	구 성 비
서 울 특 별 시	151	36.3	함 경 남 도	40	14.7
경 기 도	45	10.8	평 양 특 별 시	38	13.9
부 산 광 역 시	39	9.4	함 경 북 도	36	13.2
대 전 광 역 시	22	5.3	평 안 남 도	31	11.4
전 라 북 도	22	5.3	평 안 북 도	30	11.0
기 타	137	32.9	기 타	90	35.8

자료 : 교육부, 통일원

북한의 교육내용은 김부자 우상화에 중점

○ 남한의 교육체계는 개인의 창의와 능력을 신장하는 방향으로 지·덕·체가 균형있게 발전할 수 있는 방향으로 교육내용이 편성되어 있으나 북한은 교육이 정치사회화의 과정이며 공산체제유지와 김일성, 김정일 우상화와 맹목적 충성에 중점으로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국민학교 교육내용을 분석해 보면 남한은 개인의 창의를 개발할 수 있는 특별활동이 1~2학년은 3.9%, 3~6학년은 6.6% 편성되어 있으며 국가사회 및 지역사회에 이바지할 수 있는 바른생활(1~2학년)은 15.6%, 도덕(3~6학년)은 6.6% 편성되어 있으나 북한은 김일성, 김정일 어린시절이 각각 4.4%씩 8.8% 편성되어 김부자에 대한 맹목적인 충성심을 유도하고 있으며 국어, 수학, 자연 등 일반 교양과목에 정치사회화 교육이 거의 대부분 수록되어 있다.

〈표 131〉 국민학교 교과목 구성비

(단위 : 시간, %)

한국[1]					북한[2]		
과목	1~2학년		3~6학년		과목	1~4학년	
	수업시간	구성비	수업시간	구성비		수업시간	구성비
국어	448	27.3	850	20.5	국어	1,142	33.1
산수	256	15.6	612	14.7	수학	834	24.2
슬기로운생활,자연	128	7.8	510	12.3	자연	222	6.4
바른생활,도덕	256	15.6	272	6.6	—	—	—
특별활동	64	3.9	272	6.6	—	—	—
즐거운생활	418	25.5	—	—	—	—	—
미술	—	—	272	6.6	도화·공작	304	8.8
체육	—	—	408	9.8	체육	304	8.8
음악	—	—	272	6.6	음악	304	8.8
우리들은1학년	70	4.3	—	—	—	—	—
—	—	—	—	—	외국어	37	1.1
—	—	—	—	—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 원수님 어린시절	152	4.4
—	—	—	—	—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 동지 어린시절	152	4.4
계	1,640	100.0	4,148	100.0	계	3,451	100.0

자료 : 교육부, 북한연구소
주 : 1) 남한은 교육부 1987. 6. 30 고시임
2) 북한은 김정일의 「교육사업을 더욱 발전시킬데 대하여」(1984. 7. 22)조치에 따른 개편안임

○ 중등학교 교육내용도 국민학교 교육내용과 유사하여 남한은 개인의 창의개발에 필요한 특별활동이 5.7%, 국가사회 및 지역사회에 필요한 도덕이 5.7% 편성되어 있으나 북한은 김부자 우상화 교육이 8.7% 편성되어 김부자에 대한 맹목적인 충성심을 유도하고 있으며, 현행 당정책 1.6% 및 국어문학, 외국어, 수학 등 일반 교양과목에 있어서도 정치사회화 교육내용을 수록하고 있다.

〈표 132〉 중등학교 교과목 구성비

(단위 : 시간, %)

한 국[1]			북 한[2]		
중학교 1~3학년			고등중학교 1~6학년		
과 목	수업시간	구 성 비	과 목	수업시간	구 성 비
국어	476	13.2	국어문학	769	11.8
외국어	340~476	10.2~12.3	외국어	591	9.0
수학	374~442	11.2~11.4	수학	1,282	19.6
체육	306	8.5	체육	309	4.7
국사	136	3.8	력사	280	4.3
한문	102~170	3.1~4.4	한문	251	3.8
기술·가정	238~306	7.1~7.9	녀학생실습,기계조작실습, 실습	417~430	6.4~6.6
도덕	204	5.7	—	—	—
음악	170~204	5.1~5.3	음악	143	2.2
미술	170~204	5.1~5.3	미술, 제도	136	2.1
과학	374~442	11.2~11.4	물리,화학,생물	1,340	20.5
사회	238~306	7.1~7.9	—	—	—
특별활동	204	5.7	—	—	—
—	—	—	지리	344	5.3
—	—	—	현행당정책	102	1.6
—	—	—	위대한 수령 김일성 원수님 혁명활동	150	2.3
—	—	—	위대한 수령 김일성 원수님 혁명력사	195	3.0
—	—	—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 동지 혁명활동	112	1.7
—	—	—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 동지 혁명력사	110	1.7
계	3,332~3,876 (3,604)	100.0	계	6,531~6,544 (6,537.5)	100.0

자료 : 교육부, 북한연구소
주 : 1) 남한은 교육부 1987. 3. 31 고시임
2) 북한은 김정일의 「교육사업을 더욱 발전시킬데 대하여」(1984. 9. 22)조치에 따른 개편안임

북한의 초·중등학교 수업시간수 남한보다 적어

○ 남북한의 국민학교 및 중등학교의 주당 수업시간을 비교해보면 북한이 남한보다 주당 수업시간이 적어서 북한학생의 개인 여가활동이 많을 것 같으나 사실은 인민학교, 고등중학교 어린 학생을 노력장동원에 활용하기 위한 것이다.

○ 남한의 국민학교 1학년 주당수업시간 수는 북한에 비해 3시간 많으며 2, 3학년은 4시간, 4학년은 5시간 많으며 남한의 중학교 1학년은 북한에 비해 8시간, 2, 3학년은 4시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133〉 국민학교 및 중등학교 주당수업시간수

(단위 : 시간)

	한국[1]		북한[2]	
	국민학교	중학교(평균)	인민학교	고등중학교
1 학 년	24	35	21	27
2 학 년	25	35	21	31
3 학 년	28	35	24	31
4 학 년	30	—	25	34
5 학 년	32	—	—	34
6 학 년	32	—	—	34

자료 : 교육부, 북한연구소
주 : 1) 남한은 교육부 1987. 6. 30 고시 및 1987. 3. 31 고시임.
2) 북한은 김정일의 1984. 7. 22 조치에 따른 개편안임.

북한의 대학은 이공계 중심

○ 남북한 대학의 전공분야를 비교해 보면 남한의 대학중 인문·사회계는 37.0%, 자연계는 40.5%, 의약계 3.9%, 예·체능계 7.7%, 사범계는 10.9%로 구성되어 사회의 지도계층을 균형있게 배출하는데 반하여 북한은 기술교육위주로 대학을 편성하여 이공·자연계통이 69.2%를 차지하며, 인문·사회계는 9.5%, 의학대학 5.5%, 예·체능대학 1.8%, 사범대학 13.9%를 차지함으로써 대학교육도 기술교육 위주로 편성하고 있다.

〈표 134〉 계열별 대학 및 학과현황(1990년)

(단위 : 개, %)

한국			북한		
계열	학과수	구성비	계열	학과수	구성비
인문계	1,294	15.6	종합대학	1	0.4
사회계	1,774	21.4	인문대학	12	4.4
			공산대학	12	4.4
			방송대학	1	0.4
계	3,068	37.0	계	26	9.5
자연계	3,363	40.5	종합대학	1	0.4
			이공대학	60	22.0
			농·림·수산대	26	9.5
			공장대학	96	35.2
			농장대학	5	1.8
			어장대학	1	0.4
계	3,363	40.5	계	189	69.2
의약계	326	3.9	의학대학	15	5.5
예·체능계	635	7.7	예·체능대학	5	1.8
사범계	904	10.9	사범대학	22	8.1
			교원대학	16	5.9
계	904	10.9	계	38	13.9
총계	8,296	100.0	총계	273	100.0

자료 : 교육부, 통일원

통 계 분 석 자 료 모 음

발행일 : 1995년 12월 일
발행인 : 이 강 우
발행처 : 통 계 청

㉾ 135-723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47-15

인쇄처 : 공 명 문 화 인 쇄 사